

Harry Potter와

Harry Potter and the Goblet of Fire

불의 잔

제4권

I

조선·K·풀럼 김예원 최인자 옮김

문학수첩

LIBRO

해리포터와 불의 잔(제 4 권 i)

조앤 · K · 롤링 / 김혜원 · 최인자 옮김

제 1 장

리들 하우스

리들 가족이 그 저택에서 살았던 것은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리틀 행글턴

마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저택을 '리들 하우스'라고 불렀다. 기들 하우스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유리창이 여기저기

깨져 있었으며 지붕도 군데군데 기와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깨진 창문들을 가리기 위해

덕지덕지 붙여 놓은 나무 판자는 마치 흉터처럼 보였다. 제멋대로 뻗은 담쟁이 덩굴은 리들

하우스를 온통 무성하게 뒤덮고 있었다. 한때는 훌륭한 정원이 딸린, 인근 몇 킬로미터

내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건물이라는 명성을 자랑했던 리들 하우스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하고 버려진 저택이 되었다.

리틀 행글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그 낡은 저택이 어쩐지 '으스스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50년 전에 리들 하우스에서 벌어진 어떤 이상하고 끔찍한 사건 때문이었다.

마을 노인들은 아직까지도 얘깃거리가 떨어지면 으레 그 당시에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떠들기를 좋아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우려낸 그 이야기는 여기저기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져서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누가 이야기하는 처음 시작 부분은 똑같았다. 50년 전의 어느 여름날 새벽,

하녀가 거실로 들어갔다가 리들 가족 세 사람이 모두 처참하게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리들 하우스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던 시절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깜짝 놀란 하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미친 듯이 마을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자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깨웠다.

"주인님 식구들이 모두 죽었어요! 두 눈을 부릅뜬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저녁 식사 때 모습 그대로 말이에요!"

경찰은 그 신고를 받자마자 즉시 출동했다. 리틀 행글턴 마을 전체가 온통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리들 가족의 참사를 보고 흥분과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빈말이나마 리들 가족을

애도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리들 가족은 그 마을에서 원성이 자자했기 때문이었다.

리들 부부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거만하고 무례한 속물이었으며, 아들인 톰은 부모보다

한 술 더 뜨는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오직 살인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었다. 멀쩡히 살아 있던 건강한 가족 세 명이 하룻밤 사이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떼죽음을 당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에 '사형수'라는 이름의 선술집은 수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온 마을이

살인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리들 하우스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사람이 나타나자, 일순 분위기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요리사는 선술집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조금 전데 프랭크 브라이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따뜻한 집을

놔두고 선술집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충분히 그 보상을 받은 셈이었다.

"프랭크가!" 그 소식을 듣고 몇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다. "그럴 리가 없어!"

프랭크 브라이스는 리들 하우스를 관리하는 정원사였다. 프랭크는 리들 하우스 정원에

있는 아주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딱딱하게 마비된 다리를 끌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프랭크는 지금까지 줄곧 리들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성미가

유별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시끄러운 것을 지독하게 싫어했다. 사람들은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요리사에게 술을 사 주면서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백포도주를 네잔이나 마신 후에 요리사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성격이 좀 무뚝뚝했어요. 아마도

백번은 더 대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프랭크는 절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건……." 바에 있던 한 여자가 입을 열었다. "프랭크는 아주 꼼찍한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런 꼼찍한 일을

저지를 만한 이유는……."

"그 사람 말고는 또 누가 뒷문 열쇠를 갖고 있죠?" 요리사가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정원사는 오두막집에 항상 비상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밤에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어요! 깨진 창문도 없다구요! 프랭크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커다란 저택으로 몰래 들어갔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혹에 찬 시선을 주고받았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험상궂게 보인다고 생각했어.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 이야."

바에 있던 한 남자가 툴툴거렸다.

"프랭크의 성격이 괴팍하게 변한 건 다 전쟁 탓이라오."

선술집 주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나라면 절대로 프랭크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안 그래요, 도트?"

구석에 앉아 있던 여자가 약간 흥분한 듯이 말했다.

"그래, 성질이 더럽긴 하지." 도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아직도 생각나.

프랭크가 어렸을 때……."

다음날 아침이 되자, 리틀 행글턴 마을에서는 프랭크 브라이스가 리들 가족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 마을 그레이트 행글턴의 어둠침침한 경찰서에서는 프랭크가 완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리들 가족이 죽던 날 밤에 그 저택 근처에서 본

사람이라고는 새까만 머리카락에 얼굴이 창백한, 그 마을에서 처음 본 십대 소년뿐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하지만 리틀 행글턴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런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경찰은 프랭크가 꾸며 낸 이야기가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사태는 프랭크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리들 가족의 검시 결과는

단번에 모든 상황을 바꿔 놓고 말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경찰도 이렇게 이상한

보고서를 받아 보기는 처음이었다. 시체를 부검한 검시관 팀은, 리들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도 독살되거나 날카로운 무기에 찔리거나 총에 맞거나 목이 졸렸거나 혹은 그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상해도 입은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시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리들 가족은 죽었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들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다. 검시관들도 그 시체를 보고 몹시 당황한 것 같았다. 보고서

끝 부분에는(그래도 그 시체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굳게 결심한

듯이) 리들 가족은 모두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그 보고서를 보고 몹시 실망하면서 투덜거린 것처럼, 도대체 하루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겁에 질려서 죽었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세 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다니…….

리들 가족이 살해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경찰은 프랭크를 석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에 리들 가족은 리틀 행글턴 마을의 교회 묘지에 매장되었다.

리들 가족의 묘는 한참 동안이나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아직 의혹의 검은

구름이 미쳐 가시기도 전에, 프랭크 브라이스가 리들 하우스의 정원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돌아갔다.

"난 프랭크가 리들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믿을

수 없어." '사형수'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트가 말을 이었다. "만약 프랭크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 마을을 떠나겠지. 프랭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별 수 있겠어?"

하지만 도트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프랭크는 리틀 행글턴을 떠나지 않았다.

프랭크는 여전히 리틀 하우스에 머물면서 새로 입주한 다른 가족을 위해 정원을 가꾸어

주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사온 가족을 위해서……. 왜냐하면 리틀 하우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족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리틀 하우스에 입주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저택이 어쩐지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어쩌면 그 원인이 가운데 하나가

프랭크였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되자 그 저택은 곧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리틀 하우스를 구입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은 그 마을에서 살지도

않았으며 그 저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금상의'

이유'로 저택을 보유만 하고 있는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부유한 소유주는 정원 일을 하는 프랭크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주었다. 일흔일곱

번째 생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프랭크는 거동이 몹시 불편한 상태였다. 귀도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부상당한 다리도 점점 더 뻣뻣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에는 여전히 꽃밭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곤 했다.

그래도 잡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서 거의 프랭크를 뒤덮을 정도였다.

잡초를 뽑는 일이 몹시 힘들긴 했지만, 마을 소년들의 적대적인 태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을 소년들은 습관적으로 리틀 하우스의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곤 했다. 마을

소년들은 또 프랭크가 열심히 일해서 말끔하게 가꾸어 놓은 잔디밭으로 자전거를 몰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한두 번은 그냥 낡은 저택 안으로 침입한 적도 있었다.

마을 소년들은 프랭크 노인이 헌신적으로 저택과 정원을 가꾸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정원으로 나온 프랭크가 지팡이를 마구 휘둘러 가며

순 목소리로 고함을 질러대는 모습을 보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왜 마을 소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지 프랭크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 애들은 프랭크가 리틀 가족을 죽인 살인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애들을 키우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래서 8월의 어느 날 밤, 문득 잠에서 깨어난 프랭크가

낡은 저택에서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았을 때에도, 처음에는 그저

마을 소년들이 또다시 짓궂은 장난을 하는 줄만 알았다.
프랭크가 잠에서 깨어난 건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프랭크는 빼근한 무릎의 통증을 달래기 위해 물병에
더운 물이나
다시 채울 요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으로 들어간
프랭크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주전자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든
프랭크의 눈에,
리들 하우스의 이층 창문에서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불빛이 보였다.
프랭크는 단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마을 소년들이 또다시
저택으로 침입한 것이다. 불빛이 깜박거리는 걸 보면, 이제 막 불을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았다.
리들 가족 살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서 심문을 당했던
프랭크는 그
이후로 줄곧 경찰을 불신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경찰서에 연락할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프랭크의 오두막집에는 전화기가 없었다.
프랭크는 즉시 주전자를 내려놓은 후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층으로 올라가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다. 잠시 후에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 프랭크는 고리에 걸려 있던
녹슬고
낡은 열쇠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벽에 기대 놓았던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갔다.
리들 하우스의 현관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간 흔적이 전혀 없었다. 창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절뚝거리면서 저택 뒤로 걸어간 프랭크는 담쟁이 덩굴로 거의
가려진 뒷문을
향해 살며시 다가갔다. 그리고 낡은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집어 넣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열었다.
프랭크는 동굴처럼 어두운 부엌으로 들어갔다. 무엇인가 썩는 것 같은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비록 여러 해 동안 저택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프랭크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현관으로 통하는 문의 위치를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 프랭크는
손으로 앞을
더듬으면서 문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발소리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귀를 쪽긋 세운 채, 프랭크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현관문 양쪽에 있는 창살이 달린 창문 덕분에 그 주위는 약간 밝았다. 프랭크는
바닥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면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두껍게 쌓인 먼지 덕분에 프랭크가 올라가는 발소리나 지팡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층계참에서 오른쪽으로 막 돌아섰을 때, 프랭크는 단번에 침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챘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있었던 것이다. 그 틈새로 훌러나온
불빛이 어두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프랭크는 지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조용히 그 문을 향해 다가갔다.
프랭크는
조심스럽게 방을 살짝 엿보았다. 벽난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대관절 누가
벽난로에 불을 피운 것일까?
갑자기 방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프랭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병에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주인님."
"그건 나중에 먹도록 하지."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번에도 역시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아주 날카롭고 찬 바람이 쌩 지나갈 정도로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그
목소리를 듣자, 프랭크는 뒤통수에 드문드문 나 있는 머리카락이 바싹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윔테일, 나를 옮겨라. 벽난로와 좀더 가까운 곳으로……."
프랭크는 좀더 잘 들으려고 오른쪽 귀를 문에 바싹 갖다대었다. 달그락하고
무엇인가
딱딱한 것 위에 병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무거운 의자가
움직이면서
마룻바닥을 긁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작달막한 체구의 남자가
문쪽으로 등을
돌린 채, 의자를 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있는 그 사람의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대머리였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프랭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기니는 어디 있나?"
차가운 목소리가 물었다.
"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아마도 주위를 감시하기 위해 나간
것
같습니다……."
윔테일이 초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기니의 독을 뽑아라, 윔테일." 두 번째 목소리가
명령했다.
"아무래도 나는 밤에 다시 그걸 먹어야 할 것 같다. 여행을 해서 그런지 몹시
피곤하군."

프랭크는 이맛살을 잔뜩 찌푸린 채, 귀를 바싹 갖다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에 윔테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주인님,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무를 예정입니까?"
"일주일." 차가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어쩌면 좀더 오랫동안 있게 될지도
모르지. 이곳은
그런대로 편안하군. 그 계획은 아직 시작할 수 없어. 퀴디치 월드컵이 끝나기
전에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까……."
그 순간 프랭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마디가 긁은 손가락으로 컷구멍을
후볐다.
'퀴디치'라는 이상한 말을 듣긴 들었지만, 아마도 컷속을 메우고 있는 귀지
때문에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퀴…… 퀴디치 월드컵이라뇨, 주인님?" 윔테일이 의아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프랭크는 손가락으로 훨씬 더 세게 콧구멍을 후볐다). "용서하세요, 주인님. 하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째서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정말 멍청하군, 웜테일. 지금은 세계의 모든 마법사들이 영국으로 몰려들고 있단 말이다.

그리고 골치 아픈 마법부 놈들이 전부 나서서 눈에 불을 켜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원을 확인할 거야. 머글들이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을 테니까…….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게 좋아."

프랭크는 더 이상 귀를 후비지 않았다. '마법부'와 '마법사' 그리고

'머글'이라는 이상한

단어들을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분명했다. 이런 암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다. 스파이와

범죄자. 프랭크는 지팡이를 더욱 단단히 잡으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주인님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웜테일이 신중하게 물었다.

"물론이다, 웜테일."

차가운 목소리가 마치 위협이라도 하듯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잠시 동안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웜테일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다. 마치 용기를 잃어버리기 전에 꼭

말해야겠다는 듯이…….

"해리 포터가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해리 포터 없이 그 일을 하자는 말이냐?" 두 번째 목소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다……."

"주인님, 제가 그 아이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웜테일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만약에 우리가 다른 마녀나 마법사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일이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마법사를 이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를 안에 적당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올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 잠시 동안 주인님 곁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제가 변장에 아주

능숙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 그건 사실이야……."

두 번째 목소리가 신중하게 말했다.

"주인님, 그렇다면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리 포터에게 손을 뻗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애는 워낙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웜테일은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는 자진해서 다른 마법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건가? 나를 돌보는 일이……"

귀찮고 따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웜테일, 즉시 나를 버리고 달아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주인님! 전…… 전 주인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짓말하지 마!" 두 번째 목소리가 마치 위협을 하듯이 말했다. "웜테일, 난 모든 걸 알

수 있어! 너는 나에게 돌아온 걸 후회하고 있지. 그래,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비위가

상하는 거야, 나를 볼 때마다 네가 움찔움찔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나를 만질 때마다

몸서리를 치는 것도 다 느낄 수 있지……."

"아니에요! 저는 헌신적으로 주인님께……."

"나에게 헌시하는 건 단지 네가 비겁하기 때문이야. 달리 갈 곳이 있었다면 굳이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자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몇 시간마다

그걸 먹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내기니의 독을 뽑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주인님은 기력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힘도 아주 강해졌고……."

"거짓말!" 두 번째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조금도 강해지지 않았어. 단지

며칠만이라도 혼자 남게 되면……. 너의 서투른 간호로 그나마 회복한 힘마저도 죄다

잃어버리고 말 거야. 입닥쳐!"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던 웜테일이 즉시 입을 다물었다.

잠시 동안 프랭크는 딱딱거리면서 타 들어가는 장작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또다시 두 번째 남자가 저의 쉬쉬거리는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아이를 이용하는 건 내가 이미 너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에 다른 마법사를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끈기 있게 기다렸어. 몇 달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내 계획대로

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보호 따위는 무용지물이 될 거야. 오직 네가 약간만 더

용기를 내면 된다, 웜테일. 볼드모트 경의 엄청난 분노를 보고 싶지 않다면 어서 용기를

되찾으란 말이다!"

"주인님, 하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저는 머리 속에서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인님, 버사 조킨스의 실종은 금방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이 일을 진행한다면, 만약 제가 저주를 내린다면……."

웜테일은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껄였다.

"만약이라구?" 두 번째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만약 웜테일, 네가 충실하게 나의

계획을 따르기만 한다면, 마법부는 그런 일에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해치우도록. 공연히 법석 떨지 말고……. 내가 직접 그 일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금의 내 상태로는……. 자, 웜테일. 이제 장애물 하나만 더 없애면 해리

포터를 손에 넣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너 혼자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나의

충실한 부하가 다시 우리와 합류할 것이다!"

"저도 충실한 부하입니다!"

웜테일은 약간 토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웜테일, 난 똑똑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절대로 훈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자네는 불행하게도 그 어느 쪽으로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하지만 주인님을 찾아낸 건 접니다." 웜테일은 언짢은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했다.

"주인님을 찾아낸 건 바로 저라구요, 게다가 버사 조킨스를 데리고 온 사람도……."

"그건 사실이지." 두 번째 남자가 재미있다는 투로 말했다. "그런데 웜테일,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똑똑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자네는 그 여자가 얼마나

유용한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나? 안 그런가? 자네가 버사를 잡아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저는 버사가 유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거짓말!" 두 번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이전보다도 더욱 재미있다는 투였다.

"하지만……버사의 정보가 매우 요긴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지 않겠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테니까……. 그 점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게 될 것이다, 웜테일. 나는 자네가 날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할 생각이다.

나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지경인 그런 일을 말이다.……."

"저…… 정말이세요, 주인님? 혹시 무슨 일인지?"

웜테일은 다시 겁에 질린 것 같았다.

"아, 웜테일. 지금 그 일을 알려 주면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없지 않은가?

자네의 역할은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야……. 하지만 약속하지, 자네는 버사 조킨스만큼이나 유용했었다는

영예를 안게 될 거야."

"혹시……. 혹시……." 입이 바짝 말랐는지 웜테일의 목소리가 갑자기 탁하게 변했다.

"저도…… 죽이려는…… 건가요?"

"웜테일, 웜테일." 차가운 목소리가 달래듯이 말했다. "내가 왜 자네를 죽이겠나? 내가

버사를 죽인 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 심문이 끝난 후에 버사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었지. 한마디로 무용지물이었어. 마법부로 돌아간 버사가 휴가를 즐기던 도중에

자네를 만났다고 상부에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나? 마법부는 당장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히겠지. 마법부는 당장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발칵 뒤집히겠지.

마법부의

마녀가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마법사들을 길가 여관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웜테일은 프랭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다. 갑자기 두 번째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 소리는 말투만큼이나 차갑고 불쾌한 인상을 주었다.

"차라리 버사의 기억을 바꾸는 게 좋았을 거라구? 그녀를 죽이지 않고 말이지? 아니야,

웜테일, 그건 너무 위험해. 기억력 마법은 강력한 마법사의 힘으로 깨어질 수도 있거든.

내가 버사를 심문할 때 이미 입증되었던 것처럼……. 버사로부터 빼낸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기억력에 대한 모욕이 될 거야, 웜테일."

복도에서 있던 프랭크는 손에서 지팡이가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에서 땀이

축축하게 배어 나왔기 때문이다.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차가운 목소리의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하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즐거운 듯이……. 그 남자는 몹시 위험한 인물이다.

미치광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 해리 포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아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프랭크는 지금부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사악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경찰에 알려야만 한다. 몰래 이 저택에서 빠져나간 후에 곧장

마을로 내려가서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야만 한다…….

그 때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프랭크는 엉거주춤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한 번만 더 저주를 내리면……호그와트에 있는 나의 충실한 부하가……. 해리 포터는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웜테일. 그건 분명해.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겠다. 쇳! 조용히……. 내기니의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두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야릇하게 변했다. 그 남자는 프랭크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프랭크는 아마도 그 남자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쇳쇳 거리면서 섬뜩한 소리를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랭크의 등 뒤에서 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복도를 향해 고개를

돌린 프랭크는 깜짝 놀라서 그만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어떤 물체가 주르르

미끄러지듯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물체가 벽난로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다가오자, 프랭크는

그것이 길이가 무려 4 미터나 되는 거대한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대한 뱀은 두꺼운 먼지가 쌓인 마룻바닥에 구불구불한 자국을 남기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프랭크는 너무나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뱀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살인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뿐이었다. 만약 프랭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꾸물거린다면 거대한 뱀이 달려들어서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미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그 뱀은 벌써 프랭크의 발 밑을 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거대한 뱀이 프랭크를 스치면서 지나갔던 것이다.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거대한 뱀은 문간 너머에 있는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내는 쇳쇳거리는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뱀꼬리가 문틈 사이로 사라졌다.

프랭크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마치 경련이라도 일어나 것처럼 부들부들 떨렸다. 차가운 목소리의 남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쇳쇳거렸다. 문득 프랭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저 남자는 지금 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프랭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뜨거운 물병을 가지고 편안한 침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리가 저절로 후들후들 떨렸다.

"조금 전에 내기니가 흥미로운 말을 했다네, 웰테일."

차가운 목소리가 불쑥 입을 열었다.

"저……정말인가요, 주인님?"

웰테일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정말이야, 그래." 차가운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지금 방문 앞에서 머글 늙은이가 서 있다는 거야. 우리의 말을 엿들으면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거칠게 방문이 열렸다. 프랭크는 미처 몸을 숨길 틈이 없었다. 땅딸막한 체구의 대머리 남자가 공포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프랭크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머리 남자의 눈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며 코는 불쾌한 느낌이 들 정도로 뾰족했다. 나이가 별로 많은 것 같진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온통 하얗게 세어 있었다.

"어서 그 사람을 안으로 모시게, 웰테일. 손님이 오셨는데 예의를 차려야지?" 차가운 목소리는 벽난로 앞에 놓여 있는 낡은 안락의자에서 훌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프랭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거대한 뱀은 마치 꼼짝하게 만든 애완견의 모조품처럼 낡을 대로 낡은 벽난로 깔개 위에서 땄리를 틀고 있었다. 웰테일은 프랭크를 쳐다보면서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프랭크는 지팡이를

더욱 굳게 잡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문턱을 넘어갔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방을 비추는 빛이라곤 벽난로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전부였다.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벽에 가늘고 기다란 그림자를 만들어 놓았다. 프랭크는 안락의자의 등받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안락의자에 앉아 있던 그 남자의 키가 아주 작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걸 들었나, 머글?"

그 남자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날 뭐라고 불렀소?"

프랭크는 용기를 내면서 반문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프랭크는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전쟁터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머글이라고 불렀다." 차가운 목소리가 말을 이었다. "그 말은 당신이 마법사가 아니라는 뜻이지."

"마법사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소." 프랭크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건 그저 오늘 밤에 경찰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뿐이오. 당신은 이미 살인을 저질렀고 앞으로 더욱 많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소! 하지만 당신은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요." 프랭크는 문득 생각이 난 것처럼

이렇게 덧붙였다. "아내는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소. 만약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은 아내가 없어." 차가운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게다가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당신은 이곳에 온다는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

볼드모트 경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 머글. 나는 다 알고 있어……. 언제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 프랭크가 거칠게 말했다. "자네가 귀족이란 말이지? 그런데 당신은 아주 무례하군.

도통 예의가 없어. 뒤로 돌아서서 남자답게 얼굴이라도 좀 보고 말하는 게 어때?"

"하지만 난 보통남자가 아니야, 머글." 차가운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말했다. 불꽃이 턱탁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인간보다 훨씬,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니까. 하지만…… 왜 안 되겠나? 좋아. 당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지…….

웜테일, 의자를 좀 돌려라."

부하가 투덜거리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금 뭘 하고 있나, 웜테일?"

작달막한 체구의 남자는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웜테일은

볼드모트가 앉아 있는 안락의자를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벽난로 깔개 위에는

거대한 뱀이 땅리를 틀고 있었다. 웜테일은 서서히 안락의자에 돌리기 시작했다.

안락의자의

다리가 벽난로 깔개에 걸리자, 뱀이 삼각형 모양의 징그러운 머리를 꼿꼿하게 치켜들었다.

잠시 후에 벽난로를 향해 놓여 있던 안락의자가 방향을 바꾸었다. 프랭크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프랭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팡이를 마룻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공포에 마구 질려서 마구 비명을 질렀다. 완전히 네이

빠져버린 프랭크는 안락의자에 앉아 있던 그것이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

프랭크는 초록색 불빛이 번쩍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뭔가 허공을 가르면서 획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프랭크 브라이스는 썩은 통나무처럼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몸이

바닥에 채 달기도 전에 죽었다.

리들 하우스에서 300 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 해리 포터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다.

제 2 장

흉터

해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해리는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한 사람처럼 가쁘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갑자기 이마에 나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타 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뜨겁게 달궈진 철사를

이마에 갖다대고 짓누르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해리는 여전히 한 손을 흉터에 갖다댄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뻗어서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안경을 집어 들었다. 안경을 쓰자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오렌지색으로 물든 침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창 밖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이 침실을 어슴푸레하게 밝혀 주었다.

해리는 다시 조심스럽게 흉터를 어루만졌다. 여전히 흉터가 쿡쿡 쑤시면서 아팠다.

해리는 램프를 켠 후에 침대에서 기어 나왔다.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기 위해 옷장 문을

열었다. 깡마른 체격의 열네 살짜리 소년이 연한 초록색 눈으로 해리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그 소년의 눈길은 어쩐지 무척 불안한 것 같았으며 머리카락도 마구 흐트러져

있었다.

해리는 거울 속에 비친 번개 모양의 흉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팠다. 그래,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무슨 꿈을 꾸었는데……. 해리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떠올리기 위해 애를 썼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해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두 명……. 모르는 사람이 한 명……. 해리는 기억을 더듬기 위해 얼굴을 찌푸리면서 정신을 집중했다……. 어두운 방의 희미한 영상이 떠올랐다……. 거대한 뱀 한 마리가 벽난로 깔개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웜테일이라 불리던 땅딸막한 체구의 피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볼드모트! 문득 볼드모트의 형상이 떠오르자, 해리는 마치 커다란 얼음 조각이 위 속으로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간담이 서늘해졌다……. 해리는 두 눈을 꼭 감고 볼드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았다……. 해리가 아는 거라곤 볼드모트의 안락의자가 빙 돌려지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뿐이었다. 조금 전에 해리는 너무나 무서운 공포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갑자기 흉터가 아파왔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던 걸까? 그런데 그 노인은 대관절 누구였을까? 분명히 꿈 속에서 어떤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그 노인이 고목처럼 마룻바닥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머리 속이 어질어질 하고 혼란스러웠다. 해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 방의 영상을 떠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희미하게 그 방을 비추던 벽난로의 불빛……. 하지만 그것은 오므린 두 손에 물을 계속 담고 있기 위해 애를 쓰는 것과 같았다. 꿈 속의 기억은 해리가 붙들고 있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빠른 속도로 새어 나가고 있었다……. 볼드모트와 웜테일은 누군가를 죽였다……. 그들이 살해한 사람의 이름도 얼핏 들었던 것 같았지만, 해리는 그 이름을 도무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해리! 해리는 얼굴에서 두 손을 내린 후에 살며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뭔가 이상한 것을 보게 되거나 않을까 기대하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그 방에는 이상한 것들이 아주 많았다. 침대 발치에는 커다란 나무 트렁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는 커다란 냄비와 빗자루, 까만 망토, 여러 가지 마법책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해리의 책상 한켠에는 양피지 두루마리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다른 한켠에는 커다란 새장이 놓여 있었다. 보통 때라면 눈처럼 하얀 부엉이 헤드위그가 새장의 횃대에 앉아서 끄덕끄덕 출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마룻바닥에는 책이 한 권 펼쳐져 있었다. 어젯밤에 해리는 그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책 속의 그림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밝은 오렌지색 망토를 입은 사람들이 빗자루를 타고 바쁘게

날아다니면서 서로에게 빨간 공을 던지고 있었다.
해리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던 책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마법사 가운데 한
명이
15 미터 높이의 골대에 매달린 고리 속으로 멋지게 공을 집어넣어 점수를 따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에 해리는 그 책을 턱 덮었다. 해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퀴디치조차도 그 순간만은 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다. 해리는 <캐논
팀과의
비행>이라는 책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걷었다. 프리벳 가는 흐릿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토요일 새벽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다. 특별히 눈길을 끌거나 하는 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서성거리는 고양이 한 마리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집들은 창문에 매달린
커튼을 죄다
내린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그런데…… 해리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손가락으로 흉터를 어루만졌다. 지금 자꾸만 해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통증이 아니었다. 해리는 이미 고통이나 부상을 당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
한때 오른쪽 팔의 뼈가 뚱뚱 사라졌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 뼈가 다시 자라났던
적도
있었다. 물론 뼈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해리는 줄곧 고통에 시달렸다. 그런
일을 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그 팔이 30 센티미터 길이의 날카로운 독니에
찔리기도 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다가 15 미터 상공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다.
이상야릇한 사고와 부상은 해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다. 호그와트의
마법학교에
다니면서 말썽거리만 골라 찾아 다니는 비상한 재주를 가진 이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지금 해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전에 이마의 상처가 아팠을 때,
볼드모트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다. 볼드모트가 프리벳 가에 숨어 있다니…….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해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혹시라도 계단이
삐걱거리거나
망토 자락이 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갑자기 옆방에서 천둥이라도 치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내 그 소리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해리의 사촌 두들 리가 코를 고는 소리였다.
해리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바보처럼 깜짝 놀라다니……. 지금 이 집에는 버논
이모부와

페트니아 이모 그리고 두들리 밖에 없다. 그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으며,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거나 고통을 느끼지도 않는다.

해리는 지금 이 시간, 더즐리 가족이 잠을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 그들이 깨어 있을 때에는 해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버논 이모부와 페트니아

이모와 두들리는 해리의 유일한 친척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형태든 마법이라면 놉시 혐오하고 경멸하는 머글이었다. 그것은 해리가 이 집에서 쓰레기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해리가 지난 3년 동안 성 브루터스의 구제 불능 소년 선도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집에 없었던 거라며 해명하고 다녔다.

물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해리는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아직 미성년 마법사였기 때문에 호그와트 밖에서 마법을 쓰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더즐리 가족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기만 하면 무조건 해리의 탓으로 돌렸다. 따라서 해리는 그들에게 마법세계에서 보냈던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논하거나 비밀을 털어놓거나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마의 흉터에서 느끼는 통증이나 볼드모트에 대한 걱정 따위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해리가 애초에 더즐리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은 바로 볼드모트 때문이었다.

만약 볼드모트가 없었다면, 해리의 이마에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도 없었을 것이고 부모님도 여전히 살아 계셨을 것이다…….

1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였으며, 13년 동안 꾸준히 힘을 회복하고 있는 볼드모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리의 나이는 고작 한 살이었다.

볼드모트가 그의 집을 습격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처참하게 살해했던 것이다. 포터 부부를 해친 후에, 볼드모트는 요술지팡이를 들고 해리를 겨냥했던. 그리고 마법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성인 마녀와 마법사들을 해치울 때 사용했던 저주의 주문을 내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볼드모트의 마법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저주는 무방비 상태의 어린 꼬마를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문을 내린 볼드모트를 향해 되돌아갔다. 그 충격으로 인해 해리의 이마에는 번개 모양의 흉터가 생겼으며,

볼드모트는 가까스로 목숨만 연명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시에 모든 힘을 잃어버린 볼드모트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달아났다.

볼드모트가 종적을 감추자 오랫동안 공포에 질린 채 살고 있던 마법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볼드모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해리 포터는 단번에 유명해졌다. 그러나 정작 해리 자신은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열한 살이 되던 생일날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해리는 마치 단단한 물체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마법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리'라는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자기가 유명 인사라는 사실을 안 해리는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호그와트에 도착한 후에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항상 해리의 뒤를 따라다녔다. 이번 여름 방학이 끝나면 해리는 호그와트의 4 학년이 될 예정이다. 해리는 다시 성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이 주일이나 더 기다려야만 했다.

해리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 번 방을 둘러보았다. 해리는 눈길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일 카드에 가서 멍추었다. 그것은 두 명의 단짝 친구가 해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7월 31일에 보내 준 카드였다. 번개 모양의 흉터가 몹시 아팠다고 말하면, 그 애들은 뭐라고 할까? 근심에 가득 찬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들릴 것만 같았다.

"흉터가 아프다구? 해리, 그건 정말로 심각한 거야……. 덤블도어 교수님께 당장 편지를 써! 나는 <일반적인 마법사 질병과 통증>이라는 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어……. 어쩌면 저주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이 그 책에 실려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 헤르미온느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충고할 것이다. 당장 호그와트의 거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책을 찾아보라고 말이다. 해리는 창 밖으로 고개를 돌려서 잉크빛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과연 책이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볼드모트처럼 뛰어나 마법사의 저주를 받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해리 한 명뿐이다.

적어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법사 질병과 통증>이라는 책의 목록에서 해리의 증상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다.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에게 알리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해리는 여름 방학 동안 덤블도어 교수님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느긋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은빛 수영을 길게 늘어뜨린 덤블도어 교수가 팔다리를 쭉 뻗고 드러누워서 구부러진 매부리코에 선판 로션을 바르고 있는 모습이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뾰족한

모자를 쓰고 바닥까지 질질 끌리는 마법사 망토를 걸친 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덤블도어의 모습이 떠오르자, 해리는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사실 덤블도어 교수가 어디에 있든지, 해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헤드위그는 반드시 덤블도어 교수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의 부엉이는 지금까지 주소가 전혀 없는 우편물을 수없이 날랐지만, 편지 배달에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도대체 뭐라고 써야 할까?

덤블도어 교수님께.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 이마에 나 있는 흉터가 아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리 포터 올림.

해리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 우스꽝스러웠다.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순 없어. 그런데 단짝 친구 론 위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빨간 머리 론이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심각하게 말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네 흉터가 아파? 하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네 근처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넌 알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이 또다시 너를 해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야. 안 그래?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해리. 어쩌면 저주 흉터는 언제나 조금씩 쑤시고 아픈 건지도 몰라……. 아빠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게 좋겠어……."

위즐리 씨는 마법부의 머글 문화유물 오용 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마법사였다. 하지만 위즐리 씨도 저주 마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어쨌거나 해리는 이마의 흉터에서 통증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위즐리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 위즐리 부인은 헤르미온느보다 훨씬 더 야단법석을 떨 게 너무나 분명했다. 론의 쌍둥이 형 프레드와 조지는 해리가 겁을 내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위즐리 가족은 해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족이었다.

해리는 머잖아 위즐리 가족이 자기를 집에 초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론이 퀴디치 월드컵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해리는 위즐리 가족을 방문했을 때, 이마의 흉터를 걱정하는 온갖 질문들은 결코 받고 싶지 않았다.

해리는 다시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해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스스로 그런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약간 창피하긴 하지만) 마치 부모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 줄 수 있는 보호자였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 마법사, 진심으로 해리를 염려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어둠의 마법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잠시 후에 해리의 머리 속에 한 가지 해답이 떠올랐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백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 사람은 바로 시리우스였다.

해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후에 얼른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양피지 조각을 끌어당기고는 독수리 깃펜에 잉크를 잔뜩 묻힌 후에 '친애하는 시리우스에게'라고 적었다.

해리는 편지를 쓰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의논하는 게 좋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금방 시리우스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약간 의아스러웠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시리우스가 자신의 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고작해야 두 달 전이었기 때문이다.

해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시리우스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시리우스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즈카반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즈카반은 영혼을 빨아먹는 눈먼 악마인 디멘터라는 생물이 지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마법사 감옥이었다. 시리우스가 아즈카반에서 탈출하자, 디멘터들이 달아난 죄수를 찾기 위해 호그와트를 감시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시리우스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시리우스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그 살인은 볼드모트의 추종자인 웜테일이 저지른 것이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웜테일이 죽었다고 믿고 있지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작년에 웜테일과 직접 대면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덤블도어 교수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믿어 주었을 뿐이다.

비록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해리는 마침내 더즐리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다. 일단 시리우스가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기만 하면, 해리는 대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일단 웜테일을 잡아서 마법부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뜻밖의 사고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생쥐로 변신한 웜테일이 재빨리 달아나는 바람에 시리우스도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벅벅이라는 히포그리프의 등에 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 이후로 시리우스는 계속 도망치는 중이었다. 만약 웜테일이 달아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해리는 새로운 가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여름 내내 해리의 머리 속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더즐리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다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우스는 해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대부가 있다는 사실은 해리의 마음에 한결 위안이 되었다. 호그와트에서 사용하던

잡다한 물건들을 침실에 놓아 둘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시리우스 덕분이었다.

더즐리 가족은 이전까지는 결코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더즐리

가족은 해리의 학교 트렁크를 총계참 벽장 속에 쑤셔 넣고 자물쇠로 굳게 잠가 버렸던

것이다. 이런 소동은 여름 방학 때마다 계속 되풀이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리를

구박하던 더즐리 가족은 내심 마법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애초에 해리가

아무런 마법도 쓰지 못하도록 모든 물건들을 빼앗았던 것이다.

하지만 해리에게 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더즐리 가족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 도로 바뀌었다. 그 대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친 위험한 살인자였던 것이다.

따라서 해리는 시리우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더즐리 가족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다. 프리벳

가로 돌아온 후에 해리는 시리우스로부터 두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들을 배달한 것은

부엉이가 아니라(마법사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화려한 빛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열대

지방의 새들이었다.

헤드위그는 이 화려한 불청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새들은 다시 날아가기 전에

헤드위그의 물통에 담긴 물을 마셨다. 헤드위그는 그 점이 몹시 못마땅한 것 같았다. 그러나

해리는 그 새들이 마음에 들었다.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들을 볼 때마다 야자나무와 하얀

모래사장이 생각났던 것이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어디에 있든지(시리우스는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가로챌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밝히지

않았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를 원했다. 문득 해리의 머리 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시리우스는 왜 남쪽으로 간 것일까? 그래, 어쩌면 디멘터들이 밝은 햇살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일지도 몰라. 디멘터들은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 살아 남기 힘들 거야.

히리우스가 보낸 편지들은 아주 유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해리는 그 편지들을 침대

밑 마루판자 속에 감춰 두었다. 그 느슨한 마루판자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던 시리우스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은 시리우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였다. 정말로…….

서서히 동이 트면서 여명이 밝아 오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비치자, 침실 벽들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버논 이모부와 페트리니아 이모도 이제 막 일어난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꼬깃꼬깃한 양피지 조각들을 대충 치우고 조금 전에 완성한 편지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다. 시리우스 아저씨께 지난 번에 보내 주신 편지는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 새의 덩치가 너무나 커서 하마터면 제 방 창문으로 들어오지 못할 뻔했답니다.

이곳은 언제나 똑같답니다. 두들리의 다이어트는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모는 두들리가 어제 자기 방으로 도넛을 몰래 갖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두들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용돈을 줄이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러자 굉장히 화가 난 두들리는 창 밖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입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이제 두들리에겐 관심을 쏟을 만한 메가-멀티레이션 3탄이 없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건 더러울 가족이 아저씨에게 잔뜩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탁만 하면 갑자기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박쥐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흉터가 또다시 아팠어요. 지난 번에 통증을 느꼈던 것은 볼드모트가 호그와트로 몰래 숨어 들어온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볼드모트가 제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혹시 저주를 받아서 생긴 흉터가 몇 년 후에도 가끔씩 아프기도 하나요?

히 편지는 헤드위그가 돌아오면 곧바로 부치도록 하겠어요. 헤드위그가 잠깐 먹이 사냥을 나갔거든요. 벽돌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세요.

해리 좋아. 잘 썼어. 해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악몽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해리는 헤드위그가 돌아오면 곧바로 보낼 수 있도록 양피지를 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의자에서 일어난 해리는 활짝 기지개를 켰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다시 옷장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거울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해리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제 3 장
초대
해리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갔다. 버논 이모부와 페트리니아 이모 그리고 두들리는 이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해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버논 이모부의

불그스름하고 커다란 얼굴은 조간 신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다. 페투니아 이모는 말처럼 푹 튀어나온 이빨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잔뜩 오므린 채 자몽을 네 조각으로 자르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잔뜩 화가 난 두들리는 사각형 식탁의 한 면 전체를 턱 차지하고 앉아서 주절주절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두들리의 접시에 자몽 4분의 1 조각을 담아 주면서 다정하게 말했다.

"여기 있다, 두들리."

두들리는 잔뜩 얼굴을 찌푸리면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학년말 통지서가 집에 도착한 다음부터 두들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두들리의 형편없는 성적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가 바로 두들리라고 주장했으며, 버논 이모부는 '내 아들이 공부벌레처럼 기를 쓰고 공부만 하는 계집애 같은 녀석이 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들은 또한 통지서에 적힌 두들리의 생활 기록부도 애써 외면하려고 했다. 거기에는 두들리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지적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애가 좀 거칠기는 해요. 하지만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그런 착한 아이라구요!"

페투니아 이모는 눈물을 흐리면서 변명했다. 그러나 통지서의 맨 밑에는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학교의 양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몇 마디 쓴 소견이 적혀 있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마구 침을 튀기면서 두들리가 비만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성장기의 소년이라고 우겼다. 두들리는 원래 뼈가 굵은 체격을 타고 났으며 사춘기의 일시적인 비만 증상으로 인해 다소 뚱뚱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페투니아 이모가 아무리 울먹이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 학교의 교복 용품점에는 더 이상 두들리의 몸에 맞을 정도로 큰 니커 바지(무릎 아래에서 졸라매는 느슨한 반바지)가 없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었다. 양호 선생님의 눈에 비친 두들리의 모습은 거의 새끼 범고래의 크기와 몸무게에 육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들리에게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말은 완전히 어불성설이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깨끗한 벽에 묻어 있는 손자국을 발견하거나 이웃 사람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일에는 매우 뛰어난 눈썰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뚱뚱하다는 사실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따라서-수많은 분노와, 해리의 침실 바닥까지 뒤흔들었던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페투니아 이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른 후에-새로운 방법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스멜팅 학교의 양호 선생님이 발송한 다이어트 식단이 냉장고에 붙여진 것이다.

그

식단에는 두들 리가 가장 좋아하는 탄산음료와 케이크, 초콜릿과 햄버거 같은 것들은 몽땅

빠져 있었고, 그 대신에 과일과 야채를 비롯해서 버논 이모부가 '토끼밥'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것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두들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들 역시 그 식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해리의 접시 위에 자동 4 분의 1 조각을 담아 주었다. 해리는

자신의 자동 조각이 두들리의 접시에 놓인 것보다 훨씬 더 작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페투니아 이모는, 두들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해리보다는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페투니아 이모는 이층의 느슨한 마루판자 밑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페투니아 이모는 해리가 그 다이어트 식단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여름 내내 당근이나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해리는 친구들에게 헤드위그를 보내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들은 즉시 해리가 그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헤르미온느는 달지 않은 과자들(헤르미온느의 부모님은 두 분다 치과 의사였다)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헤드위그 편으로 보내 주었다. 호그와트의 사냥터지기인

해그리드는 록케이크(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단단한 과자 또는 건빵: 역주)가 잔뜩 담긴

봉지를 보내 주었다(하지만 해리는 록 케이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해그리드가

만든 음식을 먹고 골탕먹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위즐리 부인은 부엉이

에롤을 시켜서 과일 케이크와 각종 파이들을 보내 주었다. 가엾은 에롤. 나이가 많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에롤은 그 음식들을 해리에게 전달하고 돌아간 뒤, 그대로 앓아눕고

말았다. 그리고 꼬박 닷새가 지난 후에야 겨우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다.

얼마 후에 해리는 자신의 생일(더즐리 가족은 해리의 생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갔지만)에 훌륭한 생일 케이크는 무려 네 개나 받았다. 론과 헤르미온느와 해그리드와

시리우스가 각각 하나씩 보냈던 것이다. 해리는 아직도 생일 케이크 두 개를 마루판자 밑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는 이층으로 올라간 후에 즐기게 될 멋진 아침 만찬을

고대하면서, 아무런 불평 없이 자동을 먹기 시작했다.

버논 이모부는 신문을 접은 후에 못마땅한 눈길로 자신의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그

접시에도 역시 4 분의 1 조각의 자동이 담겨 있었다.

"이게 아침 식사란 말이야?"

버논 이모부가 페투니아 이모를 쳐다보면서 불만스러운 듯이 투덜거렸다.

페투니아

이모는 매정한 표정을 지으면서 버논 이모부를 훑어보고는 고갯짓으로 두들리를 가리켰다.

두들리는 벌써 자신의 접시에 담긴 자동을 다 먹어 치우고는 게걸스러운 눈빛으로

해리의 자동을 심술궂게 노려보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체념한 듯이 수저를 집어 들면서

텁수룩한 콧수염이 너풀거릴 정도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버논 이모부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현관으로 나갔다.

페투니아 이모가 잠시 주전자에 눈길을 팔고 있는 사이에, 두들리는 번개같이 버논

이모부의 접시에 담겨 있던 자동을 슬쩍 가로챘다. 해리는 버논 이모부가 현관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이 마구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버논 이모부는 통명스럽게 대답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문이 닫히더니 현관에서

종이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

페투니아 이모는 찻주전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침부터

무슨 소동이람?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알기까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1분 가량 흐른

후에 버논 이모부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버논 이모부의 얼굴은 완전히

납빛으로 질려 있었다.

"너." 버논 이모부가 해리를 노려보면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 "거실로 와라, 당장!"

도대체 이번에는 또 무슨 일 때문에 난리법석을 더는 걸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던 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논 이모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다. 버논 이모부는 거칠게 문을 쾅 닫았다.

"그러니까……." 버논 이모부는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금방이라도 체포

영장을 내밀기라도 할 것처럼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요?' 해리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문득 이른 아침부터 버논

이모부의 성질을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턱없이 부족한 음식 때문에

버논 이모부는 이미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마당에 공연히 버논 이모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얌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막 도착했다." 버논 이모부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해리를 노려보았다. "편지다.

너에 대한……." 버논 이모부가 보랏빛으로 쓰여진 편지지를 휘두르면서 소리쳤다.

해리는 몹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누가 버논 이모부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 그것도 나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배원을 통해 편지를 배달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버논 이모부는 무서운 눈길로 해리를 노려본 후에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더즐리 부부에게

비록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해리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의 아들 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요.

해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월요일 밤에 퀴디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 아서가 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일등석 티켓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해리를 데리고 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일생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입니다. 영국은 지난 30년 동안이나 퀴디치 월드컵을 주최한 적이 없어서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답니다. 물론 우리는 나머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해리가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기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두 분의 답변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글 집배원은 지금까지 우리 집으로 편지를 배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뿐더러, 우리 집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해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몰리 위즐리

주신 편지에 붙인 우표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기를…….

버논 이모부는 편지를 모두 읽은 후에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슨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걸 좀 봐라."

그건 위즐리 부인의 편지가 들어 있었던 봉투였다. 그 순간 해리는 억지로 웃음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그 편지 봉투에는 온통 우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위즐리 부인이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더즐리네 집 주소를 써 놓은 앞부분 조금을 제외하고는…….

"위즐리 아줌마는 우표를 충분히 붙인 셈이네요."

해리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즐리 부인의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듯이……. 누구라도 그런 실수는 저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버논 이모부의 눈동자가 분노로 인해 자갑게 번뜩였다.

"그 집배원이 눈치를 챘단 말이다." 버논 이모부가 이를 악물면서 내뱉듯이 말했다. "이

편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척 알고 싶어했던 말이야. 집배원이 초인종을 눌렀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편지는 고작 다른 편지들보다 우표가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버논 이모부가 그런 일을 갖고 왜 그렇게 흥분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더즐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해리는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더즐리 가족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이 위즐리씨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아주 약간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알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버논 이모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별다른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담담하게 서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해리는 그토록 고대하던, 일생 일대의 큰 기쁨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위즐리 가족과 함께 꿈에 그리던 퀴디치 월드컵을 관람하는 것이었다. 만약 해리가 버논 이모부를 자극하는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혹시라도 버논 이모부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버논 이모부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계속해서 노려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해리는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다.

"론의 집으로 가도 될까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랏빛이 감돌고 있던 버논 이모부의 큼지막한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더니 콧수염이 꿈틀거렸다. 해리는 그 콧수염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버논 이모부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본능이 서로 충돌하면서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위즐리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해리를 보낸다면, 당연히 해리는 무척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해리가 행복해하는 꿀을 절대로 보지 못했던 버논 이모부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반면에, 나머지 여름 방학 동안 해리를 위즐리 부부의 집으로 보내는 것은, 버논 이모부에게는 무척 고마운 제안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해리가 집에 있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던 버논 이모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일이나 빨리 해리를 떠나 보내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 버논 이모부는 위즐리 부인이 보낸 편지를 다시 한 번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버논 이모부는 못마땅한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면서 위즐리 부인이 남긴 서명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마 이모부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해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즐리

아줌마는 제 친구 론의 어머니예요. 지난 학기말에 호그…… 아니, 학교로 가는 기차를 타는

론을 배웅하기 위해 역으로 나오셨잖아요."

해리는 '호그와트 급행 열차'라고 말할 뻔하다가 황급히 말을 바꾸었다.

호그와트라는

말을 했다간 버논 이모부의 성질을 돋울 게 너무나 뻔했다. 해리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그 집에서 거의 금기 사항이었다. 버논 이모부는 마치 무엇인가

대단히 불쾌한 것을 떠올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큼지막한 얼굴을 찡그렸다.

"땅딸막한 여자 말이니?" 마침내 버논 이모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빨간 머리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있던?"

해리는 눈살을 약간 찌푸렸다. 버논 이모부가 누군가를 '땅딸막하다'고 부르는 게 어쩐지

몹시 얼토당토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논 이모부의 아들 두들리는 세 살 이후로 계속

피둥피둥 살이 Wu 서 아슬아슬한 고비를 몇 번 넘기더니, 마침내 키보다 몸통 둘레가 더욱

커져 버렸던 것이다.

버논 이모부는 그 편지를 다시 한 번 정독하고 있었다.

"퀴디치라니?" 버논 이모부가 의아스러운 듯이 중얼거렸다. "퀴디치? 이 쓰레기 같은 건

또 뭐냐?"

해리는 또다시 화가 치미는 걸 느꼈다.

"스포츠예요. 빗자루를 타고 하는……."

해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알겠어!"

버논 이모부는 어쩔 줄 모르면서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해리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버논 이모부가 몹시 당황해하는 걸 보자,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버논 이모부는

자신의 집에서 '빗자루'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분명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 번 정독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다. 해리는 버논 이모부의

입술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두분의 답변을 보낼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버논 이모부는 못마땅한 듯이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버논 이모부가 내뱉듯이 물었다.

"그건 우리에게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의미예요." 해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버논 이모부가 말을 가로막기 전에, 재빨리 한 마디 덧붙였다.

"이모부도

아시잖아요, 부엉이 집배원. 마법사들은 부엉이를 이용해서 우편물을 배달해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버논 이모부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다. 마치 진절머리가 나는 욕설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버논 이모부는 분노로 인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재빨리 창문으로 시선을

돌리는 버논 이모부의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떠올랐다. 혹시라도 이웃 사람들이 창문에

귀를 대고 엿듣지나 않을까?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 듣겠니? 이 집에서 그런 이상야릇한 말은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버논 이모부의 얼굴이 자주색으로 물들었다. "대관절 지금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누가 사다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페투니아 이모와 내가 선물한 옷이야!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건 모두 다 두들 리가 입던 낡은 옷이에요." 해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로

해리는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려면 소매를 다섯 번이나 접어야 할 정도로 큰 스웨트

셔츠(운동선수가 보온을 위해 경기 전후에 입는 헐렁한 스웨터: 역주)를 입고 있었다.

스웨트 셔츠의 옷자락은 헐렁한 청바지의 무릎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더 이상 꺼낼 생각도 하지 마라!"

버논 이모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더즐리

가족의 명청한 규칙 하나 하나를 억지로 따랐던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었다. 이미

해리는 두들리의 다이어트 식단도 따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큐디치 월드컵을 관람하지

못하도록 버논 이모부가 방해한다면 가만 있지 않을 작정이었다.

해리는 크게 심호흡을 한 수에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좋아요. 정 그렇다면 큐디치 월드컵에 가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 방으로 올라가도 되겠죠?

시리우스 아저씨에게 보낼 편지를 마저 써야만 하니까요. 이모부도 아시죠?

저의 대부

말이에요."

마침내 두들리는 그 말을 하고 말았다. 그 마법의 말을! 해리는 보랏빛이던 버논

이모부의 얼굴이 마치 아무렇게나 뒤섞인 까만 건포도 아이스크림처럼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가…… 네가 그 살인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단 말이냐?"

버논 이모부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버논 이모부의 눈동자는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 가늘게 수축되고 있었다.

"네, 그래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벌써 한참 동안이나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모부도 아시겠지만, 제 편지를 받지 못하면 시리우스

아저씨는 분명히 뭔가 일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해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그 말이 주는 효과를 즐기고 있었다. 새까맣고 숲이 많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버논 이모부가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단번에 버논 이모부의 속셈을 훼뚫어 볼 수 있었다. 만약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그 꼼짝한 살인자는 버논 이모부가 해리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해리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버논 이모부가 해리에게 '너는 퀴디치 월드컵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해리는 아마도 시리우스에게 그런 내용을 죄다 알릴 것이다. 그렇다면 시리우스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해도 소름이 오싹 끼칠 지경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콧수염을 기른 얼굴이 마치 우리처럼 투명하기라도 한 것처럼, 해리는 버논 이모부의 머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결론을 빤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해리는 자꾸만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리고 해리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버논 이모부를 쳐다보았다. 잠시 수에 버논 이모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그래, 좋다. 빌어먹을! 그 멍청한…… 월드컵인지 뭔지 하는 곳에 가도 좋다. 위……

위즐리……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 사람들이 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물론 내가 널 데려다 줬으면 좋겠지만…… 내겐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단다. 그리고 나머지 여름 방학은 그곳에서 보내도 좋다. 그리고 너…… 너의 대부…… 그 사람에게…… 네가 간다고 말하거라."

"알겠어요."

해리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허공으로 펄쩍 뛰어 오르면서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애써 억눌렀다. 해리는 조용히 뒤로 돌아서서 거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래, 갈 수 있어! 위즐리네 집으로! 그리고 퀴디치 월드컵도 볼 수 있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던 해리는 하마터면 두들리와 부딪힐 뻔했다. 두들리는 문 뒤에 숨어서 해리가 혼나는 것을 가만히 엿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해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자, 두들리는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아침 식사는 정말 좋았어! 그렇지?" 해리는 은근히 두들리를 약을렸다. "나는 정말로 배가 부른 것 같아. 넌 어때?"

해리는 성큼성큼 한 번에 세 칸씩 계단을 밟으면서 이층으로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해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조금 전에 돌아온 것 같은 헤드위그의 모습이었다.

새장 속에 앉아 있는 헤드위그는 커다란 호박색 눈으로 해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불쾌한 게 있는지 부리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째서 헤드위그는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 이유는 금방 밝혀졌다.

"아야!"

해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졌다. 회색 깃털이 나 있는 작은 물체가

막 해리의 머리를 때렸던 것이다. 해리는 테니스공처럼 보이는 그 이상한 물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작은 부엉이 한 마리가 마치 사방으로 흩어지는 폭죽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한 손으로도 넉넉히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부엉이였다. 그

부엉이는 무엇 때문인지 몹시 흥분한 것 같았다.

비로소 해리는 그 부엉이가 발치에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리는

재빨리 그 편지를 집어 들었다.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는 론의 필체가 분명했다. 해리는

봉투를 찢고 그 속에 들어 있는 편지를 꺼냈다.

해리! 아빠가 월요일 밤에 열리는 쿠디치 월드컵의 티켓을 구하셨어. 아일랜드 대

불가리아의 경기야, 엄마는 지금 너네 머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계셔. 네가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야, 어쩌면 너네 이모부가 벌써 그 편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머글 우편이 얼마나 빠른지 잘 몰라. 어쨌거나 나는 이 편지를

피그 편에 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해리는 잠시 '피그'(우리말로 '돼지'라는 뜻: 역주)라는 단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돼지라니? 해리는 다시 작은 부엉이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 부엉이는 천장에 매달린

전등갓 주위를 봉봉 날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쳐다보아도 돼지 같은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론의 글씨를 잘못 읽은 걸까? 급히 휘갈겨 쓴 듯한 론의 글씨는

너무나 구불구불했다. 해리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우리는 반드시 네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너네 머글 가족이 좋아하든 말든 그건 아무런

상관없어. 네가 쿠디치 월드컵을 놀친다는 건 말도 안 돼. 안 그래? 엄마와 아빠는

우리쪽에서 먼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

너네 이모부가 좋다고 하면, 신속히 피그에게 답장을 보내도록 해. 우린 일요일 오후 다섯

시에 너를 데리러 갈 예정이야……. 만약 안 된다고 반대를 하더라도 피그에게 답장을 보내.

그래도 우리는 일요일 오후 다섯 시에 너를 데리러 가겠어.

헤르미온느는 오늘 오후에 도착할 거야. 퍼시 형은 국제 마법 협력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 팬티에 구멍이 나고 싶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에 대해서 입도

뻥긋 하지 마.

나중에 보자. 론

"진정해!"

해리가 부엉이를 향해 소리쳤다. 그 작은 부엉이는 편지를 제대로 배달한 것이 무척

기뻤는지, 해리의 머리 위로 낮게 날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울어대고 있었다.

"이리 와. 답장을 써 보내야 하니까!"

잠시 후에 그 부엉이는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헤드위그의 새장 꼭대기에
웅크리고

앉았다. 헤드위그는 마치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듯이 그 부엉이를 냉담한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해리는 새로운 양피지 조각을 꺼내서 독수리 깃펜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론, 모든 게 잘 해결됐어. 머글 이모부가 가도 좋다고 허락했어. 내일 오후
다섯 시에

보자.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해리

해리는 편지를 아주 작게 접어서 부엉이의 다리에 묶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몹시 흥분한 부엉이가 이리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간신히 편지를 매달
수 있었던

것이다. 편지가 제대로 매달린 것을 확인한 후에 해리는 부엉이를 풀어 주었다.
작은 부엉이는 다시 창 밖으로 날아가 이내 해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해리는 헤드위그를 향해 돌아섰다.

"긴 여행을 할 수 있겠니?"

해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헤드위그에게 물었다. 헤드위그는 부엉부엉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시리우스에게 배달할 수 있겠니?" 해리가 편지를 집어 들면서 말했다.

"잠깐만…….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어."

해리는 양피지를 펼친 후에 급히 추신을 덧붙였다.

만약 저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제 친구 론 위즐리의 집으로 하세요. 저는
남은 여름

방학 동안 그곳에 있을 거예요. 론의 아버지가 퀴디치 월드컵 티켓을
구하셨대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헤드위그의 다리에 양피지를 묶었다. 해리가 편지를 묶는
동안

헤드위그는 이상할 정도로 양전하게 굴었다. 마치 진정한 집배원 부엉이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처럼…….

"네가 돌아올 무렵이면, 나는 벌써 론의 집에 가 있을 거야. 알았지?"

해리가 헤드위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헤드위그는 부리로 다정하게 해리의
손가락을

살짝 깨물더니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펼쳤다. 그리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창문을 통해

하늘 높이 날아갔다.

해리는 헤드위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침내

헤드위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되자, 해리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헐거운

마루판자를 비틀자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나타났다. 해리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생일

케이크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난 정말 행복해! 나에겐 달콤한 케이크가
있지만,

두들리에겐 고작 자동뿐이다.

아주 화창한 날씨였다. 어서 내일이 되었으면……. 마침내 프리벳 가를 떠날 수
있다.

이마의 흉터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퀴디치 월드컵도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 걱정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볼드모트조차도.

제 4 장

다시 버로우로

마침내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 일어난 해리는 부지런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이

되자, 해리의 트렁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로 가득 찼다. 물론 해리는 세 가지 보물을

가장 먼저 챙겼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투명 망토와 시리우스가 선물한

빗자루, 작년에 프레드와 조지가 준 호그와트의 비밀지도였다. 해리는 헐거운 마루 판자 밑

비밀장소에 넣어두었던 음식을 모두 꺼내고, 혹시라도 잊어버린 마법책이나 깃펜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침실 구석구석과 틈새를 살피보았다.

해리는 벽에 걸려 있는 달력도 내렸다. 해리는 달력의 날짜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어서 빨리 9월 1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9월 1일은 해리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 호그와트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프리벳 가 4 번지에 위치한 더즐리네

집을 휘감고 있었다. 더즐리 가족은 몹시 불안한 듯이 서로의 얼굴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이상야릇한 마법사들이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거라는 생각이 더즐리 가족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론의 편지를 받은 후에, 해리는 즉시 버논 이모부에게 가서 위즐리 가족이 내일 오후

다섯 시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버논 이모부는 못마땅한 얼굴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부디 그 사람들이 옷이라도 좀 제대로 차려입고 왔으면 좋겠구나." 버논 이모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같은 족속들이 걸치고 다니는 옷 나부랭이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 체면을 지키려면 제발 좀 정상적인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다."

해리는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위즐리 부부는 더즐리 가족이 '정상적'이라고 부를

만한 옷을 입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위즐리 형제들은 방학에 가끔씩 머글 옷을 입기도

하지만, 위즐리 부부는 항상 기다란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도저히 그런

옷차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즐리 가족은 마법사에 대해서 아주 나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만약 그런 편견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위즐리 가족이 이상한 옷차림으로 나타난다면, 더즐리 가족은 몹시

무례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해리는 은근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버논 이모부는 가장 좋은 신사복을 입고 있었다.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논

이모부가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리는

버논 이모부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위즐리 가족을 압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두들리의 몸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다이어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 해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겁에 질린

두들리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번에 두들리는 어른 마법사를 만나서

된통 훈이 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두들리의 엉덩이에서 꼬부라진 돼지꼬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 런던의 한 개인 병원까지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두들리가

계속 손으로 엉덩이를 가리면서 엉거주춤 걸어다니고 있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두들리는 적에게 똑같은 표적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두들리는 음식(지방을 제거한 우유로

만든 커티지 치즈와 잘게 썬 샐러리)이 맛이 없다는 타박조차 하지 않았다.

페트니아

이모는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페트니아 이모는 입술을 오므린

채 혀를 깨물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해리에게 마구 비난을 퍼붓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그들은 자동차를 몰고 오겠지?"

버논 이모부가 식탁 너머에서 소리쳤다.

"저어……."

해리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미처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리벳 가 4번지와 버로우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위즐리 가족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찾아올 것인가?

위즐리 가족은 더 이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래전에 보유하고 있던 낡은

포드 앵글리아는 아직까지도 호그와트의 금지된 숲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작년에 마법부의 자동차를 빌린 적이 있었다. 오늘도 마법부에서

자동차를 빌렸을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버논 이모부는 콧수염을 실룩거리면서

콧방귀를 뀌었다. 만약 다른 때라면 버논 이모부는 위즐리 씨가 어떤 자동차를 몰고

오느냐고 물어보았을 것이다.
버논 이모부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만약 위즐리 씨가 값비싼 페라리를 몰고 온다고 하더라도 버논 이모부가 과연 호감을 보일지 의심스러웠다.
오후 내내 해리는 자기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마치 사나운 코뿔소가 동물원에서 탈출했다는 경고라도 있었던 것처럼, 페트니아 이모가 몇 초마다 한 번씩 망사 커튼 사이로 거리를 내다보는 것을 차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4시 45분. 해리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거실로 들어갔다. 페트니아 이모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계속해서 쿠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신문을 읽고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리는 잔뜩 긴장한 버논 이모부가 사실은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다.
안락의자에 앉아 있던 두들리는 마치 돼지처럼 뚱뚱한 손으로 영덩이 부분을 연신 가리고 있었다. 해리는 시계를 힐끗 쳐다본 후에 다시 현관 계단으로 나가서 앉았다.
거실에서 감돌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해리의 심장은 흥분과 긴장으로 마구 뛰고 있었다.
마침내 5시가 지났다. 정상 차림을 하고 있어서 땀을 흘리고 있던 버논 이모부는 현관문을 약간 열고 거리를 살짝 내다보았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고개를 집어넣었다.
"심지어 늦게 오다니!"
버논 이모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네." 해리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쩌면…… 어…… 차가 많이 막혀서 늦는 게 아닐까요……."
10분……. 다시 15분이 지났다……. 해리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5시 30분이 되자 버논 이모부와 페트니아 이모가 거실에서 통명스럽게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다른 약속을 할 걸 그랬어."
"늦게 도착하면 저녁 식사라도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어림도 없는 소리." 버논 이모부가 거칠게 소리쳤다. 해리는 버논 이모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 아일 데리고 곧장 돌아가야지, 어슬렁거리긴 어딜 어슬렁거려? 그런데 정말 오긴 오는 거야? 어쩌면 날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 족속은 아마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고장이 날 것 같은 고물 자동차를 몰고 오드드드드드든지!"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실문
안쪽에서 더즐리
가족 세 명이 정신없이 허둥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음 순간 두들리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서 현관으로 도망쳐 나왔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해리가 두들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하지만 두들리는 도저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두들리는 여전히 두 손으로 엉덩이를 가린 채 뒤통거리면서
재빨리
식당으로 달아났다.
해리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전원을
연결하면
전구에 들어오면서 마치 정말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꾸며 놓은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벽난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판자로
막아 놓은
벽난로 뒤에서 쾅쾅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던 것이다. 원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판자를
긁어대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무슨 일이죠?" 벽으로 바짝 몰려나 있던 페투니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겁에 질린 얼굴로 벽난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버논?"
그러나 채 일 초도 지나지 않아서 의혹이 풀렸다. 판자로 막힌 벽난로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아야! 프레드, 안 돼! 돌아가거라. 어서 돌아가라니까……. 원가 일이 잘못된
것 같구나.
조지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하거라. 아야! 조지, 안 돼! 공간이 없다니까…….
빨리 돌아가서
론에게 말하거라!"
"어쩌면 해리가 우리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빠. 이걸 치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벽난로 뒤에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판자를 쾅쾅 두드리고 있었다.
"해리? 해리, 우리말이 들리니?"
더즐리 부부는 마치 한 쌍의 성난 족제비처럼 해리의 주위를 맴돌았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 버논 이모부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으르렁거렸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위즐리 가족은…… 위즐리 가족은 플루 가루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해리는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면서 말했다. "마법사들은
벽난로를 통해서
어디든지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모부가 벽난로를 막아 놓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해리는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위즐리 아저씨? 제 말이 들리세요?"
갑자기 판자를 쾅쾅 두드리던 소리가 뚝 멈췄다. 벽난로 너머에서 위즐리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좀 해라!"

"위즐리 아저씨, 해리예요…… 여기 벽난로는 막혀 있어요. 벽난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제기랄! 도대체 왜 벽난로를 막아 놓은 거니?"

위즐리 씨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이 벽난로에는 전기 히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해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래?" 위즐리 씨는 약간 흥분한 듯이 반문했다. "전기라고 했니? 플러그가 있는? 이런!"

그걸 봐야 하는데…… 어디 생각을 좀 해보자…… 아야, 론!"

"지금 여기에서 월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해리는 이제 론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럴 리가 있니, 론." 프레드가 빙정대는 투로 말했다. "맞아.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란다. 우리는 제대로 도착했어."

"그래, 우리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조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마치 벽에 짓눌려 있더라도 한 듯이 조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얘들아, 얘들아……." 위즐리 씨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잠시

생각 좀 하게 조용히 있거라……. 그래…… 그 길밖에 없는 것 같구나……. 해리, 뒤로

물러서거라."

해리는 재빨리 소파가 있는 곳까지 물러섰다. 그러나 버논 이모부는 오히려 벽난로를 향해

걸어갔다.

"잠깐!" 버논 이모부가 벽난로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짓을 하려는……."

쾅!

판자로 막혀 있던 벽난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터졌다. 그 충격으로 인해 전기

히터가 거실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날아갔다. 그와 동시에 위즐리 씨와 프레드와 조지와 론이

자욱한 먼지와 파편을 헤치고 나타났다. 페트루나아 이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커피용 작은

탁자 쪽으로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다. 버논 이모부는 얼른 달려가서 페트루나아 이모를

부축해 주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딱 벌린 채, 주근깨

하나까지도 똑같은 쌍둥이 형제 프레드와 조지를 비롯해서 모두들 머리카락이 빨간 위즐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좀 낫군." 위즐리 씨는 기다란 초록색 망토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아, 해리의

이모와 이모부시군요!" 위즐리 씨가 안경을 똑바로 고쳐쓰면서 말했다.

버논 이모부는 느닷없이 나타난 낯선 대머리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위즐리 씨는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가 가까이다가오자

버논 이모부는 재빨리 페트루나아 이모의 손을 잡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버논 이모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마치 입술이 달라붙기라도 한 것처럼…….

버논 이모부는 적어도 30년 정도는 더 늙어 보였다. 머리와 콧수염은 온통 하얀

먼지투성이였으며 가장 좋은 양복도 영망이 되고 말았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위즐리 씨는 어색한 듯이 그냥 손을 내렸다.

"벽난로가 저렇게

된 건 모두 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 집의 벽난로가 막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댁의 벽난로를 플루 네트워크에 연결해 두었는데…….

그러니까 단지

하루 저녁만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리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머글들의 벽난로는 플루 네트워크에 연결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플루 가루 단속반에게 미리 부탁해서 손은 좀 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제가 금방

원래대로 고쳐 놓을 수 있으니까요. 플루 가루로 저 아이들을 먼저 돌려보낸 후에 선생님

댁 벽난로를 원래대로 고쳐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위즐리 씨가 영망이 된 벽난로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더즐리 부부는 위즐리 씨의 말을 단 한 마디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더즐리

부부는 여전히 입을 닥 벌린 채 위즐리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페트니아 이모는 허둥지둥 버논 이모부의 등 뒤로 숨었다.

"안녕, 해리! 가방은 다 챙겨 두었니?"

위즐리 씨가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층에 있어요."

해리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가방은 우리가 갖고 올게."

프레드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프레드와 조지는 해리를 향해 눈을 찡긋거리더니

재빨리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해리의 방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2년 전에

해리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몰고 찾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해리는

그 자동차를 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해리는 어쩐지 프레드와 조지가 두들리를 슬쩍 만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이미 두들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해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위즐리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주……"

좋은 집이군요."

평소라면 티 하나 없이 깨끗했을 거실이 온통 뿐연 먼지와 지저분한 벽돌 조각으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먹혀들 리가 없었다. 더즐리 부부는 치를

떨면서 위즐리 씨를 노려보았다. 버논 이모부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페트니아

이모도 다시 혀를 깨물기 시작했다. 하지만 잔뜩 겁에 질린 두 사람은 대꾸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

위즐리 씨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머글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면 위즐리 씨는 무엇이든지 아 좋아했던 것이다. 위즐리 씨의 눈길이 거실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로 향했다. 위즐리 씨는 지금 머글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살펴보고

싶어서 종이 쑤실 지경이었다.

"전기가 흐르고 있죠?" 위즐리 씨가 관심을 보이면서 말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저기

플러그가 있군요. 저는 플러그를 수집하죠." 위즐리 씨가 버논 이모부를 쳐다보면서 한 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배터리도 모으고 있어요. 배터리는 엄청 많이 모아 두었답니다. 아내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버논 이모부도 분명히 위즐리 씨가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버논 이모부는

페루니아 이모의 몸을 완전히 가리기 위해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였다. 갑자기 위즐리 씨가

달려들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두들 리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두들리의 얼굴에는 몹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다. 조금 전에 해리의 트렁크가 계단에 부딪히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 소리에 더욱 겁이 난 두들 리가 식당에서 뛰쳐나온 것이 분명했다.

두들리는 잔뜩 겁에 질린 눈초리로 위즐리 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벽을 다라 서서히

발을 옮겼다. 엄마와 아빠의 등뒤로 몸을 숨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버논

이모부의 체격은 깡마른 페루니아 이모의 몸 정도는 충분히 가릴 수 있었지만 두들리를

감싸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 이 아이가 네 사촌이구나. 그렇지, 해리?"

위즐리 씨는 다시 한 번 용감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네."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애가 바로 두들리예요."

해리와 론은 재빨리 서로 시선을 주고받은 후에 얼른 눈길을 돌렸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두들리는 여전히 두 손으로 엉덩이를

가리고 있었다. 마치 엉덩이가 떨어져 나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위즐리 씨는 두들리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호기심을 느꼈다.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

"방학 잘 보내고 있니. 두들리?"

뒤즐리 씨가 친절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억양으로 보면, 위즐리 씨는 두들리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더즐리 부부가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만 위즐리 씨가 두들리에게 두려움보다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두들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훌쩍훌쩍 울먹이기만 했다.

해리는

두들리가 두 손으로 큼지막한 엉덩이를 더욱 세게 움켜잡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후에 프레드와 조지가 해리의 트렁크를 들고 다시 거실로 들어오다가
두들리를

발견했다. 그들의 얼굴에 작은 악마와 같은 짓궂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 좋아." 위즐리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서두르는게 좋겠구나."

위즐리 씨는 망토 자락을 들어올리더니 요술지팡이를 꺼냈다. 두들리 가족은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인센디오!"

위즐리 씨가 요술지팡이를 들고 엉망이 된 벽난로 구멍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그러자

벽난로에서 금방 불길이 솟아올랐다. 마치 몇 시간 동안이나 출곧 타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불길은 경쾌하게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위즐리 씨는 주머니에서 졸라매는 끈이 달린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가루를 조금 꺼내서 불길 속으로 던졌다. 그러자
불길이

에메랄드빛으로 변하면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서 가거라, 프레드."

위즐리 씨가 프레드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예." 프레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잠깐만요……."

프레드의 주머니에서 과자 봉지가 떨어졌다. 여러 가지 색깔의 포장지로 쌈
태피(설탕),

버터, 땅콩을 섞어서 만든 캔디: 역주)들이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다.

프레드 바닥에 떨어진 태피들을 주섬주섬 주워 모은 다음, 다시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프레드는 더즐리 가족을 향해 명랑하게 손을 한 번 흔들어 봄이더니
벽난로를 향해

걸어갔다.

"버로우!"

프레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불 속으로 들어갔다. 깜짝 놀란 페트니아
이모가

진저리를 치는 사이, 획 하는 소리와 함께 프레드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음은 네 차례다, 조지." 위즐리 씨가 조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는
트렁크를 들고

가거라."

해리는 조지가 트렁크를 들고 불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벽난로
앞에

도착하자, 해리는 조지가 잘 잡을 수 있도록 트렁크의 방향을 돌려주었다.

"버로우!"

이번에도 획 소리가 나더니 조지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론, 다음엔 너다."

위즐리 씨가 론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론이 주문을 외우자, 그의 모습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해리와

위즐리 씨뿐이었다.

"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해리가 더즐리 가족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더즐리 가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벽난로 가장 자리에 도달했을 때, 위즐리 씨가 손을 내밀어 해리를 가로막았다. 위즐리 씨의 시선은 더즐리 가족을 향해 있었다. 더즐리 가족은 여전히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가 인사를 하잖습니까?" 위즐리 씨가 더즐리 가족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듣지 못했나요?"

"아무려면 어때요." 해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전 상관없어요."

하지만 위즐리 씨는 해리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버논 이모부에게 말했다. "내년 여름까지는 조카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버논 이모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자기 집 거실벽을 한 방에 날려 버린

사람에게 충고를 듣는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괴로운 것 같았다. 하지만 위즐리 씨의 손에는

여전히 요술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버논 이모부는 작은 눈으로 요술지팡이를

슬쩍

쳐다보더니 아주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거라."

"안녕히 계세요."

해리는 초록빛 불길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초록색 불길은 따뜻한 입김처럼 부드럽게

해리를 감싸 주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해리의 등 뒤에서 소름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흉악한 괴물이 괴성을 지르는 것 같았다. 갑자기 페트리아 이모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빨리 뒤로 돌아섰다. 두들리는 더 이상 부모의 등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두들리는 커피용 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욱욱거리고 있었다.

두들리의 입에서 보랏빛의 미끈미끈한 것이 길게 흘러나와 있었다. 그 이상한 물체의

길이는 30 센티미터가 넘는 것 같았다.

해리는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후에 해리는 이상하게 생긴 길쭉한 물체가

바로 두들리의 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들리의 주위에는 태피를 싸고 있던 여러 가지

색깔의 포장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페트리아 이모는 얼른 두들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잔뜩 부풀어 오른 혀 끝을

움켜잡더니 입 밖으로 빼내려고 애를 썼다. 페트리아 이모가 마구 혀를 비틀자, 당연히

두들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까보다 더욱 심하게 푸푸거렸다. 두들리는 엄마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버논 이모부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

"두들리!"

버논 이모부를 고함을 지르면서 두 손을 마구 휘저었다. 위즐리 씨는 자신의 말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랄야만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위즐리 씨는 두들리의 혀바닥을 고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페트니아 이모는 더욱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두들리를 보호하기 위해 끌어안았다. 페트니아 이모는 위즐리 씨가 요술지팡이로 두들리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거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아니에요, 정말!" 위즐리 씨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마법의 태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 아들 프레드가…… 장난을 친 거라구요. 하지만 그건 탐식 마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더즐리 가족은 안심하기는커녕, 한층 더 겁에 질렸다. 페트니아 이모는 신경질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두들리의 혀를 뽑기라도 할 것처럼 힘껏 잡아당겼다.

페트니아 이모가 혀를 잡아당기자, 두들리는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버논 이모부는 장식장 선반에 놓여 있던 도자기 인형을 집어 들더니 위즐리 씨를 향해 힘껏 던졌다. 하지만 위즐리 씨가 얼른 고개를 숙이면서 피하는 바람에 도자기 인형은 벽난로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정말입니다!" 화가 난 위즐리 씨가 요술지팡이를 휘둘르면서 말했다. "저는 그저 돋고 싶을 뿐이에요! 두들리를 해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버논 이모부는 마치 상처를 입은 하마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또 다른 장식품을 집어 들었다.

"해리, 가라! 그냥 가!" 위즐리 씨가 요술지팡이로 버논 이모부를 겨냥하면서 소리쳤다.

"여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마!"

해리는 그 재미있는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버논 이모부가 던진 두 번째 장식품이 해리의 왼쪽 귀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자 결국 그 상황은 위즐리 씨에게 맡겨 누는 게 가장 놀겠다고 생각했다.

"벼로우!"

해리는 주문을 외우면서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사라지기 직전에 훨씬 고개를 돌려서 어깨 너머로 거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해리가 마지막으로 본 거실의 풍경은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위즐리 씨는 요술지팡이로 버논 이모부가 들고 있던 세 번째 장식품을 폭파시키고 있었다. 페트니아 이모는 두들리를 감싸 안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두들리의 혀는 마치 거대한 비단뱀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해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에메랄드빛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더즐리 가족의 거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제 5 장
위즐리 형제 마법사의 기발한 발명품

해리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채 점점 더 빨리 빙글빙글 돌았다. 흐릿한 벽난로들이 해리의 눈앞을 훑虺 스치면서 지나갔다. 자꾸만 속이 울렁거려서 해리는 두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에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무사히 론의 집에 도착한 해리는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아서 재빨리 손을 뻗었다.

"두들리가 그걸 먹었니?"

프레드가 다가오더니 벽난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리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 잔뜩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물었다.

해리가 다가오더니 벽난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리의 손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 잔뜩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물었다.

해리가 똑바로 일어나면서 대답했다. "응. 그게 뭐였어?"

"헛바닥 늘이기 태피. 그건 조지와 내가 발명한 거야. 우리는 여름 내내 그걸 시험해 볼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프레드가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삽시간에 식당은 떠들썩한 웃음 바다가 되었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론과 조지가 나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식탁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 두명이 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머리카락도 위즐리 가족처럼 빨간색이었다. 해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위즐리 형제들 가운데 제일 큰형 찰리였다.

"안녕, 해리?"

해리와 좀더 가까운 곳에 앉아 있던 빨간 머리 남자가 씩 웃으면서 커다란 손을 내밀었다. 해리는 그 남자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그 남자의 손가락은 온통 물집투성이였으며, 여기저기에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 루마니아에서 용을 연구하고 있는 찰리가 분명했다. 찰리는 쌍둥이들처럼 몸이 건장했으며, 호리호리하고 키가 껌총한 퍼시나 론보다는 키가 약간 작은 편이었다. 작달막한 신체에 비해 약간 큰 듯한 인상을 주는 찰리의 얼굴은 전반적으로 선량한 느낌을 주었는데, 주근깨가 어찌나 많았던지 꼭 핫빛에 그을린 것처럼 보였다. 억센 두 팔은 완전히 근육질이었다. 그런데 한쪽 팔에는 불에 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빌도 역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일어나더니 다정하게 해리와 악수를 나누었다.

해리는 빌의 모습을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해리는 마법사 은행 그린고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빌이 호그와트 시절에는 전교 학생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는 항상 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기를 좋아하고 어쩌다가 한 번 규칙을 어기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퍼시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막연히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은 한 마디로 '멋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었다. 키가 아주 훈칠했고, 긴 머리를 가지런히 묶었으며, 귀에는 어금니처럼 생긴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빌의 부츠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가죽이 아니라 용가죽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다.

게다가 록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에서나 어울릴 것 같은 요란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미처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평 하는 소리가 나더니 허공에서 위즐리 씨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위즐리 씨는 몹시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지금까지 위즐리 씨가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걸 장난이라고 치는 거냐, 프레드! 네가 저 머글 아이에게 준 게 도대체 뭐냐?"

위즐리 씨가 벼락 소리를 질렀다.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전 그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죄밖에 없어요……. 함부로 그걸 집어먹은 애의 잘못이죠. 저는 깨더러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프레드는 또다시 작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네가 일부러 떨어뜨렸잖아! 너는 그 애가 그걸 집어먹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

네 속셈은 바로 그게 아니었니? 너는 그 애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다!"

위즐리 씨가 프레드를 쳐다보면서 고함을 질렀다.

"그 애의 혓바닥이 얼마나 커졌어요?"

조지가 몹시 궁금해하며 물었다.

"내가 다시 그 혓바닥을 원래대로 고쳐 놓기 전에는 1미터도 넘었다! 그 애의 부모를 설득해서 겨우 치료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니?"

해리와 위즐리 형제들은 일제히 떠들썩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웃을 일이 아니야!" 위즐리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런 행동이 마법사와 머글의 관계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여태까지 나는 마법사가 함부로 머글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애써 왔는데……. 도대체 내 자식들은……."

"우리는 그 애가 머글이기 때문에 그걸 준 게 아니에요!"

프레드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맞아요. 그 애는 약자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녀석이기 때문에 그걸 준 거라구요. 안 그러니, 해리?"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위즐리 아저씨."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걸 먹이다니! 이번 일은 엄마에게 죄다 말할 테니까 다들 각오하는 게……."

위즐리 씨가 벼락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나한테 뭘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상냥한 얼굴에 키가 자그마하고 통통한 체격의 위즐리 부인이 막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위험스러운 듯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그들을 쳐다보았다.

"어머, 해리로구나." 해리를 발견한 위즐리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서?" 위즐리 부인은 다시 싸늘한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았다.
위즐리 씨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프레드와 조지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나긴 했지만, 위즐리 씨는 정말로 그 일을 부인에게 일러바칠 생각을
눈곱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위즐리 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헐끔헐끔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위즐리 씨의 등 뒤에서 여자아이 두 명이 나타났다. 술이
많은 갈색

머리카락에 앞니가 약간 큰 여자아이는 해리와 론의 친구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였으며, 키가

좀 작달막하고 머리카락이 빨간 여자아이는 론의 여동생 지니였다.

식당 문간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얼굴에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해리도 두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지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해리가 버로우에
처음 도착했던

날부터 줄곧 지니는 해리에게 푹 빠져 있었다.

"나한테 할 말이 뭐죠, 아서?"

위즐리 부인은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남편을 훑겨보면서 대답을 재촉했다.
삽시간에

식당에는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무것도 아니오, 여보. 그저 프레드와 조지가……. 하지만 내가 벌써
따끔하게 야단을
쳤소."

위즐리 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저 애들이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혹시 '위즐리 형제 마법사의
기발한

발명품'과 무슨 관련이라도……."

위즐리 부인은 위험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론, 해리가 둑에 될 방을 보여주는 게 어때?"

헤르미온느가 불쑥 입을 열었다.

"해리는 자기가 잘 방을 이미 알고 있어. 바로 내 방이거든. 지난 번에도 내
방에서

잤단……."

론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대답했다.

"우리 모두 그 방으로 가는 게 어때?"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론의 말을 중간에서 잘랐다.

"아하." 비로소 론은 헤르미온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좋아."

"그래, 우리도 갈게."

조지가 얼른 거들었다.

"넌 그냥 제자리에 있어!"

위즐리 부인이 으르렁거리면서 소리쳤다. 해리와 론은 위즐리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식당에서 나갔다. 거기서 꾸불대다가는 불똥이 털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와 지니는 재빨리 식당을 벗어나서 좁은 복도를 걸어갔다.
그리고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을 다라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런데 '위즐리 형제 마법사의 기발한 발명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해리가 물었다. 그 말을 듣자 론과 지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조금도 웃지 않았다.

"엄마가 프레드와 조지 형의 방을 청소하다가 한 다발이나 되는 상품 주문 용지를

발견했어. 그건 형들이 발명한 물건을 적어 놓을 굉장히 기다란 목록이야. 형들은 그

발명품들의 정가도 매겨 놓았지. 너도 알잖아. 장난을 치는 도구 말이야. 정말 기막힌

것들이야. 나는 형들이 그런 걸 발명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론은 고개를 돌려서 해리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오빠들 방에서 원가가 폭발하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그런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 우리는 그저 오빠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지 뭐야."

지니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그러자 론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계속했다.

"하지만 형들이 발명한 물건 대부분은-아니, 사실은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약간씩 흥이 있어. 그건…… 그물건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데 형들은 그걸

호그와트 학생들에게 팔아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당연히 엄마는 노발대발

하셨지. 다시는 그런 물건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단단히 엄포를 놓은 후에 상품 주문

용지를 몽땅 불태우고 말았어……. 그렇지 않아도 엄마는 형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참이었어. 그러던 차에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거야. 형들은 엄마가 예상했던 것보다 O.W.L.

많이 받지 못했거든."

O.W.L.(Ordinary Wizarding Levels, 표준 마법사 수준)은 마법사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지표로, 호그와트의 학생들이 열다섯 살 때 치르는 시험이었다.

"그 후에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는지 몰라." 지니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엄마는

내심 오빠들이 아버지처럼 마법부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 하지만 오빠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 오빠들은 그저 장난감 가게나 차리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어."

바로 그때 두 번째 총계참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뿔테 안경을 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몹시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녕, 퍼시."

해리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오, 안녕. 해리!" 퍼시가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서둘러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궁광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도무지 일에 몰두할 수가 없잖니. 나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사람은

딱 질색이야."

론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우리는 쿵쾅거리지 않았어. 그저 걸어갔을 뿐이란 말이야.

어쨌거나 마법부의 일급 비밀 작업에 방해가 되었다니 미안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원데?"

해리가 물자, 퍼시는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했다.

"국제 마법 협력부에 제출할 보고서야. 우리는 큰 냄비의 두께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냄비 중의 일부가 너무 얇단 말이야. 심지어 냄비가 새는

경우도 발생했어. 불량 냄비는 연간 3 퍼센트 정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러자 론이 비꼬면 말했다.

"그래, 정말 대단한 보고서네.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겠는 걸? 얼마 안 있어 <예언자

일보>의 1면을 장식하겠지. '불량 냄비' 뭐 이런 제목으로……."

"론, 너는 비웃을지도 모르지." 퍼시는 얼굴을 붉히면서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런 국제법을 마련해서 하루 빨리 규격을 통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닥이 아주

얇은 불량 냄비들이 시중에 흘러 넘치게 될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래, 그래, 알았어."

론은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퍼시는 짜증을 내면서 거칠게

방문을 닫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지니는 론의 뒤를 따라서 부지런히 계단을 올라갔다.

위즐리 부인이 식당에서 지르는 성난 고함 소리가 그들이 있는 곳까지 짜령짜령 울렸다.

위즐리 씨가 태피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 도착했다. 론이 잠을 자는 그 다락방은 지난

번에 해리가 머물렀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처들리 캐논 팀의 포스터가 벽과

기울어진 천장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처들리 캐논은 론이 가장 좋아하는 퀴다치

팀이었다. 해리는 예전에 개구리알이 들어 있던 창가의 수족관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족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더 이상 개구리알이 아니었다.

굉장히 큰 개구리 한 마리가 땡볕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론이 기르던 애완용 생쥐 스캐버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작은 회색

부엉이가 새장 속에 들어 있었다. 그 부엉이는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 듯이 지저귀고 있었다.

해리도 이미 그 부엉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프리벳 가 4 번지까지 날아와서 론의 편지를

배달해 주었던 바로 그 부엉이였다.

"시끄러워, 피그." 론이 비좁은 다락방에 얹지로 쑤셔 넣은 듯한 네 개의 침대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했다. "프레드 형과 조지 형이 우리와 함께 이방을 쓰게 될 거야, 해리. 빌

형과 찰리 형이 쌍둥이 형들의 방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퍼시 형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독방을 쓰기로 했어."

"어째서…… 저 부엉이를 '피그'라고 부르는 거니?"

해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저 부엉이가 너무나 멍청하기 때문이야. 원래 이름은 피그위존이지만……."

지니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피그위존이라는 이름은 전혀 멍청한 느낌이 들지 않잖아?" 론이 새장 속에

들어 있는 부엉이를 훌깃 쳐다보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설명했다. "지니가 저 부엉이를

피그라고 불렀거든. 지니는 저 부엉이가 귀엽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엉이의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고 말았어. 저 부엉이는 다른 이름을 부르면 도통

대답을 하지 않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피그라고 불러. 부엉이는 일부러 새장 속에

가둬 놓았어. 왜냐하면 저 부엉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에喁과 헤르메스를 귀찮게

하기 때문이야. 사실은 나도 저 부엉이가 뭄시 귀찮아."

피그위존은 부엉부엉 소리를 내면서 행복한 듯이 새장 안을 빙 돌았다. 하지만 해리는

론의 말을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리는 론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론은 예전에 갖고 있던 애완용 생쥐 스캐버스에 대해서도 불평을 잔뜩 늘어놓았다. 그러나

막상 스캐버스가 사라지자, 론은 뭄시 낙담하면서 헤르미온느와 싸우기까지 했었다.

헤르미온느의 고양이 크룩생크가 그 생쥐를 잡아먹은 줄 알았던 것이다.

"크룩생크는 지금 어디 있어?"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아마 마당에 있을 거야. 크룩생크는 땅신령들을 쫓아다니는게 아주 좋은 모양이야.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헤르미온느가 마당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대답했다.

"퍼시 형은 어떻게 지내? 마법부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

해리는 물어보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천장에 붙어 있는 처들리 캐논 팀의 포스터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포스터 속의 선수들이 봉봉 날아다니고 있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론이 투덜거리면서 대답했다. "완전히 풀 빠졌어. 아빠가

억지로 부르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마법부에 틀어박혀 있었을 거야. 집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 퍼시 형은 입만 벌리면 상관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고 있어. 크라우치

씨에 따르면……, 크라우치 씨는 내 말을 듣고……, 크라우치 씨의 생각은……, 크라우치

씨가 말하길……, 크라우치 씨와 퍼시 형은 너무나 사이가 좋아. 두 사람은 곧 약혼이라도

발표할 거야."

"여름 방학은 잘 보냈니, 해리? 우리가 보낸 음식물 소포는 받았어?"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응, 정말 고마웠어. 맛있는 케이크 덕분에 간신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

해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런데 소식은 들었니?"

론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헤르미온느의 싸늘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입을 꾹

다물었다. 문득 해리는 론이 시리우스에 대해서 물어보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만큼이나 시리우스의 안부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리가 시리우스를 구출할 때, 론과 헤르미온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리우스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니 앞에서 시리우스에

대해 말하는 건 그다지 좋은 생각이 아니었다. 그들이 시리우스를 구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덤블도어 교수뿐이었다.

"이제 겨우 소동이 끝난 것 같은데?" 헤르미온느가 어색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재빨리

얼버무렸다. 왜냐하면 지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론과 해리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몰리 아줌마는 지금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실거야.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 좋아."

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나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위즐리 부인은 혼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마당에서 하기로 했다. 열한 명이 식사를 하기에는 이곳이 비좁지 않겠니?

점시를 좀 마당으로 날라 주겠니, 얘들아? 빌과 찰리가 상을 차리고 있단다.
론과 해리는

포크와 나이프를 좀 맡아 다오." 위즐리 부인은 싱크대에 잔뜩 쌓여 있는 감자들을 향해

거칠게 요술지팡이를 휘둘렀다. 그런데 위즐리 부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세게 마법이

걸린 것 같았다. 감자들은 정신없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벽과 천장으로 마구 튕어올랐다.

"오, 이럴 수가!" 위즐리 부인은 요술지팡이로 쓰레받기를 겨냥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러자 쓰레받기가 허공을 가로지르면서 날아가더니, 감자들을 쓸어 담아서

싱크대 속에 집어넣었다. "저 말썽꾸러기 녀석들을 그냥!"

찬장에서 중국식 냄비와 팬을 꺼내던 위즐리 부인이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위즐리 부인은 프레드와 조지의 행동에 대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저 녀석들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걸까? 정말로 모르겠어. 야심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말썽만 피우지 않아도……."

위즐리 부인은 커다란 구리 냄비를 꺼내서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고는 요술지팡이를

집어놓고 휘젓기 시작했다. 요술지팡이 끝에서 크림색의 소스가 흘러나왔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위즐리 부인이 냄비를 스토브로 가져가 요술지팡이를 또

한 번 쿡 찔러 불을 켜면서 계속해서 화를 냈다. "저 녀석들은 머리를 엉뚱한 데다 쓰고 있어.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썽만 부리다가는 나중에 진짜 곤란하게 될 거야.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째서 쟤들만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호그와트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 녀석들 문제로 부엉이가 날아들고. 이러다간 마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죄로 마법부에 불려가게 되고 말 거야."

위즐리 부인이 요술지팡이로 나이프와 포크와 스푼을 비롯한 식기들이 잔뜩 들어 있는 서랍을 꾹 찌르자 서랍이 확 열렸다. 해리와 론은 몇 자루의 칼이 허공으로 뿜 날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냉큼 물로났다. 칼은 싱크대 속에 내던져졌던 감자들을 잘게 썰기 시작했다.

"쟤들이 왜 저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야." 위즐리 부인은 요술지팡이로 내려놓고 다른 냄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항상 저런 식이었어.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도대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이런…….

이번에도 또!"

위즐리 부인이 식탁 위에 있던 요술지팡이를 다시 집어든 순간, 요술지팡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더니 어느새 거대한 고무 생쥐로 변하고 만 것이다.

"가짜 요술지팡이야!" 위즐리 부인이 짜증을 내며 소리질렀다. "이런 물건을 아무 데나 굴러다니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위즐리 부인은 진짜 요술지팡이를 집어 들고 빙 돌아섰다. 스토브에 올려놓은 냄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소스가 타고 있었던 것이다.

"이리 와, 해리." 론은 활짝 열린 서랍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한 줌 집어 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빌 형과 찰리 형이나 돋자."

그들은 슬금슬금 위즐리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헤르미온느의 안짱다리 황갈색 고양이 크룩생크가 꼭 더러운 감자처럼 보이는 것을 뒤쫓아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크룩생크는 쇠뜨기풀처럼 생긴 꼬리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해리는 크룩생크가 뒤쫓고 있는 것이 땅신령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 땅신령의 키는 25 센티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작은 발로 종종걸음을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작달막한 땅신령은 문가에 훑어져 있는 기다란 장화 속으로 앞발을 집어넣었지만 미처 달지 않았다. 그러자 땅신령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낄낄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뒷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해리와 론은 무슨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다. 빌과 찰리가 요술지팡이를 꺼내들고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비로소 해리와 론은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빌과 찰리가 낡아빠진 식탁 두 개에 마법을 걸었던 것이다. 마법에 걸린 식탁들은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서로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환호성을 질렀으며, 지니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헤르미온느도 울타리 근처에서 흥미롭게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얼굴에는 약간 근심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만약 위즐리 부인이 이 소동을 본다면 또다시 화를 낼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이다. 빌의 식탁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찰리의 식탁은 그만 다리가 우지끈 부러지고 말았다.

그런데 누군가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불쑥 내밀고 있는 퍼시의 모습이 보였다.

"좀 조용히 해줄래?"

퍼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미안해, 퍼시. 냄비 바닥에 대한 보고서는 잘 되고 있니?"

빌이 씩 웃으면서 물었다.

"아냐. 그 일은 아주 복잡하단 말이야."

퍼시는 기분이 언짢은 것처럼 투덜거리면서 창문을 쾅 닫았다. 빌과 찰리는 킬킬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더니 식탁이 다시 안전하게 잔디밭으로 내려오도록 만들었다.

빌은 부러진 식탁 다리를 요술지팡이로 살짝 건드려서 금방 원래대로 고쳐 놓았다. 빌이 소환 마법을 쓰자 식탁보들이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오기 시작했다.

오후 7 시가 되자 아홉 명의 위즐리 가족과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야외에서 성대한 만찬을 즐겼다. 위즐리 부인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 놓았다.

해리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름 내내 해리는 조금씩 썩어 가는 케이크만 먹고 살았던 것이다. 해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면서 치킨과 햄 파이, 얇은 감자, 샐러드를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웠다.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퍼시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냄비 바닥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저는 크라우치 씨에게 화요일까지 그 보고서를 모두 다 작성해 놓겠다고 약속했어요."

퍼시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물론 그건 크라우치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긴 해요. 하지만 전 마법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보고서를 완성하면 크라우치 씨도 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요즘 우리 부서가 굉장히 바쁘다는 뜻이에요. 월드컵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마법게임 및 스포츠부의 책임자인 루도 베그만 씨가……."

"나는 루도가 마음에 든단다." 위즐리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에게 월드컵 티켓을 구해 준 사람이 바로 그분 아니냐. 게다가 그 티켓은 일등석이거든.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힘을 좀 써주긴 했지. 루도의 동생 오토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잔디 깎는 기계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나서서 잘 처리해 주었단다."

"맞아요. 루도 베그만 씨는 호감이 가는 분이긴 하죠." 퍼시가 약간 건방진 태도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저는 루도 베그만 씨가 어떻게 해서 그 부서의 책임자가 된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특히 크라우치 씨와 비교해 봤을 때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루도 베그만 씨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크라우치 씨라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아버지도 버사 조킨스가 벌써 한 달째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버사 조킨스는 알바니아로 휴가를 떠났다가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위즐리 씨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해, 나도 루도를 만난 자리에서 그 일에 대해 물어 봤단다. 그런데 루도의 말에 따르면, 버사는 이전에도 몇 차례나 실종된 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더구나.

그렇지만 만약 우리 부서의 직원이 실종됐다면, 나는 몹시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말야……."

퍼시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그래요. 버사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저도 버사가 이 부서 저 부서 자주 자리를 옮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래도 루도 베그만 씨는 버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나요? 루도 베그만 씨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아닌가요?

크라우치 씨는 이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버사는 국제 마법 협력부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크라우치 씨가 버사를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도 베그만 씨는 그저 계속 웃기만 할 뿐이에요. 아마도 지도를 잘못 본 버사가 실수로 알바니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로 갔을 거라고 말하면서……." 퍼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실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하지만 우리 국제 마법 협력부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잔뜩 쌓여 있어요. 다른 부서의 직원을 찾는 일에 신경을 쓸 만한 겨를이 없다구요.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서는 월드컵

직후에 열릴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퍼시는 목청을 가다듬으면서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앉아 있는

곳을 슬쩍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퍼시는 일부러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그건 일곱 비밀 사항이죠."

"퍼시 형은 마법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줄곧 일곱 비밀 사항이라는 그 행사를

입에 달고 다녔어. 그래도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안달이 난 거야. 하지만 보나마나

바닥이 두꺼운 냄비 전시회 같은 것이겠지."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중얼거렸다. 위즐리 부인과 빌은 한창

언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빌의 귀고리가 위즐리 부인을 자극했던 것이다.

"빌, 그런 소름끼치는 어금니를 귀에 달고 다니면, 은행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엄마, 저는 국내로 반입되는 보물들을 아주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 사람들은 아무도 저의 차림새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빌이 느긋하게 말했다.

"머리는 또 이게 무슨 꼴이니, 빌?" 위즐리 부인이 요술지팡이를 어루만지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구나……."

그때 지니가 불쑥 기어들었다. "하지만 난 마음에 드는데?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물론

덤블도어 교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프레드와 조지와 칠리는 퀴디치 월드컵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승은 아일랜드가 차지할 거야." 찰리가 입 속에 잔뜩 감자를 쑤셔 넣으면서 말했다.

"아일랜드는 준결승전에서 아주 간단하게 페루를 쓰러뜨렸어."

"하지만 불가리아에는 빅터 크롬이 버티고 있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니야.."

프레드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가리아에는 훌륭한 선수가 크롬 한 명뿐이지만, 아일랜드에는 일곱 명의 선수가 모두

다 훌륭해." 찰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잉글랜드가 진출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게 무슨 창피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해리가 물었다. 여름 방학 동안 줄곧 프리벳 가에 갇혀 있었던 해리는 마법 세계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즐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동안에는 마법 세계와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이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퀴디치는 해리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다. 해리는 1학년 때부터 줄곧 그리핀도르

기숙하의 퀴디치 팀에서 수색꾼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경주용 빗자루인

파이어볼트도 갖고 있었다.

찰 리가 침울하게 말했다.

"잉글랜드와 트란실바니아의 경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지. 잉글랜드가 390 대 10으로

지고 말았어. 웨일스는 우간다에게 무릎을 꿇었고, 스코틀랜드도 룩셈부르크에게 완패당하고 말았어."

집에서 만든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위즐리 씨가 마법으로 촛불을 밝혔다. 식사를

끝마칠 무렵에는 나방들이 식탁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한 줄기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해리는 싱그러운 풀내음과 인동덩굴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너무나 아늑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땅신령 몇몇이 장미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웃어대고

있었다. 크록생크는 여전히 땅신령들을 바짝 뒤쫓고 있었다.

"그런데 해리……. 시리우스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어?" 론은 다른 가족들이 모두들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론의 시선이 해리는 향하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응."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두 번.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냈어.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혹시 답장을

할지도 몰라."

갑자기 해리의 머리 속에서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떠올랐다. 해리는 순간적으로 이마의 흉터가 다시 아팠던 것에 대해 말할 뻔했다……. 그리고 무서운

악몽도……. 하지만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위즐리 부인이 손목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제는 모두들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구나. 월드컵이 열리는

경기장에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테니까……. 해리, 학교에 가져가야 할 물건의

목록을 적어 놓도록 해라. 내가 내일 다이애건 앤리에 가서 네 물건을 사다주도록 하마.

어차피 다른 아이들의 물건도 구입해야 하니까……. 월드컵 이후에는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

지난 번에는 경기가 무려 닷새 동안이나 열렸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리가 열광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난 싫어. 만약 닷새 동안이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사무실의 미결 서류함은 영망이 되고

말 거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야."

퍼시가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맞아, 누군가가 그 안에 또다시 용의 둥을 살짝 넣어 둘지도 모르지. 안 그래, 형?"

프레드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그건 노르웨이에서 온 비료 샘플이었어!" 퍼시가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구!"

"아니긴 뭐가 아냐." 그들이 식탁에서 일어날 때, 프레드가 작은 목소리로 해리에게

속삭였다. "그걸 보낸 사람은 바로 우리였는데."

제 6 장

포트키

방금 전에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사이에 위즐리 부인이 해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다, 해리."

위즐리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위즐리 부인은 다시 론을 깨우기 위해 다른

침대로 걸어갔다. 해리는 손으로 주위를 더듬어 안경을 찾아 쓴 후에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지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론이 볼멘

소리로 들렸다. 해리와 발을 마주하고 놓여 있는 침대 위에 둘둘 말린 담요 안에서 머리가

부스스한 커다란 형체 두 개가 엉금엉금 기어나왔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프레드가 출린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네 사람은 너무나 출린 나머지 말을 주고받을

만한 기운도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으며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식당으로 내려갔다.

위즐리 부인은 화덕에 올려놓은 커다란 냄비를 휙휙 젓고 있었으며, 위즐리 씨는 식탁에

앉아서 커다란 양피지 티켓 다발을 살펴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들어서자,

위즐리 씨는 두 팔을 벌리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보여주었다. 위즐리 씨는 골프용

스웨터처럼 보이는 윗옷에 아주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지가 약간 헐렁했기 때문에

두꺼운 가죽 벨트를 두르고 있었다.

"내 모습이 어떠냐?" 위즐리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신분을 감추고

가야 한단다. 내가 머글처럼 보이니, 해리?"

"네." 해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멋지세요."

"빌 형과 찰리 형과 퍼……퍼……퍼시 형은 어디에 있어요?"

조지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물었다.

"네 형들은 순간이동으로 경기장에 갈 거란다." 위즐리 부인은 커다란 냄비를 들어

올리더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국자로 오트밀 죽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 주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도 된단다."

해리는 순간이동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뿐 하고

사라졌다가 금방 다른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형들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단 말인가요? 어째서 우리는 순간이동으로 갈 수 없는 거죠?"

프레드가 그릇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투덜거렸다.

"너희들은 아직 나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시험도 치르지 않았잖니?" 위즐리 봉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여자 애들은 어디로 간 거니?"

위즐리 부인은 서둘러 식당에서 나갔다. 잠시 후에 위즐리 부인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이동을 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요?"
해리가 물었다.

"물론이지." 위즐리 씨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티켓을 밀어 넣으면서 대답했다.
"며칠 전에

마법 교통부가 면허증도 없이 순간이동을 한 두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일이 있었지. 그

마법은 결코 쉬운 게 아니란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야.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두 사람은 몸이 서로 분리되었단다."

해리는 무슨 뜻인지 물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들은 모두 몸서리를 쳤다.

"저…… 몸이 분리된다는 게 뭐죠?"

해리가 위즐리 씨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했다.

"몸의 일부만 이동했다는 뜻이란다." 위즐리 씨는 숟가락으로 당밀을 듬뿍 뜨더니 오트밀

죽 위에 얹었다. "물론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마법 사고

복구반이 와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그 때문에

마법부는 아주 바빴지. 그 사건에 대한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우연히 그들이 남긴 몸의

일부를 본 머글들도 처리해야 하고……."

갑자기 해리는 프리벳 가의 보도에 다리 한 쌍과 눈동자 한 개가 버려져 있는 광경을 눈

앞에 그려 보았다.

"그들은 괜찮았나요?"

해리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물론이지." 위즐리 씨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만 했단다. 아마 그들은 두 번 다시 성급하게 순간이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연히 순간이동으로 장난 치면 안 된다. 일부러 그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 어른 마법사들도 많으니까……. 차라리 빗자루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조금 느리긴 해도
안전하잖니."

"하지만 빌 형과 찰리 형과 퍼시 형은 모두 순간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찰리 형은 그 시험을 두 번이나 치러야 했어." 프레드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 그만 미역국을 먹고 말았어. 순간이동을 했는데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서 남쪽으로

8킬로미터나 벗어난 지점에 떨어진 거야. 찰리 형은 쇼핑을 가던 어떤 가엾은 노인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말았지. 기억나지 않으세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하지만 두 번째는 무사히 통과했잖니."

위즐리 부인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대답했다.

"퍼시 형이 통과한 건 불과 이 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조지가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순간이동으로 아래층에 내려온다구요. 자기가 그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여전히 졸린 얼굴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해요?"

지니는 식탁에 앉는 동안 줄곧 눈을 비볐다.

"걸어가야 하니까 그렇지."

위즐리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걸어가요? 아니, 월드컵이 열리는 곳까지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해리가 깜짝 놀라니까, 위즐리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간단 말이니?

우리는 그저

조금만 걸으면 된단다. 수많은 마법사들이 머글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한 장소에

모인다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잘 골라서 여행해야만 한단다.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 큐디치 월드컵 같은 큰 행사가 열릴 때에는……."

"조지!"

갑자기 위즐리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다.

"왜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조지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반문했다.

"네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날 속일 생각일랑 하지 마라!"

위즐리 부인은 요술지팡이를 집어 들고 조지의 주머니를 가리키면서 주문을 외웠다.

"아씨오!"

다양한 색깔의 물건들이 조지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더니 허공을 가로지르면서 봉

날아갔다. 조지는 황급히 손을 뻗어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모두 놓치고 말았다.

그것들은 곧장 위즐리 부인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런 물건들은 죄다 없애라고 했지!" 위즐리 부인이 혓바닥 늘리기 태피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어 올리면서 소리쳤다. 위즐리 부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는

분명히 그것들을 몽땅 없애라고 말했다!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몽땅 없애라고

말했다!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을 몽땅 꺼내도록 해! 어서! 너희 둘 다!"

그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장면이었다. 쌍둥이 형제는 가능한 많은 태피들을 몰래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게 분명했다. 위즐리 부인은 소환 마법을 써서 프래드와

조지가 숨겨 놓은 것들을 모두 찾아냈다.

"아씨오! 아씨오! 아씨오!"

위즐리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태피들이 훑쩍 튀어나왔다. 조지의

재킷 안감과 프레드의 청바지 밑단을 포함한 온갖 장소에 수많은 태피가 들어 있었다.

"우린 그걸 개발하는 데 무려 여섯 달이나 걸렸어요!"

위즐리 부인이 태피를 몽땅 내버리는 것을 보면서, 프레드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위즐리 부인이 버럭 화를 냈다.

"그래, 여섯 달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다니……. 너희들이 O. W. L. 을 그것밖에 받지

못한 것도 당연하지!"

결국 그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혐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위즐리 부인은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도 징그린 얼굴을 평지 않았다. 하지만 쌍둥이 형제는 더욱

심통이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배낭을 메 주고는 엄마에게 단 한 마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나가 버렸다.

"재미있게 구경하거라. 양전하게 굴고……." 위즐리 부인이 쌍둥이 형제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지만, 잔뜩 심술이 난 그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대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빌과

찰리와 퍼시는 정오 무렵에 보내겠어요." 위즐리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위즐리 씨는 여섯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어두운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해리는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하늘에는 아직도 달이 떠 있었다. 지평선을 따라 흐릿한 초록빛이

감도는 것을 보면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잖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마법사들이 한꺼번에 경기장에 모인 수 있죠?
머글들이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해리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마법사들이

퀴디치 월드컵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서둘러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마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커다란 문제였단다." 위즐리 씨가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수십만 명이나 되는 마법사들이 일제히 월드컵이 열리는 경기장으로

몰려오는데,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마법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야. 물론

머글들이 지나갈 수 없는 장소들이 있긴 하단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마법사들이 일제히

다이애건 앤리나 9 와 4 분의 3 번 승강장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렴. 너무나

복잡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적당한 황무지에 마법사 캠프장을

만들었단다. 물론 머글들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도록 수많은 예방 조치를 취했지. 지난 몇

달 동안이나 마법부 전체가 그 일에 매달렸지.

우리는 먼저 도착 시간에 시차를 두도록 했단다. 비교적 값이 싼 삼등석 티켓을 구입한

마법사들은 이 주일 전에 도착하도록 했지. 어떤 마법사들은 머글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너무 많은 마법사들이 한꺼번에 머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 체증이 생겨서 머글들의 버스나 기차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생긴단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할 수는 없잖니. 생각해 봐라. 마법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몰려오고 있단다. 물론 일부는 순간이동으로 오기도 하지. 그렇지만 먼저 머글의 눈에 안 띠는 멀리 떨어진 곳에 마법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안전한 지점을 마련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단다. 물론 그 장소에는 순간이동의 종착지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나무판이 설치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순간이동을 쓰고 싶지 않거나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포트기'라는 걸 사용한단다. 포트기는 미리 정한 시간에 마법사들을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물체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지. 영국에는 전략상 중요한 지점에 약 200 여 개의 포트기가 설치되어 있단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포트기는 스토우초헤드 산꼭대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 거기로 가는 중이다."

위즐리 씨가 저 멀리 보이는 검은 산등성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 산은 오터리 성 캐치풀 마을 너머에 불쑥 솟아올라 있었다.

"그런데 포트기라는 건 뭘로 만들어진 거죠?"

해리가 신기한 듯이 물었다.

"글쎄……. 어떤 물건이든지 정부 다 포트기가 될 수 있단다." 위즐리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머글들의 관심을 끌지 않는 것으로 두드러지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단다……. 만약 머글이 포트기를 본다면 아마도 쓰레기라고 생각할 거야……."

그들은 어두운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사방은 아주 고요했다. 오직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오터리 성 캐치풀 마을로 들어서자, 잉크빛처럼 까맣기만 하던 하늘이 서서히 군청색으로 엷어지면서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로 해리의 손발은 얼어 있었다. 위즐리 씨는 자꾸만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서둘러 스토우초헤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움푹 파인 토끼 구멍에 발부리가 걸리거나 울창한 잔디 둔덕에서 미끄러지는 일을 몇 차례 당하고 나자,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말할 힘조차 없었다. 근육이 경련이라도 일으키는 것처럼 다리가 뜡시 빠근했다.

숨을 쉴 때마다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은 평평한 땅에 도착했다.

"휴." 위즐리 씨가 안경을 벗더니 스웨터가 문질렀다. "알맞게 도착했구나. 이제 10 분만 있으면……."

막대기를 짚고 올라오던 헤르미온느가 마지막으로 산꼭대기에 도착했다.

"이제 포트키만 있으면 되겠구나." 위즐리 씨는 다시 안경을 끼더니 땅바닥을
둘러보았다.

"별로 크지는 않을 거야……. 어디 보자……."

그들은 따로따로 흘어져서 포트키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채 2분도 지나지
않아서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는 함성 소리가 들렸다.

"아서! 여기 있다네. 얘야, 우리가 벌써 찾았어!"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다. 잠시 후에
훤칠하게

키가 큰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에이머스!"

위즐리 씨는 조금 전에 함성을 지른 사람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해리를 비롯한 나머지 아이들도 두 사람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위즐리 씨는 한 손에 꼬질꼬질한 부츠 한 짝을 들고 있는 마법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갈색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의 체격은 아주 건장했다.

"이분은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에이머스 디고리란다,
얘들아." 위즐리

씨가 에이머스를 소개하면서 말했다. "케드릭은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겠지?"

위즐리 씨가 가리키는 곳에는 열일곱 살 가량 되어 보이는 굉장히 잘 생긴
아이가 서

있었다. 케드릭 디고리는 호그와트의 후플푸프 기숙사 큐디치 팀의 주장이자
수색꾼이었다.

"안녕."

케드릭이 그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안녕, 케드릭."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와 지니는 입을 모아서 인사를 했지만, 프레드와 조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아직까지도 작년에 열렸던 첫 번째
큐디치

시합에서 케드릭이 그리핀도르를 물리쳤던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겠군, 아서?"

케드릭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네. 우리는 저기 저 마을 너머에 살고 있는 걸…….

그런데 자네는?"

"우리는 새벽 두 시에 일어나야만 했다네. 안 그러니, 케드릭? 이 애가
순간이동 시험을

통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불평할 일은 아니지. 큐디치
월드컵은 갈레온

한 부대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놀칠 수 없는 일이지. 큐디치 월드컵 티켓이라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머스
디고리는 온후한

표정으로 위즐리네 세 형제를 비롯해서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지니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애들 모두가 자네 아이들인가, 아서?"

"아니야. 머리카락이 빨간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네." 위즐리 씨는 쌍둥이
형제와 론

그리고 지니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이 아이는 론의 친구 헤르미온느라네.

그리고 이

아이는 해리……."

"뭐라구?" 에이머스 디고리가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말했다. "해리 라구? 해리 포터

말인가?"

"저…… 네."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다른 사람들은 해리를 만날 때마다 신기한 눈초리를 훑어보다가 금방 이마에 나 있는 번개 모양의 흉터를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해리는 이미 그런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지만, 그럴 때마다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케드릭은 물론 너에 대해 말했단다." 에이머스 디고리가 해리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작년에 그리핀도르 팀과 경기한 이야기를 모두 다 했단다……. 난 케드릭에게 말했지.

'케드릭, 그건 네가 나중에 자손대대로 자랑해도 좋을 만한 일이구나. 그래,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 네가 해리 포터를 이기다니!'라고 말이다."

해리는 그냥 입을 다물고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런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프레드와 쪽지는 둘 다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리는 빗자루에서 떨어졌어요,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그건 사고였다구요……."

케드릭이 약간 당황해하면서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떨어지지 않았잖니?" 에이머스 디고리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유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 넌 항상 겸손하지. 케드릭은 정말 신사라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 경기에서 이기는 건 아주 당연한 거란다. 해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안 그러니, 얘야? 한 명은 빗자루에서 떨어지고 다른 한 명은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는 꼭 천재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거야." 위즐리 씨가 다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아직

더 올 사람이 있는 건가, 에이머스?"

"아니야. 러브굿 가족은 벌써 일주일 전에 떠났어. 포셋 가족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 아마도 이 지역에는 큐디치 월드컵을 보러 갈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거야."

에이머스 디고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네." 위즐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1분 전이야…….

준비하는 게 좋겠군……."

위즐리 씨는 부드러운 눈길로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너희들은 그냥 포트키를 만지기만 하면 돼. 그것뿐이야. 손가락 하나만 갖다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무거운 배낭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아홉 명의 마법사들은 에이머스 디고리가 불쑥

내민 낡은 부츠 한 짝 주위로 모여 들었다.

그들이 낡은 부츠 주위를 둥글게 모여 섰을 때,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흑 스쳐 지나갔다.

정적.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어떤 머글이 산꼭대기로 올라오다가 이 광경을 본다면? 두 명의 어른과 일곱 명의
아이들이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낡은 부츠 한 짝을 불잡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라니…….
해리는 몹시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셋……."
위즐리 씨가 여전히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둘……. 하나……."
마침내 포트키가 작동했다. 갑자기 해리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확 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해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순식간에
해리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도 자신과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해리의 어깨가 자꾸만 론과 헤르미온느와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고 있더라도 한 것처럼 낡은 부츠와 해리의 집게손가락이 딱
달라붙었다.
그리고……
해리의 발이 땅에 달았다. 론이 비틀거리면서 해리를 밀쳤다. 해리는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포트키가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재빨리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위즐리 씨와 에이머스와
케드릭은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다.
"스토우츠헤드 산에서 출발. 5 시 7 분 도착."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 7 장
베그만과 크라우치
해리는 론을 밀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짙은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는 황량한 들판이었다. 성미가 까다로워 보이는 마법사 두 명이 그들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은 커다란 황금시계를 들고 있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두꺼운
양피지 두루마리와 깃펜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몹시 지쳐보였다. 그들은 머글들처럼 옷을 입긴 했지만 차림새가 영
엉망이었다. 황금시계를 들고 있는 사람은 털이 송송한 트위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맑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넓적다리까지 올라오는 오버슈즈(비을 때 방수용으로 구두
위에 신는 덧신: 역주)를 신고 있었다. 또한 그의 동료는 엉뚱하게도 킬트(스코틀랜드
고지의 남자나 군인이 입는 치마로, 체크 무늬에 세로 주름이 잡혀 있음: 역주)를 두르고
판초(남미 원주민이 입는 일종의 외투: 역주)를 걸치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베이질."
위즐리 씨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킬트를 입고 있는 마법사에게 낡은 부츠를
내밀었다. 그

마법사는 부츠를 받아들더니 커다란 상자 속으로 집어던졌다. 이미 사용한 포트키들을 넣어두는 상자 속에는 낡은 신문이나 음료수 깡통, 바람이 빠진 축구공과 같은 온갖 잡동사니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안녕하시오, 아서." 베이질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직이 아닌가 보구려? 어떤 사람은 좋겠수……. 우린 밤새도록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다오……. 그런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얼른 비켜서는 게 좋을 거요. 블랙 포리스트에서 출발한 대부대가 5 시 15 분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의 캠프장을 찾아 주리다…….

위즐리……. 위즐리……." 베이질이 양피지 목록을 훑어보면서 중얼거렸다.

"저쪽으로 400 미터 가량 걸어가면 제 1 캠프장이 있을 거요. 캠프장 관리인은 로버트라는 사람이오.

디고리……. 제 2 캠프장……. 페인 씨를 만나서 물어보시오."

"고맙소, 베이질."

위즐리 씨는 다정한 눈길로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어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자욱한 안개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는 황무지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20 분 가량 걸어가자, 캠프장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해리는 돌로 만든 작은 오두막을 볼 수 있었다. 어둑어둑한 숲 너머로 고개를 돌리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드넓은 캠프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캠프장에는 벌써 수백 개의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에이머스와 케드릭에게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천천히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남자가 오두막 문간에 기대 서서 캠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해리는 단번에 그 남자가 머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득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위즐리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시오."

캠프장을 관리하는 머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혹시 로버트 씨인가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로버트가 사무적인 태도로 반문했다.

"위즐리라고 합니다. 이를 전에 텐트 두 개를 예약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소." 로버트가 문간에 붙어 있는 예약자 명단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저기 보이는 나무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자리가 있을 거요. 오늘 하루만 예약한 거죠?"

"그렇습니다."

위즐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지금 내겠소?"

로버트가 위즐리 씨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네……. 물론이죠." 위즐리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위즐리 씨는 오두막에서 조금

물러나더니 해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나를 좀 도와 다오, 해리."

위즐리 씨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머글들이 사용하는 돈을 꺼냈다. 머글들의 지폐가 둘둘 말려 있었다.

위즐리 씨는 지폐를 한 장씩 떼어 내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이건……"

어…… 어…… 10 이니? 아, 그래! 이제 그 위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뭔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5?"

"20 이에요."

해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바로잡아 주었다. 캠프장 관리인 로버트는 그들이 나누는

말을 엿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아, 그래. 그렇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작은 종이들이……."

"외국인이오?"

위즐리 씨가 지불하기 위해 돈을 챙겨서 돌아오자 로버트가 궁금하다는 듯이 질문을 던졌다.

"외국인이라뇨!"

위즐리 씨는 약간 당황해하면서 반문했다.

"당신만 제대로 돈을 세지 못했던 게 아니라오." 로버트가 의아스러운 눈길로 위즐리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글쎄 10 분 전에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황금 동전을 내려고

하지 않겠소? 그 동전은 자동차 핸들만큼이나 커다란 것이었다오."

"그래요?"

위즐리 씨는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게다가 지금처럼 캠프장이 북새통을 이룬 적도 없었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다니……." 잔돈을 넣어 두는 깡통을 뒤적거리던 로버트가 다시 캠프장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캠프장에는 여전히 안개가 잔뜩 끼어 있었다. "예약이 무려 수백 건이나 된다오.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맞습니까?"

위즐리 시는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로버트는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

"아."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오.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소. 킬트와 판초를 입고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었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위즐리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아니지만……. 꼭 무슨……. 나도 잘 모르겠소……. 대규모 집회라도 열리는 것

같소." 로버트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소……. 무슨 축제라도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그때 헐렁한 반바지를 입은 마법사가 뽕 하고 나타났다.

"오블리미아테!"

오두막 현관 앞에 갑자기 나타난 마법사가 요술지팡이로 로버트를 겨냥하면서 날카롭게

외쳤다. 로버트의 눈이 초점을 잃어버린 것처럼 멍하니 풀렸다. 로버트는 이마를 찌푸리면서

마치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기억력이 수정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건 캠프장 지도요." 로버트가 위즐리 씨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거스름돈이오."

"정말 고맙소."

위즐리 씨는 다시 손을 내밀어서 거스름돈을 받았다. 헐렁한 반바지를 입은 마법사는

그들과 함께 캠프장 입구까지 동행했다.

그 마법사는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았다. 수염을 짧게 깎은 그의 턱은 파르스름한 빛이

감돌았으며 눈 밑에는 진한 보랏빛 그늘이 져 있었다. 로버트의 오두막에서 멀어지자, 그

마법사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오. 저 사람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하루에도 열 번씩이나 기억력 마법을 써야만 하니까……. 그런데 루도 베그만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루도 베그만은 그저 블러저와 키에플에 대해 목청껏 떠들어대고만

있어요. 머글들에게 들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제기랄! 어서

빨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소. 월드컵이 끝나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요. 나중에

봅시다, 아서."

그 마법사는 다시 뽕 하고 사라졌다.

"베그만 씨는 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의 책임자잖아요?" 지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머글들이 있는 곳에서 블러저에 대해 말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물론 그렇겠지." 위즐리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캠프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루도는 항상……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보안에 대해 엄격하지 못하단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열성적인

스포츠부 책임자도 드물 거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루도는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퀴디치 팀의

선수였잖니? 더구나 루도는 원본 와스프 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물이꾼이었단다."

그들은 짙은 안개를 헤치면서 길게 늘어서 있는 텐트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얼핏 보기에는 대부분의 텐트가 아주 평범해 보였다. 텐트를 세운 마법사들은 확실히

머글들의 텐트처럼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쓴 것 같았다.
하지만 해리의 눈에는 어색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어떤 텐트에는
엉뚱하게도
굴뚝이 세워져 있었으며 초인종을 울리는 줄이 매달려 있는 텐트도 있었다.
심지어
풍향계가 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저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단번에
마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텐트들이 수두룩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가
의심을 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캠프장안으로 계속 들어가자, 줄무늬 비단천으로 만든 작은 궁전 모양의 아주
호화롭고
정교한 텐트가 보였다. 그 텐트의 입구에는 몇 마리의 공작새까지 매어져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이상야릇한 텐트들이 계속 나타났다. 어떤 텐트는 무려 3층이나
되었는데,
꼭대기에는 작은 첨탑까지 세워져 있었다. 심지어 정원이 빨려 있는 텐트도
있었는데,
수반과 해시계와 분수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언제나 똑같군." 위즐리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마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서로들 뺨내기 바쁘다니까……. 아, 다 왔구나. 봐라, 이게 바로 우리의
캠프장이란다."
마침내 그들은 캠프장 꼭대기에 있는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텅 빈 공간에
'위즐리'
라고 적힌 작은 풋말이 땅에 박혀 있었다. 위즐리 씨는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를
지었다.
"여긴 정말 좋은 장소구나! 경기장은 바로 저 숲 맞은편에 있단다. 우리는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셈이야." 위즐리 씨는 어깨에 둘러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으면서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았어! 한데 분명히 말하지만 마법을 쓸 수는
없다. 우리가
한꺼번에 머글 땅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텐트를 설치해야 한단다! 하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머글들은 늘
그렇게
하니까 말이야……. 자, 해리. 그런데 텐트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해리는 지금까지 캠프에 참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즐리 가족은 휴가를
갈
때마다 절대로 해리를 데려가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이웃집 피그 할머니에게
해리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곤 했다.
그러나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그럭저럭 풀대와 말뚝을 제자리에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었다. 나무 망치를 사용해서
팩을 박아야
할 순간이 되자, 극도로 흥분해서 일을 마쳐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초라한 이인용
텐트 두 개만 간신히 설치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해리는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엉성한 텐트를 보고 우리가 마법사라고 의심할 머글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텐트는 너무 작았다. 잠시 후에 빌과 찰리와 퍼시가 도착하면

인원은 모두 열 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텐트는 고작해야 네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도 이런 문제점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위즐리 씨가 첫

번째 텐트 안으로 들어가자 힐끗 해리를 쳐다보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좀 비좁겠구나." 위즐리 씨가 외쳤다. "하지만 겨우 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와서 한 번 구경하렴."

고개를 숙이고 텐트 안으로 들어간 해리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안에는 초라한

텐트가 아니라 욕실과 주방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고풍스러운 아파트가 아닌가. 게다가

방이 세게나 되었다.

해리는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피그

할머니의 가구와 정확히 똑같은 종류의 가구가 놓여 있었다. 텐트의 분위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자들 위에는 크로셰 뜨개질로 뜯 커버가 덮여 있었고, 고양이 냄새도

희미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렇게 오래 쓸 건 아니니까……." 위즐리 씨는 벗겨진 머리를 손수건으로 문지르면서

침실에 놓여 있는 네 개의 이층 침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가구들은 퍼킨스가

빌려준 거란다. 퍼킨스는 이제 더 이상 야영을 할 수가 없어. 가엾은 친구 같으니라구…….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 위즐리 씨는 먼지투성이의 주전자를 집어 들었다.

"물이

필요하겠구나……."

"머글이 준 지도에 수돗가가 표시되어 있어요." 해리를 따라 텐트 속으로 들어온 롤이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롤은 텐트 내부의 이상한 풍경을 보고도 전혀 놀란 것 같지

않았다. "그건 캠프장 맞은편에 있어요."

"네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데리고 가서 물을 좀 받아 오겠니?" 위즐리 씨가 주전자와

냉비 두 개를 내밀면서 말을 이었다. "우린 불을 피울 나무를 좀 주워 올 테니."

"하지만 오븐이 있잖아요." 롤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냥 마법을 쓰면……."

"론, 말조심해라! 머글 안전 수칙을 지켜야지!" 위즐리 씨가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다. "머글은 캠프를 할 때, 야외에 모닥불을 피워서 밥을 한단다.

머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

해리와 롤과 헤르미온느는 물을 떠오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잠시 여자들이

사용하게 될 텐트를 둘러보았다. 그것은 남자들이 사용하기도 한 텐트보다 약간 작긴

하지만 그 대신에 고양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전자와 냄비를 들고 수돗가로 출발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그들은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는

텐트촌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출지어 늘어서 있는 텐트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해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마녀와 마법사들이 살고 있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해리는 다른 나라 마법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캠프장에서 야영을 하던 마법사들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었다. 해리는 피라미드처럼 생긴 텐트에서

야영을 하고 있던 그 가족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해리가 아기 마법사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살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작은 남자아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요술지팡이를 들고 잔디밭에 있는 민달팽이 한 마리를 찌르고 있었다. 마법에 걸린

민달팽이는 살라미 소시지만큼이나 굵게 부풀어 올랐다.

"몇 번이나 말했니, 캐빈? 아빠의 요술지팡이는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으이구!"

꼬마의 엄마가 허둥지둥 텐트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쳤다. 그러다가 그만 커다란 민달팽이를 발로 밟아서 톡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가 민달팽이를 밟아서 터뜨렸어! 엄마가 민달팽이를 밟았단 말이야!"

찢어질 듯한 꼬마의 울음 소리와 엄마의 잔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뒤흔들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캐빈과 비슷한 또래의 꼬마 마녀 두 명이 빗자루를 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이슬 맷힌 잔디를 살짝 스칠 정도로만 올라가는 장난감 빗자루였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저게 뭐람! 도대체 부모들은 아이들을 돌보진 않고 늦잠만 자고 있는

거야, 뭐야?"

마법부에서 일하는 마법사가 투덜거리면서 지나갔다.

여기 저기 텐트에서 어른 마법사들이 나와 아침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마법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요술지팡이로 불을 불이고 있었다. 불안한 표정으로 머글이

사용하는 성냥을 굿고 있는 마법사도 있었다. 정말로 불이 붙긴 붙을까? 아프리카에서 온 세 명의 마법사들은 모두들 하얀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그들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면서 밝은 보랏빛 불에 토끼처럼 보이는 것을 굽고 있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텐트들 사이로 걸어가다가 금박과 은박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살렘 마녀

연구소>라는 현수막을 발견했다. 미국에서 온 중년 마녀들이 현수막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즐겁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쿠디치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비록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해리는 사람들이 모두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내 눈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세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 거야?" 론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물었다. 하지만 론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그 지역에 있는 텐트들은 온통 클로버(아일랜드의 국화; 역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이상한 모양의 산들이 땅바닥을 뚫고 솟아오른 것 같았다.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었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 갑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핀도르 기숙사 4학년생인 시무스 피니간이 그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클로버로 뒤덮인 자기 텐트 앞에서 엄마임이 틀림없는 엷은 갈색 머리와 여자와, 역시 그리핀도르의 학생인 단짝 친구 딘 토마스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장식이 마음에 들어?"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가서 인사를 하자, 시무스 피니간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마법부는 이런 장식을 싫어하는 것 같아." "난 마법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색깔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야?" 엷은 갈색 머리를 말아 올린 피니간 부인이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말했다. "불가리아 사람들이 텐트 여기저기에 뭘 매달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너희들도 물론 아일랜드를 응원하겠지?" "물론이죠." 그들은 진정으로 아일랜드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피니간 부인에게 납득시킨 후에야 비로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열광적으로 아일랜드를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달리 무슨 말을 살 수 있겠니?" 론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그런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텐트에 매달았다는 게 뭘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가 보자." 해리가 불가리아 국기- 빨간색과 초록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가 바람에 펼럭이고 있는 지역을 가리켰다. 거기 텐트들은 하나같이, 짙고 까만 눈썹을 가진 아주 무뚝뚝한 얼굴이 있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 그 사진도 물론 움직이고 있긴 했지만, 그저 눈을 깜박이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게 다였다. "크롬이야." 론이 말했다. "뭐라구?"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크롬 말이야! 빅터 크롬, 불가리아의 수색꾼 1"

"정말 심술궂게 생겼다."

자기에게 눈을 깜박이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수많은 크롬을 보며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심술궂게 생겼다구?" 론이 눈을 치켜 떴다.

"어떻게 생겼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크롬은 정말 굉장한 선수야. 나이도 아주 젊은

편이지. 열여덟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야. 좌우지간 크롬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

오늘 밤에 열리는 퀴디치 월드컵을 보면, 너도 저절로 알게 될거야."

마침내 그들은 수돗가에 도착했다. 이미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고 있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도 줄 맨 뒤에 가서 섰다. 바로 앞에 서 있던 남자 두

명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주 늙은 마법사였으며, 다른 한 사람은

마법부 직원인 것 같았다. 해리는 노인 마법사의 옷차림을 보고 도저히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노인은 꽃무늬가 수놓인 잠옷을 입고 있었으며, 마법부 직원은 줄무늬

바지를 들고 있었다.

"제발 그 꽃무늬 잠옷을 벗고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아치. 그런 옷차림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캠프장을 관리하는 머글이 의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법부 직원은 거의 울다시피 애원하고 있었다.

"난 이걸 머글 가게에서 구입했네. 이것도 머글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야."

늙은 마법사는 완강한 태도로 거절했다.

"하지만 그건 여자 머글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치. 남자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빨리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마법부 직원이 줄무늬 바지를 내밀면서 말했다.

"난 이 옷이 마음에 들어.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게 아주 시원하거든……."

늙은 아치가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다. 헤르미온느는 도저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잠시 줄에서 나와야만 했다. 헤르미온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치는 이미 어디론가 가 버리고 없었다.

그들은 물이 가득 든 주전자와 냄비를 들고 다시 캠프장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캠프장을 지나가는 동안, 해리는 친근한 얼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핀도르 기숙사 퀴디치

팀의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지금은 학교를 졸업한 올리버 우드가 해리를 불렀다. 그는

해리를 데리고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시켰다.

"나는 푸들미어 유나이티드 팀에 입단했어. 비록 후보이긴 하지만……. 나중엔 반드시

주전으로 뛰게 될 거야."

올릴버 우드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에는 후풀푸프 기숙사의 4학년생인

어니 맥밀란이 그들을 불렀다. 조금 더 걸어가자 이번에는 래번클로 기숙사 퀴디치 팀의

수색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 쟁의 모습이 보였다. 해리와 눈이 마주치자, 초 쟁은 반가운 듯이 생긋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해리는 초 쟁을 향해 손을 흔들다가 그만 실수로 물을 왕창 쏟고 말았다. 이러! 혹시 론이 비웃지 않을까? 해리는 얼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십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 애들은 누구야? 호그와트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닌 것 같은데……."

해리가 딴전을 피우면서 말했다.

"아마도 다른 나라 학생들일 거야." 론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다른 나라 마법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난 적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지만,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 빌 형은 브라질에 있는 마법학교 학생과 펜팔을 한 적이 있었어……. 물론 아주 오래 전의 일이지만……. 빌 형은 교환 학생이 돼서 브라질로 가려고 했었어.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엄마와 아빠는 빌 형을 외국에 보낼 수가 없었지. 형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편지를 보내자, 그 친구는 굉장히 화가 나서 저주가 담긴 모자를 보내 왔어. 그 모자를 쓰자 빌 형의 귀가 순식간에 오그라들고 말았지."

해리는 다른 나라에도 마법학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내심 깜짝 놀랐지만, 곁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태연하게 미소만 지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캠프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호그와트가 유일한 마법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리는 곁눈질로 헤르미온느를 슬쩍 쳐다보았다. 헤르미온느는 조금도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호그와트 이외에도 다른 마법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은 게 분명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니?"

마침내 위즐리네 텐트에 도착하자 조지가 물었다.

"돌아오는 도중에 아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을 피우지 않은 거야?"

론이 물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아빠가 성냥을 가지고 장난하고 계셔."

프레드가 투덜거리면서 대답했다. 위즐리 씨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성냥을 그어대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부러진 성냥들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위즐리 씨는 평생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는 처음이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이구!"

가까스로 성냥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위즐리 씨는 깜짝 놀라면서 성냥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위즐리 아저씨. 이렇게 해보세요."

헤르미온느가 제대로 성냥불을 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겨우 모닥불을 피우긴

했지만, 무언가 따뜻한 음식을 먹기까지는 또다시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별로 지루하지 않았다. 그들의 텐트가 경기장 근처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법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급히 왔다갔다 하면서 위즐리 씨에게 인사를 했던 것이다.

"저 사람은 도깨비 연락소의 소장 커스버트 모크리지 씨란다……. 저기 실용 마법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길버트 워플씨가 오고 있구나. 안녕하시오, 아출드……. 아놀드 피즈굿 씨는

우리의 해결사란다. 마법 사고 복구반의 일원이지……. 그리고 저기 저 사람들은 보드 씨와

크로우커 씨란다……. 그들은 비밀단원이야……."

위즐리 씨가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계속 해설을 늘어놓았다. 위즐리네 아이들은

마법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젠 아무 흥미도 없었으므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요?"

"미스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단다. 주로 일급 비밀을 취급하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단다……."

마침내 그들이 달걀과 소시지를 요리하기 시작했을 때, 빌과 찰리와 퍼시가 숲속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왔다.

"역시 순간이동이 좋군요. 이제 막 도착했어요, 아빠." 퍼시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군!"

그들이 빙 둘러앉아서 소시지와 달걀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위즐리 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를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었다.

"아하!" 위즐리 씨가 반가워하며 소리쳤다. "어서 오게, 루도! 마침내 나타났군."

루도 베그만은 지금까지 해리가 보았던 마법사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꽃무늬 잠옷을 입고 있던 아치 노인보다도 더욱 이상했다. 루도 베그만은 노란색과

검은색의 짙은 줄무늬가 있는 기다란 퀴디치 선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웜본

와스프 팀의 상징인 거대한 말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한물간 운동선수처럼 보였다.

불쑥 튀어나온 배는 터질 듯이 팽팽했는데, 잉글랜드 퀴디치 대표선수 시절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루도 베그만의 코는 납작하게 뭉개져 있었다. (혹시 블러저에 맞아서 코가 깨진 게

아닐까? 해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루도 베그만을 쳐다보았다.) 동그랗고 파란 눈과 짧은

금발 머리 그리고 발그레한 얼굴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마지 덩치만 큰 남학생처럼 보였다.

"어이!"

루도 베그만이 유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루도 베그만은 마치 발바닥에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아주 신이 난 표정이었다. "잘 있었나, 아서?" 루도 베그만이 모닥불을 향해 걸어오면서 말했다. "정말 멋진 날이야.

그렇지? 이보다 더 좋은 날씨가 어디 있겠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지……. 모든 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 난 별로 할 일도 없다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칠 대로 지쳐 보이는 한 무리의 마법부 직원들이 루도 베그만의 등 뒤로 황급히 지나가면서, 6 미터 상공까지 보랏빛 불꽃을 쏘아 올리는 어떤 마법의 불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퍼시는 손을 내밀어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루도 베그만의 부서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아……." 위즐리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 애는 내 아들 퍼시라네. 이제 막 마법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신참이지. 그리고 이 애는 프레드, 아니 조지라네. 미안하네. 저 애가 프레드야. 빌과 찰리, 론이라네. 이애는 내 딸 지니……. 그리고 론의 친구 헤르미온느 그레이인저와 해리 포터……."

루도 베그만은 해리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더니 그의 이마에 난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위즐리 씨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인사해라. 이분이 바로 루도 베그만 씨란다. 우리가 퀴디치 월드컵 티켓을 구한 건 모두 이분 덕분이란다."

루도 베그만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일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이번 시합의 결과에 대해 내기를 걸지 않겠나, 아서?" 루도 베그만은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 옷 호주머니 속에 두둑이 들어 있는 금화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말했다.

"로디 폰트너는 불가리아가 먼저 선제골을 넣는 쪽에 돈을 걸었네. 하지만 로디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아. 올해의 아일랜드 공격수 세 명은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았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 그 점을 고려해서 나는 로디에게 후한 배당을 주었다네. 그리고 땅딸보 애거사 팀스는 이 경기가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될 거라는 쪽에 그녀의 양식장에서 기르는 뱀장어 절반을 걸었다네."

"좋아. 나도 걸겠네." 위즐리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어디 보자……. 아일랜드가 이기는 쪽에 1 갈레온……." "1 갈레온?" 루도 베그만은 약간 실망한 것 같았다.

"좋아, 좋아……. 얘들아, 너희들도 내기를 하겠니?"

"저 애들은 내기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네." 위즐리 씨가 말했다. "애들 엄마가 알면

야단날 거야."

"우리도 돈을 걸겠어요. 모두 37 갈레온, 15 시클, 3 넛이에요." 프레드가 조지와 함께 돈을

빡빡 굽어모으며 말했다. "물론 아일랜드가 이기는 쪽에 걸겠어요. 하지만 스니치는 빅터

크롬이 잡을 거예요. 아 참, 이 가짜 요술지팡이는 덤으로 드릴게요."

"그런 쓰레기 같은 물건을 뭐하러 드리겠다는 거야?"

퍼시가 통명스럽게 면박을 주었다. 하지만 루도 베그만의 생각을 전혀 다른 것 같았다.

루도 베그만은 얼른 받아들었다. 소년 같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갑자기 가짜 요술지팡이가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고무 병아리로 변하자, 루도 베그만은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굉장하구나! 이렇게 멋진 선물을 받다니……. 좋아. 이 지팡이 값으로 5 갈레온을 주마!"

퍼시는 기가 막힌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얘들아, 난 너희들이 내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걸면

어떻게 하니? 만약 엄마가 알면……."

위즐리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다.

"흉을 깨뜨리지 말게, 아서!" 루도 베그만이 다시 한 번 금화를 짤랑거렸다.

"쟤들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 지 다 알 만한 나이 아닌가! 우승은 아일랜드가 차지하지만, 스니치는

빅터 크롬이 잡는 쪽에 걷다 이거지?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단다, 얘들아.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너무나 희박해……. 좋아, 그 대신에 아주 후한 배당을 주도록 하겠다…….

여기다 이 이상한 요술지팡이 값으로 5 갈레온을 보태면……."

루도 베그만은 노트와 깃펜을 꺼내 쌍둥이 형제의 이름을 적었다. 위즐리 씨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맙습니다."

루도 베그만이 양피지 영수증을 내밀자, 조지가 재빨리 받아서 망토 속에 쑤셔 넣었다.

"차 한잔 주지 않겠나? 나는 출곧 바티 크라우치를 찾고 있었다네. 나와 함께 이 경기를

주관하고 있는 불가리아 책임자가 계속 뭐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하지만 바티 크라우치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150 가지 정도의 언어는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인니까……."

루도 베그만이 위즐리 씨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크라우치 씨가요?" 출곧 뚱한 표정으로 서 있던 퍼시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크라우치씨는 무려 200 가지가 넘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인어

말과 도깨비 말, 심지어 트롤 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트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프레드가 빙정거리면서 말했다. "그저 손가락질을

하면서 툴툴거리기만 하면 되는데……."

퍼시는 잠시 화가 난 눈빛으로 프레드를 노려보더니 주전자를 들어서 모닥불 위에

올려놓았다.

"버사 조킨스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나, 루도?"
위즐리 씨가 묻자, 베그만은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혀. 하지만 곧 돌아오겠지, 뭐. 한심한 늙은이 같으니라구……. 마치 출출
새는 솔단지
같은 기억력에 방향 감각까지도 없으니까……. 아마도 버사는 길을 잊은 게
분명해. 10 율이
되면 버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거야. 아직도 7 월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루도
베그만은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사람을 시켜서 버사를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위즐리 씨가 약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루도 베그만은 퍼시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바티 크라우치도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다네." 루도 베그만이 동그란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이런!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더니……. 바티!"
그 순간 마법사 한 명이 뽕 하고 모닥불 가에 나타났다. 그 마법사의 모습은
낡은 원본
와스프 팀 선수복을 입고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루도 베그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주름 하나없는 뺨뺨한 양복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는
바티
크라우치는 아주 깐깐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짧게 깎은 흰머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곧은
가르마를 따라서 빗어 넘겨져 있으며, 칫솔처럼 생긴 콧수염은 꼭 자로 잰 것
같았다.
신발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해리는 퍼시가 왜 크라우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다.
퍼시는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크라우치는 머글
옷차림에 대한
규칙을 어찌나 철저히 따랐던지 은행장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버논 이모부라고 하더라도 크라우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바티, 이리 와서 좀 앉으세요."
루도 베그만이 손으로 잔디밭을 톡톡 치면서 말했다.
"아닐세, 루도." 크라우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크라우치의 목소리에는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까지 자네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네.
불가리안들이 일등석에
열두 개의 좌석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네."
"그래서 그들이 날 쫓아 다니는 건가요? 난 또 그 사람들이 족집게라도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이상야릇한 사투리를 쓰면서 말이에요."
"크라우치 씨!" 그때 퍼시가 마치 곱추처럼 허리를 90 도로 깍듯이 숙이면서
황급히 말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오……." 크라우치는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퍼시를 쳐다보았다. "고맙네,
웨더비."
프레드와 조지는 차를 마시다가 그만 사례가 들고 말았다. 퍼시는 컷불까지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얼굴을 붉히면서 주전자를 들고 재빨리 움직였다.

"참, 아서……. 자네에게 전할 말이 있다네." 크라우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즐리 씨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알리 배서가 잔뜩 성이 났더군. 자네가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압수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는 모양이야."

"저는 지난 주에도 그 일 때문에 알리에게 부엉이를 보냈어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아마 백 번도 넘게 말했을 겁니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마법 물품 등기소가 머글 문화재로 정해 놓은 물건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알 리가 그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위즐리 씨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물론 들은 척도 하니 않겠지. 알리는 양탄자를 영국으로 수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크라우치는 퍼시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절대로 빗자루 대신 양탄자를 타고 다니는 일을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루도 베그만이 한 마디 거들었다.

"알리의 생각을 다르다네. 한 가족이 타기에는 양탄자가 빗자루보다 훨씬 더 시장성이 높다고 여기니까 말일세." 크라우치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한번에 열두 명이나 태울 수 있는 액스민스터를 가지고 계셨다네. 하지만 그건 물론 양탄자가 법으로 금지되기 전의 일이었지."

크라우치는 자신의 조상들이 철저하게 법을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라도 하듯이 황급히 덧붙였다.

"그런데 무척 바쁘셨나 보죠, 바티?"

루도 베그만이 쾌활하게 물었다.

"아주 바빴다네. 다섯 개의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포트키를 설치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네, 루도."

"이 일이 끝나면 두 분 모두 무척 기쁘시겠어요."

위즐리 시가 말하자, 루도 베그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듯이 말했다.

"기쁘다니! 난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없는데……. 하지만 아직 기대할 만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긴 해요. 안 그래요, 바티? 준비할 게 많죠?"

"상세한 사항들이 모두 결정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잖나?"

크라우치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오, 상세한 사항들!" 루도 베그만은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명을 했어요. 그들도 동의를 했잖아요. 안 그래요?"

어쨌거나 이 애들도 곧 알게 될 건데요, 월……. 내 말은 그게 호그와트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루도! 우리는 불가리아인들을 만나러 당장 가야 하네." 크라우치가 루도 베그만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차 잘 마셨네, 웨더비."

크라우치는 손도 대지 않은 찻잔을 다시 퍼시에게 돌려주고는 루도 베그만이
일어날
대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루도 베그만은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마신
후에야, 호주머니
속의 금화를 짤랑짤랑 흔들면서 마지못해 일어났다.
"모두들 나중에 보자!" 루도 베그만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일등석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이 경기의 해설을 맡았단다!"
루도 베그만은 손을 흔들었지만, 바티 크라우치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의 모습이 뽕 하고 사라졌다.
"호그와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빠? 아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
거죠?"
베그만과 크라우치의 모습이 사라자마자 프레드가 물었다.
"곧 알게 될 거다."
위즐리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건 비밀 정보야. 마법부가 발표할 때까지는 크라우치 씨의 말처럼 절대로
알려 줄 수
없어."
퍼시가 거만하게 말했다.
"시끄러워, 웨더비."
프레드가 투덜거리면서 핀잔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뜨거운 열기가 캠프장을 온통 뒤덮기 시작했다. 마침내 해질
무렵이
되자, 고요한 여름 공기조차도 부푼 기대로 인해 바르르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지자, 그 순간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수천 명의
마법사들은 더
이상 머글인 척 위장하려 하지 않았다.
마법사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여기저기에서 마법을 부리고 있었다. 이제는
마법부도
체념한 듯이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사방에서 장사꾼들이 뽕뽕
나타났다.
장사꾼들은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거나 수레를 밀면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어떤 장사꾼은 자기팀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빛을 발하는 마법의
장미를 팔고
있었는데, 아일랜드 팀의 장미는 초록색이었고 불가리아 팀의 장미는
붉은색이었다. 춤추는
클로버로 장식한 초록색 모자와,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그려진
불가리아
팀의 스카프와, 손에 들고 흔들면 그 나라의 국가를 연주하는 깃발도 있었다.
그 외에도
정말로 날아다니는 작은 파이어볼트 모형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의기양양하게 걸어
다니는 유명한 선수들의 인형도 있었다.
"난 이걸 사기 위해 여름 방학 내내 용돈을 모았어."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씩 웃었다. 장사꾼들 사이로 걸어들어간 그들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샀다. 론은 춤추는 클로버 모자와 초록색 장미를 샀다. 그리고
불가리아 팀의

수색꾼 빅터 크룸의 인형도 하나 샀다. 론의 손바닥 위로 올라간 크룸의 인형은
못마땅한

얼굴오 초록색 장미를 힐긋 쳐다보면서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와, 이것들 좀 봐!"

해리가 활동 쌍안경처럼 생긴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수레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그 물건에는 갖가지 모양의 손잡이와 다이얼이 잔뜩 달려 있었다.

"옴니클러입니다." 장사꾼 마법사는 열심히 소리쳤다. "지나간 장면을 다시
재연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느린 속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싸다, 싸! 하나에 10 갈레온……."

"이걸 사지 말걸."

론은 춤추는 클로버 모자를 가리키면서 후회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동경
어린

눈빛으로 옴니클러를 쳐다보았다.

"세 개 주세요."

해리는 장사꾼 마법사에게 30 갈레온을 내밀었다.

"아니, 괜찮아."

론이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부모에게 약간의 유산을 물려받은 해리가
자신보다

훨씬 더 돈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론은 항상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대신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예 선물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옴니클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물론이지."

론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 해리." 헤르미온느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기 프로그램은
내가 살게."

한결 주머니가 가벼워진 그들은 서둘러 텐트로 돌아갔다. 빌과 찰리와 지니는
초록색

장미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으며, 위즐리 씨는 아일랜드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반면에

프레드와 조지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루도
베그만에게

줘 버렸기 때문이다.

갑자기 숲 너머에서 은은한 징소리가 들리더니 숲속에 매달려 있던 초록색
등불과

붉은색 등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등불들이 경기장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경기 시간이 되었구나!" 잔뜩 흥분한 위즐리 씨가 소리를 질렀다. "어서
가자!"

제 8 장

퀴디치 월드컵

그들은 위즐리 씨를 선두로, 각자 산 물건들을 손에 들고 초롱 불빛을 따라
숲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했다. 수천명의 마법들이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거나 한바탕
노래까지

불러대면서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열광적인 흥분의 분위기가 전염되었는지,
해리도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큰 소리로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20 분쯤 걸어가자, 그들은 어느새 거대한
경기장

그늘 속에 들어와 있었다. 비록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황금빛 벽의 일부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해리는 한눈에 대성당이 열 개는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좌석이 무려 십만 개나 된단다." 웅장한 경기장의 규모에 압도당한 해리가 숨을 죽이자, 위즐리 씨가 말했다. "500 명이나 되는 마법부의 가동부대가 일년 내내 이 일에 매달렸단다.

그들은 경기장 구석구석에 머글들을 물리치는 마법을 걸었지. 지난 일년 동안 머글들은 우연히 이 근처로 올 때마다,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떠올라서 황급히 돌아서 곤 했단다…….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야."

위즐리 씨가 자상하게 설명하면서 가장 가까운 경기장 입구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벌써부터 입구는 환호성을 지르는 마녀와 마법사들도 발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일등석!" 경기장 입구에서 안내를 하던 마법부의 마녀가 그들의 티켓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곧장 이층으로 올라가세요, 아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일등석이 보일 거예요."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에는 진한 보라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마법사들과 함께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일등석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른 마법사들은 서서히 왼쪽과 오른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 하나 둘씩 관람석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위즐리 씨 일행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도착하자,

경기장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관람석이 나타났다. 일등석은 경기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 양쪽에 세워져 있는 황금 골대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관람석에는 보라색과 황금색을 입힌 스무개의 의자가 두 줄로 놓여 있었다. 해리는 위즐리 가족과 함께 관람석 제일 앞줄에 앉아서 고개를 내밀고 운동장을 내려다 보았다.

해리의 눈앞에 지금까지 한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십만 명의 마녀와 마법사들이 타원형 경기장 주위를 따라 총총이 설치된 좌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경기장은 온통 그 자체에서 발산되는 것 같은 신비한 황금빛에 잠겨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경기장은 마치 벨벳을 깔아 놓은 듯이 매끄러워 보였다. 경기장 양쪽 끝에는 15 비터 높이의 골대가 세 개씩 서 있었으며, 일등석 맞은편에는 거의 해리의 눈과 같은 높이에 대형 전광판이 걸려 있었다. 그 전광판에는 황금색 글씨가 끊임없이 훑휙 지나가고 있어서,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이 휙갈겨 썼다 지웠다 하는 것 같았다.

잠시 동안 전광판을 지켜보던 해리는 황금색 글씨가 광고문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블루버틀- 온 가족을 위한 빗자루! 안전하고 밀을 수 있으며 도난 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노우어 우인의 다목적 마법 혼란 제거제-통증도 없고 얼룩도 없습니다!

야회복 전문 마법사 의상실- 런던, 파리, 호그스미드…….

해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일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 보았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텅 비어 있었다. 뒷줄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자그마한 생물이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생물의 다리는 미처 바닥에 달지도 않을 정도로

짧았다. 관람석 위로 다리를 달랑 들어올리고 있던 그 생물은 토가(고대로마인들이 입던

곁옷: 역주)처럼 생긴 수건을 몸에 두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런데

박쥐처럼 기다란 귀가 이상하게 낮이 익었다…….

"도비?"

해리가 미심쩍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그 작은 생물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올리더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가락을 살짝 벌렸다. 손가락 사이로 커다란 갈색 눈과 큼자막한

토마토처럼 생긴 코가 나타났다.

그것은 도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생물도 해리의 친구 도비처럼 꼬마 집요정이

분명했다. 해리는 도비가 말포이 가족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다.

"저를 도비라고 부르셨나요?"

꼬마 집요정은 신기한 듯이 손가락들 사이로 빠끔히 바라보며 말했다. 도비보다 훨씬 더

고음인 그 요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래서 해리는 혹시 이 요정이(꼬마 집요정의

경우에는 남자 요정과 여자 요정을 구별하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도 고개를 돌려서 꼬마 집요정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해리로부터 도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실제로 꼬마 집요정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위즐리 씨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윙키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해리가 그 요정에게 말했다. "난 그저…… 내가 아는 요정인 줄 알았어."

"저도 도비를 알아요!" 그 꼬마 집요정이 말했다. 일등석에는 별로 불이 밝게 켜져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꼬마 집요정은 마치 불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저는 윙키라고 해요. 그런데……." 꼬마 집요정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해리의 이마에 나 있는 흉터에 머물자, 순식간에 눈이 접시만큼이나 커졌다.

"혹시 해리 포터?"

"그래, 맞아."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도비는 항상 해리 포터에 대해 말했어요!"

꼬마 집요정은 두 손을 살짝 내리더니 약간 주눅이 든 표정을 지었다.

"도비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자유를 얻어서 좋아하고 있니?"

해리가 물었다.

"아, 네……." 윙키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대답했다. "물론 더 이상 멀시를

받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해리 포터가 도비에게 해주신 일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도비를

풀어주신 일 말이에요."

"왜? 도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해리가 깜짝 놀라 물었다.

"자유를 얻게 되자, 도비는 그만 자만에 빠졌어요." 윙키가 슬프게 말했다.

"도비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일을 한 대가로 봉급을 받고 싶어하니까요."

윙키가 한껏 목소리를 낮추면서 속삭였다.

"봉급? 그런데 어째서 봉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해리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윙키는 해리의 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손으로 얼굴을 절반 가량 가렸다.

"꼬마 집요정들은 봉급을 받지 않아요!" 윙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도비에게 말했어요. 어서 빨리 좋은 가족을 찾아서 정착하라고…….

하지만

도비는 온갖 이상한 생각을 해요. 지금 도비는 전혀 꼬마 집요정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비에게 충고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천한
도깨비처럼,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거라고……."

"이제 도비도 좀 재미있게 지낼 수 있게 되었잖아?"

해리가 윙키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꼬마 집요정들은 재미있게 지내면 안 돼요, 해리 포터." 윙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단호하게 말했다. "꼬마 집요정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요. 저는 높은
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해리 포터!" 윙키는 관람석 언저리를 훌끗 쳐다보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주인님이 저를 일등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리로 온
거예요."

"네가 높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너를 이곳으로 보냈지?"
해리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주인님은…… 주인님은 제가 자리를 맡아두길 바라니까요, 해리 포터.

주인님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윙키가 빈 옆자리로 고개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윙키는 주인님의
텐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해리 포터. 하지만 윙키는 시키는 대로 해요. 윙키는 좋은
꼬마

집요정이에요."

꼬마 집요정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한 번 관람석 가장자리를 힐끗 바라보곤

두 손으로 눈을 완전히 가리고 말았다. 해리는 다시 경기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니까 저게 꼬마 집요정이니?" 론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해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정말 이상하구나, 안 그래?"

"도비는 더 이상해."

해리가 대답했다. 론은 옴니클러를 꺼내들고 맞은편 관람석에 앉아 있는 관중들을

쳐다보았다.

"굉장한데!" 론이 재생 버튼을 만지작거리면서 소리쳤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저 아래에

있는 노인이 계속 반복해서 콧구멍을 후비도록 할 수 있어……. 다시……

또다시……."

헤르미온느는 융단으로 감싼 표지에 술이 달린 프로그램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 양팀 마스코트들의 응원전이 열린다."

헤르미온느가 큰 소리로 읽자 위즐리 씨가 말했다.

"오, 그건 정말 볼 만한 응원전이지. 국가 대표팀들은 개막전 행사를 하기 위해 자기

나라의 생물들을 가져온단다. 이제 곧 마스코트들의 축하 공연이 열릴 거야. 알겠니?"

30 분 가량 흐르자, 일등석도 거의 다 채워졌다. 위즐리 씨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느라 바빴다. 일등석으로 올라온 마법사들은 꽤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게 분명했다.

퍼시는 마치 고슴도치라도 깔고 앓은 것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법부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가 도착하자, 퍼시는 잽싸게 일어나더니 허리를 깊이

숙이면서 인사했다. 그러다가 그만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퍼시는 몹시

당황해하면서 얼른 요술지팡이로 박살이 난 안경을 고쳐 끼고는 얌전히 자리에 앉아서,

해리와 코넬리우스 퍼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해리는 이미 코넬리우스 퍼지와 안면이 있었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마치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해리의 손을 잡고는 "반갑다, 해리. 잘 지내고 있었니?" 하며 자기 양쪽에 앉아

있는 마법사들에게 해리를 소개했다.

"해리 포터……. 아마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코넬리우스 퍼지가

불가리아의 장관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가장자리에 황금 장식이 달린 멋진 검은색 벨벳 망토를 입고

있는 불가리아의 장관은 영어를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리

포터……. 아,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그 사람의 저주를 받고도 무사히 살아 남은 아이

말이요. 잘 알

고

있지요?"

갑자기 불가리아 장관이 해리의 흉터를 발견하고는 흥분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큰 소리로

뭐라고 지껄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가 의사소통이 된 것 같구나."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지친 듯이 말했다. "난 외국어를 잘 모른단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바티
크라우치가 꼭

필요하지. 아, 꼬마 집요정이 크라우치의 자리를 맡아두었던 것 같던데…….
역시 잘 했지.

이 지독한 불가리아 놈들이 좋은 자리란 자리는 몽땅 달라고 조르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 저기 루시우스가 오고 있군!"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얼른 몸을 돌렸다. 꼬마 집요정 도비의 주인이었던
루시우스

말포이와 그의 아들 드레이코 그리고 드레이코의 엄마처럼 보이는 마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즐리 씨의 뒷줄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 자리가 아직까지
비어 있었던

것이다.

호그와트로 가는 급행 열차를 처음 탔을 때부터, 해리와 드레이코는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숙적이었다. 갸름하고 창백한 얼굴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인 드레이코는
아버지를 쑥

빼닮은 것 같았다. 드레이코의 엄마도 역시 금발이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그녀는 바로

코 밑에서 불쾌한 냄새라도 난다는 듯이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다. 만약 얼굴을
찌푸리지만

않았다면, 그녀는 상당한 미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퍼지 장관님?" 루시우스 말포이가 마법부 장관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말했다.

"제 아내 나시사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제 아들 드레이코도……."

"잘 있었나, 루시우스? 안녕하세요, 부인?"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이 미소를
지으면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오블랑스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블랑스크 씨는

불가리아의 마법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제가 하는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쓸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아서 위즐리 씨는 잘
알고 있겠죠?"

긴장된 순간이었다. 위즐리 씨와 루시우스 말포이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문득

해리는, 두 사람이 플러리쉬와 블러트 서점에서 마주쳤을 때 한바탕 싸움을
벌였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루시우스는 차가운 회색 눈으로 위즐리 씨를 한번 슬쩍
훑어보았다.

"이런! 아서……." 루시우스가 은근히 속삭였다. "도대체 뭘 팔아서 이런
일등석 자리를

구했나? 자네 집은 팔아 봤자 턱도 없을 테고?"

못 들은 척하고 있던 퍼지 장관이 말했다.

"루시우스는 성 뚽고 마법사 병원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다네, 아서. 그래서
내가 특별히
초대했지."

"그…… 그랬군요."

위즐리 씨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루시우스의 싸늘한 눈길이 헤르미온느를 향하고 있었다. 약간 얼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헤르미온느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루시우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해리는 루시우스가 헤르미온느를 노려보면서 입술을 씰룩거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말포이 가족은 자신들이 순수 마법사 혈통이라는 사실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헤르미온느 같은 머글 혈통은 아주 멀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루시우스는 마법부 장관 앞이어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위즐리 씨를 향해 약간 고개만 까딱거렸다. 루시우스가 자리에 앉자, 드레이코도 거만한 표정으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슬쩍 거들떠보고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았다.

"벌레 같은 자식……."

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다시 경기장으로 얼굴을 돌렸다.

바로 그때 루도 베그만이 숨을 헐떡이면서 일등석으로 올라왔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루도 베그만의 둑근 얼굴은 예담치즈(겉을 빨갛게 물들인 네덜란드산 치즈: 역주)처럼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장관님, 준비가 끝났습니까?"

"어서 시작하게, 루도."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소노루스!"

루도 베그만은 요술지팡이를 꺼내더니 자신의 목에 갖다대었다. 경기장은 입주의 여지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마법사와 마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루도 베그만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함성 소리보다 더욱 크게 울려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경기장 구석구석까지 짜렁짜렁 울리고 있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백스물두 번째 퀴디치 월드컵 결승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 아일랜드 국가와 불가리아의 국가가 연주되자, 수천 개의 깃발이 한꺼번에 휘날렸다.

대형 전광판에 떠올랐던 광고가(버터 보트의 온갖 맛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드실 때 조심하세요!) 싹 사라지더니 잠시 후에 스코어 보드가 나타났다.

불가리아 0: 0 아일랜드

"이제부터 양팀의 마스코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 팀의 마스코트!"

온통 붉은색 물결로 뒤덮인 오른쪽 관람석에서 요란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불가리아 팀은 어떤 걸 준비했을까?" 위즐리 씨가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말했다. "아!"

갑자기 위즐리 씨가 안경을 벗었다. "벨라야!" 위즐리 씨는 재빨리 옷자락으로 안경을 닦았다.

"벨라가 뭔데요?"

해리가 물었지만, 그는 위즐리 씨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백 명의 벨라가

미끄러지듯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베라는 여자들이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물론
벨라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도저히 사람일 수가 없었다)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잠시 동안 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정확히 벨라가 무엇인지,
벨라의
살결이 달빛처럼 빛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바람 한 점 불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벨르의 은발이 휘날릴 수 있는지 추측하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후에 음악이 연주되었다. 해리는 벨라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벨라가
나풀거리면서 춤을 추지 시작했다. 해리는 정신을 온통 빼앗긴 채 더없이
행복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벨라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만약
벨라가 춤을 추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어떤 꿈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다.
벨라가 점점 더 빨리 춤추자, 해리의 머리 속으로 뭔가 이상한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해리는 벨라의 눈길을 끌고 싶은 충동에 훙싸였다.
그 충동을
도저치 뿌리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일등석에서 경기장으로 펼쳐
뛰어내리는 건
어떨까? 그래, 그게 좋겠어…….
"해리, 너 뭐하고 있는 거니?"
헤르미온느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다……. 해리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음악이 멈췄다. 해리는 깜짝 놀라서 눈을 깜박거렸다. 어느 사이에
해리는 한 쪽
다리를 관람석 칸막이 위에 올려 놓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린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론은 마치 다이빙이라도 할 것 같은 자세로 꼼짝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관람석이 성난 함성으로 뒤덮였다. 관중들은 벨라가 경기장에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 물론 해리도 그들과 똑같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내가 왜 가슴에
초록색
클로버를 달고 있지? 내가 응원해야 할 팀은 당연히 불가리아인데……. 이런
의문들이
해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론은 완전히 얼이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자에 달아놓은 클로버들을
똑똑
잡아뜯고 있었다. 위즐리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론을 향해 몸을 숙이더니
모자를
빼앗았다.
"네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야, 론. 잠시 후에 아일랜드 팀의 응원이
시작되면……."
위즐리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일렀다.
"뭐라구요?"
론은 입을 헤 벌린 채 여전히 벨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벨라는
불가리아
응원단을 향해 걸어가더니 출지어 길게 늘어섰다.
"정말 꼴불견이야!"
헤르미온느는 한심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혀를 끌끌 차더니 해리의 등을
끌어당겨서

다시 자리에 앉혔다.

"여러분……." 루도 베그만이 관중을 향해 커다랗게 소리쳤다. "요술지팡이들을 위로

들어올려 주십시오! 아일랜드 팀의 마스코트입니다!"

루도 베그만의 말이 무섭게, 초록색과 황금색이 뒤섞인 물체가 경기장 안으로 혜성처럼

붕 하고 날아들었다. 그 물체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돈 다음 두 개의 불덩이로 갈라지더니

제각기 아일랜드 골대와 불가리아 골대를 향해 날아갔다.

갑자기 둑근 무지개가 뜨더니 두 개의 불덩이를 서로 연결해 주었다.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관중들은 목청이 터질 정도로 우렁차게 함성을

질렀다. 무지개가 조금씩 희미하게 변하더니 다시 두 개의 불덩이가 하나로 결합했다.

잠시 후에 그 불덩이가 커다란 클로버 모양으로 변했다. 클로버는 서서히 관중석을 향해

날아오르며 황금 빗방울 같은 것을 후두둑 떨어뜨리고 있었다.

"굉장하다!"

반짝거리는 금화들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쏟아지자, 론이 요란하게 환호성을 질렀다.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찬란하게 빛나는 클로버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수천 명의 꼬마 요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클로버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얼굴에 약간

수염이 나 있는 꼬마 요정들은 작은 손으로 황금빛과 초록빛이 훌러나오는 등불을 들고

있었다.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레프러칸(장난꾸러기) 요정. 레프러칸 요정을 불잡으면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역주)! 장난을 좋아하는 꼬마 요정이란다."

위즐리 씨가 말했다. 관중들은 바닥에 떨어진 금화를 줍기 위해 의자 밑을 살샅이

뒤지고 있었다.

"자, 이걸 받아." 론이 한 줌의 금화를 불쑥 내밀면서 유쾌하게 외쳤다.

"옴니클러 값이야,

해리! 이젠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 수 있겠지?"

클로버 모양을 이루고 있던 레프러칸 요정들이 갑자기 사방으로 훑어져 아일랜드

관중석을 향해 두둥실 날아갔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열렬히 환영해 주십시오! 불가리아 퀴디치 국가 대표팀이 입장합니다!

디미트로프를 소개합니다!"

보랏빛 망토를 걸친 사람이 빗자루를 타고 힘차게 경기장으로 들어오자, 불가리아

응원단이 떠들썩하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이바노바!"

역시 보랏빛 망토를 두른 또 다른 선수가 붕 하고 날아올랐다.

"조그라프! 레브스키! 볼자노프! 볼코프! 그리고- 크룸 1"

"바로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이 크룸이야!"

방금 론은 옴니클러에 눈을 갖다대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해리도 얼른 옴니클러를 들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까무잡잡한 피부, 커다란 매부리코에 짙고 까만 눈썹을 지닌
빅터

크롬의 모습은 마치 사나운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빅터 크롬의
나이가 이제

겨우 열여덟 살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아일랜드 퀴디치 국가 대표팀이 입장합니다! 여러분! 열렬히 환영해
주십시오!" 루도

베그만이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개합니다! 코놀리! 라이언! 트로이!
멀릿! 모런!

퀴글리! 그리고-린치!"

일곱 개의 초록색 형체가 경기장 위로 훑휙 날아갔다. 해리는 옴니클러에 달려
있는

작은 다이얼을 돌려서 선수들이 타고 날아 다니는 빗자루에 초점을 맞추었다.
옴니클러를

조작해서 속도를 늦추자, 빗자루에 새겨진 '파이어볼트'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선수들의 등판에 은실로 수놓인 이름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퀴디치 월드컵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이집트에서 오신 국제 퀴디치
협회 회장

핫산 모스타파입니다. 뜨겁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체구에 깡마른 마법사 한 명이 경기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

마법사의 머리는 완전히 대머리였으며, 베논 이모부와 대적할 만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경기장과 잘 어울리는 황금빛 망토를 걸친 모스타파는 한쪽 겨드랑이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다른 쪽 겨드랑이에는 빗자루를 끼고 있었다.

해리는 옴니클러의 속도 다이얼을 다시 정상으로 돌린 후, 모스타파가 빗자루에
올라타고는 나무 상자를 발로 톡 차서 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무 상자 속에
들어 있던

네 개의 공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빨간색 퀘이플 한 개와
검은색 블러저

두 개 그리고 날개가 달린 아주 작은 골든 스니치(골든 스니치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 개였다.

모스타파는 호루라기를 한 번 빽 불더니 그 공들을 따라 공중으로 내달았다.

"마침내 선수들이 이륙했습니다!" 루도 베그만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먼저

아일랜드의 멀릿이 퀘이프을 잡았습니다! 트로이! 모런! 디미트로프! 다시 멀릿!
트로이!

레브스키! 모런!"

선수들이 움직이는 속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추격꾼들은 루도
베그만이

선수들의 이름을 말하기도 바쁠 정도로 퀴에프을 서로에게 훑휙 던지고 있었다.
해리는

지금처럼 숨가쁘게 진행되는 퀴디치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해리는
경기장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옴니클러를 눈에 바싹 갖다대었다. 안경이
콧등을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해리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더욱 경기에 열중했다.
해리가 옴니클러의 오른쪽에 있는 술로우 다이얼을 살짝 돌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경기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옴니클러의 화면 위에 보랏빛 글자들이 훑휙 지나갔다. 관중들의 함성이 해리의 것전을 때렸다.

"매 머리 공격편대"

해리가 옴니클러 화면에 나타난 보라색 글씨를 읽으면서 중얼거렸다.

아일랜드의 추격꾼

세 명이 불가리아 진영을 휘저으면서 힘차게 날아가고 있었다. 트로이가 선두를 맡고 있었으며, 멀릿과 모런이 그 뒤를 바싹 따르고 있었다.

옴니클러 화면에서 '포르스코프 작전'이라는 글자가 번쩍거렸다. 트로이가 날쌔게 움직이면서 불가리아의 추격꾼 이바노바를 제치더니 모런에게 케이플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다. 불가리아의 롤이꾼 볼코프가 힘껏 배트를 휘둘러서 블러저를 쳤다.

블러저는 모런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모런은 블러저를 피하기 위해 재빨리 몸을 비틀다가 잠시 중심을 잃더니 그만 케이플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레브스키가 얼른 날아오더니 케이플을 잡았다.

"트로이 득점!" 루도 베그만이 소리치자, 경기장은 온통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10 대 0 으로 아일랜드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신없이 옴니클러에 눈을 갖다 대며 해리가 외쳤다.

"분명히 레브스키가 케이플을 잡고 있었어!"

"해리, 정상 속도로 하지 않으면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헤르미온느가 소리쳤다. 선제골을 올린 트로이가 자랑스럽게 경기장을 한 바퀴 도는 사이, 헤르미온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두 팔을 마구 흔들면서 깽충깽충 뛰어다니고 있었다. 해리는 옴니클러 너머로 경기장을 내다보았다.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구경하고 있던 레프러칸 요정들이 일제히 다시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커다란 클로버 모양을 만들었다.

벨라들은 잔뜩 심통이 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일랜드 팀이 득점하는 장면을 놓치고 만 해리는 너무나 화가 났다. 다시 경기가 시작되자, 해리는 얼른 옴니클러의 속도 다이얼을 정상으로 돌렸다.

퀴디치 경기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해리는 아일랜드의 추격꾼들이 아주 뛰어나다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았다.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아일랜드 팀은,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발이 척척 들어맞았다.

"트로이- 멀릿- 모런!"

해리의 가슴팍에 매달려 있던 초록색 장미가 아일랜드 선수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다시 10 분도 채 흐르지 않아 아일랜드는 두 번이나 더 득점을 해서 30 대 0 으로 앞서 나갔다. 아일랜드 응원석은 온통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경기 속도는 한층 더 빨라졌으며, 선수들의 행동도 더욱 난폭해졌다.

불가리아의 롤이꾼 볼코프와 불차노프는 아일랜드의 추격꾼들을 방해하기 위해 두 개의 블러저를 연속적으로

쏘아 보냈다. 대열을 정비하고 있던 아일랜드의 추격꾼들은 두 번이나 어쩔 수 없이 훑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이바노바가 훑어진 아일랜드 진영에 용케 들어가서 파수꾼 라이언을 피해 불가리아의 첫 번째 득점을 올렸다.

"귀를 막거라."

벨라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기 시작하자 위즐리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얼른 두 눈을 꼭 감았다. 오직 경기에만 몰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초 후에 해리는 실눈을 뜨고 경기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느 사이에 벨라들의 춤이 그치고, 퀘이풀을 잡고 있던 불가리아 팀이 아일랜드 진영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디미트로프! 레브스키! 디미트로프! 이바노바……. 오, 저런!"

루도 베그만이 깜짝 놀라면서 고함을 질렀다. 불가리아 수색꾼 크룸과 아일랜드 수색꾼 린치가 추격꾼들 사이로 뛰어들면서 급속히 하강하고 있었다. 마치 낙하산도 없이 비행기에서 훌쩍 뛰어내린 것처럼…….

관중석에 있던 마법사들은 깜짝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해리는 서둘러 옴니쿨러의 초점을 맞추고, 크룸과 린치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모습을 계속 따라가면서 스니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힐끗 곁눈질을 했다.

"총돌하겠어!"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크룸과 린치는 당장이라도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빅터 크룸은 급강하를 멈추고 빙글빙글 돌면서 아슬아슬하게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린치! 그러나 린치는 콩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아일랜드 관중석에서 일제히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멍청이 같은 녀석!" 위즐리 씨가 투덜거렸다. "빅터 크룸은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있었던 거야!"

"타임 아웃!" 루도 베그만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의사 마법사들이 애이든 린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땅에 살짝 부딪힌 것뿐이야!" 찰 리가 새파랗게 질린 지니를 위로하면서 말했다. "물론 빅터 크룸의 뜻대로 되었지만……."

해리는 재빨리 옴니쿨러를 눈에 갖다대고 슬로우 다이얼을 돌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크룸과 린치가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급강하하는 모습이 보였다. 옴니쿨러 화면에 '렁스키' 페인트- 수색꾼이 펼치는 위험한 양동작전(일부러 다른 행동을 취해 적의 주의를 땐 데로 쓸리게 하는 작전: 역주)'이라는 보라색 글자가 번쩍거렸다. 빅터 크룸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급강하를 멈추었지만, 미처 빗자루의 방향을 돌리지 못했던

린치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 순간 해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해리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크롬은 결코 스니치를 발견한 게 아니었다.

그저 린치가 자신의 뒤를 무작정 따라오도록 만들었을 뿐이었다.

해리는 크롬처럼 빗자루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그는 마치 몸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유연하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다. 해리는 옴니클러의 속도를 다시 정상으로 맞추었다. 의사 마법사가 린치에게 물약을 몇

잔 내밀었다. 린치는 그 약을 먹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옴니클러의

초점을 빙터 크롬에게 맞추었다. 수백 미터 상공에 떠 있던 크롬은 두리번거리면서

스니치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린치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크롬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경기장 구석구석을 살살이 뒤질 수 있었다.

마침내 린치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났다. 관중들은 린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었다.

린치는 다시 파이어볼트에 올라타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린치의 회복은 아일랜드 팀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모스타파가 다시 호루라기를 불자, 아일랜드의 추격꾼들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뛰어난 기술로 불가리아 팀을 유린하기 시작했다.

경기는 더욱 빠르고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다시 15 분 가량 흐르는 동안, 아일랜드는 무려

열 골이나 짊어넣었다. 해리는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불가리아 10: 130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점수를 더욱 벌리면서 더 많은 부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다. 아일랜드의 추격꾼 멀릿이 거드랑이에 케이플을 끼고 다시 불가리아 골대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었다. 불가리아의 파수꾼 조그라프가 다급하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갑자기 모스타파가 길고 날카롭게 호루라기를 불었다. 아일랜드 관중석에 있던 마법사들이 마구 분노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조그라프가 반칙을 저질렀던 것이다. 몹시

화가 난 레프러칸 요정들은 호박벌떼들처럼 봉봉거리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모스타파가 불가리아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불가리아의 파수꾼이 팔꿈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반칙을 저지른 것입니다." 루도 베그만이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심판이

아일랜드에게 자유투를 주는군요."

레프러칸 요정들은 그것 참 고소하다는 듯이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하하하'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불가리아 진영에 있던 벨라들은 조금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위즐리 형제들과 해리는 재빨리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팔을 잡아당기더니, 얼른 해리의 귀에서 손가락들을 떼어 내었다.

"심판 좀 봐!"

헤르미온느가 킥킥거리면서 말했다. 해리는 경기장을 내려다보았다. 핫산 모스타파가

정말로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관중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콧수염을 매만지면서 벨라들에게 자신의 근육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루도 베그만이 짐짓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재미있어 죽을 지경인 것 같았다. "누가 가서 심판의 뺨을 좀 찰싹 때려 주세요!"

의사 마법사 한 명이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채 경기장을 가로질러 걸어가 모스타파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그제서야 모스타파는 제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해리는 그 광경을 좀더 자세히 지켜보기 위해 옴니클러에 눈을 갖다대었다. 모스타파는

무척 당황하여 벨라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벨라들은 춤을 멈추고

반향적인 눈길로 심판을 노려보았다.

"모스타파 심판이 불가리아의 팀 마스크트를 경기장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루도 베그만이 심각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불가리아의 몰이꾼들이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혐악하게 돌아가고 있군요……."

불가리아의 몰이꾼 볼코프와 볼차노프가 모스타파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몹시 화를

내면서 손가락으로 아일랜드 응원석을 가리켰다. 레프러칸 요정들이 마구 웃음을

터뜨리면서 '히히히'라는 글자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스타파는 불가리아 선수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스타파는 볼코프와 볼차노프를 노려보면서 다시 공중으로 날아가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몰이꾼들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자, 그는 짤막하게 호루라기를 두 번 불었다.

"심판이 아일랜드에게 자유투 두 개를 주는군요!" 구도 베그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불가리아 관중들이 화가 나서 악을 써댔다. "아무래도 볼코프와 볼차노프는 다시 빗자루에

올라타는 게 좋겠군요……. 네……. 다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추격꾼

트로이가 퀘이플을 잡았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더욱 격렬하게 달아올랐다. 아일랜드와 불가리아의 몰이꾼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볼코프와
볼차노프는 빗자루를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위협적으로 배트를 휘둘렀다. 그들의 배트에
블러저가 맞든

사람이 맞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일랜드의 추격꾼 모런이 퀘이플을 잡았다. 디미트로프가 무서운 기세로
모런을 향해

날아갔다. 모런은 디미트로프를 피하려고 하다가 하마터면 빗자루에서 떨어질 뻔했다.

"반칙!"

아일랜드의 관중석에 있던 마법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다.
삽시간에 초록색

물결이 관중석을 뒤덮었다.

"반칙!" 루도 베그만이 근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디미트로프가 모런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고의적으로 충돌한 모양입니다. 아일랜드가 다시 한 번 자유투를 얻게 될 것

같네요. 네,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신이 난 레프러칸 요정들은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대한 손모양을 만들더니 벨라들을

향해 아주 모욕적인 손짓을 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벨라들은 그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벨라들은 사이드라인 근처까지 다가오더니 레프러칸 요정들에게 불덩이처럼 보이는

것을 던지기 시작했다.

해리는 옴니클러로 벨라들을 바라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벨라들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벨라들의 얼굴이

날카로운 부리가 달린 새의 머리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늘로 뒤덮인 기다란 날개가

벨라의 어깨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갑자기 벨라들의 모습이 변하자, 관중석에 앉아 있던 마법사들이 더욱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저게 바로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란다, 이

녀석들아!" 위즐리 씨가 말했다.

레프러칸 요정과 벨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마법부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 나갔지만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었다. 한편, 레프러칸 요정과 벨라의 싸움보다도 더욱 치열한 싸움이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해리는 옴니클러를 이쪽저쪽으로 돌리면서 양대 격전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케이플은 아일랜드 선수들과 불가리아 선수들의 손을 거치면서 총알같이 쌕쌕 날아다니고

있었다.

"레브스키- 디미트로프- 모런- 트로이- 멀릿- 이바노바- 다시 케이플을 잡은 모런- 모런-

모런 득점!"

아일랜드 응원단은 일제히 요란한 함성을 질렀지만 벨라들이 지르는 비명 소리와 마법부

직원들이 요술지팡이를 휘둘르면서 내는 경적 소리와 불가리아 응원단의 성난 고함 소리에

묻혀서 거의 들리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즉시 경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레브스키가 케이플을 잡았다. 디미트로프가 케이플을

받아서 아일랜드 진영으로 파고 들었다.

아일랜드의 몰이꾼 키글리가 배트를 힘껏 휘둘러서 블러저를 쳤다. 블러저는 곧장 빅터

크룸을 향해 날아가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던 빅터 크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들이 비명을 질렀다. 블러저에 맞아서 코가 깨졌는지, 크룸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하지만 핫산 모스타파는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관중들은 일제히 심판에게 야유를 보냈다. 하지만 핫산 모스타파가 한눈을 팔고 있었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벨라들 가운데 한 명이 불덩어리를 던져서 핫산 모스타파의 빗자루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빅터 크룸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어서 심판이 알게 되었으면……. 해리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다. 비록 아일랜드를 응원하고 있긴 했지만, 해리는 빅터 크룸이야말로 가장 멋진 선수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론도 역시 해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타임 아웃! 잠시 경기를 멈추세요, 어서……. 크룸이 부상을 당했어요! 저 상태로는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어요!"

"린치를 봐!"

해리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다. 갑자기 아일랜드 수색꾼이 급강하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렁스키 페인트일까? 하지만 해리는 결코 페인트 모션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건 실제였다…….

"린치가 스니치를 발견했어! 린치가 발견했어! 저기를 봐!"

해리가 손가락으로 린치를 가리키면서 다급하게 말했다.

"린치! 린치! 린치……."

관중의 절반은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아일랜드 응원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린치의 이름을 다 같이 외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관중석은 순식간에 초록색 물결로 뒤덮였다.

빅터 크룸이 린치를 바싹 뒤쫓고 있었다. 그런데…… 크룸은 과연 앞이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걸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질주하는 건 아닐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질주하는 건 아닐까? 빅터 크룸의 등 뒤로 핏방울이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리는 몹시 걱정스러웠다.

빅터 크룸이 거의 린치를 따라잡고 있었다……. 아일랜드의 수색꾼과 불가리아의 수색꾼은 또다시 땅바닥을 향해 돌진했다…….

"추락하겠어!"

헤르미온느가 비명을 질렀다.

"그렇지 않아!"

론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고함쳤다.

"린치는 그럴 수도 있어!"

해리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던 린치는 또 한 번 엄청난 힘으로 또다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사이드라인 근처에 떨어진 그는 즉시 성난 벨라들에게 짓밟히고 말았다.

"스니치! 스니치는 어디있지?"

찰 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빅터 크룸이 스니치를 잡았어! 크룸이 잡았다고! 모든 게 끝났어!"

해리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빅터 크룸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주먹을

하늘 높이 들어올린 채 공중으로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었다. 빅터 크룸의 코에서 훌러나온 피가 보라색 망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불가리아 160: 170 아일랜드

마침내 경기가 끝났다. 전광판이 경기 결과를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관중들은 아직도

조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깨닫지 못한 것 같았다. 잠시 후에…… 아주

천천히…… 마치 대형 정보 제트기가 서서히 엔진의 출력을 높이듯…… 불만으로

웅성거리던 아일랜드 관중들의 소리가 서서히 커지더니 갑자기 환희의 비명으로 폭발했다.

"아일랜드 승리!" 루도 베그만이 경기의 갑작스러운 결말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빅터

크룸이 스니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아일랜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크룸은 도대체 왜 스니치를 잡은 거야?" 론이 급히 일어섰다 않았다 하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파도타기 박수갈채를 보내며 큰 소리로 물었다. "아일랜드가 160 점 앞서 있을 때 경기를 끝내면 어떻게 해, 얼간이 같으니라구!"

"빅터 크룸은 불가리아가 아일랜드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아일랜드 추격꾼들이 너무나 잘했잖아……. 시간이 갈수록 양팀의 점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졌을 거야……. 빅터 크룸은 적당한 선에서 경기를 끝내고 싶었던 겨야……."

해리가 선수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말했다.

"빅터 크룸은 정말 용감했어. 안 그래?" 헤르미온느는 빅터 크룸의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빅터 크룸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의사

마법사들이 빅터 크룸을 치료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레프러칸 요정들과 벨라들은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크룸의 모습이 엉망이야……."

해리는 다시 옴니쿨러를 눈에 갖다대었다. 레프러칸 요정들이 신이 나서 운동장 여기저기를 봉봉 날아 다니는 바람에 아래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었지만, 해리는 의사 마법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빅터 크룸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빅터 크룸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사 마법사들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잔뜩 풀이 죽은 불가리아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몹시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선수들의 분위기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레프러칸 요정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아낌없이 금화를 뿌렸다. 마치 함박눈이라도 내리는 것처럼 번쩍거리는

금화를 맞으며, 아일랜드 선수들은 즐겁게 춤을 추었다. 사방에서 아일랜드 국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초록색 깃발들이 운동장 곳곳에서 펄럭거렸다. 벨라들의 얼굴은 다시 아름다운 여인으로 돌아왔지만, 맥이 풀려서 축처져 있었다.

"모든 선수들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갑자기 해리의 등 뒤에서 침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다름 아닌 불가리아의 마법부 장관이었다.

"영어를 할 줄 아시는군요!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하루 종일 손짓 발짓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었단 말입니까?"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표정이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불가리아 장관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아일랜드 선수들이 마스코트들과 함께 경기장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들입니다. 퀴디치 월드컵의 우승컵이 일등 관람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루도 베그만이 관중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일등석 내부를 환하게 밝혔다. 아마도 그 눈부신 빛은 마법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일등석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두 명의 마법사가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우승컵을 들고 일등석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에게 우승컵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에게 우승컵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은 하루종일 쓸데없이 손짓 발짓을 했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잔뜩 기분이 상해 있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불가리아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루도 베그만이 외쳤다. 일곱 명의 불가리아 선수들이 계단을 밟으면서 일등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관중들은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수천 개의 움니쿨러들이 시상식이 열리는 일등석을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불가리아 선수들이 열을 지어서 입장했다. 루도 베그만이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이름을 부르자, 선수들은 불가리아의 장관과 먼저 악수를 나눈 후에 다시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과 악수를 나누었다. 빅터 크룸은 가장 뒤에 서 있었는데, 모습이 정말로 말이 아니었다. 비록 얼굴은 피투성이였지만, 까만 두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빅터 크룸은 여전히 한 손에 스니치를 들고 있었다.

해리는 빅터 크룸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빗자루를 타고 경기장을 날아다니던 빅터 크룸은 너무나 당당했지만, 가까이에서 실제로 보니 너무나 볼품이 없었다. 다리는 안짱다리였으며 등은 눈에 뜨일 정도로 구부정했다.

루도 베그만이 빅터 크룸의 이름을 부르자, 관중들은 일제히 귀청이 떨어질 듯한 환호성을 질렀다.

잠시 후에 아일랜드 선수들이 입장했다. 애이든 린치는 모런과 코놀리의 부축을 받으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두 번이나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던 애이든 린치의

눈은 어쩐지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로이와 퀴글리가 퀴디치 우승컵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자 린치도 만족스럽게 씩 웃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해리도 손바닥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박수를 쳤다.

아일랜드 선수들은 빗자루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더니(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애이든 린치는 코놀리의 빗자루 뒤에 올라타서 코놀리의 허리를 꼭 잡은 채 몽롱한

눈빛으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다시 한 번 경기장을 빙 돌렸다.

"콰이어투스!"

루도 베그만은 요술지팡이를 자신의 목에 갖다대고 주문을 외웠다.

"이 경기는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루도 베그만이 약간 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어요. 좀더 오랫동안 경기가 진행되지 못하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아, 그래..... 그래, 너희들이 이겼구나..... 얼마였지?" 어느 틈에 의자를 넘어간 프레드와 조지가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면서 루도 베그만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제 9 장

어둠의 표식

"비밀이야. 퀴디치 월드컵에 돈을 걸었다는 말은 절대로 엄마에게 하면 안 된다."

보라색 양탄자가 깔린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서 위즐리 씨가 프레드와 조지에게 말했다.

"걱정마세요, 아빠." 프레드가 잔뜩 신이 나서 대답했다. "우리는 벌써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다 세워 놓았어요. 우리도 이 돈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요."

'어떤 계획이니?' 위즐리 씨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더니 이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마침내 경기장에서 나온 그들은 캠프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마법사들이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았다.

잠시도 쉬지 않고 깔깔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레프러칸 요정들이 등불을 흔들면서

그들의 머리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다.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마침내 그들은 텐트에 도착했다.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캠프장이 너무나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청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코코아나 한 잔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위즐리 씨의 말에 모두들 동의했다. 그들은 곧 퀴디치 월드컵에 대해서 즐겁게 떠들기

시작했다. 위즐리 씨는 불가리아 파수꾼의 반칙을 놓고 찰리와 한창 논쟁을 벌였다.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한 지니가 끄덕끄덕 졸다가 그만 뜨거운 코코아를 마룻바닥에

엎지르자, 위즐리 씨는 모두들 잠자리로 돌려보냈다. 헤르미온느와 지니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텐트로 건너가고, 해리와 위즐리 형제들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재빨리 이층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노랫소리와 더불어 가끔씩 축포를 터뜨리는 소리도 들렸다.

"내가 당직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 위즐리 씨가 출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온통 축제

기분에 젖어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을 무슨 수로 말리겠어? 밤새도록 즐기라고 할

밖에……."

해리는 론과 같은 침대를 쓰게 되었다. 이층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드러누운 해리는

텐트의 천장을 가만히 옮려다보았다. 레프러칸 요정들이 등불을 들고 날아다니는지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빅터 크룸……. 정말 멋졌어. 해리의 머리 속에서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던 빅터 크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해리는 당장이라도 파이어볼트를 타고 직접 렇스키 페인트 작전을

해 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할 지경이었다……. 올리버 우드가 만든 실을 작전

모델조차도 그런 멋진 기술을 평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여러분! 해리 포터를 소개합니다!"

루도 베그만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쪄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해리가 입고 있던

붉은색 망토의 등에는 '해리 포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수놓여 있었다……. 수많은

관중들이 해리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잠이 든 걸까? 아마도 빅터 크룸처럼 멋지게 날아다니는 상상을 하다가

슬며시 꿈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았다. 해리는 비몽사몽 간에 문득 위즐리 씨가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일어나거라! 론, 해리! 자, 어서 일어나거라! 긴급 상황이다!"

해리는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텐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무슨 일이죠?"

해리는 단번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캠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흥겨운 노랫소리는 멈추고 처절한 비명 소리와 몹시 당황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가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서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잠옷 위에 그대로 청바지를

겹쳐 있고 있던 위즐리 씨가 다급하게 외쳤다.

"시간이 없다, 해리! 그냥 대충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 어서!"

해리는 위즐리 씨의 말을 듣고 재빨리 텐트 밖으로 달려 나왔고, 론도 허둥지둥 따라왔다. 아직도 깨지지 않은 모닥불들이 캠프장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문득 해리는 숲을 향해 달아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상한 광채와 총성

같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오고 있는 무엇인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다. 누군가를 비웃는 듯한 야유와 왁자지껄한 웃음 소리, 그리고 술취한 고함 소리도 들렸다.

갑자기 초록색 불빛이 폭발하면서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다. 수많은 마법사들이 요술지팡이를 똑바로 치켜들고 무리를 지어서 캠프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해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금방 그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있던 마법사들의 머리 위로 허공에 둉둥 떠

있는 네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들은 마구 벼동거리면서 기괴하게 몸을 비틀고 있었다.

마치 가면을 쓴 마법사들이 그들을 보이지 않는 실로 묶어서 요술지팡이 끝에 매달고 있는

것 같았다. 마법사들은 꼭두각시 인형을 다루듯이 마음대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네

사람 중에 두 명은 어린 아이였다.

점점 더 많은 마법사들아 가면을 쓴 마법사 무리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허공에

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면서 소리를 내어 웃고 있었다. 캠프장에 세워져 있던

텐트들이 마구 짓밟혀서 쓰러졌다. 해리는 행진하던 마법사 중 한 명이 길을 방해하는

텐트를 요술지팡이로 폭파하는 장면까지 목격했다. 몇 채의 텐트에 불이 붙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텐트에 붙은 불길로 주위가 환해지자, 해리는 허공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 사람은 바로 캠프장 관리인인 로버트 씨였다. 다른 세 사람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인 것 같았다. 가면을 쓰고 행진하던 마법사 가운데 한 명이 요술지팡이를 휘두르자,

로버트 부인이 거꾸로 뒤집혔다. 로버트 부인의 잠옷이 훌러내리면서 헐렁한 속옷이 다

드러났다. 마법사들은 조롱을 하면서 야유를 보냈고, 로버트 부인은 몸을 가리기 위해

벼동거렸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아." 론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로버트 씨의 막내 아이는 지상

2미터 높이에서 마치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축 늘어진 어린 아이의 머리가

힘없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어떻게 저런 짓을……"

그때 잠옷 위에 대충 옷을 걸친 헤르미온느와 지니가 허둥지둥 다가왔다.

곧이어 위즐리

씨의 모습이 보였다. 거의 동시에,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빌과 찰리와 퍼시가 남자들의

텐트에서 뛰어나왔다. 소매를 걷어붙인 그들은 벌써 요술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우리는 마법부를 도울 생각이란다." 위즐리 씨가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은 어서 숲속으로 들어가거라. 서로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상황이 좀 진정되면 내가 데리러 가마!"

벌써 빌과 찰리와 퍼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마법사 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위즐리 씨도 황급히 그들을 따라갔다. 마법부 직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었다. 행진하던

마법사 무리들은 이제 해리의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서둘러!"

프레드가 지니의 손을 잡고 숲으로 달려가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와 조지도 재빨리

뒤를 따라갔다. 마침내 숲에 도착해서 캠프장 쪽을 돌아다보니, 행진에 참가한 마법사들의

숫자는 더욱 불어나 있었다. 로버트 가족은 여전히 허공에 둉뚱 떠 있었다. 마법부 직원들이

행진하는 무리를 헤치고 중앙에 서 있는 가면을 쓴 마법사들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혹시라도 가면을 쓴 마법사들이

마법을 부려서 로버트 씨의 가족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몹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던 형형색색의 등불들은 이미 다 꺼졌다.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휘청거리면서 숲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울음 소리와

겁에 지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가운 밤공기를 헤치면서 울려퍼지고 있었다. 해리는

사람들에 치요 이리저리 떠밀렸다. 하지만 주위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아악!"

갑자기 론이 소리를 질렀다.

"우슨 일이니?" 헤르미온느가 놀라서 물으며 너무나 갑작스럽게 걸음을 멈추는 바람에

해리는 거의 헤르미온느와 부딪힐 뻔했다. "론, 어디에 있니? 아침, 요술지팡이가 있었지!

루모스!"

요술지팡이 끝에 불이 밝혀지자,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주위를 비추었다. 론이 땅바닥에

벌렁 나자빠져 있었다.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

론이 몸을 일으키면서 투덜거렸다.

"당연하지. 넘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야."

등 뒤에서 누군가 론을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얼른

돌아다봤다. 드레이코 말포이가 팔짱을 낀 채 느긋한 얼굴로, 근처에 있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는 나무 사이로 캠프장의 광경을 출곧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갑자기 론이 말포이를 노려보면서, 자기 엄마 앞이라면 입도 뻥끗 못했을 욕설을 퍼부었다.

"말조심하는게 좋아. 위줄리." 말포이가 눈을 번뜩이면서 말했다. "발리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 머글 계집애가 저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바라진 않겠지? 안 그래?" 말포이가 힐끗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바로 그때 캠프장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초록빛 성광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그게 무슨 뜻이야?"

헤르미온느가 날카로운 눈길로 말포이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그레인저, 저들은 지금 머글을 뒤쫓고 있어. 너도 허공에 둉둥 뜯 채, 속옷을 자랑하고

싶지? 만약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 봐……. 지금 그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겠는걸."

말포이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머글이 아니야! 마녀란 말이야!"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건 제 생각이지, 포터. 저들이 잡종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좋아. 그럼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말포이가 심술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둥이 닥쳐!"

론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머글 부모를 가진 마법사에겐 '잡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저런 녀석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론."

론이 말포이에게 덤벼들려고 하자,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론의 팔을 잡아끌며 말했다.

갑자기 숲 반대편에서 요란한 폭발소리가 들렸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겁쟁이들이군. 이런 일에 깜짝 놀라다니……." 말포이가 빙정거렸다. "너희 아빠가

너희에게 숨으라고 말했니? 네 아빠는 뭐하러 갔는데? 머글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나 보지?"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지? 그렇지?"

해리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글쎄…….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안 그래, 포터?"

말포이는 여전히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어서 가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헤르미온느는 불쾌한 얼굴로 말포이를 노려보았다.

"그레인저, 넌 좀 빠져. 머리는 온통 산발을 한 주제에……."

말포이가 코웃음으 치면서 말했다.

"어서!"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의 팔을 붙잡아 길가로 잡아끌었다.

"가면을 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말포이의 아버지일 거야!"

론이 잔뜩 흥분하면서 말했다.

"마법부가 반드시 그 사람을 체포할 거야." 헤르미온느도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어머나!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눈길로 소동이 일어났던 곳을 쳐다보며 다시 캠프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조지와 프레드와 지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길을 따라 조금 가니, 잠옷을 입은 여러 명의 십대들이 길가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술이 많은 곱슬머리 여자아이 가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향해 돌아서더니 입을 열었다.

"우에 마담 맥심? 누 라봉 페르 뒤……."

여자아이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고 있었다.

"뭐라구?"

론이 못 알아듣고 반문했다.

"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자, 그 여자아이는 잠시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뒤로 돌아섰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어깨 너머로 그 여자아이가 '오그와트'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보바통이야."

헤르미온느가 작게 중얼거렸다.

"무슨 말이야?"

해리가 물었다.

"아마도 저 애는 보바통에 다니고 있을 거야. 알잖아……. 보바통 마법 아카데미…….

<유럽 마법 교육의 평가>라는 책에서 그 학교에 대해 읽은 적이 있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 그래……. 그렇구나."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프레드와 조지 형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 론은

헤르미온느처럼 지팡이로 불을 켜고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리도 요술지팡이를 꺼내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요술지팡이가 없었다.

해리의 주머니

속엔 움니쿨러뿐이었다.

"어떻게 된 거지? 믿을 수 없어……. 요술지팡이를 잃어버렸어!"

"정말이야?"

론과 헤르미온느는 주위를 더욱 넓게 비추기 위해 요술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

해리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요술지팡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텐트에 두고 나왔을지도 몰라."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혹시 달릴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

헤르미온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어쩌면……."

해리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마법의 세계에서는 항상 요술지팡이를 몸에 지니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요술지팡이가 없으니까 해리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꼬마 집요정 윙키가 덤불 속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윙키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다. 윙키는 잔뜩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안간힘을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윙키의 등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근처에 나쁜 마법사들이 있어요!" 꼬마 집요정은 억지로 걸음을 빼어 놓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허공에 둉둥 떠 있어요! 윙키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키고 있는 거예요!"

꼬마 집요정은 자신을 방해하는 힘과 싸우느라 숨을 헐떡거리며 길 맞은편에 있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저 요정이 왜 저러지? 왜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거야?"

론이 윙키가 사라진 곳을 수상쩍게 바라보면서 물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한 거야. 몸을 숨겨도 좋다는."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도비를 생각했다. 도비는 말포이 가족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자기 몸을 마구 학대했었다. 꼬마 집요정은 주인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꼬마 집요정들은 정말로 푸대접을 받고 있어! 노예와 다를 게 뭐가 있어?
크라우치 씨는

그 꼬마 집요정에게 경기장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그 꼬마 집요정은 고소

공포증이 있단 말이야! 나쁜 마법사들이 텐트를 짓밟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숲속으로 달아났어. 그런데 왜 꼬마 집요정은 달아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분개했다.

"글쎄……. 그래도 그 꼬마 집요정들은 행복할 거야. 안 그래? 아까 경기장에 있을 때,

너도 윙키가 하는 말 들었잖아? '꼬마 집요정들은 재미있게 지내면 안 돼요.'
꼬마

집요정은

그런 생활을 좋아하고 있을 거야. 노예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야……."

론이 말했다.

"집요정도 다들 너 같은 사람아야, 론. 부패하고 부조리한 체제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게으른……."

헤르미온느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숲 가장자리에서 또다시 폭발 소리가 들렸다.

"그냥 계속 가자, 응?"

론이 헤르미온느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어쩌면 말포이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른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헤르미온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그들은 다시

숲을 향해 출발했다. 해리는 요술지팡이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프레드와 조지와 지니를 찾으면서 어두운 길을 따라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다가 그들은 도깨비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도깨비들은 퀴디치

월드컵에서 내기로 딴 게 분명한 금화 자루를 놓고 깔깔거리고 있을 뿐, 캠프장에서 벌어진

소동에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계속 걸으니, 이번에는 은백색 불빛이 감도는 숲이 나왔다. 그 불빛은 아름다운 벨라 세

명의 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벨라들은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젊은 마법사들에게

둘러 싸여 있었다.

"난 1년에 100 자루 가량의 갈레온을 벌어. 게다가 위험한 동물 처리 위원회 소속이지. 나는

용을 죽이는 업무를 맡고 있어."

그들 가운데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뭐? 자네가 무슨……. 자네는 리키 콜드런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고 있잖아……. 나야말로

흡혈귀 사냥꾼이야. 지금까지 아흔 명이나 죽였어!"

다른 마법사가 손을 내저었다.

"나는 역사상 최연소 마법부 장관이 될 거야……."

벨라의 희미한 은백색 빛으로도 여드름이 다 보이는 세 번째 젊은 마법사가 끼어들었다.

해리는 코웃음을 쳤다. 그 여드름 투성이의 마법사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스텐 션파이크라는 구조버스의 차장이었다.

해리는 억지로 웃음을 참으면서 이 사실을 말해 주려고 론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론은 멍하니 넋이 빠져 있었다. "나는 목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빗자루를 발명했어!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았던가?"

다음 순간, 론은 벨라가 충분히 듣고도 남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왜 아래, 론?"

헤르미온느는 한심스러운 눈길로 론을 훑어보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양쪽에서 론의

팔을 힘껏 잡고 벨라를 보지 못하도록 빙글 돌려 놓았다. 그제서야 론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벨라와 마법사들이 떠드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걸어가다 보니, 이제

그들은 숲 속 깊은 곳에 와 있었다. "그냥 여기에서 기다리도록 하자. 만약 누군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해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해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뒤에서 루도 베그만이 불쑥

나타났다. 두 개의 요술지팡이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빛이 루도 베그만의 모습을 비추었다.

해리는 루도 베그만의 행동이 무척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도 베그만은 더 이상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몹시 초조해하고 있었다. 용수철이라도 달린 것 같았던 경쾌한 발걸음은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다. "거기 누구요?" 베그만이 눈을 깜박이면서 그들을 쳐다보았다. "아니? 여기서 월하고 있는 거냐?" 그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론이 말했다. "뭐라구?" 베그만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캠프장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머글 가족을 불잡아서……." "나쁜 놈들!" 베그만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더니 순식간에 뽕하고 사라졌다. "베그만 씨를 퀴디치 월드컵의 책임자로 임명한 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훌륭한 물이꾼이었어." 론은 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터의 잔디밭에 텔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베그만 씨가 활약하고 있을 때에는 웰본 와스프 팀의 성적이 정말 대단했어. 퀴디치 리그전에서 연달아 세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지." 론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빅터 크롬의 인형이 서성거리면서 돌아 다니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 인형은 진짜 빅터 크롬처럼 안짱다리였으며 등도 약간 굽어 있어서 빗자루를 타고 있을 때처럼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혹시 캠프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리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잠시 동안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아주 조용했다. 마침내 소동이 끝난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까? 제발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정적을 깨고 말했다. "조지 형과 프레드 형과 지니는 다들 무사할 거야." 론이 말했다. "혹시 너희 아버지가 루시우스 말포이 씨를 체포하지 않을까? 너희 아버지는 항상 말포이 씨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 해리가 빅터 크롬 인형이 떨어지는 낙엽을 피하기 위해 어깨를 약간 구부리는 걸 보며 말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그럼 드레이코 녀석의 얼굴에서 저 능글맞은 웃음이 쑥 사라질 거야……." 론이 투덜거렸다. "그런데 저 가엾은 머글들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 마법부 사람들이 머글들을 구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 헤르미온느가 초조해하자, 론이 헤르미온느를 안심시켰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마법부 직원들은 반드시 그들을 구출할 거야."

"하지만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마법부 직원들 전체가 이곳에 있는데, 함부로 그런 짓을 하다니!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혹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걸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말을 멈추더니 어두운 숲속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해리와 론도 얼른 그곳을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그들이 있는 공터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불규칙한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당장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둑어둑한 나무 뒤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발소리가 뚝 멈췄다.

"누구세요?"

해리가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게 나무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 누구세요?"

해리가 다시 한 번 소리쳤다.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아주 낯선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겁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소리였다.

"모스모드레!"

짙은 어둠을 뚫고 커다란 초록빛 물체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니? 저건 도대체……."

깜짝 놀란 론은 말조차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물체가 나타났던 곳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해리는 레프러칸 요정들이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형상은 아주 끔찍한 것이었다. 거대한 해골……. 섬뜩한 해골이 뱀처럼 가느다란 헛바닥을 쑥 내밀고 초록빛 광채를 뿌리면서 어두운 밤하늘에 둉뚱 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쳐다보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끔찍했다.

갑자기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네온사인처럼 창백하게 빛나는 해골은 이제 숲 전체를 비출 정도로 하늘 높이 올라가 있었다. 그 해골은 마치 새로운 별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자리잡고 있었다. 도대체 마법을 써서 그 해골을 쏘아 올린 사람은 누구일까? 해리는 조심스럽게 어둠속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해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나무 근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해리, 어서 가자!"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왜 그래?"

헤르미온느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둠의 표식이야, 해리! 그 사람의 징조!"

헤르미온느가 나지막이 신음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설마? 볼드모트?"
"해리, 서둘러!"
헤르미온느가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론도 허둥지둥 빅터 크룸 인형을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막 걸음을 옮기는 순간, 연달아 뽕뽀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수십 명의 마법사들이 나타났다. 해리는 확 돌아 보았다. 스무 명 가량의 마법사들이 요술지팡이를 들고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겨냥하고 있었다.
"피해!"
해리는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론과 헤르미온느를 끌어안고 땅바닥으로 급히 몸을 숙였다.
"스투페파이!"
스무 명의 마법사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로 외쳤다. 갑자기 성광이 번쩍하더니 거센 바람이 불면서 머리카락이 마구 휘날렸다. 해리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마법사들의 요술지팡이에서 나온 빨간 불꽃이 해리 쪽으로 날아오다가 서로 엇갈려서 나무에 부딪히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날아가는 게 보였다.
"그만두시오!" 갑자기 해리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두시오! 쟤는 내 아들이오!"
거센 바람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해리는 조금 더 고개를 들었다. 그들 앞에 있던 마법사들이 서서히 요술지팡이를 내리고 있었다. 위즐리 씨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론! 해리!" 위즐리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헤르미온느! 괜찮니?"
"비키게, 아서."
갑자기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법부 직원들을 대동한 크라우치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해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크라우치의 얼굴이 분노로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어떤 놈이냐?" 크라우치가 사나운 눈길로 그들을 노려보면서 소리쳤다.
"도대체 어떤 놈이 어둠의 표식을 불러냈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해리가 손가락으로 해골을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맞아요, 우린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공격했죠?"
론이 화가 나서 툴툴거리면서 팔꿈치를 문지르고 있었다.
"거짓말 마라! 너희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할 생각이냐?"
크라우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크라우치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요술지팡이로 론을 겨냥하고 있었다.
"바티……. 쟤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에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잠옷 위에 기다란 모직가운을 걸친 마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둠의 표식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봤니?"
위즐리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기예요……." 헤르미온느가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던 곳을
가리켰다. "저
나무 뒤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문을 외웠어요……."
"오, 저기 서 있었단 말이냐, 그들이?" 크라우치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두 눈을
부릅뜨며 헤르미온느를 노려보았다. 헤르미온느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틀림없었다.
"주문을 외웠다는 거냐? 그들이? 그런데 너는…… 어둠의 표식을 어떻게
불러내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나 마법부 직원들중에서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그 해골을 불러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일제히 헤르미온느가 가리킨 방향을
향해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고 어두운 숲을 힐끗힐끗 곁눈질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어요. 그들은 순산이동으로 달아났을 거예요."
모직 가운 차림의 마녀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색꾼들이 방금 숲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아직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갈색 턱수염이 나 있는 마법사가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머스 디고리였다.
에이머스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요술지팡이를 치켜든 채 공터를 가로질러
달려갔다.
"에이머스, 부디 조심하게!"
다른 마법사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헤르미온느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캐드릭의 아버지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에 그들은 에이머스가 소리치는 걸 들었다.
"잡았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게…… 그런데……
제기랄!"
"자네가 잡았단 말인가?" 크라우치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누구야? 그게
누구요?"
나뭇가지가 딱 부러지는 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에이머스가 나타났다. 에이머스는 꼬마 집요정을 안고 있었다.
해리는
단번에 그 꼬마 집요정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 요정은 바로 윙키였다!
에이머스가 꼬마 집요정을 땅바닥에 내려 놓자, 크라우치는 마치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마법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크라우치를
향하고 있었다.
크라우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크라우치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크라우치는 재빨리 에이머스를 지나서 윙키를 발견한 장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소용없어요, 크라우치 씨." 에이머스가 크라우치를 보며 말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크라우치는 에이머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이나
크라우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덤불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좀 곤란하게 됐군. 하필이면 바티 크라우치 씨의 꼬마 집요정이라니……." 에이머스는 못마땅한 듯이 윙키를 내려다 보았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게, 에이머스. 설마 정말로 이 요정이 그런 짓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겠지? 저 어둠의 표식은 어떤 마법사의 상징이라네. 그건 반드시
요술지팡이가
있어야만해."

위즐리 씨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렇지. 하지만 이 요정은 요술지팡이를 갖고 있어."

에이머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뭐라구?"

위즐리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걸 보게." 에이머스가 한 손에 들고 있던 요술지팡이를 위즐리 씨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꼬마 집요정은 이걸 들고 있었어. 크라우치 씨의 꼬마 집요정은 '요술지팡이 사용 규범' 세 번째 조항도 어겼어. '인간이 아닌 생물은 요술지팡이를 험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말이야."

바로 그 순간 뽕 하는 소리가 나더니 루도 베그만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루도 베그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허공에 띠 있는 초록색 해골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직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둠의 표식이야!" 루도 베그만이 윙키를 거의 밟다시피하면서 다른 마법사들에게 소리쳤다. "누가 그랬지? 놈을 잡았나? 바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크라우치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유령처럼 창백했고 손은 마치 경련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바티? 경기장에는 왜 오지 않았어요? 꼬마 집요정이 자리를 맡아 두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런! 이게 뭐야?" 베그만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윙키를 발견하곤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꼬마 집요정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좀 바빴네, 루도." 크라우치의 얼굴은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내 요정은
기절한 것이라네."

"기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누가 꼬마 집요정을 공격했단 말인가요?" 갑자기 베그만의 둥근 얼굴에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한 기미가 엿보였다.
베그만은 고개를 들고 어두운 방하늘에 띠 있는 해골을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에 잠시 윙키를 바라보다가 다시 크라우치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세상에!" 베그만의 얼굴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윙키가 어둠의 표식을 불러냈단 말인가? 꼬마 집요정이? 요술지팡이도 없는데?"
"아니. 꼬마 집요정은 요술지팡이를 갖고 있었다네, 루도." 에이머스가 베그만을 쳐다보았다. "꼬마 집요정은 분명히 요술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내가 직접 발견했다네."
크라우치 씨, 죄송하지만 꼬마 집요정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치는 에이머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에이머스는 크라우치의 침묵을

무언의 동의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에이머스는 자신의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더니 윙키를

겨냥했다.

"에네르바테!"

에이머스가 주문을 외우자 윙키의 몸이 조금 움찔했다. 커다란 갈색 눈이 몇 번 깜박거렸다. 마법사들은 조용히 윙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마 집요정은 비틀거리면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에이머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금 더 고개를 들더니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리는 꼬마 집요정의 흐리멍텅한 갈색 눈동자에 거대한 해골의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갑자기 꼬마 집요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꼬마 집요정! 내가 누군지 알겠나? 나는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의 직원이야!"

에이머스가 사납게 말했다. 윙키는 갑자기 숨쉬기가 곤란한지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해리는 도비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도비

역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조금 전에 누군가가 어둠의 표식을 불러냈다! 네가 본 것처럼……. 그런데 네가 바로 그

밑에서 발견됐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에이머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전……. 전……. 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윙키가 숨을 헐떡이면서 변명했다.

"너는 이 요술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에이머스가 윙키가 들고 있던 요술지팡이를 마구 휘두르면서 호통쳤다.

해골에서

흘러나온 초록색 불빛이 은은하게 사방을 비추었다. 해리는 단번에 그

요술지팡이를

알아보았다.

"어? 그건 제 요술지팡이예요!"

해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공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해리를 바라보았다.

"뭐라구?"

에이머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건 제 요술지팡이예요! 제가 그걸 떨어뜨렸어요!"

"네가 이걸 떨어뜨렸다고? 어둠의 표식을 불러낸 후에 이 요술지팡이를 던져 버렸지? 지금

네가 한 일을 고백하는 거야?"

에이머스가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물었다.

"에이머스, 제발 이성을 되찾도록 하게! 해리 포터가 어둠의 표식을 불러내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위즐리 씨가 버럭 화를 내었다.

"어……. 그야 물론 아니지. 미안하네…….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에이머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걸 저기에 떨어뜨리진 않았어요." 해리는 손가락으로 해골이 솟아오른 숲속을

가리켰다. "숲속으로 들어오자 마자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에이머스는 무서운 눈길로 윙키를 노려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윙키는 바들바들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꼬맹이! 네가 이걸 발견했지? 이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장난칠 생각이었지, 그렇지?"

"저는 절대로 마법을 부리지 않았어요!" 윙키가 울먹이며 말했다. 뜨거운 눈물이 꼬마 집요정의 두 뺨을 흉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전…… 전…… 전…… 조금 전에 그 요술지팡이를 집어 들었어요. 그 요술지팡이는 숲속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어둠의 표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마법을 몰라요!"

"꼬마 집요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헤르미온느가 갑자기 나섰다.

마법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헤르미온느에게 향하는 바람에 그녀는 약간 주눅이 든 것 같았지만, 언제나처럼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윙키의 목소리는 아주 높고 가늘어요.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둠의 표식을 불러내는 주문을 외우는 소리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훨씬 더 굵고 낮았어요!" 헤르미온느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해리와 론을 바라보았다. "윙키의 목소리는 분명히 아니었지? 안 그래?"

"맞아요. 윙키의 목소리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글쎄……. 그건 곧 알게 되겠지." 에이머스는 그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일 마지막으로 요술지팡이를 사용해서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꼬맹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해?"

꼬마 집요정은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기다란 윙키의 귀가 깃발처럼 펄럭거리고 있었다. 에이머스는 자신의 요술지팡이와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리더니 끝과 끝을 맞추었다.

"프라이어 인칸타토!"

에이머스가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자, 두 개의 요술지팡이가 맞닿은 지점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뱀 같은 혀바닥을 가진 해골이 나타났다.

헤르미온느는 겁에 질려 숨이 탁 막혔다. 하지만 그것은 어두운 밤하늘에 떠 있는 초록빛 해골의 허깨비에 불과했다.

"델레트리우스!"

에이머스가 다시 주문을 외우자, 해골이 점차 흐릿하게 변하더니 한줌 연기로 사라졌다.

"봤어?"

에이머스가 득의양양한 얼굴로, 여전히 발작적으로 떨고 있는 윙키를 사납게 노려보았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꼬마 집요정이 눈알을 굴리면서 황급히 말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좋은 요정이에요! 저는 요술지팡이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몰라요!"

"꼬맹이! 너는 현행범으로 불잡혔어!" 에이머스가 고함을 질렀다. "이 요술지팡이는 네가 들고 있었어!"

"제발 에이머스……. 그게 아니야……. 그 주문은 극소수의 마법사들만 알고 있다네……."

꼬마 집요정이 어떻게 그런 마법을 알 수 있겠나?"

위즐리 씨가 말했다.

"축시……." 크라우치가 에이머스를 노려보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에이머스,

자네는 내가 정기적으로 꼬마 집요정들에게 어둠의 표식을 불러내는 마법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크라우치 씨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죠……."

에이머스 디고리가 말꼬리를 흐렸다.

"자네는 지금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고 있네! 처음엔 해리 포터! 다음엔 나를……. 자네도

이미 저 애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나, 에이머스?"

크라우치가 고함을 질렀다.

"물론이죠."

에이머스는 몹시 당황한 것 같았다.

"게다가 자네는 내 경력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둠의 마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경멸하고 혐오한다네."

크라우치가 또다시 눈을 부릅뜨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크라우치 씨, 전…… 전 당신이 이 일과 관계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에이머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 집요정을 의심하는 건, 나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디고리! 그 꼬마 집요정이

어둠의 표식을 불러내는 마법을 나 아니면 어디에서 배울 수 있었겠나?"

크라우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다……. 꼬마 집요정이…… 그 요술지팡이를 주웠을 수도 있죠."

"그래, 에이머스. 꼬마 집요정은 그 요술지팡이를 주운 거야……. 윙키?"

위즐리 씨가

윙키를 향해 돌아서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하지만 꼬마 집요정은 마치 위즐리 씨가 버럭

소리라도 지른 것처럼 몸을 움찔거렸다.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어디에서 발견했지?"

윙키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수건을 마구 비틀고 있었다. 어찌나 심하게 비틀었던지

토가처럼 생긴 수건의 가장자리가 거의 해질 지경이었다.

"저는…… 그 요술지팡이를…… 숲속에서 발견했어요……. 저기에서……."

"들었나, 에이머스? 어둠의 표식을 불러낸 자는 일을 마친 후에 순간이동으로 재빨리

달아났어. 해리의 요술지팡이만 남기고……. 그건 아주 영리한 행동이었지. 자기

요술지팡이를 사용하면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지. 그 후에 공교롭게도

윙키가 우연히 그 요술지팡이를 발견한 거야."

위즐리 씨가 차분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저 꼬마 집요정은 범인 가까이에 있었을 거야!" 에이머스가 조바심을 내면서

소리쳤다. "꼬맹이, 누굴 본 거야?"

잔뜩 겁에 질린 윙키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꼬마 집요정은 불안한 듯이
커다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에이머스와 베그만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꼬마
집요정의
눈길이 다시 크라우치에게 향했다.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꼬마 집요정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에이머스!" 크라우치 씨가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당연히 자네
부서로
윙키를 데려가서 심문하고 싶겠지. 하지만 그 꼬마 집요정을 다루는 건 내게
맡겨 주었으면
좋겠네."
에이머스는 이런 제안이 전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크라우치는
마법부의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에이머스는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윙키는 분명히 무거운 벌을 받게 될 테니 그 점은 걱정하지 말게."
크라우치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주…… 주…… 주인님……." 윙키는 말을 더듬으면서 애처로운 눈길로
크라우치를 올려다
보았다. "주…… 주…… 주인님, 제…… 제…… 제발……." 윙키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윙키! 오늘 밤에 넌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어." 크라우치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난 분명히 너에게 텐트에 있으라고 명령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텐트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넌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 나는 제게 옷을 줄
수밖에
없다!"
크라우치는 한층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꼬마 집요정을 노려 보았다. 연민의
정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눈빛이었다.
"안 돼요!" 윙키가 크라우치의 발 밑에 납작 엎드리더니 다급하게 말했다. "안
돼요!
주인님! 옷은 안 돼요! 옷만은 제발 안 돼요!"
해리는 꼬마 집요정에게 옷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윙키를
해고한다는 뜻이다. 윙키가 수건을 꼭 움켜쥐고 크라우치의 발 밑에서 흐느끼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안타까웠다.
"하지만 꼬마 집요정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아저씨의 집요정은 고소 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아주
무서워해요.
그런데 가면을 쓴 마법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마구 허공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들을
피해 달아나려고 한 꼬마 집요정을 탓할 수는 없어요!"
크라우치는 꼬마 집요정을 피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크라우치는 마치
윙키가
반짝거리는 구두를 더럽히는 무슨 불결한 것이라도 되는 양 냉정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꼬마 집요정 따윈 필요없다." 크라우치는 헤르미온느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과 주인의 명예에 해를 입히는 꼬마 집요정 따위는 조금도 필요없단 말이다."

윙키는 여전히 구슬프게 흐느끼고 있었다. 얼마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는 이만 아이들을 데리고 텐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잠시 후에 위즐리 씨가 말했다. "에이머스, 우리는 이미 그 요술지팡이 철저히 조사했네. 이제 그만 해리에게 돌려주는 게……."

에이머스는 즉시 해리에게 요술지팡이를 내밀었다. 해리는 그 요술지팡이를 받아서 재빨리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자, 얘들아!"

위즐리 씨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꿈쩍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의 시선은 여전히 꼬마 집요정에게 가 있었다. 가엾은 꼬마 집요정은 어깨를 들썩이며 아직도 울고 있었다.

"헤르미온느!"

위즐리 씨가 재촉하자, 헤르미온느는 마지못해 돌아서더니 해리와 론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윙키는 어떻게 될까요?"

공터에서 나오자마자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위즐리 씨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꼬마 집요정을 함부로 취급하다니……."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디고리 씨는 말끝마다 '꼬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크라우치 씨도 꼬마 집요정의 짓이 아니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고하려 하잖아요! 크라우치 씨는 그 꼬마 집요정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어요."

꼬마 집요정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요!"

"꼬마 집요정은 인간이 아니잖아."

론이 말했다.

"하지만 그 꼬마 집요정은 감정을 갖고 있어, 론.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건 말도 안 돼!"

헤르미온느가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론을 비난했다.

"헤르미온느,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란다. 하지만 지금은 꼬마 집요정의 권리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야. 우리는 빨리 텐트로 돌아가야 한단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니?"

위즐리 씨가 물었다.

"우린 어둠 속에서 그만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빠, 왜 사람들이 모두 저 해골을 그토록 불안해하는 거죠?"

론이 물자, 위즐리 씨의 얼굴에는 착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일단 텐트로 돌아간 후에 설명해 주마."

그러나 숲 가장자리에 도착하자,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수많은

마녀와 마법사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모여 있다가, 그들을 보자 앞으로
몰려들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그걸 불러냈소?"

"아서, 혹시…… 그 사람은 아니겠죠?"

"물론 그 사람은 아닙니다." 위즐리 씨가 조바심을 내면서 말했다. "우리도
누가 범인인지

몰라요. 그자는 순간이동으로 달아났어요. 자, 실례합니다. 제발……. 우리는
잠을 좀 자고
싶어요."

위즐리 씨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데리고 다시 캠프장으로 걸어갔다.

캠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가면을 쓴 마법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불에 잔뜩

그을린 텐트 몇 채에서 여전히 회색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프레드와 조지와 지니는 조금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찰리와 텐트 밖으로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함께 왔단다."

위즐리 씨가 허리를 굽혀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도
재빨리 뒤를

따라 들어갔다.

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팔에는 침대 시트를 감고 있었는데,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찰리의 셔츠는 엉망으로 찢겨 나갔으며, 퍼시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퍼시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퍼시는 자랑스러운 듯이 코피를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프레드와 조지와 지니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지만,
굉장히 놀란

것 같았다.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린 사람들을 잡았어요, 아빠?" 빌이 급히 물었다.

"아니야. 바티 크라우치 씨의 집요정이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들고 있는 걸
발견하긴

했지만, 누가 어둠의 표식을 불러냈는지는 전혀 모른단다."

"그게 무슨 말이죠?"

빌과 찰리와 퍼시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해리의 요술지팡이?"

프레드가 놀라서 물었다.

"이 사건에 크라우치 씨의 꼬마 집요정이 관련되어 있나요?"

퍼시도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다. 위즐리 씨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둠의 표식이 나타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크라우치 씨가 그런 요정을 해고하는 건 당연해! 그 꼬마 집요정은 크라우치
씨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달아났잖아……. 크라우치 씨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을까? 마법부

직원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그 꼬마 집요정이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로

끌려갔다면……."

퍼시는 잔뜩 화가 난 것 같았다.

"그 요정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저 우연히 그 장소에 있었던 것뿐이라구!"

헤르미온느가 퍼시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소리치자, 퍼시는 깜짝 놀랐다.
헤르미온느와

퍼시는 그래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적어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헤르미온느, 크라우치 씨 정도의 지위에 있는 마법사는 요술지팡이를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꼬마 집요정에 신경을 쓸 틈이 없단 말이야."

퍼시가 즉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요정은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았어! 그저 우연히 요술지팡이를 발견했을 뿐이란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거칠게 소리쳤다.

"그런데 그 해골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그게 아무도 다치게 하지는 않았잖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지?"

론이 물었다.

"이미 말했잖아! 그건 그 사람의 상징이라구, 론! <어둠의 마법의 번영과 몰락>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다른 사람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딱 잘라서 말했다.

"그리고 그건 지난 13년 동안 우리의 눈에 띈 적이 없었단다. 사람들이 둘시 걱정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니까……."

위즐리 씨가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저 하늘에 떠있는 형상일 뿐이잖아요……."

론이 눈살을 찌푸렸다.

"론, 그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은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하늘에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렸단다." 위즐리 씨가 말했다. "그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지……. 너는

모른다, 론. 그런 걸 이해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 한번 상상해 보렴.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허공에 어둠의 표식이 떠돌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을 때의 기분이란……." 위즐리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었던단다……. 가장 끔찍한 것이었지……."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쨌거나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누가 그걸 불러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은 그걸 본 순간, 깜짝 놀라서 모두들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겨우 그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까지 접근했지만

죽음을 먹는 자들은 순간이동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로버트 가족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죠. 마법부 직원들은 지금 그들에게

기억력 수정 마법을 걸고 있어요."

빌이 팔을 감싼 시트를 살짝 걷어 상처를 살피면서 말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니? 그게 뭐예요?"

해리가 물었다.

"그건 그 사람의 추종자들이야." 빌이 상처를 다독거리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는 오늘

밤에 그들 가운데 일부를 본 것 같아요, 아빠. 용케 마법부의 추적을 피해서 아즈카반에

갇히지 않았던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단다, 빌.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위즐리 씨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저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빠, 우리는 숲속에서 드레이코 말포이를 만났어요. 그

애의 아버지도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포이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더구나 말포이 가족이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론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데 볼드모트의 추종자들이……." 해리가 말을 꺼내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깨를 움찔했다. 왜냐하면 마법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위즐리

가족 역시 볼드모트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해리가 얼른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추종자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죠? 왜 머글들을 끊어 놓은 거죠? 도대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위즐리 씨가 씹쓸한 미소를 지었다. "해리, 그들은 그저 재미로 그런 짓을 한

거란다. 그 사람의 힘이 아주 강력했을 때, 그들은 그저 재미로 수많은 머글들을

살해했단다. 목숨을 빼앗긴 머글의 절반 가량은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죽었지. 오늘 밤에

술이 좀 들어가자,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것 같구나. 그들은 아주 멋진 재회를 즐긴 거야."

위즐리 씨가 분노를 억누르면서 말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죽음을 먹는 자들이었다면, 왜 어둠의 표식을 보자마자 순간이동으로

부리나케 사라진 거죠? 오히려 그들은 어둠의 표식을 보는 순간, 아주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 가요? 안 그래요?"

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머리를 좀 써라, 론. 그들이 정말로 죽음을 먹는 자들이었다면, 당연히 달아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이 권력을 잃었을 때, 그들은 아즈카반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줄줄이

거짓말을 늘어 놓았지.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한 것은 모두 다 그 사람의 강압 때문에

억지로 한 거라고 하면서 말야……. 그러니 그들은 그 사람이 돌아온 걸 보고 우리보다도

더 잔뜩 겁에 질렸을 거야. 어쨌거나 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그 사람

편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태연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너무나 뻔한 사리이야. 안 그래?"

빌이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어둠의 표식을 불러낸 사람은…… 죽음을 먹는 자들을 멀리 쫓아 버리려고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바로 그거란다, 헤르미온느." 위즐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둠의 표식을 불러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오직 죽음을 먹는

자들뿐이란다. 그러니까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린 사람이 지금은 비록 죽음을 먹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그 무리 속에 있었던게 분명하단다……. 자,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네 엄마가 알면 무척 걱정할 거야. 다들 잠자리에

들거라. 내일 아침 일찍 포트키를 사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해리는 서둘러 이층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시계는 벌써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만약 평소라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도 졸리지 않고 정신이

말뚱말뚱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흘 전에(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고작 사흘 밖에 지나지 않았다)

해리는 무서운 악몽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났었다. 이마의 흉터가 타

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어둠의 표식이 나타났다. 무려

13년 만에 볼드모트의 상징이 부활한 것이다.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 프리벳 가를 떠나기 전에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냈지……. 시리우스는 그 편지를

받았을까? 과연 답장을 보낼까? 해리는 텐트의 천장을 가만히 옮겨다보았다.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머리 속이 너무나 복잡했다. 찰리가 드르렁거리면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에야 해리는 겨우 잠이 들었다.

제 10 장

마법부의 대훈란

조금 전에 잠이 든 것 같은데, 벌써 위즐리 씨가 해리를 훈들면서 깨우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자, 위즐리 씨는 마법을 부려서 텐트를 걷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캠프장을

떠났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두막 현관에 서 있던 로버트가 그들을 향해 손을 훈들면서 인사했다.

로버트의 눈은

마치 초점이 없는 것처럼 명하니 풀려 있었다.

"로버트 씨는 괜찮을 거야." 위즐리 씨가 말했다. "기억력이 수정되면 사람들은 한참 동안

얼이 빠지기 마련이란다……. 게다가 저 사람이 당한 일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잖니……."

포트키가 있는 지점에 다가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녀와 마법사들이 포트키를 관리하는 베이질에게 빨리 캠프장을 떠나게 해달라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다.

위즐리 씨는 베이질과 급히 몇 마디 의논을 한 후에, 기다랗게 줄 서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스토우츠헤드 산으로 돌아가는 낡은 고무타이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다시 오텀리 성 캐치풀 마을을 지나서 버로우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너무나

지쳐서 서로 말을 주고받을 만한 힘조차 없었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오직 따끈한 아침

식사 생각밖에 없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버로우가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안개를 뚫고 반가운 외침 소리가 들렸다.

"아이구!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위즐리 부인은 밤새도록 정원에서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라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슬리퍼를 신은 채, 황급히 달려오는 위즐리 부인의 손에는 잔뜩 구겨진 <예언자 일보>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위즐리 부인이 위즐리 씨의 목을 덥석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위즐리 부인의 손에서

<예언자 일보>가 톡 떨어졌다. 해리는 그 신문에 대문짝하게 인쇄되어 있는 텁기사

제목을 보았다.

퀴디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예언자 일보>에는 허공에서 번쩍거리는 어둠의 표식을 찍은 흑백 사진도 실려 있었다.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위즐리 부인은 위즐리 씨의 목을 끌어안고 있던 팔을

풀더니 아이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중얼거렸다. 위즐리 부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모두들 살아 있었어……. 오, 얘들아……."

갑자기 위즐리 부인이 프레드와 조지를 와락 끌어안는 바람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위즐리 부인이 너무나 세게 안아서 프레드와 조지는 그만 머리를 쟁 부딪히고 말았다.

"아야! 엄마…… 숨 막혀요!"

"너희들이 떠나기 전에 내가 소리를 질렀지?" 위즐리 부인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꼈다.

"나는 지난 밤을 뜯 눈으로 새우면서 그 생각만 했단다! 만약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잡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 고작 0. W. L. 점수를 잘 받지 못했다고

야단친 거라면……. 오, 프레드……. 조지……."

"여보, 이제 그만 해요. 우리 모두 무사하지 않소?" 위즐리 씨가 쌍둥이 형제를 부인의 품에서 얹지로 떼어 놓으면서 부인을 위로했다. 그리고는 빌에게 속삭였다.

"빌……. 저 신문을 좀 집어다오. 기사가 어떻게 실렸는지 궁금하구나……."

잠시 후에 그들은 모두 식당으로 들어갔다. 헤르미온느는 위즐리 부인에게 진한 흉차 한 잔을 꽂여 주었다.

"흉차에 위스키를 조금 타는게 좋겠구나."

위즐리 씨가 헤르미온느에게 부탁했다. 그리고는 빌이 건네준 <예언자 일보>의 제 1면을 훑어보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위즐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마법부의 큰 실수…… 달아난 범인……. 느슨한 보안……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은 어둠의 마법사들…… 국가적인 망신……. 도대체 이 기사를 누가 쓴 거야? 아, 물론…… 리타 스키퍼!"

"그 여자는 마법부와 무슨 원수가 진 모양이에요!" 어깨 너머로 열심히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던 퍼시가 벼락 화를 냈다. "지난 주에는 흉혈귀를 소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마법부가 고작 냄비 두개 따위를 가지고 헛소리나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썼어요! <마법사가 아닌 반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의 열두 번째 단락에 특별히 흉혈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도 말이죠!"

"부탁 하나 들어줄래, 퍼시?" 빌이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나에 대한 기사도 있군."

<예언자 일보>의 기사를 읽고 있던 위즐리 씨가 안경 너머로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말했다.

"어디 있어요?" 위스키를 넣은 흉차를 마시던 위즐리 부인이 갑자기 사례가 들린 것처럼 쥙꺽거렸다. "그 기사를 보았다면 진작 당신이 살아 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녜요!"

"이름이 실린 게 아니오." 위즐리 씨가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이 기사를 좀 보시오. '숲 근처에서 애태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마법사들이 마법부의 확실한 발표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둠의 표식이 나타나자, 마법부의 작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얼마 후에 나타난 마법부의 한 관료는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주지 못했다. 불과 한시간 후에 숲속에서 여러 구의 시체가 치워졌다는 무성한 소문을 이 한 마디 진술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

이런!" 잔뜩 화가 난 위즐리 씨는 <예언자 일보>를 퍼시에게 내밀었다. "다친 사람은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속이 시원했을까? 숲속에서 여러 구의 시체가

치워졌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니……. 이제 신문에 실렸으니까 확실히 그런 소문이 나겠군.

여보, 아무래도 사물실에 좀 나가 봐야겠소. 일을 수습해야 할 것 같구려." 위즐리 씨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아빠." 퍼시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크라우치 씨는 지금

일손이 달릴 거예요. 냄비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직접 제출하는 게 좋겠어요." 퍼시는 갑작스럽게 수선을 떨더니 이내 식당에서 나가 버렸다.

"아서, 당신은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이건 당신 부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당신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즐리 부인은 높시 불안한 것 같았다.

"내가 직접 마법부로 가는 게 좋겠어, 여보. 아무래도 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같아.

옷을 갈아입은 후에 곧바로 떠나겠소……."

"아주머니, 혹시 헤드위그가 제 편지를 갖고 오지 않았나요?"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불쑥 질문을 던졌다.

"헤드위그? 아니……. 아니, 우편물은 전혀 없었단다."

위즐리 부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수상스러운 눈길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그만 네 방에 가서 짐을 풀어도 되겠지, 론?"

해리가 두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지면서 말했다.

"응……. 나도 방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어. 헤르미온느, 너는?"

론의 눈길이 헤르미온느를 향하고 있었다.

"좋아."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세 사람은 식당에서 나와
지그재그

모양의 계단을 따라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왜 그래, 해리?"

론이 다락방 문을 닫자마자 물었다.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지난 일요일 아침에 다시 이마의 흉터가
아팠어. 잠을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깼지……."

그 말을 듣고 론과 헤르미온느가 보인 반응을 해리가 프리벳 가에서 상상했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입을 딱 벌리더니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먼저 도움이

될 만한 수많은 책들을 늘어놓은 후에 알버스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과
호그와트의 간호

담당인 품프리 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이 언급했다. 론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없었어, 안 그래? 너도 알잖아? 그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 지난 번에 네 흉터가 계속 아팠을 때에는 그 사람이 호그와트에
있었잖아."

"물론 그가 프리벳 가에 없었던 건 확실해." 해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꿈을 꾸고 있었어……. 그와 피터의 꿈을……. 너희들도 알지? 생쥐로
변해서 달아난

윙테일……. 그 꿈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누군가를……."

해리는 문득 '나'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잔뜩 겁에 질린 헤르미온느를 더 이상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건 그냥 꿈이야. 악몽에 불과할 뿐이라구."

론이 훌훌 털어 버리려는 듯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상하지 않니? 이마의 흉터가 옵시 아프더니, 사흘 수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행진하고…… 블드모트의 상징이 다시 허공에 떠오르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일까?"

해리는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이름 좀 말하지 마!"

론이 이를 악 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작년 말 수업 시간에 트릴로니 교수가 했던 말 기억나니?"

그러나 해리는 룬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트릴로니 교수는 호그와트의 점술 교수였다.

"오, 해리! 그런 사기꾼의 말에 아직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니……."

헤르미온느가 겁에 질렸던 표정을 싹 거두고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해리가 말했다. "트릴로니 교수의 예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 그 예언을 할 때,

트릴로니 교수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 정말로…… 트릴로니 교수는 어둠의 마왕이

부활할 거라고 예언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렬하고 끔찍해질 것이다……. 어둠의 마왕은 부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선다……. 그날 밤에 웜테일이 탈출했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동안, 룬은 처들리 캐논 침대 시트에 난 구멍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해리, 왜 헤드위그가 편지를 갖고 오지 않았는지 물었던 거야?

기다리는 편지라도 있어?"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이미 시리우스에게 흉터가 계속 아팠다고 편지를 썼거든. 그래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해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야! 시리우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빨리 시리우스를 만났으면 좋겠어."

해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리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시리우스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어. 안 그래? 헤드위그가 돌아오려면 아직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거야."

"그래, 알아."

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헤드위그가 없는 하늘을 내다보는 그의 마음을 착잡하기만 했다.

"목장에 가서 퀴디치 게임이나 하자, 어서. 세 명씩 팀을 나누는 거야. 빌과 찰리와

프레드와 조지 형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렁스키 페인트를 해볼 수도 있잖아, 해리?"

론이 해리의 어깨를 톡 치면서 말했다.

"론! 해리는 별로 퀴디치 게임을 할 생각이 없어……. 고민거리도 많고……. 게다가 몹시

지쳤어. 아무래도 우리 모두 잠을 좀 자는 게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넘 어쩜 그렇게 남의 기분을 모르느냐는 투로 말했다.

"아니야. 나도 퀴디치 게임을 하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 론. 파이어볼트를 갖고 올게."

갑자기 해리가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잔뜩 볼멘 소리로 "남자애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

하며 투덜거리더니 방에서 나갔다.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위즐리 씨와 퍼시는 거의 집에 불어 있을 틈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집에서 나갔으며,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난리가 났어." 그들이 호그와트로 떠나기 전날 일요일 저녁에 퍼시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계속 호울러를 보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어. 호울러는 금방 열어 보지 않으면 폭발하잖아. 내 책상은 군데군데 불에 그을리고

가장 좋은 깃펜도 새까맣게 타 버렸지."

"사람들이 왜 호울러를 보내는데?"

지니가 거실 벽난로 앞에 깔린 양탄자에 앉아서 마법의 테이프로 <1000 가지 마법의

약초와 곰팡이>라는 책을 붙이며 말했다.

"퀴디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소동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거야." 퍼시는 어깨를

약간 으쓱거렸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재산을 보상해 달래. 문동구스 플레처는 방이 무려

열두개나 되는 텐트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어. 그 텐트에는 부글부글 거품이 나오는

목욕탕도 달려 있었다고 우기면서……. 나는 대뜸 플레처의 속셈을 꿰뚫어봤지. 사실

플레처는 허름한 망토를 막대기로 받쳐 놓고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야."

위즐리 부인은 초조한 눈으로 구석에 놓여 있는 꽤종시계를 힐끗 바라보았다.

해리는 그

꽤풍시계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그 꽤종시계에는 아홉 개의 황금색 바늘이 있었는데, 각각의 시계

바늘에는 위즐리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꽤종시계의 숫자판에는 숫자 대신에 '집'

'학교' '직장' '행방불명' '병원' '감옥'이라는 글씨가 써어 있었다. 12라는 숫자가 있어야

할

위치에는 '사망'이라는 글씨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덟 개의 시계 바늘은 '집'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가장 기다란 위즐리 씨의 바늘은 여전히 '직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이후에는 네 아빠가 주말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단다.

네 아빠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을까? 저녁 식사가 다 식을 텐데……."

"아빠는 퀴디치 월드컵 경기 때 아빠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부서의 책임자와 미리 의논하지 않고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어요."

퍼시가 말했다.

"스키퍼라는 저 비열한 여자가 쓴 기사 따위를 읽고, 감히 네 아빠를 탓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위즐리 부인이 발끈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만약 아빠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면, 교활한 리타 스키퍼는 마법부에서 한 마디의

논평도 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거예요. 리타 스키퍼는 어느 누구도 좋게

보지 않는 여자예요. 언젠가 그 여자가 그린고트 은행 금고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도 아마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스키퍼는 날 보고 '머리만

길고 형편없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론과 체스를 두고 있던 빌이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머리가 좀 길기는 하구나, 얘야. 내게 잠시 맡겨 두면……."

위즐리 부인이 빌의 머리카락에 눈독을 들이면서 말했다.

"싫어요, 엄마."

빗방울이 거실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헤르미온느는 <표준 마법서, 4학년>에 푸

빠져 있었다. 그것은 위즐리 부인이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위해 다이애건 앤리에서 사온

책이었다. 찰리는 불에 잘 견디는 발라클라바(어깨까지 덮을 수 있는 큰 털모자: 역주)를

꿰매고 있었다. 해리는 빗자루 수리 장비 세트를 열어놓고 열심히 파이어볼트를 닦고

있었고, 프레드와 조지는 깃펜을 양피지에 대고 끄적이면서 소곤거리고 있었다.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냐?"

위즐리 부인이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쌍둥이 형제를 눈여겨보며 말했다.

"숙제하고 있어요."

프레드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아직 개학도 하지 않았는데, 숙제는 무슨 숙제?"

위즐리 부인은 눈을 더욱 가늘게 뜨고 쌍둥이 형제를 노려보았다.

"아니에요. 조금 남은 게 있어요."

조지가 재빨리 손을 흔들면서 변명했다.

"혹시 새로운 상품 주문 용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위즐리 형제 마법사의 기발한

발명품'을 다시 시작하기만 해봐라."

위즐리 부인의 눈빛은 마치 쌍둥이 형제의 속마음을 깨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프레드는 괴로워 죽겠다는 듯이 위즐리 부인을 보며 말했다. "만약 내일 호그와트 급행 열차가 충돌해서 조지와 제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엄마가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트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겠어요?"

삽시간에 거실은 떠들썩한 웃음 바다가 되었다. 심지어 위즐리 부인까지도 웃음을 터뜨렸다…….

"오, 네 아빠가 오시는구나!"

갑자기 위즐리 부인이 꽤 종시계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직장'이라는 칸에 있었던 위즐리 씨의 시계 바늘이 '이동 중'이라는 칸에 가 있었다. 잠시 후에 시계 바늘이 바르르 떨리더니 다른 바늘들이 모여 있는 '집'에서 멈추었다.

"얘들아!"

위즐리 씨가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외쳤다.

"어서 오세요, 여보!"

위즐리 부인이 서둘러 달려 나갔다. 잠시 후에 위즐리 씨는 저녁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따뜻한 거실로 들어왔다. 위즐리 씨는 완전히 탈진한 것처럼 보였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소." 위즐리 씨는 벽난로 근처에 놓여 있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식어 빠진 양배추 요리를 톡톡 건드렸다. 위즐리 씨는 식욕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리타 스키터가 글쎄, 지금까지 마법부가 저지른 실책을 알아낸답시고 일주일 내내 들쑤시고 다녔다오. 결국 그 여자는 가엾은 버사가 실종된 사실까지도 알아내고 말았소.

아마도 그 기자가 내일자 <예언자 일보>에 제 1면 톱 기사로 실릴거요. 루도 베그만에게

버사를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도 총고했건만……."

"크라우치 씨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죠."

퍼시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래도 크라우치 씨는 아주 운이 좋은 셈이야. 윙키에 대해서는 리타 스키터도 미쳐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만약 크라우치의 꼬마 집요정이 어둠의 표식을 불러낸 요술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그 여자는 일주일동안 <예언자 일보>의 톱 기사로 써먹을 거야."

"그 꼬마 집요정이 무책임했던 건 사실이지만, 어둠의 표식은 불러내지는 않았다는 걸

다들 인정한 줄 알았는데요?"

퍼시가 흥분해서 말했다.

"하지만 크라우치 씨는 꼬마 집요정들을 학대하고 있어. <예언자 일보>의 기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지."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잘 들어, 헤르미온느! 크라우치 씨 같은 마법부의 고위 간부는 하인들의 철저한 복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퍼시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하인이 아니라 노예겠지!" 헤르미온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퍼시를 쏘아보았다.

"왜냐하면

크라우치 씨는 윙키에게 봉급을 주지 않으니까……. 안 그래?"

"너희들 모두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제대로 챙겼는지 살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위즐리 부인이 말다툼을 중단시키면서 말했다. "어서! 자, 얘들아……."

해리는 빗자루 수리 장비 세트를 챙긴 후에 파이어볼트를 둘러메고 론과 함께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론의 방에서는 윙윙거리면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때문에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다락방에서 산다는 굴귀신이 가끔씩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 그들이 들어가자, 피그위존이 새장 속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울어댔다. 반쯤

싼 트렁크를 보고는 몹시 흥분한 모양이었다.

"녀석에게 부엉이 사탕 좀 던져 줘. 입 좀 다물게……."

론이 사탕 봉지를 내밀면서 말했다. 피그위존은 넙죽넙죽 받아먹었다. 그 옆 헤드위그의

새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 론, 혹시라도 시리우스가 잡힌 건 아니겠지?"

해리가 텅 빈 헤드위그의 새장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예언자 일보>에 실렸을 거야. 마법부는 한 건 올린 걸

자랑하고 싶을 테니까……. 안 그래?"

"맞아. 난 그저 혹시라도……."

"이걸 봐! 엄마가 너를 위해 다이애건 앤리에서 구입한 물걸들이야. 엄마는 네 금고에서

금을 조금 꺼내 오셨어……. 그리고 네 양말들도 모두 깨끗하게 빨아 놓았어."

론은 해리의 침대 위에 잡다한 물건 꾸러미와 돈주머니 그리고 양말들을 옮겨놓았다.

해리는 위즐리 부인이 사 온 물걸들을 풀기 시작했다. 미란다 고시오크의 <표준 마법서,

4학년> 이외에도, 깃펜 한 세트와 수십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 그리고 마법의 약 조제용

재료들- 때마다 사자 물고기의 등뼈와 벨라도나(가지과의 유독 식물: 역주) 에센스가 거의

다 떨어져 가던 참이었다-이 있었다. 해리는 부지런히 냄비 속에 속옷들을 채워 넣었다.

그런데 론이 치를 떠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뭐니?"

해리가 물었다. 론은 밤색 벨벳 드레스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다. 그 옷의 칼라와

소매 끝동에는 구식 레이스 주름 장식이 치렁치렁 달려 있었다.

갑자기 노크 소리가 나더니, 위즐리 부인이 금방 다림질을 한 호그와트 제복 망토들을

한아름 안고 들어왔다.

"자, 망토가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싸도록 하거라."

위즐리 부인은 망토를 해리와 론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엄마, 지니의 드레스를 나한테 잘못 주셨어요. 이 옷은 새로 산 건가요?"

론이 밤색 벨벳 드레스를 보이며 말했다.

"아니야. 그건 네 옷이란다. 네 예복이야."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네?"

"예복말이다. 학교에서 보낸 준비물 목록에 올해에는 꼭 예복을 갖고 와야 한다고 적혀 있더구나……. 호그와트에서 공식 행사가 열릴 때 입을 거란다."

"설마……. 난 이거 입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론은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모두가 입는 거야, 론! 예복은 원래 다 그렇단다! 네 아빠도 파티용 예복이 몇 벌 있지 않니!"

위즐리 부인이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이 옷은 죽어도 입지 않겠어요. 차라리 발가벗고 다니겠어요."

론은 완강했다.

"바보같이 굴지 말거라. 어쨌거나 준비물 목록에 적혀 있으니까 안 갖고 가면 안 된다. 론!"

해리, 네 예복도 구입했단다……. 네 예복을 론에게 보여 주렴……."

해리는 떨면서 침대 위에 놓여 있는 마지막 꾸러미를 풀었다. 그러나 해리의 옷은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다.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리의 옷에는 레이스 장식이 달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것은 검은색이 아니라 암록색이라는 것만 빼면 학교 망토와 거의 똑같았다.

"그 옷이 너의 눈 색깔과 잘 어울리는 것 같더구나, 얘야."

위즐리 부인은 다정하게 말했다.

"저건 괜찮네! 어째서 내 옷은 저런 걸로 사지 않았어요?"

론이 해리의 옷을 쳐다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왜냐하면……. 네 옷은 중고품을 구입했으니까…… 종류가 별로 없더구나."

위즐리 부인이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해리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해리는 기꺼이 그린고트 금고에 있는 모든 돈을 꺼내서 위즐리 가족과 나누어 쓰고 싶었다. 그러나 위즐리 가족은 해리의 돈을 절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난 이런 옷 절대로 안 입을 거예요."

론이 완강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좋아! 그렇다면 발가벗고 가거라. 그리고 해리, 저 녀석의 사진을 찍어서 내게 보내렴."

실컷 웃어나 보자꾸나."

위즐리 부인은 문을 쾅 닫고 방에서 나가 버렸다. 갑자기 등뒤에서 푸푸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피그위존의 목에 그만 부엉이 사탕이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어째서 내가 가진 건 하나같이 쓰레기들이지?"

론이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피그위존의 목에 걸린 사탕을 끄집어내려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제 11 장
호그와트 급행 열차

아침이 서서히 밝아 오고 있었다. 방학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해리는 재빨리 잠옷을 벗고 청바지와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폭우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학교 망토는 호그와트 급행 열차에서 갈아입을 생각이었다.

해리와 론과 프레드와 조지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내려갔다. 그들이

총계참에 막 다다랐을 때, 갑자기 위즐리 부인이 초조한 얼굴로 불쑥 나타났다.

"여보! 마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전갈이에요!"

위즐리 씨는 망토를 거꾸로 입은 채, 쓴살같이 식당으로 달려갔다. 해리는 위즐리 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벽에 딱 달라붙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히 깃펜을 넣어 두었는데……."

그들이 식당으로 들어갔을 때, 위즐리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찬장 서랍을 뒤적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위즐리 씨는 벽난로를 향해 허리를 숙인 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순간 해리는 자신의 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깜박거리면서 벽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수염이 달린 커다란 달걀처럼 생긴 에이머스 디고리의 머리가

타오르는 불길 속에 둉둥 떠 있었던 것이다.

"이웃에 살고 있던 머글들이 그 소란을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야. 그래서 머글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지? 소방관? 경찰? 좌우지간 그들에게 신고를 했다네. 아서, 자네가 좀

가야겠네."

불똥이 턱탁 튀어오르고 콧가에서 불꽃이 넘실거렸지만 에이머스 디고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줄곧 떠들어대고 있었다.

"여기 있어요!"

위즐리 부인이 양피지와 잉크병 그리고 끝이 찌그러진 깃펜을 위즐리 씨에게 재빨리

건네주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정말 우연이었네." 에이머스 디고리의 머리가 말했다.

"그날따라 부엉이 두 마리를 보낼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갔다네. 그러다가

마법 오, 남용 관리과 직원들이…… 모두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아서, 만약 리타

스키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드아이는 뭐라고 하던가?"

위즐리 씨는 잉크병 뚜껑을 열더니 깃펜에 잉크를 잔뜩 묻혀서 받아 적을 준비를 하며 물었다.

"매드아이는 어떤 침입자가 자기네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그 침입자들은 매드아이네집 쓰레기통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는 거야." 에이머스의 머리가 디록디록 눈알을 굴리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쓰레기통이라니?"

위즐리 씨가 미친 듯이 글씨를 쓰면서 물었다.

"요란한 소음이 들리더니 쓰레기통이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더군."

분명히 머글 경찰이 나타났을 때에도…… 쓰레기통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었을 거야."

"침입자는 어떻게 됐나?"

위즐리 씨가 꽁꽁거리면서 물었다.

"아서, 자네도 매드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한밤중에 누군가가 매드아이의 집

마당으로 몰래 침입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감자 껌질을 뒤집어쓴 채 어슬렁거리면서 주위를 돌아다니는 미친 고양이라면 또 모를까? 어쨌거나 마법 오, 남용 관리과 직원들이 매드아이를 잡는다면, 그는 끝장이야. 이미 매드아이는 전과가 많지 않은가? 자네 부서에서 매드아이 건을 처리하게. 가벼운 벌금을 매기는 정도에서 끝나도록 말이야. 쓰레기통을 폭발시키는 범칙 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겠나?" 에이머스의 머리가 또다시 눈알을 굴리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신중히 행동하는 게 좋겠어. 그런데 매드아이가 요술지팡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나? 실제로 공격을 당한 사람은 없었나?" 위즐리 씨가 이마를 잔뜩 찌푸린 채, 양피지 위에 여전히 원가를 부지런히 받아 적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미친 듯이 침대에서 내려온 후에 창 밖으로 온갖 주문을 닥치는 대로 퍼부었을 거야. 하지만 마법 오, 남용 관리과 친구들도 그 사실을 증명하려면 애를 좀 먹을 거야. 일단 사상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좋아, 곧 출발하겠네." 위즐리 씨는 메모한 양피지를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더니 서둘러 식당에서 나갔다. "미안합니다, 롤리." 에이머스 디고리의 머리가 위즐리 부인을 바라보았다. "아침 일찍부터 성가시게 해서……. 하지만 매드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서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매드아이는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필이면 어젯밤에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에이머스는 조금 흥분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에이머스. 가시기 전에 토스트 좀 드시겠어요?" "오, 정말 고맙죠." 에이머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식탁 위에는 버터를 듬뿍 바른 토스트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재빨리 토스트 한 조각을 집게로 집어 에이머스의 입 속에 넣어 주었다. "고맙습니다." 에이머스 디고리는 입을 우물거리면서 인사를 한 수에 평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해리는 위즐리 씨가 빌과 찰리, 퍼시 그리고 여자 아이들에게 황급히 작별 인사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5분 후에 위즐리 씨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망토를 제대로 갖추어 입고, 머리를 빗질하고 있었다. "나는 바쁜 일이 있단다. 학기를 잘 보내거라, 얘들아." 위즐리 씨가 해리와 론과 쌍둥이 형제를 져다보면서 인사했다. 위즐리 씨는 망토를 어깨 위로 끌어올리더니 순간이동으로 막 떠날 준비를 했다. "여보, 당신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킹스 크로스까지 갈 수 있겠소?"

"물론이죠. 당신은 매드아이나 잘 해결하세요. 우리 염려는 조금도 하지 마시고요."

위즐리 씨가 뽕 하는 소리와 함께 사라지자, 빌과 찰 리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지금 매드아이라고 했나요? 매드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빌이 물었다.

"매드아이 말로는, 어젯밤에 누군가가 자기 집으로 침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법을 써서

공격했다는구나."

위즐리 부인이 말해 주었다.

"매드아이 무디? 그 정도까지 심한 미치광이는 아닌 줄 알았는데……."

주지가 토스트에 마멀레이드 잼을 바르면서 말했다.

"네 아빠는 매드아이 무디를 아주 존경하고 있단다."

위즐리 부인이 엄하게 말했다.

"그래, 그렇지. 아빠는 플러그를 수집하시잖아, 안 그래?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뭐……."

위즐리 부인이 식당에서 나가자, 프레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한창 때에는 무디도 아주 훌륭한 마법사였어."

빌이 말하자, 찰리도 이에 동의했다.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의 친구이기도 하지."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도 사실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어. 안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덤블도어가 아주 뛰어난 천재였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프레드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매드아이가 누구예요?"

해리가 물었다.

"한때 마법부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이야." 찰리가 대답했다. "아빠가 나를 데리고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사람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은 오려였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오려였지……. 어둠의 마법사들을 잡는 사람 말이야." 어리둥절한 해리의 표정을

보자, 찰리가 설명을 덧붙였다. "아즈카반 감옥 절반이 거의 매드아이 덕분에 채워지다시피

했지. 하지만 그 대신에 매드아이는 수많은 적들을 갖게 됐어……. 주로 매드아이가 체포한

죄수의 가족들이……. 나이가 들면서 매드아이는 점점 더 편집광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군.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도처에서 어둠의 마법사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말야."

빌과 찰리는 킹스 크로스 역까지 그들을 배웅하기로 했다. 하지만 퍼시는 호들갑스럽게

사과를 하면서 반드시 직장에 자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근무 시간을 어길 수는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크라우치

씨는 요즘 들어서 나를 정말로 신뢰하기 시작하셨어."

퍼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거 알아, 퍼시 형?" 조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내 생각에도 크라우치 씨가

형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위즐리 부인은 용감무쌍하게도 마을 우체국 전화를 이용해서 머글 택시 석 대를 불렀다.

"애들 아빠가 마법부 차를 빌려 주려고 하셨단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를 쳐다보면서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들은 폭우로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간 마당으로 나가서 택시 운전사들이 묵직한 트렁크
여섯 개를
자동차에 실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는 차가 한 대도 없다지 뭐니……. 어머, 얘야! 저
사람들은 별로
즐거운 것 같지 않구나. 무슨 일 때문일까?"
해리는 위즐리 부인에게, 극도로 흥분한 부엉이를 자동차에 태우는 것은 머글
운전사들에게 있어서 극히 드문 일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피그위존은
귀청이
찢어질 듯이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옆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프레드의 트렁크가
열리면서 필리버스터 박사의 놀라운 불꽃놀이 폭죽이 마구 터졌다. 그 순간
트렁크를
운반하던 택시 운전사는 두려움과 고통에 가득 찬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폭죽 소리에
깜짝 놀란 크룩생크가 택시 운전사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었기 때문이다.
여행은 아주 불편했다. 커다란 트렁크들 사이에 끼인 채, 택시 뒷좌석에 간신히
앉아
있어야만 했다. 폭죽 소리를 듣고 놀란 크룩생크가 겨우 진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런던에 도착할 무렵이 되었을 때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의 몸은
온통
크룩생크가 할퀸 자국투성이였다.
마침내 택시가 킹스 크로스 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폭우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혼잡한 도로를 건너서 역까지 트렁크를 나르는
동안, 모두들
물에 빠진 새양쥐 꼴이 되고 말았다.
해리는 이제 9와 4분의 3 번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일에 아주 익숙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9 번 승강장과 1 번 승강장 사이의 단단한 벽을 향해 곧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딱 한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다면, 머글들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늘은 여러 명이 짹을 지어서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피그위존과 크룩생크를
데리고
있어서 눈에 잘 띠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제일 먼저 승강장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태연하게 벽에 등을 기대고 잡담을 나누다가 슬쩍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
그러자 곧
해리의 눈앞에 9와 4분의 3 번 승강장이 나타났다.
호그와트 급행 열차는 이미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번쩍거리는 자줏빛 증기
기관차가 수증기를 뿜어냈다. 마구 소용돌이치는 증기 구름 때문에 승강장에 서
있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이 마치 거무스름한 유령처럼 보였다. 뿐만 안개
속에서
부엉부엉 울어대는 수많은 부엉이들에게 일일이 응답하느라 피그위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시끄럽게 울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기차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짐을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다시 승강장으로 내려가서 위즐리 부인과 빌과 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찰리가 지니를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빙그레 웃었다.

"왜?"

프레드가 몹시 궁금해하며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퍼시에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마법부가'

공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까지는 '기밀 사항'이니까 말이야."

"그래, 나도 올해에는 다시 한 번 호그와트를 방문해 보고 싶어."

빌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거의 동경하는 듯한 눈길로 기차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는데?"

조지가 조바심을 내면서 물었다.

"올해는 아주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거야. 어쩌면 잠깐 틈을 내어서 한번 구경하려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빌이 눈빛을 반짝이면서 말했다.

"뭘 구경한다는 거야, 형?"

론이 캐물었지만, 바로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위즐리 부인은 그들을 데리고 급행

열차의 출입구로 걸어갔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

기차에 올라탄 헤르미온느가 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말했다.

"맞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리도 꾸벅 인사를 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월 그러니, 얘들아. 크리스마스에도 너희 둘을 초대하고 싶단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마…… 호그와트에 머무르고 싶어하지 않을까? 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아주 바쁠 테니까……."

위즐리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엄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론이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마도 오늘 저녁이면 너희도 알게 될 거란다. 그 일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야. 엄마는

규칙이 바뀌어서 정말 기쁘단다."

위즐리 부인이 미소지었다.

"무슨 규칙 말이죠?"

해리와 프레드와 조지가 동시에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거야……. 자, 양전하게 굴어라. 알았니? 알았니,

프레드? 그리고 너, 조지도?"

증기 기관차가 슛슛거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호그와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 주세요!" 프레드가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면서 고함을 질렀다. 위즐리 부인과 빌과 찰리의 모습이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무슨 규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즐리 부인은 단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손을 흔들 뿐이었다.

기차가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위즐리 부인과 빌과 찰리의 모습이 뽕 하고 사라졌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다시 객실로 돌아왔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있어서 창 밖을 내려다보기가 힘들었다. 론은 트렁크를 열어서 레이스가 달린 갈색 예복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피그위존의 새장을 덮어 버렸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부엉이는 곧 잠잠해졌다.

"베그만 씨는 우리에게 호그와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말을 해주려고 했었어." 잔뜩 심술이 난 프레드가 해리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퀴디치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말이야.

기억나? 그런데 우리 엄마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 대관절 그게 뭘까?"

"쉿!"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손가락으로 옆 객실을 가리켰다. 해리와 론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열린 문을 통해서 느릿느릿 점잔 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아주 낯익었다.

"사실 우리 아빠는 나를 호그와트가 아니라 덤스트랭으로 보내려고 하셨어. 덤스트랭의 교장 선생님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 우리 아빠가 덤블도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덤블도어는 정말 잡종 애호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 덤스트랭은 절대로 잡종 같은 쓰레기들을 받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날 그렇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으셨어. 아빠 말씀을 들어보면, 덤스트랭은 호그와트와는 달리 어둠의 마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까지는 용납하고 있다는 거야. 덤스트랭 학생들은 실제로 어둠의 마법을 배우기도 한 대. 우리가 배우는 그 아무 짹에도 쓸모없는 방어술 따위가 아니라……."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객실 문을 향해 살금살금 걸어갔다.

객실 문을 닫자, 말포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포이 아빠는 덤스트랭이 그 녀석에게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때 차라리 가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저 밥맛 떨어지는 녀석을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런데 덤스트랭이 뭐야? 또 다른 마법학교야?"

해리가 물었다.

"응. 아주 악명 높은 곳이야. <유럽의 마법 교육 평가서>에 따르면, 덤스트랭은 어둠의 마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

헤르미온느가 픽 콧방귀를 끄면서 말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론이 막연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헤르미온느가 눈썹을 치켜떴다.

"왜?"

해리가 물었다.

"전통적으로 모든 마법학교 사이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이 있어. 덤스트랭과 보바통은

학교가 있는 곳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 아무도 자기네 비밀을 훔쳐 가지 못하도록

말이야."

헤르미온느는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설명조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덤스트랭도 호그와트만큼이나 규모가 엄청날 텐데, 그렇게 거대한 성을

어떻게 숨긴다는 거니?"

론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호그와트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잖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호그와트의 역사>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했다.

"그렇다는 우리 중에는 너밖에 없네. 어서 말해 봐. 호그와트 처럼 거대한 성을 어떻게

숨길 수 있다는 거야?"

론이 말했다.

"마법을 거는 거야. 머글들의 눈에는 입구마다 '위험!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은 다

쓰러져가는 폐허처럼 보이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덤스트랭도 외부인의 눈에는 꼭 폐허처럼 보일거란 말이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으면 퀴디치 월드컵 경기장처럼 머글 퇴치 마법을 걸어

두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다른 나라의 마법사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좌표 측정 불가능

마법을 걸어두었을 수도 있지."

헤르미온느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라구?"

이번에는 해리가 물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 하도록 마법을 걸어 놓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해리가 고덕였다.

"덤스트랭은 분명히 저 북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딘지 모르지만 아주 추운 지방에…….

왜냐하면 객네들의 교복에는 모피로 된 망토가 달려 있거든."

헤르미온느는 잠시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아, 한번 생각해 봐." 론은 꿈을 꾸듯이 황홀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포이 자식을 해치울 수 있을 거야. 빙하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에 사고처럼

가장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객네 엄마한테는 몹시 미안한 일이지만……."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 빗줄기가 더욱더 굵어지고 있었다. 하늘이 캄캄하고

창문에는 온통 김이 서려 있었기 때문에 한낮인데도 등불을 켜야만 했다.

도시락을 파는

수레가 달가닥거리면서 복도를 지나가자, 해리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냄비 모양의

케이크를 잔뜩 샀다.

오후가 되나, 시무스 피니간과 딘 토마스 그리고 네빌 롱바텀을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이 그들 객실로 왔다. 얼굴이 통통하고 건망증이 무척 심한 네빌 롱바텀은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마녀 할머니 손에 성장했다. 시무스는 여전히 가슴에 아일랜드의 초록색

장미를 달고 있었다. 장미는 여전히 '트로이! 멀릿! 모런!'을 외치고 있었지만 마법의 기운이

좀 떨어졌는지, 맥이 빠지고 지친 듯한 목소리였다. 30 분 정도 지나자,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지는 퀴디치 월드컵 이야기에 그만 진절머리가 난 해르미온느는 다시 <표준 마법서,

4 학년> 책을 펼쳐들고 소환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퀴디치 월드컵 경기 이야기를 떠들어대자, 제빌 롱바텀은 몹시

부러운 얼굴로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가고 싶어하지 않으셨어. 티켓을 구입할 생각조차 없으셨지. 하지만 너희들 말을

들으니까 정말 굉장했을 것 같구나."

네빌이 잔뜩 풀이 죽어서 말했다.

"정말로 그랬어. 이것 봐, 네빌……."

론은 선반에 놓여 있던 트렁크를 뒤적거리더니 빅터 크롬 인형을 꺼냈다.

"와!"

론이 빅터 크롬 인형을 포동포동한 네빌의 손 위에 올려 놓자, 네빌은 탄성을 질렀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빅터 크롬을 봤어. 일등석에서 관람했거든."

론은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쭉 펴면서 말했다.

"네가 퀴디치 월드컵을 보는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위즐리."

어느 사이에 드레이코 말포이가 객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말포이의 등 뒤에는 여름 방학

동안 적어도 30 센티미터는 더 자란 것처럼 보이는 크레이브와 고일이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딘과 시무스가 들어오면서 조금 열어 놓은 객실 문으로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말포이, 너희들에게 들어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위즐리……, 그런데 저게 뭐냐?"

말포이가 피그위존의 새장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새장 밑으로 축 늘어진 론의 예복

소맷자락이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훈들리고 있었다. 치렁치렁한 레이스가 달린

구식 소맷단이 너풀거렸다.

론은 황급히 그 예복을 감추려고 했지만, 말포이의 동작이 더 빨랐다. 말포이는 예복의

소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것 봐! 위즐리, 너 설마 이걸 입을 생각은 아니겠지? 1890년대에나 유행했을 것 같은

이런 옷을……."

말포이는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론의 예복을 보여주면서 신나게 떠들었다.

"저걸 그냥!"

론은 말포이의 손에서 옷을 빼앗았다. 말포이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옆에서

크레이브와 고일은 바보처럼 실실거렸다.

"그런데…… 너도 참가할 생각이냐, 위즐리? 가문에 영광을 위해서? 게다가 돈도 걸려

있으니까……. 만약 네가 이긴다면 근사한 예복도 살 수 있겠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론이 소리쳤다.

"너도 참가할 생각이니? 그래, 너는 분명히 참가할 거야. 그렇지, 포터? 너는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잖아. 안 그래?"

말포이가 정면으로 해리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당장 나가! 말포이……."

<표준 마법서, 4 학년>을 읽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말포이의 창백한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다.

"너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말포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마법부에 다니는 아빠와 형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저런!
우리 아빠는

벌써 오래 전에 내게 말해 주셨는데…….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에게 직접 들으셨대. 우리

아빠는 항상 마법부의 고위 간부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하지만 네 아빠는 너무

하위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위즐리. 맞아, 네 아빠 앞에서는 중요한

일은 말하지 않는 모양이야."

말포이는 또다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나가자고 손짓했다.

세 사람은 금방 객실에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객실 문을 쾅 닫아 버렸다.
어찌나

세계 닫았던지 그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버리고 말았다.

"론!"

헤르미온느가 론을 나무라듯이 바라보면서 요술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웠다.
"레파로!"

그러자 유리 파편들이 객실 문으로 날아가더니 다시 유리창이 되었다.

"그런데 꼴을 보아하니 녀석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우리만 모르고

있어……. 우리 아빠도 마법부의 고위직 간부들을 잘 알고 있어……. 젯! 우리 아빠는

언제라도 승진을 할 수 있어……. 다만 지금 계시는 부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몸담고

계시는 것 뿐이야……."

"물론이지. 말포이 같은 녀석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도 없어. 공연히 말포이의 수작에

넘어가지 마, 론!"

헤르미온느가 침착하게 타일렀다.

"그 따위 녀석이 감히 나에게 수작을 건단 말이야? 어디 그렇게만 해봐!"

론이 냉비 모양의 케이크를 짓뭉개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때까지 론의

기분은 내내 풀리지 않았다. 학교 망토로 갈아입을 때에도 론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며,

호그와트 급행 열차가 속도를 늦추고 철흑같이 어두운 호그스미드역에 멈추었을 때에도

여전히 얼굴을 징그리고 있었다.
기차 문이 열리는 순간, 해리 머리 위에서 우르르 천둥이 쳤다. 헤르미온느는 망토로 크룩생크를 둘둘 감싼 후에 꼭 끌어 안았다. 론은 예복으로 피그위존의 새장을 덮은 채,
기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머리를 잔뜩 숙이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쓸아지는 폭우 속을 걸어갔다.
비가 어찌나 억수같이 쓸아지는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머리 위로 계속 퍼붓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해그리드!"
해리가 승강장 끝에 서 있는 거대한 형체를 향해 소리쳤다. "잘 지냈니, 해리?
나중에
연회장에서 보자! 이 비를 맞고 익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해그리드가 손을 흔들면서 크게 외쳤다. 전통적으로 1학년생들은 해그리드와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호그와트 성으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었다.
"우와! 나라면 이런 날씨에 호수를 건너가는 건 상상도 못할 거야."
헤르미온느가 후들후들 떨면서 말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두운 승강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역 밖에는 말없이 달리는 100 대의 마차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네빌은 얼른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의 문이 쾅 닫히더니 순간 뒤로 한 번 기우뚱했다. 그리고 기다란 마차들의 행렬이 호그와트 성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덜컹거리며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 12 장
트리위저드 시합
마침내 호그와트 교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날개 달린 엣돼지 상이 교문 양쪽에 턱 버티고 있었다. 교문을 통과한 마차들은 넓은 도로를 따라 굴러가고 있었다. 돌풍처럼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이 불어닥칠 때마다 마차는 위태롭게 흔들렸다. 해리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점점 더 가까워지는 호그와트 성을 바라보았다. 불이 환하게 밝혀진 수많은 창문들이 줄기차게 퍼붓는 빛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거렸다. 마차가 커다란 오크 문 앞 돌계단 아래 우뚝 멈춰 섰다.
그 순간 어두운 하늘에 번개가 번쩍거렸다. 그들보다 앞서 도착한 마차에 탄 사람들은 벌써 황급히 돌계단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차에서 펄쩍 뛰어내린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그리고 네빌은 계단 위로 쏜살같이 달려가, 동굴같은 현관 복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햇불이 타오르고 있는 복도에는 대리석 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제기랄!" 론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물을 털어냈다. "저렇게 계속 비가 내리면 호수가 넘치고 말겠어.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군. 아야!"

론이 비명을 지르면서 비틀거렸다. 물이 잔뜩 들어 있는 커다란 빨간 풍선이 천장에서

곧장 론의 머리에 정통으로 떨어진 것이다. 물풍선이 터지자 물을 흠뻑 뒤집어 쓴 론은

해리 쪽으로 비켜섰다.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물풍선이 떨어졌다. 그것은 아슬아슬하게 헤르미온느를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해리의 발치에서 물풍선이 터지는 바람에 신발과 양말이 온통

물에 젖고 말았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물풍선을 피하기 위해 서로 밀치기 시작했다.

해리가 재빨리 고개를 들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요정 피브스가 6 미터 높이의 허공에서

둥동 떠다니고 있었다. 작은 종이 잔뜩 매달린 모자에 오렌지 색깔의 나비 넥타이를 매고

있는 소리의 요정은 심술궂은 얼굴을 잔뜩 징그리면서 또다시 목표를 겨냥하고 있었다.

"피브스!" 성난 목소리가 짜렁짜렁 복도에 울려 퍼졌다. "피브스, 당장 이리로 내려오지 못해!"

교감 선생님이자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사감인 맥고나걸 교수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젖은 마룻바닥을 달려오던 맥고나걸 교수가 중심을 잊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다행히도 헤르미온느의 목을 붙잡아서, 벌렁

나자빠지는 사태는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런! 미안해요, 그레인저 양."

"괜찮아요, 교수님!"

헤르미온느가 얼얼한 목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피브스, 당장 이리로 내려와!"

맥고나걸 교수가 뾰족한 모자를 똑바로 고쳐 쓰면서 호통을 쳤다. 그리고 네모난 안경

너머로 피부스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냥 장난이에요!" 피브스가 비명을 지르면서 연회장 안으로 도망치는 5학년 여학생들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면서 깔깔 거렸다. "이미 다 젖었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 더 적시는 것뿐이에요! 휴이이이익!"

피브스는 방금 도착한 2학년생들에게 또다시 물풍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을 불러야겠군!" 맥고나걸 교수가 큰소리로 말했다.

"경고하는데,

피브스."

그러자 피브스가 헛바닥을 쑥 내밀더니 마지막 물풍선을 공중으로 휙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깔깔거리면서 봉하고 대리석 계단 위로 날아갔다.

"어서 들어가거라!" 맥고나걸 교수가 흠뻑 젖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날카롭게 외쳤다.

"연회장으로, 어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미끄러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중문으로 들어갔다. 론은 얼굴 위로 훌러내리는 젖은 머리카락을 연신 뒤로 넘기면서

투덜거리고 있었다.

연회장은 언제나처럼 멋지고 훌륭했다. 지금은 개학식 연회를 위해서 특별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황금빛 접시와 잔들이 허공에 둉뚱 떠 있는 수백 개의

촛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네 개의 기다란 기숙사 테이블은 재잘거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연회장 제일 위쪽에 마련된 상석에는 호그와트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마주보면서 일렬로 앉아 있었다.

연회장 내부는 무척 따뜻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슬리데린과 래번클로와

후플푸프를 지나서 연회장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핀도르의 유령인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약간 반투명한

진줏빛이 감도는 닉은 오늘 밤에도 평상시처럼,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 주는 높은

주름 깃에다가 허리가 잘록한 옷을 입고 있었다.

"잘 있었니, 얘들아?"

닉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전 별로 그럴지가 못해요." 해리는 신발을 벗어 들고 물을 털어냈다. "기숙사 배정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신입생의 기숙사 배정식은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열렸다. 하지만 해리는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신이 처음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기숙사 배정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리는 내심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굉장히 들뜬 목소리가 해리를 불렀다.

"안녕, 해리."

그는 바로 해리를 영웅처럼 숭배하는 3학년생 콜린 크리비였다.

"안녕, 콜린."

해리는 약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해리,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 한 번 알아맞춰 봐, 해리! 내동생이 호그와트에 입학했어!"

내 동생 데니스가 말이야!"

콜린은 몹시 흥분한 것 같았다.

"어……. 그것 참 좋은 일이네."

해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지금 내 동생은 잔뜩 흥분했어! 그 녀석이 제발 그리핀도르에 들어오기만을 바랄 뿐이야!"

행운을 빌어 줘! 알았지, 해리?"

콜린은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래……. 알았어."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다시 헤르미온느와 론과

목이 달랑달랑한 닉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같은 형제는 대부분 같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그렇지?"

해리는 속으로 위즐리 형제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물었다. 위즐리 형제는 일곱 명 모두

그리핀도르 기숙사 소속이었던 것이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패르바티 패털의 쌍둥이 동생은 래번클로에 있어. 더구나

걔네들은 일란성 쌍둥이야. 네 생각대로라면 그 애들은 한 기숙사에 있어야 하잖아?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는 문득 고래를 들어서 교직원 테이블을 올려다보았다.

평소보다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았다. 해그리드는 아직까지도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는 비에 젖은 현관

복도를 닦는 걸 감독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빈 의자가 하나 남아 있었다. 누가

빠진 것일까? 하지만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님은 어디 있지?"

역시 교직원 테이블을 올려다보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는 세 학기 이상 머물렀던 적이 없었다. 해리가 가장 좋아하던

교수는 작년에 그만둔 루핀 교수였다. 해리는 천천히 교직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았지만, 확실히 새로운 얼굴은 눈에 띄이지 않았다.

"어쩌면 새 교수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닐까?"

헤르미온느가 걱정하면서 말했다. 해리는 다시 한 번 교직원 테이블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마법을 가르치는 자그마한 플리트윅 교수는 높게 쌓인 방석 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약초학 담당 스프라우트 교수가 옆으로 뻗친 머리 위에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앉아 있었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천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스트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니스트라 교수의 반대편에는 누르스름한 얼굴에 매부리코의 스네이프

교수가 앉아 있었다.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마법의 약 담당 교수인 스네이프는

호그와트에서 해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해리가 스네이프 교수를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스네이프 교수 또한 해리를 싫어했다. 더구나 스네이프 교수는, 작년에 해리가 스네이프의 코앞에서 시리우스의 탈출을

도와준 이후부터 더욱 해리를 증오하고 있었다. 스네이프 교수와 시리우스는 학창 시절

이후로 줄곧 숙적이었던 것이다.

스네이프 교수 옆에 빈 자리가 하나 있었다. 해리는 아마도 맥고나걸 교수의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교직원 테이블의 중앙에는 호그와트의 교장 덤블도어 교수가 앉아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의 기다란 은빛 머리카락과 수염이 촛불에 비쳐 반짝거렸다. 짙은 초록색의

기다란 망토에는 수많은 별과 달이 수놓여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듯,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마주 잡고 그 위에 턱을 올려놓은 채,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천장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해리는 얼른 고개를 들고 천장을 훑듯 올려다보았다. 마법이 걸려 있는 연회장의 천장에는 바깥 하늘과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해리는 이렇게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천장에는 먹구름들이 마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바깥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자,
천장에도 번개가 번쩍 빛났다.
"어서 빨리 끝났으면……. 난 히포그리프라도 먹을 수 있겠어."
론이 신음 소리를 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맥고나걸 교수가 길게 늘어선 1학년 학생들을 연회장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갑자기 온
사방이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도 비에 젖기는 했지만,
1학년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꼭 호수를
헤엄쳐서 온
것처럼 보였다.
신입생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추위와 긴장으로 덜덜 떨면서 교직원 테이블을
따라 일렬로
걸어갔다. 그리고 전교 학생들을 마주 바라보고 똑바로 섰다.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신입생들 가운데 가장 키가 작고 머리가 회색인 그 아이는
해그리드의 것이
분명한 검은색 두더지 가죽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코트가 어찌나
헐렁하던지 꼭 커다란
모피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더지 코트 위로 톡 튀어나와
있는 그 아이의
작은 얼굴은 긴장은커녕 너무나 신나서 잔뜩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한 줄로 늘어선 그 아이는 콜린 크리비와 눈이
마주치자, 두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면서 소리없이 입만 벙긋거렸다.
"나 호수에 빠졌어!"
작은 아이는 그 사실이 무척 즐거운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에 맥고나걸 교수가 1학년생들 앞에 세 발 의자를 갖다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굉장히 낡고 더럽고 누덕누덕 기운 자국이 있는 마법사 모자를 올려놓았다.
1학년생들은 그
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연회장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일제히 마법사
모자로
향했다.
얼마 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법사 모자 테두리 부근의 헤어진 부분이 마치
입처럼 넓게
벌어지더니 갑자기 그 모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천년도 더 전에
내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유명한 마법사 네 명이 살았어요.
그들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어요.
황야에서 온 대머리 그리핀도르
골짜기에서 온 금발의 래번클로
넓은 계곡에서 온 상냥한 후플푸프
늪에서 온 심술궂은 슬리데린
그들은 소망과 희망과 꿈을 다 함께 공유했어요.
그들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젊은 마법사들을 교육시키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호그와트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네 명의 창립자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덕목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도 달랐어요.
그리핀도르는
가장 용감한 사람을 추천했고
래번클로는
가장 영리한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후플푸프는
근면한 사람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았고
권력에 굽주린 슬리데린은
원대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네 명의 마법사가 살아 있을 때에는
그들이 직접 학생들을 분류했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무슨 수로 학생들을 뽑을까요?
그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그리핀도르였어요.
그리핀도르는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나를 벗었어요.
네 명의 창립자들은 내 안에 두뇌를 조금씩 넣었어요.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나를 들어서 당신의 귀를 가릴 정도로 편안히 쓰세요.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속할지 말해 줄 거예요!
마법의 모자가 노래를 다 마치자,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터졌다.
"저건 우리 기숙사 배정식 때 불렀던 노래와 다르네."
해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모자는 해마다 다른 노래를 불러." 롤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재미없는
삶일 거야.
안 그러니? 마법의 모자가 되는 것 말이야. 아마도 저 모자는 일년 내내 다음
노래만
만들면서 보낼 거야."
맥고나걸 교수는 커다란 양피지 두루마리를 풀고 있었다.
"내가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면, 이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으세요.
모자가
여러분의 기숙사를 알려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숙사의 테이블로 가서 앉으면
되는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1학년생들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애컬리, 스튜어트!"
어떤 남자아이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후들후들 떨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마법의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았다.
"래번클로!"
마법의 모자가 큰 소리를 말했다. 스튜어트 애컬리는 모자를 벗고 허둥지둥
래번클로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래번클로 학생들은 일제히 스튜어트 애컬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환영했다. 해리는 스튜어트 애컬리를 격려하고 있는 래번클로의 수색꾼 초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자 문득 자신도 래번클로 테이블에 끼고 싶다는 이상한 충동이
솟구쳤다.

"배독, 말콤!"
"슬리데린!"
연회장의 다른 쪽 테이블에서 갑자기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말포이도
슬리데린
기숙사에 합류하게 된 배독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해리는 과연 배독이,
다른
기숙사보다 슬리데린에서 어둠의 마법사가 제일 많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말콤 배독은 슬리데린 자리에 가서 앉았다. 프레드와 조지는 말콤
배독을
쳐다보면서 쉿 소리를 냈다.
"브랜스턴, 엘리너!"
"후풀푸프!"
"콜드웰, 오웬!"
"후풀푸프!"
"크리비, 데니스!"
땅딸막한 데니스 크리비는 마법의 모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해그리드의 두더지
가죽 코트
자락에 걸려 잠시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 해그리드가 교직원 테이블 뒤에
있는 작은
문으로 연회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보통 사람의 두 배가 넘는 키와
적어도 세 배는
될 것 같은 거대한 몸통 그리고 제멋대로 형클어진 기다란 머리카락과 텁수룩한
수염은
약간 무시무시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의
본성은
인상과 달리 아주 순하고 인정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교직원
테이블의 제일 끝자리에 앉으면서 그들을 향해 눈을 찡긋했다. 그리고 데니스
크리비가
마법의 모자를 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모자 테두리의 뜯어진 부분이
넓게 벌어졌다.
"그리핀도르!"
마법의 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해그리드는 그리핀도르의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쳤다.
데니스 크리비는 활짝 웃으면서 모자를 벗더니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재빨리
형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콜린 형, 아까 호수를 건너오다가 그만 물에 빠졌어! 정말 기가 막혔지!
그런데 물 속에
있는 뭔가가 나를 잡더니 다시 배 위로 밀어올려 주었어!"
데니스가 빈 자리에 앉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멋지구나! 그건 아마도 대왕 오징어였을 거야, 데니스!"
콜린도 잔뜩 흥분한 것 같았다.
"와!"
데니스가 탄성을 질렀다. 마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폭풍이 물아치는 깊은
호수에
빠졌다가 거대한 바다 괴물에 의해 구출되는 것보다 멋진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거라는
듯한 태도였다.
"데니스! 데니스! 저 쪽에 있는 저 형 좀 봐! 까만 머리에 안경을 낀 형 말이야,
보이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데니스?"

해리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엠마 독스를 배정하고 있는 마법의 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기숙사 배정식은 계속이어지고 있었다. 남녀 학생들이 저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례차례 세 발 의자에 가서 앉았다. 마침내 맥고나걸 교수가 'L' 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부를

순서가 되자, 줄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제발, 어서 끝내요."

론이 배를 문지르면서 투덜거렸다.

"론, 기숙사 배정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매들리, 로라!"

"후풀푸프!"

마법의 모자가 외치자, 후풀푸프 테이블에서 일제히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물론 그럴겠죠. 당신처럼 죽었다면……."

론이 딱 잘라 말했다.

"난 올해 입학한 그리핀도르 신입생들도 잘 하길 바랄 뿐이야." 나탈리

맥도널드가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합류하자,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말했다. "우리의

연전 연승 기록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그리핀도르는 지난 3년 동안 연달아 교내 기숙사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프리차드, 그레이엄!"

"글리데린!"

"퀵, 올라!"

"래번클로!"

마침내 "위트비, 케빈!"("후풀푸프!")을 마지막으로 기숙사 배정식이 모두 끝나자,

맥고나걸 교수는 마법의 모자와 의자를 치웠다.

"드디어 때가 됐군."

론이 재빨리 나이프와 포크를 움켜쥐고 기대에 찬 얼굴로 황금빛 접시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덤블도어 교수는 환영의 표시로 두 팔을 넓게

벌리더니 학생들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에게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덤블도어 교수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마음껏 먹도록 해요."

"찬성! 찬성!"

해리와 론은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접시들이 순식간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제각기 개인 접시에 음식을 옮겨

담고 있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애처로운 눈길로 지켜보았다.

"아아,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론이 입 안 가득히 으깬 감자를 쑤셔 넣으면서 말했다.

"오늘밤에 연회가 무사히 열린 건 정말 다행인 줄 알아. 아까 주방에서 말썽이 있었거든."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말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해리가 커다란 스테이크 덩어리를 우물우물 씹으면서 물었다.

"물론 피브스 때문이지." 닉이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자, 달랑달랑한 목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닉은 달랑거리는 목을 감추기 위해 높은 주름 짓을 약간 더 끌어올렸다. "늘 하는

말씨름이야. 피브스는 연회에 참석하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건 고려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요구였지. 피브스가 어떤 녀석인지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문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 음식 그릇을 보기만 하면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서 안달이니까……. 우리는

유령 회의를 열었어. 똥보 프라이어는 피브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피투성이 바론이 반대했어. 그건 아주 혐명한 처사였지."

피투성이 바론은 온통 은빛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는 슬리데린의 유령으로, 빼빼 말랐으며 별로 말도 없었다. 호그와트에서 피브스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유령뿐이었다.

"그래요. 우리도 피브스가 무슨 장난을 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브스가 주방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룬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면서 물었다.

"온, 맨날 하는 짓이지."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대답했다.

"화풀이를

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부수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집어 던지고 수프 속에 풍덩

빠지고……. 꼬마 집요정들은 겁에 질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쨍그랑! 그 순간 헤르미온느가 황금빛 술잔을 떨어뜨렸다. 호박 주스가 하얀 식탁보

위로 번지면서 노란 얼룩이 생겼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기에도 꼬마 집요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호그와트에도?"

헤르미온느는 몹시 놀라면서 목이 달랑달랑한 닉을 빤히 바라보았다.

"영국에서 꼬마 집요정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호그와트일 거야. 무려 백 명도 넘으니까……."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헤르미온느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깜짝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꼬마 집요정들은 낮에는 주방을 거의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들은 밤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벽난로의 불꽃도

살피고…… 그런 일들을 하지. 내 말은 너희들이 꼬마 집요정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야. 꼬마 집요정이 여기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이 좋은

꼬마 집요정이라는 증거가 아니겠니?"

헤르미온느는 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하지만 봉급은 받겠죠? 휴가는 있겠죠? 그리고 병가나 연금 같은 것도 있겠죠?"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깔깔거리면서 웃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주름 깃이 벌어지면서 머리가 옆으로 톡 떨어지더니,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근육과 살갗이 간신히 목에 붙은 채 달랑거렸다.

"병가나 연금이라구?" 닉은 머리를 어깨 위로 밀어 올리고 주름 깃을 세워 다시 목을 고정시켰다. "꼬마 집요정은 병가나 연금을 바라지 않아!"

헤르미온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갑자기 포크와 나이프를 탁 내려놓고 접시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왜 그래, 헤르미온느?" 론이 약간 당황해서 말했다. 그 순간 론의 입 안 가득히 들어 있던 요크셔 푸딩이 해리에게 조금 튀었다. "어…… 미안, 해리." 론은 얼른 푸딩을 꿀꺽 삼켰다.

"네가 짖는다고 해서 꼬마 집요정들이 병가를 얻을 수 있는건 아니야!"

"노예 노동이야." 헤르미온느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말했다. "그게 바로 이 만찬을 만들었어. 노예 노동!" 헤르미온느는 끝까지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어두운 창문을 세게 때리고 있었다. 또다시 천둥이 치면서 창문을 흔들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천장에도 번개가 번쩍 치더니 황금 접시들이 환하게 빛났다.

그 순간 접시에 남아 있던 음식들이 썩 사라지고 후식이 나타났다.

"당밀 타트야, 헤르미온느!" 론은 일부러 헤르미온느의 코앞에 음식을 들이댔다.

"와! 이것 좀 봐! 초콜릿 케이크야!"

하지만 꼭 맥고나걸 교수를 연상시키는 표정으로 앓아 있는 헤르미온느를 보자, 론은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들은 아주 깨끗하게 후식을 먹어 치웠다. 잠시 후에 마지막 남은 음식 부스러기들이 썩 사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식간에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뚫고 들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 덤블도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배불리 먹고 마셨으니까('흥!' 그 순간 헤르미온느가 콧방귀를 뀌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줘야겠군요."

"학교 관리인인 필치 씨가 교내 사용금지 목록 중에 올해 새로 추가된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요요'와 '송곳니가 둑은 원반' 그리고 '공격하는 부메랑'이 그것입니다. 이제 교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품목은 모두 437 개에 달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학생은 필치 씨의 사무실에 가면 목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덤블도어 교수의 입술이 씰룩거렸다. 덤블도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또한 언제나 그렇듯이 운동장에 있는 숲은 학생들의 출입 금지 지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호그스미드 마을 역시 3학년 이하 학생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덤블도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사실을

한 가지 알려야겠군요. 올해에는 기숙사 간의 퀴디치 시합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뭐라구?"

해리는 숨이 턱 막혔다. 해리는 재빨리 퀴디치 팀의 동료 선수인 프레드와 조지를

돌아보았다. 그들 또한 입만 딱 벌린 채, 덤블도어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교수님들의 많은 노고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떤 행사가 10월에 시작돼서 1년

내내 계속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그 행사를 무척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금년에 호그와트에서는……."

바로 그 순간 우르릉 쾅쾅 하면서 고막을 찢는 듯한 요란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연회장의 문이 텅텅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

연회장의 문 앞에는 검은색 여행용 망토로 몸을 감싼 남자가 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천장을 가로질러서 번개가 번쩍 치더니 낯선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사람은

두건을 벗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흔들더니 교직원 테이블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연회장에는 둔탁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테이블

끝에 도착한 낯선 남자는 오른쪽으로 돌더니 심하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덤블도어 교수를

향해 걸어갔다. 천장에서 또다시 번개가 번쩍거렸다. 헤르미온느는 헉 하더니 입을 딱

벌렸다.

번개가 번쩍 치자,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해리는 그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얼굴은 꼭, 오랫동안 풍파에 시달린 나무토막을,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조각칼을 다루는 솜씨도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이 대충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피부는 온통 흉터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은 꼭 비스듬하게 갈라진

깊은 틈새처럼 보였으며 코는 완전히 뭉개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눈이었다.

그 사람의 한쪽 눈은 작고 까맣고 말뚱말뚱 빛났다. 하지만 다른 쪽 눈은 동전처럼 크고

둥글었으며 밝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청색이었다. 그 푸른 눈동자는 깜박거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보통 눈과는 전혀 다르게 상하좌우로 마구 돌아가고 있었다.

푸른 눈동자가 그 남자의 뒤통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자, 오직 섬뜩한 흰자위만 보였다.

낯선 사람은 덤블도어 교수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얼굴 못지않게 심한 흉터가 나 있는 한쪽 손을 내밀자, 덤블도어 교수가 반가운 듯이 무슨 말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었다.

낯선 사람이 미소조차 짓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니까, 덤블도어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남자에게 자기 오른쪽에 있는 빈 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낯선 사람은 그 자리에 털썩 앉더니, 얼굴 위로 흘러내린 회색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리고 소시지가 접시를 앞으로 끌어당겨, 거의 다 뚫개지고 없는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나이프를 꺼내더니 소시지를 쑥쑥 잘라 먹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정상적인 눈은 소시지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푸른색 눈동자는 여전히 안구 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연회장과 학생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무거운 침묵을 깨면서 말했다. "무디 교수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직원은 박수로 환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덤블도어 교수와 해그리드를 제외하고는 박수를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른 교직원과 학생들은 그저 두려운 눈길로 무디 교수를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무디 교수의 기이한 모습에 넋이 나가 꼴깍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덤블도어 교수와 해그리드도 박수 소리가 무거운 침묵 속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지자, 곧 손을 내려놓았다.

"무디? 매드아이 무디? 오늘 아침에 위즐리 아저씨가 도와주려 갔던 그 사람이야?"

해리가 론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럴 거야."

론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사람의 얼굴은 왜 저렇게 된 거야?" 헤르미온느가 작게 속삭였다.

"몰라."

론의 시선은 마치 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무디 교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무디 교수는 그러나 별로 따뜻하지 않은 환영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호박 주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여행용 망토 속에 손을 집어넣더니 휴대용 물병을 꺼내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가 물을 마시느라고 팔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기다란 망토가 땅에서 조금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테이블 밑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의족과 갈고리 발톱이 달린 발이 보였다.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목청을 가다듬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덤블도어 교수는 여전히 놀란 얼굴로 매드아이
무디를 명하니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우리 학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대단히 흥미로운 행사를 주관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세기
동안 열린
적이 없었던 아주 뜻깊은 행사이입니다. 여러분에게 금년에 호그와트에서
트리위저드 시합이
열릴 서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농담이시죠!"
프레드 위즐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무디 교수가 도착한 이후로 연회장에
팽팽하게
감돌던 긴장감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덤블도어 교수도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듯이 깔깔 웃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네, 위즐리 군. 자네가 농담이란 말을 하니까 말인데, 나는
이번
여름에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한 가지 들었다네. 트롤과 늙은 마녀와 레프러칸
요정이 다
함께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맥고나걸 교수가 듣기 거북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헛기침을 했다.
"음…….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군……. 아니야…….
그런데
어디까지 말했더라? 아, 그래. 트리위저드 시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 여러분
중에는 이 시합이 원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양해를 바라며, 딴 짓을
해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잠시 학생들을 둘러본 후에 천천히 말을
이었다.
"트리위저드 시합이란 유럽 최대의 마법학교인 호그와트와 보바통, 덤스트랭
사이의 친선
경기로, 700 년 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각 학교를 대표하는
챔피언을 선정하고,
이 세 명의 챔피언이 세 가지 마법 시험을 치르면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각
학교는 5년마다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시합을 주관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젊은 마법사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서 트리위저드 시합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망자라니?"
헤르미온느가 불안한 얼굴로 속삭였다. 하지만 연회장에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헤르미온느처럼 불안한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잔뜩 흥분하면서
서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해리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망자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트리위저드 시합에 훨씬 더 관심이 쏠렸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트리위저드 시합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설명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 마법 협력부와 마법의 게임 및 스포츠부는 다시 한 번 시도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어떤 챔피언도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름 내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10월이 되면 보바통과 덤스트랭의

교장이 각 학교의 후보 선수와 함께 이곳에 도착할 거이며, 할로윈 데이에 각 학교를 대표하는 세 명의 챔피언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트리위저드 우승컵과 소속 학교의 명예와 1000 갈레온의 상금을 걸고 시합을 벌이기에 가장 적당한지는 공평한 심판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차지할 거야!"

프레드 위즐리가 당당하게 외쳤다. 명예와 부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오른 프레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하지만 호그와트의 챔피언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사람은 비단 프레드만이 아닌 것 같았다. 모든 기숙사 테이블에서 넋이 나간 얼굴로 덤블도어 교수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과 열심히 속삭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 교수가 입을 열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여러분 모두가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호그와트로 가져오고 싶어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 교장과 마법보 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년에는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연령을 제한하기로 미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일곱 살 이상이 된 학생들만이 이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몇 명의 학생이 몹시 격분한 듯이 소란을 피웠다. 위즐리 형제도 발끈성이 났다. 그래서 덤블도어 교수는 목소리를 약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트리위저드 시합의 과제는 여전히 어렵고 몹시 위험합니다. 6,7학년이 안 된 학생들은 그 시험 과제들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열일곱 살이 되지 않은 학생이 공정한 심판관을 속여서 호그와트 챔피언으로 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잔뜩 찌푸린 프레드와 조지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는 덤블도어 교수의 파란 눈동자가 장난스럽게 반짝거렸다.

"그러므로 만약 열일곱 살 미만의 학생이라면 본인의 이름을 제출해서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보바통과 덤스트랭의 대표단은 10월에 도착해서 수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될 겁니다. 나는 그 동안 여러분이 우리의 외국인 손님들에게 모든 친절을 베풀 것이며, 누가 선발되든 간에 호그와트의 챔피언에게 전심전력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수업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군요. 취침 시간! 해산, 해산!" 덤블도어 교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매드아이 무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우당탕탕 요란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학생들은 벌떼같이 문으로 몰려 나갔다. "그럴 수는 없어! 내년 4월이면 우리도 열일곱 살이 된단말야. 그런데 우리는 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야?" 조지 위즐리는 문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서서 덤블도어 교수를 노려보았다. "어느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챔피언이 되면 평소에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온갖 일들을 죄다 할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상금이 1000 갈레온이나 된다니!" 프레드도 험상궂은 얼굴로 교직원 테이블을 노려보면서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래……. 1000 갈레온……." 론이 꿈에 부푼 얼굴로 말했다. "어서 나가자. 빨리 나가지 않으면 우리만 남게 될 거야." 헤르미온느의 독촉에 못 이겨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프레드, 조지는 천천히 현관 복도로 나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프레드와 조지는 줄곧, 덤블도어 교수가 과연 열일곱 살이 안 된 학생들이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그 방법에 대해 열심히 떠들었다. "챔피언을 뽑는 공정한 심판관이란 도대체 누구지?" 해리가 물었다. "몰라.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심판관을 속여야만 해. 아마 노화 마법의 약을 몇 방울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조지……." 프레드가 말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는 형이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론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래, 하지만 누가 챔피언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덤블도어 교수가 아니잖아? 내가 듣기로는 일단 트리위저드 시합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확보되면, 그 심판관이 직접 각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을 뽑는 것 같아.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말이야." 덤블도어 교수는 우리가 이름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뿐이야." 프레드가 쉬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잖아!" 헤르미온느는 몹시 걱정이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벽걸이 양탄자 뒤에 감춰진 비밀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래. 하지만 그건 벌써 오래 전의 일이야. 안 그래? 게다가 아무런 위험도 없다면 뭐가

재미있겠니? 야! 론, 우리가 덤블도어 교수의 눈을 속이는 방법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할래?

너도 물론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고 싶지?"

프레드가 신이 나서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트리위저드 시합에 나간다면 정말 멋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그 시합에 나갈 만큼 충분히 마법을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난 정말 아직 배울 게 많아." 프레드와 조지의 등 뒤에서 네빌의 침울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아마도 내가 지원하기를 바랄 거야. 할머니는 항상 내게 가문의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당연히 해야 할 거야……. 아이쿠!"

계단을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네빌의 발이 계단 밑으로 푹 빠졌다.

호그와트에는 이런

함정 계단들이 아주 많았다. 대부분의 고학년 학생들은 이제 이런 함정 계단쯤이야

자연스럽게 펴놓고 뛰어넘곤 했지만, 기억력이 나쁘기로 유명한 네빌만은 예외였다. 해리와

론이 네빌의 겨드랑이를 잡고 끌어내는 동안, 계단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갑옷이

절거덕절거덕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시끄러워!"

론이 갑옷의 얼굴 가리개를 쾅 닫아 버리면서 소리쳤다. 그들은 그리핀도르 탑 입고까지

곧장 올라갔다. 그리핀도르 기숙사로 들어가는 문은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뚱보

여인의 커다란 초상화 뒤에 감추어져 있었다.

"암호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뚱보 여인이 물었다.

"허튼소리." 조지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래층에서 반장이 말해 줬지."

그러자 초상화가 앞으로 확 열리더니 입구가 나타났다. 그들은 서둘러 구멍으로 들어갔다. 탁탁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벽난로 덕택에, 찌부러진 안락의자와 탁자로 가득

찬 원형의 학생 휴게실은 따뜻했다. 헤르미온느는 우울한 표정으로 즐겁게 춤추고 있는

불꽃들을 바라보았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여자 기숙사로 통하는

문으로 사라지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노예 노동……."

마지막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간 해리와 론, 네빌은 탑 꼭대기에 위치한 남학생

기숙사에 도착했다. 방에는 진홍색 덮개를 단 침대 다섯 개가 벽면에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

침대 발치에는 침대 주인의 트렁크가 놓여 있었다.

딘과 시무스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다. 시무스는 침대 머리맡에 아일래드 장미 장식을

핀으로 꽂아 놓았으며, 딘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빅터 크롬의 포스터를 붙여 놓았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웨스트 햄 축구팀 포스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칸 옆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었다.

"멍청이들!"

론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축구 선수들을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해리와 론과 네빌은 재빨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누군자(물론 꼬마

집요정이겠지만) 침대 속에 따뜻한 보온통을 넣어 놓았다. 침대에 드러누워서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쩌면 나도 참가할 거야. 만약 프레드와 조지 형이 그 방법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트리위저드 시합 말이야……. 넌?"

론이 어둠 속에서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안 할 것 같아……."

해리는 잠시 침대에서 몸을 뒤척거렸다. 하지만 해리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영상들이

연달아 떠오르고 있었다……. 아주 눈부신 영상이……. 공정한 심판관을 속여서 해리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라고 믿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호그와트의 챔피언으로 선발되었다……. 전교생들이 해리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함성을 질렀다.

해리는

의기양양하게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운동장에 서 있었다…….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희미한 군중 속에서 특별히 초의 얼굴이 눈길을 끌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초의 얼굴은 감탄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해리는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고 씩 웃었다. 론이 이런 생각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다.

차례

제 13 장 매드아이 무디 교수

제 14 장 용서받지 못할 저주

제 15 장 보바통과 덤스트랭

제 16 장 불의 잔

제 17 장 네 명의 챔피언

제 18 장 '포터는 야비하다!'

제 19 장 형가리의 혼 테일

제 20 장 첫번째 시험

제 21 장 꼬마 집요정 해방전선

피터 룰링과 수잔 글레이든에게.

그리고 리들리 씨를 기리며…

해리가 벽장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

* 2000년 영국 도서상 올해의 작가 부문 수상

Named Author of Year at the British Book Awards(Nibbie's) 2000

- * 퍼블리셔스 위클리 1998년의 최우수 도서
A Publishers Weekly Best Book of 1998
- * 북리스트 편집자가 뽑은 우수 도서
Booklist Editor's Choice
- * 1997년 영국의 우수 도서상 수상
Winner of the 1997 National Book Award(UK)
- * ALA(미국 도서관 협회) 우수 도서
An ALA Notable Book
- * 1997년 금메달 스마티즈상 수상
Winner of the 1997 Gold Medal Smarties Prize
- * 1998년 뉴욕 공공 도서관이 뽑은 올해의 우수 도서
A New York Public Library Best Book of the Year 1998
- * 1998년 학부모가 뽑은 올해의 책 우상
Parenting Book of the Year Award 1998

제 13 장 매드아이 무디 교수

다음날 아침이 밝아 오면서 비바람은 서서히 잣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회장의 천장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시간표를 확인했다.

음산한 잿빛 구름이 연회장의 천장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약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프레드와 조지와 리 조던은 빨리 나이를 먹을 수 있는 마법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은 별로 나쁘지 않아... 오전 내내 야외 수업이야. 약초학 수업은 후풀푸프와 함께 듣고... 신비한 동물 돌보기는... 제기랄! 여전히 슬리데린과 함께 들어..."

론은 손가락으로 월요일 수업 시간표를 하나씩 짚으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오늘 오후에는 점술 수업이 있어."

해리가 희미한 신음 소리를 냈다. 점술은 마법의 약과 더불어 해리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다. 트릴로니 교수가 자꾸만 해리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아주 성가시게 하기 때문이었다.

"너도 나처럼 그 과목을 포기해야 했어. 안 그래?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산술점같이 이치에 맞는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토스트에 버터를 잔뜩 바르면서 말했다.

"너,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구나!.."

"꼬마 집요정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헤르미온느가 빵을 덥석 베어 물면서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배도 고팠겠지."

론이 씩 웃으면서 말했다. 갑자기 날개를 퍼덕거리는 소기라 들리더니 수백 마리의 부엉이가 창문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 부엉이들은 제각기 우편물을 들고 있었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갈색과 회색 부엉이들만 날아다니고 있을 뿐 아니라 하얀 부엉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부엉이들은 편지나 소포의 주인을 찾기 위해 연회장을 빙빙 돌았다.

커다란 황갈색 부엉이는 네빌 롱바텀의 무릎 위에 소포 꾸러미를(네빌은 짐을 꾸릴 때마다 항상 원가를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 털썩 내려놓았다. 드레이코 말포이의 수리 부엉이도 사탕과 케이크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갖고 온 것 같았다. 수리 부엉이는 드레이코 말포이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서 깃털을 다듬고 있었다.

해리는 그만 맥이 탁 풀리고 말았다. 하지만 애써 실망한 표정을 감추면서 다시 죽을 먹었다. 아직까지도 시리우스가 편지를 받지 못한 걸까? 혹시 헤드위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게 아닐까?

흠뻑 젖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해리는 잠시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3온실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어떤 이상한 식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학생들에게 괴상한 식물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해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괴상하게 생긴 식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식물이 아니라 굵고 거무죽죽한 민달팽이처럼 보였다. 그 식물은 잠시도 쉬지 않고 마치 벌레처럼 꿈틀거렸으며, 줄기에는 온통 액체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종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부보투버란다. 가끔씩 저 종기를 짜서 고름을 빼 주어야만 한단다. 너희들은 그 고름을 모아서..."

스프라우트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뭐라구요?"

시무스 피니간이 혐오스런 표정을 지었다.

"고름 말이다, 피니간... 고름!" 스프라우트 교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건 굉장히 귀중한 거니까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용가죽으로 만든 장갑을 끼고 병에 고름을 담도록 해라. 희석시키지 않은 부보투버 고름이 몸에 닿으면 살갗이 부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부보투버의 종기를 짜는 것은 비록 구역질이 나긴 했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다. 평! 부보투버의 종기를 터뜨릴 때마다 휘발유 냄새가 나는 많은 양의 액체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주 걸쭉하고 연한 초록색의 고름이었다.

그들은 스프라우트 교수의 지시에 따라 초록색 고름을 병에 담았다.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되자 몇 리터의 고름이 모아졌다.

"폼프리 부인이 무척 좋아하겠구나. 부보투버의 고름은 여드름 같은 고질적인 피부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란다. 이 액체만 있으면 학생들이 더 이상 여드름을 없애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지."

스프라우트 교수는 코르크 마개로 병 입구를 막았다.

"가엾은 엘로이즈 미전처럼 말이죠! 개는 마법을 써서 여드름을 없애려고 했어요."

후풀푸프 기숙사의 한 아보트가 목소리를 한껏 낮추면서 말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지. 하지만 폼프리 부인이 결국 그 아이의 코를 원래대로 고쳐놓았단다."

스프라우트 교수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학생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서 뿔뿔이 흩어졌다. 운동장은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후풀푸프 학생들은 변신술 수업을 받기 위해 돌계단을 올라갔고, 그리핀도르 학생들은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받기 위해 해그리드의 작은 통나무 오두막으로 걸어갔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은 금지된 숲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한 손으로 멧돼지 사냥개 팽의 목줄을 잡고 서 있었다. 해그리드의 발치에는 나무 상자 몇 개가 놓여있었는데, 팽은 자꾸만 그 상자 쪽으로 가려고 목줄을 잡아당기면서 깅낑거렸다. 팽도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 같았다.

그들은 해그리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갑자기 나무 상자가 덜덜거리더니 원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 해그리드가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씩 웃었다.

"슬리데린 학생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구나. 그 애들도 이걸 놓치고 싶진 않을 테니까... 폭탄 꼬리 스크루트!"

"뭐라구요? 다시 한 번만요."

론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해그리드는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이크!"

라벤더 브라운이 질겁을 하면서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해리는 '이크'라는 그 말 한 마디가 폭탄 꼬리 스크루트의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는 꼭 깜데기 없이 형체가 일그러진 가재처럼 보였다. 다리는 아주 이상한 곳에 삐죽삐죽 나와 있으며 머리는 어디에 붙었는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창백하고 끈적끈적한 살갗은 쳐다보기만 해도 오싹 소름끼칠 정도였다.

나무 상자 속에는 길이가 20 센티미터 가량 되는 수백 마리의 스크루트들이 마구 날뛰고 있었다. 스크루트들은 썩은 생선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평! 가끔씩 스크루트의 꼬리에서 불똥이 튀어나오더니 몇 센티미터 앞으로 날아갔다.

"이제 막 부화했단다. 너희들이 직접 키울 수 있을 거야! 이번 학기의 연구 과제로 쓰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해그리드는 폭탄 꼬리 스크루트를 쳐다보면서 흡족해했다.

"왜 우리가 저런 이상한 동물을 키워야 하죠?"

말포이가 불만에 가득 찬 소리로 물었다. 슬리데린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다. 크레이브와 고일은 깔깔대면서 노골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말문이 막힌 해그리드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몹시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저것들로 뭘 하느냐고요. 저 동물의 특징은 뭔가요?"

말포이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해그리드는 입을 약간 벌린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건 다음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자. 말포이. 오늘은 그저 먹이만 주면 돼." 해그리드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지금부터 스크루트에게 몇 가지 먹이를 주도록 해라. 나도 스크루트를 길러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단다. 우선 개미 알과 개구리 간과 독 없는 뱀을 좀 먹이도록 해라. 어떤 것을 잘 먹는지..."

"조금 전에는 고름을 만지게 하더니 이제는..."

시무스는 투덜거리면서 잔뜩 불평을 늘어놓았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찌부러진 개구리 간을 집어들고는 조심스럽게 폭탄 꼬리 스크루트에게 내밀었다. 만약 해그리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었다면,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해리조차도 이런 일이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스크루트들은 입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야! 저게 날 공격했어요!"

10분 가량 흐른 후에 갑자기 딘 토마스가 소리를 질렀다. 해그리드는 불안한 얼굴로 허둥지둥 토마스에게 다가갔다.

"저 동물의 꼬리가 폭발했어요!"

딘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딘의 손에는 불에 데인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아, 그래! 스크루트의 꼬리가 폭발하면 그럴 수도 있어."

해그리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이크!" 라벤더 브라운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크! 해그리드, 저 동물의 몸에 나 있는 뾰족한 게 뭐죠?"

"어떤 것들은 침을 가지고 있단다." 해그리드가 열심히 설명했다(라벤더는 얼른 상자에서 손을 떼었다). "아마도 그건 수컷인 것 같구나... 암컷은 배에 뺨판 같은 게 달려 있단다... 스크루트들은 그 뺨판으로 피를 빨아먹는 것 같아."

"어째서 우리가 저런 동물을 키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겠군요, 태우고 찌르고 물어뜯는 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애완동물을 누가 갖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말포이가 역설적으로 비꼬면서 말했다.

"귀엽게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건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용의 피는 놀랄 만큼이나 신비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용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해리와 론은 텁수룩한 수염 뒤로 슬쩍 미소짓는 해그리드에게 씩 웃어 보였다. 해그리드라면 애완용 용을 굉장히 좋아했을 거라는 걸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1학년이었을 때, 해그리드는 정말로 사나운 노르웨이 리지백 용을 기른 적이 있었다. 해그리드는 그 용에게 노버트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었다. 해그리드는 괴물 같은 동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 치명적인 동물일수록 더욱더...

" 다행이야. 그래도 스크루트는 작잖아."

한 시간 후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성으로 올라가면서 론이 말했다.

"물론 지금이야 그렇지.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야. 일단 어떤걸 먹는지 해그리드가 알아내기만 하면, 스크루트는 아마도 2 미터까지는 자랄 거야."

헤르미온느가 어처구니없다는 투로 말했다.

"스크루트도 분명히 유용한 점이 있을 거야. 만약 스크루트가 배멀미나 위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론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저 말포이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헤르미온느는 무거운 한숨을 내 쉬었다. "사실 나는 그 애의 말이 뚫다고 생각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공격하기 전에 당장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들은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서 양고기와 감자를 먹었다. 헤르미온느는 닥치는 대로 음식을 입 속에 쑤셔 넣었다. 해리와 론은 어안이벙벙해서 헤르미온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그런데 이게 꼬마 집요정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더욱 좋은 방법이니? 실컷 먹고 토하는 게?"

론이 물었다.

"아니야. 나는 그저 빨리 도서관으로 가고 싶을 뿐이야."

양배추를 잔뜩 물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입을 불룩하게 내밀면서 말했다.

"뭐라구? 헤르미온느.... 오늘이 바로 개학이야! 아직까지 숙제도 없잖아!"

론의 두 눈이 휙둥그레졌다.

헤르미온느는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마치 오랫동안 굽주린 사람처럼 음식을 마구 집어먹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 때 보자!"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쓴살같이 밖으로 나갔다.

다시 종소리가 울려서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해리와 론은 서둘러 북쪽 탑으로 향했다. 꼬불꼬불한 계단을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은빛 사다리가 나타났다. 은빛 사다리는 천장에 있는 뚜껑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트릴로니 교수의 방으로 들어갔다. 벽난로에서 흘러나오는 친근한 향기가 콧구멍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창문에는 여전히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짙은 붉은색 덮개가 덮인 등불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불그스름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이 후텁지근했다. 트릴로니 교수의 방에는 스무 개 정도의 작은 원형 탁자들이 있었으며, 주위에는 무명 천을 써운 의자와 두터운 쿠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해리와 론은 작은 원형 탁자를 향해 걸어갔다.

"안녕."

갑자기 해리의 등 뒤에서 트릴로니 교수의 몽롱한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깜짝 놀랐다. 얼굴에 비해서 너무 큰 안경을 걸친 비쩍 마른 트릴로니 교수는 해리를 만날 때마다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트릴로니 교수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목걸이와 귀고리와 팔찌가 벽난로의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네 마음 속에는 커다란 걱정이 있구나, 얘야." 트릴로니 교수는 음울한 눈빛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내 영적인 눈은 모든 걸 볼 수 있단다. 너의 용감한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괴로운 영혼까지도...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로구나. 수많은 시련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니... 아아, 가엾어라... 가장 힘든 고난이... 네가 걱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두렵구나... 어쩌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트릴로니 교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론은 불안한 눈으로 해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트릴로니 교수는 벽난로로 걸어가더니 안락의자에 앉아서 학생들을 마주 보았다. 트릴로니 교수를 열렬히 숭배하고 있는 라벤더 브라운과 패르바티 패털은 가장 앞자리에 있는 쿠션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도록 하겠어요." 트릴로니 교수가 말했다. "점성술은 행성의 운행을 보면서 신비한 전조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행성의 운행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미리 판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점성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해리는 몹시 졸립고 나른했다. 벽난로의 불꽃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해리의 머리를 몽롱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점성술에 대한 트릴로니 교수의 말은 해리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했다. 하지만 해리는 조금 전에 트릴로니 교수가 한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가 걱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두렵구나...'

그러나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트릴로니 교수는 정말로 노련한 사기꾼이었다. 해리는 지금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고 있지 않았다. 글쎄... 혹시 시리우스가 체포되거나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만 제외하고는... 트릴로니 교수가 월 알 수 있겠는가? 해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트릴로니 교수의 예언은 그저 운에만 맡기는 어림잡기라고 생각했다. 물론 지난 학기 말에 볼드모트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했던 트릴로니 교수의 예언을 제외한다면... 그때 트릴로니 교수의 예언은 그대로 적정했다. 해리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 덤블도어 교수는 트릴로니 교수가 정말로 몽환 상태에 빠졌던 것 같다고 말했었다...

"해리!"

론이 작게 해리를 불렀다.

"왜?"

문득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해 있었다. 어느새 해리는 깜빡 졸고 있었던 것이다.

"얘야, 난 네가 토성의 불길한 영향을 받고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었단다."

트릴로니 교수가 해리를 보려보면서 말했다. 해리가 딴전을 피운 것에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해리는 멀뚱멀뚱 트릴로니 교수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토성 말이다, 해리! 토성!" 트릴로니 교수는 해리가 자기 말을 듣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자, 몹시 약이 오른 것이 분명했다. "네가 태어나던 순간에 하늘에서는 토성이 확실히 그 힘이 강해지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다... 너의 까만 머리카락과 빈약한 몸과... 어린 시절에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 내가 장담하건대, 너는 분명히 한 겨울에 태어났을 거야. 그렇지?"

"아니예요. 저는 7월에 태어났어요."

해리가 말하자, 론은 푸 하고 웃음을 터뜨리다가 황급히 헛기침을 했다.

30분 후에 그들은 복잡한 원형 차트를 보면서 자신들이 막 태어나던 순간에 행성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려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수없이 많은 시간표를 참고하고 각도 계산을 해야 하는 아주 지루한 작업이었다.

"난 여기에 해왕성이 두 개 있어. 하지만 이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한참 후에 해리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자신의 양피지 조각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아아아." 론이 영감에 잔뜩 도취된 트릴로니 교수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대답했다. "하늘에 두 개의 해왕성이 나타났다면, 그건 안경을 끈 꼬마가 태어날 거라는 확실한 징조란다, 해리..."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시무스와 딘이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흥분에 가득 찬 라벤더 브라운의 외침 소리 때문에 트릴로니 교수는 론의 말을 듣지 못했다.

"오, 교수님! 이걸 보세요! 제 성도에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어요! 어머나! 이게 뭐죠, 교수님?"

"그건 천왕성이란다, 얘야."

트릴로니 교수가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나도 천왕성을 한번 볼 수 있을까, 라벤더?"

론이 또다시 트릴로니 교수를 흉내낸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트릴로니 교수가 론의 목소리를 듣고 말았다.

수업이 끝났을 때, 트릴로니 교수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왕창 내준 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았다.

"다음 달의 행성 움직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린 차트를 참고로 해서 말이죠." 트릴로니 교수는 평소처럼 점잔을 빼는 우아한 모습이 아니라, 맥고나걸 교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월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하도록. 변명은 사양하겠어요!"

"늙은 박쥐 같으니라구!"

계단을 내려가는 학생들 틈에 끼어 저녁 식사를 하러 연회장으로 가면서 론이 신랄하게 말했다.

"그 숙제를 하려면 일주일 내내 걸릴 거야. 그건..."

"숙제가 많니? 벡터 교수님은 숙제를 하나도 안 내 줘어!"

어느 틈에 그들 곁으로 다가온 헤르미온느가 명랑하게 말했다.

"그래, 벡터 교수는 정말 멋지다."

론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현관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줄의 제일 끝으로 가서 섰을 때, 갑자기 커다란 목소리가 쪄렁쩌렁 울려 퍼졌다.

"위즐리! 야, 위즐리!"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다.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이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다는 듯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왜?"

론이 쌀쌀하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신문에 났어, 위즐리!" 말포이가 <예언자 일보>를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들릴 정도로 커다랗게 외쳤다. "이 기사 좀 들어 봐!"

실수 연발의 마법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마법부의 재난

리타 스키터 특파원

최근에 퀴디치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서투른 군중 관리로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마녀의 실종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마법부가, 이번엔 머글 문화유물 오용 관리과의 아놀드 위즐리 씨의 괴상망측한 행동 때문에 어제 또다시 새로운 곤경에 처했다.

말포이가 번쩍 고개를 치켜들었다.

"네 아빠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어, 위즐리. 네 아빠가 얼마나 변변찮은 사람이면 이름조차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야. 안 그래?"

말포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복도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포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말포이는 과장된 움짓으로 신문을 똑바로 들어 올리더니 계속 읽어 나갔다.

2년 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건으로 고발을 당했던 아놀드 위즐리 씨가 어제는 대단히 공격적인 쓰레기통문제 때문에 머글들의 법을 파수꾼(경찰관) 몇 명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위즐리 씨는 마법부에서 은퇴한 오러 '매드아이' 무디 씨를 도와주기 위해 급히 달려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디는 악수와 살인 미수의 차이도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는 노인이다.

당연히 위즐리 씨는 경계가 삼엄한 무디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디 씨가 또다시 착각을 해서 공연히 소동을 치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즐리 씨는 머글 경찰관의 기억을 수정한 후에야 비로소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품위 없고 어쩌면 창피스럽기까지 한 일에 마법부가 휘말리도록 만들었느냐는 <예언자 일보>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사진도 있어, 위즐리!" 말포이가 신문을 위로 들어올리면서 소리쳤다.
"집 앞에서 찍은 네 부모 사진이야. 이걸 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네
엄마는 살을 좀 빼야 하겠다, 그렇지?"

론은 분을 참지 못해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입 닥쳐, 말포이! 진정해, 론..."

해리는 재빨리 론을 말렸다.

"맞아! 이번 여름방학에 너는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지냈지? 안 그래, 포터?
어서 말을 해 봐. 쟤 엄마가 정말로 이렇게 뚱뚱하니? 아니면 사진만 이런
거니?"

말포이는 계속 빙정거리면서 론을 자극했다. 해리와 해르미온느는,
씩씩거리면서 말포이에게 당장이라도 대들 듯이 버둥거리는 론의 망토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런 네 엄마는 어때서, 말포이? 그 인상 좀 보라지! 네 엄마는 꼭 코밀에
똥을 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 언제나 그런 거니? 아니면 너랑 같이 있을 때만
그런 거니?"

해리가 통쾌하게 복수했다. 론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우리 엄마를 모욕하지 마, 포터!"

말포이의 창백한 얼굴이 약간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그 돼지 같은 주둥이나 좀 닥쳐!"

해리는 자시 말포이를 노려보다가 뒤로 돌아섰다.

펑!

몇 사람이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뭔가 하얗고 뜨거운 것이 얼굴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잡기 위해 재빨리 망토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미처 요술지팡이가 손에 닿기도 전에 다시
한번 평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우렁찬 고함 소리가 현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만두지 못해! 이 녀석아!"

해리는 훅 돌아다보았다. 무디 교수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무디의 요술지팡이는 정확히 말포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흰족제비를 겨냥하고 있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디 교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무디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해리를 바라보았다. 아니, 적어도
무디 교수의 정상적인 눈 하나만은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눈은 뒤통수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다.

"저 녀석이 너를 공격했니?"

무디 교수가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무디 교수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어쩐지
귀에 거슬렸다.

"네, 하지만 빗나갔어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만 내버려두지 못해!"

무디 교수가 버럭 호통을 쳤다.

"네? 뭘요?"

해리가 영문을 몰라 물었다.

"너 말고... 저 녀석 말이다!"

무디 교수는 느릿느릿 뒤로 돌아서더니 흰족제비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크레이브를 가리켰다. 무디 교수의
굴러다니는 눈은 등 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무디 교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크레이브와 고일과 흰족제비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흰족제비가 깍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지하 교실 쪽으로
달아났다.

"그럴 순 없지!"

무디 교수는 다시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더니 흰족제비를 겨냥했다. 그러자 흰족제비가 허공으로 3 미터 정도 날아올랐다가 찰싹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다시 한 번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

"난 상대방의 등 뒤에서 공격하는 녀석들을 좋아하지 않아."

무디 교수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흰족제비는 고통스럽게 깍깍대면서 점점 더 높이 튀어 오르고 있었다. "그런 행동은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흰족제비는 다리와 꼬리를 무기력하게 흔들면서 다시 허공으로 높이 솟아올랐다.

"앞으로-그런 짓은-절대로-하지-마."

흰족제비가 돌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허공으로 튀어 오를 때마다 무디 교수는 한 마디씩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무디 교수님!"

갑자기 충격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들렸다. 맥고나걸 교수가 두 팔에 책들을 한아름 안고 대리석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맥고나걸 교수."

무디 교수는 흰족제비를 더욱 높이 튀어 오르게 하면서 태연히 말했다.

"지...지금, 뭐... 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허공으로 튀어 오르는 흰족제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가르치고 있소."

무디 교수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가르치다뇨? 무디교수님, 저게... 학생인가요?"

맥고나걸 교수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팔에 들고 있던 책들이 후두둑 바닥에 떨어졌다.

"그럴소."

"안 돼요!"

맥고나걸 교수는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오더니 자신의 요술 지팡이를 빼 들었다.

잠시 후에 딱 소리와 함께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드레이코 말포이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매끄러운 금발이 빨갛게 달아오는 말포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무디 교수님, 우리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데 변신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맥고나걸 교수가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소. 아마도 말했을 거요. 하지만 이 녀석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약간의 충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디 교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턱을 긁적거렸다.

"무디 교수님! 우리는 방과 후에 혼자 남겨두는 벌을 줍니다. 아니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기숙사 담당 교수에게 말을 하거나요!"

"알겠소.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하리다."

무디 교수가 아주 형오스러운 눈빛으로 말포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고통과 굴욕감으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던 말포이는 증오스러운 눈으로 무디 교수를 노려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오, 그래?" 무디 교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말포이를 향해 걸어갔다. 목발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옛날부터 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단다. 얘야... 네 아버지에게 무디 교수가 아들을 열심히 감시하고 있다고 하거라... 지금 내가 한 말을 네 아버지에게 똑똑히 전해야 한다... 자, 너의 기숙사 담당 교수는 스네이프 교수겠지? 그렇지?"

"네."

말포이가 잔뜩 심통이 나서 대답했다.

"역시 내 오랜 친구지." 무디 교수가 거칠게 말했다. "나도 스네이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지.... 자, 어서 가자..." 무디 교수는 말포이의 팔을 잡더니 지하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맥고나걸 교수는 잠시 동안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요술지팡이를 휘둘러서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다시 팔 안으로 불러들였다.

"내게 말시키지 마."

얼마 후에 그들의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았을 때,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에게 조용히 말했다. 방금 일어났던 일로 모두들 수군거리느라 연회장은 온통 시끌벅적했다.

"왜 그러니?"

헤르미온느가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장면을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 두고 싶단 말이야." 론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론의 얼굴에는 기세 등등한 표정이 가득 했다. "드레이코 말포이, 정신없이 튀어 오르는 흰족제비..."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활짝 웃음을 터뜨렸다. 헤르미온느는 커다란 그릇에 잔뜩 담긴 쇠고기 캐서롤(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볶은 요리:역주)을 개인 접시에 조금씩 덜어서 해리와 론에게 나누어 주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말포이가 다칠 수도 있었어. 맥고나걸 교수가 막은 게 천만다행이었지..."

"헤르미온느!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망치고 있어!"

론이 다시 눈을 번쩍 뜨면서 소리쳤다.

헤르미온느는 약간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더니 전속력으로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했다.

"설마 오늘 저녁에도 도서관에 가려는 건 아니겠지?"

해리가 물었다.

"가야 해. 할 일이 많아."

헤르미온느가 입 안에 음식을 잔뜩 쑤셔 넣으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벡터 교수는 숙제를 내지..."

"학교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야."

5분도 되지 않아서 접시를 다 비운 헤르미온느는 황급히 연회장을 떠났다. 헤르미온느가 자리를 뜨자마자, 프레드가 다가오더니 빈 자리에 앉았다.

"무디 교수 말이야! 굉장히 멋진 분이지?"

프레드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그 이상이야."

조지가 프레드의 맞은편에 앉으면서 맞장구를 쳤다.

"최고야." 쌍둥이 형제의 단짝 친구인 리 조던이 조지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한 마디 거들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무디 교수의 수업을 들었어." 리가 해리와 론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어땠어?"

해리가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프레드와 조지와 리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런 수업은 난생 처음이었어."

프레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리는 약간 흥분한 것 같았다.

"뭘?"

론이 앞으로 몸을 잔뜩 숙이면서 물었다.

"저 밖에서 그걸 하는 게 어떤 건지 안단 말이야."

조지가 감명을 받은 듯이 말했다.

"뭘 하는데?"

해리가 재빨리 반문했다.

"어둠의 마법과 싸우는 거 말이야."

"그는 모든 걸 다 봤어."

프레드와 조지가 한 마디씩 했다.

"굉장해."

리가 맞장구를 쳤다. 론은 재빨리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더니 시간표를 꺼내들었다.

"우리는 목요일이나 되어야 그 수업이 있어!"

론은 몹시 실망한 것 같았다.

제 14 장 용서받지 못할 저주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네빌이 마법의 약 수업 시간에 냄비를 녹여 버린 일 같은 사소한 사건을 따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 냄비까지 합치면, 네빌은 벌써 여섯 개나 되는 냄비를 망가뜨린 셈이었다. 여름 내내 새로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처럼, 스네이프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빌을 방과 후에 남겨 놓고 벌 주었다. 결국 네빌은 한 통 가득 담긴 뿔 달린 두꺼비들의 내장을 모조리 꺼낸 후에야, 거의 신경 쇠약 상태가 되어서 그리핀도르 기숙사로 돌아왔다.

"스네이프의 기분이 왜 저렇게 더러운지 알지?"

론이 시큰둥하게 해리에게 물었다. 그들은 헤르미온느와 네빌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네빌에게 손톱 밑에 박힌 두꺼비의 내장 찌꺼기를 없앨 수 있는 세척 마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었다.

"무디 교수 때문이지, 뭐"

해리가 대답했다. 스네이프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 자리를 몹시 바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스네이프는 지난 4년 동안 애를 썼지만 그 자리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스네이프는 지금까지 근무했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들을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하지만 매드아이 무디의 경우는 매우 달랐다. 스네이프는 매드아이 무디 앞에서는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이상할 정도로 삼가고 있었다.

사실 해리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식사 시간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라도) 볼 때마다 스네이프 교수가 무디 교수의 눈길을(마법의 눈과 정상적인 눈, 둘 다) 애써 피하는 것 같아."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디가 스네이프에게 마법을 걸어서 뿔이 달린 두꺼비로 변신시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 그리고 두꺼비가 지하 교실 안에서 이리저리 튀어 오르는 광경을..."

론의 눈빛을 봉황해졌다. 그린핀도르의 4학년생들은 무디 교수의 수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마침내 목요일이 되자, 점심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학생들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실 앞에 길게 줄 서 있었다. 아직 수업 시작종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린핀도르 4학년생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실 앞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빠진 사람은 헤르미온느 뿐이었지만, 종이 울리고 수업이 시작되자, 헤르미온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난..."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물론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겠지. 자, 어서 서둘러! 그렇지 않으면 앞자리에 앉지 못할 거야."

해리는 재빨리 헤르미온느의 말을 받아넘겼다. 그들은 교탁 바로 앞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어둠의 힘: 자기 방어를 위한 지침서>라는 책을 꺼내 놓고 평소와는 달리 조용하게 기다렸다.

곧이어 복도를 걸어오는 무디 교수의 둔탁한 발소리가 들렸다. 무디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이하고 무서운 표정이었다. 학생들은 쇠갈고랑이 달린 무디 교수의 목발이 기다란 옷자락 밑으로 불쑥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건 모두 치우도록 해라." 무디 교수는 교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 책들 말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없어."

무디 교수가 의자에 앉으면서 무뚝뚝하게 말했다. 학생들은 재빨리 책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론은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았다.

무디 교수는 출석부를 꺼낸 후에 머리를 약간 흔들어서 일그러진 흉터 투성이의 얼굴 위로 훌러내린 잿빛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리고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무디 교수의 정상적인 눈은 출석부의 이름을 차례차례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법의 눈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대답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한 명씩 확인했다.

"좋다." 마지막 학생의 출석까지 확인하고 나자 무디 교수가 말했다. "나는 루핀 교수에게서 이 학급에 대한 편지를 받았다. 너희들은 어둠의 생물과 어떻게 맞싸워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한 기초 지식을 갖게 된 것 같더구나. 보가트와 레드 캠과 헝키펑크와 그라인딜로우와 카파와 늑대인간을 다루었지? 내 말이 맞나?"

교실 여기저기에서 그렇다는 뜻으로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드렸다.

"하지만 저주에 관해서는 진도가 많이 뒤쳐진 것 같구나.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마법사들이 서로에게 어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나는 딱 1년 동안만 너희들에게 어둠의 마법을 다루는..."

무디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계속 계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론이 두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불쑥 물었다. 무디 교수의 마법의 눈이 빙그르르 돌아가더니 론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론은 잔뜩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다.

잠시 후에 무디 교수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무디 교수가 미소짓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온통 흉터 투성이인 무디 교수의 얼굴이 더 흉측하게 뒤틀리며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소를 짓는 우호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다. 론도 마음을 놓는 기색이었다.

"네가 아서 위즐리의 아들이구나, 응?" 무디 교수가 말했다. "네 아버지가 며칠 전에 궁지에 몰린 나를 구해 주었지... 그래, 나는 딱 1년 동안만... 그런 다음에는 다시 조용한 은퇴 생활로 돌아갈 거란다."

무디는 시끄럽게 깔깔 웃더니 울퉁불퉁한 손으로 탁 박수를 쳤다.

"좋다.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다. 저주, 그것은 강도와 형태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 현재 마법부 규칙에 따르면, 나는 너희들에게 저주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6학년이 될 때까지는 금지된 어둠의 저주가 어떤 건지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 나이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런 저주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는 너희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맞서야 할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알수록 좋다고 판단하셨다.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느냐? 어둠의 마법사가 너희들에게 먼저 어떤 저주를 사용할 건지 알려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면전에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저주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항상 경계하면서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 좀 치워라, 브라운 양. 내가 말하고 있을 때에는..."

라벤더 브라운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붉혔다. 라벤더는 책상 밑으로 몰래, 완성된 별점 지도를 패르바티 패틸에게 살며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무디 교수의 마법의 눈은 등 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단단한 나무도 깨뚫어볼 수 있는 게 분명 했다.

"좋다... 어둠의 저주를 사용한 마법사는 마땅히 마법사법에 의해 벌을 받게 된다. 그중 가장 심한 중벌을 받게 되는 저주는 어떤 것일까? 혹시 알고 있는 사람?"

론과 헤르미온느를 포함한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올렸다. 무디 교수가 론을 지적했다. 하지만 무디 교수의 마법의 눈은 여전히 라벤더를 주목하고 있었다.

"저...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임페리우스 저주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론이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아, 그래." 무디 교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도 그 저주를 알고 계실 거야. 오래 전에 마법부가 그 임페리우스 저주 때문에 엄청난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으니까..."

무디 교수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힘겹게 느릿느릿 일어났다. 그리고 교탁 서랍을 열더니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유리병 속에는 커다란 거미 세 마리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해리는 론이 몸을 움찔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론은 거미를 굉장히 무서워했다.

무디 교수는 유리병 속에 손을 집어넣더니 검은색 거미 한 마리를 꺼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거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거미에게 요술지팡이를 살짝 갖다대면서 중얼거렸다.

"임페리오!"

갑자기 거미가 무디 교수의 손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거미는 가느다란 거미줄을 타고 마치 그네를 타는 것처럼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리를 쭉 뻗어 빙 돌아 넘더니 줄을 끊고 다시 교탁 위에 내렸다. 그 다음에는 옆으로 재주넘기를 하기 시작했다. 또다시 무디 교수가 요술지팡이로 톡 치자, 이번에는 그 거미가 뒷다리로 서서 텁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교실을 온통 웃음 바다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무디 교수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재미있는가?" 무디 교수가 벌컥 호통을 폈다. "만약 내가 너희들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건다면, 그래도 좋겠느냐?"

갑자기 웃음 소리가 뚫 그쳤다.

"완전한 지배! 완전한 조종!" 무디 교수가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거미는 이제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더니 데굴데굴 굴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 거미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있고 물에 빠져서 죽게 할 수도 있고 너희들의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다..."

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여러 해 전에는 임페리우스 저주로 조종되는 마녀와 마법사들이 많이 있었다." 무디 교수가 느릿느릿 설명했다. 해리는 무디 교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무디 교수는 볼드모트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던 때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조종받고 있으며, 누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마법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임페리루스 저주는 저항할 수 있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다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페리우스 저주를 받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항상 주위를 경계할 것!"

무디가 벌컥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무디 교수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재주넘기를 하는 거미를 집어 다시 유리병 속에 넣었다.

"또 아는 사람? 또 다른 금지된 저주는 어떤 게 있나?"

헤르미온느의 손이 다시 번쩍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빌도 손을 들었다. 그건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네빌이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과목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학 시간뿐이었던 것이다. 네빌도 자신의 대담한 행동에 약간 놀란 것 같았다.

"그래?"

마법의 눈이 빙글 돌더니 네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나 있어요. 크루시안투스 저주요."

네빌이 작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무디 교수의 정상적인 눈도 네빌을 향하고 있었다. 무디 교수의 두 눈이 모두 뚫어질 정도로 네빌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름이 롱바텀이냐?"

무디 교수가 마법의 눈으로 출석부를 확인하면서 물었다. 네빌은 불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디 교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무디 교수는 다시 전체 학급 학생들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유리병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무디 교수는 재빨리 다른 거미를 잡아서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거미는 잔뜩 겁에 질렸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크루시아투스 저주는..." 무디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 거미가 좀 더 커야겠군." 무디 교수는 요술지팡이를 거미에게 살짝 갖다댔다.

"잉고르지오!"

무디 교수가 주문을 외우자마자, 거미가 마구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그 거미는 타란툴라 거미보다도 더욱 커졌다. 론이 체면 따위는 모두 잊어버린 채, 허둥지둥 의자를 뒤로 빼더니 무디 교수의 탁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았다.

무디 교수는 요술지팡이를 다시 들어 올리더니 거미를 겨냥했다.

"크루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미의 다리들이 이상한 각도로 구부러졌다. 거미는 몹시 고통스러운 듯이 데굴데굴 구르면서 무섭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거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해리는 만약 거미가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아마도 소름끼치는 비명을 질렀을 거라고 확신했다. 무디 교수는 계속 거미에게 요술지팡이를 갖다대고 있었다. 그 거미는 한층 더 격렬하게 몸을 떨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만 하세요!"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외쳤다. 해리는 재빨리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거미가 아니라 네빌을 보고 있었다. 해리도 얼른 네빌을 쳐다보았다. 네빌은 공포에 질린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손마디가 하얗게 되도록 책상을 꽉 움켜잡고 있었다.

잠시 후에 무디 교수가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비록 거미의 구부러진 다리가 풀리긴 했지만, 경련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리듀시오!"

무디 교수가 중얼거리자, 거미는 다시 원래의 크기대로 오그라들었다. 무디 교수는 그 거미를 다시 유리병 속에 집어넣었다.

"아주 고통스럽단다." 무디 교수가 건조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손가락을 조이는 틀이나 칼 따위를 써서 고문할 필요가 없단다. 물론 한때는 이 저주도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지. 좋아... 또 다른거 아는 사람?"

해리는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교실을 둘러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들 마지막 거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몹시 궁금한 표정이었다. 헤르미온느는 또다시 손을 들었다. 불쑥 올라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저주인가?"

무디 교수가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바다 캐다브라요."

헤르미온느가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작게 대답했다. 론을 비롯한 몇 명의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아..." 무디 교수가 축 처진 입술을 비틀면서 또다시 웃었다. "그래! 최후의 저주이자, 최악의 저주이기도 하지. 아바다 캐다브라... 살인 저주!"

무디 교수가 손을 유리병 속으로 집어넣자, 세 번째 거미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기라도 하듯 그의 손가락을 피해 미친 듯이 달아났다. 무디 교수는 단번에 그 거미를 잡아서 교탁 위에 올려놓았다.

무디 교수가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해리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오싹 소름이 끼쳤다.

"아바다 캐다브라!"

무디 교수가 주문을 외웠다. 초록빛 섬광이 눈부시게 번쩍 빛나더니 속 소기가 들렸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원가가 허공으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거미는 벌러덩 나자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 거미의 몸은 아무런 상처 없이 멀쩡했다, 죽었다! 거미가...

잔뜩 겁에 질린 여학생 몇 명이 울음을 터뜨렸다. 죽은 거미가 주르륵 미끄러지자, 론은 황급히 뒤로 물어나다가 하마터면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무디 교수는 교탁 위에 놓여 있는 죽은 거미를 손으로 훑 쓸어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좋지 않아." 무디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전혀 유쾌하지 않지. 이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문은 없다. 이 주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미 알려진 딱 한 사람만이 그 저주를 당하고도 살아 남았고,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

해리는 무디 교수의 눈들이(두 눈 모두) 자신을 빤히 응시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마치 무엇에 훌리기라도 한 듯이 텅 빈 칠판을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바로 저렇게 죽은 것이다... 바로 저 거미처럼... 그들도 흡집 하나, 상처 하나 나지 않았을까? 그들의 몸에서 생명의 빛이 깨지기 전에, 그들은 그저 번쩍하는 초록빛 섬광을 보고 죽음을 예감했을까?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죽음을 느끼면서?

해리는 부모님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년 전에 처음 알게 된 이후부터, 줄곧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상상하곤 했다.

부모님의 소재를 알게 된 웜테일은 그 사실을 볼드모트에게 밀고했고 볼드모트는 부모님의 집으로 찾아갔다. 볼드모트는 먼저 아버지를 죽였다. 제임스 포터는 아내에게 해리를 데리고 달아나라고 소리치면서 볼드모트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볼드모트는 릴리 포터에게 다가가서 해리를 죽일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라고 했다...

릴리 포터는 아들을 온몸으로 가린 채, 차라리 자기를 대신 죽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볼드모트는 릴리 포터까지 처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려 해리를 겨냥했다...

해리는 이러한 모든 장면을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 해 디멘터들과 싸울 때, 부모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디멘터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힘이었다. 희생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무기력한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

무디 교수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해리의 귀에는 마치 꿈 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애써 다시 현실로 돌아온 해리는 무디 교수가 하는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아바다 캐다브라는 아주 강력한 마법의 힘을 필요로 하는 저주다. 너희들 모두 지금 당장 요술지팡이를 꺼내서 나를 향해 그 저주의 주문을 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 봤자 내가 코피나 훌릴지 모르겠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그 저주를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만약 대응할 마법이 없다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 주는지 궁금하겠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최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런 저주를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항상 주위를 경계할 것!"

무디가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자, 학생들은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 세 가지 저주들-아바다 케다브라, 임페리우스 그리고 크루시아투스는 용서받지 못할 저주로 알려져 있다. 이 저주들 가운데 하나라도 인간에게 사용했다간 아즈카반에서 종신형을 보내기에 딱 알맞지. 이게 바로 너희들이 맞서야만 할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싸우도록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끊임없이... 절대로 멈추지 말고 철저히 경계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깃펜을 꺼내서... 받아 적도록 해라..."

학생들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저주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하나 받아 적었다. 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무디 교수가 학생들을 내보내자, 교실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봇물이라도 터진 것처럼 저마다 악자지껄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 꽂을 피웠다.

"너 그게 경련 일으키는 거 봤니?"

"무디가 그걸 죽였을 때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죽일 수 있지?"

아이들은 그 수업이 마치 굉장한 쇼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게 재미있는 수업이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것은 헤르미온느 역시 마찬가지였다.

"빨리 와."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을 재촉했다.

"설마 저 지긋지긋한 도서관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론이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손을 들어 복도 한쪽을 가리키더니 통명스럽게 말했다. "네빌 때문이야."

복도 중간에 혼자 가만히 서 있던 네빌은, 무디 교수가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보여주었을 때처럼 공포에 질린 눈을 부릅뜨고 맞은편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네빌?"

헤르미온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자 네빌이 고개를 돌렸다.

"어, 안녕. 참 재미있는 수업이었어, 그렇지? 저녁식사가 뭘까 궁금해. 나... 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야. 넌 안 그러니?"

네빌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빌, 너 괜찮니?"

헤르미온느가 걱정이 돼서 물었다.

"아, 물론이지. 난 괜찮아." 네빌은 여전히 부자연스럽게 들뜬 목소리로 지껄였다. "아주 재미있는 저녁...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었어. 저녁 식사에는 뭐가 나올까?"

론은 놀란 얼굴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네빌, 도대체... 무슨 말을?"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쿵쿵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무디 교수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네 사람은 말을 뚝 멈추고 두려운 표정으로 무디 교수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에 무디 교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무디 교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낮고 부드러웠다.

"괜찮다, 애야." 무디가 네빌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 사무실로 올라갈래? 자... 차나 한 잔 하자꾸나..."

네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겁에 질린 것 같았다. 무디 교수와 단둘이서 차를 마시다니... 네빌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넌 괜찮니, 포터?"

무디 교수의 마법의 눈이 해리에게 향했다.

"네."

해리는 공포를 이기려는 듯 거의 도전적으로 말했다. 무디 교수의 파란 눈동자가 마치 해리를 이리저리 뜯어보는 것처럼 약간 흔들렸다.

"너도 알아야만 했다. 어쩌면 가혹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야만 해. 모르는 척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 무디 교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자... 어서, 롱바텀. 네가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 내게 몇 권 있단다." 무디 교수는 네빌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네빌은 마치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네빌은 무디 교수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저러는 거지?"

론이 모퉁이를 돌아가는 네빌과 무디 교수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모르겠어."

헤르미온느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어쨌거나 정말 굉장한 수업이었어, 그렇지?" 연회장으로 가는 동안,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프레드와 조지 형의 말이 맞았어. 무디 교수님은 정말로 그 방면의 전문가야. 안 그래, 해리? 무디 교수님이 아바다 케다브라 저주를 내렸을 때... 거미가 그냥 죽어 버렸잖아. 한 방에 말이야..."

하지만 해리의 표정을 보자, 론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리고 연회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트릴로니 교수의 점술 숙제를 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테니까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의 대화에 한 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다. 곧 헤르미온느는 후딱 식사를 끝마치더니 별떡 일어나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다.

해리와 론은 천천히 그리핀도르 탑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는 해리가 먼저 용서받지 못할 저주에 대해 말을 꺼냈다. 사실 저녁 식사 내내, 해리의 머리 속에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 저주들을 봤다는 사실을 알면, 무디 교수와 덤블도어 교수가 마법부와 말썽이 나지 않을까?"

뚱보 여인을 향해 다가가면서 해리가 물었다.

"하긴, 그렇겠지." 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님은 항상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분이고, 무디 교수님으로 말하자면 이미 오래 전부터 골칫거리였어. 항상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분이니까... 쓰레기통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허튼소리."

뚱보 여인의 초상화가 앞으로 확 열리면서 입구가 드러났다. 그들은 그리핀도르 학생 휴게실로 들어갔다. 오늘따라 학생 휴게실이 매우 북적거렸다.

"점술 숙제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올까?"

해리가 말했다.

"그래야겠지."

론이 희미하게 꿩끙거리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책과 차트를 쟁기기 위해 서둘러 기숙사로 올라갔다. 네빌은 혼자 침대에 걸터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무디 교수의 수업이 끝났을 때 보다는 훨씬 더 침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은 듯했다. 네빌의 눈은 약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니, 네빌?"

해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야. 난 괜찮아. 고마워, 해리. 무디 교수님이 빌려주신 책을 읽고 있어..." 네빌은 <지중해의 신비한 수조들과 그 특성>이라는 책을 들어 올렸다.

"스프라우트 교수님이 무디 교수님에게 내가 약초학을 잘한다고 말했나 봐."

네빌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약간 자랑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지금까지 네빌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무디 교수님이 내가 이 책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걸 보면 말이야."

무디 교수가 스프라우트 교수의 말을 네빌에게 한 것은, 네빌의 기운을 돌우기 위한 아주 적절한 방법이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네빌은

지금까지 뭔가를 잘한다는 칭찬을 거의 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핀 교수라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해리와 론은 <미래의 운세> 책을 들고 다시 학생 휴게실로 내려갔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다음달에 발생할 사건을 예언하는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잡다한 계산과 상징들이 적힌 양피지 조각만이 잔뜩 널려 있을 뿐이었다. 해리의 머리는 마치 트릴로니 교수의 벽난로에서 훌러나온 향기를 듬뿍 들이마신 것처럼 몽롱했다.

"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해리가 길고 복잡한 계산 공식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했다.

"있잖아, 해리. 아무래도 옛날식 점술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론이 입을 열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었기 때문에 론의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뭐야? 거짓말로 꾸며내자는 말이니?"

"그래."

론은 테이블 위에 마구 헝클어져 있는 종이들을 놓고 치워 버렸다. 그리고 펜을 잉크에 푹 담갔다가 꺼내더니 중얼거리며 뭐라고 적기 시작했다.

"다음 월요일에는... 화성과 목성의 불길한 위치 때문에 감기에 걸릴 것이다."

론은 슬며시 고개를 들더니 해리를 쳐다보았다.

"너도 그 교수님을 잘 알잖아. 그저 불길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면... 트릴로니 교수님은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해리는 지금까지 썼던 숙제를 아무렇게나 구겨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1학년생들의 머리 위로 휙 던졌다. 양피지는 벽난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좋았어! 월요일에... 나는... 음... 화상을 입는 위험에 처할 거야."

"그래, 그럴 거야. 우리는 월요일에 스크루트를 다시 만나게 될 거잖아. 좋아. 화요일에는... 음..."

론이 음울한 표정을 지었다.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

해리는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미래의 운세> 책장을 훑어 넘겼다.

"아주 좋은데?" 론은 그 말을 그대로 베껴 썼다. "음... 너는... 수성 때문에...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힌다고 하면 어떨까?"

"그래! 멋진 말이야..." 해리도 신이 나서 그대로 휙갈겨 썼다. "왜냐하면... 금성이 황도 십이궁 가운데 열두 번째 별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마... 싸움을 하다가 크게 얻어터질 거야."

"이런! 나도 싸움을 한다고 쓸 생각이었는데... 좋아. 그렇다면 나는 내기에서 진다고 해야겠다."

"그래, 너는 당연히 내가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걸 테니까 말야..."

해리와 론은 한 시간 동안이나 예언을 짜 맞추는(그 예언은 점점 더 비극적이 되었다)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하나 둘씩 침실로 올라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 휴게실은 점점 한산해졌다.

크룩생크가 그들에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빈 의자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다. 그리고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해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헤르미온느가 지었을 꼭 그런 표정이었다.

해리는 아직까지 쓰지 않은 불운이 뭐 없나 고민하면서 학생 휴게실을 빙 둘러보았다. 문득 맞은편 벽에 기대앉아 깃펜을 빼들고 머리를 맞댄 채, 양피지 조각 한 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프레드와 조지의 모습이 보였다.

프레드와 조지가 한쪽 구석에 숨어서 뭔가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아주 보기 드문 광경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한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 만한 아주 떠들썩한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프레드와 조지가 원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쌍둥이 형제가 버로우에 있을 때에도 원가를 함께 쓰면서 나란히 앉아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당시에는 '위즐리 형제 마법사의 기발한 발명품'을 위한 또 다른 주문 용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았다. 만약 그런 일이었다면, 프레드와 조지는 분명히 그 장난에 단짝 친구리 조던도 끼워 주었을 것이다. 해리는 혹시 트리위저드 시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는 물끄러미 두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조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깃펜으로 원가를 쪽쪽 지웠다. 그런 다음 아주 나지막하게 프레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학생 휴게실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해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안 돼! 그렇게 쓰면... 마치 우리가 그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조심하는 게 좋아..."

그때 주위를 둘러보던 조지의 눈이 해리와 딱 마주쳤다. 해리는 씩 미소를 지은 후 얼른 고개를 돌리고는 다시 숙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일부러 옆들고 있다는 오해를 살까 봐서였다. 잠시 후에 쌍둥이 형제는 양피지를 둘둘 말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해리와 론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한 후에 곧장 기숙사로 올라갔다.

10분 정도 지나자 초상화 구멍이 살며시 열리더니 헤르미온느가 학생 휴게실로 들어왔다. 헤르미온느는 한 손에는 양피지 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상자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걸음을 빠질 때마다 달가닥달가닥 하는 소리가 들렸다. 크록생크가 가르릉거리면서 몸을 둥글게 말았다.

"안녕. 이제 막 끝마쳤어!"

헤르미온느가 활짝 미소지으며 말했다.

"나도!"

론이 깃펜을 던지면서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헤르미온느는 들고 있던 물건들을 안락의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면서 론의 점술 숙제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별로 좋은 달이 아니구나. 그렇지?"

헤르미온느가 비꼬며 말했다. 크록생크가 헤르미온느의 무릎 위로 뛰어오르더니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그래. 하지만 적어도 미리 알게 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

론이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너는 두 번이나 익사할 모양이구나?"

헤르미온느가 론의 예언을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가? 이런... 둘 중에 하나를 미친 듯이 날뛰는 히포그리프에게 짓밟히는 걸로 바꿔야겠어."

론은 당황하면서 점술 숙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것 같지 않니?"

"무슨 말씀!" 론이 투덜거리면서 대답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꼬마 집요정들처럼 죽도록 공부하고 있었는데!"

헤르미온느가 눈썹을 치켜올리면서 론을 훑겨보았다.

"그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론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면서 변명했다.

해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될 운명이라는 예언으로 끝을 맺은 후에 깃펜을 내려놓았다. 마침내 점술 숙제를 모두 끝낸 것이다.

"그 상자 속에 있는 게 뭐야?"

해리가 손가락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때마침 잘 물었어."

헤르미온느가 험악한 얼굴로 론을 쏘아보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자 속에는 50 개 정도의 배지가 들어 있었는데, 색깔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같이 'S. P. E. W.'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대체 물 먹고 토한다는('spew'라는 단어는 '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주) 거니? 이게 도대체 뭐야?"

해리가 배지를 하나 집으며 물었다.

"토하는 게 아니야. 그건 S-P-E-W 야. '꼬마 집요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임(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Elfish Welfare)'이라는 뜻이지."

헤르미온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런 모임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론이 물었다.

"당연히 들어 본 적이 없겠지. 내가 이제 막 시작한 모임이니까..."

헤르미온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론이 약간 놀라며 물었다.

"글쎄... 만약 너희 둘이 가입한다면... 세 명."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는 우리가 '토하다'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돌아다닐 것 같니, 응?"

론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S. P. E. W. 라니까!" 헤르미온느가 잔뜩 골이 나서 소리쳤다. "나는 처음에 S. O. A. O. F. M C. C. T. L. S.(Stop the Outrageous Abuse of Our Fellow Magical Creatures and Campaign for a Change in Their Legal Status)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 '우리의 친구인 신비한 생물에 대한 부당한 학대 방지와 그들의 법적 신분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라는 뜻으로 말이야. 하지만 공간이 좁아서 다 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S. P. E. W.가 우리 모임의 이름이야."

헤르미온느는 양피지 다발을 그들의 코앞에 대고 훤히 흔들었다. "나는 그 동안 도서관에서 철저히 조사했어. 꼬마 집요정의 노예화는 수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지금까지 아무도 정식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뿐이야."

"헤르미온느! 내 말을 똑똑히 들어. 집요정은... 그것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들은 노예로 지내는 걸 좋아한다구!"

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우리의 단기 계획은..." 헤르미온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론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꼬마 집요정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장기 계획은 '요술지팡이 사용 불가'에 대한 법률을 바꾸고, 꼬마 집요정 가운데 한 명을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에 들어 가도록 하는 거야. 왜냐하면 꼬마 집요정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지?"

해리가 물었다.

"회원을 모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 헤르미온느는 기뻐하며 말했다.

"회원 가입비를 2 시클로 정했어. 배지를 구입하는 값이야. 그 수익금으로 전단 캠페인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 론, 회계는 네가 맡도록 해. 이따가 너에게 모금통을 줄게. 그 모금통은 지금 위층에 있거든 그리고 해리, 너는 우리 모임의 간사야. 그러니까 너는 첫 모임에 대한 기록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적어 두고 싶을지도 모르겠구나."

헤르미온느는 잠시 입을 다물고 해리와 론을 바라보면서 활짝 미소를 지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 때문에 분통이 터지면서도 론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너무나 우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론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꽉 막힌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정적을 깨뜨렸다.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텅 빈 학생 휴게실을 두리번거리던 해리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창틀에 눈처럼 하얀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드위그!"

해리가 외쳤다. 그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가서 창문을 열었다.

휴게실 안으로 들어온 헤드위그는 탁자에 놓인 해리의 점술 숙제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돌아왔구나."

해리는 서둘러 부엉이에게 다가갔다.

"답장을 갖고 왔어!"

론이 헤드위그의 다리에 묶여 있는 더러운 양피지 조각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다.

해리는 재빨리 헤드위그의 다리에 매달린 편지를 풀었다. 해리가 열심히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헤드위그는 해리의 무릎 위에 살며시 내려앉더니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부엉부엉 부드럽게 울어댔다.

"뭐라고 써 있니?"

헤르미온느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시리우스의 답장은 매우 짧았고 아주 급하게 휘갈겨 쓴 것처럼 보였다. 해리는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해리

지금 나는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단다. 너의 흉터에 관한 소식은 내가 이곳에서 들은 이상한 소문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은 거란다. 만약 흉터가 다시 아프면, 곧장 덤블도어 교수를 찾아가거라. 덤블도어가 은퇴한 매드아이를 학교로 불렀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덤블도어는 그 징조들을 읽었다는 뜻이란다.

곧 연락하마. 론과 헤르미온느에게도 안부 전해 주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경계하도록 해라, 해리.

시리우스

해리는 고개를 들고 론과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그들도 해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시리우스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다구? 그렇다면 돌아오고 있는 걸까?"

헤르미온느가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무슨 징조들을 읽었다는 거야? 해리... 왜 그래?"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해리가 주먹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쳤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헤드위그는 중심을 잊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해리의 무릎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다.

"시리우스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해리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무슨 말이야?"

론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내가 경솔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리우스가 돌아오고 있는 거야!" 해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헤드위그는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론의 의자 등받이 위에 내려앉았다. "시리우스가 돌아오고 있는 건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난 네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해리는 먹이를 기대하면서 부리를 딸깍거리고 있는 헤드위그를 쳐다보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뭘 먹고 싶으면 당장 부엉이장으로 올라가!"

헤드위그는 몹시 성이 나서 인상을 팍 쓰더니 날개를 활짝 펼치고는 해리의 머리를 툭툭 쳤다. 그런 다음 열린 창문으로 날아가 버렸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해리를 달래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난 이만 올라가서 잘래." 해리가 짤막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보자."

이층 기숙사로 올라간 해리는 서둘러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만약 시리우스가 덜컥 잡히기라도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해리의 잘못이었다. 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않았을까? 이마의 흉터는 아주 잠깐 아팠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주책없이 지껄이다니...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어야 했는데...
사리분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

잠시 후에 론이 기숙사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해리는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 한참 동안 해리는 커튼이 쳐진 침대에서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드러누워 있었다. 방은 아주 조용했다. 만약 해리가 다른 생각에 몰두하지만 않았다면, 아직까지 잠들지 못한 사람이 비단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들리던 네빌의 코고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 15 장 보바통과 덤스트랭

아침 일찍 일어난 해리의 머리 속에는 마치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밤새도록 뇌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해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은 다음, 론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기숙사를 나갔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학생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해리는 어제 저녁에 하다가 그대로 놓아 둔 점술 숙제를 한쪽으로 밀어 놓고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양피지 조각을 꺼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시리우스 아저씨께

며칠 전에 제 흉터가 아팠다고 한 건 그냥 상상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께 편지를 쓸 때에는 잠이 덜 깐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올 필요는 없어요. 이곳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제 머리는 정말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해리

해리는 초상화 구멍을 빠져나와, 서쪽 탑 맨 꼭대기에 있는 부엉이장으로 올라갔다(4 층 복도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브스가 해리에게 커다란 꽃병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 잠깐 방해를 받긴 했지만).

부엉이장은 돌로 지어진 동그란 모양의 방이었다. 그러나 창문에는 유리가 한 장도 끼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그대로 불어오고 있었다. 부엉이장 바닥에는 온통 짚과 부엉이 똥과 생쥐나 들쥐의 뼈다귀들로 뒤덮여 있었다. 길게 늘어서 있는 횃대 위에는 수백 마리나 되는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의 부엉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동그란 호박색 눈동자가 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해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외양간 부엉이와 황갈색 부엉이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헤드위그를 발견했다. 해리는 서둘러 헤드위그에게 걸어가다가 그만 뚱으로 뒤덮인 바닥에 찍 미끄러지고 말았다.

헤드위그는 곤히 잠을 자고 있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헤드위그를 훔들어 깨웠다. 헤드위그는 잔뜩 심통이 난 듯 해리를 외면하면서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래서 헤드위그가 해리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도록 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헤드위그는 전날 밤 해리의 태도에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모양이었다.

결국 해리가 넘지시 "네가 너무 피곤할지도 모르니까 론에게 피그위존을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게 좋겠어. 핏기위존의 다리에 편지를 매달아서 보내야겠다."고 말한 후에야 간신히 헤드위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다. 헤드위그는 부엉부엉 울면서 해리의 팔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시리우스만 찾으면 돼, 알았지?" 해리는 헤드위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 주면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대멘터가 먼저 그를 잡기 전에 말이야."

헤드위그는 해리의 손가락을 평소보다 조금 세게 물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부엉부엉 울었다. 헤드위그는 날개를 활짝 펼치더니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날아갔다.

해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헤드위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쩐지 자꾸만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시리우스의

답장을 받으면 그래도 걱정이 좀 덜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해리. 너는 그냥 흉터가 아프다고 상상한게 아니었잖아."

해리가 아침 식사 시간에 헤르미온느와 론을 만나서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하자,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나 하나 때문에 시리우스가 아즈카반에 갇히도록 놔두란 거야?"

해리는 완강하게 말했다.

"그만둬."

헤르미온느가 다시 무슨말을 하려고 입을 벌리자, 론이 제지했다. 이번에는 헤르미온느도 론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해리는 그 다음 이 주일 동안 시리우스에 대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려고 악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침에 우편물이 도착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며,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런던의 어두운 거리에서 디멘터들이 시리우스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꼼찍한 영상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다. 그때마다 해리는 시리우스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

해리는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차라리 퀴디치 경기라도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는 것은 불안감을 떨쳐 버리는 데에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내리겠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오거라. 과연 그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그들은 무디 교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하지만 교수님은 그게 불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무디 교수가 요술지팡이를 휘둘러서 책상들을 다 치우고 교실 한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자, 헤르미온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말했다.

"교수님은... 이 저주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덤블도어 교수는 임페리우스 저주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너희들이 배우기를 바라고 있다." 무디 교수는 마법의 눈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헤르미온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중에 누가 너한테 이 저주를 내려서 너를 완전히 조종해도 상관없다면... 나는 괜찮다. 이걸 배우지 않아도 좋다. 이 교실에서 나가거라."

무디 교수는 짙은 마디가 있는 손가락을 들어올리더니 문을 가리켰다.

"저는... 교실에서 나가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

헤르미온느는 얼굴을 붉히면서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해리와 론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씩 웃었다. 그들은 헤르미온느가 이런 중요한 수업을 놓치느니 차라리 부보투버라도 먹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무디 교수는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학생들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내리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 저주를 받은 친구들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딘 토마스는 국가를 부르면서 교실을 세 바퀴나 돌았다. 라벤더 브라운은 다람쥐 흉내는 냈다. 네빌은 평상시에는 천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체조를 연속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저주를 막지 못했다.

잠시 후에 무디 교수가 무뚝뚝하게 해리를 불렀다. "네 차례다."

해리는 교실 한가운데의 빈 공간으로 걸어갔다. 무디 교수가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고 해리를 겨냥했다.

"임페리오!"

갑자기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해리의 머리 속에 가득하던 수많은 생각과 걱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행복감이 해리를 휘감았다. 해리는 마치 허공에 둉둥 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해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해리는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무디 교수의

목소리가 텅 빈 머리 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책상 위로 뛰어올라라... 책상 위로 뛰어올라라... 해리는 책상위로 뛰어오르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고분고분 무릎을 굽혔다. 책상 위로 뛰어올라라...

왜요?

갑자기 해리의 머리 속에서 떠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게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책상 위로 뛰어올라라...

싫어요! 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목소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요! 난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뛰어! 당장!

그 순간 해리는 큰 고통을 느꼈다. 해리는 뛰어로르는 것과 뛰어오르지 않는 행동을 동시에 했다. 그 결과 책상 모서리에 힘껏 부딪힌 해리는 그만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다. 아마도 무릎 양쪽을 다 뻔 듯 무릎이 몹시 아팠다.

"자, 정말 잘했다."

무디 교수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해리는 머리속이 멍하게 울리는 것 같던 기분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해리는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무릎의 통증도 두배로 커졌다.

"이걸 보거라, 얘들아... 포터가 싸웠다! 포터는 그 저주와 치열하게 싸워서 거의 이길 뻔했다! 다시 한 번 해보자, 포터.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똑똑히 주목하거라. 특히 포터의 두 눈을 잘 관찰해야 한다. 너희들이 봐야 할 곳이 바로 눈이니까... 잘했다, 해리! 정말 잘했어! 아무래도 그들이 널 조종하는 건 조금 힘들 거다!"

"무디 교수의 말투 말이야." 한 시간 후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실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나오던 해리가 말했다(무디 교수는 해리의 역량을 시험하겠다는 미명하에, 해리가 그 저주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때까지 연달아 네 번이나 공격하겠다고 우겼다). "마치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때라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래, 맞아." 론이 맞장구를 쳤다. 론은 한 발로 번갈아 가면서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론은 임페리루스 저주로 인해 해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무디 교수는 점심 시간 무렵이 되면 그런 영향들이 모두 없어질 거라고 안심시켰다. "바로 그런 게 편집광적인 증세라는 거야..." 론은 무디 교수가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조하게 어깨 너머로 힐끗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무디 교수가 은퇴하자, 마법부 사람들이 몹시 기뻐한 것도 아주 당연해. 그런데 해리, 혹시 무디 교수가 시무스에게 말하는 거 들었니? 언젠가 만우절 날 무디 교수의 등 뒤에서 그냥 장난으로 우우 하고 소리친 마녀에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어쨌거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도대체 언제 임페리우스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을 복습하라는 거야?"

4학년생들은 모두 이번 학기에 해야 할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 변신술 수업 시간에 맥고나걸 교수가 숙제를 잔뜩 내자, 학생들은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반드시 치러야 할 '표준 마법사 수준' 테스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5학년 때 치르잖아요!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요!"

딘 토마스가 입술을 불쑥 내밀고 털툴거렸다.

"아닐 수도 있단다, 토마스.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해! 내가 만족할 만큼 고승도지를 바늘방석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학급에서 그레인저뿐이야. 너의 바늘방석은 여전히 핀을 가지고 다가가면 깜짝 놀라면서 잔뜩 몸을 웅크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렴, 토마스!"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다시 발그스름하게 물들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점술 수업에 참석한 해리와 론은 트릴로니 교수의 칭찬을 받자, 헤벌쭉 입을 벌리면서 굉장히 좋아했다. 트릴로니 교수가 그들이 제출한 숙제에 최고점을 준 것이다. 트릴로니 교수는 그들의 예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공포들을 아주 결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트릴로니 교수가 만족스러운 눈길로 해리와 론을 쳐다보면서 그 다음 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숙제를 해 오라고 하자, 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맞은 기분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재앙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 써먹었기 때문이다.

마법의 역사를 가르치는 빈스 교수는 18 세기의 도깨비 반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며, 스네이프 교수는 해독제 연구를 강요하고 있었다. 스네이프 교수는 학급 아이들이 만든 해독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한 명을 골라서 독약을 먹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잔뜩 겁먹은 학생들은 그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폴리트윅 교수는 소환 마법 수업을 위해 책을 세권 더 읽으라고 말했다.

심지어 해그리드까지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양을 더욱 늘리는 데 단단히 한몫하고 있었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파악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 꼬리 스크루트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무척 기뻐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 과제를 주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이틀에 한 번씩 저녁 시간에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가서, 폭탄 꼬리 스크루트를 관찰하고 특이한 행동을 적어 내라는 것이었다.

"저는 사양하겠어요." 해그리드가 마치 산타클로스가 자루 속에서 커다란 장난감을 하나 더 꺼내 주는 듯한 태도로 제안하자, 드레이코 말포이가 딱 잘라 거절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해그리드의 얼굴에는 미소가 짙어졌다.

"시키는 대로 해, 말포이." 해그리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무디 교수가 한 것처럼 할 테니까... 나도 네가 착한 흰족제비로 변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단다."

그리핀도르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말포이의 얼굴이 수치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못했다. 무디 교수가 내린 벌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고통스럽게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이 끝나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성을 향해 걸어갔다. 해그리드가 단번에 말포이를 잠잠하게 만드는 것을 보자, 그들은 아주 통쾌했다. 작년에 말포이는 해그리드를 호그와트에서 해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적이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현관 안의 넓은 훌에 도착한 그들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수많은 학생들이 커다란 표지판이 세워진 대리석 계단 밑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키가 큰 론이 발끝을 한껏 치켜들더니 그 표지판에 적혀있는 내용을 다른 두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었다.

트리위저드 시합

보바통과 덤스트랭의 대표단이 10 월 30 일 금요일 오후 6 시에 도착합니다.
수업은 30 분 일찍 끝날 예정입니다.

"정말 잘 됐네!" 해리가 활짝 웃으면서 외쳤다. "금요일의 마지막 수업은 마법의 약 시간이야! 스네이프는 우리에게 절대로 독약을 먹이지 못할 거야!"

호그와트의 학생들은 가방과 책을 각자 기숙사에 갖다 두고 성 앞으로 모이도록 하십시오. 환영 만찬을 열기 전에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밖에 안 남았어!" 휴플푸프의 어니 맥밀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케드릭이 알고 있을까? 어서 가서 알려 줘야지..."
"케드릭이라니?"

어니가 다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론이 물었다.

"디고리 말이야. 케드릭도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할 생각인가 봐."

해리가 대답했다.

"그 멍청이가 호그와트의 챔피언이 된다구?"

그들은 떠들썩한 인파를 헤치면서 계단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론은 높시 불만스러운 듯이 소리쳤다.

"케드릭은 멍청이가 아니야! 너는 그저 케드릭이 퀴디치 경기에서 그리핀도르를 이겼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는 거잖아."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말했다. "나는 케드릭이 정말로 훌륭한 학생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케드릭은 반장이야."

헤르미온느는 마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다.

"너는 그저 케드릭이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뿐이잖아."

론이 가차없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헤르미온느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론은 일부러 헛기침을 했는데, 이상하게 꼭 '록허트!'처럼 들렸다. 현관 안의 넓은홀에 붙은 표지판은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띄일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음 일주일 동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온통 트리위저드 시합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누가 호그와트의 챔피언으로 선발될 것인가? 트리위저드 시합 종목은 무엇인가? 보바통 학생들과 던스트랭 학생들은 어떻게 다른가? 무성한 소문들은 마치 전염성이 강한 병균처럼 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성은 점점 더 깨끗해졌다.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어 있던 초상화 몇 점도 깨끗하게 닦여졌다. 하지만 정작 초상화 속의 당사자들은 별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남몰래 투덜거리면서 액자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분홍빛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자,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갑옷은 아무 기척도 없이 조용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기름을 잔뜩 치자, 더 이상 깍깍거리는 소음을 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 관리인 아구스 필치는 신발을 닦지 않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아주 사납게 화를 냈다. 필치에게 야단을 맞은 1학년 여학생 두 명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

다른 교직원들도 모두들 이상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롱바텀, 부디 던스트랭 학생들 앞에서는 네가 간단한 전환 마법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거라!"

맥고나걸 교수가 특히 어려운 수업 끝에 마구 호통을 쳤다. 그 수업 시간에 네빌은 실수로 자신의 귀를 선인장에 이식시켰던 것이다.

마침내 10월 30일 아침이 밝았다. 해리는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연회장은 아주 멋지게 장식되어 있었다. 벽에는 제각기 로그와트의 기숙사를 상징하는 커다란 비단 깃발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핀도르의 깃발은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 사자가, 래번클로의 깃발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 오소리가, 슬리데린의 깃발은 초록색 바탕에 검은색 뱀이 그려져 있었다. 가장 큰 깃발은 교수석 뒷벽에 걸려있었다. 사자와 독수리와 오소리와 뱀이 커다란 알파벳 문자 'H'를 둘러싸고 있는 호그와트의 방패꼴 문장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그리핀도르 테이블에서 프레드와 조지의 모습을 봤다. 이번에도 역시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다른 사람들과 뚝 떨어진 곳에 앉아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곤거리고 있었다. 론은 쌍둥이 형제들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정말 불쾌해. 하지만 만약 그가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그의 손에 마구 밀어 넣거나... 그가 우리를 영원히 피해 다닐 순 없어."

조지가 음산한 목소리로 프레드에게 말하고 있었다.

"누가 형들을 피하는데?"

론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물었다.

"제발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갑자기 방해를 받게 되자, 프레드가 화난 얼굴로 말했다.

"뭐가 불쾌하다는 거야?"

론이 조지에게 물었다.

"너처럼 함부로 참견하는 녀석이 내 동생인 거..."

조지가 투덜거렸다.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라도 있어?"

해리가 물었다.

맥고나걸 교수에게 챔피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어. 그저 너구리를 변신시키는거나 잘하라는 충고를 들었을 뿐이야."

조지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유리는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리 지금까지도 우린 위험한 일을 잘 해 나갔잖아..."

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심판관 앞에서는 해본 적 없잖아. 맥고나걸 교수는 그 임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진다고 했어."

프레드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데 심판관이 누구지?"

해리가 물었다.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는 학교의 교장들은 모두 심판관 명부에 올라 있어." 헤르미온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자, 모두들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1792년에 열린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한 가지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이야. 챔피언들이 잡기로 되어 있던 카커트리스(한 번 노려보기만 해도 사람이 죽는다는 전설상의 뱀. 바실리스크와 유사하다:역주)가 마구 날뛰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세 명 모두 부상 당했거든."

헤르미온느는 다들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언제나처럼 자신이 읽은 책을 아무도 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투로 말을 이었다.

"나참, 그건 <호그와트의 역사>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물론 그 책이라고 해서 모두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말야. 차라리 '수정된 호그와트의 역사'라고 하는 게 더욱 정확한 제목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추잡한 면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말로 얼버무린, 굉장히 편파적으로 가려낸 호그와트의 역사'라고 하거나..."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론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면서 물었다. 하지만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입에서 무슨 말이 쏟아질지 충분히 알고도 남았다.

"꼬마 집요정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큰 소리로 소리쳤다. 해리의 짐작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호그와트의 역사>는 무려 천 쪽에 걸친 그 방대한 내용 어디에도 백 명에 달하는 노예들의 억압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결탁하고 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

해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은 후에 스크램블드 에그를 먹기 시작했다. 해리와 론이 아무리 관심을 두지 않아도, 꼬마 집요정들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헤르미온느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두 사람 모두 S.P.E.W. 배지값으로 2 시클을 내긴 했지만, 순순히 돈을 준 것은 오직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공연히 돈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아니, 오히려 헤르미온느를 자극해서 더욱 시끄럽게 떠들도록 만드는 결과만 초래했다. 왜냐하면 헤르미온느는 처음에는 배지를 달고 다니라고 성화를 부리더니,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지를 사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등 계속 해리와 론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또한 헤르미온느는 매일 저녁마다 그리핀도르 학생 휴게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구석에 몰아세우고 덜거덕거리는 모금함을 코앞에 불쑥 들이밀었다.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소리치곤 했다.

"너희들이 시트를 갈고 너희들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너희들의 교실을 청소하고 너희들의 음식을 만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봉급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지내는 신비한 생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니?"

네빌과 같은 아이들은 그저 헤르미온느의 무서운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돈을 냈다. 극소수의 아이들은 헤르미온느가 하는 말에 약간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하는 좀더 활동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극구 사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일은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론은 공연히 가을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비치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딴전을 피웠다. 프레드는 갑자기 베이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열심히 먹기 시작했다(쌍둥이 형제는 둘 다 S.P.E.W. 배지 구입을 거절했다). 하지만 조지는 헤르미온느에게 몸을 숙여 말했다.

"헤르미온느, 너 주방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 본 적 있니?"

"아니, 없어. 학생들은 주방에 들어갈 수 없..."

헤르미온느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가 봤어." 조지가 프레드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이나... 물론 음식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도 있어. 그들은 아주 행복해 보였어.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꼬마 집요정들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야!"

헤르미온느는 몹시 흥분해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말은 부엉이 집배원들이 마구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오는 소리 때문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해리는 얼른 고개를 들고 이제 막 도착한 부엉이들을 쳐다보았다. 해리를 향해 곧장 날아오는 헤드위그의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말을 멈추었다. 헤르미온느와 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헤드위그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해리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헤드위그는 날개를 접은 후에 힘없이 한쪽 다리를 쭉 내밀었다.

해리는 재빨리 헤드위그의 발에 매달린 시리우스의 답장을 떼어냈다. 해리가 배이컨을 조금 주자, 헤드위그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더니 와구와구 먹었다. 잠시 후에 프레드와 조지가 다시 트리위저드 시합 얘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걸 본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작은 목소리로 시리우스의 편지를 읽어 주었다.

잘 했다. 해리

나는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와서 잘 숨어 있단다. 나는 네가 호그와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다 자세히 알려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에게 편지를 보낼때는 더 이상 헤드위그를 이용하지 말거라. 부엉이를 계속 바꾸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항상 몸조심하도록 해라. 내가 네 흉터에 대해 한 말을 잊어버리지 말거라.

시리우스

"어째서 부엉이를 계속 바꿔야 하는 거지?"

론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면서 물었다.

"그건 헤드위그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때문일 거야. 해드위그는 눈에 금방 띄잖아. 시리우스의 은신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눈처럼 새하얀 부엉이가 계속 그곳을 들락거린다면... 그러니까 내 말은... 헤드위그가 주로 그 지방에서 서식하는 새가 아니라는 뜻이야.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어깨위에 헤드위그를 힐끗 쳐다보면서 말했다. 해리는 재빨리 시리우스의 편지를 돌돌 말아서 망토 속에 밀어 넣었다. 혹시 시리우스가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해리는 시리우스가 마법부의 손에 잡히지 않고 은신처로 무사히 돌아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리우스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해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적어도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고마워, 헤드위그!".

해리는 헤드위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헤드위그는 졸린 듯이 부엉부엉 울더니 부리를 해리의 오렌지 주스에 살짝 담갔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흑 날아갔다.

어서 빨리 부엉이장으로 돌아가서 푹 자고 싶은 모양이었다.

오늘은 어쩐지 아침 일찍부터 유쾌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업에 귀를 기울이는 사라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들 그날 저녁에 도착할 예정인 보바통과 덤스트랭 사람들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법의 약 수업조차 30분이나 짧아졌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견딜 만했다.

마침내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허둥지둥 그리핀도르 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미리 지시받은 대로 가방과 책들을 가지런히 내려놓고 재빨리 학교 망토로 갈아입은 후에 다시 현관 복도로 내려갔다.

기숙사 담당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줄을 서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위즐리, 모자 좀 똑바로 써라." 맥고나걸 교수가 론을 쳐다보면서 날카롭게 말했다. "패틸 양, 머리에 맨 그 우스꽝스러운 장식 좀 떼어내도록 해라."

패르바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길게 땋아내린 머리에서 커다란 나비장식을 떼어냈다.

"나를 따라오도록."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거기 앞줄에 서 있는 1학년생들은 제발 좀 밀지 말고..."

그들은 줄을 맞춰 정문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다들 호그와트 성 앞에 줄을 맞춰 길게 늘어섰다. 약간 쌀쌀한 날씨였지만, 하늘은 아주 맑았다. 해가 저물면서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금지된 숲 너머에서 희미한 달이 떠올랐다. 앞에서 네 번째 줄에 론과 헤르미온느 사이에서 있던 해리는 1학년생들 중에서 유난히 들뜬 모습으로 까불고 있는 데니스 크리비를 발견했다.

"벌써 6시가 다 됐네. 그런데 해리, 다른 학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도착할 것 같니? 기차로?"

론은 잠시 손목시계를 확인한 후에 성 입구로 통하는 차도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그럴 것 같진 않아."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무슨 수단을 사용할까? 빗자루를 타고 올까?"

해리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물었다.

"아마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오는데..."

"포트키? 그렇지 않으면 순간이동을 써거나 뽕하고 나타날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다른 학교에서는 열일곱 살 미만도 그걸 하는게 허용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

론은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호그와트 교내에서는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가 없어!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헤르미온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핀잔을 주었다. 사방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를 쓰고 주위를 살펴 보았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그저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다. 해리는 몸이 오싹할 정도로 한기를 느꼈다. 빨리 도착했으면... 어쩌면 외국 학생들은 보다 극적으로 등장할지도 몰라... 퀴디치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위즐리 씨가 캠프장에서 한 말이 떠올랐다.

'언제나 똑같군 마법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서로들 뽐내기 바쁘다니까...'

잠시 후에 다른 교수들과 함께 뒤에서 있던 덤블도어 교수가 소리쳤다.

"아하! 보바통 대표단이 도착하는군!"

"어디요?"

수많은 학생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저기 있다!"

6학년생 가운데 한 명이 금지된 숲 저 위쪽의 하늘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뭔가 아주 거대한, 빗자루보다 훨씬 큰 것이... 마치 수백 개의 빗자루를 합쳐 놓은 것 같은 것이... 점점 더 커지면서 군청색 하늘을 가로질러 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용이다!"

1학년생 가운데 한 명이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다.

"저런 명성이... 저런 날아다니는 집이야!"

데니스 크리비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데니스의 추족이 훨씬 더 진실과 가까웠다... 그 거대한 형상은 금지된 숲의 나무 꼭대기를 살짝 스치듯이 날아오고 있었다. 성의 창문에서 훌러나온 불빛이 그 형상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그들은 코끼리만한 덩치의 팔로미노(갈기와 꼬리는 하얗고 몸통은 담황색인 말의 일종: 역주) 수십 마리가 끌고 있는 거대한 담청색 마차를 볼 수 있었다. 거의 집채만한 마차는 호그와트를 향해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다.

마차가 점차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보바통의 마차가 엄청난 속도로 착륙하자 앞쪽 세 줄에서 있는 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얼른 뒤로 물러났다.

쾅!

귀청이 찢어질 듯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와 함께(네빌은 깜짝 놀라서 뒤로 펄쩍 뛰다가 슬리데린 5학년생의 발을 밟고 말았다), 대형 접시보다도 더 큰 말발굽들이 에 달았다. 마차가 거대한 바퀴를 굴리며 착륙하는 동안, 황금빛 말들은 커다란 머리를 치켜들고 불길처럼 새빨간 눈알을 디룩디룩 굴렸다.

해리는 마차의 문이 열리기 전에, 문에 그려져 있는 방패꼴 모양의 문장(세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는 황금빛 요술지팡이 두 개가 서로 교차되어 있는 양이었다)을 훤히 보았다.

연한 파란색 망토를 입은 남학생이 마차에서 펄쩍 뛰어내리더니 몸을 앞으로 숙여 마차 바닥에 있는 뭔가를 잠시 만지작거리자, 황금빛 계단이 활짝 펼쳐졌다. 보바통의 남학생은 아주 점잖게 뒤로 물러났다.

잠시 후에 해리는 그 마차 안에서 반짝거리는 검은색 하이힐 구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해리가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몸집의 여자가 나타났다. 비로소 왜 그렇게 거대한 마차와 말들이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몇 사람은 너무나 놀라서 솔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해리는 이 여자만큼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딱 한 명밖에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바로 해그리드였다. 해리는 저 여자와 해그리드의 키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아마도 해리의 눈에 해그리드가 훨씬 더 익숙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거대한 마차의 계단 발치에 서서 눈이 휙둥그레진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는 저 여자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훨씬 더 커다랗게 보였다. 그 여자가 현관에서 훌러나오는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걸어가자, 잘 생긴 올리브 빛 얼굴과 투명하게 보이는 크고 까만 눈, 부리처럼 휘어진 코가 드러났다.

그 여자의 기다란 머리카락은 목 밑에서 반짝거리는 둥근 장식으로 묶여 있었다. 검은색 새틴 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목과 굵은 손가락에는 커다란 오페라 반짝거리고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학생들도 보바통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박수를 쳤다. 많은 학생들은 그녀를 더 잘 보기 위해 까치발을 하기도 했다.

그 여자는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덤블도어 교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렁주렁 보석이 달린 손을 내밀었다. 덤블도어 교수도 제법 키가 큰 편이지만, 그 여자의 손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필요조차 없었다. 그 여자의 키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맥심 부인, 호그와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덤블도어가 정중하게 말했다.

"덤블리-도어어르, 안녕하셨나용?"

맥심 부인이 굵고 낯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반갑게 대답했다.

"우리 학생들이에용."

맥심 부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거대한 손을 흔들었다. 온통 맥심 부인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던 해리는 그제서야 마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겉으로 보기에는 모두들 십대 후반인 것 같았다) 맥심 부인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얇은 비단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을 뿐, 망토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몇 명의 학생들은 스카프나 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해리는 어렴풋이 학생들의 모습을(그들은 맥심 부인의 커다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볼 수 있었는데, 어쩐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호그와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카르카로프는 도착했나용?"

맥심 부인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물었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렸다가 덤스트랭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겠습니까?"

덤블도어 교수의 눈길이 맥심 부인을 향하고 있었다.

"몸을 녹이능 게 조을 것 같아용. 그런데 말드론..."

맥심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차를 끌고 온 말들을 쳐다보았다.

"영려하지 마십시오. 호그와트의 신비한 동물 돌보기 교수님이 기꺼이 맡아 주실 겁니다. 음... 잠시 후에 다른... 좀 사소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면 말입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스크루트야."

론이 씩 웃으면서 해리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저 말드를 다루려면... 저어... 강한 힘과 뛰어난 솜씨가 필요해용. 히미 굉장히 세거든요..."

맥심 부인은 마치 호그와트의 신비한 동물 돌보기 교수님이 과연 자신의 말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해그리드는 말을 잘 다룰 겁니다. 제가 보증하죠."

덤블도어 교수가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조아용. 애그리드를 만나면, 저 말드레게 위스키 딱 향 잔망 주라고 전해주시게써용?"

맥심 부인이 살짝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가자!"

맥심 부인이 보바통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거만하게 말했다. 호그와트 학생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맥심 부인 일행이 돌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은 비켜 주었다.

"덤스트랭의 말은 얼마나 클 것 같니?"

라벤더와 패르바티 너머에 서 있던 시무스 피니간이 고개를 쑥 내밀면서 해리와 론에게 물었다.

"글쎄... 만약 저 말보다 더 크다면, 심지어 해그리드조차도 다를 수 없을 거야. 물론 그것도 해그리드가 스크루트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면 말이지만... 그런데 스쿠르트는 어떻게 된 걸까?"

해리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달아났을지도 몰라."

론이 잔뜩 기대에 차서 말했다.

"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 스쿠르트떼가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걸 한번 상상해 봐..."

헤르미온느가 진저리를 치면서 말했다. 이제 그들은 약간 후들후들 떨면서 덤스트랭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대에 가득 찬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은 맥심 부인의 거대한 말들이 웃음을 내뿜으면서 발을 구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무슨 소리 들었니?"

갑자기 론이 해리의 어깨를 툭 치면서 물었다. 해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에서 원가 소름끼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강바닥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르릉거리면서 원가를 빨아들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잔디 언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검은 호수의 매끄러운 표면이 한눈에 보였다. 그런데 호수의 표면이 마구 출렁거리더니 깊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호수의 표면이 커다란 거품이 일어나면서 질퍽한 둑 위로 파도가 철썩거렸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서 마치 호수 바닥에 있던 거대한 물구멍 마개가 뾰족져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마구 소용돌이가 있었다...

잠시 후에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장대처럼 보이는 길고 까만 것이 천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해리의 눈에 둑대가 보였다...

"돛대야!"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거대한 배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면서 서서히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덤스트랭의 배가 은은한 불빛을 받으면서 번쩍거렸다. 그것은 마치 물에서 건져 올린 난파선처럼 이상하게 빼대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물을 튀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거대한 배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한참 동안이나 요동치는 물 위에서 출렁이던 배는 호수의 둑으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썩!

닻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이번에는 둑 위로 날뛴지를 내리는 소리였다.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고 있었다. 배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통해 그들의 검은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해리는 덤스트랭 학생들이 웬지 크레이브와 고일처럼 덩치가 아주 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덤스트랭 학생들이 현관 복도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다가오자, 체격이 그렇게 커다랗게 보였던 이유는 그들이 북실북실한 모피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을 성으로 인도하는 한 남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처럼 은빛이 감도는 다른 종류의 모피를 입고 있었다.

"덤블도어! 안녕하십니까?"

언덕을 따라 올라오던 남자가 힘차게 외쳤다.

"아주 잘 지냈소. 고맙소, 카르카로프 교수."

덤블도어 교수가 손을 흔들면서 대답했다. 카르카로프의 교수의 목소리는 아주 낭랑하고 매끄러웠다. 현관 불빛에 비친 카르카로프의 모습은 덤블도어 교수처럼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느낌을 주었다. 하얀 머리카락은 짧게 잘랐으며 다소 날카로운 인상의 턱에는 끝이 살짝 밀려 올라간 염소 수염이 나 있었다.

카르카로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덤블도어에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덤블도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운 호그와트."

카르카로프가 성을 올려다보면서 미소짓자, 약간 누런 이빨이 드러났다. 비록 입술은 상냥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이곳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군요. 얼마나 좋은지... 빅터! 자, 서둘러라. 따듯한 곳으로 가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덤블도어? 빅터는 지금 가벼운 코감기에 걸려서..."

카르카로프 교수가 덤스트랭 학생들 가운데 한 명에게 앞으로 손짓했다. 그 학생이 옆을 지나가는 순간, 해리는 그 두드러진 매부리코와 짙은 눈썹을 헐끗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번에 그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론이 해리의 팔을 톡 치면서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해리, 크룸이야!"

제 16 장 불의 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론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잔뜩 들떠서 소리 쳤다. 호그와트 학생들은 일제히 덤스트랭 일행의 뒤를 따라 계단으로 몰려들었다.

"크룸이야, 해리! 빅터 크룸!"

"제발, 론... 크룸은 단지 퀴디치 선수일 뿐이야."

헤르미온느가 론을 쳐다보며 면박을 주었다.

"단지 퀴디치 선수일 뿐이라니?" 론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면서 소리쳤다. "헤르미온느, 크룸은 세계 최고의 수색꾼 가운데 한 명이야! 나는 크룸이 학생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덤스트랭 일행은 호그와트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현관 안의 넓은 복도를 가로질러 연회장으로 향했다. 해리는 리 조던이 빅터 크룸의 뒷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고 발 끝을 세우면서 안간힘을 쓰는 걸 보았다. 6학년 여학생 몇 명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미친 듯이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오, 이럴 수가! 깃펜이 하나도 없어!"

"크룸이 립스틱으로 내 모자에 사인을 해줄까?"

"정말 제정신들이 아니군."

헤르미온느가 이제 립스틱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여학생들 곁을 지나치면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할 수만 있으면 크룸의 사인을 받을 거야. 너 혹시 깃펜 가진 것 없니, 해리?"

론은 조조하게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물었다.

"없어. 깃펜은 위층에 있는 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걸."

그들은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걸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론은 설레는 마음으로 문간이 잘 보이는 쪽에 앉았다. 빅터 크룸과 덤스트랭 학생들이 어디에 앉을지 주저하면서 여전히 그 주위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약간 뚱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둘러보던 보바통 학생들은 래번클로 테이블을 선택했다. 그 중에서 세 명은 연회장으로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스카프나 솔을 두르고 있었다.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망토는 왜 안 가지고 온 거야?"

그들을 지켜보던 헤르미온느가 언짢은 듯이 화를 내면서 말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이쪽으로! 헤르미온느, 조금 더 저리로 가! 자리를 좀 만들어야..."

론이 급하게 외쳤다.

"뭐라구?"

"너무 늦었어."

론이 씹씹하게 말했다. 빅터 크룸과 덤스트랭 학생들이 슬리데린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해리는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이 무척 자랑스러운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말포이는 크룸에게 뭔가 말을 걸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래, 좋아! 실컷 알랑거려라, 말포이." 잔뜩 기분이 상한 론이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크롬은 단번에 말포이 녀석의 정체를 깨뚫어볼 수 있을 거야... 크롬의 주위에는 언제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쟤들이 어디에서 잘 것 같니? 어쩌면 쟌들에게 우리 기숙사의 잠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리, 그렇다면 기꺼이 크롬에게 내 침대를 내줄 수 있어... 나는 그냥 침낭에서 자면 되니까..."

헤르미온느가 콧방귀를 뀌었다.

"어쨌거나 던스트랭 학생들이 보바통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

해리는 래번클로 테이블과 슬리데린 테이블을 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던스트랭 학생들은 무거운 모피 코트를 벗으면서 흥미로 얼굴로 별이 총총 빛나는 연회장의 천장을 쳐다보았다. 두어 명은 황금빛 접시와 잔을 집어 들더니 매우 감동을 받은 듯이 살펴보고 있었다.

호그와트의 학교 관리인 필치가 교직원 테이블에 의자를 더 갖다놓고 있었다. 필치는 이번 행사에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 낡은 연미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해리는 필치가 던블도어 교수 자리 양 옆으로 두 개씩 네 개의 의자를 갖다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바통과 던스트랭의 교장 선생님 두 분만 앉으면 되는 거 아냐? 그런데 왜 필치가 의자를 네 개씩이나 놓는 거지? 누가 또 오나?"

해리가 물었다.

"어?"

하지만 론은 해리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론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빅터 크롬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소속 기숙사 테이블에 자리르 잡자, 교직원들이 줄지어 상석으로 올라갔다. 제일 마지막으로 던블도어 교수와 카르카로프 교수와 맥심 부인이 입장했다. 보바통 일행은 의연한 표정으로 맥심 부인이 던블도어 교수의 왼쪽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서 있었다.

좌중이 모두 자리를 잡자, 던블도어 교사가 일어났다. 일순 떠들썩하던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안녕하십니까? 신사, 숙녀, 유령, 그리고 특빈 내빈 여러분..." 던블도어 교수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다. "호그와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편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여전히 머플러를 두르고 있던 보바통의 여학생들 가운데 한 명이 비웃는 듯한 소리로 웃었다.

"마음에 안 들면 가라지. 아무도 안 불잡아!"

헤르미온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제 연회가 끝나면 공식적으로 트리위저드 시합이 시작될 겁니다."

던블도어 교수가 좌중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모두들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던블도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카르카로프 교수가 위라고 말을 걸었다. 잠시 후에 성대한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주방에서 일하는 꼬마 집 요정들도 전력을 기울인 것 같았다. 다양한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외국 요리도 몇 가지 있었으며, 해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도 아주 많았다.

"저게 뭐지?"

론이 커다란 스테이크와 통팥 푸딩 옆에 조개 스튜 같은 것이 잔뜩 담겨 있는 접시를 가리켰다.

"부이야베스(생선, 조개류에 향료를 넣어서 찐 요리. 프랑스의 항구도시 마르세이유의 명물이다: 역주)야."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알려 줘서 고마워."

론은 성대한 만찬을 둘러보면서 군침을 흘렸다.

"저건 프랑스 요리야. 작년 여름 방학 때 먹어 본 적이 있어. 정말 맛있어." 헤르미온느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네 말을 한 번 믿어 보지."

론이 까만 푸딩을 먹으면서 말했다. 겨우 스무 명 정도만 늘어났을 뿐인데, 연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비는 것 같았다. 어쩌면 색깔이 다른 그들의 교복이 그대로 드러났다.

20분쯤 지나서, 해그리드가 교직원 테이블 뒤에 있는 문을 통해 연회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제일 끝자리로 살금살금 걸어가서 앉더니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향해 온통 반창고 투성이인 손을 흔들었다.

"스크루트는 잘 있어요, 해그리드?"

해리가 해그리드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잘 자라고 있어."

해그리드가 유쾌한 듯이 외쳤다.

"그럴 거야. 무럭무럭 잘 크고 있겠지. 마침내 스크루트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은 것 같구나. 안 그래, 해리? 해그리드의 손가락 말이야."

론이 해리에게 소곤거렸다.

"미안하지만, 그 부이야베스 먹을 거니?"

바로 그 순간 독특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덤불도어 교수가 연설을 하는 동안 내내 비웃었던 보바통의 여학생이었다. 그 여학생은 더 이상 머플러로 머리를 가리고 있지 않았다. 거의 허리까지 훌러내린 기다란 은발 머리가 찰랑거렸다.

그 여학생의 눈동자는 크고 진한 푸른색이었으며, 이빨은 아주 하얗고 가지런했다. 론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론은 마치 넋이 나간 눈빛으로 그 여학생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그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꿀꺽 하는 희미한 소리 이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론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냐. 가져 가도 좋아."

해리는 부이야베스가 담긴 접시를 그 여학생에게 내밀었다.

"그거 다 먹은 거니?"

"음. 굉장히 맛있었어."

론은 간신히 입을 열고 대답했다. 그 여학생은 접시를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래번클로 테이블로 걸어갔다. 론은 마치 여학생이라곤 한 반도 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도저히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론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래, 저 여학생은 벨라가 분명해!"

론이 약간 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 명청이처럼 입을 헤벌쭉 벌리고 저 애를 쳐다보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헤르미온느가 콕 쏘이붙였다, 그러나 헤르미온느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그 여학생이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가자, 수많은 남학생들의 고개가 저절로 돌아갔다. 남학생 몇 명은 꼭 론처럼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다.

"정말이지, 저 애는 보통 여학생이 아니야! 호그와트에는 왜 저런 여학생이 없는지 몰라!"

론이 그 여학생을 좀더 자세히 바라보려고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호그와트에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

해리가 무심결에 말을 내뱉었다. 때마침 그 은발 머리 여학생이 있는 곳에서 몇 테이블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초 쟁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너희 둘 다 눈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헤르미온느가 활발하게 말했다.
"방금 누가 도착했는 지볼 수 있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손가락으로 상석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비어 있던 두 자리 중 둘도 베그만은 카르카로프 교수 옆자리에 앉는 중이었고, 퍼시의 상관인 크라우치 씨는 맥심 부인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여기에 왜 온 거지?"

해리가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바로 저 사람들이 트리위저드 시합을 준비했잖아.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상석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마 시작하는걸 보기 위해 찾아왔을 거야."

두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을 때에도 수많은 종류의 생소한 푸딩들이 보였다. 론은 이상한 종류의 희뿌연 블라망주(우유를 갈분으로 굳힌 과자:역주)를 열심히 쳐다보더니, 래번클로 테이블에서 똑똑히 보이도록 그것을 조심스럽게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 옮겼다. 그러나 벨라처럼 생긴 그 여학생은 이제 배가 부른지 더 이상 음식을 가지러 오지 않았다.

일단 황금 접시들이 깨끗하게 비워지자,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느긋하면서도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덤블도어 교수를 쳐다보았다. 과연 덤블도어가 무슨 말은 할까? 해리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면서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덤블도어 교수를 바라보았다. 약간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프레드와 조지도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덤블도어 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트리위저드 시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자를 갖고 오기 전에, 나는 먼저 몇 마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무슨 상자?"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론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깨를 으쓱거렸다.

"올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제 마법 협력부의 책임자인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 씨와(예의상 마지못해서 치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의 책임자인 루도 베그만 씨를 소개합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루도 베그만은 소개하자, 훌륭한 몰이꾼이었다는 명성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루도 베그만이 훨씬 더 많은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루도 베그만은 답례를 하기 위해 손을 흔들면서 유쾌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는 덤블도어가 소개할 때에도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다.

퀴디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났을 때, 크라우치는 말쑥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해리는 마법사 복장을 하고 있는 크라우치가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칫솔처럼 좁다란 콧수염과 반듯한 가르마는 덤블도어 교수의 기다란 백발 머리와 수염 못지않게 아주 이상해 보였다.

"베그먼 씨와 크라우치 씨는 트리위저드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 지나 몇 달 동안이나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분은 저와 카르카로프 교수, 맥심 부인과 함께 챔피언들의 자질을 평가할 심사위원이십니다."

덤블도어 교수의 입에서 '챔피언'이라는 말이 나오자, 학생들은 더욱 귀를 기울였다.

"좋아. 상자를 갖고 오게, 필치."

갑작스럽게 학생들이 조용해지자, 덤블도어 교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 있던 필치가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덤블도어 교수에게 다가갔다. 그 상자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불빛을 받으면서 반짝거렸다. 높고 흥분한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데니스크리비는 그 광경을 자세히 보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갔지만,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가려서 상석을 볼 수 없었다.

"챔피언들이 금년에 경쟁해야 할 경기 종목에 대해서는 크라우치 씨와 베그만 씨께서 이미 다 검토하셨습니다."

필치가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덤블도어 교수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분은 각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내년 6 월까지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 가지 시험이 치러질 것입니다. 트리위저드 시합은 다양한 측면들... 그러니까... 마법 실력과 대담성, 추리력 그리고 물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까지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덤블도어 교수의 말이 떨어지자, 연회장은 온통 무거운 정적으로 훨씬졌다. 마치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합에서는 세 명의 챔피언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침착하게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참가하는 학교에서 각각 한 명씩 챔피언이 선발됩니다. 챔피언들은 여러 가지 과제를 얼마나 한 명씩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걱정한 점수를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마친 후에 총점이 가장 높은 챔피언이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챔피언들은 공정한 심판관에 의해 선정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 잔'입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요술지팡이를 들고 상자 위를 탁탁탁 세 번 두드리자. 천천히 뚜껑이 열렸다. 덤블도어 교수는 상자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도끼로 대충 다듬은 듯한 커다랗고 거친 나무 잔 하나를 꺼냈다. 만약 그 언저리에서 활활 타오르는 청백색의 불길만 없다면, 그 잔은 전혀 눈길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덤블도어 교수는 상자 뚜껑을 닫은 후에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잔을 상자 위에 조심럽게 내려놓았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작은 양피지에 이름과 학교를 정확하게 적어서 이 잔에 넣어야 합니다. 대망을 품고 있는 학생들은 24 시간 안에 이름을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내일 밤, 그러니까 할로윈데이에 불의 잔은 각 소속 학교를 대표할 만한 학생으로 뽑힌 세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겁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한 번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아직 나이가 되지 않은 학생이 그저 챔피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적어 넣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불의 잔을 현관 복도에 갖다 놓으면 그 주위에 나이 제한선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살이 채 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이 선을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합은 가벼운 마음으로 깊이 새겨 두기 바랍니다. 일단 불의 잔에 의해 챔피언으로 선정된 학생은 이 시합에 끝까지 참가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불의 잔에 이름을 집어넣는 것과 동시에 구속력 있는 마법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챔피언으로 선정되면 결코 이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 잔에 이름을 넣기 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취침 시간이 된 것 같군요.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이 제한선이라니! 나이 먹는 약을 먹으면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을거야. 그렇지? 그리고 일단 이름이 불의 잔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거야. 불의 잔이 이름의 주인이 과연 열입곱 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연회장에서 나가는 프레드 위즐리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하지만... 열일곱 살 미만인 사람은 별로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아직 마법을 충분히 배우지도 않았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론 너도 참가하겠지? 그렇지?

조지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무뚝뚝하게 물었다. 해리는 열일곱 살 미만인 사람은 절대로 이름을 제출할 수 없다는 덤블도어 교수의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내 품에 우승컵을 안을 수만 있다면... 우승컵을 들고 손을 흔드는 멋진 영상이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만약 열일곱 살 미만인 어떤 학생이

나이 제한선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찾아낸다면, 과연 덤블도어 교수는 버럭 화를 낼 것인가?

"그런데 크롬은 어디 있지?" 하지만 론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대화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론이 갑자기 빅터 크롬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말했다. "덤스트랭 학생들이 어디서 잘 건지 아직 덤블도어 교수가 말하지 않았지? 안그래?

하지만 론의 궁금증은 즉시 해결되었다. 그들이 슬리레린 테이블을 지나가고 있을 때 카르카로프 교수가 허둥지둥 덤스트랭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서 바로 돌아가자" 카르카로프 교수가 덤스트랭 학생들에게 말했다. "빅터, 너는 좀 어떻니? 많이 먹었니? 주방에서 부탁해서 멀드 포도주(설탕과 향료와 달걀 노른자 등을 넣어서 따뜻하게 데운 포도주: 역주)라도 한 잔 보내줄까?

해리는 빅터 크롬이 다시 모피 코트를 입으면서 고개를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

"교수님, 저도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덤스트랭의 다른 남학생이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네겐 줄 생각이 없다. 폴리아코프." 카르카로프 교수는 마치 아버지처럼 자상했던 미소를 싹 거두면서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옷 앞자락에 또 음식을 흘렸구나. 이런 지겨운 녀석..."

카르카로프 교수는 덤스틀애 학생들을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문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도 그곳에 도착했다. 해리는 카르카로프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걸음을 멈추었다.

"고맙다"

카르카로프 교수는 해리를 힐끔 쳐다보며 무심코 말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멈추어 섰다. 카르카로프 교수는 다시 해리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빤히 바라보았다. 카르카로프 교수의 등 뒤에 서 있던 덤스트랭 학생들도 역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카르카로프 곳의 눈이 해리의 얼굴 위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이마에 나 있는 흉터에서 고정되었다. 덤스트랭 학생들도 신기한 듯이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결눈질로 몇 명의 학생들이 무슨 일인지 알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걸 보았다. 앞자락에 온통 음식을 묻힌 남학생이 옆에 있는 여학생을 팔꿈치로 슬쩍 찌르면서 공공연하게 해리의 이마를 가리켰다.

"그래, 재가 바로 해리 포터란다."

갑자기 호통을 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카르카로프 교수가 얼른 뒤로 돌아섰다. 매드아이 무디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마법의 눈으로 덤스트랭의 교장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타르카로프 교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썩 사라졌다. 그리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소름끼치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카르카로프 교수는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디 교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날세." 무디 교수가 험학한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그런데 포터에게 할 말이 없다면 그만 나가 주겠나, 카르카로프? 자네가 문을 막고 있다네."

그것은 사실이었다. 연회장에서 나오던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무엇 때문에 문이 막혀 있는지 알아보려고 앞 사람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면서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르카로프 교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덤스트랭 학생들과 함께 흑 지나갔다. 무디 교수는 마법의 눈을 카르카로프 교수의 등에 고정시킨 채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줄곧 지켜보았다. 해리는 온통 흉터로 가득한 무디 교수의 얼굴이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소보다 늦게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다른 주말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난 사람은 비단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현관 복도로 내려가자 벌써 스무 명 정도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짹을 지어서 불의 잔 주위를 빙빙 맴돌고 있었다. 불의 잔은 마법의 모자를 올려놓았던 바로 그 의자 위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복도

바닥에는 불의 잔 주위로 지름이 3 미터 정도 되는 가느다란 황금빛 원이 그려져 있었다.

"이름을 넣은 사람이 있니?"

론이 어떤 3 학년 여학생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모두 덤스트랭 학생들이야. 하지만 호그와트 학생은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어."

그 여학생의 눈길은 여전히 불의 잔을 향하고 있었다.

"틀림없니 어젯밤에 우리 모두가 잠을 자러 간 후에 넣었을거야.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름을 넣으려면 쑥스러울 테니까... 막 뒤로 돌아서는 순간에 그 잔이 탁 침이라도 뱉으면 어떻게 해?"

해리가 론의 어깨를 톡 치면서 말했다. 그런데 해리의 등 뒤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프레드와 조지와 리 조던이 아주 흥분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조금 전에 먹었던 말이야."

프레드가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뭘?"

론이 물었다.

"나이를 먹는 약 말이야. 이 멍청아."

프레드가 핀잔을 주었다.

"한 사람이 한 방울씩... 우린은 그저 몇 달만 더 늙으면 돼."

조지가 기쁜 듯이 두 손을 마주 비비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 중에서 한 명이 우승을 한다면 1000 갈레온의 상금을 세 명이 똑같이 나눠 가질거야."

리 조던이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아무래도... 그게 통할거 같지않아. 덤블도어 교수님은 분명히 그 점을 염두에 두셨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마치 경고하듯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프레드와 조지와 리는 헤르미온느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자, 준비가 되었니? 좋아! 내가 먼저 가겠어..."

프레드가 몹시 흥분한 목소리로 다른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해리는 약간 얼이 빠진 듯한 표정으로 프레드가 주머니 속에서 '프레드 위즐리-호그와트'라는 글씨가 적힌 작은 양피지 조각을 꺼내는 걸 바라보았다.

프레드는 나이 제한선의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마치 15 미터 높이에서 다이빙을 준비하는 다이빙 선수처럼 발끝을 들고 섰다. 잠시 후에 흐르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나이 제한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복도는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프레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 효과가 있어! 해리는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조지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는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프레드의 뒤를 따라 펄쩍 나이 제한선을 뛰어넘었다.

우당탕!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 형제는 허공을 가로질러서 3 미터 가량 봉 날아가더니 차가운 돌바닥 위에 떨어지고 말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포환 선수가 쌍둥이 형제를 황금빛 원 밖으로 집어던진 것 같았다. 해리는 두 사람의 얼굴에 길고 하얀 수염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현관 복도는 온통 웃음 바다가 되었다. 심지어 프레드와 조지조차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상대방의 얼굴에 난 수염을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경고했지."

웃음을 잔뜩 머금고 있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들 고개를 들리자 덤블도어 교수가 연회장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덤블도어 교수가 연회장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덤블도어 교수는 눈을 반짝이면서 프레드와 조지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지금 당장 두 사람 다 품프리 부인에게 올라가 보는 것이 좋겠다. 품프리 부인은 이미 래번클로의 포싯 양과 후플푸프의 섬머스 군을 돌보고 있단다. 그 애들도 역시 나이를 조금 올려 보려고 했지. 하지만 이 점만을 분명히 말해 두고 싶구나. 그 애들의 수염은 두 사람의 얼굴에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단다."

프레드와 조지는 여전히 깔깔 웃고 있는 리 조던의 부축을 받으면서 병동으로 출발했다. 해리와 롤과 헤르미온느 역시 웃음을 터뜨리면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연회장의 장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오늘이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일까? 살아 있는 박쥐떼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마법에 걸린 천장 주위를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있는가 하면, 얼굴 모양이 새겨진 할로윈 호박 수백개가 곳곳에서 학생들을 흘겨보고 있었다. 해리는 딘과 시무스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들은 열일곱 살 이상이 된 호그와트의 학생 중에서 누가 이름을 넣었는지에 대해 한창 떠들고 있는 중이었다.

"워링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름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어. 꼭 나무늘보처럼 생긴 슬리데린의 덩치 큰 녀석 말이야."

딘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워링턴과 퀴디치 경기를 한적이 있는 해리는 그만 질색을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슬리데린에서 챔피언이 나오게 할 수는 없어!"

"후플푸프 아이들은 모두 디고리에 대해 말하고 있어. 하지만 뻔질뻔질하기만 한 그 녀석이 과연 그 잘난 얼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까?"

시무스가 경멸하는 투로 소리쳤다.

"저 소리를 좀 들어 봐!"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현관 복도에 서 있던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 일제히 몸을 돌린 그들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연회장으로 들어온은 알젤리나 존슨을 바라보았다. 안젤리나는 그리핀도르의 퀴디치 팀에서 주격꾼을 맡고 있는 키가 큰 흑인 여학생이었다. 안젤리나는 그들이 있는 테이블로 곧장 다가왔다.

"내가 했어! 막 내 이름을 넣었어!"

안젤리나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설마!"

론은 몹시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네가 벌써 열일곱 살이란 말이야?"

해리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물론이지. 네 눈에는 안젤리나의 수염이 보이지 않니?"

론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한 마디를 거들었다.

"지난 주에 생일이 지났어."

안젤리나가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대답했다.

"어쨌거나 그리핀도르의 학생도 참가한다니까 기뻐. 정말 잘 하길 바래. 안젤리나!"

헤르미온느가 안젤리나를 쳐다보면서 격려했다.

"고마워. 헤르미온느."

안젤리나가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멋만 잔뜩 부리는 디고리 녀석보다야 네가 훨씬 낫지."

시무스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하자 때마침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후플푸프 학생 몇 명이 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지금부터 뭘 하는게 좋을까?"

아침 식사가 끝나자, 롤이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우린 요새 해그리드를 찾아가지 않았잖아."

해리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했다.

"좋아. 해그리드가 스쿠루트에게 우리 손가락 몇 개를 기부하라고만 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론이 대답했다. 갑자기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맞아! 내가 왜 아직까지 해그리드에게 S. P. E. W.에 가입하라고 하지 않았는지 몰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얼른 위층에 올라가서 배지를 갖고 올테니깐... 알았지?"

헤르미온느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재빨리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는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론이 신경질을 부렸다.

"야. 론. 헤르미온느는 네 친구야..."

해리가 말했다. 바로 그때 보바통에서 온 학생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벨라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불의 잔 주위에 모여있던 아이들은 그들이 지나갈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면서 보바통 학생들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잠시 후에 현관으로 들어온 맥심 부인은 보바통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웠다. 보바통 학생들은 차례차례 나이 제한선을 넘어서 양피지 조각을 청백색의 불길 속에 넣었다. 이름이 불의 잔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불길이 잠시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타닥타닥 불꽃을 내뿜었다.

"선택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벨라 소녀가 불의 잔에 양피지 조각을 넣을 때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호그와트에 머물면서 시합을 지켜볼까?"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어쩐지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 맥심 부인은 심사를 하기 위해 머물 거잖아?"

해리가 대답했다. 보바통 학생들이 모두 이름을 집어넣자, 맥심 부인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그런데 저 애들은 어디서 자지?"

론이 보바통 학생들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물었다. 그런데 해리의 등 뒤에서 덜거덕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헤르미온느가 S. P. E. W. 배지 상자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서둘러."

론은 이렇게 말하고는, 맥심부인과 함께 잔디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 벨라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금지된 숲 가장자리에 있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 보바통 학생들의 숙소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렸다.

보바통 학생들이 타고 왔던 거대한 담청색 마차가 해그리드의 오두막 현관에서 200 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었다. 보바통 학생들은 다시 그 마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차를 끌고온, 코끼리처럼 거대한 말들은 이제 그 옆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마구간이 딸린 작은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해리가 해그리드의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팽이 벼락같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또 제가 사는 곳을 당신이 잊어버린줄..."

해그리드가 문을 확 열면서 말했다.

"정말로 바빴어요. 해그..."

헤르미온느는 뭐라고 대답을 하다가, 해그리드의 모습을 보자 그만 할 말을 잊어버렸다.

해그리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끔찍한) 털이 달린 갈색 양복에 노란색과 오렌지 체크 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건, 윤후유처럼 보이는 것을 듬뿍 발라서 마구 빼치는 머리카락을 양전하게 누르려고 한 것이다.

게다가 평소엔 마구 헝클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곱게 묶었다. 아마도 빌의 머리처럼 가지런히 하나도 묶으려고 시도하다가, 머리숱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으로 나눈 모양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해그리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음... 스크루트는 어디에 있어요?"

헤르미온느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해그리드를 쳐다보았지만, 해그리드의 외모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호박밭이 있어. 스크루트들은 아주 빨리 자라고 있어. 이제는 길이가 거의 1미터 정도는 될거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스크루트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기 시작했거든."

해그리드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그럴 수가... 그게 정말이에요?"

헤르미온느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표정으로 재빨리 론을 채려보았다. 해그리드의 이상야릇한 헤어스타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론이 원가 한 마디 하려고 막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 하지만 괜찮아. 스크루트를 제각기 다른 상자에 넣어두었거든. 그래서 아직 스무마리 가량이나 남아있어."

해그리드는 애처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론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마치 스크루트가 몽땅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침대에는 누비이불이 덮여 있었으며, 벽난로에는 커다란 나무 탁자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오두막의 천장에는 훈제 햄들과 죽은 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해그리드가 차를 끓이는 동안,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탁자에 앉아서 트리위저드 시합에 토론에 열중했다. 해그리드도 그들만큼이나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만 기다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테니까... 첫번째 시합은... 하지만 난 말하면 안돼!"

해그리드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어서 말해 보세요. 해그리드!"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그들은 잔뜩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해그리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그저 씩 웃으면서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그 시합을 망치고 싶진 않아." 해그리드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굉장할거라는 건 분명히 약속을 할 수 있어. 챔피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거야. 난 살아생전에 트리위저드 시합을 또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들은 해그리드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하지만 그다지 많이 먹지는 못했다. 해그리드가 먹음직스러운 쇠고기 캐서리를 내놓기는 했지만, 헤르미온느가 먹던 음식에서 커다란 갈고리 발톱을 발견하자, 그만 식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들은 말뚱말뚱 눈빛으로, 해그리드에게서 트리위저드 시합의 과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누가 호그와트의 챔피언으로 선발될 것인가? 프레드와 조지의 수염이 이제는 없어졌을까? 그들은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가 지나면서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벽난로 옆에 앉아서 창문을 때리는 부드러운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던 해리와 론은 느긋한 마음으로 해그리드와 헤르미온느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해그리드는 양말을 꿰매면서 꼬마 집요정들의 복지에 대해 헤르미온느와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것은 아주 기분좋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헤르미온느가 S. P. E. W. 배지를 들이밀면서 모임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자 해그리드가 딱 잘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결국 꼬마 집요정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거야. 헤르미온느, 꼬마 집요정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돌보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꼬마 집요정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시종을 드는 거야. 알겠니? 꼬마 집요정에게서 일을 없애는 건 오히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꼬마 집 요정을 모욕하는 셈이야."

해그리드가 빠로 만든 커다란 바늘에 두꺼운 노란색 뜨개질을 꿰면서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도비를 풀어 줬어요. 도비는 자유를 얻은 것을 아주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도비가 봉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발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래. 어느 종족이나 별난 녀석들이 있는 법이지. 나는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 이상한 요정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절대로 꼬마 집요정 대부분이 도비처럼 행동하도록 설득하지는 못할 거야. 안돼! 아무래도 안 되겠어.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는 기분이 뜯시 상해서 배지 상자를 다시 망토 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5시 30분이 되자 서서히 땅거미가 깔리면서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론과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할로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더욱 중요한 일은, 바로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는 각 학교의 챔피언들을 선발하는 일이었다) 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같이 가자. 잠깐만 기다려."

해그리드가 꿰맨 양말을 치우면서 말했다. 해그리드는 벌떡 일어나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으로 걸어가더니 서랍을 뒤적거리면서 원가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도 해그리드의 행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곧 아주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다.

"해그리드, 그게 뭐예요?"

마침내 론이 기침을 하면서 물었다.

"어? 이제 싫으니?"

손에 커다란 병을 들고 서 있는 해그리드가 빙 돌아섰다.

"에프터쉐이브 로션이에요?"

헤르미온느가 놀라서 물었다.

"이건 저... 오드 콜로뉴(향수의 일종:역주)야" 해그리드가 얼른 고개를 숙이면서 중얼 거렸다. 해그리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런게 좀 많이 뿐렸나봐. 가서 냄새좀 없애고 오겠어. 잠깐만 기다려라..."

해그리드는 오두막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그들은 창문 너머로 열심히 몸을 씻고 해그리드를 쳐다보았다.

"오 드 콜로뉴라고? 해그리드가 향수를?"

헤르미온느가 전혀 뜻밖이라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머리와 옷은 또 어떻구?"

해리도 해그리드의 변신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다.

"저기를 봐!"

갑자기 론이 창문 밖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해그리드가 막 허리를 펴고 돌아서고 있었다. 해그리드의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창 밖을 내다보았다.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막 마차에서 나오는 맥심 부인과 보바통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해그리드는 마치 뉘이 나간 것 같은 몽롱한 눈빛으로 맥심 부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그런 눈빛을 오래전에(아기용 노버트를 바라보고 있었을때)딱 한번 본적이 있었다.

"해그리드가 맥심 부인과 함께 가려나 봐! 우리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헤르미온느가 잔뜩 볼멘 목소리로 말했다. 오두막을 돌아보는동 마는 동하면서 해그리드는 맥심 부인과 함께 교정을 걸어가고 있었다. 보바통 학생들은 성큼성큼 걸어가는 두 사람의 걸음을 따라가기 위해 거의 달음박질 치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맥심 부인을 좋아하나봐! 그런데... 만약 저 둘이 아기를 갖게 된다면, 아마도 세계 기록을 세울거야. 둘 사이에 아기라도 생긴다면 분명히 몸무게가 1톤은 나갈 테니깐."

론은 믿을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들은 오두막에서 나와 서둘러 문을 닫았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했다. 그들은 망토를 더욱 바싹 끌어당기면서 비탈진 잔디밭을 따라 올라갔다.

"앗, 저기 좀 봐!"

헤르미온느가 손가락으로 호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덤스트랭 일행이 성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빅터 크롬은 카르카로프 교수와 나란히 걷고, 다른 학생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론은 잔뜩 기대에 찬 눈으로 빅터 크롬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와 론과 해리보다 조금 먼저 현관에 도착한 빅터 크롬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촛불이 연회장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불의 잔은 덤블도어 교수앞에 놓여 있었다.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지 못해서 실망이 무척 커를 프레드와 조지는(깨끗하게 수염을 면도한) 그래도 잘 견디고 있을 것 같았다.

"안젤리나가 됐으면 좋겠어."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가 자리에 앉자, 프레드가 잔뜩 기대 하면서 말했다.

"동감이야. 어쨌거나 곧 알게 되겠지!"

헤르미온느가 숨을 죽이면서 조용하게 말했다. 할로윈 만찬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겨우 이를동안 벌써 두 번째 열리는 만찬이기 때문인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 놓은 음식들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회장에 모여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해리도 안절부절못하면서 목을 길게 뻗으면서 덤블도어 교수가 식사를 끝마쳤는지 계속 확인했다. 어서 빨리 저녁 식사가 끝나고 누가 챔피언으로 선정되었는지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마침내 황금빛 접시들이 썩썩 비워지자 갑자기 연회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덤블도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모두들 입을 굳게 다물었다. 덤블도어 교수 양쪽에 앉아 있는 카르카로프 교수와 맥심 부인 역시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긴장한 표정이었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챔피언이 선발되는 순간을 애탏게 기다렸다. 루도 베그만은 학생들을 향해 눈을 징긋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크라우치는 챔피언 선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몹시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불의 잔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덤블도어 교수가 좌중을 둘러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제 1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챔피언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연회장 위로 올라와서 교직원 테이블 뒤쪽에 있는 옆방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손가락으로 작은 뒷문을 가리켰다. "챔피언들은 그곳에서 첫 번째 지시를 받게 될 겁니다."

덤블도어 교수는 요술지팡이를 꺼내더니 획하고 세게 한 번 휘둘렀다. 즉시 얼굴 모양이 새겨진 할로윈 호박 속에 들어 있던 촛불 이외에는 모든 촛불들이 한꺼번에 꺼졌다. 순식간에 연회장이 짙은 어둠으로 훔싸였다. 불의 잔은 연회장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청백색으로 빛나는 불길이 너무나 밝게 타올라서 거의 눈이 아플 정도였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면서 챔피언이 선발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사람은 초조한 듯이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몇 초 안 남았어."

해리와 두 자리 옆에 떨어진 곳에 있던 리 조던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불의 잔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허공으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불길이 확 솟구치더니 까맣게 탄 양피지 조각 한 장이 펄럭거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덤블도어 교수는 양피지 조각을 집어 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어느 사이에 불길은 다시 청백색으로 변해 있었다.

"덤스트랭의 챔피언은..." 덤블도어 교수는 힘차고 분명한 목소리로 양피지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빅터 크롬!"

"그거야 당연하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지자, 론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외쳤다. 슬리데린 테이블에 앉아 있던 빅터 크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구부정하게 숙인 채, 덤블도어 교수가 있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빙 돌아 교직원 테이블이 뒤에 있는 문을 통해 옆방으로 사라졌다.

"브라보 빅터!" 카르카로프 교수는 그 요란한 박수갈채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렁차게 외쳤다. "네가 될 줄 알았다!"

잠시 후에 박수 소리와 재잘거리는 소리가 점차 사그라들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불의 잔으로 쏠렸다. 불의 잔 속의 불길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 불길 속에서 튀어나온 두 번째 양피지 조각이 허공으로 치솟았다.

"보바통의 챔피언은 플뢰르 델라쿠르입니다!"

덤블도어 교수가 양피지를 집어 들고 말했다.

"그 애야, 론!"

해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꼭 벨라처럼 생긴 그 여학생은 우아한 태도로 일어나더니, 은발 머리를 흔들면서 래번클로와 후풀푸프 테이블 사이로 지나갔다.

"어머, 저기를 봐! 다른 학생들이 무척 실망했나 봐."

헤르미온느가 보바통의 나머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러나 '실망'이라는 말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표현이었다. 챔피언 선발전에서 탈락한 여학생들 가운데 두 명은 양팔에 얼굴을 파묻은 채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플뢰르 델라쿠르의 모습이 옆방으로 사라지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이번에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그와트의 챔피언은 과연 누구일까?

불의 잔이 다시 한 번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불길이 허공으로 높이 치솟았을 때, 덤블도어 교수가 세 번째 양피지 조각을 집었다.

"호그와트의 챔피언은..." 덤블도어 교수가 외쳤다. "케드릭 디고리!"

"안 돼!"

론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지만 해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론의 말을 듣지 못했다. 후풀푸프 테이블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후풀푸프 학생들은 모두들 벌떡 일어나더니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쿵쿵 굴렀다.

케드릭은 의기양양하게 씩 웃으면서 교직원 테이블 뒤에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케드릭에 대한 박수갈채는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좋아요!" 마침내 소란이 가라앉자, 덤블도어 교수가 유쾌하게 외쳤다. "이제 챔피언 세명이 모두 선발되었습니다. 나는 보바통과 덤스트랭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호그와트의 학생들 모두가 자기 학교의 챔피언에게 전심전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챔피언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갑자기 덤블도어 교수가 말을 멈추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원가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았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덤블도어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이내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달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의 잔 속에서 타오르던 불길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던 것이다. 그리고 불꽃이 탁탁 튀어오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길이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어느 사이에 한 장의 양피지 조각이 나타났다.

덤블도어 교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서 양피지를 잡았다. 그리고 양피지에 적힌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덤블도어 교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양피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의혹에 찬 눈길로 덤블도어 교수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덤블도어 교수가 목을 가다듬더니 양피지에 적힌 이름을 읽었다.
"해리 포터!... "

제 17 장 네 명의 챔피언

그 순간 해리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리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끔짝도 할 수가 없었다. 해리의 몸은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다.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 잘못 들었던 것이 분명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불의 잔 속에서 내 이름이 나오다니....

박수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에 성난 벌떼들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마치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끔짝도 하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해리의 모습을 좀더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상석을 쳐다보았다. 맥고나걸 교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루도 베그만과 카르카로프 교수 옆을 지나서 덤블도어 교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황급히 덤블도어 교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덤블도어 교수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면서 맥고나걸 교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 너머로 기다란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린 채,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내 이름을 써 넣지 않았어." 해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건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두 사람도 명하니 해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상석에 앉아 있던 덤블도어 교수가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똑바로 세웠다.

"해리 포터!" 덤블도어 교수가 다시 한 번 해리의 이름을 불렀다. "해리!
이리로 올라와라!"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등을 살짝 떠밀면서 속삭였다.

"어서 가."

자리에서 일어서던 해리는 실수로 옷자락 끝을 밟아서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리핀도르와 후플푸프 테이블 사이에 나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짧은 거리가 해리에게는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선생님들이 앉아 있는 상석은 단 한 걸음도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았다. 해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백 개의 눈동자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마치 그 시선 하나 하나가 해리를 살살이 훑어보는 탐조등과도 같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해리는 상석으로 올라가 덤블도어 교수 앞에 똑바로 섰다. 해리는 문득 선생님들도 모두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문으로 나가거라, 해리."

덤블도어 교수가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는 미소조차 짓고 있지 않았다.

해리는 선생님들의 테이블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해그리드는 제일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처럼 해리를 향해 윙크를 던지거나 손짓을 하면서 반가움을 표시하지 않았다. 해그리드는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해리가 곁을 지나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명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해리는 연회장의 문을 지나서 마녀와 마법사의 초상화가 벽에 출지어 걸려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바로 맞은편 벽난로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해리가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초상화의 얼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면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바싹 마른 마녀가 초상화 액자 속에서 뛰쳐나오더니 옆에 걸려 있는 초상화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초상화 안에는 팔자 수염을 기르고 있는 마법사가 있었는데, 바싹 마른 마녀는 그 마법사의 귀에 대고 열심히 뭐라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빅터 크룸, 케드릭 디고리 그리고 플로르 렐라쿠르가 벽난로 주위에 모여 있었다. 타오르는 불길 너머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등을 구부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크룸은 다른 두 사람들과는 조금 떨어진 채, 벽난로 선반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케드릭은 뒷짐을 지고 불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플로르 렐라쿠르는 해리가 다가오자,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긴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징? 우리더러 연회장으로 돌아오라고 하드농?"

플로르 렐라쿠르는 해리가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리는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 명의 챔피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문득 세 사람 모두 아주 키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해리의 등 뒤에서 누군가 종종걸음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루도 베그만이 방으로 들어왔다. 루도 베그만은 해리의 팔을 잡더니 앞으로 이끌었다.

"이상한 일이군!"

베그만은 해리의 팔을 꽉 붙잡으면서 중얼거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신사 숙녀 여러분... 좀처럼 믿을 수 없겠지만, 어쨌거나 네 번째 트리위저드 챔피언을 소개하도록 할까요?"

베그만이 벽난로를 향해 다가오더니 다른 세 사람에게 해리를 소개했다.

벽난로 선반에 기대고 있던 빅터 크룸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해리를 보자, 지르퉁한 빅터 크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케드릭은 무척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케드릭은 베그만의 말을 잘못 들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베그만과 해리를 자꾸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하지만 플로르 렐라쿠르는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긴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겼다.

"오, 베그만씨. 종말 재미있는 농담이에용."

"농담이라니?" 베그만은 어쩔 줄을 모르면서 반문했다. "아니,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해리의 이름이 불의 잔에서 나왔단다."

빅터 크룸의 짙은 눈썹이 잠시 붙었다가 떨어졌다. 케드릭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것 같았다. 플로르 렐라쿠르가 인상을 잔뜩 찌푸렸다.

"분명히 착오가 생긴 거예용." 플로르 렐라쿠르는 거만한 목소리로 베그만에게 말했다. "이 친구는 경쟁 상대가 안돼용. 너무 어려용."

"글세... 이것 참 놀라운 일이야." 베그만은 한 손으로 부드러운 턱을 문지르면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해리를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다시피, 원래 나이 제한은 더욱 철저한 안전을 위해서 올해에만 특별히 실시된 거예요. 어쨌거나 해리의 이름이 불의 잔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단계에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규칙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야만 해요. 해리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다시 문이 열리더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작은 방으로 들어왔다. 덤블도어 교수가 선두에 있었으며 크라우치씨와 카르카로프 교수, 맥심 부인, 맥고나걸 교수, 스네이프 교수가 그 뒤를 따랐다.

"맥심 부인!" 플로르 렐라쿠르는 당장 자기 학교의 교장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죠 사람들이 죠 쪼꼬만 남자애도 트리위저드 시합에 나갈 거라공 말했어용!"

이 말을 듣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던 해리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분노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쪼꼬만 남자애라고?

맥심 부인이 거대한 몸을 쭉 펴자, 그녀의 잘생긴 머리 꼭대기가 양초를 가득 꽂아 놓은 상들리에에 달았다. 검은 비단으로 둘러싸인 맥심 부인의 커다란 가슴은 불쑥 솟아올라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죵? 덤블리-도어어르?"

맥심 부인이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무슨 일인지 알고 싶군요." 카르카로프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카르카로프 교수의 얼굴에는 강철같은 미소가 어려 있었으며, 그의 푸른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호그와트의 챔피언이 두 명이라니? 트리위저드 시합을 주최하는 학교라고 해서 두 명의 챔피언을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시합 규칙을 자세히 읽어 보지 못한 탓일까요?"

카르카로프 교수는 짧고 심술궂은 웃음 소리를 내었다.

"腮 앵포씨블!(그건 안 될 말이에요)" 맥심 부인은 여러 개의 커다란 오펠 반지가 반짝거리는 거대한 손을 펼리르 델라쿠르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호그와트만 두 명의 챔피언을 내보낼 수는 없어용. 그건 불공평해용."

"우리는 당신이 제안했던 나이 제한선이 어린 선수의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곧 받았습니다, 덤블도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우리 학교 내에서 더욱 폭넓은 후보자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카르카로프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정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차갑게 빛났다.

"카르카로프, 그건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오. 모두 다 포터 때문이오. 포터가 규칙을 깨뜨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덤블도어를 비난할 건 없소. 저 녀석은 이곳에 온 이후로 줄곧 규칙을 어기고 있었으니까..."

스네이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악의로 번뜩이고 있었다.

"고맙네, 세베루스. 그만 하게."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말을 끊자, 스네이프는 곧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앞으로 흘러내린 기름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스네이프의 눈동자는 여전히 적의로 가득 차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가만히 해리를 내려다보았다. 해리는 똑바로 덤블도어 교수를 바라보면서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교수의 눈동자에 떠오르는 표정을 읽으려고 애를 썼다.

"해리, 네가 불의 잔에 네 이름을 써 넣었니?"

덤블도어가 조용히 물었다.

"아닙니다."

해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모든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스네이프는 조그맣게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찬 소리를 내었다.

"네가 상급 학생에게 불의 잔에 네 이름을 넣어 달라고 부탁했니?"

덤블도어 교수는 스네이프를 무시하면서 계속 물었다.

"아니에요."

해리가 격렬하게 부인했다.

"아하! 물론 죠건 거짓말이에용!"

맥심 부인이 소리쳤다. 스네이프는 입술을 말아 올린 채, 열심히 고개를 흔들었다.

"해리는 나이 제한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동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덤블리-도어어르, 나이 제한선에 무엇인가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해용."

맥심 부인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덤블도어가 예의 바른 태도로 대답했다.

"덤블도어 교수님, 교수님께서 절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수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맥고나걸 교수는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해리는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는 해리가 상급 학생을 설득해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 후에 맥고나걸은 스네이프 교수를 무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크라우치 씨... 배그만 씨." 카르카로프가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카르카로프의 목소리는 다시 간드러지게 변했다. "두 분은 우리의 공정하신 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절대적으로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동의하시겠죠?"

베그만은 난처한 듯이 손수건을 꺼내더니 어린 소년처럼 둥글고 통통한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불길이 던지는 둑근 불빛 밖에 서 있는 크라우치를 바라보았다.

크라우치의 얼굴은 어둠 속에 절반 가량 가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약간 으스스하게 보였다. 그의 얼굴을 절반 가량 가지고 있던 어둠은 그를 훨씬 더 늙어 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골 같은 인상을 풍기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규칙에는 분명히 불의 잔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은 이 시합에 참가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티는 트리위저드 시합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깨뚫고 있답니다."

베그만은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이 환한 얼굴로 카르카로프와 맥심 부인을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학생들의 이름도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랍니다." 카르카로프가 항의를 하고 나섰다. 카르카로프의 간드러진 목소리와 매끄러운 미소는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카르카로프의 얼굴은 추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다시 한 번 불의 잔을 세우시오. 우리는 각 학교에서 모두 두 명의 챔피언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집어넣겠소.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오, 덤블도어."

"하지만 카르카로프, 그럴 수는 없어요. 불의 잔은 조금 전에 깨졌단 말입니다. 다음 시합이 시작될 때까지는 절대로 다시 타오르지 않을 거요."

베그만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다음 시합에 덤스트랭은 절대 참가하지 않겠소!"

카르카로프가 벌컥 화를 내었다. "그토록 수많은 회의와 협상과 탐험을 거쳤는데,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소! 나는 이제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오!"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게, 카르카로프." 갑자기 문이 있는 곳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자네 학교의 챔피언은 떠날 수가 없어. 그는 이미 시합을 시작했으니까... 그들 모두 다 말이야. 덤블도어가 말한 대로 마법의 계약에 묶였단 말이야. 참 편리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무디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무디는 절뚝거리면서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오른쪽 발을 옮길 때마다 덜컹하는 육중한 소리가 났다.

"편리하다니?" 카르카로프가 무디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무디."

해리는 카르카로프가 마치 무디의 말이 전혀 신경을 쓸 가치가 없다는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기색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카르카로프의 손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았다. 어느 틈에 단단하게 주먹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무디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아주 간단하다네, 카르카로프. 이름이 불의 잔에서 나오면 반드시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불의 잔에 포터의 이름을 집어넣었지."

"분명히 어떻 사람이 오그와트에게 사과를 두 번 베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용!"

맥심 부인이 끼어들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맥심 부인. 저는 마법부와 국제 마법사 연맹에 항의서를 보낼 생각..."

카르카로프는 맥심 부인을 향해 공손하게 절을 했다.

"이 중에서 정말 불평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해리 포터야." 무디가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군... 나는 해리가 한 마디라도 불평하는 걸 듣지 못했는데..."

"죠 아이가 왜 불평을 하겠어용?" 플뢰르 델라쿠르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죠 아이는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용? 아닌가용? 우리는 선택되기 위해서 몇 주일 또 몇 주일이나 기다렸어용! 우리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용! 그리고 상금으로 받게 될 1000 갈레온! 그거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라동 걸 만한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용!"

"아마도 누군가 포터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지."

무디가 최대한 거친 목소리를 감추면서 말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일순 팽팽한 긴장과 침묵이 감돌았다.

루도 베그만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초조하게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말했다.

"무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무디 교수는 점심 식사 전에 자신을 살해하려는 여섯 개의 음모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침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카르카로프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의 학생에게 암살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치는 선생치고는 참 이상한 자질을 갖고 있군요. 물론 덤블도어 선생께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무디 선생을 고용하셨겠지만 말입니다."

"내가 엉뚱한 상상을 한단 말인가? 헛것을 본다구? 불의 잔에 해리의 이름을 집어넣은 자는 아주 뛰어난 솜씨를 가진 마법사나 마녀가 분명해."

무디가 호통을 쳤다.

"무슨 증거가 있나용?"

맥심 부인이 커다란 손을 들어 올리면서 물었다.

"아주 강력한 마법의 물건을 혼혹시켰기 때문이야! 그 잔을 감쪽같이 속여서 이 시합에는 오직 세 개의 학교만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도록 하려면, 특별히 강력한 혼동 마법이 필요하지. 나는 아마도 그들이 포터의 이름을 네 번째 학교에 집어넣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그 학교의 후보자는 오직 해리 한 사람밖에 없도록 말이야..."

무디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무척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무디." 카르카로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아주 천재적인 이론입니다. 물론 나는 당신이 최근에 생일날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교묘하게 위장된 바실리스크 알이라는 생각을 품고 산산조각을 내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여행용 휴대 시계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주장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해하실 거라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는 법이지." 무디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톡 쏘아붙였다. "어쨌거나 어둠의 마법사들이 행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라네. 카르카로프, 자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하겠지만..."

"앨러스터!"

덤블도어가 경고하듯이 소리쳤다. 해리는 잠시 동안 덤블도어가 누구를 부른 것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매드아이'가 무디의 진짜 이름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무디는 입을 다물기는 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르카로프를 바라보았다. 카르카로프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덤블도어가 그 방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케드릭 해리 두 사람 모두 이 시합에 참가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지만 덤블리-도어어르."

"친애하는 맥심 부인. 혹시 부인께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들어보고 싶군요."

덤블어는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맥심 부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다. 화가 난 사람은 맥심 부인만이 아니었다. 스네이프도 무척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러나 베그만은 오히려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베그만이 두 손을 비비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의 챔피언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해야죠. 바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자네가 하겠나?"

크라우치는 마치 깊은 백일몽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보였다.

"좋아. 그래... 첫 번째 시험은..."

크라우치는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걸어나왔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해리는 크라우치가 몹시 아픈 사람 같다고 생각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종잇장처럼 얇고 창백한 얼굴에는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퀴디치 월드컵 때와는 영 딴판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너희들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란다."

크라우치는 해리 포터와 케드릭 디고리, 플뢰르 멜라쿠르, 빅터 크룸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지는 않겠다. 알지 못하는 것을 똑바로 대면할 수 있는 용기는 마법사에게 아주 중요한 자질이란다... 그래, 아주 중요하고 알고... 첫 번째 시험은 11월 24일에 실시될 것이다. 다른 학생들과 심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다. 챔피언들은 트리위저드 시합중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 챔피언들은 각자 오로지 지팡이만을 몸에 지닌 채, 첫 번째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면,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될 것이다. 많은 요구 사항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시합의 성격상 챔피언들은 학기말 시험에서 제외될 것이다."

크라우치는 고개를 돌리더니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알버스."

"그런 것 같군."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크라우치를 바라보고 있던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바티, 정말로 오늘 밤에 호그와트에서 묵고 가지 않겠나?"

"아니야, 덤블도어. 서둘러 마법부로 돌아가야만 해. 요즘은 아주 바쁘고 아주 힘든 시기이기 때문이야. 젊은 웨더비에게 일을 맡기고 왔다네...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좀 지나치게 열성적이야."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어떤가?"

덤블도어가 크라우치를 응시하면서 물었다.

"바티, 전 여기에 묵을 거예요." 베그만이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티도 아다시피 지금 호그와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더 흥미롭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루도."

크라우치가 약간 조조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말했다.

"카르카로프 교수, 맥심 부인. 혹시 필요하시면 나이트캡(잠자기 전에 마시는 술: 역주)을 드릴까요?"

덤블도어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하지만 맥심 부인은 이미 플뢰르의 어깨를 팔로 감싸안은 채, 재빨리 방에서 걸어나가고 있었다.

해리는 연회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이 불어로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카르카로프는 조용히 빅터 크롬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비록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 흥분한 상태였다.

"해리, 케드릭. 어서 침대로 가거라. 잠을 자야 할 시간이다." 덤블도어가 두 사람을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리핀도르와 후플푸프는 분명히 너희들을 축하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모처럼 한바탕 소란을 피울 수 있는 훌륭한 핑곗거리가 생겼는데. 그걸 빼앗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

해리는 힐끗 케드릭을 쳐다보았다. 케드릭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방을 나섰다.

연회장은 텅 비어 있었다. 거의 타버린 양초들만이 들쭉날쭉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호박들 안에서 깜박거리는 기괴한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서로 시합을 하게 되었구나!"

케드릭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런 것 같아."

해리는 정말로 달리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해리의 머리속은 무언가가 온통 헤집고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뒤풀죽이었다.

"자, 이제... 나에게 솔직히 털어놓도록 해."

연회장 출입문에 도달하자 케드릭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곳에는 불의 잔 대신에 횃불만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어떻게 네 이름을 집어넣었지?"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나는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어. 거짓말이 아니야."

해리는 케드릭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 좋아." 케드릭은 이렇게 말했지만, 해리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중에 보자."

케드릭은 대리석 계단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른쪽 문으로 향했다. 해리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한참 동안이나 케드릭이 돌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천천히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론과 헤르미온느 이외에 누가 해리의 말을 믿어줄까? 혹시 모두들 해리가 이번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써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자기보다 3년이나 더 오랫동안 마법 교육을 받았던 다른 경쟁자들과 겨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게다가 아주 위험하다고 알려진 사실을 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물론 해리는 트리위저드 시합에 대해 줄곧 생각하고 있었다...., 공상은 나래를 펼쳐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지하게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해본 적은 결코 없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누군가는 해리가 시합에 참가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해리가 확실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손을 써 놓았다. 왜? 해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럴 리는 없었다. 어쩌면....,

해리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거의 소망을 이루게 될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해리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무디는 과연 단순한 편집증 환자일 뿐일까? 어떤 사람이 그저 짖궂은 장난을 치기위해서 속임수로 불의 잔에 해리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아닐까? 정말로 해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해리는 즉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떠올릴수 있었다. 그렇다. 분명히 해리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해리가 겨우 한 살이었을 때부터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 볼드모트 경. 하지만 볼드모트가 어떻게 해리의 이름이 불의 잔 속에 들어가도록 솔수를 부릴 수 있었을까? 볼드모트는 아주 멀리 도망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딘가 먼 나라에서 힘없이 허약해진 몸으로... 혼자 숨어 지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가 아파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해리가 꾸었던 꿈 속에서 볼드모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해리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해리는 문득 자신이 벌써 뚱뚱한 여인 앞에 도착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조차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뚱뚱한 여인의 초상화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리가 챔피언으로 합세했을 때, 옆에 걸려 있는 다른 초상화 속으로 재빨리 들어 갔던 그 바싹 마른 마녀가 뚱뚱한 여인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일곱 개의 계단 벽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든 초상화들을 쓴살같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틀림없었다. 바싹 마른 마녀와 뚱뚱한 여인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 그래, 그래." 뚱뚱한 여인이 입을 열었다. "바이올렛이 방금 전에 다 얘기해 줬어. 그래서 결국 학교 챔피언으로 선택된 것은 누구지?"

"하튼소리."

해리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만에! 다 알고 있는걸!"

창백한 얼굴의 마녀가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다.

"아니, 아니야. 바이올렛. 그건 통과 암호야."

뚱뚱한 여인이 바싹 마른 마녀를 달래면서 말했다. 그리고 초상화를 앞으로 열어서 해리가 학생 휴게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초상화가 거의 닫히기도 전에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해리의 귓전을 때렸다. 다음 순간, 해리가 아는 것은 수십 개의 손에 불잡혀서 휴게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의 학생 전체가 요란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면서 해리를 맞이했다.

"네가 나이 제한선을 넘어갔다고 우리에게 말했어야지!"

프레드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프레드는 반쯤은 화가 나고 반쯤은 몹시 감탄한 것 같았다.

"수염도 없이 그런 일을 어떻게 했니? 정말 똑똑하다!"

조지가 큰소리로 떠들었다.

"난 하지 않았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해리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오,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리핀도르가 되어야만 해."

안젤리나가 와락 해리를 덮쳤다.

"해리! 지난번 퀴디치 시합에서 케드릭 디고리에게 진 빚을 갚아줄 수 있겠구나!"

그리핀도르의 또 다른 추격꾼인 케이티 벨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리, 음식을 준비했어. 어서 가서..."

"난 배가 고프지 않아. 연회장에서 실컷 먹었어."

하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해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혀 축하를 받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다...

리 조던은 그리핀도르의 깃발을 뽑아 와서는 해리의 어깨에 망토처럼 두르라고 고집을 부렸다. 해리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기숙사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슬쩍 빠져나가려고 할때마다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서 해리를 둘러싸고는 억지로 버터 맥주를 먹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자나 땅콩 따위를 해리의 손에 잔뜩 쥐어주었다... 모두들 해리가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덤블도어의 나이 제한선을 속이고 넘어갔으면, 감히 불의 잔에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나는 하지 않았어" 해리는 거듭 거듭 되풀이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된 건지 난 전혀 몰라."

하지만 친구들은 해리가 단지 대답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만 생각했다.

"난 피곤하다 말이야!" 거의 30 분 정도 지났을 때, 마침내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아니야. 정말이야,
조지. 나는 자러 가겠어."

해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론과 헤르미온느를 만나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말짱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휴게실 안에는 없는 것 같았다.

해리는 계단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크리비 형제를 거의 납작하게 때려눕히다시피 하면서 자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끝에 간신히 친구들을 모두 떼어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론은 텅 비어 있는 기숙사의 자기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옷은 그대로 입고 있었다.

"어디 갔었니?"

해리가 론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어, 안녕."

론이 반가운 듯이 말했다. 론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는 했지만, 억지 웃음처럼 아주 이상하게 보였다. 해리는 문득 리 조던이 어깨에 매어 주었던 진홍색의 그리핀도르 깃발을 아직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론은 꿈쩍도 하지 않고 침대에 드러누워서 해리가 깃발을 벗으려고 벼동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축하한다."

마침내 해리가 깃발을 벗어서 구석으로 던지자, 론이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축하한다니?"

해리가 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론의 미소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상했다. 그것은 차라리 빈정거림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글쎄... 아무도 나이 제한선을 넘었던 사람이 없잖아. 프레드와 조지까지도 말이야. 뭘 사용했니? 그 투명 망토?"

"투명 망토로는 선을 넘을 수가 없어."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오, 그렇구나." 론이 말을 이었다. "만약 투명 망토를 사용한 거라면 네가 나에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투명 망토는 우리 두 사람이 충분히 덮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니? 하지만 너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구나? 그렇지?"

"내 말 들어봐. 나는 불의 잔에 내 이름을 적어넣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한게 분명해." 해리가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니?"

론이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건 나도 몰라." 해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너무나 유치한 멜로 드라마처럼 들릴 게 뻔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좋아, 하지만 나한테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잖아.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좋아. 하지만 왜 억지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뚱뚱한 여인의 친구인 바이올렛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했겠어. 네가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도록 덤블도어가 허락해 주었다며? 1000 갈레온의 상금, 그렇지? 게다가 너는 학기말 시험까지 치르지 않아도 되고..."

론은 머리카락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눈썹을 위로 높이 치켜올렸다.

"나는 불의 잔 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어!"

해리는 차츰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 알았어. 좋아." 론은 케드릭과 똑같이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너는 지난밤에 그 일을 했어야만 했다고 말했지. 아무도 너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너도 알잖아. 난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 넌 정말로 멍청이처럼 보여."

해리가 톡 쏘아붙였다.

"그래? 해리, 그만 잠을 자고 싶겠구나.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런 일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테니까 말이야."

론의 얼굴에서 억지 웃음의 흔적조차 싹 사라지고 말았다. 론은 침대 기둥에 매달려 있는 커튼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해리는 문가에 서서 가만히 검붉은 벨벳 커튼을 노려보았다.
그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친구는 반드시 해리의 말을 믿어 줄거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제 18 장 '포터는 야비하다!'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뜯 해리는 한참 동안이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울적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곧이어 지난밤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해리는 몸을 일으키고 앉아서 침대 커튼을 젖혔다. 론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말을 믿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벌써 론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휴게실로
내려간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선형 계단을 지나서 휴게실로 내려갔다.
해리가 나타나자마자, 이미 식사를 끝낸 학생을 이 또다시 환호성을 질렀다.
이대로 연회장으로 내려가서 해리를 마치 영웅처럼 대접하는 그리핀도르의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는 것도 모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크리비 형제에게 꼼짝 없어 붙잡히고 말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크리비 형제는 어서 빨리 자기들 옆에 와서 앉으라고
열광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단호한 태도로 초상화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초상화를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헤르미온느와 얼굴을 딱 마주치고 말았다.

"안녕." 헤르미온느는 토스트 한 조각을 휴지에 싸서 손에 들고 있었다.
"너에게 이걸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어.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을래?"

"좋은 생각이야."

해리는 반가운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계단을 내려간 그들은
연회장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현관 복도를 지나갔다. 그리고 곧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호수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호수 위에는 던스트랭의 배가 수면
위에 검은 그림자를 던지면서 정박하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쌀쌀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토스트를 먹으면서
산책을 했다. 해리는 지난밤에 그리핀도르의 테이블을 떠난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헤르미온느에게 낱낱이 말해주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이야기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 해리. 물론 나는 네가 불의 잔에 스스로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

해리가 연회장의 작은 방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고 나자,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덤블도어가 네 이름을 불렀을 때, 네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란!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는 거야. 무디의 말이 맞아, 해리... 나는
어떤 학생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학생은 절대로 불의 잔을
속이거나 덤블도어의 나이 제한선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런데 론을 보았니?"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잠시 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그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아직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니?" "잘 모르겠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진심은 아닐 거야."

헤르미온느는 애매하게 대답을 회피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진심은 아닐거라는 말이?"

"오, 해리. 뻔한 일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진심을
털어놓았다. "론은 질투를 하는거야!"

"질투라니?" 해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딱 벌렸다. "도대체 월
질투한다는 거지? 전교생 앞에서 악당이 되고 싶단 말이니? 그래?"

"이것 봐." 헤르미온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건 바로 너였어. 너도 그건 알 거야."

헤르미온느는 해리가 성난 듯이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자, 한 마디를 덧붙였다.

"물론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네가 자칭한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글쎄, 너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론은 집에서도 항상 다른 형제들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라왔어. 그리고 너는 론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런데 너는 굉장히 유명하지. 론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때마다 항상 옆으로 물러나 있어야만 했어. 물론 론은 그걸 잘 참았어.

지금까지 그런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잘 했구나." 해리가 비꼬듯이 말했다. "정말 좋은 일이야. 론에게 가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바꿔 주겠다고 전해줘. 마음대로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전해 달란 말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내 이마에 나 있는 상처를 구경하지..."

"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딱 잘라 말했다. "그런 건 네가 직접 말하도록 해. 이런 일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

"나는 론이 철이 들도록 깨우쳐 주기 위해 그 뒤를 쫓아다니지는 않을거야!"

해리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근처의 나무 위에 앉아 있던 부엉이 몇 마리가 깜짝 놀라서 날개를 퍼덕거렸다.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론도 믿게 되겠지. 내 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그런 농담은 하지도 마. 조금도 재미없어."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헤르미온느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다. "해리. 난 출곤 생각해봤어. 너도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이지 알고 있지? 그렇지? 이제 성으로 돌아가자마자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하겠니?"

"물론 론을 보기좋게 걷어차는 거지!"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시리우스는 너에게 호그와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편지에 적어서 보내 달라고 부탁했잖아. 어쩌면 시리우스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마침 내가 양피지와 깃을 가지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둬." 해리는 혹시라도 누가 그들이 나누고 있는 말을 엿듣지나 않았을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사방은 아주 조용했다.

"시리우스는 내 상처가 쑤신다는 말만 듣고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 만약 누군가가 나를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도록 했다는 말을 들으면 시리우스는 당장 성 안으로 뛰어들지도 몰라."

"시리우스는 네가 그 사실을 말해주기를 원할 거야. 반드시 시리우스는 뭔가를 밝혀낼 거야."

헤르미온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리, 이건 그냥 조용히 덮어 둘 문제가 아니야. 이 시합은 아주 유명한 시합이야. 그리고 너도 유명하지. 만약 <예언자일보>에 네가 이 시합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리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지. 그 사람에 관한 기사 중에서 절반은 이미 네 이름이 실려 있어. 그건 너도 알고 있을거야. 그러니까 시리우스는 차라리 너한테서 직접 듣고 싶어할 거야. 분명해."

헤르미온느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좋아, 좋아. 편지를 쓰겠어."

해리는 마지막 남은 토스트 조각을 호수 속으로 던져버렸다. 두 사람은 호숫가에 서서 빵조각이 둥동 떠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물 속에서 커다란 촉수가 나오더니 빵조각을 끌고 들어갔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성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누구의 부엉이를 사용할까? 시리우스가 헤드위그는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

해리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물었다. "론에게 혹시 부엉이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해."

"론에게는 어떤 부타도 하고 싶지 않아."

해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학교 부엉이들 중에서 한 마리를 빌리자.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마침내 헤르미온느가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부엉이장으로 올라갔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양피지와 깃펜 그리고 잉크 한 병을 주었다. 그리고 길게 늘어서 있는 햇대 주위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종류의 부엉이들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해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시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시리우스

호그와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써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밤에 거행되는 올해의 트리위저드 시합에 제가 네번째 챔피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누가 불의 잔에 제 이름을 적어넣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그와트의 또 다른 챔피언은 후풀푸프의 케드릭 디고리입니다

여기까지 쓴 해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이후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거운지에 대해서 반드시 한 마디 쓰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심정을 글로 옮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병에 깃펜을 한 번 담갔다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부디 무사하시길 빌어요. 그리고 벅벅도...

해리가

"끝났어."

자리에서 일어난 해리가 옷에 묻은 지푸라기를 털면서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헤드위그가 재빨리 해리의 어깨 위로 날아와 앉더니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너를 보낼 수는 없어." 해리는 고개를 들고 학교 부엉이들을 둘러보았다.

"이 중에서 한 마리가 가야 해..."

잔뜩 화가 난 헤드위그는 큰 소리로 울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으로 해리의 어깨를 할퀴었다. 그리고 해리가 커다란 외양간 부엉이의 다리에 편지를 매는 동안 내내 방해를 했다.

간신히 외양간 부엉이가 날아가자, 해리는 손을 뻗어서 헤드위그를 어루만져 주려고 했다. 하지만 헤드위그는 맹렬한 기세로 부리를 딱딱거리더니 해리의 손이 닿지 않는 대들보 위로 날아가 버렸다.

"처음에는 론이 그러더니 이제는 너까지 내 속을 썩이는구나!" 해리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해리는 자기가 학교 챔피언이 됐다는 소식에 이제는 다들 익숙해져서 좀 견디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벌어진 일들은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착각이었는지 깨우쳐 주었다.

다시 수업이 시작되자, 해리는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피해서 달아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리핀도르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숙사의 아이들도 해리가 자진해서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핀도르와 다른 점이라면 그 일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다른 때에는 그리핀도르와 사이좋게 지내던 후풀푸프도 그리핀도르 전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약초학 수업 시간에 벌어진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 것이었다.

후풀푸프들은 자기네가 학교 챔피언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해리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후풀푸프 기숙사는 어떤 영예든지 차지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케드릭은 퀴디치에서 그리핀도르를 이김으로써 후풀푸프에 영광을 안겨주었던 몇 명 안 되는 학생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때문에 그들은 해리가 챔피언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더 격분했던 것이다.

어니 맥밀란과 저스틴 핀치 플레츨리는 평소에 해리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었지만, 같은 접시에서 뛰어오르는 구근을 다시 불잡는 실습을 하면서 단 한 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뛰어오르는 구근 중에 하나가 해리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의 얼굴에 세차게 부딪히는 것을 보자, 깔깔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웃었을 뿐이다.

론도 해리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가 그들 사이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두 사람 모두 헤르미온느의 말에만 겨우 대답을 할 뿐, 서로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해리에겐 스프라우트 교수까지도 자신을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후풀푸프 기숙사의 담당 교수였던 것이다.

만약 다른 때 같았으면 해리는 해그리드와 만나는 순간을 무척 고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은 곧 슬리데린들과 부딪히는 것을 의미했다. 해리가 학교 챔피언이 된 이후로 슬리데린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말포이가 비웃음이 가득 차 있는 낯익은 얼굴로 해그리드의 오두막이 도착했다.

"어이, 친구들. 여기 좀 봐. 챔피언이 나가시는데?"

말포이는 크레이브와 고일을 톡톡 치면서 해리의 귀에 들릴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 사인북을 가지고 왔니? 지금 바로 해리의 사인을 받아두는 게 좋을거야. 왜냐하면 해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 알 수가 없거든... 아마도 트리위저드 챔피언 중에서 절반은 목숨을 잃었다지? 포터, 너는 얼마나 버틸 것 같니? 나는 첫번째 시합에서 10 분도 못할 거라는 데 걸겠어."

크레이브와 고일은 말포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실없이 크게 웃었다. 하지만 말포이는 문득 입을 다 물었다. 갑자기 해그리드가 오두막집 뒤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그리드는 마구 요동치는 나무 상자들을 높이 쌓아서 들고 있었는데. 그 상자 속에는 아주 커다란 폭탄 꼬리 스쿠루트가 한 마리씩 들어 있었다.

해그리드의 설명은 들은 반 아이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스크루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힘이 남아돌면 서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학생들이 스쿠루트를 한 마리씩 끈에 묶어서 잠시 동안이라도 산책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일에서 딱 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그 덕분에 말포이의 관심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저걸 데리고 산책을 하란말이야? 도대체 정확히 어디에다가 끈을 묶어야 한다는 거지? 침에다가? 터지는 폭탄 꼬리에다가? 아니면 빨판에다가?"

말포이는 스크루트가 들어 있는 상자를 노려보면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자꾸만 되풀이해서 물었다.

"가운데 부분에 묶어라." 해드리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말했다. "너희들은 저 용 가죽 장갑을 껴도 좋다. 특별히 더 조심을 하기 위해서 말이다. 해리, 너는 가까이 와서 이 큰 놈을 묶는 걸 좀 도와주렴..."

물론 해그리드의 진정한 의도는 반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서 해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었다.

해그리드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스크루트를 데리고 산책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해리에게 몸을 돌려서 아주 심각하게 말했다.

"트리위저드 시합에 나가게 되었구나, 해리. 학교 챔피언으로... 해리가 해그리드의 말을 정정했다. 텁수룩한 눈썹 밑에 달려 있는 해그리드의 두 눈은 검은 딱정벌레와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해그리드의 두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 차 있었다.

"누가 그걸 넣었는지 모르겠니, 해리?"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세요?"

해리는 해그리드의 말을 듣는 순간, 홍수처럼 밀려드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물론이지.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그리고 덤불도어도 네 말을 믿을 거야."

해그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면..."

해리가 분한 듯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말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서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이제 사방으로 흩어진 학생들은 무척 애를 먹고 있었다. 1미터 이상 자라난 스크루트들은 무척 힘이 섰다. 더 이상 색깔도 없고 껌질도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스크루트들의 표피는 두껍고 번쩍이는 일종의 회색 갑옷 같은 것으로 덮였으며,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전갈과 길게잡아 늘여 놓은 가재의 잡종처럼 보였다. 아직도 구별할 만한 머리나 눈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스크루트들은 더욱 강해지고 다루기가 어려워졌다.

"모두들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그렇지?"

해그리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해리는 아마도 해그리드가 스크루트들을 보고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다. 반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따금씩 빵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스크루트의 폭탄 꼬리가 터질 때마다, 스크루트들은 몇 마일 밖으로 솟구쳤다. 스크루트의 줄을 잡고 있던 학생들은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필사적으로 버둥거려야만 했다.

"난 모르겠다, 해리."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해리를 내려다보던 해그리드가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학교 챔피언이라니... 모든 일들이 꼭 너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구나. 안 그러니?"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 모든 일들이 다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가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했던 말도 바로 그런 뜻이었다. 헤르미온느의 말에 따르면, 론이 더 이상 해리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호그와트에서 보낸 며칠 동안은 해리에게 가장 끔찍했던 시간이었다. 2학년 때, 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해리가 동료 학생을 공격했다고 의심하던 몇 달 동안에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론이 해리의 편이었다.

해리는 예전처럼 론과 다시 다정한 친구가 될 수만 있다면, 학교 학생 전체와 맞서 싸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론이 원하지 않는 한, 애써 그에게 말을 걸거나 화해를 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미움을 해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외로웠다.

해리는 후풀푸프들의 태도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었다. 후풀푸프들에게는 열렬히 응원해야 할 그들의 챔피언이 있었다.

처음부터 슬리데린들로부터는 악의에 찬 모욕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핀도르가 퀴디치 게임이나 기숙사들 사이의 경쟁에서 슬리데린을 꺾는 일에 종종 해리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래번클로만큼은 케드릭뿐만 아니라 해리 자신도 응원해 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대부분의 래번클로들은 해리가 불의 잔을 속여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을 만큼, 보다 커다란 명성을 얻는데 헐안이 되어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사실 케드릭은 해리보다는 훨씬 더 챔피언답게 보였다. 곧게 뻗은 코와 검은 머리카락,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케드릭은 보기 드물게 잘 생긴 미남이었다. 요즘에는 케드릭과 빅터 크롬 중에서 누가 더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실제로 해리는 빅터 크롬의 친필을 얻으려고 그토록 열성이던 6학년 여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케드릭에게 가방에 사인을 해달라고 조르는 광경을 직접 보았다.

아직까지 시리우스로부터는 아무런 답장도 없었다. 헤드위그는 해리의 곁에 절대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트릴로니 교수는 다른 때보다 더욱 확신에 넘쳐서 해리의 죽음을 예언하고 다녔다. 게다가 플리트윅 교수의 수업에서는 소환 마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별도 숙제까지 받았다. 별도 숙제를 받은 사람은 네빌을 제외하면 해리 한 사람뿐이었다.

"그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아, 해리."

플리트윅 교수의 교실에서 나오면서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헤르미온느는 수업 시간 내내 온갖 물건들이 교실을 가로질러서 그녀를 향해 날아오도록 만들었다. 헤르미온느는 마치 칠판 지우개나 휴지통, 천체 망원경 등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신기한 자석이라도 된 것 같았다.

"너는 그저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았을 뿐이야."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케드릭 디고리가 일부러 꾸민 듯한 웃음을 짓는 수많은 여자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해리의 옆을 지나갔다. 그들은 한결같이 해리가 괴상하게 몸집이 큰 폭탄 꼬리 스크루트라도 되는 듯이 헐끔거리면서 쳐다보았다.

"신경 쓰지 마. 응? 오늘 오후에는 마법의 약 수업이 기다리고 있잖아..."

마법의 약 수업은 언제나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거의 고문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스네이프 교수와 슬리데린들과 함께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것은 해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불쾌한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감히 학교 챔피언이 되려고 한 해리에게 마땅히 별을 주어야 한다고 굳게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 앉아 있던 헤르미온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시해 버려. 무시해 버리라구. 무시하면 되는 거야'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을 참기 위해 무척 애를 써야만 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결코 없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스네이프 교수의 지하실에 도착했을 때, 슬리데린들은 이미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슴에 커다란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잠시 동안 해리는 그것이 S.P.E.W. 배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 배지에 모두 똑같은 구호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번쩍이는 붉은 글씨로 적힌 구호는 어두운 지하실 통로 안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호그와트의 진정한 챔피언
케드릭 디고리 이거라!

"어때? 마음에 들어, 포터?"

해리가 가까이 걸어가자 말포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걸 잘봐!"

말포이가 가슴에 달린 배지를 꾹 누르자, 적혀 있던 글씨가 사라지면서 이번에는 초록색 글씨가 나타났다.

포터는 야비하다!

슬리데린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허리를 움켜쥐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 제각기 가슴에 달린 배지를 눌렀다. 그러자 포터는 야비하다!라는 글씨가 해리의 주위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해리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참 재미있기도 하겠구나. 아주 재치가 있어."

헤르미온느가 슬리데린의 여학생들을 거느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요란하게 웃어대고 있는 팬시 파킨슨에게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론은 딘과 시무스와 함께 벽에 등을 기댄채, 가만히 서 있었다. 비록 슬리데린들과 함께 웃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리의 편을 들어 주지도 않았다.

"너도 하나 가질래, 그레인저?" 말포이가 헤르미온느에게 배지를 하나 내밀었다. "내겐 아주 많이 있거든. 하지만 내 손을 건드리지는 말아줘. 방금 전에 손을 씻었으니까 말이야. 잡종이 내 손을 더럽히는 건 원하지 않아."

지난 며칠 동안 해리의 가슴 속에 쌓여 있던 분노가 한 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지팡이를 꺼내들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서 복도 뒤쪽으로 물러났다.

"해리!"

헤르미온느가 경고하듯이 소리쳤다.

"어서 덤벼, 포터. "말포이가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 들고 말했다. "너를 돌봐 줄 무디는 여기에 없어. 배짱이 있으면 어디 해 봐!"

눈 깜짝할 순간에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더니 거의 동시에 지팡이를 휘둘렀다.

"퍼넌콜루스!"

해리가 지팡이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덴사우지오!"

말포이가 날카롭게 외쳤다. 두 사람의 지팡이에서 강렬한 빛이 분출되더니 가운데에서 충돌했다. 그리고 두 줄기의 빛은 제각기 옆으로 텅거져 나갔다. 해리의 빛은 고일의 얼굴에 맞았으며 말포이의 빛은 헤르미온느에게 맞았다. 고일은 커다랗게 울부짖으면서 코를 감싸안았다. 고일의 코에는 커다랗고 보기 흉한 종기들이 다닥다닥 솟아났다. 헤르미온느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면서 입을 움켜쥐었다.

"헤르미온느!"

론은 헤르미온느를 살펴보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왔다. 해리가 고개를 돌렸을 때, 론은 헤르미온느의 얼굴에서 손을 치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참혹한 모습이었다. 헤르미온느의 앞니가-그러잖아도 다른 사람의 앞니보다 훨씬 더 큰데-무시무시한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헤르미온느의 앞니가 아랫입술을 지나서 턱까지 자라나자,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비버를 닮게 되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헤르미온느는 앞니를 만지면서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동이냐?"

나지막하고 냉기가 감도는 목소리가 들렸다. 스네이프 교수가 도착한 것이다. 슬리데린들은 저마다 설명하려고 아우성을 쳤다. 스네이프 교수는 길고 누런 손가락으로 말포이를 지적하면서 말했다.

"네가 설명해라."

"포터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거의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

해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리고 해리가 고일을 맞추었어요. 보세요."

말포이가 고일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스네이프는 재빨리 고일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고일의 얼굴은 이제 독버섯에 관한 책에 실리고도 남을 만한 모습이었다.

"병동으로 가거라, 고일."

스네이프가 침착하게 말했다.

"말포이는 헤르미온느를 맞추었어요. 보세요."

론은 이렇게 말하면서 억지로 헤르미온느의 앞니를 스네이프에게 보여 주었다. 헤르미온느는 손으로 앞니를 가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앞니가 거의 목까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팬시 파킨슨과 다른 슬리데린의 여학생들은 스네이프의 등뒤에서 헤르미온느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웃음을 참기 위해 허리를 꼬부리고 난리였다.

스네이프는 냉정한 얼굴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난 별로 달라진 걸 모르겠다."

헤르미온느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뒤로 돌아서더니 어두운 복도를 달리고 또 달려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해리와 론이 거의 동시에 스네이프를 향해 고함을 지른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그들의 목소리가 돌로 된 복도에 부딪혀서 왕왕 울린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두 사람이 스네이프를 향해 위라고 소리쳤는지 스네이프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대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디 보자." 스네이프는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핀도르에게 50 점 감점이다. 그리고 포터와 위즐리는 한 시간 더 나머지 공부를 해라.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벌을 받게 될 거야."

해리의 귓속이 윙윙 울렸다. 스네이프의 판결이 몹시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갈가리 찢어지라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심정이었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앞을 지나서 론과 함께 어두운 지하 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방을 광 내려 놓았다.

론도 너무나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론은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더니 해리를 혼자 남겨둔 채, 딘과 시무스 옆에 앉았다. 교실 반대편에서는 말포이가 스네이프 몰래 배지를 눌러서 또다시 포터는 야비하다! 라는 글씨를 내보이고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해리는 스네이프를 노려보면서 그에게 무엇인가 꿈쩍한 일이 일어나는 상상에 잠겼다. 만약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스네이프를 거미처럼 벌렁 나자빠지게 한 뒤 경련을 일으키게 할 텐데...

"해독제!"

스네이프가 반 아이들을 모두 둘러보면서 말했다. 스네이프의 차가운 검은 눈동자가 기분 나쁘게 번쩍거렸다.

"이제 너희들은 제각기 해독제를 제조할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아주 조심해서 만들기를 바란다. 그 해독제를 실험해볼 사람을 고를 테니까..."

그러다가 스네이프의 눈길이 해리와 부딪혔다. 해리는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깨달았다. 스네이프는 해리에게 독을 먹일 작정이었다. 해리는 머리 속으로 솔단지를 번쩍 집어들고 교실 앞으로 달려나가서 스네이프의 기름진 머리 위에 쏟아붓는 상상을 했다.

그 순간 지하 교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그 바람에 해리는 더 이상 공상을 할 수가 없었다.

지하 교실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콜린 크리비였다. 콜린 크리비는 교실로 들어오면서 해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던졌다. 그리고 곧장 스네이프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지?"

스네이프가 통명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해리 포터를 위총으로 데려가야 하겠습니다."

스네이프는 구부러진 코를 내리깔면서 콜린을 노려보았다. 싱글벙글하던 콜린의 미소가 싹 사라졌다.

"포터는 한 시간 더 공부를 해야 한다. 수업이 다 끝나면 올려보내주마."

스네이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콜린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선생님, 베그만 씨가 포터를 불렀어요." 콜린은 초조한 듯이 말했다.

"챔피언들은 모두 가야만 한답니다. 제 생각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것 같아요..."

해리는 콜린의 마지막 말을 막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었을 것이다. 해리는 재빨리 론을 슬쩍 쳐다보았다. 하지만 론은 단호한 자세로 천장만 노려보고 있었다.

"잘 하는군. 아주 잘 해." 스네이프가 톡 쏘아붙였다. "포터, 네 소지품들은 그대로 두고 가거라. 다시 돌아오면 네가 만든 해독제를 꼭 시험하고 싶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선생님, 해리는 소지품을 다 가져가야만 하는데요. 챔피언들은 모두 다...."

콜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잘 하는 짓이다! 포터, 가방을 싸서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라!"

스네이프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가를 향해 걸어갔다. 슬리데린들의 책상 앞으로 지나가자, 사방에서 포터는 야비하다! 라는 글씨가 해리를 향해 반짝거렸다.

"정말 굉장하지 않아, 해리?" 해리가 지하 교실의 문을 닫자마자 콜린이 성급히 말을 걸었다. "그렇잖아? 챔피언이 되는 것 말이야!"

"그래, 정말 굉장해."

해리는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현관 복도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왜 사진을 찍는 거니, 콜린?"

"아마도 <예언자 일보>에 실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잘됐구나."

해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좀더 커다란 명성을 얻는 일."

"행운을 빌어!"

오른쪽 교실 앞에 도착하자 콜린이 말했다. 해리는 문을 두드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주 작은 교실이었다. 대부분의 책상들이 교실 뒤쪽으로 치워져 있었으며 교실의 중앙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칠판 앞에는 책상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기다란 벨벳천으로 덮여 있었다. 벨벳이 씩위진 책상 뒤에는 다섯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베그만이 그 중의 한 의자에 앉아서 어떤 마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해리가 생전 처음 보는 그 마녀는 선명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빅터 크롬은 평소처럼 한쪽 구석에 우울하게 서 있었다. 빅터 크롬은 좀처럼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았다. 케드릭과 플뢰르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플뢰르는 해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보였다. 플뢰르는 기다란 은빛 머리카락이 반짝이면서 빛을 내도록 연신 머리를 뒤로 넘겼다. 커다란 검은색 카메라를 든 채 입에 담배를 물고있던 배불뚝이 남자는 곁눈질로 플뢰르를 훔쳐보기에 바빴다.

문득 해리를 발견한 베그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달려 나왔다.

"오, 왔구나! 네 번째 챔피언! 이리 오너라. 해리, 이리 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거라. 이건 단지 지팡이를 검사하는 절차일 뿐이니까. 다른 심판관들도 곧 도착하실..."

"지팡이를 검사한다구요?"

해리가 불안한 듯이 되물었다.

"우리는 너의 지팡이가 아무런 이상 없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조사해야만 한단다. 너도 알다시피 시험에서는 지팡이가 가장 중요한 도구이니까 말이야." 베그만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금 전문가들이 덤블도어와 함께 위층에 있단다. 그런 다음에 잠깐 사진을 찍을 거야. 이쪽은 리타 스키터란다. 트리위저드 시합 기간에 <예언자 일보>를 위해 몇 가지 사소한 일을 할거란다."

베그만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마녀를 가리켰다.

"그렇게 사소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루도."

리타 스키터가 해리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정교하게 손질한 리타 스키터의 머리카락은 신기할 정도로 구불거렸는데 빠죽 튀어나온 턱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리타 스키터는 보석이 박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악어 가죽

핸드백을 꼭 잡고 있는 굵은 손가락 끝에는 진홍색으로 칠해진 손톱이 거의 5센티미터나 길게 자라나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해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리타 스키터는 줄곧 해리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했다. "최연소챔피언이라... 너를 좀 강조해도 되겠지?

"당연하지! 해리도 반대하지 않겠지?"

베그만이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소리쳤다.

"뭐..."

해리가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했다.

"아주 좋아."

리타 스키터는 순수식간에 길고 빨간 손톱이 나 있는 손가락으로 해리의 팔뚝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짹 움켜쥐었다. 그리고 교실 밖으로 끌어내더니 옆방 문을 열었다.

"저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너랑 있고 싶지는 않구나." 리타 스키터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어디보자... 그래, 아주 아늑하고 멋진 장소로구나."

그곳은 빗자루를 넣어두는 창고였다. 해리는 멍하니 리타 스키터를 바라보았다.

"자, 이리 와라. 바로 그거야. 멋져."

리타 스키터는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아슬아슬하게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해리에게 종이 상자 위에 앉으라고 말했다. 문을 닫자, 깜깜한 어둠 속에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어디 보자..."

리타 스키터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열어서 양초를 한 무더기 꺼냈다. 그리고 지팡이를 흔들어서 불을 붙인 다음 허공으로 떠올리자, 간신히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해리, 속기 깃펜을 사용해도 괜찮겠지? 그걸 사용하면 평소처럼 너에게 자유롭게 말을 걸 수 있거든..."

"그게 뭐죠?

해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리타 스키터의 미소가 더욱 커지면서 반짝이는 세 개의 금니가 보였다. 리타 스키터는 다시 악어 가죽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더니 길고 선명한 초록색 깃펜과 양피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다목적 마법 지우개의 상자 위에 펼쳐놓았다.

리타 스키터는 깃펜의 한쪽 끝을 입에 물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도 되는 듯이 한참 동안이나 쪽쪽 빨았다. 그런 다음에 양피지 위에 똑바로 세워 놓자, 깃펜은 저절로 중심을 잡고 서더니 조금씩 흔들렸다.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내 이름은 리타 스키터. <예언자일보>의 기자다."

해리는 재빨리 깃펜을 내려다보았다. 리타 스키터의 말이 끝나자마자, 초록색 깃펜은 양피지 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글씨를 휘갈기기 시작했다

매력적인 금발의 리타 스키터. 나이는 마흔 셋. 그녀의 잔인한 펜은 수많은 영터리 유명인사들을 작살내고 말았다...

"훌륭해!"

리타 스키터가 만족스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리타 스키터는 양피지의 윗부분을 찢어서 구기더니 핸드백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래, 해리... 도대체 무엇 때문에 트리위저드 시합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되었지?"

리타 스키터는 해리를 향해 몸을 숙였다.

"어..."

해리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깃펜에 완전히 정신을 팔려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펜은 혼자서 양피지 위를 쓰살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깃펜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난날 비극의 흔적으로 남은 보기 흉한 상처가, 분명히 매력적이었을 해리 포터의 외모를 망쳐 놓았다. 해리의 눈동자는...

"깃펜은 무시하거라, 해리."

리타 스키터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고 리타 스키터를 바라보았다.

"자, 너는 어째서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지, 해리?"

"전 결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제 이름이 불의 잔 속에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제가 넣지 않았거든요."

"이봐, 해리. 무슨 말썽이라도 일어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두 네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우리의 독자들은 반항아를 좋아하니까..."

리타 스키터는 아이 펜슬로 짙게 그려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해리가 되풀이하면서 말했다.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시합을 앞둔 심정이 어떠니? 흥분되니? 초조하니?"

리타 스키터가 해리를 응시하면서 물었다.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글쎄요... 약간 초조한 것 같아요."

해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마다 어쩐지 뱃속이 불안하게 꿈틀거렸다.

"과거에 챔피언들이 죽은 적도 있었지?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니?"

리타 스키터가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올해 벌어지는 시합은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해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깃펜은 마치 스케이트를 타듯이 양피지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너는 오래 전에도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지? 그렇지 않니?" 리타 스키터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 일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니?"

"어..."

해리는 달리 할말이 없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네가 더욱더 네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지 않니? 네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 일 때문에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해리는 차츰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니?"

리타 스키터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아뇨."

"만약 네가 트리위저드 시합에 나가는 줄 알면 네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랑스러워하실까? 아니면 걱정을 하실까? 화를 내실까?"

이제 해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심정이 되었다.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면 지금 어떤 심정일지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리타 스키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해리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리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면서 리타 스키터의 시선을 피해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자 깃펜이 방금 전에 휙갈겨 쓴 글씨가 보였다.

우리의 대화가 거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부모님에게 이르자, 별처럼 반짝이는 해리의 초록색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나는 눈물을 헐리지 않았어요!"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리타 스키터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빗자루 보관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렸다. 해리는 갑자기 쓸어지는 밝은 빛에 눈을 깜박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덤블도어!"

리타 스키터는 만면에 기쁨의 미소를 떠올리면서 소리쳤다. 하지만 해리는 리타 스키터의 깃펜과 양피지가 갑자기 마법의 지우개 상자 위에서 썩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손톱을 길게 기른 리타 스키터의 손이 황급히 악어 가죽 핸드백을 턱 닫았다.

"어떻게 지냈어요?" 리타 스키터는 남자처럼 크고 얁센 손을 덤블도어에게 내밀었다. "혹시 지난 여름에 내가 국제 마법사 연맹 회의에 대해서 쓴 기사를 읽었나요?"

"아주 인상적일 만큼 심술궂은 기사였소. 특히 당신이 나를 퇴물이 된 명청이라고 묘사한 대목이 재미있었소."

덤블도어가 눈을 징그거렸다.

"덤블도어, 나는 단지 당신의 생각 중에서 일부가 약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리의 많은 마법사들은..."

리타 스키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리타, 나 또한 그런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소." 덤블도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작별의 뜻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소. 이제 곧 지팡이 검사가 시작될 거요. 그런데 우리 챔피언 중에 한 명이 빗자루 보관 창고 안에 모습을 감추고 있으면, 검사를 시작할 수가 없소."

마침내 리타 스키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하면서 해리는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다. 다른 챔피언들은 문가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해리는 재빨리 캐드릭의 옆자리에 앉아서 벨벳이 씌워진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네 명의 심판들이 앉아 있었다. 카르카로프 교수와 맥심 부인, 크라우치 씨 그리고 루도 베그만이었다. 리타 스키터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리는 리타 스키터가 또다시 핸드백에서 양피지를 슬쩍 꺼내더니 무릎 위에 펼쳐놓고 속기 깃펜의 끝을 쪽쪽 빠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리타 스키터는 양피지 위에 깃펜을 살짝 옮겨놓았다.

"이제 올리밴더 씨를 소개할까요?" 덤블도어가 심판 자리에 앉으며 챔피언들에게 말했다. "시합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실 분입니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은백색의 눈동자를 가진 늙은 마법사가 창가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해리는 오래 전에 이 노인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 노인은 해리가 3년 전에 다이애건 앤리에 갔을 때, 지팡이를 구입했던 지팡이 제작자였다.

"마드모아젤 델라쿠르, 제일 먼저 봐도 될까?"

올리밴더가 교실의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플뢰르 델라쿠르는 올리밴더에게 가서 지팡이를 건네주었다.

"음..."

올리밴더는 기다란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마치 지휘봉처럼 휘둘렀다. 그러자 지팡이에서 분홍색과 황금색의 불꽃이 튀어나왔다. 올리밴더는 지팡이를 눈앞에 바싹 갖다 대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구나". 올리밴더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24 센티미터... 휘어지지도 않고... 장미목... 그리고 안에 넣은 것은... 오, 이런..."

"벨라의 머리카락이에용. 할모니 거였지용."

플뢰르가 올리밴더를 쳐다보았다. 그렇구나. 플뢰르는 벨라의 혈통이였구나. 해리는 머리 속으로 론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곧 론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렇구나". 올리밴더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래, 나는 물론 벨라의 머리카락을 한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단다. 그걸 쓰면 요술지팡이가 다소 변덕스럽게 되지... 그래도 너에게 맞기만 하다면..."

올리밴더는 손가락으로 지팡이를 더듬었다. 깊은 자리나 파인 곳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에 올리밴더가 중얼거렸다.

"오르치데우스!"

그러자 지팡이 끝에서 한 다발의 꽃이 튀어 나왔다.

"아주좋아. 아주 좋아. 훌륭하게 작동되는군" 올리밴더는 꽂다발을 들어서 플뢰르의 지팡이에 매달았다.

"자, 디고리 군. 다음 차례..."

자기 자리로 돌아가던 플뢰르는 케드릭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던졌다.

"아, 이건 내가 만든 지팡이야. 그렇지?" 올리밴더는 케드릭이 지팡이를 건네주자,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특별히 멋진 수컷 유니콘의 꼬리에서 뽑은 털 한올을 넣었지... 그 유니콘은 17 폭 정도 되는 놈이었어. 31 센티미터... 물푸레나무... 탄력이 좋군. 아주상태가 좋아.... 규칙적으로 지팡이를 손질하고 있니?"

"지난밤에도 광을 내주었어요."

케드릭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문득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사방에 손자국이 나있었다. 해리는 바지 자락을 끌어 당겨서 몰래 지팡이를 닦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지팡이 끝에서 황금색 불꽃이 튀어나왔다. 플뢰르는 몹시 딱하다는 듯이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지팡이를 닦는 것을 그만두었다.

올리밴더는 케드릭의 지팡이 끝에서 은빛 연기 고리가 솟아 오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감탄사를 내면서 말했다.

"자, 이제 크룸 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빅터 크룸은 둑근 어깨를 구부정하게 늘어뜨린 채 팔자 걸음으로 올리밴더에게 다가갔다. 빅터 크룸은 지팡이를 휙 내밀더니 호주머니 속에 손을 찔러넣고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음". 올리밴더가 입을 열었다. "이건 그레고로비치의 작품이군. 내 말이 맞지? 그레고로비치는 훌륭한 지팡이 제작자였지. 비록 그 스타일은 별로 내 마음에... 어쨌거나..."

올리밴더는 지팡이를 들고 몇 분 동안 이리저리 뒤집어보면서 시험을 해보았다.

"그래, 자작나무와 용의 심금인가?" 올리밴더는 빅터 크룸을 쳐다보았다. 빅터 크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흔히 보는 것보다 조금 두껍군... 아주 단단해... 26 세티미터... 아비스!"

자작나무 지팡이는 총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짹짹거리는 작은 새들이 지팡이 끝에서 쏟아져 나오더니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날아 가버렸다.

"좋아", 올리밴더는 크룸에게 지팡이를 돌려주었다. "자, 이제는 누가 남았나... 포터군."

해리는 벌떡일어나서 크룸 곁을 지나 올리밴더를 향해 다가갔다. 올리밴더는 해리의 지팡이를 건네받았다.

"아하, 그래". 올리밴더의 창백한 눈동자가 갑자기 빛을 발했다. "그래, 그래.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해리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지금으로부터 네 번을 거슬러 올라간 여름, 열한 번째 생일날에 해리는 해그리그와 함께 지팡이를 구입하기 위해 올리밴더의 상점을 찾아같았다. 올리밴더는 해리의 지수를 재고 지팡이를 시험해보도록 했다.

상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지팡이를 다 휘둘러보았던 해리는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지팡이를 찾아내었다. 그것이 바로 서양호랑가시나무로 만들었고 불사조의 깃털이 들어간 28 센티미터 길이의 지팡이였다. 올리밴더는 해리가 이지팡이와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이상해." 올리밴더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해." 그리고 해리가 무엇이 그렇게 이상한지 물었을 때, 올리밴더는 해리의 지팡이가 불사조의 깃털이 볼드모트 경의 지팡이에 들어 간 것과 같은 불사조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해리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해리는 이지팡이를 무척 아꼈기 때문에 비록 볼드모트의 지팡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해리가 페트니아 이모와 어쩔 수 없이 친척관계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해리는 올리밴더가 교실 안에서 그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리타 스터키의 속기 깃펜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터져버릴지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리밴더는 해리의 지팡이를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마침내 올리밴더는 지팡이 끝에 포도주가 솟아나도록 만든 다음에 지팡이가 완벽한 상태라고 선언하면서 해리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모두 고맙습니다." 덤블도어가 심판 책상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수업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마도 곧바로 식당으로 가는 편이 좋을 겁니다. 서둘러요.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마침내 오늘 일이 무사히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해리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검은색 카메라를 든 남자가 별떡 일어서더니 헛기침을 했다.

"사진이오, 덤블도어. 사진!" 베그만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래요. 먼저 전체 사진을 찍죠. 그런 다음에 각자의 사진을 찍도록 해요."

리타 스터키의 눈길은 다시 해리를 뒤쫓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맥심 부인은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의 머리위로 그늘을 드리웠다. 게다가 사진가가 아무리 뒤로 물러서도 맥심 부인은 전부 다 나오도록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맥심 부인은 의자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주위에 서있기로 했다. 카르카로프는 손가락으로 연신 콧수염을 고면서 수염이 멋지게 말리도록 했다.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빅터 크롬은 오히려 사람들의 뒤 쪽으로 슬그머니 몸을 숨겼다.

사진사는 플뢰르를 제일 앞에 세우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하지만 리타 스터키가 서둘러 달려오더니 해리를 제일 잘보이는 곳으로 끌어내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챔피언들이 제각기 독사진을 찍었다. 마침내 챔피언들은 해방될 수 있었다.

해리는 서둘러 식당으로 내려갔다. 헤르미온느는 그곳에 없었다. 아마도 앞니를 고치기 위해 아직 까지도 병동에 있는 것 같았다. 식탁 끝에 앉아서 혼자 식사를 마친 해리는 해야할 소환 마법 숙제를 생각하면서 그리핀도르의 탑으로 돌아갔다.

"너에게 부엉이가 왔어."

해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론이 불쑥 말을 걸었다. 론은 손을 들어서 해리의 베개를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학교의 외양간 부엉이가 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래."

해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을 받아야만 해."

이렇게 말한 론은 한번도 해리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방에서 나가 버렸다. 잠시 동안에 해리는 론의 뒤를 따라갈까 망설였다. 아직도 론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한방 갈기고 싶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시리우스의 답장을 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해리는 외양간 부엉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엉이의 다리에서 편지를 떼어내어 펼쳐 보았다.

해리

편지를 통해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가 없구나. 만약 누군가 도중에 부엉이를 가로 체기라도 한다면 너무나 위험해.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다. 11월 22일 새벽 1시에 그린핀도르 탑 벽난로 옆에 혼자 나와 있을 수 있겠니?

네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단다. 또 덤블도어와 무디가 네곁에 있는 한, 아무도 너를 해칠 수는 없을 꺼야. 하지만 누군가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너를 시합에 참가하도록 한 것은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었어. 더구나 덤블도어의 코앞에 서 말이야.

조심하거라, 해리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듣고 싶구나. 가능한 빨리 11월 22일에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거라.

시리우스

제 19 장 형가리의 혼 테일

지난 이 주일 동안 해리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오직 시리우스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뿐이었다. 그것은 이보다 결코 더 어두울 수 없을 것 같은 지평선 위에 떠오른 단 하나의 빛이였다. 이제 자신이 학교 챔피언이 되었다는 충격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앞으로 겪에 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차츰차츰 가라앉는다.

첫번째 시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리는 그것이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잔뜩 도사린 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안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퀴디치 게임 전날에도, 심지어 퀴디치 컵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슬리데린과 마지막 게임을 치르는 날에도 이런 긴장감을 느껴 보았던 적이 없었다. 해리는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없었다. 마치 해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첫번째 시험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끝날 것 같았다...

솔직히 해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알지도 못하는 어렵고 위험한 마법을 행해야만 하는 자신의 기분을 시리우스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정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이였다.

해리는 시리우스에게 예정된 시간에 휴게실 벽난로 옆에 있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밤중에 어떻게 휴게실 근처를 아무도 어슬렁거리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대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다. 만약 최악의 경우가 되면, 똥 폭탄 가방이라도 던질 작정이였다. 하지만 부디 그것만은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필치가 그들을 산 채로 껍질을 벗기려고 덤벼들 것이다.

성안에서 보내는 해리의 생활은 더욱 나빠졌다. 리타 스키터가 트리위저드 시합보다는 대단히 과장된 해리의 인생 이야기가 더욱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드러났다. 1면의 대부분은 해리의 사진이 차지했으며 2면, 6면, 7면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사는 오직 해리에 관한 기사들 것뿐이였다. 보바통이나 덤블스트랭(심지어 철자도 틀렸다)의 챔피언의 제일 마지막 줄에 잠깐 등장했고 케드릭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 기사가 발표된지 벌써 열흘이 흘렀지만, 해리는 아직도 그 기사를 떠올릴 때마다 밀물처럼 수치감이 밀려오고 뱃속이 매슥거려 토했을 것만 같았다. 리타 스키터는 해리가 빗자루 보관 창고에서는 물론이고 일생 동안 단 한번도 말한 기억이 없는 사실들을 엄청나게 써놓았다.

제가 지니고 있는 힘은 힘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도 밤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트리위저드 시합 동안에 그 어떤 것 도 저를 해칠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리타 스터키는 해리가 단지 '어...' 라고 한 말을 좀더 길고 매끄러운 문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해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인터뷰한 기사까지 실어 놓았다.

마침내 해리는 호그와트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 해리의 가까운 친구인 콜린 크리비는 해리가 헤르미온느 그레인자와 떨어져 있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헤르미온느는 눈에 띄게 아름다운 머그 태생의 소녀로, 해리와 학교의 최우등생 중의 한 명이다.

<예언자 일보>에 그 기사가 나간 후로부터 해리는 사람들, 특히 슬리데린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빈정거리는 어조로 기사를 인용하는 것을 참아야만 했다.

"포터, 변신술 수업에서 네가 울음을 터트리면 손수건 이라도 갖다 줄까?."

"포터, 언제부터 네가 우리학교의 최우등생이 되었지? 아니면 너와 롱바텀 들이서 따로 학교를 세우기라도 한 거니?"

"헤이, 해리!"

"그래, 맞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된 해리는 복도를 돌아 서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나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서 줄곧 눈물을 흐렸어! 그리고 지금도 막..."

"아니야, 해리 지금 막 너의 깃펜을 떨어트렸어."

해리의 눈앞에는 뜻밖에도 초 챙이 서있었다. 해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 그래. 미안해."

해리는 깃펜을 주워들면서 중얼거렸다.

"저... 화요일에 행운을 빌어. 네가 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초 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헤르미온느도 해리와 똑같이 불쾌한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리처럼 공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사실 해리는 이런 이 상황을 능숙하게 다루는 헤르미온느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었다.

"눈에 띄게 아름답다구, 헤르미온느?" 리타의 기사가 나간 후 처음으로 헤르미온느와 얼굴을 마주쳤을 때, 팬시 파키슨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도대체 그 여자는 뭘 기준으로 한 거지? 얼룩 다람쥐?"

"무시해."

헤르미온느가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킁킁거리고 있는 슬리데린의 여학생들의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갔다. 마치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냥 무시해, 해리."

하지만 해리는 무시를 할 수가 없었다. 론은 스네이프 교수의 보충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로 한번도 해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지하 교실에서 두시간 동안이나 론과 함께 생쥐의 뇌를 식초에 절이는 동안 그와 화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날은 바로 리타의 기사가 발표된 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가 사람들 의 주목을 받고 싶어한다는 론의 믿음은 더욱 굳어 진 것 같았다.

헤르미온느는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잔뜩 하가 났다. 해르미온느는 해리와 론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해리의 결심은 돌처럼 단단했다. 오직 론이 해리가 불의 잔에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 이였다. 그런 다음에 다시 론과 말을 할 작정 이였다.

"이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론의 문제란 말이야."

해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말했다.

"너는 론을 그리워한다구? 아니야. 너는 그리워 한다는 걸 나는 조금도 론이 그립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뻔한 거짓말이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론과 같지는 않았다. 헤르미온느를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다면, 함께 웃을 일보다는 도서관을 헤메고 돌아다닐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해리는 아직까지도 소환 마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다. 마치 단단한 벽이 자기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였다. 헤르미온느는 소환 마법의 이론을 알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꺼라고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심시간 내내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빅터 크룸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해리는 도대체 빅터 크룸이 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공부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첫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만 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일까?

헤르미온느는 종종 빅터 크룸이 도서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물론 빅터 크룸이 그들을 방해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종종 킬킬거리는 여학생들이 서가 뒤에서 빅터 크룸의 모습을 엿 보기 위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헤르미온느는 그 소리가 무척 신경에 거슬렸다.

"심지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애들은 단지 크룸이 유명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만약 크룸이 윙키 페인트인가 뭔가 하는 걸 할 수 없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걸!"

잔뜩 화가 난 헤르미온느는 날카로운 빅터 크룸의 옆 모습을 노려보고 투덜거렸다.

"렁스키 페인트야."

해리가 이를 악물면서 대답했다. 큐디치 용어를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은 좋았지만, 헤르미온느가 윙키 페인트라고 말한 것을 론이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 이상한 일 이였다. 무엇인가 다가오는 게 두려워서 시간이 늦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시간은 오히려 심술궂게 더욱 빨리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다. 첫 번째 시험 전까지 시간은 누군가 마치 두 배로 빠르게 움직이도록 시계를 고쳐놓은 것처럼 순식간에 흘러갔다. 이제 해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언자 일보>의 기사를 두고 헐뜯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거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고통이 해리를 앓았다.

첫 번째 시험을 바로 앞둔 토요일 3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들은 호그스미드 마을을 방문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잠시 동안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다. 해리도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론은 어떻게 하고? 너는 론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니?" 해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음... 그건..."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마도. 우리는 스리 브룸틱스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싫어."

해리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오, 해리. 그건 너무 멍청한 짓이야."

"나도 그곳으로 가긴 갈 거야. 하지만 론을 만나지는 않겠어. 나는 투망토를 쓰고 갈 거야."

"그렇다면 좋아." 해르미온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하지만 나는 투명 망토를 쓴 너와는 말하는 게 싫어. 네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잖아."

결국 해리는 기숙사에서 투명 망토를 쓰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헤르미온느와 함께 호그스미드로 출발했다.

투명 망토를 쓰자 해리는 놀라울 만큼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대부분이 캐드릭 디고리 이겨라! 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배지를 달고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해리에게 끔직한 말을 하거나 <예언자 일보>에 실린 그 한심한 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내가 혼자 중얼거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크림이 잔뜩 들어간 초콜릿을 먹으면서 허니 듀크 과자가게를 나오던 헤르미온느가 투덜거렸다.

"입술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말하면 되잖아."

"이봐 해리 제발 그 투명한 망토 좀 벗어. 여기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오, 그래? 네 뒤를 한번 돌아보렴."

해리가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리타 스터키가 사진 기자를 데리고 막 스리 브룸스틱스 술집에서 나오는 중이였다. 그들은 커다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헤르미온느의 곁을 지나갔다.

해리는 리타 스터키의 악어 가죽핸드백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허니듀크 상점의 담벼락에 딱 붙어 섰다. 그들이 가버리자, 해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저 여자는 지금 이 마을에서 묵고 있어. 분명히 첫번째 시험을 구경하러 올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해리의 뱃속이 뒤틀리면서 희미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지만 해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헤르미온느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이제 갔어." 헤르미온느가 투명망토를 쓰고 있는 해리 너머로 길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스리 브룸스틱스에 사서 버터 맥주나 한잔 마시지 않을래? 좀 춥지 않니? 거기 간다고 해서 꼭 롬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

해리가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금방 알아차린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스리 브룸스틱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자유로운 오후 시간을 즐기려고 나온 호그와트의 학생들 이였다. 하지만 그밖에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온갖 다양한 마법사들이 보였다. 해리는 호그스미드가 영국에서 마법사들만 사는 유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늙은 마녀에게는 일종의 천국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마녀들은 마법사처럼 머그들 사이에서 자신을 위장하는 일에 벼로 능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투명 망토를 입고 복잡한 사람들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발을 밟게 되면, 당장 이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헤르미온느가 맥주를 사는 동안에, 해리는 가장자리를 따라 구석진 빈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프레드, 조지 그리고 리 조던과 함께 앉아 있는 론의 모습이 보였다. 론의 뒤통수를 한 방 세게 칼기고 싶은 충동을 애써 억누르며, 해리는 마침내 테이블에 도달해서 의자에 앉았다.

잠시 후에 테이블로 돌아온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투명 망토를 밑으로 슬쩍 맥주를 건네주었다.

"여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한심한 멍청이처럼 보인다."

헤르미온느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헤르미온느는 S. P. E. W. 회원의 명단을 적어놓은 노트를 꺼냈다. 얼마 안 되는 명단의 제일 꼭대기에는 해리와 론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들이 함께 계획을 짜고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간사와 회계 담당으로 임명했던 것이 아주 오래 전의 일처럼 여겨졌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마을 사람들이 S. P. E. W.에 가입하도록 설득해 보겠어."

헤르미온느는 진지한 표정으로 술집을 둘러보았다.

"그래, 그렇구나." 해리는 투명 망토 밑에서 버터 맥주를 한모금 들이마셨다. "헤르미온느,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언제 이지거운 일을 포기할 생각이니?"

"꼬마 집 요정들이 정당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얻게 될 때까지!"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 속삭였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좀더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학교 주방에는 어떻게 들어가니?

"난 몰라. 프레드와 조지에게나 한번 물어봐."

해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입을 다물고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해리는 버터 맥주를 마시면서 술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모두 다 유쾌하고 즐거운 표정이었다. 어니 맥밀란과 한나 아보트는 근처 테이블에서 개구리 초콜릿 카드를 서로 교환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망토 위에 케드릭 디고리 이겨라! 라는 배지를 달고 있었다.

술집으로 들어오는 문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초와 여려명의 래번클로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초는 가슴에 케드릭을 응원하는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은 해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이 사람들 틈에 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 함께 둘러앉아서 웃고 떠들며 숙제 이외에는 다른 아무런 근심도 없이 지낼 수만 있다면, 해리는 이 세상 무엇의 그 무엇이라도 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과연 어떤 기분으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해리는 지금처럼 투명 망토를 입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론은 해리의 곁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들 세 사람은 학교 챔피언이 화요일에 치러야 하는 그 무섭고 위험하다는 시험이 무엇이든 즐겁게 상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해리는 그 날이 어서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고대했을 것이고, 그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관중석 뒤에 앉자서 안전하게 구경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케드릭을 응원하면서...

해리는 다른 챔피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최근에 케드릭 디고리는 약간 조조해하면서도 무척 활기에 넘치는 것 같았다. 풀리르 델라쿠르는 이따금씩 복도에서 마주치곤 했는데, 언제나 평소와 똑같이 거만하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빅터 크롬은 도서관에 앉아서 책에다 온통 정신을 쓸고 있었다.

해리는 머리 속으로 시리우스를 떠올렸다. 그러자 가금 속에 팽팽하고 딱딱하게 맷혀 있던 응어리가 금세 녹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12 시간만 지나면,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바로 오늘 밤에 두 사람은 휴게실 벽난로에서 만날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다른 일들이 그렇듯이 더 이상 꼬이지만 않는다면...

"저기를 봐! 해그리드야!"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해그리드의 텁수룩하고 거대한 뒤통수가 다른 사람들 위로 불쑥 솟아올라 있었다. 그런데 고맙게도 해그리드는 더 이상 머리를 끄는 생각은 포기한 것 같았다.

해리는 왜 진작 덩치 큰 해그리드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난 해리는, 가만히 허리를 숙인 채 무디 교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해그리드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해그리드의 앞에는 그가 늘 사용하는 거대한 맥주잔이 놓여 있었다. 예쁘장한 술집 주인인 로드메르타 부인은 그것을 뜻밖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빈 술자를 치우던 로즈메르타 부인은 자꾸만 무디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로즈메르타 부인은 무디의 행동이 자기네 꿀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해리는 잘 알고 있었다. 지난번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간에 무디는 학생들에게 자신은 언제나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잔에 다 독을 타는 것쯤은 어둠의 마법사들에게 있어서 누워서 떡먹기라는 주장이었다.

해리가 지켜보는 동안, 해그리드와 무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다가, 문득 해그리드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무디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신비한 눈으로 해리가 앉아 있는 구석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해그리드의 등(도저히 어깨에는 무디의 손이 달지 않았다)을 탁 치더니 뭐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두 사람은 술집을 가로질러서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잘 지내냐,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헤르미온느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무디는 테이블 주위를 절뚝거리면서 돌아다니더니 허리를 약간 숙였다. 해리는 아마도 무디가 S.P.E.W. 공책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디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멋진 망토구나, 포터."

해리는 너무나 놀라서 무디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로 눈앞에서 보니까, 커다랗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 무디의 코가 더욱 분명하게 보였다. 무디는 씩 웃었다.

"선생님이 눈은... 그러니까 저를 볼 수가 있지." 무디가 작게 소곤거렸다.
때때로 깨 쓸모가 있단 말이야."

해그리드도 해리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자진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무다기 해그리드에게 비금 해리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 주었을 것이다. 해그리드는 허리를 숙이면서 S.P.E.W. 공책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그리고 해리만 간신히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해리, 오늘 밤 자정에 오두막집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그 투명 망토를 입고 와."

다시 몸을 일으킨 해그리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만나서 반갑구나,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가 오늘 밤에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걸까?"

해리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랬어?"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해리, 네가 가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잘못 하다가는 시리우스와의 약속에 늦을지도 몰라." 헤르미온느는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살펴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헤르미온느의 말은 사실이었다. 만약 자정에 해그리드를 찾아간다면, 까딱하다간 시리우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헤드위그를 보내서 갈 수 없다는 전갈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물론 헤드위그가 전갈을 전해주겠다고 동의를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해리는 해그리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빨리 알아보는 편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다.

해그리드는 한번도 그렇게 늦은 밤에 해리를 불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11 시 30 분이 되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했던 해리는 투명 망토를 입고 휴게실로 향하는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갔다.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 크리비형제가 케드릭 디고리 이겨라!라는 글씨가 적힌 배지로 어렵게 구해 와서는 해리 포터 이겨라!라는 구호를 바꾸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간신히 할 수 있었던 일은 포터는 야비하다!라는 구호만 계속 나오게 하는 것뿐이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크리비 형제 곁을 지나서 초상화 출구 앞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시계를 출곧 바라보면서 몇 분 정도 기다렸다. 그러자 미리 계획했던 대로 헤르미온느가 밖에서 뚱뚱한 여인을 열어주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곁을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고마워!'라고 조그맣게 인사하고 재빨리 성을 빠져나갔다.

주위는 무척 어두웠다. 해리는 잔디밭을 지나서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걸어갔다. 커다란 보바통의 마차 안에도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해리가 해그리드의 오두막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마차 안에서 맥심 부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해리, 너니?"

해그리드가 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래요." 해리는 재빨리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서 투명 망토를 벗었다. "무슨 일이죠?"

"너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게 있어."

해그리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했다. 어쩐지 해그리드는 몹시 흥분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단추 구멍에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한 국화처럼 보이는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비록 해그리드는 윤활유를 머리에 바를 생각은 단념한 것 같았지만, 머리를 빗으려고 시도한 것은 분명했다. 해리는 부러진 빗살이 머리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거죠?"

해리가 걱정스런운 듯이 물었다. 기껏해야 스크루트의 줄무늬 알이거나, 아니면 해그리드가 또다시 술집에서 만난 낯선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머리 셋 달린 괴물 개가 아닐까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조용히 하고... 저 투명 망토를 꼭 입고 있어야 해." 해그리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팽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해그리드,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1시까지는 반드시 성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더 이상 해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해그리드는 오두막집 문을 열더니 어둠 속을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갔다. 서둘러 해그리드의 뒤를 따라가던 해리는 문득 그가 보바통의 마차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해그리드, 도대체 무슨"

"쉬잇!"

해그리드는 황금 지팡이 두 개가 십자가 모양으로 새겨진 문을 세 번 두드렸다.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나타난 맥심 부인은 해그리드를 보더니 활짝 미소를 지었다.

"아! 아그리드... 벌써 시간이 되었나용?"

"봉싸르."

해그리드는 환한 얼굴로 맥심 부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맥심 부인이 황금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도와주었다.

맥심 부인이 마차의 문을 닫자, 해그리드는 그녀의 팔짱을 켰다. 두 사람은 맥심 부인의 날개 달린 거대한 말을 풀어놓은 방목장 주위를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해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채, 거의 뛰다시피 하며 부지런히 그들을 쫓아갔다.

해그리드는 나에게 맥심 부인을 보여주고 싶던걸 걸까? 하지만 맥심 부인은 언제라도 볼 수 있는데... 맥심 부인 정도의 몸집이라면 결코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맥심 부인도 해리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맥심 부인이 애교를 부리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건가용, 아그리드?"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해그리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주 볼 만할 겁니다. 나를 믿으세요. 하지만 내가 보여주었다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원래 당신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맥심 부인은 길고 검은 속눈썹을 치켜 뜨면서 교태를 부렸다. 그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이따금씩 시간을 확인하면서 종종걸음으로 그들의 뒤를 쫓아가던 해리는 은근히 부아가 치밀기 시작했다.

해그리드는 또다시 어떤 바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시리우스와의 약속을 어기게 될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가도 두 사람이 멈추지 않는다면, 해리는 당장 뒤로 돌아서서 성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해그리드는 맥심 부인과 함께 달빛 아래에서 산책이나 즐기라고 내버려두지...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성과 호수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 가장자리까지 멀리 걸어갔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해리는 어떤 수리를 들었다. 저 앞에서 사람들이 고막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울음 소리가...

해그리드는 맥심 부인을 나무 사이로 데려가더니 이윽고 걸음을 멈추었다. 해리도 황급히 그들을 따라갔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해리는 강렬한 불꽃을 본 것 같았다. 사람들이 쓴살같이 달려나왔다. 다음 순간, 해리의 입이 딱 벌어졌다.

용이다!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네 마리의 용이 두꺼운 나무판으로 담장을 두른 우리 안에서 날뛰고 있었다. 네 마리의 용이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콧김을 내뿜을 때마다 날카로운 이빨이 솟아 나온 입에서 검은 밤하늘을 향해 불길이 솟구쳤다. 길게 뻗어 있는 용의 목은 바닥에서부터 거의 15 미터나 높이 솟아올라 있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푸른빛이 감도는 은색에 길고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 위에서 있는 마법사들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덥석덥석 물려고 했다.

부드러운 비늘이 나 있는 초록색 용은 마구 몸부림을 치면서 발을 쾅쾅 굴렸다. 얼굴 주위에 가느다란 황금바늘 같은 기이한 털이 달린 붉은색 용은 허공으로 버섯 모양의 불구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용들보다 훨씬 더 도마뱀과 비슷하게 생긴 거대한 검은색 용은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최소한 서른 명 정도 되는 마법사들이 사나운 기세로 날뛰는 용들을 달래기 위해 비지땀을 흘렸다. 각각의 용마다 일곱 명 내지 여덟 명의 마법사들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들은 용의 목과 다리에 묶여 있는 두꺼운 가죽 끈에 연결된 쇠사슬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해리는 마치 온몸이 마비리도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해리가 겨우 머리를 들고 높이 올려다보자, 검은색 용과 눈길을 마주쳤다. 고양이처럼 동공이 수직으로 세워진 검은색 용의 눈은 동그랗게 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해리는 알 수가 없었다... 용은 끔찍한 소음과 신음 소리,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냈다...

"뒤로 물려서요, 해그리드!" 6 미터 이상 접근하면 용이 불을 내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해그리드가 용을 쳐다보면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또 다른 마법사가 절망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셋을 세면 다 함께 기절 주문을!"

해리는 용을 지키는 마법사들이 제각기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

"스투페파이!"

마법사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기절 주문이 맹렬한 로켓처럼 어둠을 뚫고 발사되자, 비늘로 뒤덮인 용의 가죽에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다.

해리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던 용 한 마리가 위태롭게 뒷다리를 비틀거리더니 입을 딱 벌리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용의 콧구멍에서 갑자기 불길이 사라지고 연기만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용은 바닥으로 쓰러졌다.

몇 톤이나 되는 검은색 비늘 용이 땅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을 때, 해리는 정말로 과정 없이 말하건대, 나무들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용을 지키는 마법사들은 지팡이를 내리더니 쓰러진 용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용 한 마리가 거의 작은 언덕만한 크기였다. 마법사들은 부지런히 용이 몸에 쇠사슬을 두드리더니 쇠못과 단단히 연결했다. 그리고 요술지팡이를 이용해서 쇠못을 땅 속 깊이 박았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시겠어요?"

해그리드가 신이 나서 맥심 부인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곧 담장으로 다가갔다. 해리도 재빨리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해그리드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던 마법사가 뒤로 돌아섰다. 해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찰리 위즐리였다.

"괜찮아요, 해그리드?" 찰리 위즐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다가왔다. "비로소 좀 진정이 되었군요. 우리는 수면제를 먹여서 용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밤이 되고 주위도 조용해졌을 때 용을 깨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다시피 용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군요. 기분이 영 아니에요."

"어떤 놈들은 데리고 왔나, 찰리?"

해그리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쓰러져 있는 검은색 용을 바라보았다. 그용은 아직까지도 눈을 뜨고 있었다. 해리는 주름진 검은 눈썹 밑에서 노랗게 번쩍이는 가느다란 용의 눈을 볼 수가 있었다.

"이 용은 형가리의 혼테일이에요." 찰리가 검은색 용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저기 좀 작은 용은 웨일스의 그린이고, 저기 청회색 용이 스웨덴의 쇼트 스나우트죠. 저기에 있는 붉은색 용은 중국의 파이어볼이에요."

설명을 마친 찰리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맥심 부인은 기절한 용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울타리 가장자리를 따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해그리드, 손님을 데리고 왔는지는 몰랐군요. 챔피언들은 시험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 부인은 자기 학생에게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찰리가 얼굴을 살짝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저 맥심 부인이 저 용을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해그리드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황홀한 해그리드의 시선은 용들로부터 떨어질 줄 모랐다.

"참 낭만적인 데이트군요, 해그리드."

찰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말했다.

"네 마리의 용이라..." 해그리드가 용들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챔피언들이 제각기 한 마리씩 담당하게 되겠군. 그런데 이 용으로 무엇을 하는 건가? 싸우기라도 한단말인가?"

"그냥 용 앞을 통과하는 걸 거예요." 찰리가 해그리드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용이 너무나 심술궂게 굴면, 우리가 당장 소멸 마법을 걸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선 특별히 알을 품고 있는 어미들은 원했어요.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절대로 혼테일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독이 있거든요. 게다가 혼테일의 꼬리는 앞에 있는 뿐 만큼이나 위험하다구요."

찰리는 손을 들어서 혼테일의 꼬리를 가리켰다. 해리는 구릿빛의 길고 뾰족한 가시들이 혼테일의 꼬리를 따라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찰리와 함께 일하는 다섯 명의 마법사들이 비틀거리면서 혼테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두꺼운 담요에 커다란 회색 알들을 담아서 끌고 오는 중이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혼테일 옆에 알을 갖다 놓자, 해그리드 탐이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신음 소리를 내었다.

"해그리드, 나는 알의 숫자를 모두 정확하게 세어 놓았어요." 엄격한 목소리로 경고한 다음, 찰리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해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

해그리드의 눈은 아직까지도 용의 알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도 그 아이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찰리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용의 우리 안을 바라보았다. "엄마에게는 해리가 어떤 시험을 겪어야 하는지 감히 말도 못 꺼내었어요, 엄마는 벌써 그 애가 걱정이 되어서 안달이거든요..." 찰리가 위즐리 부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아이를 그런 시합에 내보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 그렇게 어린데 말이야! 나는 아직 어린아이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나이 제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엄마는 <예언자

일보>에서 해리에 대한 기사를 읽고 한바탕 눈물 바다를 이루셨죠. '그 아이가 아직도 부모 생각을 하면서 운다는구나! 오, 가엾은 것. 나는 전혀 몰랐잖니!"

해리는 이제 충분히 볼 것을 다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네 마리의 용과 맥심 부인에게 완전히 넋이 팔린 해그리드도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뒤로 돌아서 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미리 아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처음에 받았던 커다란 충격은 벌써 어느 정도 사라졌다. 만약 목요일에 처음으로 저 용들을 보았다면, 전교생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오줌을 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해리는 지팡이(지금 이 순간에는 한낱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이지만)로 무장을 하고, 비늘로 잔뜩 뒤덮인 채 15 미터 높이에서 불을 내뿜는 용과 맞으면서 그앞을 지나가야만 한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리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숲 가장자리를 따라갔다. 빨리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시리우스를 만나려면 15 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지금 해리에게 있어서 시리우스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해리는 느닷없이 무엇인가 아주 단단한 것과 세차게 부딪혔다.

해리는 그만 뒤로 광 나자빠지고 말았다. 안경이 아슬아슬하게 해리의 코 끝에 걸렸다. 해리는 정신 없이 투명 망토를 꽉 붙잡았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쿠, 거기 누구야?"

해리는 황급히 투명 망토가 제대로 덮여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납작하게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해리와 부딪힌 마법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 마법사의 턱에 나 있는 염소 수염은 똑똑히 구별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카르카로프였다.

"거기 누구냐?"

카르카로프가 무척 수상쩍은 듯이 깜깜한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시 한 번 소리쳤다. 해리는 여전히 숨을 죽인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 분이 후루자 카르카로프는 동물이나 뭐 그런 비슷한 것에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카르카로프는 개를 찾으려는 듯이 허리를 숙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기면서 용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 해리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가능한 빨리 호그와트를 향해 어둠 속을 걸어갔다.

카르카로프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베에서 몰래 빠져 나온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숲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해그리드와 맥심 부인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대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란 힘든 일이니까...

이제 카르카로프가 한 일은 단지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쫓아가서 맥심 부인처럼 챔피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요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치르게 될 챔피언은 오직 케드릭 한 사람뿐이었다.

성에 도착한 해리는 살그머니 현관으로 들어가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이 차고 힘들었지만,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 5분 이내에 벽난로 앞에 도착해야만 한다...

"허튼소리!"

해리가 통로를 가로막은 초상화 액자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뚱뚱한 여인에게 속삭였다.

"음, 그렇다면..."

뚱뚱한 여인은 눈조차 뜨지 않고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초상화는 해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움직였다. 해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스럽게도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까, 헤르미온느가 해리와 시리우스가 몰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똑똑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모양이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벗고, 벽난로 옆에 있는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다시피 걸터 앉았다. 휴게실 내부는 거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벽난로 불빛만이 주위를 밝히고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근처에 있는 테이블에는 크리비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캐드릭 디고리 이겨라!라는 글씨가 적힌 배지가 불빛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배지의 글씨는 포터는 정말로 야비하다!라고 바뀌어져 있었다. 다시 벽난로를 향해 시선을 돌린 해리는 너무 놀라서 펄쩍 뛰었다.

시리우스의 머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양전히 놓쳐 있었던 것이다. 언제인가 위즐리네 식당에서 디고리 씨가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더라면, 해리는 그만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해리의 얼굴에는 금방 반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며칠 동안 처음으로 지어보는 미소였다. 안락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해리는 벽난로 앞에 바싹 웅크리고 앉아서 입을 열었다.

"시리우스, 어떻게 지내세요?"

시리우스의 얼굴은 해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지난번에 그들이 헤어질 때 시리우스의 얼굴은 야위고 훌쭉했으며 길고 텁수룩한 검은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도 짧고 단정했으며 얼굴도 보기 좋게 살이 올라서 훨씬 젊어 보였다. 해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리우스의 사진이었던 포터 부부의 결혼식 사진에 나온 그 얼굴과 더욱 비슷하게 보였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어떻니?"

시리우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잠시 동안 해리는 '좋아요'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난 며칠 동안 말한 것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욱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것, 리타 스키터가 <예언자 일보>에 거짓말 기사를 실은 것,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것 그리고 론, 론이 자신을 믿어 주지 않고 오히려 질투했다는 것을...

"방금 전에 해그리드가 첫 번째 시험에 뭐가 나올지 보여주었어요, 시리우스, 그건 바로 용이에요. 나는 그걸 통과해야만 해요."

해리는 간신히 말을 끝맺었다. 시리우스는 걱정이 가득 담긴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시리우스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아즈카반의 남긴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고뇌에 가득 찬, 생기 없는 표정이...

시리우스는 도중에 한 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해리의 말을 RMxRK 지 들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해리, 용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도록 하자. 나는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벽난로를 이용하려고 어떤 마법사 네 집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지. 하지만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먼저 너에게 경고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단다."

"뭐죠?"

해리는 자신의 영혼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용보다도 더 나쁜 일이 또 있는 걸까?

"카르카로프 말이다. 해리, 카르카로프는 죽음을 먹는 자야. 너도 죽음을 먹는 자가 뭔지는 알겠지? 그렇지?"

시리우스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가... 뭐라구요?"

"카르카로프는 불잡힌 적이 있단다. 나와 함께 아즈카반에 있었지. 하지만 카르카로프는 금방 풀려나게 되었어. 덤블도어가 올해 호그와트에 오러를 한 사람 두려고 했던 건 틀림없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가 장담하지만, 그건 카르카로프를 감시하기 위해서야. 무디가 카르카로프를 잡아서 처음으로 아즈카반에 집어넣은 사람이란다."

"그런데 어째서 풀려났단 말인가요?"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해리의 머리는 이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왜 카르카로프를 풀어주었죠?"

"마법부 장관이 협상을 했어." 시리우스가 씁쓸하게 말했다.

"카르카로프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공범자들의 이름을 불었어... 그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르카로프를 대신해서 아즈카반으로 들어갔지. 사실 카르카로프는 그곳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었던단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카르카로프는 자기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둠의 마법을 가르쳐 주었어. 그러니까 던스트랭의 챔피언도 조심해라."

"알았어요." 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카르카로프가 제 이름을 불의 잔 속에 집어넣었던단 말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카르카로프는 아주 연기를 잘 하는군요. 그 일에 대해서 몹시 분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카르카로프는 제가 트리위저드 시합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카르카로프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는 우리도 알아. 마법부 장관을 속여서 풀려날 정도이니까 말이다. 요즘 나는 <예언자 일보>에 실린 기사들을 줄곧 살펴보고 있단다, 해리..."

시리우스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신문을 보고 있죠."

해리가 시큰둥하게 말했다.

"지난달에 그 리타 스키터라는 여자의 기사에서 무디가 호그와트로 출발하기 전날에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지. 물론 그 여자는 그것이 또 다른 가짜 소동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해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려고 하자, 시리우스가 재빨리 말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무디가 호그와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해. 무디가 근처에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지.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이다. 매드아이가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디가 현실과 환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무디는 마법부의 역대 오려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오려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해리가 천천히 물었다.

"카르카로프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도대체 왜?"

"나는 아주 이상한 소식들을 듣고 있단다." 시리우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최근 들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심지어 퀴디치 월드컵이 열리는 장소까지 모습을 드러냈어. 누군가 어둠의 표식을 떠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너도 마법부의 마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니?"

"버사 조킨스 말인가요?"

해리가 깜짝 놀라면서 반문했다.

"그래... 버사 조킨스는 알바니아에서 사라졌어. 그곳은 바로 볼드모트가 마지막으로 있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곳이지... 그리고 버사 조킨스는 분명히 트리위저드 시합이 곧 열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그래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곧 볼드모트를 찾아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내 말을 좀 들어보렴. 나는 버사 조킨스를 잘 알고 있단다." 시리우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버사 조킨스는 내가 호그와트에 있었을 때, 함께 다녔단다. 버사 조킨스는 네 아버지와 나보다 몇 학년 위였지. 버사 조킨스는 돌대가리였어. 소리만 요란했지, 머리 속은 텅 비어 있었단다. 해리, 그것은 결코 좋은 결합이 아니야. 버사 조킨스라면 분명히 아주 쉽게 뒷에 걸려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볼드모트가 이 시합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알아냈다는 건가요? 아저씨의 말은 그런 뜻인가요? 아저씨는 카르카로프가 볼드모트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시리우스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전혀 모르겠어. 내 생각에 따르면, 카르카로프는 볼드모트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볼드모트에게 돌아갈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불의 잔 속에 네 이름을 집어넣은 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 시합이야말로 우연한 사고처럼 가장해서 너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지금 제가 처한 입장을 보면 그것은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군요. 그들은 그저 뒷짐을 지고 물러나서 용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맞아. 그 용들도..." 시리우스는 이제 아주 다급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해리. 절대로 기절 마법 따위를 써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용들은 아주 강하고 너무나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마법사로는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어. 용 한 마리를 상대하려면 최소한 여섯 명의 마법사들이 필요하단다."

"그건 저도 알아요. 얼마 전에 보았거든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너 혼자 힘으로 치러야만 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마법이야. 그건..."

시리우스가 해리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재빨리 손을 들어서 시리우스의 입을 다물게 했다. 해리의 심장이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가세요!" 해리가 시리우스에게 속삭였다. "어서 가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허둥지둥 몸을 일으킨 해리는 몸으로 벽난로를 가리고 섰다. 만약 누군가가 호그와트의 벽난로 안에 시리우스의 얼굴이 나타난 것을 본다면, 엄청난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어쩌면 이일에 마법부까지 개입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해리는 시리우스가 있는 곳에 대해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해리는 등 뒤에서 평하고 조그맣게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시리우스가 가버린 것이다. 해리는 가만히 나선형 계단을 노려보았다. 새벽 1시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닐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시리우스로부터 어떻게 용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조차 들을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

마침내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론이었다. 밤색의 모직 잠옷을 입은 론은 휴게실 건너편에서 해리와 얼굴을 딱 마주치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론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해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너야말로 이 시간에 여기에서 뭐하는 거냐?"

"나는 그저 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론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아무것도 아냐. 침대로 돌아갈 거야."

"그저 여기저기 쑤셔 보고 다닐 생각이었지? 그렇지?"

해리가 마구 고함을 질렀다. 해리는 론이 별다른 생각도 없이 그냥 휴게실로 내려왔을 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그 순간에는 달랑한 잠옷 바지 밑으로 보이는 발목까지, 론의 모든 것이 입살스럽기만 했다.

"미안해." 론의 얼굴이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다. "네가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미처 몰랐어. 네가 혼자서 시험을 조용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지."

해리는 근처에 있는 테이블 위에서 포터는 정말로 야비하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는 배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힘껏 론을 향해 내던졌다. 그것은 론의 이마에 맞고 퉁겨져 나갔다.

"그거나 가져가." 해리가 론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화요일에 네 가슴에 달고 갈 물건이야. 하마터면 이제 이마에 상처까지 날 뻔했구나. 그게 바로 네가 원하던 것 아니었니? 안 그래?"

해리는 방을 가로질러 계단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내심 론이 자신을 불잡기를 기대했다. 아니, 론이 자신을 한 방 갈겨준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론은 몸에 꼭 끼는 잠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폭풍처럼 단숨에 계단을 뛰어올라간 해리는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잠들지 않고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 하지만 침실로 올라오는 론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제 20 장 첫번째 시험

일요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해리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어서, 한참 후에야 자신이 양말 대신 모자를 발에 끼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겨우 제대로 옷을 다 입고 나자, 해리는 분주하게 헤르미온느를 찾아다녔다. 헤르미온느는 연회장의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서 지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도저히 음식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던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마지막 숟갈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 헤르미온느에게 용에 관한 이야기와 시리우스가 했던 말을 모두 털어놓았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호수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아야만 했다.

카르카로프에 대한 시리우스의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용의 문제가 훨씬 더 다급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화요일 저녁까지 네 목숨이나 부지하고 보자꾸나." 헤르미온느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래야만 카르카로프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지."

두 사람은 용을 진정시킬 수 있는 간단한 마법이 무엇일까 궁리하면서 호수 주위를 다시 세 번이나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도서관을 찾아갔다. 해리는 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은 모두 꺼낸 후에, 헤르미온느와 함께 열심히 책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마법으로 용발톱 자르기... 비늘 상처 치료하기...'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겠어. 이건 해그리드처럼 용을 건강하게 기르고 싶어하는 괴짜들이나 보는 거라구..."

"'용을 죽이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용의 두꺼운 가죽에는 고대 마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마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죽을 뚫고 들어갈 수가...' 하지만 시리우스는 간단한 마법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간단한 마법에 관한 책을 살펴보자."

<너무나 용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옆으로 던지면서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마법책이 잔뜩 쌓여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곁에 딱 붙어 서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중얼거렸다.

"글쎄... 이건 바꾸기 마법이야. 하지만 바꾸기 마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네가 용의 어금니를 빨간 잇몸이나 조금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꿀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는 바로 이거야. 용의 가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마법이 별로 없다는 거 말이야... 나는 너에게 변신

마법을 권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큰 놈이라면 네가 성공할 희망은 거의 없어. 심지어 맥고나걸 교수라고 해도... 차라리 너에게 마법을 걸어보면 어떨까? 어쩌면 네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건 단순한 마법이 아니야. 게다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마법들을 사용해 본 적도 없어. 나도 약간 알고 있을 뿐이야. O.W.L. 실습 시험을 쳤던 적이 있거든..."

"헤르미온느,, 잠시 동안이라도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을래? 집중을 좀 해야겠어."

해리가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조용해지자, 이번에는 해리의 머리 속이 텅 비면서 용웅거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해리는 절망적으로 책 목록을 훑어갔다. <바쁘고 짜증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주문>, <즉석에서 머리가죽 벗기기> 하지만 용에게는 머리카락이 없다... <후추 불어넣기> 이건 오히려 용의 화력을 더욱 세게 만들어놓을 것이다... <뿔 헛바닥> 용에게 무기를 하나 더 안겨줄 일은 없지...

"오, 이런! 크롬이 다시 나타났어. 그 우스꽝스러운 자기네 배 안에서 책을 읽으면 어디가 덧나나?" 빅터 크롬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오자, 헤르미온느가 짜증을 냈다. 빅터 크롬은 두 사람을 힐끗 바라보더니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가자, 해리. 우리는 그만 휴게실로 돌아가는 게 좋아. 조금 있으면 저 녀석의 팬 클럽이 잔뜩 몰려올 거라구."

헤르미온느의 말이 맞았다. 두 사람이 도서관을 나서자마자,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발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왔다. 그 여학생들 중에 한 명은 허리에 불가리아 스카프를 매고 있었다.

그날 밤에 해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해리는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호그와트에서 도망칠 궁리를 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에 연회장을 둘러보면서 이 성을 떠난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자. 절대로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해리가 행복을 맛보았던 유일한 장소였다. 아마...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해리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였다.

어쩌면 프리벳 가의 두들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 남아서 용과 맞서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해리의 마음은 다소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간신히 (목구멍이 잘 움직여 주질 않았다) 점시에 놓여 있는 베이컨을 다 먹은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후풀푸프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케드릭 디고리의 모습이 보였다.

케드릭 디고리는 아직까지도 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만약 맥심 부인과 카르카로프가 플뢰르 멜라쿠르와 빅터 크롬에게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라는 해리의 짐작이 맞다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챔피언은 오직 케드릭뿐이었다.

"헤르미온느, 이따가 온실에서 만나자." 연회장을 떠나는 케드릭을 보면서 순간 결심을 굳힌 해리가 말했다. "어서 가. 내가 곧 따라갈게."

"해리, 잘못하면 수업에 늦어. 이제 곧 벨이 울릴 텐데..."

"곧 따라갈게. 알았지?"

해리가 막 대리석 계단 밑에 도착했을 때, 케드릭은 벌써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케드릭의 주위에는 6학년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해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케드릭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해리가 가까이 지나갈 때마다 리타 스키터의 신문 기사를 읽어대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해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케드릭을 따라갔다. 케드릭은 마법 수업 교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 교실을 보자, 해리는 한 가지 좋은 수가 떠올랐다. 약간 떨어진 곳에 서서 지팡이를 꺼낸 해리는 조심스럽게 목표물을 겨냥했다.

"디핀도!"

그 순간 케드릭의 가방이 활짝 열렸다.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양피지와 깃펜 그리고 책들이 쓸어지면서 마루에 흩어졌다. 잉크병은 박살이 나고 말았다.

"귀찮게 굴지 마!" 친구들이 케드릭을 도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플리트윅 선생님께 내가 곧 간다고 말씀드려. 어서 가..."

마침내 모든 일이 해리가 원하던 대로 풀렸다. 해리는 지팡이를 다시 옷 속에 집어넣고 케드릭의 친구들이 모두 교실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재빨리 케드릭과 자신밖에 없는 텅 빈 복도를 달려갔다.

"안녕!" 케드릭이 잉크로 얼룩이 진 <고급 변신술 입문서>를 집어들면서 인사했다. "갑자기 가방이 열려서 말이야... 모두 다 최고급 신제품 물건들인데..."

"케드릭, 첫 번째 시험은 용이야."

해리가 대뜸 말했다.

"뭐라구?"

케드릭이 깜작 놀라면서 얼굴을 들었다.

"용이라니까." 케드릭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 플리트윅 선생님이 불쑥 교실 밖으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해리는 다급하게 말했다. "모두 네 마리야. 우리 네 사람이 한 마리씩 맡게 될 거야. 우리는 용을 통과해야만 해."

케드릭은 가만히 해리를 쳐다보았다. 케드릭의 회색 눈동자에서 해리가 지난 토요일 밤부터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이 떠오르고 있었다.

"정말이니?"

케드릭이 약간 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이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하지만 네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자신을 말하면 해그리드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냐. 지금쯤 플리트윅 크롬도 알고 있을 거야. 맥심 부인과 카르카로프 모두 용을 봤기 때문이지."

케드릭이 몸을 똑바로 세웠다. 케드릭의 팔에는 깃펜과 양피지, 책 등이 잔뜩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가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케드릭은 멍하니 해리를 바라보았다. 케드릭의 눈에는 거의 의심하는 듯한, 당혹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지?"

케드릭이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해리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케드릭을 바라보았다. 만약 케드릭이 직접 두 눈으로 용을 보았다면 분명히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리는 아무리 미워하는 적이라고 해도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런 괴물과 대면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글쎄... 혹시 말포이나 스네이프라면...

" 그냥... 이게 공평하잖아. 그렇지 않니?" 해리가 케드릭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는 거야. 그렇지?"

케드릭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해리의 등 뒤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가만히 뒤를 돌아보았다. 매드아이 무디 교수님이 가까운 교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포터, 이리 와라." 무디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소리쳤다. "디고리, 너는 가고..."

해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디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까?

"저, 교수님. 저는 약초학 수업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런 건 잊어버려라, 포터. 어서 내 방으로 들어와."

해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무디의 뒤를 따라갔다. 무디가 어떻게 용에 대해서 알았는지 알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무디가 덤블도어를 찾아가서 해그리드에 대해 말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나를 흰족제비로 바꾸어 놓지나 않을까? 만약 흰족제비가 된다면, 용을 통과하기가 더욱 쉬울지도 몰라... 해리의 머리 속에서 엉뚱한 생각들이 오락가락했다. 몸이 더 작아지면 15 미터나 되는 용의 눈에 좀처럼 띄지 않을 거야...

해리는 무디의 뒤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다. 무디는 문을 닫은 후에 해리를 쳐다보았다. 무디의 마법의 운동장은 마치 보통 눈처럼 제자리에 딱 박혀 있었다.

"포터, 지금 네가 한 일은 아주 잘한 일이다."

무디가 차분하게 말했다. 해리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무디의 반응은 해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앉아라."

무디의 말대로 의자에 앉은 해리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해리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치던 예전 선생님들이 이 방을 사용할 때 여기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록허트 교수가 있을 때에, 이 방은 온통 활짝 웃으면서 눈을 깡끗거리는 록허트 교수의 독사진을 도배되어 있었다. 루핀 교수가 지내고 있을 때에는,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해온 신기한 어둠의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꿈도 꾸지 못했던 온갖 이상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해리는 아마도 무디가 어렸던 시절에 사용하던 물건인 모양이라도 추측했다.

무디의 책상 위에는 꼭대기가 빙빙 돌아가는 커다랗고 금이 난 유리팡이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해리는 한눈에 그것이 스티코스코프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무디의 것보다는 훨씬 더 작기는 했지만, 해리도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쪽 구석에 세워진 작은 탁자 위에는 몹시 구불구불한 황금 텔레비전 안테나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희미하게 흥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해리의 맞은편에는 거울처럼 보이는 것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거울 안에는 방의 모습이 비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림자처럼 흐릿한 형체가 거울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탐지기들이 마음에 드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해리를 향해 무디가 말했다.

"저게 뭐죠?"

해리는 구불구불한 황금 안테나를 가리켰다.

"비밀 탐지기란다. 비밀이나 거짓말을 간파하면 탐지기가 진동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너무 귀찮으니까 말이야. 사방에서 학생들이 왜 숙제를 해오지 못했는가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다 늘어놓잖니.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비밀 탐지기는 줄곧 진동을 멈추지 않았단다. 그리고 나는 스니코스코프도 잠재울 수밖에 없었어. 잠시도 빡 소리를 멈추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내 스니코스코프는 몹시 예민하기 때문에 근처 1.5킬로미터 이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단다. 물론 학생들의 거짓말 따위보다 더욱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지."

무디가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거울은 어디에 쓰는 거죠?"

"저것은 나의 적을 비추는 거울이야. 저기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니? 저 눈동자들이 하얀색으로 변할 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야. 그때는 내 가방을 열 수가 있지." 무디는 굽고 짧은 웃음 소리를 내더니, 창문 밑에 놓여 있는 커다란 가방을 가리켰다. 그 가방은 열쇠 구멍이 무려 일곱 개나 달려 있었다. 해리는 도대체 저 가방 속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하지만 무디의 질문을 듣고 해리는 다시 퍼뜩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래, 용에 대해서... 알아냈단 말이지? 그렇지?"

해리는 잠시 동안 망설였다. 지금까지 줄곧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케드릭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그리드가 규율을 어겼다는 말은 무디에게도 절대로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네."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좋아." 자리에 앉은 무디는 신음 소리를 내면서 나무 다리를 쭉 뻗었다.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전통의 일부였어. 항상 있었던 일이지."

"저는 속임수를 쓴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아낸 건, 그건... 그냥 우연이었어요."

해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 녀석아.. 나는 지금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무디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처음부터 나는 덤블도어에게 말했어. 그 사람이야 얼마든지 고상하게 굴 수 있지만, 늙은 카르카로프와 맥심 부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그들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덤블도어를 꺾고 싶어한단 말이야. 덤블도어가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지."

무디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깔깔 웃었다. 그러자 마법의 눈이 너무나 빠르게 빙글빙글 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해리는 그만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래... 무사히 용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했니?"

무디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질문을 던졌다.

"아뇨."

"나도 너에게 말해 줄 수는 없다." 무디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난 누구만 편애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저 아주 일반적인 충고나 한 마디 해주지. 첫 번째 충고는...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야."

"제겐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해리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대답이 튀어나왔다.

"이것 봐!" 무디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가 너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거라. 네가 제일 잘 하는 게 뭐지?"

문득 해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다. 내가 제일 잘 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 그건 아주 쉬웠다.

"퀴디치요." 해리가 시무룩해서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도움이..."

"맞았어." 무디는 해리를 무섭게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법의 눈조차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너는 정말 끝내주는 비행 선수라고 하더구나."

"그렇기는 해도..." 해리도 무디를 마주 쳐다보았다. "빗자루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오직 지팡이만..."

"두 번째 일반적인 충고는... 너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멋지고 간단한 마법을 사용하라는 거다."

무디가 해리의 말을 가로채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멍하니 무디를 바라보았다.

나에게 필요한 것?

"자, 얘야..." 무디가 부드러운 눈길로 해리를 쳐다보면서 속삭였다. "나의 두 가지 충고를 잘 생각해 보렴... 별로 어렵진 않아..."

그 순간 해리의 머리 속에서 반짝 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해리가 제일 잘 하는 것은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것이다. 허공을 날아서 용을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어볼트가 필요했다. 그리고 파이어볼트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헤르미온느!"

3분이나 늦게 온실로 들어간 해리는 스프라우트 교수에게 황급히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헤르미온느의 곁을 지나가면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헤르미온느,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해리, 그럼 넌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부르르 떨고 있는 파동 덤불의 잔가지를 치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덤불 너머로 걱정스럽게 해리를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 난 내일 오후까지 소환 마법을 배워야만 해."

마침내 두 사람은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교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해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다양한 물건들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책과 깃펜들은 교실을 절반 가량 날아오던 도중에 균형을 잃고 돌처럼 바닥으로 쿵 떨어져 버렸다.

"집중을 해. 해리, 집중을..."

"너는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니?" 해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거대한 용이 자꾸만 내 머리 속에 나타난단 말야...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해리는 점술 수업을 빼먹더라도 계속 소환 마법 연습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점술 수업을 몰래 빼지자는 제안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 헤르미온느가 없다면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해리는 한시간 동안 트릴로니 교수의 수업을 참고 견디어야만 했다.

트릴로니 교수는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를, 화성과 토성이 마주치게 되면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꿈쩍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일에 써버렸다.

"그것 참 잘 됐군요." 해리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질질 끌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고통을 받는 건 딱 질색이거든요."

잠시 동안 혼은 당장이라도 웃음을 터트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 순간 근래에 들어서 처음으로 해리와 혼의 눈길이 마주쳤다. 하지만 해리는 아직까지도 혼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해리는 수업 시간 내내 책상 밑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작은 물건들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하여 간신히 파리 한 마리가 해리의 손 안으로 곧장 날아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소환 마법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파리가 멍청한 놈이었는지도 모른다.

점술 수업이 끝나자 이번에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가야만 했다. 식사를 마친 해리는 마침내 헤르미온느와 함께 투명 망토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비어 있는 교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자정이 지나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다. 좀더 오랫동안 연습할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피브스가 나타나서, 해리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려 한다고 하면서 마구 교실 의자를 내던지는 바람에,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필치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오기 전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리핀도르의 휴게실로 돌아갔다. 고맙게도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해리는 책과 깃펜, 뒤집어진 의자 몇 개, 낡은 고브톤 세트, 네빌의 두꺼비 트레버 등 온갖 잡다한 물건 더미에 둘러싸인 채, 벽난로 옆에 우뚝 서 있었다. 불과 한 시간 전에 해리는 소환 마법을 확실하게 터득한 것이다.

"훨씬 낫구나. 해리, 아주 좋아."

헤르미온느는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무척 기뻐했다.

"좋아. 다음 번에 내가 마법을 잘 부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해리는 룬 문자 사전을 다시 헤르미온느에게 던졌다. 다시 한 번 연습을 하기 위해서였다.

"용이 나를 위협한다. 좋아..."

해리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아씨오 사전!"

눅직한 사전이 헤르미온느의 손에서 빠져나오더니 교실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해리는 손을 내밀어 그 사전을 붙잡았다.

"해리, 마침내 네가 소환 마법을 터득한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몹시 기뻐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파이어볼트는 여기 있는 이 물건들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파이어볼트는 성 안에 있고 나는 저기 운동장에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헤르미온느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네가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집중을 한다면, 파이어볼트는 반드시 날아올 거야. 해리, 이제 우리도 자리 가는게 좋겠다. 너는 좀 자야만 해."

저녁 내내 소환 마법을 배우는 일에 몹시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해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잠시 동안 잊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 고통은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순식간에 학교는 터질 듯한 긴장감과 흥분에 훤히 싸웠다. 모든 수업이 정오에 끝나고, 학생들은 용이 있는 운동장으로 내려갔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운동장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해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홀로 남겨진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해리가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은 행운을 빌거나 혹은 "포터,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휴지를 꼭 준비해 가마"라고 비아냥거렸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초조하고 불안한 상

태가 점점 더 심해지자, 해리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용 앞으로 나가는 순간 정신이 돌아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특별하게 움직여서 전속력으로 지나갔다. 분명히 방금 전에 첫 번째 수업인 마법의 역사 시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별써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도대체 아침 시간은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용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지막 몇 시간은?) 잠시 후에 맥고나걸 교수가 황급히 연회장으로 들어오더니 해리를 향해 다가왔다. 맥고나걸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리를 불렀다.

"포터, 이제 챔피언들은 운동장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너도 첫 번째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지."

"알았어요."

해리를 포크를 접시 위에 힘없이 떨어뜨린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행운을 빌어, 해리. 너는 잘 할 거야!"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속삭였다.

"그래."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해리는 어쩐지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낯설게 느껴졌다.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와 함께 연회장을 빠져 나왔다. 맥고나걸 교수도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맥고나걸 교수도 거의 헤르미온느 만큼이나 안절부절 못 하는 것 같았다. 해리와 함께 돌계단을 지나서 차가운 11월의 오후 공기가 감돌고 있는 밖으로 나오자,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겁먹지 말거라. 언제나 냉정하게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해... 만약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마법사들을 대기시켜 놓았단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괜찮니?"

"네." 해리의 귀에 이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요. 저는 괜찮아요."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를 데리고 용의 우리가 있는 숲으로 걸어갔다. 울창한 숲 너머로 울타리가 분명히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해리는 그곳에 커다란 천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입구를 가로막은 천막 때문에 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너는 다른 챔피언들과 함께 여기 있다가 들어가야 한단다."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네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베그만 씨가 저기

있을 거다... 그분이 너의 순... 순서가 되면 불러주실 거야... 부디 행운을 빈다."

"고맙습니다."

해리는 공허하고 맥빠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를 천막 입구 앞에 남겨두고 떠나갔다. 해리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에는 플뢰르 델라쿠르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플뢰르 델라쿠르가 평소에 보여 주었던 냉정하고 태연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얼굴에는 겁에 질린 듯한 창백한 표정만이 감돌았다. 빅터크룸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게 크룸이 긴장을 표현하는 방식일 거라고 짐작했다. 천막 안에서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던 케드릭은 해리가 들어오자,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해리도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웃는 방법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해리! 잘 해라!" 베그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챔피언들을 둘러보았다. "자... 모두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구."

온통 창백하게 질린 챔피언들 사이에서 혼자 즐거운 미소를 짓고 있는 베그만의 모습은 마치 좀 지나치게 잘난 척하는 만화 주인공과 같았다. 베그만은 또다시 낡은 와스프 팀의 걸옷을 입고 있었다.

"좋아요. 이제 모두 모였군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베그만은 신이 나소 떠들었다. "관중들이 모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주머니를 열어 주겠어요."

베그만은 보라색 비단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를 살짝 들어 올렸다.

"이 주머니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들이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의 작은 모형을 뽑게 될 거예요. 예... 물론 모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러야 한 시험은 바로 황금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훨끗 돌아보았다. 케드릭은 당장 베그만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천막 안을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케드릭의 얼굴은 거의 초록색이었다. 그러나 플뢰르 델라쿠르와 빅터 크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입을 열면 당장이라도 토했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리도 꼭 그런 기분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진해서 이 시합에 참가하지 않았는가...

얼마 안 있어 천막 주위를 지나가는 수백 명의 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농담을 하면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다... 해리는 마치 그들이 별나라에서 온 전혀 다른 인종이라도 되는 듯한 소외감을 느꼈다. 잠시 후에(해리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몇 초처럼 짧게만 느껴졌다) 베그만이 보라색 비단 주머니를 열었다.

"숙녀 먼저..."

베그만은 플뢰르 델라쿠르에게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다. 덜덜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플뢰르 델라쿠르는 용과 똑같이 생긴 작은 모형을 꺼냈다. 그것은 웨일스의 그린이었다. 용의 목에는 2번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다. 플뢰르 델라쿠르가 용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결의에 찬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해리는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맥심 부인은 이미 플뢰르 델라쿠르에게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

빅터 크룸도 역시 똑같았다. 크룸은 자주빛 중국 파이어볼을 뽑았다. 그 목에는 3번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크룸은 눈도 깜박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땅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케드릭도 비단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청회색이 감도는 스웨덴의 쇼트 스나우트의 목에는 1번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다. 이제 남아 있는 용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는 해리는 비단 주머니에 손을 넣고 헝가리의 혼테일을 꺼냈다. 4번이었다. 해리는 날개를 활짝 편 채, 작은 어금니를 드러내고 있는 용의 모형을 내려다보았다.

"자, 다 되었군요!" 베그만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제각기 맞서 싸우게 될 용을 뽑았습니다. 용에 붙어 있는 번호는 여러분이 나가게 될 순서입니다. 자, 해리... 잠시 나와 이야기를 좀 나눌까? 밖에서?"

"그려죠..."

해리는 어리둥절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베그만과 함께 천막 밖으로 나갔다. 베그만은 조금 떨어진 나무들 사이로 해리를 데려 갔다. 그런 다음에 얼굴 가득히 자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 기분은 괜찮니?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네? 저는... 아니예요. 없어요."

"계획은 있니? 내가 약간 조언을 해줘도 괜찮은데... 물론 네가 좋다면 말이지. 진심이야." 무엇인가 음모라도 꾸미듯이 베그만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여기에서 제일 불리한 입장이잖니, 해리...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베그만이 더욱더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아니예요." 해리는 무례하게 들릴 정도로 재빨리 거절했다.

"싫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해리, 아무도 모를 거다."

베그만이 눈을 찡긋거리면서 해리를 쳐다보았다.

"아니예요. 저는 괜찮아요." 해리는 왜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이상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보다 어딘가 안 좋아 보이는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저는..."

갑자기 저 멀리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오, 맘소사! 뛰어가야겠군!"

베그만이 깜짝 놀라면서 마구 달려갔다. 천막으로 돌아오던 해리는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케드릭의 얼굴은 더욱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케드릭의 걸을 지나갈 때, 해리는 행운을 빌어 주고 싶었다. 하지만 해리는 입에서는 거친 신음 소리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해리는 플뢰르와 크룸이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관중들의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운동장으로 들어간 케드릭이 좀 전에 골라 잡은 모형과 똑같이 생긴 살아 있는 용과 대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해리가 마음 속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관중들은 마치 머리는 수백 개나 되지만 몸은 하나인 괴물처럼, 케드릭이 스웨덴 쇼트 스나우트의 앞을 통과하려고 할 때마다 다 함께 비명을 지르고... 함성을 터뜨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빅터 크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플뢰르 델라쿠르는 케드릭의 뒤를 이어서 천막 안을 빙빙 돌고 있었다. 베그만의 해설은 모든 것들을 훨씬 더 끔찍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그것을 듣고 있는 해리의 머리 속에는 온갖 무시무시한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오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군요, 아주 아슬아슬했어요."

"잡힐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 바로!"

"날쌔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소용이 없군요!"

이렇게 약 15 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해리는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커다란 함성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케드릭이 용을 통과해서 황금알을 붙잡은 것이다.

"아주 잘했습니다!" 베그만이 소리를 질렀다. "이제 심판으로부터 점수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베그만은 케드릭의 점수가 몇 점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해리는 아마도 심판관들이 점수판을 들어서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한 사람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베그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델라쿠르 양! 나오실까요?"

플뢰르 델라쿠르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욱 친근한 마음이 들었다. 플뢰르 델라쿠르는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머리를 똑바로 치켜든 채, 천막을 떠났다. 이제 천막 안에는 해리와 크롬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똑같은 과정이 다시 되풀이되었다...

"오, 별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지 않군요!" 베그만이 신나게 떠들었다.
"이런... 아슬아슬합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겠군요... 오, 맙소사! 거의 통과하는 줄 알았습니다."

10분 후에 해리는 또다시 열광한 관중들이 마구 함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플뢰르도 성공한 것이 분명했다. 플뢰르의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잠시 휴식 시간이 있고... 요란한 박수 소리와 함께... 세 번째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크롬 군이 나옵니다!"

베그만이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빅터 크롬은 해리만 훌로 남겨 둔 채, 천막 밖으로 나갔다.

해리는 평소와는 달리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세차게 박동하는 심장과 두려움으로 인해 떨리는 손가락... 동시에 해리는 자신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마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얀 천막 벽을 바라보며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있는 듯한 맹한 기분에 빠져 들었다.

"아주 용감합니다!"

베그만이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중국의 파이어볼이 무시무시하고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관중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크롬 군,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 마침내 알을 잡았군요!"

유리잔이 깨어지는 듯한 요란한 함성 소리가 차가운 겨울 하늘을 마구 뒤흔들었다. 빅터 크롬의 순서도 끝났다. 이제 해리의 차례만이 남았을 뿐이다.

해리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가 엇가락처럼 축축 늘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해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기다렸다. 잠시 후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천막 밖으로 걸어나갔다. 미칠 듯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해리는 나무들 사이를 따라 걸어가다가 울타리 담장으로 들어갔다.

해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아주 선명한 꿈만 같았다. 관중석에서는 수백 명의 얼굴들이 해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운동장 반대편에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알을 품고 있는 형가리의 혼테일이 있었다. 온통 검은 비늘이 뒤덮인 거대한 용은 날개를 절반 가량 펼친 채, 사악하고 노란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혼테일이 독침이 달린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단단한 땅 위에는 길고 깊이 파인 자국이 생겨났다. 관중들은 계속 함성을 질렀다. 해리를 응원하는 것인지 혹은 야유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

드디어 해리가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그래, 마음을 집중하자. 전적으로 오직 한 가지에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야...

해리는 지팡이를 번쩍 들어올렸다.

"아씨오 파이어볼트!"

해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해리는 파이어볼트가 날아오기를 기다렸다. 온몸의 세포가 다 깨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주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빗자루가 오지 않는다면... 해리는 마치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리는 투명한 장벽을 통해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해리르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수백 명의 얼굴들이 이상하게 허공을 둉동 떠다녔다...

바로 그때 해리의 등 뒤에서 허공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파이어볼트가 숲 가장자리를 지나서 울타리를 넘어 쓴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해리의 옆에 우뚝 멈추어 선 파이어볼트는 주인이 올라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열광한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베그만도 목청이 터질 정도로 워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귀에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해리는 빗자루 위에 다리를 걸친 후에 힘차게 땅을 박차고 올라갔다. 순식간에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세찬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자, 수많은 관중들의 얼굴이 저 아래에 조그맣게 찍힌 살색 점처럼 보였다. 헝가리의 혼테일도 개 정도의 크기로 작아졌다.

그 순간 해리는 깨달았다. 단지 땅에서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사실을... 마침내 해리는 자신이 속한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퀴디치 게임에 불과할 뿐이야. 그게 전부야... 나는 지금 또 다른 퀴디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혼테일은 보기 흉한 상대팀 선수일 뿐이야...

용이 지키고 있는 알의 둑지를 내려다보던 해리는 시멘트 색깔의 여러 알들 중에서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알을 찾아냈다. 그 알은 용의 앞다리 사이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다.

"좋아." 해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견제 작전을 쓰는 거야... 가자..."

해리는 재빨리 밑으로 하강했다. 혼테일의 머리가 해리의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해리는 정확히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방금 몸을 피하기 전까지 해리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용의 불길이 뿜어졌다... 하지만 해리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블러저를 따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었다...

"오, 맙소사! 해리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관중 틈에서 베그만이 소리를 질렀다. "이 장면을 보고 있나요, 크롬 군?"

해리는 원을 그리면서 더욱 높이 올라갔다. 혼테일은 아직도 긴 목을 빙빙 돌리면서 해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만약 조금만 더 계속한다면, 용은 분명히 어지러울 것이다.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용이 다시 불을 뿜을지도 모른다...

혼테일이 입을 딱 벌리는 순간, 해리는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로 운이 좋지 못했다. 아슬아슬하게 불길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신 혼테일의 꼬리가 해리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날아왔던 것이다. 간신히 해리가 왼쪽으로 몸을 피했을 때, 기다란 가시들 중에 하나가 그의 옷을 뚫고 어깨를 찔렀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관중석에서 비명 소리와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상처는 그다지 깊은 것 같지 않았다... 해리는 서두러 혼테일의 등 뒤로 빙 돌아서 날아갔다. 한 가지 가능성�이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혼테일은 멀리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알에 대한 보호 본능이 너무나 강했던 것이다. 비록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고 날개를 펴다 접었다 하면서 무시무시한 노란 눈으로 줄곧 해리를 뒤쫓아 다니기는 했지만, 용은 알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을 멀리 끌어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속임수를 써야만 한다...

해리는 재빨리 이쪽저쪽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용이 뿜어대는 불길에 달을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지만, 계속 용의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위협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용은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수직으로 찢어진 눈동자로 해리를 감시했다. 날카로운 어금니를 모두 드러낸 채...

해리는 하늘로 더욱 높이 날아갔다. 혼테일의 머리가 해리를 따라 높이 솟아올랐다. 이제 늘어날 대로 길게 늘어난 용의 목은 마치 최면술사 앞에 서 있는 뱀처럼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해리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갔다. 그러자 용이 짜증스럽게 울부짖었다. 해리는 지금 용에게 있어서 귀찮은 파리 같은 존재였다. 당장이라도 덥석 삼켜 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용의 꼬리가 다시 올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꼬리가 달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었다... 용은 허공으로 불길을 내뿜었지만, 해리는 살짝 피했다... 용의 아가리가 다시 커다랗게 벌어졌다...

"자, 어서 덤벼.." 해리는 마치 당장이라도 잡힐 듯이 용의 애를 태우며 속삭였다. "자, 어서! 어서 와서 나를 잡아 봐... 이제 올라오란 말이야..."

드디어 용이 소형 비행기만큼이나 거대한 검은 가죽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로 그 순간 해리는 급강하를 했다. 그리고 용이 미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깨닫기도 전에 아니, 해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온힘을 다 하여 전속력으로 땅을 향해서, 이제는 용의 날카로운 앞발로부터 벗어나 있는 알을 향해 날아갔다. 해리가 파이어 볼트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황금알을 움켜잡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속력을 내면서 해리는 관중석 위로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묵직한 황금알은 상처를 입지 않은 해리의 한쪽 옆구리에 단단히 끼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놓은 것처럼, 해리는 트리위저드 시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관중들의 환호성 소리를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월드컵의 아일랜드 응원단들만큼이나 요란하게 비명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난리였다.

"저걸 보십시오!" 베그만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소리쳤다.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어린 챔피언이 가장 빠른 시간에 황금알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포터 군이 우승을 차지할 확율이 더욱 높아졌군요!"

해리는 용의 조련사들이 사나운 기세로 날뛰는 혼테일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빨리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맥고나걸 교수와 무디 교수 그리고 해그리드가 해리를 맞이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나오고 있었다.

해리가 다가가자, 그들은 일제히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들의 환한 미소를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관중석 위로 다시 날아올라간 해리는 부드럽게 땅 위에 내려앉았다. 관중들의 요란한 함성이 해리의 귓전을 울렸다. 지난 몇 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적은 없었다.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해리는 살아남았다...

"정말 훌륭했다, 포터!"

해리가 파이어볼트에서 내렸을 때, 맥고나걸 교수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맥고나걸 교수로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칭찬이었다. 해리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는 맥고나걸 교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심판들이 점수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품프리 부인에게 가도록 해라. 저기로 가거라. 디고리를 치료하는 일은 벌써 끝났을 거야..."

"우와! 해냈구나, 해리!" 해그리드가 잔뜩 순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마침내 해내고 말았어! 혼테일과 맞서 싸웠단 말이지. 정말 대단하다! 너도 아다시피 찰리의 말에 따르며 혼테일이야말로..."

"고마워요, 해그리드."

해리는 해그리드가 자신에게 미리 용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무심코 누설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큰 소리로 말했다.

"멋지고 간단하게 해치웠구나, 포터."

무디 교수가 호통을 치듯이 말했다. 무디 교수도 무척 기쁜 표정이었다. 무디의 마법의 눈은 눈구멍 안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고 있었다.

"포터, 지금 당장 응급 처치소로 가거라. 어서..."

맥고나걸 교수가 재촉했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 밖으로 걸어나온 해리는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번째 천막 입구에 서 있는 품프리 부인을 발견했다.

"용이라니!"

품프리 부인은 해리를 천막 안으로 잡아끌면서 혐오스럽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천막의 내부는 여러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해리는 칸막이를 통해 케드릭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었다. 케드릭은 그다지 심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다. 적어도 몸을 일으키고 앓아 있을 수는 있는 모양이었다. 품프리 부인은 해리의 어깨를 살펴보면서 줄곧 화가 나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지난 해에는 디멘터더니 올해는 용이란 말이야? 그럼 다음 해에는 학교 안으로 또 어떤 걸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너는 아주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상처가 별로 깊지 않구나. 상처를 싸매기 전에 먼저 깨끗이 닦아야겠다..."

품프리 부인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기는 보라색 액체로 해리의 상처를 닦았다. 품프리 부인이 지팡이로 해리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자, 즉시 상처가 낫는 것이 느껴졌다.

"자, 잠시 동안 가만히 앓아 있거라. 앓아 있어! 조금만 있으면 네 점수를 보려 나갈 수 있을 게다." 품프리 부인이 부산하게 천막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옆 칸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기분이 좀 어떠니, 디고리?"

하지만 해리는 가만히 앓아 있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온몸이 흥분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된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미처 천막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두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헤르미온느와 그 뒤를 따라온 론이었다.

"해리, 정말 눈부셨어!" 헤르미온느가 목이 메어서 소리쳤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두 뺨을 꽉 움켜쥐었을 때 생긴 손자국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넌 너무 대단해! 정말이야!"

하지만 해리의 눈길은 론에게 머물고 있었다. 론은 마치 해리가 유령이라도 되는 듯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해리." 론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잔에 네 이름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나는... 나는 그들이 너를 이 시합에 일부러 끌어들이려 했다고 생각해!" 마치 지난 몇 주일 동안에 벌어졌던 일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태도였다. 아니, 해리가 챔피언이 된 이후로 론과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았다.

"이제 알았니?" 해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주 오래 걸렸구나."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던 헤르미온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해리와 론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다. 론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머뭇거렸다. 해리는 론이 사과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득 사과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 일은 잊어버려."

"아니야." 론이 입을 열었다. "나는 꼭 너에게..."

"그만 잊어버리라니까!"

해리가 말했다. 그러자 론이 어색하게 웃어보였다. 해리가 씩 웃었다.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는 거야? 울 일이 뭐가 있어?"

해리가 몹시 당황하면서 물었다.

"돌 다 한심한 명정이야!"

헤르미온느는 두 발을 구르면서 소리쳤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해리와 론이 미처 헤르미온느를 달래기도 전에 그녀는 두 사람을 꽉 끌어안더니 이번에는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헤르미온느는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천막 밖으로 달려나가 버렸다.

"제정신이 아니군." 론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다. "해리, 가자. 곧 네 점수가 나올 거야..."

황금알과 파이어볼트를 집어든 해리는 불과 한 시간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의기양양한 기분으로 천막을 나섰다. 론은 해리의 옆에 바싹 붙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들었다.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네가 제일 잘 했어. 케드릭은 아주 기괴한 방법을 썼거든. 땅 위에 있는 바위를 변신시켰어... 개로 말이야. 용이 자기 대신에 개를 쫓아가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지. 사실 변신술 자체는 제법 괜찮았어.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고 말이야. 어쨌거나 알을 차지하기는 했잖아. 하지만 케드릭은 심한 화상을 입어야만 했지. 개를 쫓아가던 용이 도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케드릭을 쫓아왔던 거야. 케드릭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어. 플뢰르, 그 여자애도 비슷한 종류의 마법을 썼어.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 용이 곧 졸음에 빠졌거든. 그런데 용이 코를 골기 시작하더니 그만 코에서 불을 뿜어내는 거야. 그 바람에 플뢰르의 치마에 불이 붙었어. 플뢰르는 지팡이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불을 끄었어. 그리고 크룸은... 너는 도저히 믿지 못할 거야. 물론 크룸은 하늘을 날아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 크룸은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곧장 용의 눈을 때렸어. 그저 그렇게만 했을 뿐인데, 용은 고통스럽게 콩콩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진짜 알을 절반이나 짓밟아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심판관들이 크룸의 점수를 깎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용의 알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

두 사람이 울타리 가장자리에 도착하자, 론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혼테일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없었다. 해리는 황금 휘장이 드리워진 상석에 다섯 명의 심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심판들이 한 사람씩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어. 10점이 만점이야."

론이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말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운동장을 내려다보던 해리는 첫 번째 심판인 맥심 부인이 허공으로 지팡이를 들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맥심 부인의 지팡이 끝에서 긴 은빛 리본 같은 것이 튀어나오더니 커다랗게 8자를 그려놓았다.

"나쁘지 않군!" 론이 관중들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네 어깨 때문에 점수를 깎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음 차례의 심판은 크라우치였다. 크라우치도 지팡이를 들어올리더니 허공에 9점을 쏘았다.

"아주 좋은걸!"

론이 해리의 등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다음은 덤블도어 차례였다. 덤블도어도 9점을 주었다. 관중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루도 베그만은 10점을 주었다.

"10점?" 해리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되물었다. "하지만... 나는 상처를 입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 거지?"

"해리, 불평하지마!"

론이 잔뜩 흥분해서 소리쳤다. 이제 카르카로프가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카르카로프는 잠시 동안 망설이더니 지팡이로 점수를 쏘아올렸다. 4점이었다.

"뭐라구?" 론은 벌컥 화를 내었다. "4점이라구? 이 편파적이고 야비하고 더러운 놈! 크룸에게는 10점을 주고서!"

하지만 해리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카르카로프가 해리에게 0점을 준다고 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론이 자신의 편을 들어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리에게는 100점보다는 훨씬 더 소중했던 것이다.

물론 해리는 이런 말을 론에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운동장을 떠나는 해리의 마음은 공기보다도 더 가벼웠다. 비단 론만이 아니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그리핀도르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막상 트리위저드 시합이 열리고 챔피언들이 무엇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지 알게 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케드릭뿐만 아니라 해리도 열심히 응원해 주었다.

해리는 슬리데린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제 슬리데린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해리, 네가 공동 선두야! 너하고 크롬이!" 찰리 위즐 리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찰리 위즐리는 학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다.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빨리 뛰어가야 해. 엄마에게 부엉이를 보내야만 하거든.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 주겠다고 맹세를 했어. 하지만 도저히 믿지 못하실 거야! 아, 참! 그리고 심판들이 너에게 몇 분만 더 남아 있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어... 베그만 씨가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챔피언의 천막으로 돌아오라는구나."

론은 해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해리는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조금 전까지와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다. 친근하고 반가운 분위기였다. 해리는 혼테일을 피해 다닐 때의 비교를 해보았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았다. 기다림의 순간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플뢰르와 케드릭, 크롬이 모두 함께 천막으로 들어왔다. 케드릭의 얼굴 한쪽에는 두꺼운 오렌지색 붕대가 감겨 있었다. 아마도 화상을 치료하는 모양이었다. 케드릭은 해리를 보자 빙그레 웃었다.

"잘 했어, 해리."

"너도."

해리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했어요. 여러분 모두!" 루도 베그만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직접 용 앞을 지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잔뜩 신이 나 있었다. "몇 마디만 하겠어요. 여러분은 두 번째 시험이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은 2월 24일 아침 9시 30분에 치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겠어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황금알을 잘 살펴보면, 그 알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거기... 연결 부분이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은 이 알 속에 들어 있는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모두 잘 알았나요? 확실하죠? 좋아요. 그럼 어서 가 보세요!"

천막에서 나온 해리는 다시 론과 만났다. 두 사람은 열심히 재잘거리면서 숲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다른 챔피언들이 어떤 식으로 용과 싸웠는지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잠시 후에 해리가 처음으로 용의 울음 소리를 들었던 덤블 숲을 돌아나왔을 때, 한 마녀가 등 뒤에서 불쑥 나타났다.

그 마녀는 바로 리타 스키터였다. 오늘은 현란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속기 깃펜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축하한다, 해리!" 리타 스키터는 해리를 향해 활짝 웃었다. "나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니? 용과 맞섰을 때, 기분이 어땠니? 지금은 어떻지? 점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좋아요. 한 마디만 하죠." 해리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해리는 론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다.

제 21 장 꼬마 집요정 해방전선

그 날 저녁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피그위존을 찾기 위해 부엉이장으로 올라갔다. 해리가 어떻게 무사히 용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줄 생각이었다. 부엉이장으로 가는 도중에 해리는 론에게 시리우스가 카르카로프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카르카로프가 죽음을 먹는 자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론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부엉이장으로 들어갈 무렵이 되자, 오히려 진작부터 의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딱 어울리잖아? 그렇지 않니?" 론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말포이가 기차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이 기억나지 않니? 자기 아빠가 카르카로프와 친구라고 했던 거 말야. 그들은 아마 월드컵에서도 가면을 쓰고 같이 돌아다녔을 거야... 해리, 상상해 봐. 만약 불의 잔 속에 네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 카르카로프였다면, 지금쯤 완전히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일 거야. 그렇지? 아무런 소용도 없었잖아? 너는 그저 약간 굵혔을 뿐이야! 자, 이리 와. 내가 할게."

피그위존은 편지를 배달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흥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울어대면서 해리의 머리 위를 빙빙 날아다녔다. 론은 손을 뻗어서 피그위존을 낚아챘다. 그리고 해리가 부엉이의 다리에 편지를 동여맬 때까지 꼭 잡고 있었다.

"이제 다른 시험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어떻게 위험할 수가 있겠어?" 론은 피그위존을 창가로 데려가는 해리의 뒤를 따라갔다. "너 그거 아니? 내 생각에, 넌 분명히 이 시합에서 우승할 거야. 해리, 정말이라니까."

해리는 론이 지난 몇 주일 동안 있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해리는 론의 마음이 고맙기만 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부엉이장 벽에 비스듬히 몸을 기댄 체, 팔짱을 끼고 론을 뜻밖하게 쳐다보았다.

"해리가 이 시합을 끝내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헤르미온느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첫번째 시험이 이 정도라면 다음 시험은 또 어떤 것이 될지 생각조차 하기 싫어."

"희망이 전혀 없다는 말이니? 그래?" 론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어떨 때에는 너나 틀리로니 교수나 똑같은 것 같아."

해리는 피그위존을 안고 창문으로 걸어가서 살짝 던졌다. 피그위존은 4 미터 정도 아래로 곧장 떨어지더니 가까스로 다시 날아올랐다. 피그위존의 다리에 묶여 있는 편지가 평소보다도 훨씬 더 길고 무거웠던 것이다. 해리는 시리우스에게 자신이 어떻게 혼테일을 피해서 빙빙 날아오르고 속임수를 썼는지 한 동작 한 동작 설명하고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하늘로 멀리 사라지는 피그위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자, 해리. 이제 그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너를 위한 깜짝 파티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 지금쯤 프레드와 조지가 주방에서 음식을 잔뜩 빼내왔을 거야."

마침내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과연 그들이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로 들어갔을 때, 온통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터질 것만 같았다. 맛있는 케이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방에는 호박 주스와 버터 맥주를 가득 담은 잔이 널려 있었다. 또한 리 조던이 필리버스터의 폭죽을 터뜨렸기 때문에 공중에는 별과 불꽃이 가득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딘 토마스는 아주 인상적인 새로운 깃발을 만들어 세워 놓았는데, 대부분이 파이어볼트를 타고 혼테일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해리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물론 그 중에서 두 개는 머리에 불이 붙은 케드릭이 등장했다.

해리는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잔뜩 먹었다. 오랫동안 배가 고픈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거의 잊어버리고 지냈던 것이다. 해리의 곁에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해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론과는 다시 예전과 같은 사이가 되었으며 첫번째 시험은 무사히 통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석 달 동안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거 꽤 무거운걸." 해리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황금알을 집어든 리 조던이 손으로 무게를 가늠하면서 말했다. "해리, 한번 열어 봐. 어서!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자!"

"해리는 혼자 그 실마리를 풀어야만 해. 그게 트리위저드 시합의 규칙이라구..."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말했다.

"용을 통과하는 일도 나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었어."

해리는 오직 헤르미온느의 귀에만 들리도록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경연쩍은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서, 해리! 열어봐!"

주위에 있던 학생 몇 명이 합창을 했다. 리 조던은 해리에게 황금알을 돌려주었다. 해리는 손톱으로 황금알의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해리가 황금알을 여는 순간, 커다랗고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휴게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소음이었다. 이것과 가장 흡사한 소리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의 사망일 파티에서 해리가 들었던 유령 오케스트라의 연주뿐이었다. 유령 오케스트라는 전 악단이 톱으로 연주를 했었다.

"당장 닫아!"

프레드가 손으로 뒤 귀를 막으면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해리가 다시 황금알을 턱 닫아 버리자, 시무스 피니간이 알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밴시 요정의 울음소리 같은데... 해리, 다음 번에는 그 요정을 통과해야만 하나 봐!"

"꼭 누군가 고문을 당하는 소리 같은데!" 네빌이 입을 열었다. 깜짝 놀랐던 네빌은 소시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크루시아투스 저주와 싸워야 하는 게 아닐까?"

"멍청한 소리 좀 하지마, 네빌. 그건 불법이야." 조지가 통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챔피언들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사용할 수는 없어. 내 귀에는 꼭 퍼시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걸... 해리, 어쩌면 퍼시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그를 공격해야 하는 걸지도 몰라."

"잼 파이 먹을래? 헤르미온느?" 프레드가 갑자기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몹시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프레드가 내미는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프레드가 씩 웃었다. "이건 괜찮아. 여기에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어. 정작 조심해야 할 건 커스타드 크림이야..."

바로 그때 커스타드 크림을 한 입 퍼먹은 네빌이 목이 턱 메어서 크림을 뱉어내었다. 프레드는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냥 장난이야, 네빌..."

"프레드, 이 음식을 모두 주방에서 가져온 거니?"

헤르미온느가 잼 파이를 집어 들면서 물었다.

"그럼." 프레드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갑자기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짹짹거리면서 꼬마 집요정 흉내를 내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드리죠. 나리, 뭐든지요! 그 녀석들은 참 쓸모가 있단 말이야... 내가 배가 좀 고프다고 말만 하면 황소라도 한 마리 통째로 구워서 올 거야."

"그런데 주방에는 어떻게 들어갔니?"

헤르미온느가 지나가는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다.

"아주 쉬워." 프레드가 웃으면서 설명했다. "과일 그릇이 그려져 있는 벽 뒤에 비밀 문이 있거든. 그냥 배를 간지르기만 하면 배가 킬킬거리면서..." 갑자기 프레드는 말을 뚝 끊고 수상스러운 듯이 헤르미온느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대답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꼬마 집요정들의 파업이라도 주도할 계획이니?" 조지가 빙정거리면서 말했다. "전단 뿌리는 일은 단념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자고 꼬마 집요정들을 선동할 생각이야?"

"그 자리에 있던 몇 명이 재미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지만,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공연히 꼬마 집요정들을 부추겨서 웃을 달라느니 봉급을 달라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마!" 프레드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경고했다. "그랬다면 음식도 만들어 주지 않을 거라구!"

바로 그때 네빌이 커다란 카나리아로 변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관심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이런! 정말 미안해, 네빌!" 프레드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내가 그만 잊어버렸어. 커스타드 크림에 마법을 걸어 놓았거든..."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네빌은 곧 허물을 벗었다. 일단 깃털이 모두 떨어지고 나자, 평소와 전혀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다. 심지어 네빌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키킬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카나리아 크림이야!" 프레드가 신이 나서 웃고 있는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조지와 내가 개발했어! 한 개당 7 시클에 팔지!"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해리는 론과 네빌, 시무스 그리고 딘과 함께 기숙사로 올라갔다. 네 개의 침대 기둥에 드리워져 있는 커튼을 닫기 전에 해리는 자그마한 형가리안 혼테일 모형을 침대 옆 책상 위에 옮겨놓았다. 혼테일은 하품을 하고 몸을 둥글게 말더니 두 눈을 감았다.

정말이었어. 해그리드가 옳았어... 그것들은 모두 정말로, 썩 괜찮은 용이었어...

해리는 네 기둥의 커튼을 잡아당기면서 생각했다.

12월이 시작되자 호그와트에 서리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면 성 안에는 항상 어디선가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해리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덤스트랭의 배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두꺼운 성벽과 따뜻한 벽난로가 무척 고맙게 여겨졌다. 그 배는 시커먼 하늘 밑에서 검은 깃을 펼력이며 세찬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해리는 보바통의 마차도 꽤 추울 거라고 생각했다. 해그리드는 맥심 부인의 말들에게 말이 좋아하는 몰트 위스키를 먹여 주면서 잘 보살펴 주고 있었다. 방목장의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구유에서 풍기는 독한 술냄새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 전체를 살짝 취하게 만들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것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 끔찍한 스크루트들을 돌봐야만 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것들이 동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해그리드는 바람이 쌩쌩 불어 오는 호박밭에서 덜덜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녀석들이 잠자는 걸 좋아하는지 한 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 이제 상자 안에 이 녀석들을 넣도록 하자..."

이제 남아 있는 스크루트는 열 마리뿐이었다. 서로를 죽이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스크루트의 본능은 훈련으로 없애 버릴 수 없는 것이 확실했다. 벌써 스크루트들은 이제 길이가 거의 2미터 가까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 두꺼운 회색 갑옷과 강력하고 빠른 다리, 불을 터뜨리는 꼬리, 침과 빨판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스크루트야말로 해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동물이었다.

학생들은 해그리드가 가지고 온 커다란 상자를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상자 안에는 베개와 폭신한 담요가 나란히 들어 있었다.

"이 상자 속으로 스크루트를 몰아넣기만 하면 된단다." 해그리드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지만 결국 스크루트는 동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녀석들은 강제로 베개가 땅린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크루트들은 발톱으로 상자를 마구 짖어대었다. 곧 해그리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흉분하지마! 자, 흉분하지 마!"

이제 스크루트들은 불이 붙어서 연기를 내뿜는 상자 조각들을 사방으로 흩어놓으면서 호박밭을 이리저리 짓밟고 돌아다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특히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을 선두로) 허둥지둥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뒷문으로 뛰어들어가서 꼭꼭 숨어 버렸다. 하지만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밖에 남아서 해그리드를 도우려고 애쓰는 학생들 편에 속했다. 다 함께 힘을 합친 끝에

그들은 간신히 아홉 마리의 스크루트를 붙잡아서 묶을 수가 있었다. 비록 여기저기에 온통 상처가 나고 화상을 입기는 했지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단 한 마리 뿐이었다.

"겁주지 마!" 론과 해리가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스크루트에게 강한 불꽃을 발사하자, 해그리드가 다급하게 외쳤다. 스크루트는 둉글게 말아 세운 침을 흔들면서 그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냥 침에 밧줄을 씌우도록 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말이야!"

"우린 못 하겠어요!"

론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론과 해리는 불꽃으로 스크루트를 계속 쫓아 버리면서 거의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담까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이런, 이런, 이런...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걸."

리타 스키터가 해그리드의 정원 담장에 몸을 기대고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리타 스키터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팔에 낀 채, 보라색 털이 달린 진한 붉은색 두꺼운 망토를 입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해리와 론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스크루트 위로 몸을 던져서 깔고 앉았다. 스크루트의 꼬리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자 근처에 있던 호박 줄기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다.

"누구시죠?"

스크루트의 침을 밧줄로 꽁꽁 묶으면서 해그리드가 리타 스키터에게 말을 걸었다.

"리타 스키터라고 해요. <예언자 일보>의 기자죠."

리타 스키터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리타 스키터의 황금 이빨이 반짝거렸다.

"그런데 덤블도어가 당신을 더 이상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그리드가 살짝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해그리드는 납작해진 스크루트를 번쩍 들어올려서 동료들이 있는 상자 안으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타 스키터는 마치 해그리드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

"이 매력적인 동물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리타 스키터는 더욱 환하게 웃으면서 물었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요."

해그리드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리타 스키터는 상당히 호기심을 느낀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동물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났죠?"

해리는 해그리드의 얼굴이 텁수룩한 검은 수염부터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해리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해그리드가 어디에서 스크루트를 구해왔을까?

"아주 흥미롭죠?. 그렇지 해리?"

줄곧 해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응? 어, 그래... 아이쿠... 정말 흥미로워."

헤르미온느가 그의 발을 꽉 밟자, 해리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오우! 해리! 여기 있었구나!" 리타 스키터가 해리를 돌아서면서 소리쳤다.
"그러니까 너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에 하나야?"

"그래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해그리드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활짝 웃었다.

해리는 리타 스키터의 시선이 딘(그의 뺨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다)을 지나서 라벤더(그의 옷은 심하게 불에 그을렸다)와 시무스(그는 화상을 입은 손가락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두막 창가까지 재빨리 훑어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에는 반 아이들이 대부분이 창문에 코를 바싹 갖다대고 소동이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벌써 2년째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그리드가 리타 스키터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멋지군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지는 않겠죠? 혹시 마법 생물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다른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예언자 일보>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물에 관한 칼럼을싣고 있답니다. 물론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것들... 음... 그러니까 총 꼬리 스크루트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입니다." 해그리드가 열심히 설명했다. "어... 그래요. 좋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해리는 그 결정이 뭉시 불만스러웠다. 하지만 리타 스키터의 눈에 뜨이지 않고 해그리드에게 그런 말을 전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해그리드와 리타 스키터가 다음 주에 스리 브룸스틱스에서 만나서 길고 상세한 인터뷰를 하자는 약속을 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성에서 수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럼 안녕, 해리!"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는 해리를 쳐다보면서 리타 스키터가 명랑하게 인사를 던졌다. "금요일 밤에 만나요, 해그리드!"

"저 여자는 해그리드가 하는 말을 전부 꼬아 놀을 거야."

해리가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제발 해그리드가 스크루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온 건 아니어야 할 텐데..."

헤르미온느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것이야말로 해그리드가 꼭 저지를만한 일이었다.

"예전에도 해그리드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잖아. 하지만 덤불도어는 절대로 해그리드를 해고하지 않았어." 론이 위로를 하면서 말했다. "설사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해그리드가 스크루트를 풀어줘야 하는 정도일 거야. 안된 일이지... 미안... 내가 최악의 사태라고 말했나? 사실은 최선의 경우라는 뜻이었어."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그리고 좀더 가벼운 기분으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그날 오후에 점술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즐겁게 보낼 수가 있었다. 여전히 점성술과 예언을 배우고 있었지만, 이제 론과 다시 친구가 되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아주 재미있게 여겨졌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꿈쩍한 죽음에 대해 예언했을 때에는 그토록 기뻐했던 트릴로니 교수는 이제 명황성이 날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내내 두 사람이 킬킬거리자, 잔뜩 심술이 났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트릴로니 교수는 강한 불쾌감을 역력하게 드러내며 불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트릴로니 교수는 아주 의미심장한 눈길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지난 밤에 내가 수정 구슬에서 본 장면을 봤다면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날뛰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나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정 구슬을 살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수정 구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 깊은 수정 구슬 속을 들여다보았죠... 거기에서 내가 뭘 봤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커다란 안경을 낀 주악하고 늙은 박쥐?"

론이 숨을 죽이면서 속삭였다. 해리는 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트릴로니 교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패르바티와 라벤더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손을 들어 입을 막았다.

"그렇습니다." 트릴로니 교수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처럼 우리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낮게... 점점 더 이 성을 향하여..."

트릴로니 교수는 노골적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일부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했다.

"벌써 여든 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좀더 인상적이었을 텐데." 트릴로니 교수의 방을 나와서야 겨우 신선한 공기를 다시 마시게 되었을 때, 해리가 입을 열었다. "트릴로니 교수가 나의 죽음을 예언할 때마다 내가 죽었더라면, 나야말로 의학적으로 기적의 대상이 되었을 거야."

"특별히 농축된 유령이 되었겠지." 론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다가온 피투성이 바론이 그들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커다랗게 뜨고 있는 피투성이 바론의 눈길은 불길한 느낌을 던지고 있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숙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헤르미온느는 백터 교수의 수업 시간에 숙제나 왕창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헤르미온느가 숙제를 하느라고 꼼꼼거릴 때 옆에서 노는 게 제일 좋더라."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저녁 식사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리와 론은 식사 후에 일부러 도서관까지 찾아갔지만 그곳에도 헤르미온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에는 백터 크룸 한 사람밖에 없었다. 론은 한참 동안이나 책꽂이 뒤에서 서성거리며 크룸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크룸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해리와 컷속말로 의논을 했다. 하지만 론은 곧 대여섯 명의 여학생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바로 옆 책상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당장 크룸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다.

"도대체 헤르미온느는 어디로 간 거지?"

해리와 함께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오면서 론이 말했다.

"나도 몰라... 허튼소리."

해리가 머리를 약간 흔들면서 말했다. 하지만 뚱뚱한 여인이 막 출입구를 열었을 때, 그들의 등 뒤에서 누군가 황급히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헤르미온느가 나타났다.

"해리!" 헤르미온느는 숨을 헐떡이면서 미끄러지듯이 달려오더니 해리 옆에서 딱 멈춰 섰다. 뚱뚱한 여인은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헤르미온느를 내려다보았다. "해리, 어서 와 봐. 꼭 가 봐야만 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어서!"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팔을 잡고 복도 아래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해리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다.

"거기 도착하면 보여줄게. 자, 어서! 서둘러!"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론을 돌아보았다. 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해리를 마주 쳐다보았다.

"좋아."

해리는 헤르미온느와 함께 복도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론도 재빨리 그 뒤를 따라갔다.

"오우,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의 등 뒤에서 뚱뚱한 여인이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공연히 미안하다는 말로 나를 성가시게 할 것 없다! 나야 위 여기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니까!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활짝 문을 열어 놓고서 말이다!"

"예, 고마워요!"

론이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헤르미온느, 어딜 가는 거니?"

헤르미온느의 뒤를 따라 여섯 층이나 아래로 내려갔을 때, 해리가 물었다. 이제 그들은 대리석 계단을 지나 현관 복도로 내려서고 있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라구!"

헤르미온느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계단을 끼고 왼쪽으로 돌더니, 불의 잔에서 해리와 캐드릭 디고리의 이름이 나왔던 그날 밤에 캐드릭이 들어갔던 문으로 서둘러 다가갔다.

해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 문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의 뒤를 따라서 돌 계단을 내려갔다. 그 계단 끝에는 스네이프의 지하 교실로 내려가는 길처럼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 대신에, 돌이 깔려 있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널찍한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양쪽에는 주로 먹을 것을 소재로 한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 잠깐 기다려..." 복도를 반쯤 걸어오던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잠깐만 헤르미온느..."

"왜 그래?" 헤르미온느가 걸음을 멈추고 해리를 돌아보았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 차 있었다.

"난 여기가 어딘지 알아."

해리가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해리는 팔꿈치로 론을 톡 치면서 헤르미온느의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가리켰다. 그것은 과일이 담긴 커다란 은그릇이었다.

"헤르미온느!" 비로소 론이 알아차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설마 우리를 꼬여서 다시 S.P.E.W.인지 뭔지 하는 그 부질없는 일에 끌어들이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변명했다. "S.P.E.W.가 아니야, 론..."

"그렇다면 이름을 바꿨나? 그래? 이제 뭐지? 꼬마 집요정 해방전선? 나는 주방으로 쳐들어가서 꼬마 집요정들이 일을 그만 하도록 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구!"

론이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면서 말했다.

"너한테 그런 일을 부탁하지도 않아!"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나는 그저 꼬마 집요정 모두와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왔었어. 그리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자, 해리. 어서 가자.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헤르미온느는 다시 해리의 팔을 잡더니 커다란 과일 그릇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집게손가락을 뻗어서 커다란 초록색 배를 간지었다. 그러자 배가 꿈틀거리면서 킬킬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커다란 초록색 문 손잡이로 변했다.

헤르미온느는 손잡이를 잡고 비밀 문을 열었다. 그런 다음에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등을 세게 떠밀어서 비밀 문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해리는 천장이 높은 커다란 방을 둘러보았다. 대연회장만큼이나 넓은 방에는 번쩍거리는 놋쇠 항아리와 냄비들이 돌로 만들어진 벽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벽돌을 쌓아서 만든 커다란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때 조그마한 무언가가 깽깽 소리를 지르더니 방 가운데에서 총알처럼 해리를 향해 달려 나왔다.

"해리 포터! 해리 포터!"

잠시 동안 해리는 완전히 혼이 빠져 버렸다. 깽깽거리는 꼬마 집요정이 해리의 가슴을 평평 두드리고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짹 끌어안으며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

"도... 도비?"

해리가 입을 벌렸다.

"도비예요, 나리. 도비라구요!" 해리의 허리 근처에서 깽깽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비는 해리 포터를 만나게 되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해리 포터가 도비를 만나러 와 주었군요!" 비로소 도비는 해리를 놓아 주면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톡 불거진 초록색 눈동자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비는 해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 모습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연필처럼 뾰족한 코와 박쥐 같은 커다란 커다란 손가락과 발가락... 단 한가지, 옷차림만은 전혀 달랐다.

도비가 말포이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더럽고 낡은 베갯잇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해리가 평생 보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옷을 입고 있었다. 도비는 월드컵 때의 마법사들보다도 더 옷차림새가 영망이었다. 머리에는 모자 대신에 찻주전자 보온덮개를 쓰고 있었으며 반짝거리는 배지를 몇 개나 달고 있었다. 또한 벌거벗은 가슴에는 말발굽 무늬가 찍힌 넥타이를 매고 아이들 축구복 같은 반바지에 짹이 맞지 않은 양말을 신고 있었다. 그 양말들 중에 하나는 해리가 자기가 신고 있던 것을 벗어서 말포이 씨가 도비에게 던지도록 속임수를 썼던 바로 그 검은색 양말이었다. 그 덕분에 도비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양말 한双双은 분홍색과 오렌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도비,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해리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도비는 호그와트에 일하러 왔어요! 덤블도어 교수님이 도비와 윙키에게 일자리를 주었죠!"

도비가 신이 나서 꽉꽉거렸다.

"윙키? 윙키도 여기 있단 말야?"

해리가 도비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래요. 그래요!"

도비는 해리의 손을 잡고 네 개의 긴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는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테이블 주위를 지나가던 해리는 그것들이 모두 위층 연회장에 있는 네 개의 기숙사 테이블과 똑같은 자리에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금은 식사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전만 해도 천장을 통해 바로 위층에 있는 테이블로 보낼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쌓여 있었을 것이다.

주방 안에는 적어도 백여 명 이상의 꼬마 집요정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도비가 해리를 끌고 그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활짝 웃는 얼굴로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절을 했다. 꼬마 집요정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때 윙키가 그랬던 것처럼, 호그와트의 문장이 찍힌 차 수건을 토가(고대 로마인들의 복장)처럼 끝으로 묶고 있었다.

마침내 도비는 벽난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윙키예요!"

도비가 윙키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윙키는 벽난로 옆에 놓여 있는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도비와는 달리, 윙키는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에서 옷을 젓다가 아무렇게나 입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윙키는 깔끔하고 짧은 치마와 블라우스 그리고 옷에 잘 어울리는 푸른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윙키가 쓰고 있는 모자에는 커다란 두 귀가 빠져 나오도록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하지만 도비의 옷은 아무리 괴상하기는 해도 너무나 깨끗하고 정성껏 손질이 되어 있어 방금 나온 신제품처럼 보이는 반면에, 윙키는 자신의 옷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블라우스에는 수프 얼룩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고 스커트에는 불에 그슬린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안녕, 윙키."

해리가 먼저 반가운 듯이 인사를 했다. 윙키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윙키의 커다란 갈색 눈에서 흥수처럼 쏟아진 눈물은 금세 바닥에 웅덩이를 이루었다. 퀴디치 월드컵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았다.

"오, 이런." 헤르미온느가 입을 열었다. 헤르미온느와 론은 해리와 도비를 따라서 주방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윙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하지만 윙키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맞은편에서 있던 도비는 해리를 쳐다보면서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해리 포터는 차를 마시고 싶은가요?" 도비가 윙키의 울음소리보다 더욱 큰 소리로 꽉꽉 거리면서 물었다.

"그래... 좋아."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해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섯 명의 꼬마 집요정들이 커다란 은쟁반을 들고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은쟁반 위에는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위한 찻잔과 찻주전자, 우유병 그리고 비스킷이 담긴 커다란 접시가 놓여 있었다,

"서비스가 훌륭하군!"

론이 감탄한 듯이 말하자, 헤르미온느는 험악한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꼬마 집요정들은 모두 굉장히 기쁜 표정이었다. 그리고 해리를 연신 굽실거리면서 대접을 했다.

"그런데 도비,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됐니?"

찻잔을 돌리는 도비에게 해리가 물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해리 포터!" 도비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비는 덤블도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일자리를 잃은 꼬마 집요정이 새로운 자리를 얻기란 무척 어려워요.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을 듣자, 윙기는 더욱 요란하게 울기 시작했다. 짓뭉갠 토마토 같은 윙기의 코에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콧물이 출출 흘러내렸다. 하지만 윙기는 콧물을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비는 지난 2년 동안이나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말이죠!" 도비가 커다란 목소리로 꽉꽉거렸다. "하지만 도비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비는 이제 봉급을 받고 싶어했거든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잔뜩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던 주방 안의 꼬마 집요정들은 도비의 말을 듣자, 일제히 시선을 피했다. 마치 도비가 아주 무례하고 당혹스러운 말이라도 한 것 같았다.

"너를 위해 좋은 일이야, 도비!"

헤르미온느가 도비를 격려하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도비가 헤르미온느를 향해 이빨을 다 드러내면서 씩 웃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법사들은 봉급을 받고 싶어하는 꼬마 집요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꼬마 집요정답지 않은 일이야!'라고 말하고는 도비의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 버리는 거예요! 도비는 일을 좋아해요. 하지만 도비는 옷을 입고 싶고 봉급을 받고 싶어요. 해리 포터... 도비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 너무 좋아요!"

호그와트에 있는 꼬마 집요정들은 이제 슬슬 도비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치 도비가 몸을 병에 걸린 전염병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윙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비록 울음 소리가 훨씬 더 커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해리 포터. 도비가 윙기를 찾아갔을 때, 윙기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걸 알았죠!"

도비가 신이 나서 말했다. 이 대목에 이르자, 윙기는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털썩 앞으로 주저앉더니 단단한 돌바닥에 얼굴을 대고 조그만 주먹으로 바닥을 탕탕 치면서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느는 허둥지둥 윙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달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헤르미온느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윙기는 여전히 요란하게 울었다. 도비는 윙기의 울부짖는 소리보다도 더욱 높은 목소리로 악을 쓰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그 순간 도비에게 좋은 수가 떠올랐지요, 해리 포터! 도비는 말했죠. 도비와 윙기가 함께 일을 하면 어떨까? 그러자 윙기가 말했죠. 꼬마 집요정 두 명이 일을 할 만한 곳이 어디일까? 도비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났죠. 호그와트! 그래서 도비와 윙기는 덤블도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셨죠! 덤블도어 교수님은 도비가 원한다면 도비에게 봉급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비는 자유로운 요정이에요! 도비는 일주일에 1 갈레온을 받고 한 달에 한 번 쉬어요!"

도비는 아주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도비의 눈에는 다시 기쁨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건 너무나 형편없는 조건이야!"

여전히 비명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탕탕 치고 있는 윙기를 달래던 헤르미온느가 분개하면서 소리쳤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도비에게 일주일에 10 갈레온과 주말 휴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도비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토록 많은 휴가와 엄청난 봉급을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 같았다. "하지만 도비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도비는 자유가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원하지는 않아요. 도비는 일하는 걸 더 좋아해요."

"더블도어 교수님이 너한테는 얼마를 주니, 윙키?"

헤르미온느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헤르미온느가 그런 말로 윙키의 분을 달래주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다. 갑자기 윙키는 울음을 뚝 그쳤다.

윙키는 몸을 일으키고 앉더니 커다란 갈색 눈으로 헤르미온느를 노려보았다. 윙키의 얼굴은 온통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윙키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윙키는 수치스러운 요정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봉급 따위는 받고 있지 않아요!" 윙키가 꽉꽉 소리를 질렀다. "윙키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윙키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에 대해 당연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부끄럽다니?" 헤르미온느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윙키, 진정해!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크라우치 씨야! 네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야말로 너에게 아주 꼼짝한 짓을..."

그 말을 듣자, 윙키는 모자 구멍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도록 두 귀를 꽉 막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구 악을 썼다.

"내 주인을 모욕하지 마세요! 크라우치 씨를 모욕하지 마세요! 크라우치 씨는 훌륭한 마법사예요! 크라우치 씨는 나쁜 윙키를 해고할 권리가 있어요!"

"윙키는 교정되기까지 좀 문제가 있어요, 해리 포터." 도비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쳤다. "윙키는 자신이 더 이상 크라우치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데, 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꼬마 집요정들은 주인에 대한 생각을 말할 수 없단 말이야?"

해리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오, 그럼요. 안 돼죠." 갑자기 도비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건 꼬마 집요정들에게 주어진 속박 중에 하나예요. 주인의 비밀을 간직하고 침묵을 지켜야만 하죠. 우리는 그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고 절대로 주인집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덤블도어 교수님은 도비에게 그런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덤블도어 교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도비는 불안한지 해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해리가 허리를 숙이자, 도비가 작게 속삭였다.

"교수님은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과팍하고 미친 늙은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도비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이 킬킬거리고 웃었다.

"하지만 도비는 덤블도어 교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해리 포터." 도비는 다시 평소와 같이 말했다. 그리고 귀가 펄럭이도록 머리를 흔들었다.

"도비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을 위해서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말포이 집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 않니?"

해리가 씩 웃으면서 물었다. 도비의 커다란 두 눈에 두려운 기색이 다시 떠올랐다.

"도비는... 도비는 할 수 있어요." 도비는 어쩐지 자신 없게 말했다. 하지만 곧 작은 어깨를 곧게 껴졌다. "도비는 해리 포터에게 도비의 옛날 주인들이 나쁜... 나쁜... 어둠의 마법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비는 한참 동안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자신의 용감한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겁이 난 모양이었다. 도비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향해 돌진하더니 자신의 머리를 쾅쾅 들이받았다. 그리고 짹짹 소리를 질렀다.

"나쁜 도비! 나쁜 도비!"

해리는 도비의 넥타이를 붙잡고 테이블에서 멀리 떼어 놓았다.

"고마워요. 해리 포터, 고마워요."

도비가 숨을 헐떡이면서 이마를 문질렀다.

"너도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구나."

해리가 도비에게 말했다.

"연습이라구!" 윙키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도비, 너는 너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해. 네 주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들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윙키!" 도비가 용감하게 맞섰다. "도비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아!"

"오, 너는 정말 나쁜 요정이야! 도비!" 윙키가 구슬프게 흐느꼈다. 윙키의 얼굴에서 또다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나의 가엾은 크라우치 씨. 윙키도 없이 어떻게 지내실까? 그분은 내가 필요하셔. 그분은 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평생 동안 크라우치 가족을 보살폈어. 나보다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고 우리 어머니 전에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 오, 만약 그 분들이 윙키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윙키는 다시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고 목놓아 울었다.

"윙키, 크라우치 씨는 분명히 네가 없어도 완벽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우리도 그 사람을 봤어. 너도 알겠지만..."

헤르미온느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주인님을 보셨다구요? 여기 호그와트에서 우리 주인님을 보셨단 말인가요?"

윙키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번쩍 들고 눈알을 굴리면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래, 크라우치 씨와 베그만 씨는 트리위저드 시합의 심판이야."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배그만 씨도 왔다구요!" 갑자기 윙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윙키의 얼굴이 다시 분노로 가득 차 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론과 헤르미온느의 표정으로 보건대 그들도 역시 무척 놀라는 것 같았다. "베그만 씨는 나쁜 마법사예요! 아주 나쁜 마법사예요! 우리 주인은 베그만 씨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요. 절대로 아니예요!"

"베그만이... 나쁘다구?"

해리가 물었다.

"그럼요!" 윙키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주인은 윙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윙키는 말하지 않아요... 윙키... 윙키는 주인의 비밀을 지켜요..."

윙키는 또다시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들은 윙키가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고 구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불쌍한 주인님! 불쌍한 주인님! 이제 윙키는 주인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윙키의 말은 더 이상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윙키가 울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고 향기로운 차를 마셨다.

도비는 자유로운 요정으로서 맞이하게 된 생활과 앞으로 봉급을 쓸 계획에 대해서 즐겁게 떠들었다.

"도비는 다음 주에 스웨터를 살 거예요! 해리 포터!"

도비는 아주 행복한 듯이 벌거벗은 가슴을 가리켰다.

"도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론은 이 꼬마 집요정에 대해 커다란 호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았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엄마가 나 입으라고 떠서 보내주시는 스웨터를 너한테 선물하겠어. 엄마는 항상 스웨터를 보내거든. 혹시 밤색이라도 괜찮겠니?"

그 말을 듣자 도비는 몹시 기뻐했다.

"그런데 네 몸에 맞으려면 아무래도 스웨터를 좀 줄이는 게 좋겠구나." 론이 도비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어쨌거나 너의 차 보온덮개와 아주 잘 어울릴 거야."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자, 주위에 서 있던 수많은 꼬마 집요정들이 바싹 다가와서 위층으로 가지고 갈 간식 거리를 잔뜩 내놓았다. 헤르미온느는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인사를 하는 꼬마 집요정들을 바라보면서 음식을 거절했다. 헤르미온느는 가슴 아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와 론은 호주머니에 크림 케이크와 파이를 잔뜩 쑤셔 넣었다.

"정말 고마워!" 해리가 꼬마 집요정들을 둘러보면서 인사했다. 꼬마 집요정들은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기 위해 모두들 문가에서 있었다. "안녕, 도비!"

"해리 포터... 도비가 가끔씩 찾아가서 만나도 될까요?"
도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좋아."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하자, 도비는 활짝 웃었다.

그들은 주방에서 나온 후에 다시 현관 복도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다.

"너희들 이거 아니?" 문득 론이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돌아보면서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프레드와 조지가 주방에서 음식을 슬쩍 해오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렇지?
저 꼬마 집요정들은 음식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야!"

"내 생각에는 꼬마 집요정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도비가 이곳에 일하러 왔다는 사실 말이야. 다른 꼬마 집요정들도 도비를 보면, 자유로운 몸이 된 도비가 얼마나 행복한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서서히 자신들도 자유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구!"

"차라리 꼬마 집요정들이 윙키가 쫓겨난 꼴을 보고 나도 저런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자꾸나."

해리가 비꼬듯이 말했다.

"오, 윙키도 곧 기운을 차릴 거야."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약간 자신이 없었다. "일단 충격이 가시면 윙키도 호그와트의 생활에 익숙하게 될거야.
그렇게 되면 크라우치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윙키는 진심으로 크라우치씨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

론이 약간 목이 멘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전에 론은 크림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베그만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크라우치가 집에서 베그만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해리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아마도 별로 좋은 책임자가 아니라고 말했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않니?"

헤르미온느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나 같으면 늙은 크라우치보다는 차라리 베그만 밑에서 일을 하겠다.
최소한 베그만은 유머 감각 정도는 있잖아."

론이 빙정거리면서 말했다.

"네가 한 말을 퍼시가 엿듣지 못하도록 해."

헤르미온느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뭐, 괜찮아. 퍼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밑에서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 안 그래? 물론 퍼시는 바로 눈 앞에서 도비의 찻주전자 보온덮개를 쓰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추더라도 그게 장난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말이야."

론은 이제 초콜릿 슈크림을 먹기 시작했다.

"포터! 위즐리! 정신 못 차리니?"

맥고나걸 교수의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마치 매서운 채찍처럼 화요일 변신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을 쭉 하고 울렸다. 해리와 론은 화들짝 놀라면서 번쩍 고개를 들었다.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공부는 이미 끝이 났다. 학생들이 기니피그로 바꾸어 놓았던 뿔닭은 커다란 우리 안에 갇힌 채, 맥고나걸 교수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네빌의 기니피그는 아직까지도 털이 달려 있었다). 학생들은 칠판에 적힌 숙제를 열심히 받아적고 있는 중이었다(이종 간에 변신을 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변신부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라). 얼마 있지 않아서 종이 울릴 것이다. 지금까지 교실 뒤편에서 프레드와 조지 형제의 가짜 요술지팡이로 열심히 칼싸움을 하고 있던 해리와 론은 문득 자신의 손을 옮겨다 보았다. 론은 양철앵무새를, 해리는 고무생선을 들고 있었다.

"이제 포터와 위즐리가 고맙게도 자기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 맥고나걸 교수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해리가 들고 있던 고무 생선의 머리가 똑 부러지면서 소리 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론의 앵무새는 이미 조금 전에 부리가 갈라졌다.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 줄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무도회가 곧 열릴 예정이에요. 트리위저드 시합의 전통적인 행사 중 하나이자, 동시에 외국 손님들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무도회는 4학년 이상 학생들만 참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급생들을 초대할 수는 있지만……."

라벤더 브라운이 키득키득 웃음 소리를 내자, 패르바티 패틸이 그녀의 옆구리를 쿠 칠퍼렸다. 하지만 웃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쓴 탓에 패르바티 패틸의 얼굴도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연신 해리를 돌아보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그런 그들의 행동을 못 본 척했다. 해리는 방금 전에 맥고나걸 교수가 론과 자신을 호되게 야단친 것에 비하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만 합니다." 맥고나걸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다. "무도회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 8시

에 대연회장에서 시작되어서 자정에 끝날 것입니다. 또한 ……."

맥고나걸 교수는 일부러 잠시 동안 말을 끊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크리스마스 무도회에서는 여러분 모두 ……음 ……머리를 풀어 내리는 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맥고나걸 교수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끝냈다. 라벤더 브라운은 웃음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황급히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으면서 아까보다 더 육 심하게 키득거렸다. 이번에는 해리도 왜 웃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언제나 머리를 바싹 틀어올린채, 평생토록 한 번도 머리를 풀어 늘어뜨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호그와트의 학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핀도르의 학생이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나는 몹시 불쾌할 겁니다."

마침내 수업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종이 우렸다. 학생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부산하게 가방을 책이더니 어깨에 걸치고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포터, 괜찮다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꾸나."

학생들이 떠드는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맥고나걸 교수가 큰 소리로 해리를 불렀다. 분명히 목이 떨어진 고무 생선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지레 짐작을 한 해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선생님 책상을 향해 다가갔다.

매고나걸 교수는 아이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포터, 챔피언과 그 파트너는……."

"파트너라뇨?"

해리가 궁금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의혹에 찬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가 자신을 놀리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함께 갈 상대 말이다, 포터." 맥고나걸 쇼수가 쌀쌀맞게 대답했다. "너의 댄스 파트너."

해리는 갑자기 뱃속이 꿈틀거리면서 오금이 저리는 것 같았다.

"댄스 파트너요?" 해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전 춤추지 않아요."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야. 넌 춤을 추어야 해. 내가 널 부른 것도 그 때문이야. 전통적으로 챔피

언과 그의 파트너가 무도회를 주도하도록 되어 있단다."

맥고나걸 교수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의 머리 속에는 불현듯, 높은 모자와 연미복을 입은 자신이, 페루니아 이모가 부부동반 파티에 갈 때마다 입곤 하던 나풀나풀한 드레스를 입은 어떤 소녀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전 춤을 추지 않을래요."

해리가 고집을 부렸다.

"이건 전통이야, 넌 호그와트의 챔피언이야. 학교의 대표로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해. 그러니까 너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할 파트너를 확실히 구해 두도록 해라. 포터."

맥고나걸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전 싫은데……."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해리는 아마 댄스파트너를 구하는 일 정도는 형가리의 혼테일과 싸우는 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여학생에게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하느니 차라리 용과 한 번 더 싸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리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호그와트에 남겠다고 이름을 적는 것은 처음 보았다. 물론 여태까지 해리는 항상 호그와트에 남았다. 그렇지 않으면 프리벳 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줄곧 해리와 같은 학생들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4 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전부 다 학교에 남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해리의 눈에는 그들 모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다. 적어도 여학생들은 그랬다. 갑자기 호그와트에 이토록 수 많은 여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띠이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삼삼오오 복도에 모여 선 여학생들은 서로 소곤대면서 키득거렸다. 그러다가 어쩌다 남학생이 곁으로 지나가면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날 밤에 입고 갈 의상에 대해 잔뜩 신이 나서 재잘거렸다…….

"쟤네들은 왜 떼로 몰려다니는 거지?" 열두어 명의 여학생들이 해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킬킬거리고 지나가자, 해리가 론에게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넌 저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무도회에 가자고 말을 걸 거니?"

"울가미로 한 명 낚아 올까? 그런데 넌 누구에게 신청할 건지 생각해 봤어?"

론이 물었지만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자신이 파트너 신청을 하고 싶은 상대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 만한 용기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초 쟁은 해리보다 한 학년이나 위였다. 게다가 초 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훌륭한 퀴디치 선수였으며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최고였다.

"내 말을 들어봐. 너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넌 챔피언이잖아. 게다

가 형가리의 혼테일과 멋지게 싸워서 이겼고 말이야. 내가 장담하건대, 여자들은 너와 함께 무도회에 가려고 줄을 설 거야."

론은 해리의 마음속을 훤히 끄뚫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최근에 다시 되찾은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 보상이라도 하듯이, 론은 전혀 빙정거리는 어조가 아니었다. 해리가 더욱 깜짝 놀랐던 것은, 론의 말이 과연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날에 머리가 곱슬거리는 후풀푸프의 3학년 여학생이 해리를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녀는 해리가 지금까지 말 한 번 제대로 붙여 본 적이 없는 여학생이었다. 해리는 그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볼 만한 겨를도 없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면서 싫다고 대답해 버렸다. 그 여학생은 몹시 상심하여 가버렸다. 그리고 해리는 마법의 역사 시간내내 딘과 시무스와 론이 그 여학생을 두고 놀리는 것을 참아야 했다.

다음날에는 또 다른 두명의 여학생이 해리에게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신청했다. 한 명은 2학년생이었으며, 또 다른 한명은(끔찍하게도) 5학년생이었는데만

약 해리가 거절을 하면 당장 주먹이라도 휘두를 것 같은 기세였다.

"그래도 그 여자애는 꽤 예쁘던데……."

간신히 웃음을 멈춘 론이 공정한 평가를 내렸다.

"나보다 키가 30센티미터는 더 클 거야. 그 여자애와 내가 춤을 춘다고 한번
상상해봐."

해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빅터 크롬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새삼스럽게 머리 속에 떠올랐다.

"저 여자애들은 단지 크롬이 유명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해리는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던 여학생들 중에서 과연 자신이 학교 챔피언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상대가 되고 싶어할 여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대단히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만약 초 쟁이 자신에게 똑같은 요청을 했더라도 이렇게 성가신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했다.

결국 해리는 비록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 무도회 때문에 괴롭기는 하지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 자신의 처지가 과거보다 분명히 더 나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복도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아마도 그렇게 된 데에는 케드릭 디고리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해리는 짐작했다. 해리가 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 주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케드릭 디고리가 후풀푸프 학생들에게 해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제는 케드릭 디고리 이겨라!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배지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물론 드레이코 말포이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리타 스키터의 기사를 외우고 다녔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말포이의 농담에 킬킬거리면서 장단을 맞추는 아이들이 적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리의 마음을 안심시켰던 것은, 《예언자 일보》에 해그리드에 관한 기사가 한 줄도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는 마법 생물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그 학기 마지막 신비한 동물 돌보기 시간에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리타 스키터와의 인터뷰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해그리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해그리드는 학생들에게 스크루트를 직접 키우게 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단념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늘 수업에서는 단지 책상 뒤에 안전하게 앉아서 스크루트를 길들일 때 사용할 신선한 먹이를 준비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여자는 줄곧 너 이야기만 하고 싶어했어, 해리." 해그리드가 나지막이 말을 이어 나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즐리 가족으로부터 데리고 왔을 때부터 난 줄곧 너의 친구였다고 말해 주었지. '지난 4년 동안 해리를 야단쳤던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해리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정 말인가요?' 물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 주었지. 그러자 리타 스키터는 전

혀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내 생각엔 그 여자는 내가 너에 대해 욕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어, 해리."

"물론 그랬을 거예요. 내가 비극적인 어린 영웅이라는 기사만 계속 쓸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 지겹잖아요."

해리는 용의 간 덩어리를 커다란 금속 그릇에 넣고 칼을 들어서 좀더 잘게 잘랐다.

"해그리드, 그 여자는 새로운 기사 거리를 원하는 거예요. 해리가 정신나간 불량 소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여자는 아주 만족스러워 했을 거예요."

론도 불도마뱀의 알을 깨뜨리면서 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걸!"

해그리드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리타 스키터가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면, 차라리 스네이프와 인터뷰를 했어야 하는 건데……. 스네이프라면 언제든지 그 여자에게 나에 관한 좋은 기사 거리를 제공해 줬을 거야. '포터는 이 학교에 온 첫날부터 규율을 어겼습니다……'" 해리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스네이프가 그렇게 말했니? 그랬어? 론과 헤르미온느는 깔깔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지만 해그리드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글쎄……. 네가 약간 규칙을 어겼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해리,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렇지?"

"물론이죠, 해그리드."

해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웃었다.

"해그리드, 이번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오실 건가요?"

론이 물었다.

"그래 한번 들려보기는 하겠지." 해그리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꽤 멋진 파

티가 될 게다. 해리, 네가 처음 무도회를 주도하겠구나?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갈 생각이냐?"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해리는 다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해그리드는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다.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가 되자, 점점 더 분위기가 떠들썩하게 달아올랐다.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떠돌았다. 비록 해리는 그 중에서 절반도 믿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 중에는 예를 들자면, 던블도어가 로즈 메르타 부인으로부터 800 통의 꿀술을 샀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던블도어가

'운명의 세 여신'을 초대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해리는 도대체 '운명의

세 여신'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한 번도 마법사 통신을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WWN(마법사 통신 네트워크)을 들으면서 성장한 아이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주 유명한 음악밴드인 것 같았다.

호그와트의 선생님들 중에서 플리트윅 교수 같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을 보고 아예 가르치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수요일 수업 시간에 플리트윅 교수는 학생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라고 허락하고는, 해리를 붙잡고 트리위저드 시합의 첫 번째 시험에서 해리의 소환 마법이 얼마나 완벽했는지에 대해서 출곧 떠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도깨비 반란에 대한 자신의 글을 학생들에게 끝까지 읽히려는 빈스 교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사실 빈스 교수 자신의 죽음조차도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막지 못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무도회 같은 하찮은 일로 그를 움직인다는 것은 애당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참으로 도깨비 반란 같은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 기조차도, 가마솥 두께에 관한 퍼시의 보고서만큼이나 지루하고 단조롭게 들리도록 만드는 빈스 교수의 재능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였다.

맥고나걸 교수와 무디 교수도 종이 울리기 전 마지막 1초까지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물론 스네이프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도록 허락하느니, 차라리 해리를 양자로 삼았을 것이다. 스네이프는 심술궂은 눈초리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면서 학기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독약 해독제를 직접 시험해 볼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주 나빠, 정말로……. 지난 시간에는 느닷없이 시험을 보더니 이번에는 숙제를 잔뜩 내줘서 학기말을 망쳐놓고 있잖아."

그날 밤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에서 론이 투덜거렸다.

"음……. 그렇다고 별로 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그래?"

헤르미온느가 《마법의 약》공책에서 고개를 약간 들면서 말했다. 론은 분주하게 폭탄 카드로 카드 성을 지속 있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카드가 모조리 뻣 터지곤 하기 때문에, 머글들의 카드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오락거리였다.

"헤르미온느, 지금은 크리스마스야."

해리가 태평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지금 벽난로 근처의 안락 의자에 앉아서 《처들리 캐논 팀과의 비행》이라는 책을 열번째 읽고 있었다.

"해리, 나는 네가 좀더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비록 해독제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말야!"

헤르미온느가 못마땅한 눈길로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거?"

해리는 여전히 처들리 캐논 팀의 조이 제킨스가 발리캐슬뱃츠의 추격꾼을 향해 블러저를 한 방 먹이는 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물었다.

"그 알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한심하다는 듯이 내뱉었다.

"이봐, 헤르미온느 2월 24 일까지는 아직 멀었어."

사실 해리는 첫 번째 시합의 축하 파티 이후로 황금알을 여행 가방 속에 처박아 놓고 한번도 열어 보지 않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 소름기치는 울부짖음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두 달 하고도 반이나 더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알아내려면 몇 주일도 더 걸릴거야! 만약 다른 챔피언들은 전부 다음 시험이 뭔지 알아냈는데 너만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명청이처럼 보이겠니!"

헤르미온느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헤르미온느, 해리는 약간의 휴식을 가져야 한다구."

이렇게 말하면 론이 성의 제일 꼭대기에 마지막 폭탄 카드 두장을 올려놓은 순간, 카드가 일제히 뻣 터지면서 그의 눈썹을 새카맣게 태웠다.

"아주 멋지구나, 론……. 네 양복이랑 참 잘 어울리겠는걸."

프레드와 조지가 론을 향해 다가오면서 말했다. 그들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앉아 있는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론은 눈썹 주위에 흉터가 얼마나 났을까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론, 우리에게 피그위존을 좀 빌려 주지 않을래?"

조지가 론에게 물었다.

"그건 안돼. 편지를 전하러 갔거든. 그런데 왜?"

론이 물었다.

"조지가 그 부엉이를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다나 봐."

프레드가 조롱하듯이 말했다.

"사실은 우리가 편지를 좀 보내고 싶어서 그런다. 이 명청하고 둔한 얼간야." 조지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두 사람 다 누구랑 편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론이 수상쩍은 듯이 물었다.

"공연히 이 일에 끼어들기만 해 봐, 론. 당장 네 코를 태워 버릴 테니까."

프레

드가 자신의 지팡이를 위협적으로 흔들어 보였다. "그런데……무도회를 위해 데

이트는 많이 했니?"

"전혀."

론이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서둘러 짹을 찾는게 좋을거다. 그렇지 않으면 쓸 만한 여자애들은 다 놓쳐 버릴 테니까."

프레드가 론에게 쟁고했다.

"형은 누구랑 갈 건데?"

론이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안젤리나."

프레드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으스대면서 말했다.

"뭐라구? 벌써 여학생에게 무도회 신청을 했단 말이야?"

론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아주 좋은 지적이야." 프레드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휴게실 저편으로 소리쳤다. "이봐 안젤리나!"

벽난로 근처에서 앨리샤 스피넷과 수다를 떨고 있던 안젤리나가 고개를 돌렸다.

"왜?"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가지 않겠니?"

프레드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안젤리나는 잠시 동안 프레드를 재 보는 것 같았다.

"그래, 좋아."

간단하게 승낙을 한 안젤리나는 다시 앨리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굴에 약간 미소를 띤 채.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들도 해봐 누워서 떡먹기야." 프레드가 해리와 론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학교 부엉이를 사용해야겠다. 조지 가자……."

프레드와 조지는 바쁜 듯이 휴게실에서 나갔다.

"우리도 재빨리 원가 행동을 취해야만해. 너도 알잖아……. 아무에게나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신청을 하자 형 말이 맞아 이러다가 끝내 트롤 같은 여학생과 짹이 될지도 몰라."

론은 그슬린 눈썹을 문지르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연기가 피어 오르는 폭탄 카드 성의 잔해 너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트롤?"

헤르미온느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콧방귀를 꺼었다.

"그래,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엘루이즈 미드건과 함께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겠어 ."

론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그애는 요즘 여드름도 많이 나았어 게다가 마음씨가 얼마나 착한데!"

"코가 휘었잖아."

론이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그래, 알겠다. 결국 기본적으로 너는 아무리 성격이 나쁜 여자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 제일 그럴듯한 여자애를 고르겠다는 거구나?"

헤르미온느가 잔뜩 화가 나서 쏘아 붙였다.

"음……. 그래 듣고 말이 맞는 것 같다"

론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난 자려 가겠어."

헤르미온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여학생 기숙사로 향하는 계단을 쿵쿵거리면서 올라가 버렸다.

보바통과 던스트랭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멋진 인상을 심어 주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호그와트 교직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훌륭한 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았다. 학교 내부의 장식이 완성되었을 때 해

리는 지금 까지 보았던 것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시다고 생각했다.

대리석 계단 난간에는 영원히 녹지 않는 고드름이 달려 있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항상 대연회장에 설치되었던 열두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반짝이는 가시나무 열매부터 울음 소리를 내는 진짜 황금 부엉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그리고 갑옷들은 누군가 앞을 지나갈 때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도록 방법을 걸어 놓았다. 텅 비어 있는 투구 속에서 <오라. 모든 믿는 자들이여!> 와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건 참 굉장한 일이었다. 학교 관리인이었던 필치는 몇 번이나 갑옷 속에서 피브스를 꺼내야만 했다. 피브스는 종종 갑옷 속에 숨어서 노래가 끊어지는 순간마다, 자신이 지어낸 연가를 부르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 노래라는 것이 모두 야하기 짝이 없었다.

해리는 아직까지도 초 챙에게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가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리와 론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해리가 지적한 대로, 론은

설사 파트너가 없다고 해도 해리만큼 창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리는 다른 챙피언들과 함께 무도회를 주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 안되면 언제라도 모우닝 머틀이 있어."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모우닝 머틀은 이층 여학생 화장실에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해리,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해내야만 해. 오늘 밤 우리가 다시 이 휴게실에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각자 파트너를 구해 오는 거야, 알았지?"

금요일 아침에 론이 말했다. 론의 목소리는 마치 수비가 철통같은 성을 습격하기 위해 출정하는 병사처럼 비장했다.

"어……. 좋아."

해리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하루종일,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마법의 역사 교실로 가는 도중에 초 챙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초 챙은 어디든지 혼자 가는 법이 없는걸까? 초챙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켰다가 덮칠까? 아니다! 초 챙은 아마 화장실조차도 대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ahffuirkf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파트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초 챙은 다른 누군가에게 신청을 받을 것이다.

스네이프의 마법약 시험을 치르면서도 해리는 좀처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성분인 위석(胃石)을 집어넣는 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 최하위 점수를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용기를 끌어 모으는 일에 너무나 마음이 바빴던 것이다. 마침내 종이 울렸다. 해리는 허겁지겁 가방을 집어들고 지하교실의 출입구를 향해 달려갔다.

"저녁 식사 시간에 보자."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인사를 하고 쓴살같이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다. 그저 초 챙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을 걸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해리는 초 챙을 찾아서 학생들이 우글거리는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초 챙을 발견 할 수가 있었다. 초 챙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오고 있는 종이었다.

"초 챙…….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지 않을래?"

초 챙의 주위에 빙 둘러서 있던 여학생들이 일제히 킬킬거리면서 웃기 시작하자, 몹시 짜증이 난 해리는 함부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 챙은 조금도 웃지 않았다. 그리고 "좋아"라고 대답하더니 친구들의 곁을 떠나서 해리의 뒤를 따라왔다.

해리는 뒤로 돌아서서 초 챙을 마주 바라보았다. 마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라도 한 듯이 뱃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다.

"음……."

마침내 해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해리는 초 챙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

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했다. 초 쟁은 어리둥절해하면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가 혀를 제대로 움직이기도 전에 불쑥 말이 먼저 튀어 나왔다.

"나무도갈래?"

"뭐라구?"

초 쟁이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러니깐…… 나와 함께 무도회에 가지 않겠니?"

해리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왜 하필 이럴 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까? 왜?

"아하!" 초 쟁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다. "아, 해리! 정말 미안해, 나는 벌써

른 사람과 무도회에 가기로 약속했어." 초 쟁은 진심으로 미안한 표정이었다.

"아!"

해리는 나지막이 신음 소리를 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서 수십 마리의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더니, 지금은 갑자기 뱃속이 텅 비어 버린 것만 같았다.

"괜찮아. 정말이야."

해리가 간신히 대답했다.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

해리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마주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럼……."

마침내 초 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해리가 초 쟁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잘 가."

초 쟁의 얼굴을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초 쟁은 뒤로 돌아서더니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누굴아 같이 가니?"

"케드릭이야. 케드릭 디고리……."

초 쟁이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대답했다.

"그렇구나."

해리는 뱃속이 다시 깍 찬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묵직한 납덩어리가 뱃속에 잔뜩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해리는 터덜터덜 걸어서 그리핀도르의 탑으로 돌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초 쟁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케드릭이야. 케드릭 디고리……."

해리는 요즘 들어서 케드릭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던 참이었다. 케드릭이 퀴디치 게임에서 자기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이나, 너무 잘 생기고 인기가 좋아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총애하는 챔피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해리는 새삼스럽게 케드릭이 기생 오라비처럼 얼굴만 빤질빤질하지, 달걀 하나 채울 만큼의 머리도 없는 형편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정의 불빛."

해리가 맥빠진 목소리로 뚱뚱한 여인에게 중얼거렸다. 어제부터 암호가 바뀐 것이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뚱뚱한 여인은 새로 장만한 반짝이 머리띠를 똑바로 고쳐 쓰면서 노래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액자를 활짝 열어서 해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들어간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론이

다 죽어 가는 얼굴로 제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지니가 앉아서 론을 달래듯이 나지막이 뭐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론?"

해리가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가면서 물었다. 그러자 론이 고개를 들고 해리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론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떠 올랐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론은 마치 낚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무슨 일인데?"

"음……. 그러니까…… 론은 플뢰르 델라쿠르에게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신청을 했어."

지니가 론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지니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억지로 얘를 쓰는게 역력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니는 폰의 팔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네가 뭘 했다구?"

해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니까!" 론이 다시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내가 미쳤나봐. 모두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나는 현관 복도에서 플뢰르 델라쿠르와 마주쳤어. 플뢰르 케드릭에게 말을 걸려고 거기 서 있었지. 그때 갑자기 어떤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만 플뢰르에게 무도회 신청을 해 버렸어!"

론은 희미한 신음 소리를 내면서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고 계속 뭐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해리는 론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플뢰르는 나를 마치 해삼이나 뭐 그런거라도 되는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대답조차 하지 않더라. 그리고 나는 곧……. 제정신을 차리고 쓴살같이 도망쳤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플뢰르는 벨라의 피가 반쯤 섞여있어." 해리가 론에게 말했다. "네 말이 맞았어. 플뢰르의 할머니는 벨라였어.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장담하

건대 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플뢰르는 케드릭 디고리에게 마법을 걸려고 주문을 발사했을 거야. 하지만 플뢰르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 셈이지. 케드릭은 초 챙과 함께 무도회에 가기로 했거든."

론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방금 전에 내가 초 챙에게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가자고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초 챙이 내게 그렇다고 하더라."

해리는 무덤덤한 얼굴로 말했다. 갑자기 지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더니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건 정신나간 짓이야. 아직까지도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우리밖에 없을 거야. 네빌을 제외한다면 말야. 아참! 그런데 네빌이 누구에게 무도회

신청을 했는지 알아? 헤르미온느야!"

론이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뭐라구?"

해리는 이 놀라운 소식에 완전히 정신이 팔렸다.

"정말이야. 내가 들었다니까! 마법의 약 수업이 끝난 후에 네빌이 나한테 알려줬어! 네빌은 헤르미온느에게 항상 숙제도 도와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데 헤르미온느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가기로 했다고 대답했대. 하! 정말 그럴듯한 변명이었지! 헤르미온느는 네빌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정말이야. 누가 네빌과 같이 가고 싶어하겠어?

론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감돌면서 웃음이 피어 올랐다.

"그만 해! 비웃지 말란 말야!"

지니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 순간 헤르미온느가 초상화 구멍을 통해 휴게실로 들어왔다.

"왜 너희 둘 다 저녁 식사에 오지 않았니?"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면서 물었다.

"왜냐하면……. 아이 참, 두 사람 다 그만 웃어! 왜냐하면 여기 두 사람 모두 여

학생에게 무도회에 함께 가자고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거든!"

지니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그말을 듣자 해리와 론이 웃음을 뚝 그쳤다.

"정말 고맙구나, 지니."

론이 비꼬듯이 말했다.

"얼굴이 아름다운 여학생들은 이미 파트너가 다 정해졌니, 론?" 헤르미온느가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했다. "엘루이즈 미드건도 이제 꽤 예뻐진 것 같던데, 그럴지 않니? 그래, 물론 넌 어디선가 네 상대가 될 만한 아주 멋진 여학생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

하지만 론은 갑자기 헤르미온느의 전혀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는 듯이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헤르미온느, 네빌이 옳았어. 너도 여학생이잖아……."

"오 그래. 아주 잘 봤구나."

헤르미온느가 차갑게 톡 쏘이불였다.

"네가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같이 무도회에 가면 되겠다!"

"아니야, 나는 안 돼."

헤르미온느가 쌀쌀맞게 거절했다.

"이봐, 그러지 마. 우리는 파트너가 필요해. 만약 파트너도 없이 무도회에 간다

면 우리가 얼마나 멍청하게 보이겠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론은 초조하게 말하면서 헤르미온느에게 매달렸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어. 이미 같이 갈 사람이 있다니까."

헤르미온느가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했다.

"아냐, 거짓말이야! 네빌의 요청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잖아!"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소리쳤다.

"아하, 그래?" 헤르미온느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론! 단지 네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여자라느 걸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곤 생각하지마!"

론은 잠시 동안 멍하니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시 씩 웃었다.

"좋아, 좋아. 네가 여학생이라는 걸 충분히 알겠어, 됐지? 이제는 우리와 함께

무도회에 갈 거지?"

론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벌써 말했잖니!" 헤르미온느는 몹시 화를 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기로 했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헤르미온느는 매서운 바람을 일으키며 여학생 기숙사로 달려가 버렸다.

"거짓말이야."

론이 헤르미온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통명스럽게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지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굴랑 가는데?"

론이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거야. 이건 전적으로 헤르미온느의 문제니까 말이

야."

지니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맞아.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이야. 지니, 그렇다면 네가 해리와 같이 가면 되겠

다. 그리고 나는……."

론은 잔뜩 심술이 난 것 같았다.

"나도 안 돼." 이번에는 지니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나는 네빌

과 함께 무도회에 가기로 했어. 헤르미온느가 거절하자. 네빌이 나에게 신청을 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네빌의 요청을 거절하면 크리스마스 무도회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직 4학년이 아니잖아."

지니는

무척 상심한 듯이 보였다. "이제 가서 저녁이나 먹어야겠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지니는 고개를 푹 떨군 채, 초상화 구멍으로 걸어갔다.

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해리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론이 한숨을 내쉬면서 물었다. 바로 그 순간 해리는 초상화 구멍을 통해 휴게실로 들어오는 패르바티와 라벤더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순간이 된 것이다.

"여기서 기다려" 해리는 론에게 말한 후에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곧장 패르바티를 향해 다가가서 물었다. "패르바티? 나와 함께 무도회에 가지 않을래?"

그러자 패르바티는 미친 듯이 킬킬거리면서 웃기 시작했다. 해리는 손가락을 호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 패르바티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 좋아."

마침내 패르바티는 얼굴을 흉당무처럼 붉히면서 대답했다.

"고마워." 해리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라벤더, 너는 론과 함께 가지 않겠니?"

"라멘더는 시무스와 함께 무도회에 가기로 했어."

패르바티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더욱 큰소리로 킬킬거렸다. 해리는 저절로 무거운 한숨이 나왔다.

"혹시 론과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없을까?"

해리는 론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잔뜩 낮추면서 물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어떨까?"

패르바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해리가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하자, 패르바티는 무척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래 누구?"

패르바티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건 알수 없지. 그런데 론은 어떻게 하지?"

해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글쎄…… 아마 내 여동생이라면…… 너도 알지? 래번클로의 파드마 말이야. 네가 좋다면 파드마에게 물어 보겠어."

패르바티가 천천히 대답했다.

"좋아. 정말 잘 됐구나. 꼭 나한테 아려 주도록 해. 알았지?"

해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다시 론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서 이번 무도회는 너무나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디 파드마 패틸의 코가 매부리코가 아니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호그와트의 선생님들은 4학년생들에게 엄청난 양의 숙제를 내 주었다. 하지만 학기가 끝났을 때, 해리는 도저히 공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일주일 동안에는 다른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면서 즐겁게 뛰어놀았다. 그리핀도르 팀은 휴가가 시작되기 전만큼이나 수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심지어 그프리핀도르 팀이 약간 비좁아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것은 기숙사의 학생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야단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프레드와 조지의 카나리아 크림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휴일이 시작된 처음 며칠 동안에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털달린 새로 변신하곤 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면 혹시 그 속에 카나리아 크림이 들어 있을까 봐 각별한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자 조지는 해리에게, 프레드와 자기가 도 다른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짝 알려 주었다. 해리는 앞으로도 프레드와 조지가 주는 과자는 절대로 받아먹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두들리와 혓바닥 늘리기 태 피사건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다.

호그와트의 성과 땅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다. 얼음 생강빵으로 만든 집처럼 보이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집 근처에 세워져 있는, 창백한 푸른색의 보바통 마차는 온통 서리를 맞아서 차갑게 얼어버린 커다란 호박처럼 보였다. 덤스트랭 배의 둥근 창문도 하얗게 성에가 끼어서 얼음처럼 반짝거렸고 배의 다른 부분들도 서리를 맞아 하얗게 변했다. 주방에서 일하는 꼬마 집요정들은 기름지고 따뜻한 스튜와 향긋한 푸딩을 계속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플뢰르 델라쿠르는 어디서든지 불평 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그와트의 음식은 너무 기름져용." 어느 날 저녁에 연회장에서 나오던 해리와 론은 플뢰르 델라쿠르가 툴툴거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소리를 들었다(론은 플뢰르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리의 등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러다강 내 드레스가 맞지 않겠어용!"

"와! 그것 참 엄청난 비극이겠군." 플뢰르 델라쿠르가 현관 복도로 나가자, 헤르미온느가 빙정거렸다. "저 여자애는 자기 몸 생각을 엄청나게 하는 모양이지? 그렇지 않니?"

"헤르미온느. 그런데 너는 누구와 무도회에 갈 거니?"

론이 몹시 궁금해서 물었다. 지금까지 론은 불쑥불쑥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헤르미온느에게 했다. 헤르미온느가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무심코 대답을 유도해 내려는 의도였다.

"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넌 날 놀릴 거잖니."

헤르미온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단호하게 대답했다.

"위즐리! 농담하지마!"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말포이가 끼어들었다. "설마 누군가 저 여자애한테 무도회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앞니가 길고 잡종인 저 여자애한테 말야"

해리와 론은 동시에 획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말포이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무디 교수님!"

말포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무디를 찾았다. 하지만 무디 교수는 아직까지도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네 꼴은 꼭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새끼 족제비 같구나, 말포이?"

헤르미온느가 신랄하게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와 론과 더불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헤르미온느, 그런데 네 이가……."

갑자기 론이 올골을 찌푸리면서 헤르미온느를 슬쩍 곁눈질 했다.

"내 이가 어때서?"

헤르미온느가 론에게 반문했다.

"글쎄……. 좀 달라졌어……. 지금 처음 알았는데……."

"물론 좀 달라졌지. 그럼 넌 말포이가 만들어 줬던 그 앞니를 내가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 그런게 아니야, 말포이가 너한테 마법을 걸기 전과도 좀 달라졌어. 그러

니까 이가 모두…… 똑바르고, 그리고…… 그리고 전처럼 크지도 않아."

헤르미온느는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해리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금 헤르미온느가 짓고 있는 미소는 분명히 해리가 기억하고 있던 미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내가 늘어난 앞니를 줄이기 위해서 품프리 부인을 찾아갔을 때, 부인은 거울을 주면서 앞니가 예전과 같은 크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만 멍추라는 말을 하라고 했어." 헤르미온느가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설명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 품프리 부인이 조금 더 이빨을 작게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었지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지난 몇 년동안 계속 마법으로 이빨을 작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모님을 졸랐거든. 하지만 그분들은 내 치아에 교정기를 끼우고 싶어했지. 너희도 알겠지만 그분들은 치과의사거든. 치아와 마법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이런,

저기를

봐! 피그위존이 돌아왔어!"

론의 작은 부엉이는 고드름이 매달린 난간 꼭대기에 앉아서 미친 듯이 울어대고 있었다. 부엉이의 다리에는 커다란 양피지 두루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으로 부엉이를 가리키면서 웃을 터뜨렸다.

3학년

여학생들은 걸음을 멈추고 재잘재잘 떠들기도 했다.

"저 조그만 부엉이 좀 봐! 너무 귀엽지 않니?"

"멍청한 새 새끼 같으니라구!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곧장 가지고 와야지!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으스대고 있으면 어떡해!"

론이 씩씩거리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더니 피그위존을 움켜잡았다. 피구위존이 부엉부엉 울면서 쓰다듬어 달라는 듯이 론의 주먹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3학년 여학생들은 론이 부엉이를 학대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다 꺼져!"

론이 피구위조를 불잡고 있는 주먹을 흔들면서 여학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피그위존은 하늘 높이 날아갈 때보다도 더욱 행복한 듯이 부엉부엉 울어댔다.

"자, 이걸 받아. 해리"

잔뜩 화가 난 3학년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 버리자, 론은 목소리를 잔뜩 낮

추면서 말했다. 해리는 피그위존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시리우스의 답장을 풀었다. 그런 다음에 편지를 재빨리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한시라도 빨리 편지를 읽기 위해, 해리는 서둘러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갔다.

휴게실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크리스마스의 열기를 발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볼 만한 틈이 없었다. 그러므로 론과 해리, 헤르미온느는 사람들과 조금 떨어져서 차츰차츰 눈이 더 높이 쓸이고 있는 어두운 창가에 앉았다. 해리가 편지를 꺼내서 소리 내어 읽었다.

사랑하는 해리에게

먼저 혼테일을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 불의 잔 속에 네 이름을 넣은 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은 결코 유쾌한 기분이 아니겠구나! 나는 결막염 저주를 써보라고 제안할 생각이었다. 용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눈이거든.

"그게 바로 크룸이 쓴 방법이야!"

헤르미온느가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네 방법이 훨씬 더 좋았다. 아주 인상적이었단다.

해리, 그래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너는 겨우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한 거야.

너

를 이 시합에 끌어들인 자가 누구이든, 너를 해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라. 특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에는 더욱더 말이다. 그리고 항상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거라.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 다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꼭 듣고 싶구나.

시리우스

"시리우스는 꼭 무디 쇼수처럼 말하네." 해리는 편지를 다시 옷 속에 깊숙이 집어 넣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시리우스는 내가 눈을 감고 돌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히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나봐."

"하지만 그 말이 맞아 해리. 너는 아직까지도 시험이 두 개나 더 남았어. 먼저 그 황금알을 잘 살펴봐야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연구하기 시작해야지……."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말했다.

"헤르미온느, 아직 시간은 많아! 해리, 그러지 말고 우리 체스게임이나 할까?" 론이 말을 가로챘다.

"그래, 좋아.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겠니? 이런 곳에서는 황금알을 열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살피면서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래 그렇겠지"

헤르미온느는 커다랗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이 체스 게임을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합은 론이 무모하게 용감한 폰과 아주 난폭한 비숍을 이용해서 장군을 불렀을 때 절정에 달했다.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해리는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눈을 말뚱말뚱 뜯 채, 왜 갑자기 정신이 들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그러다가 문득 커다랗고 톳 불거진 초록색 눈을 가진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지, 거의 코가 서로 맞닿을 정도였다.

"도비!" 깜짝 놀란 해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황급히 요정으로부터 몸을 피하다가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러지 마!"

"도비는 미안해요! 도비는 그저 해리 포터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해리 포터는 도비에게 가끔씩 찾아와도 좋다고 말했어요!"

기다란 손가락으로 입을 막으면서 펄쩍 뒤로 물러난 도비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꽉꽉거렸다.

"그래, 좋아. 하지만 아픕로는 나를 쿡쿡 찌르거나 해서 잠을 깨우도록 해. 이

런 식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지 말고……."

해리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면서 대답했다. 차츰차츰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리는 침대 기둥에 둘러진 커튼을 걷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안경을 집어들었다. 해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론과 시무스, 딘과 네빌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모두 졸음에 겨운 눈을 비비면서 부스스한 머리를 커튼 사이로 내밀고 밖을 내다보았다.

"누가 공격이라도 했니, 해리?"

시무스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도비였어. 다시 자도록 해."

해리가 미안한 듯이 시무스를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우와! 선물이잖아!"

침대 발치에 잔뜩 쌓여 있는 상자 더미를 발견한 시무스가 소리쳤다. 론과 딘과 네빌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선물 상자를 열어보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도비를 쳐다보았다. 도비는 해리의 침대 옆에 서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혹시라도 해리를 화나게 한 것은 아닌가 몹시 걱정하는 기색이었다. 찻주전자 보온 덮개 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물이 매달려 있었다.

"도비가 해리 포터에게 선물을 줘도 될까요?"

도비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런 건 좋은 일이야."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음……."

나도 너에게 줄 게 있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해리는 도비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다. 하지만 해리는 재빨리 트렁크를 열고 특별히 보푸라기가 많이 일어난 양말을 꺼냈다. 이 노란 겨자색 양말은 해리의 양말 중에서도 가장 낡고 더러운 것으로 한때 버논 이모부가 신던 것이었다.

그 양말이 그렇게 우툴두툴했던 것은 지난 1년 동안 해리가 이 양말을 스니코스코프를 감싸는 데 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스니코스코프에서 벗겨낸 양말을 도비에게 건네 주면서 말했다.

"미안해. 선물을 포장하는 걸 깜박 잊어버렸어."

하지만 도비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양말은 도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몸에 걸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죠!" 도비는 당장 자신의 짹짜이 양말을 벗어 던지고 버논 이모부의 양말을 신었다. "이제 도비한테는 양말이 일곱 개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

비는 눈을 휙둥그렇게 뜨더니 양쪽 양말을 최대한 높이 끌어당겼다. 양말은 거의 반바지 밑까지 늘어났다. "상점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나봐요. 해리 포터. 당

신에게 똑같은 양말 두 짹을 뱉잖아요!"

"오, 세상에……. 해리, 어떻게 지금까지 그걸 모를 수가 있었니?" 론이 침대

위에서 씩 웃으며 도비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다. 론의 침대 위에는 포장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도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리로 와서 이것도 가져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젠 양말을 제대로 신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네 스웨터도 있어."

론은 도비에게 이제 막 포장지에서 꺼낸 보라색 양말과 위즐리 부인이 직접 짠 스웨터를 던져 주었다. 도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너무 친절하시군요! 도비는 선생님이 위대한 마법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리 포터의 가장 친한 친구이니까요. 하지만 도비는 선생님도 해리 포터처럼 고귀하고 헌신적이고 너그러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미처 몰랐어요."

도비는 깽깽거리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눈물이 그렇그렇하게 고인 채, 론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건 그저 양말일 뿐이야."

론은 귀까지 새빨개졌지만 도비의 찬사가 별로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와우, 해리!" 해리의 선물을 막 열어본 론이 탄성을 질렀다. 그것은 처들리 캐

논 팀의 모자였다. "너무 멋져!" 론이 모자 속으로 머리를 쑤셔 넣자, 머리카락

이 마구 헝크러졌다.

도비는 해리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바로…… 양말이었

다.

"도비가 직접 만들었어요. 봉급받은 돈으로 실을 샀어요!"

꼬마 요정은 읍시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왼쪽 양말은 밝은 붉은색이었고 빗자루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오른쪽 양말은 초록색이었고 스니치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이건……. 이건 정말……. 정말 고마워, 도비."

해리가 인사를 하면서 양말을 신어 보았다. 도비의 눈에서 다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도비는 가야만 해요. 벌써 주방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도비는 종종걸음으로 기숙사를 빠져나갔다.

해리가 받은 다른 선물들은 도비의 짹짜이 양말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물론 더즐리 가족이 보낸 선물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그것은 달랑 휴지 조각 한 장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형편없는 선물이었다. 해리는 아마 더즐리 가족도 혓바닥 늘이기 태피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영국과 아일랜드의 퀴디치 팀》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론은 불룩한 똥 폭탄 가방을 주었고, 시리우스는 어떤 자물쇠라도 열 수 있고 어떤 매듭이라도 풀 수 있는 주머니칼을 보냈다. 해그리드는 베르티 보트의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와 개구리 초콜릿, 드루블의 가장 잘 불어지는 풍선껌, 피징 위즈비 등을 비롯해서 해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잔뜩 담긴 커다란 과자 상자를 선물했다.. 물론 위즐리 부인이 늘 보내 오는 선물 꾸러미도 있었다. 새로 짠 초록 색 스웨터와(이번에는 용의 그림이 수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찰리가 혼테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던 것 같았다) 집에서 직접 만든 고기 파이였다.

해리와 론은 학생 휴게실에서 헤르미온느를 만난 후에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전 시간 대부분을 그리핀도르 탐 안에서 보냈다. 학생들은 모두 선물을 살펴보면서 잔뜩 신이 나 있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연회장으로 돌아가서 성대하게 차려진 점심식사를 먹었다. 적어도 백 개가 넘는 칠면조 요리와 크리스마스 푸딩 그리고 크립바그의 마법 크래커가 산더미처럼 나왔다.

오후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덤스트랭과 보바통 학생들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깊은 굴을 파놓은 것 이외에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하얀 눈은 그대로 높이 쌓여 있었다. 해리와 위즐리는 눈싸움을 했지만, 헤

르미온느는 그냥 곁에서 구경만 했다. 그리고 오후 5 시가 되자, 무도회를 준비

하기 위해 먼저 기숙사로 올라가야겠다고 말했다.

"뭐라구? 세 시간이나 필요하단 말야?"

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끄러미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잠깐 헤르미온느에게 한눈을 파는 바람에 론은 조지가 던진 커다란 눈뭉치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아야만 했다.

"도대체 누구랑 가는거야?"

론은 헤르미온느의 등 뒤에 대고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그저 손을 살짝 흔들고는 성으로 들어가는 돌계단 위로 사라져 버렸다.

무도회에는 성대한 연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 없었다. 7 시가 되어서 목표물을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

위지자, 학생들은 눈싸움을 그만두고 우르르 휴게실로 몰려갔다. 뚱뚱한 여인은 아래층에서 올라온 친구 바이올렛과 함께 초상화 액자 속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잔뜩 술에 취해 있었고 액자 바닥에는 텅 빈 초콜릿 술상자가 뭉굴고 있었다.

학생들이 '요정의 불빛'이라고 암호를 말하자, "요강의 불빛이란 말이지, 바로

그거야!" 하며 뚱뚱한 여인이 킬킬거렸다. 그리고 액자를 열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로 돌아온 해리와 론, 시무스, 딘 그리고 네빌은 서둘러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모두들 자기의 모습에 무척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론이 가장 심했다. 론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세워진 기다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론의 옷은 여자들이 입는 드레스처럼 보였다. 웃옷을 좀더 남자답게 보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론은 잘라내기 마법을 사용해서 칼라 주름과 소매 주름을 떼어 내었다.

마법은 아주 훌륭하게 효력을 발휘해, 적어도 너풀거리는 레이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별로 꼼꼼하게 뒤처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론의 소맷단은 가여울 만큼 너덜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너희 두 사람이 어떻게 그 학년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을 차지했는지 알 수가 없어."

딘이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동물적인 매력이지."

론이 소맷단에서 줄줄 풀려 나오는 올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항상 입는 검은색 제복 대신에 온갖 다양한 색깔의 옷을 차려입은 학생들로 가득한 휴게실은 좀 이상하게 보였다. 패르바티는 계단 끝에서 해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충격적일 만큼 야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긴 검은 머리를 황금색 실로 빨아 올린 패르바티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패르바티의 손목에는 황금 팔찌가 찰랑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패르바티가 킬킬거리면서 웃지 않는 것을 보고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너…… 어…… 정말 멋지다."

해리가 패르바티를 쳐다보면서 어색하게 칭찬을 했다.

"고마워." 패르바티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파드마는 현관 복도에서 너

를 기다릴 거야." 패르바티가 론에게 알려 주었다.

"알았어." 론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헤르미온느는 어디 있지?"

"해리, 우리도 아래로 내려갈까?"

패르바티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해리는 그냥 휴게실에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프레드는 초상화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해리의 곁을 지나가면서 눈을 깡끗했다.

현관 복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8 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기숙사에서

파트너를 구한 학생들은 혼잡한 사람들 틈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상대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마침내 패르바티는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동생 파드마를 만났다. 패르바티는 파드마를 데리고 해리와 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안녕."

파드마가 먼저 인사를 했다. 밝은 청록색 드레스를 입은 파드마는 패르바티만큼이나 예뻤다. 하지만 파드마는 론의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을 그다지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다. 론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파드마의 검은 눈동자가 자꾸만 너덜거리는 목과 소맷단에 머물렀다.

"안녕." 론은 파드마가 있는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이크……."

론은 살짝 무릎을 굽히면서 해리의 등뒤로 몸을 숨겼다. 플뢰르 랭카쿠르가 래번클로의 퀴디치팀 주장인 로저 데이비스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은회

색의 얇은 비단옷을 입은 플로르 델라쿠르는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론은 다시 똑바로 서서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렸다.
"헤르미온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거지"

론이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중얼거렸다. 한 무리의 슬리데린 학생들이 그들의 지하 휴게실에서 몰려나왔다. 말포이가 앞장을 서고 있었다. 말포이는 칼라 깃이 높은 검은색 벨벳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해리의 눈에는 마치 교구 목사처럼 보였다. 연한 분홍색에 주름이 잔뜩 달린 드레스를 입은 팬시 파킨슨이 말포이 곁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크레이브와 고일은 똑같이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이끼가 잔뜩 기어 있는 돌멩이 처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파트너를 구하는 일에 실패한 모양이었다. 그 골을 보니까 해리는 무척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다. 덤스트랭의 학생들이 카르카로프 교수와 함께 입장하고 있었다. 빅터 크룸이 제일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옆에는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학생이 서 있었다. 해리는 처음 보는 여학생이었다. 그들 너머로 호그와트 성 바로 앞의 잔디밭이 요정의 불빛으로 가득 찬 일종의 동굴처럼 변해버린 것이 보였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정말로 살아 있는 요정들이, 마법으로 피워낸 장미꽃 봉오리 속에 앓아 있거나 산타클로스와 순록처럼 보이는 석상 위를 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챔피언들은 이리로 와요!"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패르바티는 황금 팔찌를 매만지면서 활짝 미소를 지었다. 해리와 패르바티는 론과 파드마에게 "잠시 후에 보자"라고 인사를 한 후에 앞으로 걸어 나갔다. 웅성거리면서 복도에 늘어서 있던 학생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길을 내 주었다. 붉은 격자무늬의 드레스를 입고 보기 흉한 엉겅퀴 다발이 테에 둘러져 있는 모자를 쓴 맥고나걸 교수는 챔피언들에게. 다른 학생들이 모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문 한쪽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다음에 챔피언들이 줄을 지어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플로르 델라쿠르와 로저 데이비스는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플로르와 파트너가 되는 행운을 누린다는 사실에 반쯤 넋이 나간 데이비스는 단 한 순간도 그녀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케드릭과 초 챕도 해리와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해리는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그 대신에 크룸과 나란히 서 있는 여학생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 순간 해리의 입이 딱 벌어졌다.

헤르미온느! 그 여학생은 바로 헤르미온느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녀는 전혀 헤르미온느처럼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의 부스스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매끄럽고 윤기가 감도는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틀어올려서 머리 뒤로 멋지게 묶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붉은 빛이 살짝 감도는 푸른색의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가짐까지도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어쩌면 그것은 항상 헤르미온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스무 권이 넘는 책 보따리가 없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헤르미온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사실은 약간 기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작아진 앞니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였다. 해리는 왜 진작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스스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다.

"안녕, 해리!" 헤르미온느가 그들을 응시하면서 인사했다. "안녕, 패르바티!"

패르바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헤르미온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은 비단 패르바티만이 아니었다. 연회장의 문이 열린 그 순간부터, 도서관까지 졸졸 쫓아다니던 빅터 크룸의 열렬한 팬클럽들은 미움과 질시가 가득 담긴 눈길을 헤르미온느에게 던지고 있었다.

말포이와 나란히 연회장으로 들어오던 팬시 파킨슨도 입을 딱 벌렸다. 심지어 말포이조차도 감히 헤르미온느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지 못했다. 하지만 론은 바로 헤르미온느의 곁을 지나가면서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학생들이 모두 다 자리에 앉자, 맥고나걸 교수는 챔피언들과 그들의 파트너에게 한 쌍씩 줄을 지어서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간 그들이 상석에 있는 커다란 둥근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자, 그곳에 모여 있던 사

람들은 모두 일제히 박수를 쳤다. 둥근 테이블에는 심판들이 앉아 있었다.

연회장의 벽은 온통 반짝거리는 은빛 성에로 뒤덮여 있었고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검은 천장에는 겨우살이 가지와 아이비 덩굴로 만든 수백 개의 화환들이 잔뜩 매달려 있었다. 커다란 기숙사 테이블은 어디론가 치워지고 그 대신에 열두어 명씩 앉을 수 있는 수백 개의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등잔이 은은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해리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통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패르바티는 이런 상황을 무척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여유만만한 미소를 던지면서 해리를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했던 것이다. 해리는 마치 패르바티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는 전시용 개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상석 테이블 근처까지 걸어갔을 때, 문득 론과 파드마의 모습이 보였다. 론은 눈을 가늘게 뜨고 헤르미온느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반면에 파드마는 뿐만 아니라 표정이었다.

챔피언들이 상석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오자, 덤불도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카르카로프는 크롬과 헤르미온느가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자, 론과 거의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 커다란 노란색 별이 그려진 밝은 보라색의 옷을 입고 있던 루도 베그만은 어떤 학생들 못지않게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항상 입고 다니던 검은색 비단옷 대신에 라벤더 색깔의 하늘거리는 비단옷으로 바구어 입은 맥심부인은 예의 바르게 박수를 보냈다. 문득 해리는 크라우치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테이블의 다섯 번째 자리에는 퍼시 위즐리가 앉아 있었다.

챔피언들과 파트너가 테이블 앞에 도착하자, 퍼시는 자기 옆의 빈 의자를 잡아 당기면서 해리에게 손짓을 했다. 해리는 재빨리 그 뜻을 알아차리고 퍼시의 옆자리에 앉았다. 새로 구입한 군청색 양복을 차려입은 퍼시는 어찌나 점잖을 뻬면서 앉아 있었던지, 저런 사람에게는 벌금을 매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나는 승진했어, 나는 이제 크라우치 씨의 개인 비서야. 이 자리에도 크라우치 씨를 대신해서 온 거야."

미처 해리가 물기도 전에 퍼시가 먼저 자랑을 늘어놓았다. 퍼시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같았다.

"크라우치 씨는 어째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죠?"

해리가 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가마솥 바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크라우치 씨는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상당히 나쁜 편이야. 월드컵 직후부터 계속 그랬어. 그건 놀랄만한 일도 아니지. 그렇게 과로를

하시니까……. 그분도 이제는 옛날만큼 젊지 않아. 물론 여전히 똑똑하고 여느 때처럼 위대한 정신을 갖고 계시지만 말이야. 하지만 월드컵은 마법부 전체에 엄청난 실패를 안겨 주었어. 게다가 크라우치 씨는 블린키인가 원가 하는 자기 꼬마 집요정이 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어. 당연히 크라우치씨는 즉시 그 집요정을 해고했지만, 글쎄…….

크라우치

씨는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꼬마 집요정이 떠난 다음부터 안락한 집안 살림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 같아.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 시합을 준비해야만 했고 월드컵 뒤처리를 해야만 했어. 그 골치아픈 스키터라는 여자가 여기저기 마구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오, 가엾은 분. 마땅히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만 해……. 그나마 그분을 대신해서 확실히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그 순간 해리는 크라우치가 이제는 퍼시를 '웨더비'라고 부르지나 않는지 묻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지만, 간신히 참았다.

반짝거리는 황금접시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음식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테이블 위에 작은 메뉴판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해리는 자기 앞에 놓은 메뉴판을 집어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중을 드는 사람의 모습은 눈에 뜨이지 않았다. 하지

만 덤블도어는 앞에 놓인 메뉴판을 신중하게 한참 내려다보더니, 접시에 대고 분명하게 말했다.

"폭 찹!"

그러자 접시 위에는 순식간에 폭 찹이 나타났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나머지 사람들도 덤블도어가 음식을 주문하는 광경을 보고 똑같이 자신의 접시를 향해 음식을 주문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이 새롭고 좀더 복잡한 식사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하면서 그녀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상을 차치려면, 틀림없이 꼬마 집요정들은 더욱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헤르미온느는 S.P.E.W.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빅터 크롬과 대화하는 데 깊이 빠져들어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득 해리는 이제까지 한번도 빅터 크롬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빅터 크롬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음, 우리도 성이 있다. 하지만 호그와트처럼 크거나 아늑하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빅터 크롬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우리 성은 4층인데, 오직 마법

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을 피운다. 우리 운동장은 이곳보다 훨씬 더 크다. 비록 겨울에는 낮이 아주 짧기 때문에 별로 운동장을 사용할 기회가 없지만……. 여름에는 날마다 날아다닌다. 호수와 산 위를……."

"이런, 이런, 빅터!" 카르카로프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은 결

코 카르카로프의 차가운 눈빛에까지 전해지지는 못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그러다가 네 매력적인 친구에게 우리가 있는 장소를 들키게 될지도 몰라!"

"이고르, 온통 비밀뿐이로군……. 누가 들으면 손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네."

덤블도어가 눈을 찡끗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덤블도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 영역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가? 아닌가?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학문의 전당을 지키려고 열성적으로 노력하지 않는가? 오직 우리만이 우리 학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지 않는가?"

카르카로프가 누런 이빨을 다 드러내면서 씩 미소를 지었다.

"오, 이고르. 나는 한번도 내가 호그와트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는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다네." 덤블도어가 유쾌하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다네. 욕실로 가는 길을 잘못 들어서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요강 항아리가 참으로 웅장하게 진열되어 있었다네. 내가 좀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다가갔더니 순식간에 방이 사라지더군. 하지만 난 계속 그 방을 지켜볼 거라네. 어쩌면 그 방은 오직 새벽 5시 30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초승달이 뜰 때에만 나타나는 건지도 몰라. 혹은 특별히 오줌보가 터질 지경일 때에만 나타나는 건지도 모르는 일이지."

해리는 재빨리 매운 소고기와 야치 요리가 담겨 있는 접시로 시선을 떨구면서 코를 씹룩거렸다. 퍼시는 잔뜩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해리는 덤블도어가 아주 살짝 눈을 찡끗거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플뢰르 델라쿠르는 로저 데이비스를 쳐다보면서 호그와트의 실내 장식에 대해 흄을 잡고 있었다.

"이경 아무것도 아니야." 플뢰르는 경멸하듯이 연회장의 반짝거리는 벽을 빙둘러보면서 말했다. "보바통 궁전에서 능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회장 사방에 얼음 조각을 세워 놓는당구. 물통 절대로 녹지 아냥……. 그건 마치 다이아몬드로 만든 조각처럼 방 전체에서 빛을 발하징. 우리 음식을 한 마디로 굉장행. 그리고 숲 속의 님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우리가 식사하는 동양 세레나데를 불러 주

징. 우리 복도에 능 이럴게 보기 흉한 갑옷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어. 만약 장난 꾸러기 요정이 보바통에 들어온다면 당장 쫓겨날 거야." 플뢰르는 분개한 듯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턱 쳤다.

로저 데이비스는 황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플뢰르 델라쿠르의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로저 데이비스는 지금 포크가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순간을 못하고 있었다. 해리는 데이비스가 플뢰르를 바라보는 일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서 그녀가 하는 말은 한 마디도 귀담아 들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네 말이 모두 맞아." 데이비스는 플뢰르를 따라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턱 치면서 재빨리 동의했다. "그럼, 그렇구말구."

해리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해그리드는 다른 교직원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흉칙한 갈색 털 양복을 입고 상석 테이블을 열심히 옮겼다보고 있는 중이었다. 해그리드가 누군가에게 살짝 손을 흔드는 것을 본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옆을 돌아보았다. 맥심 부인이 손을 흔들면서 응답하고 있었다. 맥심 부인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오펠 반지가 촛불을 받으며서 반짝거렸다.

헤르미온느는 이제 크룸에게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지금까지 쿠롬은 계속 그녀를 "헬미온"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가 천천히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발음했다.

"헤-르-므-오-운-니-니."

"훨씬 비슷해졌어."

그 순간 해리와 눈이 마주친 헤르미온느가 생긋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다 끝나자. 덤블도어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학생들에게 일어서라고 말했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가 요술지팡이를 흔들자, 모든 테이블이 일제히 뒤에 있는 벽으로 날아가고 텅 빈 마루만이 남았다. 그러자 덤블도어는 오른쪽 벽을 따라서 무대가 솟아오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드럼과 기타, 루트, 첼로 그리고 백

파이프 몇 대를 무대 위에 설치했다.

고이어 '운명의 세 여신'이 열광적인 환호성 속에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헤쳤으며, 맵시 있게 뜯어지고 찢어진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운명의 세 여신이 각자 악기를 집어들었을 때, 구경에 몰두하고 있던 해리는 다음 순서가 무엇인지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등불이 일제히 꺼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챔피언들과 파트너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자, 해리는 퍼뜩 깨달았다.

"어서!" 패르바티가 해리를 향해 속삭였다. "우리가 춤을 출 차례야!"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옷이 발에 걸려서 잠시 비틀거렸다. 운명의 세 여신은 느리고 애수 어린 곡조를 연주했다. 해리는 어느 누구와도 눈길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환하게 조명이 밝혀진 무대로 나갔다. 시무스와 딘이 해리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킬킬거리고 있었다. 다음 순간, 패르바티가 해리의 손을 확 잡아끌었다. 패르바티는 해리의 한쪽 손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다른 한쪽 손은 꼭 붙잡았다.

해리는 머리 속으로 한 장소를 느리게 빙빙 도는 것도 상상한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물론 춤을 주도하는 것은 패르바티였다. 해리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머리 위로 줄곧 시선을 고정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무대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챔피언들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자 못했다. 네빌과 지니는 바로 해리의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종종 네빌이 발을 밟을 때마다 지니가 얼굴을 징그리는 모습이 보였다.

덤블도어는 맥심 부인과 왈츠를 추고 있었다. 맥심 부인과 나란히 서 있으니까 덤블도어는 거의 난쟁이처럼 보였다. 덤블도어의 뾰족한 모자 꼭대기가 겨우 맥심 부인의 턱에 달을락말락했다. 하지만 그렇게 덩치 큰 여자치고는 아주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매드아이 무디는 시니스트라 교수와 함께 볼풀없이 절뚝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시니스트라 교수는 무디의 나무 다리를 피하느라

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멋진 양말이구나, 포터."

해리가 옆을 지나가자, 무디가 걸걸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디의 마법의 눈은 해리의 옷 속을 환하게 깨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 이거요. 꼬마 집요정인 도비가 저를 위해 떠 준 거예요."

해리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저 사람은 너무 소름끼쳐. 저런 눈은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무디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사라지자, 패르바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백파이프가 떨리는 소리로 마지막 곡조를 연주했다. 운명의 세 여신이 연주를 마치자, 연회장은 다시 한 번 학생들이 지르는 환호성 소리로 가득 찼다. 해리는 즉시 패르바티의 손을 놓았다.

"우리 그만 자리에 앉자."

"오, 하지만…… 이번 음악은 정말 좋은데!"

운명의 세 여신이 이번에는 좀더 빠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패르바티가 아쉬운 듯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니야. 난 싫어."

해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패르바티를 데리고 프레드와 안젤리나의 옆을 지나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프레드와 안젤리나가 어찌나 열광적으로 춤을 추전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칠가 봐 뒤로 물러나야 했다. 해리는 론과 파드마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뭘 하고 있는 거야?"

해리는 자리에 앉아 땅콩 버터 맥주 병을 따면서 론에게 물었다. 하지만 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론의 눈길은 줄곧 근처에서 춤을 추고 있는 헤르미온느와 크롬을 향하고 있었다. 파드마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한쪽 다리는 운명의 세 여신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서 계속 흔들거렸다.

가끔씩 파드마는 아주 못마땅한 눈길로 론을 바라보았지만, 론은 완전히 그녀를 무시했다. 패르바티도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 해리의 옆자리에 앉아 T자로 앉았지만, 몇 분이 채 되지 않아서 보바통의 남학생 한 명이 패르바티에게 춤을 신청했다.

"해리, 그래도 괜찮겠니?"

패르바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말이야?"

초 쟁과 케드릭이 춤을 추는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던 해리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오, 아무것도 아니야."

패르바티는 쌀쌀맞게 쏘이불이더니 보바통의 남학생과 무대로 가버렸다. 그리고 음악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헤르미온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빈 자리에 앉았다. 그곳은 조금 전까지 패르바티가 앉아 있던 자리였다. 춤을 추고 난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약간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안녕."

해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헤르미온느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좀 덥지 않니? 빅터는 마실 것을 가지려 갔어."

헤르미온느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말했다.

"빅터라구? 왜 아직 그녀석을 빅키라고 부르지는 않니?"

론은 당장이라도 덤빌 듯이 헤르미온느를 노려보았다.

"너 왜 그러니?"

헤르미온느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어안이벙벙한 얼굴로 론을 바라보았다.

"네가 그 유를 모르겠다면, 나도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론이 차갑게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한참 동안 론은 바라보다가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해리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론, 도대체……."

"그 자식은 던스트랭 출신이란 말이야!" 론이 거칠게 내뱉었다. "해리와 경쟁하고 있는 상대라구! 호그와트의 적수란 말이야! 너…… 너는……." 론은 헤르미

온느의 엄청난 범죄 행위를 묘사할 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적과 내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지금 네가 하는 짓 이라구!"

헤르미온느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바보같이 굴지 마!" 잠시 후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적이라니! 솔직히 말해

서 크롬이 여기 온 것을 보고 제일 흥분한 사람이 누구였지? 그의 사인을 받고 싶어했던 사람이 누구였어? 기숙사에 크롬의 인형을 세워 놓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해 봐!"

하지만 론은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너희 둘이 도서관에 있을 때, 그 자식이 너한테 파트너가 돼 달라고 신청한 모양이지?"

"그래. 그랬어, 그게 뭐 어때서?"

헤르미온느의 붉은 두 뺨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다.

"크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거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만약 네가 정말로 알고 싶다면…… 크롬은, 크롬은 나에

게 말을 걸려고 날마다 도서관에 찾아왔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했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 낸 헤르미온느는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라서 패르 바티가 입고 있는 옷 색깔과 거의 비슷할 정도였다.

"아하, 그렇군. 그게 그 자식의 숨겨진 꿈이었지."

론이 빙정거리면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뻔하잖아. 그 녀석은 카르카로프의 학생이야. 그렇잖아? 그 녀석은 네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 녀석은 단지 해리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거야. 해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고 말이야. 아니면 해리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가이 접근해서……."

헤르미온느는 마치 론으로부터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크롬은 해리에 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어. 단 한마디도……."

"그렇다면 크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황금알의 의미를 알아내는 걸 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속셈이었겠지! 너희 두 사람은 그 안락하고 조그마한 도서관 의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었을 거야."

론은 번개처럼 공격의 방향을 바꾸었다.

"나는 절대로 그 황금알의 의미를 알아내는 걸 도와주지 않았어! 절대로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나도 해리가 이 시합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래. 해리도 그걸 알고 있어. 그렇지 않니, 해리?"

헤르미온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렇다면 넌 참 웃기는 방식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구나."

론이 또다시 빙정거렸다.

"이 시합은 다른 나라의 마법사들을 사귀고 서로 다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열리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이야기 위한 거야!"

론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제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론, 나는 헤르미온느가 빅터 크롬과 함께 다닌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

해리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론은 해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어서 가서 빅키나 찾아보지 그러니? 그 자식은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을 거야."

론이 헤르미온느를 흘겨보면서 말했다.

"자꾸만 빅키라고 하지 마!"

헤르미온느는 별떡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폭풍처럼 무대를 가로질러서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론은 분노와 만족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헤르미온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넌 나한테 춤을 추자는 말도 꺼내지 않을 거니?"

파드마가 론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래."

론은 여전히 헤르미온느가 사라진 곳을 노려보면서 대답했다.

"좋아."

파드마는 톡 쏘아붙이면서 일어나더니 패르바티와 보바통의 남학생이 있는 자리로 가 버렸다. 보바통의 남학생은 눈 깜짝 할 사이에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불러들였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재빨랐기 때문에 해리는 틀림없이 그 남학생이 소환 마법을 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헤르미-오운-니니는 어디 있나?"

어떤 사람이 헤르미온느를 찾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빅터 크롬이 땅콩 버터 맥주 두 잔을 손에 든 채, 그들의 테이블로 찾아온 것이다.

"몰라." 론이 크롬을 올려다보면서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걔를
잃어버리기라도
했어? 그래?"

"혹시 그녀를 보거든, 내가 맥주를 가져왔다고 전해 달라."

빅터 크롬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더니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인 채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빅터 크롬과 친구가 되었니, 론?" 퍼시가 두 손을 비비면서 잔뜩 뿐내는 듯한 표정으로 불쑥 나타났다. "아주 훌륭하구나! 바로 그게 이 시합의 진정한 목적 이란다. 국제 마법사들의 협력!"

해리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퍼시가 파드마의 빈리에 앉았다. 상석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는 스프라우트 교수와 춤을 추고 있었다. 루도 베그만은 맥고나걸 교수와 춤을 추고 있었다. 맥심 부인과 해그리드는 무대를 온통 휘젓고 다니면서 학생 틈바구니에서 왈츠를 추고 있었다. 카르카로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두 번째 곡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박수를 쳤다. 해리는 루도 베그만이 맥고나걸 교수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사람들 틈을 해집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프레드와 조지가 루도 베그만을 따라가고 있었다.

"저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마법부의 고위 관리를 귀찮게 하다니?" 퍼시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프레드와 조지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존경 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하지만 루도 베그만은 프레드와 조지를 얼른 떼어버렸다. 그리고 해리를 발견하자, 반가운 듯이 손을 흔들면서 그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베그만 씨, 제 동생들이 귀찮게 굴기라도 한 것 같아요?"

퍼시가 즉시 물었다.

"뭐라구? 오, 아니야, 전혀 아니라네!" 베그만이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자네

동생들은 나한테 자기네가 만든 가짜 요술 지팡이 얘기를 하더군. 그걸 팔려고 하는데, 내 조언을 듣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그들에게 종코의 장난감 가게와 연결을 해준다고 약속했다네."

그러나 퍼시는 그 말을 듣고 전혀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었따. 해리는 퍼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쓴살같이 위즐리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일러바칠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 수도 있었다.

만약 프레드와 조지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물건을 팔고 싶어한다면, 최근 들어서 그들의 계획이 점점 더 원대해지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베그만은 해리에게 마치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퍼시가 앞으로 나서면서 방해했다.

"그런데 베그만 씨, 트리위저드 시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처에서는 꽤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의 잔에 착오가 생긴 건-이 대목에서 퍼시는 해리를 힐끗 쳐다보았다-다소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뒤로는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 다네. 아주 엄청나게 재미있었지, 그런데 늙은 바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바티가 오지 못하다니 유감스럽군."

베그만이 유쾌하게 대답했다.

"아 크라우치 시는 조만간 쾌차하실 겁니다." 퍼시는 잔뜩 으스대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제가 기꺼이 그분의 빈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물론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제 임무의 전부가 아니죠." 퍼시는 허세를 부리면서 웃었다. "오 그렇구말구요. 저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 동안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다 처리해야만 합니다. 혹시 알리 바서가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몰래 밀수입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트란실바니아 당국을 설득해서 결투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서명을 하도록 해야만 했죠. 그리고 도 새해에는 국제 마법 협력부의 의장과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자. 퍼시에게서 도망치자구."

론이 작게 해리에게 속삭였다. 해리와 론은 마실 것을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 가장 자리를 따라서 몰래 현관 복도로 빠져나갔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이 걸어서 현관 계단을 막 내려갔을 때, 장미 정원에서는 팔랑거리는 요정의 불빛이 깜박거리고 있었다.

장미 정원은 온통 아름다운 장미꽃 덤불과 멋지게 장식된 구불구불한 오솔길과 커다란 석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해리는 마치 샘물이 솟아로듯이 풍풍거리 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정교한 조각이 아로새겨진 벤치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해리와 론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서 장미 덤불 사이를 한참 동안 걸어갔다. 하지만 얼마 걷지도 않아서 또다시 불쾌하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째서 이 소동을 피우는지 모르겠군, 이고르."

"세베루스, 너는 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굴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잔뜩 낮춘 카르카로프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달 동안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 나는 아주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나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럼 달아나도록 해." 스네이프가 단호하게 말했다. "달아나……. 내가 그럴듯

한 핑계를 댈 테니까. 하지만 나는 호그와트에 남을 거야."

스네이프와 카르카로프가 모퉁이를 돌아섰다. 갑자기 스네이프가 요술지팡이를 꺼내더니 근처에 있던 장미꽃 덤불을 힘껏 후려쳤다. 스네이프는 잔뜩 심술이 난 표정이었다. 꽃봉오리가 가득한 덤불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그림자들이 빠져나왔다.

"포우셋! 래번클로 10 점 감점이다!" 스네이프가 재빨리 도망치고 있는 여학생

에게 소리쳤다. "스테빈스! 후플푸프도 10 점 감점이다!" 여학생의 뒤를 따라서

한 남학생이 황급히 달아났다.

"너희 둘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길 저쪽에 서 있는 해리와 론을 발견한 스네이프가 물었다. 해리와 론이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보자 카르카로프가 안절부절못하면서 초조하게 손으로 콧수염을 어루만지더니 손가락으로 비비 꼬기 시작했다. 해리는 금방 그 사실을 눈치

쳤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그게 규칙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겠죠?"
론이 스네이프에게 재빨리 대답했다.

"그렇다면 계속 걸어라!"

스네이프가 으르렁거리면서 소리치더니 그들 곁을 스치고 지나갔다. 스네이프의 기다란 검은 망토가 바람에 펼럭였다. 카르카로프는 허둥지둥 스네이프의 뒤를 쫓아갔다.

해리와 론은 천천히 길을 걸어갔다.

"카르카로프가 그토록 걱정하는 일이 뭘까?"
론이 궁금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스네이프와 카르카로프가 저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지?"

해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커다란 순록 석상 앞에 도착했다. 순록 석상 위로 물줄기가 높이 솟아오르는 광경이 보였다. 돌로 만든 벤치 위에는 몸집이 거대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는 수면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해리의 귀에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 보는 순간 나는 곧 알아차렸죠."

해그리드는 이상할 정도로 잔뜩 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해리와 론은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함부로 낑들어서는 안 될 상황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근처 장미 덤불 속에서 반쯤 몸을 숨긴 채 서 있는 플뢰르 데이비스의 모습이 보였다. 해리는 론의 어깨를 탁 치면서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저쪽으로 가면 해그리드의 눈에 띄지 않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신호였다(플뢰르와 데이비스는 자기들 볼일을 보느라고 한눈을 팔 사이가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론은 플뢰르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세차게 머리를 저었다. 그러더니 순록 석상 밑의 어두운 그늘 속으로 해리를 잡아 끌었다.

"그런데 뭘 알아차렸다능 거종, 아그리드?"

맥심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애교를 떨면서 물었다. 해리는 저랜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싶지 않았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되면 해그리드는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그건 분명한 일이었다. 가능하다면 해리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로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다. 그 대신에 해리는 순록 석상 등을 기어가는 딱정벌레에게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딱정벌레는 해그리드의 다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흥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알았어요……. 당신이 나와 같은 사실을……. 당신은 어머니 쪽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쪽인가요?"

"나능……. 나능 무슨 말인정 모르겠군요, 아그리드."

"나는 어머니 쪽이었어요." 해그리드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영국에 남아 있

는 마지막 한 사람이었죠. 물론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곧 떠나셨으니까요. 내가 세 살 때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사실 보통 어머니들 같은 그런 분은 아니셨죠. 글쎄……. 그건 그들의 천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이후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라곤 죽었을 거라는 것뿐……."

맥심 부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딱정벌레에서 눈을 돌린 해리는 순록 석상의 뿔 너머로 고개를 내밀면서 귀를 기울였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떠났을 때, 아버지는 크게 상심하고 말았죠. 우리 아버지는 몸집이 자그마한 노인이셨죠. 여섯 살이 되자, 나는 벌써 아버지가 성가시게 굴 때마다 번쩍 들어서 옷장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깔깔 웃곤 하셨죠……." 해그리드의 목소리가 더욱 깊이 잠겼다. 맥심 부인의 눈은 은

빛으로 반짝이는 분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나를 키웠죠……. 물론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내가 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 이후로 소르타가 나를 키웠어요. 덤불도어는 참으로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었죠. 도움도 많이 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줬어요……."

해그리드는 얼룩진 비단 손수건을 꺼내더니 코를 흥 풀었다.

"어쨌거나…… 내 이야기만 너무 많이 했군요. 당신은 어떤가요? 어느 쪽이 그 혈통이죠?"

갑자기 맥심 부인이 별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좀 춥군용." 날씨가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맥심부인의 목소리만큼이나 냉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능 가 봐야 하겠어용."

"네?" 해그리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가지 말아요! 나는 지금까

지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죵?"

맥심 부인의 목소리에서 찬 바람이 쌩쌩 불었다. 해리는 해그리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서서 이를 악문 채, 부디 대답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다.

"물론 거인 훈혈 말이죠!"

해그리드가 맥심 부인에게 말했다.

"오랗게 감히 그런 말을!" 맥심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맥심 부인의 목소리는 뱃고동처럼 평화로운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해리의 등 뒤에서 풀리르와 로저가 황급히 장미 덤불 밖으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평생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봉 적이 없어용! 거인 훈혈이냐구용? 내가 용? 나는…… 나는 본래 몸집이 큰 거예용!"

맥심 부인은 잔뜩 화가 나 쿵쿵거리면서 사라졌다. 맥심 부인이 장미 덤불을 헤치면서 지나갈 때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요정들이 깜짝 놀라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해그리드는 여전히 벤치 위에 앉아서 맥심 부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나 어두워서 해그리드의 표정은 살펴 볼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해그리드는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이 아니라 자신의 오두막집이 있는 어둠 속을 향하고 있었다.

"이리 와." 해리는 한껏 목소리를 낮추면서 작은 목소리로 론에게 속삭였다.
"그만 가자."

하지만 론은 꼼짜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

해리가 론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론은 천천히 해리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론의 표정은 아주 심각했다.

"너도 알고 있었니? 해그리드가 거인 훈혈이라는거?"

론이 정색을 하면서 물었다.

"아니. 그게 어때서?"

해리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반문했다. 해리는 그 순간 론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보고, 자신이 또다시 마법 세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즐리 가족 틈에서 자라난 해리는 마법사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을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로 받아들이기 일쑤였다. 물론 해가 갈 수록 놀라는 일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거인 어머니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떤 마법사도 "그게 어때서?" 라고 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해리는 알 수 있었다.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풀리르 델라쿠르와 로저 데이비스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좀더 호젓한 숲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해리와 론은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패르바티와 파드마는 보바통의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서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다시 크롬과 춤을 추고 있었다. 해리와 론은 무대에

서 제일 멀리 덜어져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거인인 게 뭐 어때서 그래?"

해리가 론에게 재촉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은……." 론은 적당한 표현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아주 좋지 않아." 론은 모호하게 말을 끝맺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해그리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해리는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도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아, 제기랄! 해그리드가 그 사실을 절대로

비밀로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나는 항상 해그리드가 어렸을 때 아주 지독한 탐식 마법에 걸렸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지. 사실 그런 말은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

론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해그리드의 어머니가 거인이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글쎄……. 해그리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해그리드가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론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해리. 그들은 아주 사악해. 거인들 말이야.

해그리드

가 말한대로 그게 바로 그들의 천성이야. 마치 트롤과 같지……. 거인들은 그냥 죽이는 걸 좋아해.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 이제 영국에는 거인이 단 한명도 남아 있지 않지만 말이야."

"거인은 어떻게 되었지?"

"그냥 모두 멸종해 버렸어. 그리고 많은 거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라고 해……. 대부분 깊은 산 속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거야……."

"맥심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해리는 심판석에 혼자 앉아 있는 맥심 부인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맥심 부인의 얼굴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해그리드가 거인 혼혈이라면 맥심 부인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원래 덩치가 크다니……. 맥심보다 더 덩치가 큰 동물은 아마도 공룡밖에 없을걸."

해리와 론은 무도회 내내 한쪽 구석에 앉아서 거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 모두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해리는 초 챙과 케드릭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거나 한 방 걷어차고 싶은 강한 충동이 솟구쳤기 때문이다.

자정이 되자, 운명의 세 여신은 연주를 마쳤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면서 입구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대부분 무도회가 끝나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만 자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다. 적어도 해리에게는 오늘 저녁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현관 복도로 나온 해리와 론은, 덤스트랭의 배로 돌아가는 빅터 크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헤르미온느를 만났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차갑고 냉랭한 표정으로 론을 한 번 쏘아보더니, 단 한 마디 인사도 없이 대리석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다. 해리와 론은 재빨리 헤르미온느의 뒤를 따라갔다. 계단을 반쯤 올라갔을 때, 누군가가 해리의 이름을 불렀다.

"이봐, 해리!"

해리를 부른 사람은 바로 케드릭 디고리였다. 해리는 저 아래쪽 현관 앞에서 케드릭을 기다리고 있는 초 챙을 볼 수 있었다.

"왜 그래?"

해리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계단을 뛰어서 올라오고 있는 케드릭에게 차갑게 물었다. 하지만 케드릭은 론이 없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론은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더니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내 말을 잘 들어……." 론이 사라지자, 케드릭은 목소리를 낮추면서 속삭였다. "네가 나에게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빚이 있는 셈이야. 그런데 황금알에 대해서는 뭘 좀 알아냈니? 네 황금알도 뚜껑을 열었을 때 비명을 질렀니?"

"그래."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목욕을 해. 알았지?"

"뭐라구?"

"목욕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음…… 그 알도 같이 가져가도록 해. 그러니 까…… 음…… 따뜻한 물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 아마도 생각하는 일에 도움이 될 거야……. 날 믿어."

해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가만히 케드릭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 더 말해 준다면, 반장들의 욕실을 사용하라는 거야." 케드릭이 말을 이어 나갔다. "5 층에 있는 마법사 보리스의 조각상에서 원쪽으로 네 번째 방이

야. 암호는 '어린 소나무'야. 어서 가……. 난 초 챙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해."

케드릭은 해리를 보고 다시 싱긋 웃더니 초 챙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해리는 혼자 그리핀도르 탑으로 걸어간다. 케드릭의 충고는 참으로 이상했다. 왜 목욕을 하면 그 울부짖는 황금알의 의미를 밝혀 내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걸까? 케드릭이 나를 속이고 하는 걸까? 나를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게 해서 초 챙의 환심을 더욱더 사려고 하는 걸까?

뚱뚱한 여인과 그녀의 친구인 바이올렛은 이제 출입구를 막고 있는 초상화 그림 속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해리는 뚱뚱한 여인을 깨우기 위해 "요정의 불빛!"이라고 고함을 질러야만 했다. 그리고 해리가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자, 뚱뚱한 여인은 몹시 짜증을 냈다.

학생 휴게실로 들어간 해리는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3 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로를 향해

악을 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게 그렇게 싫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안 그래?"

헤르미온느가 론은 쏘아보면서 소리쳤다. 우아하게 틀어올렸던 헤르미온느의 머리카락은 이제 길게 풀어헤쳐져 있었으며,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 그래? 그게 뭔데?"

론이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러니까 다음 무도회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신청하도록 해! 나를 마지막 보루처럼 대하지 말란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썩 돌아서서 여학생 기숙사로 향하는 계단을 쿵쾅거리며 요란하게 올라가 버리자, 론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금붕어처럼 소리 없이 입만 씰룩씰룩거렸다.

"그래." 론은 갑자기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냅다 지껄이기 시작했다. "그래, 랬군. 뭔가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해리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론과 다시 말하는 사이가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론보다는 헤르미온느가 훨씬 더 정곡을 찔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24 장 리타 스키터의 특종 기사

크리스마스 다음날은 모두들 늦게 일어났다.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도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다. 학생들이 한가롭게 나누는 대화는 자꾸만 터져 나오는 누군가의 하품으로 중단되곤 했다.

헤르미온느의 머리는 다시 평소처럼 부스스하게 변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에게 크리스마스 무도회를 위해서 손쉽게 윤기 나는 머리 마법약을 상당량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귀찮아."

헤르미온느는 크룩생크의 귀를 부드럽게 긁어 주면서 솔직하게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더 이상 말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예의를 지키기는 했지만, 꽤 다정한 태도로 서로를 대했다.

론과 해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맥심 부인과 해그리드의 대화 중에서 옛들은 내용을 헤르미온느에게 말해 주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가 거인 혼혈이라는 얘기를 론 만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사실 난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 물론 순수 혈통의 거인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진짜 거인은 키가 거의 6 미터가 넘거든. 하지만 솔직히 모두들 거인

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거인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건 아니야……. 그건 마치 늑대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 그냥 고정관념일 뿐이야. 그렇지 않니?"

헤르미온느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론은 무엇인가 신랄한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분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자 않을까 애써 참는 듯한 눈치였다. 헤르미온느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만 할 뿐이었다.

이제는 방학 첫주 동안에 소홀히 했던 숙제를 슬슬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때였다. 모두들 크리스마스가 끝나자, 완전히 맥이 빠진 기분이었다. 오직 해리만

이 예외였다. 해리는 또다시 약간씩 초조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나자, 2월 24일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아직까지도 황금 알 속에 담겨 있는 실마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로 올라갈 때마다 해리는 혹시 이번에는 무슨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트렁크를 열었다. 해리는 트렁크 속에 들어 있는 황금알을 꺼내서 주의 깊게 그 소리를 들어보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서른 명이 연주하는 톱 소리 이외에는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해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해리는 황금알을 닫고 세게 흔든 다음, 다시 뚜껑을 열고 혹시 소리가 달라졌나 들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황금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황금알에 대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울음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방바닥에 황금알을 내던진 적도 있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해리는 케드릭 디고리가 해준 조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케드릭에 대한 기분 나쁜 감정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만약 케드릭이 정말로 해리를 도와주고 싶었다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해리는 케드릭에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케드릭은 고작해야 해리에게 목욕을 하라는 말 한 마디를 하고서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해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도움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았다. 적어도 초 쟁과 함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어 다니는 녀석의 도움은 절대로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개강 첫날, 해리는 평소처럼 책과 양피지와 깃펜을 잔뜩 짊어지고 교실로 향했다. 하지만 황금알에 대한 걱정이; 마치 해리를 항상 따라 다니는 것처럼 그의 뱃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호그와트의 운동장에는 아직까지도 하얀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약초학 수업을 하는 온실 창문에도 얼음이 두껍게 얼어 붙어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이런 날씨에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론은 도망치는 스크루트를 쫓아다니거나 혹은 너무나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서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에 불이 붙거나 어쨌거나 간에, 스크루트가 몸

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는 꽤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짧게 깎고 아래 턱이 두드러지게 툭 튀어나온 백발의 늙은 마녀가 문 앞에 떡 버티고 있었다.

"서둘러라, 5 분 전에 종이 울렸어."

마녀는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면서 힘들게 걸어오는 학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런데 댁은 누구세요? 해그리드는 어디 있죠?"

론이 마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물었다.

"내 이름은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다. 나는 너희들의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진행할 임시 교수란다."

마녀가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그리드는 어디 있죠?"

해리가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몸이 불편하단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나지막하지만 불쾌한 웃음 소리가 해리의 귓가에 들렸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드레이코 말포이와 슬리데린의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고 있었는데 모두들 아주 신이 난 표정이었다. 그들은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이쪽으로 와라."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보바통의 말들이 몸을 떨고 서 있는 방목장을 빙 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헤르미온느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연신 해그리드의 오두막을 돌아다보았다. 창문에는 모두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해그리드가 저 안에 있을까? 혼자서 아픈 몸으로?

"해그리드는 어디가 아픈 거죠?"

해리가 재빨리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의 뒤를 쫓아가면서 물었다.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해리가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통명스럽게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전 알아야만 하겠어요. 해그리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해리가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해리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끌고 거대한 보바통의 말들이 주위를 이기기 위해 용기종기 모여 서 있는 방목장을 지나서,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그 나무에는 덩치가 크고 아름다운 유니콘 한 마리 매여 있었다.

유니콘을 보자, 여학생들은 일제히 "어머나!" 하면서 탄성을 질렀다.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유니콘을 잡았지? 유니콘은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라벤더 브라운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유니콘 때문에 주위에 쌓여 있는 하얀 눈이 회색처럼 보일 정도였다.

유니콘은 불안한 듯이 황금 발굽으로 땅을 탕탕 치면서 뿔이 달린 머리를 자꾸만 뒤로 젖혔다.

"남학생들은 뒤로 물러서!"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팔을 쭉 뻗더니 해리의 가슴을 세게 쳤다.

"유니콘은 여자의 손길을 더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제일 앞에 서도록…….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라. 자, 어서. 살살……."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와 여학생들은 천천히 유니콘을 향해 앞으로 걸어갔다. 남학생들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목장 울타리 옆에 서 있어야만 했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가 멀리 사라지자마자, 해리는 재빨리 론을 향해 돌아섰다.

"도대체 해그리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설마…… 스크루트 대문에……."

"오, 포터! 해그리드는 공격받지 않았어. 그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말이

야. 해그리드는 너무나 창피해서 그 커다랗고 추악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것뿐이야."

말포이가 해리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지?"

해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말포이는 호주머니 안에 손을 넣더니 반으로 접은 신문을 꺼냈다.

"이걸 보렴."

말포이는 마치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포터,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는 정말 싫지만……."

신문을 낚아챈 해리가 기사를 펼쳐서 읽는 동안, 말포이는 능글맞게 웃고 있었다. 론과 시무스와 딘과 네빌은 모두 해리의 어깨너머로 그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신문에는 유독 험상궂게 나온 해그리드의 사진이 커다랗게 박힌 기사가 실려 있었다.

덤블도어의 암청난 실수

호그와트 마술 마법 학교의 교장 알버스 덤블도어는 교직원 임명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

-리타 스키터 특파원의 특별 기고

올해 9월에 알버스 덤블도어는 전직 오러이자 불길한 사건을 즐기기로 악명이 높은 앨러스터 '매드아이' 무디를 어둠의 방어술 교사로 채용했다.

알버스 덤블도어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마법부의 많은 사람들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지가 앞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공격하는 무디의 습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매드아이 무디의 경우에는 덤블도어가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의 교사로 채용한 반인과 비교하면 오히려 다행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3학년 때 호그와트에서 퇴학을 당한 루베우스 해그리드는 그 이후부터 덤블도어가 특별히 마련해 준 학교 사냥터지기라는 직위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에 해그리드는 호그와트 학교 교장에게 알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출렁한 자질을 갖춘 수많은 후보자들을 누르고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의 교사라는 또 다른 직위까지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몸집이 크고 사나운 외모를 지니고 있는 해그리드는 새로 얻은 권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강제로 계속해서 꿈쩍한 동물들을 돌보도록 위협했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아주 무서웠다"고 인정하는 그의 수업시간에는 학생 몇몇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저는 히포그리프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내 친구 빈센트 크레이브는 플로버 윈에게 심하게 물리기도 했어요." 호그와트의 4학년생인 드레이코 말포이는 이

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해그리드를 증오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위협적인 행동을 그만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지난 달에 《예언자 일보》의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해그리드는 스스로 '폭탄 고리 스크루트'라고 명명한, 맨티코어와 불개의 대단히 위험한 교배종인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물론 신비한 동물의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로부터 엄격한 조사를 받는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자신이 그런 사소한 규제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재미삼아 해봤던 거예요." 해그리드는 서둘러 화제를 바꾸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단 이것만 아니다. 《예언자 일보》는 이제 해그리드가 (항상 그런 척해 왔던 것처럼) 순수혈통의 마법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사실 해그리드는 순수한 인간도 아니다. 우리 신문만이 독점적으로 알아낸 바에 따르면, 해그리드의 어머니는 다른아닌 거인 프리드울파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프리드울파의 근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에 짖주리고 있던 잔인한 거인들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그들간의 싸움으로 인해 스스로 멸종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얼마 남지 않은 거인들은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의 부하로 합세했으며, 공포스러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끔찍한 머글 대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를 섬겼던 수많은 거인들은 어둠의 마법과 맞서 싸우는 오러에게 살해당했다. 하지만 프리드울파는 그들 중에 없었다. 어쩌면 외국의 산악 지대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인들 사회로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다.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 시간에 해그리드가 보여주었던 괴상한 행동으로 미루어 생각하건대, 프리드울파의 아들은 다른아닌 어머니의 잔인한 성품을 물려 받은 것 같다.

참으로 이상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해그리드는 그 사람을 권좌에서 몰락시킨 바로 그 소년과 아주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바로 그 소년 때문에 해그리드의 어머니는 그 사람의 다른 추종자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숨겨야만 했던 것이다. 아마도 해리 포터는 이 덩치 큰 친구의 불쾌한 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버스 덤블도어는 해리 포터와 그의 동료 학생들에게 거인 혼혈과 가까이 지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확실히 경고할 의무가 있다.

《예언자 일보》의 기사를 다 읽고 난 후에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론을 바라보았다. 론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지?"

론이 한숨을 내쉬면서 속삭였다. 하지만 해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우리 모두 해그리드를 증오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해리는 날카로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포이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이 헛소리들은 다 뭐지?" 해리는 손가락으로 크레이브를 가리켰다.

"플로버웜에게 심하게 물렸다구? 그 벌레는 이빨조차 없어!"

크레이브는 좋아서 죽겠다는 듯이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저 저능아의 교사 경력을 끝장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말포이가 눈을 번뜩이면서 대답했다.

"거인 혼혈이라니……. 그런데 난 그가 어렸을 때 스켈레그로를 한 명 다 삼켜버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 뭐야. 어떤 부모도 이 사실을 알면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부모들은 그 사람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지나 않을까 걱정하겠지. 하, 하, 하!"

"이 자식이!"

"거기 너희들 뭘 하고 있는거지?"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의 목소리가 남학생들을 향해서 날아왔다.

이제 여학생들은 유니콘을 빙 둘러싼 채, 부드러운 손길로 쓰다듬고 있었다. 마지못해 유니콘을 향해 돌아선 해리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서, 《예언자 일보》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이제 남학생들도 들을 수 있도록 커다란 목소리로, 유니콘이 갖고 있는 많은 마법적인 특성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여선생님이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던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이야……. 괴물이 아니라 유니콘 같은 멋진 동물을 돌보는 거……."

수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패르바티 패틸이 말했다.

"해그리드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계단을 올라가던 해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해그리드는 어떻게 하느냐구? 그냥 사냥터지기를 하면 되잖아! 안 그래?"

패르바티가 날카롭게 맞섰다.

크리스마스 무도회 이후로 패르바티는 해리에게 굉장히 차갑게 굴었다. 해리도 그 당시에 패르바티에게 좀더 신경을 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패르바티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다음 주말 여행 때 호그스미드에서 보바통 남학생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던 것이다.

"정말로 유익한 수업이었어. 사실 나는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님이 유니콘에 대해서 알려 준 사실 중에 절반도 채 모르고……."

헤르미온느가 연회장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이걸 좀 봐!"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코앞에 《예언자 일보》의 기사를 들이 밀면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신문 기사를 읽고 난 헤르미온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렸다. 그리고 론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스키터, 그 꼼찍한 여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냈지? 해그리드가 그 여자에게 고백했을까?"

"아니야. 해그리드는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안 그래? 내 생각에, 해그리드

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완전히 돌아 버린 것 같아. 그래서 해그리드의 뒤를 캐고 다녔을 거야."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다가간 해리는 짜증스럽게 의자에 텔썩 주저 앉았다.

"어쩌면 크리스마스 무도회에서 해그리드가 맥심 부인에게 말하는 걸 몰래 엿들었을지도 몰라."

헤르미온느는 침착하게 말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정원에서 그 여자를 봤을 거야! 어쨌거나 그 여자는 더 이상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 해그리드 말에 따르면, 분명히 덤불도어가 그녀에게 출입금지 명령을……."

론이 말했다.

"어쩌면 투명 망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지, 덤불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엿듣는 건 그 여자에게 딱 어울리는 짓이잖아."

잔뜩 화가 난 해리가 닦고기 볶음밥을 자기 전시에 탁 덜어 졸으면서 말했다. 그 바람에 볶음밥이 사방으로 튀었다.

"네 말은, 너와 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헤르미온느가 비고듯이 말했다.

"우리는 일부러 엿들으려고 했던게 아니었어!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구! 명청하게도 누구나 엿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자기 엄마가 거인이라고 떠들었단 말이야!"

론이 몹시 분개하면서 소리쳤다.

"우리가 해그리드를 찾아가서 만나자."

해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점술 수업이 끝나고 오늘 저녁에 말이야. 해그리드가 곡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해그리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훑 돌아보았다.

"나느…… 그래. 솔직히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해그리드가 돌아오기를 원해. 물론 원하구 말구!"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사나운 눈초리를 보자, 찔끔하면서 황급히 말을 덧붙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세 사람은 또다시 성을 빠져나가서 해그리드의 오두막을 향해 꽁꽁 얼어붙은 운동장을 걸어갔다.

"해그리드, 우리가 왔어요!" 해리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문을 열어요!"

하지만 해그리드는 아무런 답도 없었다. 팽이 킹킹거리면서 문을 굳어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끝내 오두막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10분이 넘도록 문

을 두드렸다. 론은 심지어 옆으로 창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왜 우리를 피하는 거지? 설마 우리가 거인 혼혈이라고 해서 자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마침내 포기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헤르미온느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 내내 해그리드는 혼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 교직원 테이블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운동장에서 사냥터지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보습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루블리 프랭크 교수는 계속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진행했다. 말포이는 기회가 생길때마다 히죽히죽 웃으면서 해리를 놀렸다.

"잡종 친구가 보고 싶니?"

말포이는 교수님이 가까이 있어서 해리의 양갈음을 당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추근거렸다.

"코끼리 인간이 보고 싶나 보지?"

1월 중순경에는 호그스미드 방문이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해리가 자기도 호그

스미드로 가겠다고 말하자, 깜짝 놀랐다.

"나는 네가 그리핀도르 휴게실에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 황금알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잖아."

헤르미온느가 해리에게 말했다.

"나…… 나는 이제 그황금알에 대해 꽤 그럴 듯한 생각이 떠올랐어."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정말이니? 참 훌륭하다!"

헤르미온느가 몹시 감탄스러워하며 말했다. 해리는 죄책감으로 뱃속이 느글거렸다. 하지만 잠시 동안 그건 무시하기로 했다. 황금알의 비밀을 알아내기까지는 아직도 다섯 주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아주 긴 시간이었다……. 호그스미드에 가면 어쩌면 해그리드를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해그리드를 만난다면 그를 설득해서 다시 호그와트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다.

토요일이 되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함께 성을 떠나서 차갑고 축축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성문으로 향했다. 그들이 호수 위에 더 있는 덤스트랭의 배를 지나갈 때, 빅터 크룸이 수영 팬티 이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갑판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빅터 크룸은 비쩍 말라서 뼈가 드러날 정도였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더 씩씩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뱃전에 올라서서 두 팔을 쭉 뻗고 호수 속으로 곧장ダイ빙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크룸은 얼어죽을 거야! 지금은 1월이잖아!"

빅터 크룸의 검은 머리가 호수 한가운데에서 솟았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해리가 중얼거렸다.

"크룸이 있던 곳에 비하면 이곳은 훨씬 덜 춥다는 거야. 아마도 크룸에게는 이 날씨가 꽤 따뜻하게 느껴질 거야."

헤르미온느가 아는 척을 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래도 대왕 오징어가 있잖아."

론의 목소리는 전혀 걱정스러워 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심 기대라고 있는 것 같았다. 론의 속셈을 아라차림 헤르미온느가 얼굴로 찌푸렸다.

"크룸은 아주 착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단 말이야. 크룸은 비록 덤스트랭 출신이지만, 이곳이 훨씬 더 좋다고 내게 말했어."

헤르미온느가 빅터 크룸을 두둔하면서 말했다. 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무도회 이후로 론은 지금까지 빅터 크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다음날 해리는 론의 침대 밑에서 인형의 팔한짝을 발견했었다. 그것은 분명히 불가리아 퀴디치 팀의 선수복을 입고 있던 그 작은 인형에게서 떼어 낸 것 같았다.

해리는 혹시 해그리드의 그림자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질척한 하이 거리를 열심히 두리번 거렸다. 그리고 해그리드가 어떤 가게 안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스리 브룸스틱스로 가자고

제안했다.

스리 브롬스틱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 거렸다. 해리는 재빨리 테이블을 전부 다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도 해그리드는 없었다. 가슴이 철령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면서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바로 가서 로즈메르타 부인에게 버터 맥주 세 잔을 주문했다.

해리는 문득 차라리 기숙사에 남아서 황금알이 울부짖는 소리나 들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사무실에 기자 않았나봐?"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작게 속삭였다. "저길 봐!"

헤르미온느가 손을 들더니 바 뒤에 걸려 있는 거울을 가리켰다. 그 거울 속에는 루도 베그만의 모습이 미치고 있었다. 루도 베그만은 한 무리의 도깨비들과 함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도깨비들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엇인가 빠르게 지껄이고 있었는데, 도깨비들은 모두 팔짱을 낀 채, 육박지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런 주말에 루도 베그만이 스리 브롬스틱스에 오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해리는 생각했다. 지금은 트리위저드 시합이 열리는 기간도 아니었고 따라서 심판을 볼 일도 없었다.

해리는 유심히 거울을 통해 루도 베그만의 행동을 살펴보았따. 루도 베그만은 다시 무척이나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표정은 어둠의 표식이 나타나기 전날에 숲 속에서 보았을 때 만큼이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바를 훨씬 돌아보다가 해리의 모습을 발견하자, 당장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 잠깐만!"

해리는 루도 베그만이 도깨비들에게 황급히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에 루도 베그만은 술집을 가로질러서 해리를 향해 부산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소년과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해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혹시 너를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지! 별일 없니?"

루도 베그만이 인사를 했다.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해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해리, 잠깐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너희 두 사람은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내 주겠니?"

루도 베그만이 진지하게 물었다.

"음…… 좋아요."

론과 헤르미온느는 비어 있는 테이블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루도 베그만은 해리를 데리고 로즈메르타 부인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진 바의 끝으로 걸어갔다.

"그저 너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해주고 싶구나. 혼테일과 맞서면서 아주 멋진 시합을 보여주었어. 해리, 참으로 뛰어난 솜씨였다."

"고맙습니다."

해리는 인사를 하면서도 루도 베그만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이게 다가 아닐거라고 짐작했다. 그저 축하 인사를 하는 거라면 론과 헤르미온느가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도 베그만은 성급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해리는 루도 베그만이 다시 바에 걸린 거울을 통해 도깨비를 훤히 쳐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깨비들은 까맣고 쪽 쫓어진 눈으로 베그만과 해리를 물끄러미 주시하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악몽이야." 해리가 도깨비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루도 베그만은 목소리를 잔뜩 낮추면서 속삭였다. "도깨비의 영어는 너무 형편 없어……. 마치 퀴디치 월드컵에 참가했던 불가리아인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도깨비말은 단 하나밖에 없잖니. 그건

'블라드바'

트' 라는 말인데 '도끼를 집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도깨비

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말은 쓰고 싶지 않아."

루도 베그만은 짤막하게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그런데 도깨비들이 왜 여기 온 거죠?"

해리는 도깨비들이 아직까지도 루도 베그만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음…… 그러니까……." 루도 베그만이 갑자기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도깨비

들은……. 음, 바티 크라우치 씨를 찾고 있어."

"왜 여기에서 크라우치 씨를 찾는 거죠? 그분은 런던의 마법부에 계시지 않나요?"

"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크라우치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크라우치 씨는 요즘 직장에 나오지 않아. 지금까지 벌써 두 주일이나 결근을 했단다. 크라우치 씨의 보좌관인 퍼시는 그가 많이 아프대. 어쨌거나 크라우치 씨가 부엉이를 통해서 퍼시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확실한 모양이야. 하지만 설마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는 않겠지, 해리? 리타스키터가 계속 여기저기 들쑤시고 돌아다녀서 말야. 만약 바티가 병이 났다는 걸 아면 그 여자는 불길한 기사를 써댈 게 분명해. 아마도 버사 조킨스처럼 바티도 사라져 버렸다고 떠들겠지."

루도 베그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버사 조킨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나요?"

해리가 물었다.

"아니." 루도 베그만의 표정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졌다. "물론 나는 사람들을

시켜서 찾아보고 있어…….(아직도 그 타령이군. 해리는 베그만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버사 조킨스는 알바니아에 도착한 게 분명 해.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촌을 만났거든. 사촌 집에서 나온 버사 조킨스는 친척 아주머니를 만나겠다고 남쪽으로 내려갔지……. 그러다가 도중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 이것 참,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고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달아날 만한 그런 여자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우리가 왜 도깨비와 버사 조킨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실 나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루도 베그만은 목소리를 더욱더 낮추었다. "너의 황금알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루도 베그만은 해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내 말을 좀 들어 봐라, 해리." 루도 베그만은 여전히 아주 작게 소곤거렸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단다……. 저는 이 시합에 강제로 던져진 거야. 너는 스스로 지원한 것도 아니었잖니? 그러니까 만약……(이제 루도 베그만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져서 해리는 귀를 더욱 바싹 갖다 대야만 했다.) 만약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약간만……. 사실 나는 네가 좋단다……. 네가 용을 통과한 방법은 정말 끝내줬어!……. 그러니 언제든 말만 해라."

해리는 루도 베그만의 통통하고 불그레한 얼굴과 어린아이처럼 동그랗고 푸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문제의 실마리는 챔피언이 혼자서 풀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해리는 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의 책임자가 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

"글세……. 그건 그렇지." 루도 베그만은 성급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

만……. 이봐, 해리. 우리 모두 호그와트가 승리 하기를 원하지 않니? 그렇지?"

"캐드릭에게도 도와주겠다고 하셨나요?"

해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다. 그러진 않았어. 나는…… 뭐라고 말할까, 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너에게 도움을……."

루도 베그만의 빤질빤질한 얼굴이 약간 찡그려졌다.

"고맙습니다." 해리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저는 거의 황금알의 비밀을 풀었다

고 생각해요. 물론 완전히 풀려면 앞으로 며칠이 더 필요하겠지만 말이요."

해리는 왜 자신이 루도 베그만의 도움을 완강하게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루도 베그만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뿐이었다. 어쩐지 론이나 헤르미온느 혹은 시리우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루도 베그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속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루도 베그만은 몹시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프레드와 조지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베그만 씨. 한잔 사 드려도 될까요?"

프레드가 유쾌하게 인사했다.

"음……. 괜찮다." 루도 베그만은 해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아주 실망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아니다. 고맙구나, 얘들아……."

프레드와 조지는 루도 베그만만큼이나 무척 실망한 기색이었다. 이제 루도 베그만은 심하게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은 눈빛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자, 나는 서둘러 가 봐야겠다. 너희들을 만나서 반갑구나. 행운을 빈다, 해리."

루도 베그만은 종종걸음으로 술집에서 나갔다. 도깨비들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그 뒤를 따라갔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베그만이 무슨 소리를 했지?"

해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론이 다급하게 물었다.

"황금알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

해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더구나 트리위저드 시합의 심판이면서! 게다가 너는 이미 그 실마리를 풀었잖아, 그렇지?"

헤르미온느는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음……. 거의"

해리가 우물쭈물하면서 간신히 대답했다.

"만약 베그만이 그런 부정한 짓을 하자고 널 꼬셨다는 사실을 덤블도어가 알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케드릭도 똑같이 도와주려고 했을 거야!"

헤르미온느는 아직도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물어봤어."

해리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었다.

"케드릭이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야?"

론이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해리도 내심 그 말에 동의했다.

"저 도깨비들은 별로 친절해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에서 월하고 있었던 거지?"

헤르미온느가 버터 맥주를 훌쩍거리면서 물었다.

"베그만의 말에 따르면, 도깨비들이 크라우치를 찾고 있다는 거야. 크라우치는 아직까지도 몸이 안 좋아서 직장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

해리가 설명했다.

"어쩌면 퍼시가 크라우치에게 몰래 독약을 먹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크라우치가 죽게 되면 자신이 국제 마법 협력부 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

론이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정말 웃기는 일이구나. 도깨비들이 크라우치를 찾고 있다니……. 도깨비들은 대개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 일을 담당하는데 말이야."

헤르미온느는 론에게 제발 그런 식의 농담 좀 하지 말라는 눈길을 던졌다.

"크라우치는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잖아. 어쩌면 통역이 필요한지도 몰라."

해리가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는 저 가엾은 도깨비들을 걱정해 주고 있는 거니? 설마 이번에는 추악한 도깨비 보호를 위한 모임 따위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하하하……" 헤르미온느가 한심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도깨비는 전혀 보호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빈스 교수님이 도깨비 반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아무것도 들지 못했니?"

"아니, 못 들었는데……."

론과 해리가 동시에 대답했다.

"도깨비는 마법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도깨비는 아주 똑똑하다구. 자신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는 꼬마 집요정들과는 달라."

헤르미온느는 버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앗, 이런!"

론이 문 쪽을 쳐다보더니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냈다. 리타 스키터가 막 술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오늘은 바나나 빛깔의 샷노란 옷을 입고 있었고 기다란 소톱에는 자극적인 분홍색을 칠했다. 배불뚝이 사진 기사가 리타 스키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다. 마실 것은 산 리타 스키터는 사진 기사와 함께 사람들 틈을 헤치고 테이블 사이를 걸어갔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가까이 다가오는 리타 스키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지껄이고 있는 리타 스키터는 무슨 일인지 무척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우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무척 꺠리는 표정이었지? 안 그래, 보조? 왜 그런다고 생각해? 어쨌거나 루도 베그만은 한 무리의 도깨비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도깨비들을 구경시키고 있다구?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루도 베그만은 항상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니까. 무언가 짐작 가는 게 없어? 아무래도 좀 뒤를 캐 보는게 좋을 것 같지 않아? '불명예스러운 전직 마법 게임과 운동부 부장' 루도 베그만……. 보조, 시작이 아주 멋지잖아?

이제

이 제목에 걸맞는 기사 거리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또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해리가 리타 스키터를 향해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스리브룸스틱스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해리의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보석이 박힌 안경을 쓰고 있던 리타 스키터의 눈이 휙등그레졌다.

"해리! 이렇게 좋을 수가!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리타 스키터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3 미터나 되는 빗자루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군요.

그

런데 해그리드에게 왜 그런 짓을 했죠?"

해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우리의 독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해리, 나는 다만 내 의무를 다한 거라구……."

리타 스키터가 아이 펜슬로 진하게 그린 눈썹을 치켜뜨면서 대답했다.

"해그리드가 거인 혼혈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해그리드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 순간 스리 브룸스틱스 전체가 일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로즈메르타 부인은 꿀술을 채우고 있던 잔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바 뒤에서 정신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다.

리타 스키터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거의 사라질 듯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순식간에 리타 스키터의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떠 올랐다.

"해리, 네가 해그리드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나와 잠깐 이터뷰를 하

지 않겠니? 그 근육 덩어리의 남자에 대해서? 두 사람의 어울리지 않는 우정과 그 숨은 이유에 대해서 말이야? 그 남자를 네 양부라고 불렀었니?"

리타 스키터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턱 열더니 그 속에서 속기 깃펜을 꺼내 들었다.

"이 끔찍한 여자야, 당신은 신문 기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하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심지어 루도 베그만까지……."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자리에서 벌떡 이어나더니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헤르미온느는 마치 수류탄이라도 되는 듯이 버터 맥주 잔을 손에 꼭 들고 있었다.

"앉아라, 이 조그맣고 멍청한 계집애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 리타 스키터는 무서운 눈빛으로 헤르미온느를 노려보면서 차갑게 말했다. "나는 루도 베그만에 대해서 네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어……. 네 머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면."

리타 스키터는 헤르미온느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힐끗 쳐다보면서 한 마디 덧붙였다.

"가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자, 해리, 론……."

그들은 서둘러 걸어 나갔다. 스리 브룸스틱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문가지 걸어간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리타 스키터의 속기 깃펜이 밖에 나와 있었다. 속기 깃펜은 테이블 위에 놓인 양피지 위에서 바쁘게 앞뒤로 움직였다 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네 뒤를 캘 거야, 헤르미온느."

부지런히 거리를 걸어가면서 론이 걱정스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얼마든지 말이야! 그 여자에게 본 땐을 보여줄 거야! 조그맣고 멍청한 계집애라구? 내가? 흥, 반드시 이 빛을 갚아주겠어. 처음에는 할.., 그 다음에는 해그리드……."

헤르미온느가 용감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아직까지도 분노로 인해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설마 정말로 리타 스키터의 성질을 건드리려는 건 아니겠지? 헤르미온느, 그 여자는 틀림없이 네 뒤를 캐고 다닐 거야."

론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예언자 일보》 따위는 읽지도 않아. 나를 궁지에 몰아넣겠다고 협박할 수 없을걸!"

헤르미온느가 어찌나 성큼성큼 걸어가는지, 해리와 론은 허겁지겁 따라가기도 바쁠 지경이었다. 최근에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해리가 본 것은 드레이코 말포이의 얼굴을 때렸을 때뿐이었다.

"해그리드는 더 이상 숨어 있어서는 안 돼! 자신을 망쳐 놓은 저 따위 인간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

느닷없이 헤르미온느는 마구 달리기 시작하더니, 앞정서서 거리를 지나 날개 달린 멧돼지가 양쪽에 세워져 있는 학교 정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장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오두막집의 커튼은 여전히 굳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팽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해그리드!"

헤르미온느가 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고함을 질렀다.

"이제 그만 해요. 해그리드! 안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비록 당신 엄마가 거인

이라 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해그리드! 그 더러운 스키터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해그리드, 당장 나와요! 당신은 단지 이렇게……."

오두막집의 문이 활짝 열렸다. 마구 소리를 지르던 헤르미온느는 갑자기 입을 딱 다물었다. 헤르미온느의 코앞에 나타난 사람이 해그리드가 아니라, 알버스 덤블도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잘 있었니?"

덤블도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저 해그리드를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헤르미온느가 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니?"

덤블도어는 눈을 찡끗했다.

"아..... 네..... 그러죠."

헤르미온느가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했다. 헤르미온느와 론, 해리는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해리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팽이 해리에게 펄쩍 뛰어오르더니 미친 듯이 짖어대면서 귀를 훑으려고 난리였다. 해리는 팽을 피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그리드는 커다란 머그잔 두 개가 놓여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해그리드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통통 부어 있었다. 이제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단정하게 빗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해그리드의 머리카락은 마치 친친 뒤엉킨 철사로 만든 가발처럼 보였다.

"안녕, 해그리드"

해리가 먼저 인사를 했다.

"음."

해그리드가 약간 고개를 들더니 잔뜩 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래도 차가 더 있어야 하겠군."

오두막집의 문을 닫으면서 덤틀도어가 말했다. 그리고 지팡이를 꺼내어 한두 번 휘둘렀더니, 맛있는 케이크가 담긴 접시와 함께 빙빙도는 차 쟁반이 허공에 나타났다. 덤틀도어는 마법을 써서 쟁반을 테이블 위로 조용히 내려놓았다. 모두들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흘렀다.

"해그리드, 혹시 그레인저 양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나?" 마침내 덤틀도어가 입을 열었다.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덤틀도어는 헤르미온느에게 미소를 던지고 말을 계속이어 나갔다. "문을 거의 부서 버리려고 했던 걸로 보아서 헤르미온느와 해리, 론은 아직도 자네와 알고 지내고 싶어하는 것 같군."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아저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해리가 해그리드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했다. "다 잊어버려요. 스키타 그 여자가 함부로 지껄인..... 죄송합니다, 교수님."

해리는 덤틀도어에게 재빨리 덧붙였다.

"해리, 나는 잠시 귀가 멀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구나."

알스 덤틀도어가 엄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두막집의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 예." 해리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저..... 해그리드, 도대

체 어떻게 그런 여자가 쓴 신문 기사 따위에 우리가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검은 딱정벌레 같은 해그리드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흘러내리더니 마구 뒤엉킨 그의 수염 속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해그리드, 내가 지금까지 자네에게 했던 말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군, 학생 시절부터 자네를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내 앞으로 보내온 편지를 이미 보여주지 않았나? 그들은 단호하게 만약 내가 자네를 해고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알려 왔다네."

덤블도어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말했다.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제가 학교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그리드가 순 목소리로 깍깍거렸다.

"해그리드, 만약 자네가 세상 사람들 모두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 물는 거라면, 물론 그건 아닐세. 그걸 원한다면 안된 일이지만 자네는 평생토록 이 오두막집

에 갇혀 지내야만 할 거야. 내가 처음 이 학교의 교장이 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나는 거의 날마다 내 운영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불평을 늘어놓는 부엉이를 받았다네. 그때 내가 어떻게 했겠는가? 서재에 틀어박혀서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가?"

알버스 덤블도어는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해그리드를 엄격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은 거인 혼혈이 아니잖아요!"

해그리드가 다시 깍깍거리면서 말했다.

"내 친척들은 어떤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해그리드! 더줄리 가족을 좀 보라구요!"

해리가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아주 좋은 지적이야. 내 동생 애버포스는 엉소에게 부적절한 마법을 걸었다는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었다네. 온통 신문에 나고 난리였지. 하지만 애버포스가 멀리 도망쳤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어! 애버포스는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평상시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계속 진행했다네! 물론 애버포스가 글씨를 읽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만약 그랬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굴지는 못했을지도 모르지....."

알버스 덤블도어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해그리드. 제발 돌아와요. 우리는 정말

로 해그리드가 보고 싶어요."

헤르미온느가 조용히 말했다. 해그리드는 터지려고 하는 울음을 억지로 꿀꺽 삼켰다. 더욱 많은 눈물들이 해그리드의 뺨을 타고 흐르면서 마구 뒤엉킨 수염 속으로 줄줄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알버스 덤블도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자네의 사임을 거절하겠네, 해그리드. 월요일에는 다시 학교에 나오기를 기대하겠어." 덤블도어가 해그리드를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아침 8시

30분에 연회장에서 만나도록 하세. 나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하지. 다른
변명은

하지 말게.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덤블도어는 잠시 동안 멍추어 서서 팽의 귀를 긁어 주고는 곧 오두막집을 더 났다. 오두막집의 문이 닫히자, 해그리드는 쓰레기통 뚜껑만한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헤르미온느는 부드럽게 해그리드의 팔을 두드려 주었다.

"훌륭한 사람이야, 덤블도어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마침내 해그리드가 고개를 들었다. 해그리드의 눈은 온통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케이크 한 조각만 먹어도 될까요,
해그리
드?"

론이 해그리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물었다.

"물론이지, 마음껏 먹어." 해그리드는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았다. "그래,
덤블

도어의 말이..... 옳았어. 그래, 전부 다 맞아..... 나는 정말 멍청이야.....
내

가 이렇게 행동한 걸 알면 우리 늙은 아버지도 부끄러워할 거야....."

또다시 드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자, 해그리드는 더욱 세차게 눈물을 닦아 버렸다.

"너희들에게 우리 늙은 아버지의 사진을 지금까지 한바도 보여주지 않았지?
나, 여기....."

해그리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장으로 걸어가더니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해그리드의 납작한 검은 눈을 꼭 닮은 조그마한 몸집의 마법사 사진을 한 장 꺼

내들었다. 그 마법사는 해그리드의 어깨 위에 안장서 활짝 웃고 있었다. 근처에서 있는 사과나무로 미루어 보건대, 해그리드의 키는 거의 2~2.5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해그리드의 얼굴은 보송보송하고 포동포동하고 앗되기만 했다. 열한살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내가 호그와트에 막 들어갔을 때 찍은 거야."

해그리드가 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좋아했었지……. 내가 마법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 어머니 때문에 말이야……. 물론 나는 절대로 마법을 잘 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보지 못하셨어. 내가 2학년 때 아버지는 그만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

신 뒤로 나를 유일하게 보살펴 주었던 사람은 오직 덤블도어뿐이었어. 나를 위해 사냥터지기 일을 구해 주시고……. 덤블도어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덤블도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거야. 덤블도어는 재능만 있으면 누구든지 호그와트에 받아들이려고 했어. 가족이 어떤 혈통이든지 간에 사람만 괜찮다고 인정되면……. 맞아, 차므로 덤블도어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 나는 나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

하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그저 몸집이 큰 혈통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늙은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물론 너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 이야.'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나는 명청했어. 나는 더 이상 그녀 때문에 괴로워

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겠어. 몸집이 크다니……. 이제부터 그녀는 그냥 몸집이

큰 사람으로 내버려두겠어."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어색한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해그리드와 맥심 부인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해그리드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보다는 차라리 50 마리의 폭탄 꼬리 스크루트들을 이끌고 산책을 나가는 편이 더 낫겠다고 해리는 생각했다. 하지만 해그리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해리, 너 그거 아니?" 해그리드가 눈을 반짝이면서 아버지 사진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 모습은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어.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시고 너는 너 자신이 호그와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기억 나니? 정말로 여기 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봐, 해리! 학교 챔피언이 되었잖아!"

해그리드는 한참 동안이나 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주 심각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내가 정말 원하는게 뭔지 아니, 해리? 나는 제가 이기는 걸 보고 싶어. 정말 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해……. 그래, 이기기 위해 반드시 순수 혈통

일 필요는 없다는 걸 말이야. 너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둬. 마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꺼이 학교에 받아들이는 덤블도어가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해. 그래, 네 황금알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해리?"

"그건 아주 잘 되었어요." 해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정말이에

요."

그 말을 듣자 잔뜩 일그러지고 눈물 젖은 해그리드의 얼굴에 갑자기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역시 우리 해리야. 좋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해. 해리. 그들에게 본떼를 보여주란 말이야."

해그리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저녁 늦게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해리는 마음속으로 해그리드의 거칠거칠한 얼굴을 떠올렸다.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반드시 해리가 승리할 거라고 상상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던 해그리드……. 해리는 해그리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금알의 울부짖음은 더욱 무겁게 해리의 마음을 짓눌렀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해리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다. 자존심 따위는 잠시 접어두고 케드릭 디고리의 총고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 때가 된 것이다.

제 25 장 황금알과 눈

황금알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리는 한밤중에 그 일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깊은 밤이라면 해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욕실에서 시간을 끌 수가 있었다. 또한 케드릭에게서 더 이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해리는 반장들의 욕실이라는 것도 한번 사용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 방은 특별히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해를 받을 만한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이번 계획을 세웠다. 얼마 전에도 한 번 한밤중에 침대에서 몰래 빠져나와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관리인 필치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 망토가 필수적이었다. 그 이외에도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 해리는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가지고 갈 생각이었다. 그것은 규칙을 어기는 일에 사용하기에는 가장 유용한 물건이었다.

호그와트의 비밀지도는 수많은 지름길과 비밀 통로를 포함해서 호그와트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름이 붙어 있는 작은 점이 통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성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욕실로 다가오면 해리는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대비할 수가 있었다.

목요일 밤에 해리는 침대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투명 망토를 입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용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날 밤에 했던 것처럼, 초상화 구멍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론이 미리 밖에서 기다리다가 뚱뚱한 여인에게 암호를 불러 주었다.

"바나나 튀김!"

초상화가 열리자 해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해리가 론의 곁을 지나갈 때, 기숙사로 올라가던 론이 작게 속삭였다.

"행운을 빌어!"

해리는 오늘따라 투명 망토를 뒤집어쓰고 움직이는 것이 무척 불편했다. 무거운 황금알을 한쪽 팔에 끼고, 다른 한쪽 팔로는 호그와트의 비밀지도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적막이 감돌았다.

해리는 얼마큼 갈 때마다 비밀지도를 살펴보며 갔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갈 수 있었다.

마침내 장갑을 바꿔 끼고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는 마법사 술주정뱅이 보리스의 도상 앞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케드릭 디고리가 알려 주었던 그 문을 발견했다. 해리는 그 문으로 걸어가서 암호를 속삭였다.

"어린 소나무."

잠시후에 문이 삐그덕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열렸다. 살짝 안으로 들어간 해리는 조용히 문을 닫고 투명 망토를 벗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해리의 머리속에서 즉각 떠오른 생각은, 이 정도 욕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반장도 해볼 만하겠다는 것이었다. 환하게 빛나는 양초가 가득히 꽂혀 있는 상들리에가 은은하게 방을 밝히고 있었다. 방은 온통 하얀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바닥 한가운데에는 사각형으로 움푹 파인 수영장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에는 100 개의 황금 수도꼭지가 달려 있었고 각각의 손잡이마다

서로 다른 색깔의 보석이 박혀 있었다. 또한 다이빙대도 설치되어 있었다. 창문에는 길고 하얀 린넨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벽에는 황금 액자를 써운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었다. 그것은 바위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금발 머리의 인어그림이었다. 인어가 코를 골 때마다 얼굴을 덮고 있는 긴 머리카락이 들썩였다.

해리는 망토와 황금알과 지도를 내려놓고 두리번거리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걸을 때마다 나는 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너무나 웅장한 욕실이었다(해리는 황금 수도꼭지를 틀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리는 케드릭 디고리가 자기를 그저 놀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 욕실이 황금알의 비밀을 푸는 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투명 망토와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와 황금알을 거의 수영장 크기만한 욕조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보풀보풀한 목욕수건을 집어들었다.

해리는 무릎을 꿇고 황금 수도꼭지 중에서 몇 개를 돌렸다. 순식간에 해리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여러 종류의 목욕 거품이 쏟아져 나왔다.. 한 수도꼭지에서는 거의 축구공 크기만한 푸른색과 분홍색의 비눗방울이 쏟아져 나왔고, 도 다른 황금 수도꼭지에서는 해리의 몸도 둥둥 뜨게 할 만한 얼음처럼 하얗고 진한 거품이 쏟아져 나왔다. 세 번째 황금 수도꼭지에서 진한 향기를 풍기는 보라색 구름이 수면 위로 웅실웅실 쏟아져 내렸다. 해리는 한참동안이나 이 수도꼭지, 저 수도꼭지를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신나게 즐겼다. 특히 황금 수도꼭지에서 분출된 물과 거품이 수면 위로 멀리 튀어 나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깊은 욕조가 그 크기에 비해서는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뜨거운 물과 거품과 비눗방울로 가득 차게 되자, 해리는 곧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잠옷과 신발과 가운을 모두 벗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물 속으로 들어갔다.

욕조가 얼마나 깊은지 발이 거의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해리는 황금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욕조 안을 몇 번이나 헤엄치다가 물 속을 걷기도 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연기 구름이 사방에서 피어 오르는 뜨거운 거품 욕조 속에서 헤엄 치는 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었지만, 해리의 머리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멋진 생각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해리는 팔을 뻗어서 물에 흠뻑 젖은 손으로 황금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황금알을 열어 보았다. 마치 비명을 지르듯 날카롭게 울부짖는 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대리석 벽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반사되었다. 하지만 조금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였다. 아니, 벽에 반사되는 반향 때문에 더욱더 괴상하게 들릴 뿐이었다.

해리는 다시 황금알을 탁 닫았다. 비명 소리를 듣고 관리인 필치가 찾아오거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해리는 케드릭 디고리의 속셈이란 혹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해리는 화들짝 놀라 황금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물 속에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해리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황금알은 욕실 바닥을 데구르르 굴러갔다.

"나 같으면 그 황금알을 물 속에 넣어 보겠어."

비누 거품을 잔뜩 삼킨 해리는 푸푸거리면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몹시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 유령이 황금 수도꼭지 위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 유령은 바로 모우닝 머틀이었다. 대개는 3층 여자 화장실의 S 자로 구

부러진 수도관에서 모우닝 머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머틀!" 해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나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입지 않았단 말야!"

다행스럽게도 비누 거품이 아주 짙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건 없었다. 하지만 해리는 어쩐지 모우닝 머틀이 처음부터 어느 황금 수도꼭지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었을 것 같은 짐짓한 기분이 들었다.

"네가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눈을 감았어. 아주 오랫동안 넌 나를 보려 오지 않았지."

모우닝 머틀은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을 찡끗하면서 말했다.

"그래…… 하지만 그건…… 네가 있는 화장실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거기는 여자화장실이니까 말야."

해리는 살짝 무릎을 구부려 머리만 남기고 목 아래는 모두 물 속에 잠기도록 했다. 머틀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옛날에는 그런 건 전혀 신경쓰지 않았잖아. 너는 항상 여자 화장실로 찾아오곤 했는데……."

모우닝 머틀이 애처롭게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모우닝 머틀의 화장실이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몰래 만들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걸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헤르미온느가 만든 폴리주스 마법의 약은 론과 해리를 한 시간 동안 크레이브와 고일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주었던 것이다. 금지된 마법의 약 덕분에 그들은 슬리데린의 학생 휴게실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하지만 거길 드나들지 말라고 야단을 맞았어.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가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지."

해리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어느정도 사실이었다. 한번은 해리가 모우닝 머틀의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퍼시에게 발각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오, 알았어……. 그래……. 어쨌거나…… 나 같으면 그 황금알을 물 속에 집어

넣어 보겠어. 케드릭 디고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야."

모우닝 머틀이 침울하게 턱을 꼬집었다.

"너는 그 애가 하는 것도 몰래 엿봤니? 도대체 너는 뭇 때문에 밤마다 몰래 여기에 와서 목욕하는 반장들을 엿보는 거야?"

해리가 언성을 높였다.

"어쩌다가 있는 일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밖으로 나와서 말을 걸어 본 적이 없어."

모우닝 머틀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구나. 눈이나 꼭 감고 있어!"

해리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해리는 모우닝 머틀이 안경을 손으로 잘 가리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욕조에서 나왔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단단히 두른 후에 욕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황금알을 집어 들었다.

일단 해리가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모우닝 머틀은 손가락 사이로 내다보면서 말했다.

"어서……. 물 속에서 그걸 열어 봐!"

해리는 황금알을 거품이 이는 수면 밑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활짝 열었다……. 이번에는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황금알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물 밖에서는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머리도 물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머틀은 해리에게 아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을 무척 즐기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서!"

해리는 싶이 숨을 들이마신 후에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품이 가득 차 있는 대리석 바닥에 앉아서 열려진 황금알에서 들리는 이상한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땅 위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는 동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가슴 아프게 그리워하는 것을 가질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당신은 찾아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되찾아야만 해요.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면-앞날은 어두워요.
너무 늦었어요.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해리는 몸을 일으켜서 거품이 일고 있는 수면 위로 솟구쳤다. 그리고 손으로 눈을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털었다.

"들었니?"

모우닝 머틀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잠깐만,
다시
한 번 들어봐야겠어……."

해리는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갔다. 황금알에서 훌러나오는 노랫소리를 완전히 암기하기까지 해리는 세 번이나 더 물 속을 들락거려야만 했다. 그런 후에도 해리는 한참 동안이나 머리를 쥐어짜면서 물 속을 걸어다녔다. 모우닝 머틀은 수도꼭지 위에 앉아서 그런 해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땅 위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겠군…….
음……,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해리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너 정말 둔하구나?"

모우닝 머틀이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해리는 폴리주스 마법의 약 때문에 헤르미온느의 얼굴에 털이 나고 엉덩이에 고양이 꼬리가 달렸던 그날 말고는, 모우닝 머틀이 이렇게 즐거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해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서 욕실을 둘러보았다. 만약 물 속에선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물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이라는 뜻일 것이다. 해리는 이 생각을 모우닝 머틀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모우닝 머틀은 싱글싱글 능글맞게 웃었다.

"그래, 그게 바로 케드릭 디고리가 생각했던 거야. 그 애는 아주 오랫동안 그 말을 혼자 중얼거렸어. 몇 시간 또 몇 시간 동안……. 거의 육조 안의 거품이다 사라질 때까지……."

모우닝 머틀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물 속이라……. 그런데 머틀……, 대왕 오징어 말고 호수 속에는 또 뭐가 살고 있지?"

해리는 느릿느릿 말을 던졌다.

"오, 호수 속에는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살지. 난 가끔씩 거기로 내려가곤 해……. 누군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내 화장실로 불쑥 들어와서 물을 내리거나 할 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으면 말이야."

모우닝 머틀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모우닝 머틀이 화장실의 지저분한 오물과 함께 호수로 연결된 배수구를 따라 내려가는 광경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 혹시 거기에는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없니? 아니, 잠깐만……." 해리의 눈길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인어 그림에 가서 멈추었다.
"머틀, 호수에는 인어들이 살고 있지 않니? 그렇지?"

"오우, 아주 출렁한걸." 모우닝 머틀은 또다시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을 찡긋했다. "케드릭 디고리는 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 인어가 있었는데도 말이야. 저 인어는 깔깔거리면서 지느러미를 퍼덕였지……."

모우닝 머틀은 음울한 얼굴에 지극히 형오스러운 표정을 가득 담고 인어를 훑어보았다.

"그렇지? 그렇구나." 해리는 몹시 흥분했다. "두번째 시험은 호수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인어들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해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뜻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배를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해리는 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실은 한번도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다. 두들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 하지만 페트리아 이모와 버논 이모부는 해리에게 수영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심 언젠가 해리가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이 정도 크기의 수영장을 두세 번 정도 왔다갔다하기란 식은 죽 먹기였다. 하지만 호수는 아주 넓고 무척 깊었다……. 그리고 인어들은 분명히 호수 바닥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머틀, 물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지?"

해리가 약간 주저하며 물었다.

"무심한 사람같으니!"

그 말을 듣자, 모우닝 머틀의 두 눈에 갑자기 눈물이 가득 고였다. 모우닝 머틀은 옷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며 울먹였다.

"뭐가 무심하다는 거야?"

해리가 어리둥절했다.

"내 앞에서 숨쉬는 얘기를 꺼내다니!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숨을 쉬어 보지 못했는데……."

모우닝 머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모우닝 머틀의 목소리가 욕실 안에서 메아리쳤다. 모우닝 머틀은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큰 소리로 코를 풀었다.

해리는 모우닝 머틀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했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떠올랐다. 사실 그런 문제를 두고 모우닝 머틀처럼 요란을 떠는 유령은 아무도 없었다.

"정말 미안해, 머틀. 일부러 그런 건 절대로 아냐. 나는 그저 잊어버렸던……."

해리는 다소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오, 그래! 머틀이 죽었다는 건 아주 쉽게 잊어버리지!" 모우닝 머틀이 말을 가

로채면서 통통 부은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심지어 내가 살아 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어. 몇 시간이 지나고 또 몇 시간이 지나서 내 시체를 찾아냈지. 나는 거기 앉아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어. 마침 내 올리브 훈비가 화장실로 찾아왔지. '너 또 빠져서 여기 와 있니, 머틀?' 그 애는 이렇게 말했지. '디펫 교수님이 나더러 널 찾아보라고 했어.' 그 다음 순간 올리브

훈비가 내 시체를 봤지……. 오호, 올리브 훈비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할 거야.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 계속 올리브 훈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만들었거든……. 계속 올리브 훈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었지. 올리브 훈비의 오빠가 결혼하던 날도 기억이 나……."

하지마 해리는 더 이상 모우닝 머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인어의 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가슴 아프게 그리워하는 것을 가질 거예요.'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해리로부터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훔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해리가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만 할 무엇인가를……. 도대체 뭘 가져가려는 걸까?

"물론 올리브 훈비는 마법부에 가서 더 이상 내가 자기를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탄원했지. 결국 나는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내 화장실에서 살아야만 했어."

"잘 되었구나." 해리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문제의 실마리가 조금 더 풀렸어. 자, 미안하지만 이제 다시 눈을 감아 줄래? 육조 밖으로 나갈 거야."

해리는 거품이 부글거리는 육조 바닥에서 황금알을 꺼낸 다음,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몸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 내고 다시 잠옷을 입었다.

"가끔씩 나를 만나기 위해 화장실로 찾아와 주겠니?"

해리가 투명 망토를 집어들자, 모우닝 머틀이 애처롭게 물었다.

"어……. 노력해 보겠어."

하지만 해리는 마음속으로 성 안의 모든 화장실이 다 폐쇄되기 전에는 절대로 모우닝 머틀의 화장실을 다시 찾아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안녕. 잘 가."

모우닝 머틀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서글프게 인사했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입은 후에 모우닝 머틀을 바라보았다. 필치와 노리스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잉크점은 그들의 사무실 안에서 안전하게 깜박이고 있었으며, 피브스는 트로피 보관실에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다. 그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돌아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해리가 그리핀도르의 탑으로 향하는 첫발을 막 내디뎠을 때, 갑자기 비밀 지도에 나타난 잉크점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밤중에 돌아 다니는 것은 피브스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잉크점이 지하층 왼쪽 모퉁이 방 근처에서 깜박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스네이프 교수의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그 잉크점에는 '세베루스 스네이프'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였다.

해리는 그 잉크점을 명하니 바라보았다. 크라우치는 몸이 불편해서 출근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무도회에도 나오지 못했다. 그런 그가 새벽 1시에 호그와트로

몰래 침입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해리는 스네이프의 방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빙빙돌고 있는 잉크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해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해리를 이기고 말았다. 해리는 몸을 돌려서 가장 가까운 계단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크라우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작정이었다.

해리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래도 벽에 걸린 몇 개의 초상화 속에 들어 있는 얼굴들은 계단 마루가 삐그덕거리고 잠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신기하다는 듯이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곤 했다. 하지만 투명 망토를 걸치고 있는 해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래층 복도에 도착한 해리는 벽에 걸린 양탄자를 옆으로 밀치고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좀더 좁은 계단을 따라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2층 아래로 곧장 내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해리는 계속 호그와트의 비밀지도를 내려다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성격상 고지식하고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크라우치가 이렇게 늦은 밤중에 다른 사람의 사무실 근처를 몰래 염탐하면서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았다.

바로 그 순간, 계단을 절반 정도 내려갔을 때였다. 크라우치의 이상한 행동에 온통 정신을 팔고 있던 해리는 자신이 어디를 걷고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갑자기 함정계단에 다리를 빼뜨리고 말았다. 그 계단은 네빌이 항상 건너뛰는 것을 잊어버리고 빠지는 곳이었다.

해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바람에 조금 전에 육조에서 나와서 아직까지도 미끌미끌한 황금알이 해리의 팔에서 쑥 빠져나가고 말았다. 해리는 황급히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황금알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황금알은 드럼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처럼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긴 계단을 쿵쿵거리면서 굴러갔다. 그 순간 투명 망토가 스르르 벗겨지려고 했다. 해리는 재빨리 투명 망토를 움켜잡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만 비밀 지도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비밀 지도는 해리가 있는 곳에서 여섯 계단 아래쪽에 떨어졌다. 해리는 비밀 지도를 향해 힘껏 손을 뻗어 보았지만 도저히 달지 않았다.

구멍을 막고 있는 양탄자를 밀치고 계단 바닥에 쿵 떨어진 황금알은 반으로 찢어지면서 아래층 복도 정체가 다 울릴 정도로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얼른 요술 지팡이를 꺼내서 비밀 지도를 깨끗이 지우려고 버둥

거렸지만, 몇 번이나 헛손질만 했을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투명 망토를 다시 머리 끝까지 뒤집어쓴 해리는 똑바로 일어섰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눈을 꼭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피브스!"

그것은 분명히 관리인 필치의 고함소리였다. 곧이어 허둥지둥 요란하게 달려오는 발 소리와 분노로 격앙된 씩씩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곤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깨울 셈인가? 피브스, 꼭 잡고말 테다. 꼭 잡을 거야, 꼭……. 어라, 그런데 이게 뭐지?"

관리인 필치의 발걸음 소리가 뚝 멈추었다. 그런 다음에 금속이 딸깍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비명 소리도 사라졌다. 황금알을 집어든 필치가 알을 닫은 것이다.

해리가 가만히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한쪽 다리는 여전히 함정계단 속에 꽉 끼어 있었다. 이제 당장이라도 필치는 피브스를 찾으려고 양탄자를 젖혀 볼 것이다……. 물론 피브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계단이라도 올라온다면 비밀지도를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는 투명 망토를 썼든 안 썼든 간에, 비밀 지도 위에 '해리 포터'라고 적힌 점이 정확히 해

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 줄 것이다.

"황금알?" 필치는 계단 끝에 서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 귀여운 것!

이리

오령!" 노리스 부인이 필치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건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쓰는 황금알인데! 학교 챔피언의 물건이란 말이야!"

해리는 당장이라도 토했을 것만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거세게 박동하면서 쿵쿵거렸다.

"피브스!" 필치가 으르렁거리면서 소리쳤다. "이걸 훔쳤구나!"

필치는 양탄자를 들치고 통로 속으로 고개를 디밀었다. 해리는 그 흥취하고 축 늘어진 얼굴과 툭 튀어나온 흐리멍텅한 눈이 어둡고 텅 비어 있는(필치가 보기에는) 계단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어디 숨었니?" 필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내고 말거다, 피브스……. 트리위저드 시합에 사용하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다니……. 덤블도어도 이 사실을 알면 당장 너를 여기에서 쫓아낼 거다. 피브스, 이 더럽고 손버릇 나쁜 장난꾸러기 요청 놈아……."

필치는 서서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바싹 마른 회색 고양이가 그 뒤를 찰싹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다. 주인과 똑같은 노리스 부인의 등잔 같은 눈은 곧장 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전에도 해리는 종종 투명 망토가 과연 고양이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곤 했었는데…….

긴장과 불안감으로 인해 당장이라도 죽은 것만 같은 기분으로 해리는, 낡은 플란넬 잠옷 가운을 입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필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함정에 걸린 발을 빼내려고 버둥거렸지만, 오히려 좀더 깊이 빠져 들어갈 뿐이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필치는 비밀 지도를 발견하거나 해리와 곧장 부딪히게 될 것이다…….

"필치? 무슨 일이지?"

해리가 있는 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필치는 걸음을 멈추더니 뒤로 몸을 돌렸다. 계단 밑에는 지금 해리가 처한 상황을 더욱 최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네이프였다. 기다란 회색 잠옷을 입고 있는 스네이프는 잔뜩 화가 난 것 같았다.

"피브스입니다. 교수님." 필치가 심술궂게 일러바쳤다. "그놈이 이 황금알을 계

단 밑으로 던졌어요."

스네이프 교수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오더니 필치 바로 옆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해리는 이를 악 물었다. 터질 듯이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 대문에 당장이라도 발각이 될 것만 같았다…….

"피브스?" 스네이프는 필치의 손에 들려 있는 황금알을 노려보면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피브스는 내 사무실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황금알이 교수님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물론 아닐세." 스네이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나는 뭔가 and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예, 교수님. 그게 바로 이 황금알이었습죠!"

"무슨 일인가 살펴보려고……."

"피브스가 이걸 던졌다니까요, 교수님!"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햇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선반문이 열려 있었어! 누군가 그 안을 뒤진 거야!"

"하지만 피브스는 그럴 수가 없는데……."

"나도 그건 알고 있어 필치!" 스네이프가 다시 면박을 주었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주문으로 내 사무실을 봉인해 놨단 말이야!" 스네이프는 투명한 해리 너머로 계단 위를 옮겨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아래층 복도를 내려다보았다. "필치, 나와 함께 가서 침입자를 찾아봐야 하겠어."

"저는…… 그러겠습니다요, 교수님, 하지만……."

필치는 안타까운 듯이 해리가 서 있는 계단을 옮겨다보았다. 필치는 피브스를 궁지로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 버리는 것이 못내 아쉬운 기색이었다. 어서 가요, 해리는 마음 속으로 필치에게 부탁했다. 스네이프와 함께 가버려요……. 어서! 노리스 부인은 필치의 다리 사이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문득 노리스 부인은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해리의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왜 그토록 진한 향수 냄새가 나는 거품을 육조에 가득 채웠었는지 몹시 후회스러웠다.

"교수님." 필치가 스네이프를 향해 사정하듯이 말했다. "이번에는 교장선생님께

서도 제 말을 들으실 겁니다. 피브스가 학생의 물건을 훔쳤으니까요. 이번에야 말로 그놈을 당장 잡아서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그려니까……."

"필치, 나는 그 비열한 소리의 요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내 사무실은……."

철컥. 철컥. 철컥.

갑자기 스네이프가 말을 뚝 끊었다. 스네이프와 필치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려서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해리는 그들의 머리 사이로 매드아이 무디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디는 언제나처럼 너덜너덜한 여행용 망토를 잠옷 위에 걸치고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잠옷 파티라도 열렸나?"

무디가 계단 위쪽을 향해 소리쳤다.

"스네이프 교수님과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요, 그 놋된 장난꾸러기 요정 피브스가 늘 하던 대로 물건을 내던졌습니다요. 무디 교수님. 그리고 스네이프 교수님은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을……."

필치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가만히 입 닥치지 못해!"

스네이프 교수가 필치에게 나지막이 경고했다. 무디는 계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왔다. 해리는 무디의 마법의 눈이 스네이프를 지나서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심장이 바싹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무디는 투명 망토 속을 볼 수 있어……. 매드아이 무디만이 오직 이상한 광경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다. 잠옷을 입고 서 있는 스네이프와 황금알을 들고 서 있는 필치, 그리고 그들 뒤에서 계단에 발이 빠진 채,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바로 나, 해리.

무디도 깜짝 놀란 듯이 빠져나온 입을 딱 벌렸다. 잠시 동안 무디와 해리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무디는 황급히 입을 다물고 다시 푸른 눈을 스네이프에게 돌렸다.

"스네이프, 그런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가? 누가 자네 사무실에 몰래 침입했다구?"

무디가 느릿느릿 물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스네이프가 차갑고 쌀쌀맞게 대답했다.

"정반대일세.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도대체 누가 자네 사무실에 침입했던 말인가?"

무디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학생이겠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용 선반에서 마법약 성분이 없어진 적이 있었죠……. 틀림없이 학생들이 제멋대로 마법의 약을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스네이프가 내뱉듯이 말했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관자놀이 부근의 혈관이 불끈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법의 약 성분을 찾으려고 했단 말인가? 혹시 자네 사무실에 달리 감추어 두는 것은 없는가?"

무디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창백한 얼굴이 거의 흉빛으로 변하면서 관자놀이의 혈관이 더욱 빨리 불끈거리는 것을 보았다.

"무디, 제가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순수 저의 사무실을 뒤져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스네이프는 나지막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스네이프, 그건 오러의 특권이라네. 덤블도어가 나에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는……."

무디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덤블도어는 저를 믿습니다. 덤블도어가 당신에게 내 사무실을 뒤져 보라는 명령을 했다는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스네이프가 이를 악물면서 대답했다.

"물론 덤블도어는 자네를 믿는다네. 그 사람은 남을 잘 믿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항상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지. 하지만 나는…… 스네이프, 한 마디만 하지. 없어지지 않는 오점이 있다네.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오점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무디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갑자기 스네이프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마치 무언가가 찌르기라도 한 듯이. 오른쪽 손으로 왼쪽 팔뚝을 움켜잡았던 것이다.

"그만 자려 가게나, 스네이프."

무디가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 학교를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스네이프는 스스로에 대해 화가 난 듯이 팔을 탁 놓으면서 소리쳤다.

"좋아, 그렇다면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녀 보시지. 나는 언젠가 어두운 복도에서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될 날만을 고대하겠네……." 무디의 목소리는 대단히 위협적이었다. 온몸에 공포스러운 전율이 흐를 정도였다. "그런데 자네가 뭘 떨어뜨렸군……."

해리는 손으로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가리키고 있는 무디를 보았다. 스네이프와 필치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자, 해리는 더 이상 조심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투명 망토 밑에서 팔을 번쩍 치켜든 해리는 다급하게 무디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소리 없이 입을 뻣긋거렸다.

'그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스네이프가 재빨리 비밀 지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스네이프의 얼굴에는 이제 야 알겠다는 듯한 무시무시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아씨오 양피지!"

스네이프의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온 비밀 지도는 허공을 날아서 계단 밑에서 있는 무디의 손으로 들어갔다.

"내 실수였네. 이건 내 물건이야. 조금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린 모양일세."

무디가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스네이프의 검은 눈동자는 필치의 팔에 들린 황금알과 무디의 손에 들린 비밀 지도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다. 오직 스네이프만이 그 두가지 물건의 의미를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해리는 너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포터."

스네이프가 마치 신음 소리를 내듯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했나?"

무디는 차곡차곡 비밀 지도를 접더니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 넣었다. 그런 다음에 태연하게 물었다.

"포터!" 스네이프가 고함을 꽉 질렀다. 스네이프는 고개를 횡 돌리더니 정말로 해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듯이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저 황금알은 포터의 물건입니다. 그 양피지 또한 포터의 것이구요. 전에도 본 적이 있어서 나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터가 여기 있어요! 투명 망토를 쓴 포터가 말입니다!"

스네이프는 마치 눈 먼 사람처럼 손을 앞으로 쭉 내밀더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리는 마치 자기의 냄새라도 맡으려는 것처럼 스네이프의 커다란 콧구멍이 팽팽하게 커지는 것을 보았다. 계단에 발이 걸린 해리는 스네이프의 손 끝을 피하려고 몸을 뒤로 한껏 젖혔다. 하지만 이제…… 단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면…….

"스네이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네! 자네가 얼마나 경솔하게 해리 포터를 의심했는지 내가 교장에게 말하면 아주 좋아 할 것 같군!"

무디가 스네이프에게 호통을 쳤다.

"그게 무슨 뜻이죠?"

스네이프가 다시 몸을 돌려서 무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쭉 뻗은 스네이프의 손 끝은 거의 해리의 가슴에 달을락 말락하고 있었다.

"내 말은 덤불도어도 누가 그 소년을 미워하는지 무척 알고 싶어할 거란 말일세! 스네이프, 나 또한 무척 관심이 있다네……."

무디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계단 밑으로 다가왔다. 햇불이 깜박거리면서 무디의 위협적인 얼굴을 비추었다. 여기저기에 웅푹 파인 상처와 코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여느 때보다 더욱 깊고 어둡게 보였다.

스네이프는 가만히 무디를 내려다보았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이나 아무도 움직이거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내 스네이프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저는 단지…… 만약 포터가 또다시 방과후에 이 안을 해매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그 아이의 불행한 습관입니다만. 그걸 막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스네이프가 억지로 분통을 참으면서 말했다.

"아, 그랬군. 그러니까 자네도 마음속으로는 포터를 깊이 생각했단 말이군, 그 런가?"

무디가 부드럽게 말했다.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스네이프와 무디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해리의 몸에서 풍기고 있는 거품 비누 냄새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계속 필치의 다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던 노리스 부인이 큰 소리로 야옹 하고 울었다.

"그만 잠을 자러 가는 게 좋겠군요."

스네이프가 무디를 쳐다보면서 통명스럽게 말했다.

"자네가 오늘밤에 한 생각 중에서 제일 좋은 생각일세. 자, 필치. 이제 그 황금

알을 나에게 건네주게."

무디가 필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건 안 됩니다요! 무디 교수님. 이것은 피브스가 도둑질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요!"

필치는 마치 그 황금알이 소중한 자식이라도 되는 듯이 꼭 끌어안았다.

"그것은 피브스한테서 도둑질을 당한 챔피언의 것이라네. 어서 나에게 넘겨 주게."

무디가 근엄하게 말했다. 계단을 내려간 스네이프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디 옆을 횡 지나갔다. 필치가 노리스 부인을 쳐다 보면서 쫓듯 혀를 쳤다. 노리스 부인은 해리가 있는 곳을 계속 노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돌리고 주인을 따라갔다. 해리는 숨을 헐떡이면서 스네이프가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귀여운 것, 신경 쓰지 마라. 내일 아침에 덤블도어를 만날 테니까…… 피브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일러바쳐야지……."

필치는 무디에게 황금알을 건네주더니 노리스 부인에게 중얼거리면서 천천히 사라졌다.

잠시 후에 문이 꽂 달렸다. 해리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무디를 내려다보았다. 무디는 계단 밑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부지런히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철컥. 철컥.

무디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둔하게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슬아슬했구나, 포터."

무디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예…… 저…… 고맙습니다."

해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다.

"이게 뭐냐?"

무디는 호주머니 속에서 비밀 지도를 꺼내더니 펼쳐 들었다.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예요."

해리는 무디가 한시라도 빨리 계단에서 자신을 꺼내 주기만을 기다렸다. 함정 계단에 낀 다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이것은…… 이것은 정말 굉장한 지오야, 포터!"

무디가 비밀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무디의 마법의 눈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네, 무척 쓸모가 있어요. 저…… 무디 교수님, 저를 좀 도와 주세면 안 될까요?"

이제 해리의 눈에서 고통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뭐라구? 오! 그래……. 그래, 알겠다. 물론 도와주고말고……."

무디는 해리의 팔을 잡아서 끌어당겼다. 해리의 다리가 함정계단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해리는 재빨리 한 계단위로 올라섰다. 무디는 아직까지도 비밀 지도를 살펴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포터……. 혹시 누가 스네이프의 사무실에 침입했는지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 지도상으로 말이다."

무디가 천천히 중얼거렸다.

"음……. 네, 봤어요……. 그 사람은 바로 크라우치 씨였어요."

해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법의 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비밀 지도를 살살이 훑어보고 있던 무디는 깜짝 놀랐다.

"크라우치라구? 그게, 그게 정말이냐, 포터?"

무디가 다급하게 물었다.

"확실해요."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성 안에 없는 것 같구나. 크라우치라……. 그것 참 재미있군……."

무디의 눈은 여전히 비밀 지도 위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무디는 거의 1분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밀 지도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해리는 자기가 한 말이 무디에게 대단히 중요한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해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감히 그런 것을 물어봐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무디는 여전히 약간 두려웠다……. 하지만 조금 저에 무디는 그토록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던 해리를 구해 주지 않았던가…….

"너…… 무디 교수님, 어째서 크라우치 씨가 스네이프 교수님의 사무실을 살펴보고 싶어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무디의 눈이 비밀 지도를 떠나서 해리에게 고정되었다. 해리의 속마음까지 송두리째 깨뚫어보는 듯한 따가운 눈길이었다. 해리는 무디가 지금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어디까지 말해 주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포터, 사실은 그렇단다." 마침내 무디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늙은 매드아

이가 어둠의 마법사를 잡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K는 아무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다. 바티 크라우치에 비하면 말이다."

무디는 다시 비밀 지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무디 교수님? 혹시 이 일이 그것과 관계가 있을지도……. 어쩌면 크라우치 씨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 말이야?"

무디가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날카롭게 물었다. 해리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 무척 당황했다. 호그와트 밖에서 해리에게 정보를 알려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인상을 무디에게 심어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당장 시리우스에게 의심이 돌아갈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기사가 《예언자 일보》에 실리고 있잖아요……. 월드컵이 열렸을 때 나타났던 어둠의 표식이나 죽음을 먹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일들이……."

해리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무디의 서로 다른 눈동자가 한꺼번에 휘둥그레졌다.

"포터, 너는 꽤 똑똑한 소년이구나,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최

근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소문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단다. 물론 리타 스키터 그 여자 때문이지만……. 그런 소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 무디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무디의 마법의 눈은 재빨리 자

시 비밀 지도를 향했다. 빠져나온 무디의 입가에 한가닥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오,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무디는 해리에게 하는 말

이라기 보다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중얼거렸다. 무디의 마법의 눈동자는 비밀 지도의 왼쪽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건 바로 자유롭게 돌아 다니는 죽음을 먹는 자란다……."

해리는 무디를 빤히 바라보았다. 무디도 해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포터,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게 있구나."

무디가 느닷없이 사무적인 태도로 물었다. 해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무디는 해리에게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질문할 것이다. 이 비밀 지도는 대단히 수상한 마법의 물건이었다. 그리고 이 비밀 지도가 해리의 손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다면, 해리 자신뿐만 아니라 해리의 아버지와 프레드, 조지, 그리고 지난번 어둠의 마법 방어술 선생님이었던 루핀 교수까지도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내가 이 지도를 좀 빌려도 되겠니?"

"네?"

해리가 입을 딱 벌렸다. 해리는 이 비밀 지도를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무디가 비밀 지도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것은 분명히 무디가 해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럼요, 괜찮아요."

"착한 녀석! 이건 내가 아주 잘 쓰겠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출곧 찾아다니던 거였어……. 좋다 침대로 가거라, 포터, 어서……."

무디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함께 계단 위로 올라갔다. 무디는 생전 처음 보는 귀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여전히 비밀 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무디의 사무실까지 걸어갔다. 무디는 그 자리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해리를 바라보았다.

"너 혹시 오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포터?"

"아뇨."

해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렴. 그래……. 말이 난 김에 하는 말인데…….
설마

오늘 밤에 이 황금알을 들고 그저 산책하러 나온 건 아니겠지?"

무디가 해리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실마리를 풀고 있었어요."

해리가 씩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디는 눈을 찡끗했다. 마법의 눈이 다시 번쩍 거렸다.

"하긴 한밤중에 산책하는 것만큼 생각하기에 좋은 건 없지. 포터…….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자."

무디는 다시 비밀 지도를 내려다보면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에 문을 꽂 달아 버렸다.

해리는 스네이프와 크라우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그리핀도르의 탑으로 걸어갔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그와트에 들어올 수 있는 크라우치가 왜 병에 걸린 척했을까? 스네이프의 사무실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게다가 무디는 해리가 오러가 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참으로 흥미로운 생각이긴 하지만…….

10분 후에 해리는 재빨리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황금알과 투명 망토는 다시

안전하게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 해리는 오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른 오러들은 얼마나 심한 상처를 입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제 26 장 두 번째 시험

"벌써 황금알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말했었잖아!"

헤르미온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제발 목소리 좀 낮춰! 나는 그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뿐이야. 알겠어?"

해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마법 수업 시간에 들어간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제일 뒷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소환 마법의 반대인 추방 마법을 연습할 예정이었다. 교실 안에서 물건이 훙휙 날아다니가는 어떤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플리트윅 교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연습용으로 푹신푹신한 방석을 잔뜩 나누어 주었다. 혹시 목표물에 맞더라도 푹신푹신한 방석이라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물론 플리트윅 교수의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네빌의 조준은 번번이 빗나가서 방석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 예를 들면 플리트윅 교수님을 계속해서 교실 저편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었다.

"잠시만 그 황금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도록 하자. 알았지?" 커다란 캐비닛 위에 떨어진 플리트윅 교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 옆을 봉하고 지나가고 있을 때, 해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스네이프와 무디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하려던 참이었어……."

이 수업은 몰래 비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모두들 너무나 재미있고 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거의 30 분에 걸쳐 지난 밤에 겪었던 모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네이프가 무디가 자신의 사무실을 뒤졌다고 말했던 말이야?" 론이 몹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지팡이를 휙 휘둘러서 방석을 멀리 날려보낸 론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허공으로 날아간 방석은 패르바티의 모자를 떨어뜨렸다). "이런……. 그렇다면 무디가 카르카로프 뿐만 아니라 스네이프도 감시하고 있단 말이야?"

"글쎄……. 덤블도어가 무디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무디가 스네이프를 감시하고 있는 건 분명해." 이렇게 말하면서 해리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지팡이를 휘둘렸다. 결국 해리의 방석은 책상 위를 탕탕 튕면서 돌아다녔다. "무디의 말에 따르면, 덤블도어가 스네이프를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단지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서일 뿐이래……."

"뭐라구?" 갑자기 론의 눈이 휙동그래졌다. 론이 두 번째로 날려보낸 방석은 빙빙 돌며 허공으로 높이 솟구치더니,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에 가서 부딪힌 다음 플리트윅 교수의 책상 위로 쿵 하고 떨어졌다. "해리…… 어쩌면 nael 는

스네이프가 불의 자 속에 네 이름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몰라!"

"오, 론." 헤르미온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는

전에도 스네이프가 해리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결국에는 해리의 목숨을 구해 준 거였잖아. 기억나?

헤르미온느는 방석 하나를 휙 날려 보냈다. 그 방석은 교실을 가로질러 원래 목표지점인 상자 안에 정확히 떨어졌다.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채,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스네이프가 해리의 목숨을 한 번 구해 주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은, 스네이프가 함께 학교를 다녔던 해리의 아버지를 미워했듯이 해리를 노골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었다.

스네이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리의 점수를 깎을 기회만 노렸다. 그리고 해리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심지어 해리를 정학시령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무디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신중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바보가 아니야. 덤블도어 교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해그리드와 루핀 교수를 믿었고, 그의 판단은 옳았어. 그런데 왜 스네이프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어? 솔직히…… 스네이프는 약간……."

"사악해! 이것 봐. 헤르미온느 그렇지 않다면 왜 어둠의 마법사 수색자들이 스네이프의 사무실을 뒤지고 다니겠어? 안 그래?"

론이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그런데 크라우치 씨는 왜 아픈 척하고 있는 거니? 그것 참 웃기는 일이야. 그렇지 않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밤 중에도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무도회에도 오지 못하다니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론의 말을 무시하면서 말했다.

"넌 그 윙키라고 하는 집요정 때문에 무조건 크라우치 씨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론이 방석을 창문 밖으로 날리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무조건 스네이프가 무슨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겠지."

헤르미온느는 이번에도 방석을 정확하게 상자 안으로 날려버렸다.

"지금이 스네이프의 두 번째 기회라면, 첫 번째 기회때에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놀랍게도 해리의 방석이 곧장 교실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헤르미온느의 방석 위에 정확히 내려 앉았다.

호그와트에 원가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꼭 알려달라는 시리우스의 당부 때문에, 그날 밤 해리는 갈색 부엉이 편에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크리우치가 스네이프의 사무실에 침입한 이야기와 무디와 스네이프가 나누었던 대화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 다음에 해리는 당장 코앞에 들이닥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2월 24일에 어떻게 한 시간 동안 물 밑에서 숨을 쉬는가 하는 것이었다.

론은 또다시 소환 마법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해리가 수종 호흡기에 대해서 설명하자, 론은 도대체 왜 해리가 가장 가까운 머글 마을에서 그것을 소환해서 쓰려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완전히 김을 빼놓았다. 우선 해리가 한 시간 내에 수종 호흡기 작동법을 제대로 터득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그렇게 하다고 하더라도 국제 마법사 비밀 법령을 어긴 혐으로 챔피언 자격을 박탈당할 거라는 것이었다. 수종 호흡기가 호그와트까지 날아오는 동안 단 한 명의 머글 눈에도 뜨이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지나친 희망사항이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네가 잠수함이나 뭐 그런 걸로 변신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 변신술을 이미 배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6학년이 될 때까지

는 결코 그 마법을 배울 수 없을 거야. 만약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마법을 부리다가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헤르미온느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래, 나도 머리 위에 잠망경이 솟아 있는 꿀로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아. 무디 앞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면 어떨까? 혹시 무디가 나를 변신시킬지도 모르잖아……."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마약 그렇다고 해도 무디는 네가 원하는 대로 변신시켜 주지는 않을 거야.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직접 마법을 쓰는 것 뿐이야."

헤르미온느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리하여 해리는 머지않아 도서관이라면 평생토록 넌더리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먼지가 잔뜩 쌓여있는 책더미 사이에 파묻혔다. 산소가 없더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주문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내내 도서관을 뒤졌지만, 심지어 해리가 맥고나걸 교수에게서 제한 구역의 책을 살펴볼 수 있는 허가서까지 받아내고 성난 독수리같이 무시무시한 도서관 사서 핀스 부인에게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한 시간 동안 물 속에서 지내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주문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예전에도 경험했던 낯익은 고통이 또다시 해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다. 항상 교정 풍경의 일부로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겼던 호수가 이제는 교실 창가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해리의 눈길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거대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회색빛 호수의 어두운 심연은 저 하늘의 달처럼 아득할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

헝가리의 혼테일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을 때처럼, 마치 누군가가 시계 바늘에 마법을 걸어 특별히 빠르게 돌아가도록 해 놓은 듯이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2월 24일까지는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

었다.) 이제 닷새 남았다.(서둘러 무엇인가를 알아내야만 했다.) 사흘 남았다.(제

발 원가를 알아내야 할 텐데……. 제발… 어떻게 해야하지?)

시합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자, 해리는 다시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식사 시간에 유일하게 위로가 된 일이라면 시리우스에게 보냈던 갈색 부엉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 해리는 재빨리 양피지를 풀어서 펼쳐 보았다. 시리우스가 지금껏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짤막한 편지였다.

부엉이 편에 다음 호그스미드로 가는 주말의 날짜를 적어보내라.

해리는 혹시나 다른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양피지를 뒤집어 보았지만 깨끗한 백지였다.

"다음 다음 주말이야. 여기, 내 깃펜을 써.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부엉이를 돌려 보내."

해리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해리는 시리우스의 편지 뒷장에 황급히 날짜를 쓴 다음 갈색 부엉이의 다리에 편지를 동여맸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날아가는 부엉이를 멍하니 지켜보았다. 도대체 월 기대했던 것일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충고?

해리는 스네이프와 무디 이야기를 적어 보내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황금알의 실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호그스미드로 가는 주말의 날짜를 왜 알려고 하는 걸까?"

론이 물었다.

"몰라." 해리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부엉이를 보고 잠시동

안 반짝했던 기쁨도 이내 깨져 버리고 말았다. "가자……. 신비한 동물 돌보기 시간이야."

해그리드가 폭탄 꼬리 스크루트 사건을 만회하려고 하는 건지 혹은 스크루트가 겨우 두 마리밖에 남지 않아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루불리 프랭크 교수 만큼 자기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해그리드가 다시 수업을 맡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니콘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괴물뿐만 아니라 유니콘에 대해서도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물론 유니콘은 치명적인 어금니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해그리드가 몹시 실망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오늘 해그리드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두 마리의 유니콘 새끼를 잡아 가지고 왔다. 다 자란 유니콘과는 달리 유니콘 새끼들은 순수한 황금색이었다. 패르카티와 라벤더는 유니콘 새끼를 보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팬시 파킨슨조차도 좋아하는 기색을 숨기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

"큰 놈들보다는 찾기가 더 쉽지. 유니콘 새끼들은 약 두 살 정도가 되면 은빛으로 변하기 시작해. 그리고 네 살 정도부터 뿔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다 자라는 일곱 살이 될 때까지는 완전한 순백색을 띠지 않아. 유니콘은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들을 더 잘 믿고 따른단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라도 괜찮아. 자, 조금 가까이 다가와라. 원한다면 살짝 만져도 좋아……. 이 설탕 덩어리를 좀 주렴……."

해그리드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설명했다. 그러다가 해그리드의 시선이 해리와 마주쳤다.

"너 괜찮니, 해리?"

해그리드가 약간 옆으로 비켜서면서 말했다. 다른 학생들은 두 마리의 유니콘 새기 주위에 모여 있었다.

"네."

해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약간 초조하지?"

해그리드가 부드러운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네 조금요."

해리는 약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해리." 갑자기 해그리드가 거대한 손을 들더니 해리의 어깨를 턱 쳤다. 그 바람에 해리의 무릎이 깍일 뻔했다. "네가 혼테일과 맞서 싸우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무척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너는 잘할 거야. 황금알의 실마리는 풀었지? 그렇지?"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장이라도 해그리드에게, 한 시간 동안 호수 바닥에서 수를 썰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끓었다.

해리는 가만히 고개를 들고 해그리드를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해그리드는 가끔씩 호수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호수 속의 생물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쨌거나 해그리드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을 다 돌보고 있지 않은가?

"네가 이길 거야." 해그리드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해리의 어깨를 다시 톡톡쳤다. 해리는 부드러운 땅 속으로 발이 3 내지 5 센티미터 정도 빠지는 느낌이었

다. "난 알고 있어. 느낄 수 있다구, 해리, 네가 이길 거야."

해리는 해그리드의 얼굴에 떠오른 그 자신만만하고 행복한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해그리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억지로 유니콘 새끼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앞으로 나가, 다른 학생들 틈에 섞여서 유니콘을 어루만졌다.

두 번째 시험을 치르는 전날 저녁이 되자, 해리는 마치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악몽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와서 설사 기적적으로 적당한 주문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그 주문을 완전히 익힐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어째서 일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 왜 황금알의 실마리를 좀더 서둘러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팔았을까? 혹시라도 교수님이 물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에 대해 한 마디 언급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해리는 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도서관에 처박혀서 주문을 찾아 이 책 저 책 닥치는 대로 뒤졌다. 책상 위에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서로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뜨일 때마다 해리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곤 했다. 하지만 대개는 '말린 맨드레이크 잎사귀 230 그램에 물 1밀리리터를 넣고…'하는 따위의 문장뿐이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말이야. 제일 그럴듯한 마법은 연못이나 웅덩이의 물을 말리는 가뭄 마법인데, 저 호수를 다 말려 버릴 만큼 엄청난 마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맞은편 책상에 앉아 있는 론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원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풀 수 없는 시험 문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헤르미온느가 촛불을 좀더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중얼거렸다. 《잊혀진 옛 마법과 마술》이라는 글씨가 촘촘하게 박힌 책에 코를 바싹 들이대고 열심히 읽고 있는 헤르미온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냈잖아. 해리, 내일 그냥 호수로 내려가서 물 속에 머리를 처박고 인어들에게 훔쳐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장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도록 해. 그래서 인어들이 뭘 던지는지 지켜보자구.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틀림없이 있어야만 해!"

헤르미온느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헤르미온느는 도서관에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도서관이 헤르미온느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나는 시리우스처럼 애니마구스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쾌한 속임수 마법》을 읽고 있던 해리가 입을 열었다.
애니마구스란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사를 의미했다.

"그래. 그렇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금붕어로 변신할 수 있겠다!"
론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성했다.

"혹은 개구리로 말이야."

해리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해리는 무척이나 피곤한 얼굴이었다.
"네가 애니마구스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걸려야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록도 해야 돼.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잖아. 기억나? 그렇게 되면 너는 마법 오·남용 관리과에 네가 변신한 동물과 특징을 등록해야 하는 거야. 그걸 남용할 수 없도록 말이야……."

눈을 가늘게 뜨고 《불가사의한 마법의 딜레마와 해결책》의 색인을 검토하고 있던 헤르미온느가 중얼거렸다.

"헤르미온느, 난 그저 농담을 한 것뿐이야, 내일 아침까지 개구리로 변신할 수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어."

해리가 지친 듯이 말했다.

"아, 이 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세상에 코털이 꼬불꼬불하게 자라나도록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담?"

헤르미온느는 짜증나는 듯이 《불가사의 한 마법의 딜레마와 해결책》을 탁 덮었다.

"난 괜찮을 것 같은데? 화제 거리는 될 거 아냐, 안 그래?"

갑자기 프레드 위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프레드와 조지가 도서관의 책장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형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론이 깜짝 놀란 눈으로 프레드와 조지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너희들을 찾고 있었어. 맥고나걸 교수님이 너희 두 사람을 보고 싶어해. 너하고 헤르미온느 말이야."

조지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왜?"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랐다.

"그건 모르지……. 하지만 약간 화가 난 것 같더라."

프레드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덧붙였다.

"우리는 너희들을 교수님 방으로 데리고 가야 돼."

조지가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하면서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맥고나걸 교수님이 론과 헤르미온느를 야단치려 하시는 걸까? 어쩌면 해리 혼자서 풀어야만 하는 시험 문제를 두 사람이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나중에 휴게실에서 만나, 가능한 한 책을 많이 가져오도록 해. 알았지?"

헤르미온느가 론과 함께 일어서면서 해리에게 말했다. 헤르미온느와 론은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알았어."

해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8 시가 되자 핀스 부인은 전등을 다 끄고 해리를 도서관 밖으로 몰아냈다.

해리

는 최대한 많은 책을 잔뜩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그리핀도르 휴게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 하나를 구석으로 밀고 가서 계속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괴짜 마법을 위한 정신나간 마법》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세 마법 안내서》에도……. 《18 세기 마법 모음집》이나 《깊은 바다에 사는 무시무시한 생물들》 《당신도 모르는 당신의 능력, 그리고 이를 깨달았을 때 할 일》 따위의 책에는 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도 없었다.

크록생크가 해리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더니 가르릉 거리면서 몸을 둥글게 말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핀도르 휴게실에 있던 학생들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학생들은 해그리드처럼 유쾌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해리에게 다음날 시험 잘 보라고 행운을 빌어 주었다. 모두들 해리가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것처럼 또다시 깜짝 놀랄 만한 활약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목구멍에 골프공이 꽉 틀어박힌 기분이었다. 10 시부터 12 시까지 해리는 크록생크와 함께 휴게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뒤져 볼 책도 없었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아침이 되면 호수로 내려가서 심판들에게 말해야만 해……."

해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해리는 도저히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 보았다. 깜짝 놀라서 눈이 휙동그레지는 루도 베그만과 만족스러운 듯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씩 웃는 카르카로프의 얼굴도 상상해 보았다. 플뢰르 델라쿠르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난 그럴 줄 알았어용. 죠 아이는 너무 어리다니까용. 아직 어린 꼬마예용."

해리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포터는 야비하다! 라는 배지를 꺼내 보이는 말포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절망하는 해그리드의 얼굴도…….

크록생크가 무릎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해리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악이 오른 크록생크는 씩씩거리면서 마루 위로 뛰어내리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그런 다음에 젖병을 닦는 솔처럼 생긴 꼬리를 뺏祓이 세우고는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하지만 해리는 벌써 기숙사로 향하는 계단 위를 올라가고 있었다. 투명 망토를 입고 도서관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도서관에서 밤을 세우는 거야…….

"루모스!"

15 분 후에 해리는 도서관 문을 살며시 열면서 중얼거렸다. 요술지팡이 끝에 불

이 밝혀지자, 해리는 재빨리 책장으로 다가가서 더 많은 책들을 꾸집어냈다. 마

법과 주문에 관한 책. 인어와 바다 괴물에 대한 책, 유명한 마법사와 마녀에 대한 책, 마법 발명품에 대한 책을 비롯해서 물 속에서 숨을 쉬는 방법에 대해 단한 마리라도 적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책은 닥치는 대로 다 꺼냈다. 해리는 그 책들을 모두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요술지팡이 끝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한 채 열심히 책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가끔씩 시계를 살펴보면서…….

새벽 1 시…….

새벽 2 시…….

해리가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다음 책에는 있을 거야. 다음책에는……. 다음 책에는…….

반장들의 욕실에 걸린 그림 속의 인어가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대면서 웃고 있었다. 해리는 거품이 부글거리는 물 속에서 코르크 마개처럼 둉둥 떠다니고 있었다.

인어는 지금 해리의 파이어볼트를 들고 있었다. 인어는 지금 해리의 파이어볼트를 들고 있었다. 인어는 그 빗자루를 자꾸만 해리의 머리 위로 이리저리 흔들었다.

"이리 와서 잡아 봐! 자, 어서! 번쩍 뛰어 보라구!"

인어가 짖궂게 킬킬거렸다.

"난 할 수 없어! 그걸 내게 줘!"

해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파이어볼트를 잡으려고 애썼다. 물 속으로 가라안지 않으려고 발바둥을 쳐 가면서. 하지만 이어는 빗자루 끝으로 해리의 옆구리를 쭉쭉 찌르면서 장난스럽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아파, 그러지 마. 아이쿠!"

"해리 포터, 일어나세요!"

"찌르지 마!"

"도비가 해리 포터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만 일어나야 해요!"

해리는 간신히 눈을 떴다. 아직도 여전히 도서관 안이었다. 잠을 자는 동안 해리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투명 망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해리의 한쪽 뺨에는 《요술지팡이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책의 한 페이지가 달라붙어 있었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해리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눈을 깜박거리면서 안경으로 똑바로 고쳐 썼다.

"해리 포터는 서둘러야만 해요! 10 분 후에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해리 포터!"

도비가 꽉꽉거리면서 소리쳤다.

"10 분!" 해리는 숨이 탁 막혔다. "10 분이라구?"

해리는 얼른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도비의 말이 맞았다. 지금 시각이 9 시 20 분

이었다. 해리는 심장이 천근만근 무게로 밑바닥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서 서둘러요, 해리 포터! 다른 챔피언들과 함께 호수로 내려가야만 해요!"
도비가 해리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재촉했다.

"너무 늦었어, 도비. 나는 시허를 치르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해리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해리는 시험을 치를 거예요! 도비는 해리가 올바른 책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해리를 위해 대신 그 일을 했어요!"
꼬마 집요정이 꽉꽉거렸다.

"뭐라구? 하지만 너는 두 번째 시험이…… 뭔지도 모르잖……."

해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도비는 알아요. 해리 포터는 지금 당장 호수로 내려가서 당신의 위치를 찾아야만 해요."

"뭘 찾으라구?"

"인어들로부터 위치를 찾아와야만 해요!"

"위치가 뭔데?"

"당신의 위치 말이에요! 당신의 위치는…… 도비에게 스웨터를 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도비가 짧은 반바지 위에 입고 있는 줄어든 갈색 스웨터를 잡아당기면서 소리쳤다.

"뭐라구? 그들이…… 그들이 론을 잡아갔단 말이야?"

해리가 입을 딱 벌렸다.

"해리 포터가 제일 가슴 아프게 그리워할 것 말이죠!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면……'"

도비가 발을 동동 굴렸다.

"……앞날은 어두워요. 너무 늦었어요. 일단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

을 거예요.' 도비……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해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꼬마 집요정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노래를 중얼거렸다. 황금알에서 흘러나왔던 노래…….

"해리 포터는 이걸 먹어야만 해요! 호수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걸 먹어요. 아ガ미 풀이에요!"

꼬마 집요정은 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반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가느다란 쥐꼬리를 뭉쳐 놓은 것 같은 청회색이 감도는 것을 꺼냈다.

"이건 뭐하는 거지?"

해리가 아가미 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 풀은 해리 포터가 물 속에서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도비!" 해리가 미친 듯이 물었다. "정말이야? 정말 확실한 거지?"

해리는 지난번에 도비가 자기를 '돕는'답시고 결국 오른팔의 뼈가 몽땅 없어지도록 만들었던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도비는 확실해요." 꼬마 집요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비는 무슨 이야

기를 들었어요. 도비는 꼬마 집요정이에요. 도비는 성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이고 마루를 닦아요. 도비는 교무실에서 맥고나걸 교수와 무디 교수가 다음 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비는 해리포터의 위치를 잊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해리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해리는 투명 망토를 집어서 가방 속에 쑤셔 넣었다. 그런 다음에 아가미 풀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바람처럼 도서관을 빠져 나갔다. 도비는 그 뒤를 바싹 따라갔다.

"도비는 주방에 가야만 해요! 도비는 갈 거예요. 해리 포터, 부디 행운을 빌어 요. 행운을!"

복도로 나가자, 도비가 안타깝게 소리쳤다.

"나중에 보자, 도비!"

전속력으로 복도를 달려간 해리는 한 번에 세 칸씩 계단을 뛰어서 내려갔다. 현관 입구에는 지각생 몇 명만이 얼쩡거리고 있을 뿐, 모두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회장에서 나와 두 번째 시험을 구경하기 위해 육중한 오크문으로 몰려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달려나가는 해리의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콜린과 데니스 크리비는 단숨에 돌계단을 내려가 햇빛이 비치는 차가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해리를 보자, 쓴살같이 뒤쫓아갔다.

잔디밭을 쿵쿵거리면서 뛰어가던 해리는, 작년 11월에는 용의 우리 주위에 등

글게 놓여 있던 관중석이 이번에는 맞은편 둑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중석은 호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을 빽빽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해리가 호수 반대편을 돌아서 심판들이 있는 곳으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을 때, 잔뜩 흥분한 관중들의 고함 소리가 호수를 가로질려서 울려 퍼졌다. 심판들은 호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황금 휘장이 둘러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캐드릭 디고리와 플로르 엘라쿠르, 빅터 크롬은 심판들 옆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해리를 바라보았다.

"여기…… 왔어요……."

해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진흙 웅덩이 앞에 미끄러지듯이 멈춰섰다. 그 바람에 플로르의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

"도대체 어딜 갔었던 거니?" 거만하고 불쾌한 목소리가 해리의 귀청을 스쳤다. "곧 시험이 시작될 텐데!"

해리는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퍼시 위즐리가 심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크라우치는 또다시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었다.

"자. 자, 퍼시!" 루도 베그만이 달래듯이 말했다. 루도 베그만은 해리를 보자,

눈에 띌 정도로 안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해리가 숨 돌릴 틈을 줍시다!"

덤불도어도 해리를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카르카로프와 맥심 부인은 결코 해리를 보고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해리가 영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이 씌어져 있었다.

해리는 무릎을 짚고 허리를 숙인 채, 가쁜 숨을 헐떡거렸다. 날카로운칼로 갈비뼈를 쑤시는 것처럼 옆구리가 뜨끔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시합을 연기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루도 베그만은 챔피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3미터 간격을 두고 그들을 호숫가에 세워 놓았다. 해리는 제일 끝에 서 있었다. 해리의 곁에는 빅터 크롬이 서

있었는데, 그는 수영복을 입고 손에는 요술지팡이를 든 채 벌써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해리, 괜찮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니?"

루도 베그만이 크롬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해리를 끌고 가더니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

해리는 숨을 헉헉거리며 옆구리를 문질렀다. 루도 베그만은 해리의 어깨를 한 번 굳게 쥐더니 심판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월드컵 때 그랬던 것처럼 요술지팡이 끝을 목에 갖다대더니 '소노루스!'라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루도 베그

만의 목소리가 검은 호수를 가로질러서 멀리 관중석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자, 우리의 챔피언들이 모두 두 번째 시험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루라기를 불면 곧바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챔피언들은 정확하게 한 시간 안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 와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차갑고 고요한 허공에 울려 퍼졌다. 관중들은 환호 성과 박수를 치면서 열광했다. 다른 챔피언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해리는 서둘러 신발과 양말을 벗고 호주머니에서 아가미 풀을 한 웅큼 꺼냈다. 그리고 아가미 풀을 입 속에 집어넣은 다음, 호수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호수의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해리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뜨거운 불 속에 다리를 집어넣은 것 같았다. 물 속으로 더운 깊이 들어가자, 물을 빨아들인 듯이 무겁게 해리를 짓눌렀다.

이제 물은 해리의 무릎 높이까지 다다랐다. 감각이 마비된 발은 평평하고 작은 돌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해리는 최대한 빠르게 입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아가미 풀을 씹었다. 아가미 풀은 문어 다리처럼 불쾌하게 끈끈했으며 늘경늘경 미끈거렸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 오르자, 해리는 걸음을 멈추고 아가미 풀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렸다.

해리는 관중의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무런 마법도 부리지 않고 곧장 호수 속으로 걸어 들어간 자신의 모습이 틀림없이 가장 멍청하게 보일 거라는 사실을 해리도 잘 알고 있었다.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몸의 절반은 온통 소름이 돋았고, 얼음 같은 물속에 잠겨 있는 몸의 절반은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잔인한 바람이 해리의 머리카락을 마구 휘날렸다. 해리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써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려 관중석으로부터 시선을 피했다. 관중들이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더욱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슬리데린의 좌석에서는 야유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 해리는 갑자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베개가 입과 코를 꽉 누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해리는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면서 애를 썼지만 머리가 핑핑 돌뿐이었다. 폐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양쪽 목에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해리는 황급히 두 손으로 목을 만졌다. 해리의 귀 바로 아래쪽에서 커다란 두 개의 아가미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빼꼼거리고 있었다……. 아가미가 생겼다! 더 이상 말설일 필요도 없이, 해리는 당장 머리 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무 속으로 첨벙 뛰어든 것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처음 들이마시는 순간, 생명의 숨결이 온모에 전해졌다. 머리는 더 이상 어지럽지 않았다. 또다시 물을 꿀꺽꿀꺽 들이마시자, 부드럽게 아가미를 통과한 물이 해리의 머리로 산소를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해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유령처럼 새파랗게 질린 손에는 물갈퀴가 달려 있었다. 해리는 몸을 비틀어 벌거벗은 발을 내려다보았다. 길게 늘어난 발가락 사이에도 물갈퀴가 달려 있었다. 마치 고무로 만든 잠수용 오리발을 신은 것 같았다.

호수의 물도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쾌할 정도로 시원하고 가벼운 기분이었다……. 다시 한 번 힘껏 발장구를 친 해리는 물갈퀴가 달린 발

이 어찌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몸을 밀고 가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물 속의 풍경이 너무나 똑똑하게 잘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눈을 깜박거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리는 물살을 가르면서 호수 밑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낯설고 어둡고 뿐연 호수 밑바닥에 도착하자, 무거운 침묵이 해리를 짓눌렀다. 시야는 아주 흐렸다. 겨우 3 미터 전방 정도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로 물살을 가르면서 헤엄칠 때마다 새로운 광경이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해리의 눈앞에, 구불거리며 뒤엉킨 검은 물풀 숲과 둥글고 희미하게 빛나는 돌이 깔린 넓은 진흙 벌판이 펼쳐졌다.

해리는 호수 한가운데를 향해 좀더 깊이 헤엄쳐 들어갔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기괴하게 회색빛을 발하는 물 속을 열심히 둘러보았다. 물은 점점 더 불투명해졌다.

작은 물고기들이 은빛 화살처럼 수식간에 해리의 곁을 훑 스치고 지나갔다. 한 두 번 해리는 무엇인가 커다란 것이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가가면, 번번이 커다랗고 시커먼 통나무이거나 혹은 빽빽한 물풀 덩어리였다. 인어나 론의 흔적은 물론이고, 다른 챔피언들의 모습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고맙게도 대왕 오징어의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다.

저 앞쪽으로 60 센티미터 정도 더 깊은 곳에 밝은 초록색 물풀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풀이 무성하게 옷자란 잔디밭 같았다. 해리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정면을 살펴보면서 희미한 물 속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원가가 해리의 발

목을 꽉 움켜잡았다.

재빨리 몸을 돌린 해리는 그라인딜로우를 발견했다. 뿔이 달린 이 자그마한 물귀신은 물풀 사이로 빠끔 고개를 내밀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기다란 손가락으로 해리의 다리를 꽉 움켜잡고 있었다. 해리는 서둘러 물갈퀴가 달린 손을 옷속으로 집어넣어서 요술지팡이를 꺼내려고 했다. 하지만 요술지팡이를 잡는 순간, 또 다른 두 마리의 그라인딜로우가 물풀에서 튀어나오더니 해리의 옷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그라인딜로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리를 물 밑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썼다.

"레라시오!"

해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해리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고 오직 커다란 물거품만이 빠끔빠끔 뿐어져 나왔다. 그런데 해리의 지팡이는 그라인딜로우들을 향해 불꽃을 튕기는 대신에 펄펄끓는 물을 발사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물귀신의 초록색 껌질 위에 빨간 반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물귀신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발목을 빼낸 해리는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해임을 쳤다. 그리고 가끔씩 어깨 너머로 정신없이 뜨거운 물을 발사했다. 이따금씩 그라인딜로우가 다시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들 때마다, 해리는 미친 듯이 빌길질을 했다. 마침내 발에 뿔 달린 머리가 톡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서 문득 뒤통 아보니까, 눈을 헤롱헤롱 뜨고 있는 그라인딜로우 한 마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른 물귀신들은 해리에게 주먹을 흔들면서 위협하더니 다시 물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천천히 밑으로 내려온 해리는 다시 지팡이를 옷 속에 집어 넣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물 속을 한 바퀴 다 돌았지만,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 뿐이었다.

해리는 이제 상당히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너울거리는 물풀 이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그 순간 해리는 심장이 완전히 멎어 버리는 것 같았다. 해리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모우닝 머틀이 진주가 박힌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해리를 바라보면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머틀!"

해리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 하지만 또다시 해리의 입에서는 커다란 거품만이 솟아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우닝 머틀이 킬킬거리면서 웃었다.

"너 저기 가려고 하는구나!" 모우닝 머틀이 손으로 호수 저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난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항상 나를 쫓아내……."

해리는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모우닝 머틀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물풀 속에 숨어 있을 또 다른 그라인딜로우를 피하기 위해 물풀 위로 좀더 높이 헤엄쳤다.

해리는 호수 속에서 적어도 20분은 넘게 헤엄을 친 것 같았다. 이제 검은 진흙

이 넓게 깔려 있는 곳이 나타났다. 해리가 물살을 일으키자, 바닥에 깔려 있던 진흙이 시커멓게 일어났다. 바로 그 순간 어디에선가 희미하게 인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한시간 동안 당신은 찾아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되찾아야만 해요.

해리는 더욱 빨리 헤엄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희뿌연 물 속에 커다란 바위가 불쑥 솟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위 위에는 인어 그림 그려져 있었다. 인어들은 창을 들고 대왕오징어처럼 보이는 것을 뒤쫓고 있었다. 해리는 그 바위를 지나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계속 헤엄쳤다.

당신의 시간은 벌써 절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요.

당신이 찾는 것이 여기에서 죽어 버리지 않도록…….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울퉁불퉁한 돌로 만든 동굴집들이 아련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바닷말이 얼룩덜룩 동굴집들을 뒤덮고 있었다. 어두운 창문 여기 저기에서 인어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반장들의 욕실에 걸려 있던 인어 그림과는 단 한 군데도 닮지 않은 얼굴이었다.

인어의 피부는 회색이었으며 길고 짙은 초록색의 머리카락은 마구 풀어 헤쳐져 있었다. 인어의 눈과 영성한 이빨은 모두 누런색이었다. 그리고 목에는 조약돌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들은 헤엄을 치면서 지나가는 해리를 힐끗힐끗 곁눈질하면서 쳐다보았다.

마침내 인어들 중에서 두 명이 해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은빛 꼬리로 물살을 가르며 동굴에서 헤엄쳐 나왔다. 그 인어들은 손에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었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더욱 바르게 헤엄쳤다. 인어들이 살고 있는 동굴집이 점점 더 많아졌다. 어떤 동굴집 주위에는 물풀로 꾸민 정원이 있었다. 심지어 애완용 그라인딜로우를 문 앞의 말뚝에 매 놓은 집도 있었다. 이제 온 사방에서 몰려온 인어들이 신기한 듯이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어들은 아가미와 물갈퀴가 달린 해리의 손을 가리키면서 서로 컷속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모퉁이를 돌아선 해리는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수많은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마을 앞 광장처럼 보이는 장소에 한 무리의 인어들이 모여서 헤엄을 치고 있었다. 그 중앙에서는 인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합에 참가한 챔피언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인어 합창단 뒤에는 거친 조각상 같은 것이 우뚝 솟아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바위를 잘라서 만든 거대한 인어상이었다. 그 인어 석상의 꼬리에는 네 사람이 꽁꽁 묶여 있었다.

론은 헤르미온느와 초 챙 사이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여덟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묶여 있었다. 그 소녀의 구름처럼 탐스러운 은빛 머리카락을 보자, 해리는 아마도 플뢰르 델라쿠르의 여동생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 사람 모두 아주 깊이 잠들어 버린 것 같았다. 머리는 어깨 위에 힘없이 쭉 늘어져 있었으며 입에서는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보글보글 흘러나왔다.

해리는 인어들이 당장이라도 창을 들고 자신을 위협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인질들이 묶여 있는 석상을 향해 빠르게 헤엄쳤다. 하지만 인어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인질들을 묶고 있는 밧줄은 물풀로 만든 것이었는데, 두껍고 미끄러웠으며 아주 튼튼했다.

그 순간 해리는 시리우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준 주머니칼을 떠올렸다. 그 주머니칼은 어떤 자물쇠라도 열 수 있고 어떤 매듭이라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주머니칼은 무려 400 미터나 떨어져 있는 성안의 가방 속에 암전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는 수많은 인어들이 해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해리는 재빨리 기다란 초록색 수염을 기르고 목에는 상어 이빨 목걸이를 두른 키가 2 미터 정도 되는 남자 인어를 향해서 다가갔다. 그리고 손짓 발짓으로 창을 빌려 달라는 시늉을 했다. 남자 인어는 깔깔 웃으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인어는 거칠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리 줘요!"

해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해리의 입에서는 거품만 보글보글 솟아날 뿐이었다. 해리는 인에게서 창을 빼앗으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얼른 뒤로 물러선 인어는 여전히 깔깔 웃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리는 물 속을 빙빙 돌면서 안타깝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무엇인가 날카로운 것을 찾아서…….

호수 바닥에서 돌이 반짝거렸다. 곧장 바닥으로 내려간 해리는 특히 날카로운 돌을 하나 집어들고 인어 석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론을 묶어 놓은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몇 분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겨우 밧줄이 끊어졌다. 의식을 잃은 론은 호수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위로 둉둥 떠올랐다. 그리고 물살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해리는 조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른 챔피언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그들은 월하고 있는 걸까? 왜 서둘러 오지 않는 걸까? 해리는 다시 헤르미온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날카로운 돌로 헤르미온느를 묶고 있는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장 억센 회색 손들이 해리를 붙잡았다. 대여섯 명의 인어들은 해리를 헤르미온느에게 강제로 떼어 놓았다. 그들은 깔깔 웃으면서 초록색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너는 이미 너의 인질을 구했어. 다른 인질들은 그냥 내버려둬……."

인어 중에 한 명이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해리의 입에서는 두 개의 커다란 물방울이 뿜어져 나올 뿐이었다.

"네 시험은 네 친구를 구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인질들은 건드리지 말란 말이야……."

"이 사람도 내 친구야." 해리는 헤르미온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해리의 입에서 거대한 은빛 물방울이 소리없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난 다른 사람들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초 창의 머리는 헤르미온느의 어깨에 쭉 늘어져 있었다. 조그만 은빛 머리 소녀의 얼굴은 유령처럼 시퍼렇고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해리는 인어와 싸우기 위해 두 팔을 벼둥거렸지만, 인어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웃으면서 해리의 등을 떠밀었다.

해리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대체 다른 챔피언들은 어디 있는 걸까? 과연 론을 데리고 호수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헤르미온느와 다른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 내려올 만한 시간이 있을까? 아니, 호수 밑바닥에 있는 인질들을 다시 찾을 수나 있을까? 해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보려고 손목 시계

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시계는 고장이 났는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해리를 둘러싸고 있던 인어들이 열심히 그의 뒤편을 손으로 가리켰다. 번쩍 고개를 든 해리의 눈에 케드릭 디고리가 인어 석상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따. 거대한 물방울이 케드릭의 머리 주위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의 얼굴은 아주 이상할 정도로 넓적하고 길게 보였다.

"길을 잃었어!" 케드릭이 입을 벌렸다. 무척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이었다.

"플

뢰르와 크룸도 지금 오고 있어!"

크게 안도하는 마음으로 해리는 케드릭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초 챙을 풀어 주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케드릭은 초 챙을 끌어안고 곧장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케드릭과 초 챙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다.

해리는 어서 빨리 다른 챔피언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플뢰르와 크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다. 황금알에서 흘러나온 노래에 따르면, 한 시간 후에 인질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인어들이 시끄럽게 깍깍거리기 시작했다. 해리를 꽉 붙잡고 있던 인어들도 손을 풀고 뒤를 돌아보았다. 힐끗 고개를 돌린 해리는 무언가 괴물 같은 것이 물살을 가르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상어 머리를 하고 있는 그 괴물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걸로 보아. 그 괴물의 정체는 바로 빅터 크룸임을 알 수 있었다. 크룸은 아마도 상어로 변신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상어인간은 곧장 헤르미온느를 향해 다가가더니 이빨로 그녀를 묶은 밧줄을 깊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크룸의 상어 이빨은, 돌고래보다 작은 물어뜯는 데는 서툴다는 것이 커다란 단점이었다. 만약 크룸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헤르미온느의 몸은 절반쯤 잘려 나가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자, 해리는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가서 크룸의 어깨를 세게 쳤다.

해리는 서둘러 크룸에 날카로운 돌조각을 건네주었다. 그것을 받아든 크룸은 열심히 헤르미온느의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곧 밧줄이 끊어지자, 크룸은 헤르미온느의 허리를 끌어 안고 뒤도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황급히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해리는 머리를 쥐어짰다. 플뢰르 델라쿠르가 확실히 온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직까지도 플뢰르는 나타날 기색이 없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단 한 가지 뿐이었다.....

해리는 크룸이 떨어뜨리고 간 돌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남자 인어들은 론과 어린 소녀를 둘러싼 채,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리는 품 속에서 요술 지팡이를 꺼내들었다.

"당장 비켜!"

이번에도 역시 해리의 입에서는 거품만이 부글부글 뿜어져 나왔다. 그렇지만 해리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인어들도 그의 뜻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었기 때문이다.

인어들의 노란 눈은 해리의 요술지팡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몹시 겁을 집어먹은 듯한 표정이었다. 물론 수로는 인어가 훨씬 더 많았다. 하지만 해리는 인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고 그들의 대왕 오징어만큼이나 마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을 세겠다!"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해리의 입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방울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해리는 손가락을 들어서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다. "하나....."(해리는 손가락 하나를 접었다) "둘....."(두 번째 손가락을 접었다)

갑자기 인어들이 뿔뿔이 도망쳐 버렸다. 해리는 황급히 앞으로 달려가서 여전히 동상에 묶여 있는 어린 소녀의 밧줄을 자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소녀가 풀려나자, 해리는 어린 소녀의 허리를 잡고 론의 목덜미를 움켜쥔 채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해리는 더 이상 물갈퀴가 달린 손을 휘저어서 앞으로 헤엄쳐 나갈 수가 없었다. 미친 듯이 두 다리를 베동거렸지만 론과

플뢰르의 여동생은 마치 감자를 잔뜩 집어넣은 포다 자루처럼 해리르 자꾸만 물 밑으로 끌어당겼다…….

해리는 하늘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머리 우로 보이는 수면이 어두운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인어들은 해리와 함께 물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인어들은 해리 주위를 자유롭게 빙빙 돌면서, 물 속에서 버둥거리고 있는 해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어들은 해리를 다시 물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혹시 사람을 잡아먹는 족속들은 아닐까? 해리의 다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쳤다. 론과 소녀를 붙잡고 있는 두 팔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다.

해리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숨을 헐떡거렸다. 다시 양쪽 목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너무나 또렷하게 입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어두운 수면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머리 위로 밝은 햇살을 볼 수가 있었다…….

해리는 물갈퀴가 달린 발을 더욱 열심히 움직였지만, 어느 한순간 그것이 다시 평범한 발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이 입으로 쏟아져 들어와 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해리는 머리가 핑핑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밝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는 불과 3미터 위에 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반

드시 가야한다……. 반드시…….

해리는 어찌나 격렬하게 발장구를 쳤는지,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머리 속까지 물이 짹 들어찬 느낌이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너

무나 절실하게…… 산소가 필요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야만 했다.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해리는 머리가 호수 위로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물에 흥뻑 젖은 해리의 얼굴을 찌르는 듯했다. 해리는 마치 이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신선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론과 어린 소녀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그와 동시에 초록색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인어들이 해리와 함께 수면 위로 불쑥 떠올랐다. 하지만 해리를 빙 둘러싼 인어들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관중석에 있는 군중은 야단법석이었다. 군중은 일제히 고함을 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들은 론과 어린 소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잠시 후 두 사람 모두 눈을 뜨다. 어린 소녀는 무척 당황해 하고 있었으며 잔뜩 겁에 질린 듯이 보였다. 하지만 론은 즉시 엄청난 양의 물을 토해 내더니 밝은 햇빛에 눈을 깜박이면서 해리를 돌아보았다. "온통 젖었군, 그렇지?" 그러다가 문득 론은 플뢰르의 여동생을 발견했다. "애는 뭐하러 데리고 왔어?"

"플뢰르 델라쿠르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냥 호수 밑에 내버려두고 올 수는 없잖아."

해리가 씩씩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했다.

"해리, 이런 명청이 같으니라구! 설마 그 노래를 진짜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 그래? 덤불도어 교수님이 설마 우리를 물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뒀겠니!"

론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 노래는 ……."

"그건 단지 너희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어! 네가 영웅 노릇을 하느라고 저 밑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론은 한심하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해리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었다. 론은 아주 멀쩡했다. 출곧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 호수 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당장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인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면서도……. 게다가 그

인어들은 날카로운 창까지 들고 있지 않았던가?

"자, 어서." 해리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날 좀 도와줘. 이 애는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것 같아."

해리와 론은 플뢰르의 여동생을 데리고 심판들이 지켜보고 서 있는 호숫가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20 여 명의 인어들이 마치 호위병처럼 그들을 둘러싼 채, 소름끼치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왔다.

해리는 호들갑을 떠나서 헤르미온느와 크룸, 캐드릭, 초 챙을 돌보고 있는 품프리 부인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두꺼운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덤블도어와 루도 베그만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해리와 론이 헤엄을 치면서 다가오고 있는 호숫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퍼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호수 안까지 첨벙거리면서 달려왔다. 그런 퍼시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아주 나이가 어린 꼬마처럼 보였다.

맥심 부인은 플뢰르 데라쿠르를 달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한 플뢰르는 깨물고 할퀴고 하면서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 살아 있니? 다친 건 아니니?"

"동생은 괜찮아!"

해리는 플뢰르에게 동생이 무사하다는 말을 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나 지쳐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퍼시는 론을 불잡더니 호숫가로 끌고 갔다. ("저리 비켜, 퍼시 난 괜찮아!" 론

이 투덜거리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덤�블도어와 루도 베그만은 해리를 부축해 주었다.

"그라인딜로우들이…… 나를 공격했어……. 오! 가브리엘, 나는 네가……
네가
그만……."

맥심 부인의 손을 뿌리친 플뢰르는 여동생을 꽉 끌어안았다.

"너희도 이리 오렴."

倜프리 부인은 다정하게 해리의 손을 잡고 헤르미온느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담요로 숨길 막힐 정도로 몸을 단단히 감싸 준 다음, 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오르는 약을 억지로 삼키게 했다. 그 순간 해리의 귀에서 뜨거운 김이 해어 나왔다.

"해리, 정말 잘했어! 마침내 해냈구나! 혼자 모든 걸 해결했어!"

헤르미온느가 감격한 듯이 소리쳤다.

"그게……."

해리는 헤르미온느에게 도비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득 카르카로프가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심판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심판은 오직 카르카로프 한 사람뿐이었다. 해리와 론, 플뢰르의 여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 심판도 오직 카르카로프뿐이었다.

"그래, 맞아. 내가 해냈어."

해리는 일부러 카르카로프의 귀에 들리도록 목청을 높이면서 말했다.

"네 머리에 딱정벌레가 붙었다. 헤르모-오운-니니."

빅터 크룸이 불쑥 끼어들었다. 해리는 크룸이 헤르미온느의 관심을 자기 쪽으로 도리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아마도 호수 속에서 헤르미온느를 구출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귀찬흔 듯이 머리에 붙은 딱정벌레를 탁탁 털어 버리고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너는 시간 제한을 어겼어. 해리……. 우리를 찾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니?"

"아니야…… 찾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

해리는 더욱더 자신이 명청하게 느껴졌다. 이제 호수 밖으로 나와서 곰곰이 생

각해 보니까, 조심성 많고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시하는 덤블도어가 단지 챔피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질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일이었던 것이다. 왜 론을 데리고 그냥 돌아오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제일 먼저 돌아왔을 텐데……. 케드릭과 크롬은 다른 인질들을 걱정하면서 공연히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어의 노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덤블도어는 호숫가에 쭈그리고 암장서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인어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인어는 특히나 사납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여자 인어였다. 덤블도어는 인어들이 물밖에 있을 때 내는 것과 똑같은 날카롭고 소름끼치는 소음을 내고 있었다. 인어의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몸을 일으킨 덤블도어는 동료 심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점수를 매기기 전에 먼저 잠깐 회의를 열어야겠습니다." 덤블도어의 요청에 따라 즉시 심판들은 회의에 들어갔다.

폼프리 부인은 퍼시의 손에서 론을 구해 내어 해리와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을 데려가더니, 론에게도 똑같이 두꺼운 담요와 페퍼럼 약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폼프리 부인은 다시 플로르와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

플로르는 얼굴과 팔 여기저기에 수많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리고 옷도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폼프리 부인이 상처를 닦아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

"가브리엘이나 돌봐 주세용." 플로르는 이렇게 말하면서 해리를 돌아보았다. "네가 내 동생을 구했어." 플로르는 숨도 쉬지 않고 빠르게 말했다. "네 인질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

사실 해리는 세 여자 모두 그냥 석상에 묶여 있도록 내버려두고 나올 걸 그랬다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중이었다.

플로르는 허리를 숙이더니 해리의 양쪽 뺨에 두 번 입을 맞추었다(해리는 얼굴이 확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다. 설사 다시 양쪽 귀에서 김이 솟는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너도 도와줬어."

플로르는 다시 론을 향해 눈길을 돌렸다.

"그래, 그래…… 약간이지만……."

론이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플로르를 바라보았다. 플로르는 다시 몸을 굽히더니 론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헤르미온느는 완전히 토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법에 의해 커다랗게 증폭된 루도 베그만의 목소리가 컷전을 때렸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올랐다. 관중석에 있던 군중들까지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어의 여왕인 머쿠스는 호수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챔피언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점수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플로르 델라쿠르입니다. 플로르 양은 거품 머리 마법을 멋지게 사용했지만 목표물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라인딜로우의 공격을 받고서 인질을 구해 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플로르 양에게 25 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다.

"나는 0 점을 받아양 했어."

플로르 델라쿠르가 눈부신 머리카락을 찰랑찰랑 흔들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다음은 케드릭 디고리입니다. 케드릭 군 또한 거품 머리 마법을 사용해서 제일 먼저 인질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한 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을 1분이나

넘겼지만 말입니다." 후풀푸프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해리는 초 챙이 황홀한 표정으로 케드릭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케드릭 군에게는 47 점을 주겠습니다."

해리의 심장이 덜컥 무너져 내렸다. 케드릭이 제한 시간보다 늦게 밖으로 나왔

다면, 해리 자신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다.

"빅터 크롬은 비록 불완전한 변신술을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인질을 데리고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크롬에게는 40 점을 주겠습니다."

카르카로프는 아주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특별히 요란하게 박수를 쳤다.

"해리 포터는 아가미 풀을 아주 훌륭하게 사용했습니다." 루도 베그만은 잠시 뜻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포터 군은 제일 늦게 돌아왔으며 제한 시간인 한 시간을 훨씬 더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어 여왕은 우리에게 포터 군이 제일 먼저 인질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해리 군이 제일 늦게 돌아왔던 이유는 자신의 인질뿐만 아니라 다른 인질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거의 동시에 짜증과 동정심이 절반씩 섞인 표정으로 해리를 쳤다.

"심판들 대부분이……." 이 대목에서 루도 베그만은 카르카로프를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훑겨보았다. "이런 행동이야 말로 만점을 받고도 남을 만한 도덕적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터 군의 점수는 45 점입니다."

다."

그 순간 해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케드릭과 동점을 이루게 된 것이다. 감짝 놀란 론과 헤르미온느는 한참 동안이나 명하니 해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면서 다른 관중들과 함께 열렬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해리, 잘 했어!" 론이 환호성보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결국 너는 바보 짓을 한 게 아니었어! 너는 도덕성을 보여 준 거야!"

플뢰르도 열심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크롬은 별로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크롬은 헤르미온느에게 다시 말을 걸려고 했지만, 해리와 함께 기뻐하느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틈이 없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6 월 24 일 저녁에 치러질 것입니다." 루도 베그만이 목

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다. "챔피언들은 정확히 한 달 전에 어떤 시험이 치러질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챔피언들을 응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끝났구나! 해리는 머리가 빙빙 도는 와중에도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폼프리 부인은 챔피언과 인질들을 빨리 성으로 데려가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황급히 서둘렀다. 이제 끝났어. 무사히 해낸 거야……. 이제는 6 월 24 일

까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성으로 들어가는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해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다음번에 호그스미드에 가게 되면 양말을 잔뜩 사서 1년 동안 날마다 도비에게 한 컬레씩 선물해야지.

제 27 장 돌아온 패드풋

두 번째 시험이 남긴 여파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모든 학생들이 호수 밑에서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듣고 싶어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론이 처음으로 해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해리는 론의 상황 설명이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처음에 론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어쨌거나

그것은 헤르미온느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론은, 덤블도어가 맥고나걸 교수의 사무실에서 모든 인질들에게 마법을 걸어서 잠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물론 덤블도어는 인질들에게 절대로 안전할 것이며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물 위로 돌아와 있을 거라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론은 무시무시한 납치극으로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려 50여 명이나 되는 중무장을 한 인어들이 론을 마구 때리면서 밧줄로

묶으려고 하자, 그는 혼자 몸으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치열한 헐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소매 밑에 요술지팡이를 감춰 놓고 있었어." 파드마 패틸을 만나자, 론은 더욱 신나게 떠들었다. 파드마는 이제 론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자, 론에게 더욱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을 걸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저 멍청한 인어들을 잡아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할 건데?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려주려는 거야?"

헤르미온느가 론을 훑겨보면서 특 쏘아붙였다. 이번 시험으로 인해 막터 크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헤르미온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녀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의 놀림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헤르미온느는 요즘 들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헤르미온느가 비꼬듯이 말하자, 론은 그만 귀까지 뚫게 물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마법의 잠에 빠졌다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다.

3월이 되자, 날씨가 차츰차츰 건조해졌다. 하지만 잔인한 바람은 학생들이 운

동장으로 나갈 때마다 손과 얼굴을 칼로 에는 듯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도 자ぐ나 지연되었다. 부엉이들이 세찬 바람에 날려서 진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호그스미드로 가는 날짜를 적어서 시리우스에게 보낸 갈색 부엉이는 깃털이 전부 거꾸로 곤두선 채, 금요일 아침식사 시간에 도착했다. 부엉이는 해리에게 편지를 전달하자마자 서둘러 부엉이장으로 날아가 버렸다. 해리가 또다시 심부름을 시켜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나가게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재빨리 시리우스의 답장을 뜯어 보았다. 시리우스의 편지는 이전 편지 만큼이나 짧았다.

토요일 오후 2시에 호그스미드 거리 제일 끝쪽(더비시와 뱅스를 지나서)에 있

는 계단 울타리로 나오거라, 가능한 한 음식을 많이 가져오렴.

"하지만 시리우스는 호그스미드에 오면 안 되잖아?"

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꼭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헤르미온느가 걱정하며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해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무사했잖아. 게다가 호그스미드는 더 이상 디멘터들이 우글거리는 곳도 아니잖아."

론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다. 해리는 편지를 접은 후 잠시 생각에 빠졌다. 솔직히 말해서 해리는 진심으로 시리우스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다. 그러므로 그날 오후의 마지막 수업인 마법의 약 시간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다.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은 팬시 파킨슨이 이끄는 슬리데린 기숙사의 여학생 깡패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가는 문 밖에서 머리를 맞대고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해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큰 소리로 킁킁거렸다. 해

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고일의 넓적한 등 너머로 잔뜩 흥분한 팬시 파킨슨의 돼지 같은 얼굴이 보였다.

"저기 왔다! 저기 왔어!"

팬시 파킨슨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거렸다. 한 곳에 모여 있던 슬리데린 아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리는 팬시 파킨슨의 손에 들려 있는 잡지를 훨씬 쳐다보았다. 그 잡지는 《마녀 주간지》였다. 잡지 앞장에는 움직이는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곱슬머리 마녀가 이를 다 드러내 놓고 활짝 웃으면서 요술지팡이로 커다란 스펜지 케이크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레인저, 여기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실렸어. 매우 흥미로울 거야."

팬시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들고 있던 잡지를 헤르미온느에게 던졌다. 헤르미온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잡지를 받아들었다. 바로 그때 교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스네이프가 학생들에게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헤르미온느와 해리, 론은 평상시처럼 교실 제일 뒤쪽으로 향했다. 스네이프가 돌아서서 칠판 위에 오늘 만들게 될 마법의 약 성분을 쓰는 틈을 타, 헤르미온느는 책상 밑에 감춘 잡지를 재빨리 뒤적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가운데 부분에서 찾고 있던 기사를 발견했다.

남몰래 실연당한 해리 포터

짧은 제목 위에 해리의 컬러 사진이 실려 있었다. 해리와 론은 헤르미온느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남다른 소년 해리 포터,

그러나 그도 보통의 청춘남녀가 겪는 고통을 겪고 있다.

-리타 스키터 기자

부모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로 줄곧 사랑에 굽주려 있던 열 네 살 소년 해리 포터는, 호그와트에서 만난 여자 친구인 머글 태생의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로부터 참다운 위안을 찾았다고 생각해 왔다. 부모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상실감으로 이미 한 차례 폭풍우를 겪은 해리 포터는, 자기 인생에서 머지않아 또 다른 감정적인 시련을 맞게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평범하지만 야심 많은 여학생 그레인저 양은 유명한 마법사에 대한 특별한 취향이 있는 듯, 해리 하나만으로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호그와트에 불가리아의 수색꾼이며 지난 퀴디치 월드컵의 영웅인 빅터 크롬이 도착 하자, 그레인저 양은 두 소년 모두의 애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교활한 그레인저 양에게 훌딱 빠져 버린 빅터 크롬은, 여름 방학이 되면 불가리아로 찾아오라고 이미 그녀를 초대해 놓은 상태. 그리고 '다른 어떤 여학생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하지만 이 불행한 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레인저의 타고난 매력 때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 애는 정말 못생겼어요." 아름답고 생기발랄한 4학년 여학생 팬시 파킨슨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랑의 묘약은 아주 잘 만들 거예요. 머리는 꽤 좋거든요. 바로 그게 그 애가 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의 묘약은 호그와트에서 금지된 사항이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틀림없이 이 주장에 대해 조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해리 포터가 잘되기 를 비는 사람들은, 다음 번에는 좀더 가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길래 내가 뭐랬어! 리타 스키터의 성미를 건드리지 말랬잖아! 그 여자는 너를 일종의…… 흥등가의 여자처럼 그려놨어!"

정신없이 기사를 읽고 있는 헤르미온느에게 론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높이 나간 듯한 표정에서 깨어나면서 코웃음을 쳤다.

"흥등가의 여자라구?"

헤르미온느가 론을 쳐다보면서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론이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면서 중얼거렸다. 론의 얼굴은 귀까지 빨갛게 물들었다.

"만약 리타가 할 수 있는 짓이 고작해야 이런 것뿐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워. 낡은 쓰레기야."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칙칙거리면서 《마녀 주간지》를 비어있는 옆자리에 던져 놓았다. 그리고는 슬리데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을 힐끗 넘겨다 보았다. 그들은 모두 교실 반대편에서 헤르미온느와 해리가 그 기사를 보고 잔뜩 약이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헤르미온느는 그들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헤르미온느와 해리, 론은 머리를 좋게하는 마법의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참 웃긴다. 리타 스키터가 어떻게 알았지?"

10 분 가량 지난 후에 헤르미온느가 풍뎅이가 담긴 절구 위로 공이를 치켜든 채, 불쑥 말을 꺼냈다.

"도대체 뭘 알았다는 거야? 네가 정말로 사랑의 묘약을 만든 건 아니겠지? 안 그래?"

론이 재빨리 물었다.

"한심한 소리 좀 하지 마." 헤르미온느는 다시 풍뎅이를 빨기 시작했다. "내 말

은 그게 아니라…… 빅터가 나한테 여름 방학 때 불가리아로 놀러오라는 말을 한 걸 리타가 어떻게 알았는냐는 거야."

그 순간 헤르미온느의 얼굴은 흉당무가 되었다.. 그리고 론의 눈길을 애써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구?"

론이 쿵 소리를 내면서 공이를 떨어뜨렸다.

"빅터가 호수에서 나를 끌어낸 직후에 나한테 물더라. 물론 상어 머리를 벗어던진 후에 말이야. 폼프리 부인이 담요를 갖다 준 다음에 크룸이 나를 심판석에서 약간 띄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말했어. 여름 방학 동안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한 번 오지 않겠느냐고……."

헤르미온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다시 공이를 집어든 론이 절구통에서 거의 15 센티미터나 떨어진 책상위를 쿵쿵 내려치면서 물었다. 론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빅터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 본 적이 결코 없었다고 말했어. 하지만 리타 스키터가 어떻게 크룸의 말을 들었을까? 리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혹시 있었던게 아닐까? 어쩌면 투명 망토를 입고 나타났었는지도 몰라. 두 번째 시험을 구경하려고 몰래 운동장으로 들어왔는지도……."

말을 이어가는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어찌나 빨갛게 달아올랐는지 해리는 그녀의 몸에서 후끈후끈한 열기를 느낄 정도였다.

"그래서 넌 뭐라고 그랬는데?"

론은 어찌나 세게 공이를 내려쳤는지, 책상 위에 움푹 파인 자국이 생겼다.

"음, 그때 나는 어와 해리가 무사한지 어떤지 알아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틀림없이 사교 생활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레인저 양." 얼음처럼 차가운 스네이프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바람에 세 명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 수업시간에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군. 그리핀도르 10 점 감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가 떠드는 동안 스네이프가 몰래 그들의 책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그들을 돌아보았다. 말포이는 기회

를 놓치지 않고 해리를 향해 포터는 야비하다!라는 배지를 비추었다.

"아하……. 책상 밑에서 잡지책까지 읽고 계셨군?" 스네이프가 《마녀 주간지》를 확 잡아채면서 말을 덧붙였다. "그리핀도르에게 다시 10 점 감점……. 하

지만 물론……." 리타 스키터의 기사를 발견하자, 스네이프의 검은 눈동자가 차갑게 번뜩였다. "포터는 자신이 나온 기사를 오려 두고 싶겠지……."

슬리데린의 웃음 소리가 침침한 지하 교실을 가득 채웠다. 스네이프의 가느다란 입술에 기분 나쁜 미소가 어렸다. 스네이프는 해리르 자극하기 위해 기사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남몰래 실연당한 해리 포터……. 오! 이런, 이런, 포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냐? 남다른 소년 해리 포터, 그러나……."

해리는 얼굴이 화끈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네이프는 슬리데린 학생들이 실컷 비웃을 수 있도록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렸다. 스네이프가 읽어주는 리타 스키터의 기사는 열 배나 더 치욕적이고 기분 나쁘게 들렸다.

"해리 포터가 잘되기를 비는 사람들은, 다음 번에는 좀더 가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너무나 감동적이로군."

스네이프가 히죽히죽 웃으면서 잡지를 둘둘 말았다. 슬리데린 학생들의 웃음 소리는 도무지 그칠 줄을 몰랐다.

"자, 나는 너희 세 사람을 각자 떼어 놓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복잡한 연애 생활보다는 마법의 약에 더욱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니? 위즐리, 너는 이 자리에 그냥 앉거라 그레인저 양은 저쪽으로 가. 파킨슨 양 옆자리에……. 그리고 포터, 너는…… 내 책상 바로 앞자리다. 어서 움직여 라."

잔뜩 화가 난 해리는 마법의 약 재료와 가방을 큰 냄비 안에 던져 넣은 후에 지하 교실의 제일 앞쪽에 놓여 있는 책상으로 냄비를 끌고 갔다. 그 뒤를 따라온 스네이프는 교탁에 앉아서 해리가 냄비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절대로 스네이프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해리는 다시 풍뎅이를 열심히 짓이기기 시작했다. 그 벌레 한 마리 한 마리가 스네이프의 얼굴이라고 상상하면서…….

"이런 모든 언론의 관심이 이미 지나치게 커져 있는 네 머리통을 더욱 부풀려 놓은 것 같구나."

교실의 학생들이 다시 조용해지자, 스네이프는 냉정하게 말했다.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스네이프는 지금 해리를 화나게 만들어, 수업이 끝나기 전에 그리핀도르에게서 적어도 50 점 이상 빼앗을 수 있는 핑계를 찾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너는 아마도 마법 세계 전체가 너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스네이프는 계속 해서 말했다. 스네이프의 목소리가 어찌나 나지막했던지, 해리 이외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이미 풍뎅이는 고운 가루가 되었지만, 해리는 여전히 벌레를 빽고 있었다). "하지만 나

는 제 사진이 신문에 얼마나 자주 실리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내겐 포터……, 너는 그저 항상 규칙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꼬마에 불과하단 말이다."

해리는 풍뎅이를 빽아서 만든 가루를 냄비 안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생각 뿌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마구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해리는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마지 스네이프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포터, 너에게 분명히 경고하겠다. 만약 한 번만 더 내 사무실에 침입한 것이 들동나는 날이면, 그때는 네가…… 아무리 유명인사라고 하더라도……."

스네이프는 더욱 나지막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교수님 사무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스네이프의 말이 들리지 않는 척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해리는 벼락 소시를 질렀다.

"거짓말하지 마라! 오소리 가죽과 아가미 풀. 두 가지 모두 내 개인 사물함에 있던 거야. 그리고 나는 누가 그걸 훔쳤는지 알고 있다."

스네이프가 해리를 노려보면서 속삭였다. 한없이 어두운 스네이프의 검은 눈동자가 해리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스네이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절대로 눈을 깜박이거나 죄를 지은 듯한 표정을 보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사실 두 가지 모두 해리가 훔친 것은 아니었다. 오소리 가죽은 그들이 2학년 때 헤르미온느가 훔친 것이었

다.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것이다. 그때도 스네이프는 해리를 의심하기는 했지만, 절대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다. 물론 아가미 풀은 도비가 훔친 게 분명했다.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해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네가 한밤중에 숙소에서 나와서 내 사무실에 침입했잖아! 난 알고 있어, 포터! 아마 매드아이 무디도 네 팬클럽에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너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어! 한 번만 더 밤중에 내 사무실로 기어들어 오면, 너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게다!"

"알았어요! 만약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땐 교수님 말씀을 명심하죠."

해리가 생각 뿌리로 고개를 돌리면서 냉정하게 대답했다. 스네이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스네이프는 검은 옷자락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잠시 동안 해리는 스네이프가 요술지팡이를 꺼내서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스네이프는 아주 투명한 약인 담긴 작은 크리스탈 병을 꺼냈다. 해리는 그 병을 바라보았다.

"포터, 이게 뭔지 아니?"

스네이프의 차가운 눈빛이 위협적으로 번뜩였다.

"아뇨."

이번에는 정말로 솔직한 대답이었다.

"이건 베리타세룸이다. 진실의 마법약이지. 어찌나 강력한지 단 세 방울만 먹으면, 너는 학생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너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다 털어 놓게 될 게다." 스네이프는 악의 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이 약의 사용은 마법부의 엄격한 지침에 따란 통제되고 있지, 하지만 만약 네가 저녁 식사 때 먹는 호박 주스에 이 약을 훌리지도 모르겠구나." 스네이프는 크리스탈 병을 살짝 흔들었다. "그렇게 되면, 포터……. 만약 그렇게 되면 네가 내 사무실에 들

어왔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지."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생각 뿌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고 잘게 썰기 시작했다. 진실의 마법약이라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스네이프가 그 약을 자기에게 먹이는 것은 더구나 참을 수 없었다. 만약 그 약을 먹었을 때, 자기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말들을 생각하면……. 해리는 부르르 온몸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여러 사람들이…… 우선 헤르미온느와 도비부터…… 곤경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리우스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과(이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뱃속이 뒤틀렸다) 초 챕에 대한 자신의 감정…….

해리는 잘게 썬 생강 뿌리도 냄비 안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부터 무디를 본받아서 휴대용 물병에 담긴 것만 마셔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지하 교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스네이프가 평소와 같이 대답했다.

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다. 카르카로프교수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는 가운데 카르카로프가 스네이프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몹시 불안한 듯이 엉소 수염을 손가락으로 비비고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카르카로프가 스네이프를 쳐다보면서 불쑥 말을 꺼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입술을 거의 벌리지 않고 중얼거렸다. 마치 형편없는 복화술사가 말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계속 생각 뿌리를 내려다보면서 그들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카르카로프. 수업이 끝난 후에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네."

스네이프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카르카로프는 스네이프의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네. 자네가 날 피할 수 없을 때 말이야. 세베루스, 자네는 줄곧 나를 피하고 있지 않은가?"

"수업이 끝난 후에 보자구."

스네이프가 딱 잘라 말했다. 아르마딜로의 담즙을 충분히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량컵을 드는 척하면서, 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카르카로프는 굉장히 안절부절못하고 있었고 스네이프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카르카로프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스네이프의 책상 뒤에서 서성거렸다. 수업이 끝난 후에 스네이프가 살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해리는 카르카로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기 불과 2분 전에 아르마딜로의 담즙이 들어 있는 병을 일부러 넘어뜨렸다. 그걸 핑계로 다른 학생들이 우르르 교실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마루를 닦는 척하며 냄비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을 속셈이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는 거지?"

스네이프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 때문이라네." 카르카로프가 말했다. 냄비 너머로 살그머니 고개를 내민 해리는 카르카로프가 왼쪽 옷소매를 걷어 옮겨서 스네이프에게 팔 안쪽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어떤가? 자네도 봤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명했던 적은 없었어.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카르카로프는 여전히 입술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다.

"당장 치워!"

스네이프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날카로운 검은 눈으로 황급히 교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자네는 이미 눈치챘을 텐데……."

카르카로프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 문제라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가, 카르카로프!" 스네이프가 딱 잘라 말했다. "포터!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아르마딜로의 담즙을 닦고 있어요. 교수님."

해리는 태연하게 몸을 일으키면서 손에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를 보여주었다. 카르카로프는 획 돌아서더니 성큼성큼 교실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는 화가 나면서도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두운 지하 교실에서, 더구나 잔뜩 성이 난 스네이프와 단 둘이 남아 있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해리도 서둘러 가방 안에 책과 마법의 약재료들을 주워 담고 최대한 빨리 교실을 벗어났다. 한시바삐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방금들은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다.

다음날 정오에 성을 떠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은빛 햇살이 힘없이 내리비치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날씨는 눈에 띄일 정도로 따뜻해져서 호그스미드에 도착할 무렵이 되자 그들은 망토를 벗어서 어깨에 걸쳐야만 했다. 시리우스가 가져오라고 부탁했던 음식은 해리의 가방안에 잔뜩 들어 있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닭다리 열두 쪽과 커다란 뺑 한덩어리 그리고 호박 주스가 담긴 음료수 병 하나를 슬쩍해서 가져 온 것이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우선 도비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글래드래그스 마법사 옷가게에 들어갔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한, 가장 요란하고 화려한 양말을 고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는 반짝이는 금별과 은별무늬가 박힌 양말과 발냄새가 너무 심하여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양말도 있었다. 잠시 후에 그들은 더비시와 뱅스 가게를 지나서 마을 변두리를 향해 하이 거리를 올라갔다.

해리는 지금까지 이쪽으로는 한 번도 와 본적이 없었다.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가니까 호그스미드를 빙 둘러싸고 있는 거친 황야 지대가 나타났다. 이곳에는 아주 넓은 정원이 딸린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들은 호그스미드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는 산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서자, 오솔길이 끝나는 지점에 계단 울타리가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계단의 제일 꼭대기에는 모집이 아주 크고 털이 북실북실한 검은 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입에 신문을 물고 있는 그 개의 모습은 어쩐지 낯이 익었다…….

"시리우스, 안녕!"

검은 개 앞에 도착한 해리는 먼저 인사를 했다. 해리의 가방에 코를 들이대고 킁킁 열심히 냄새를 맡던 검은 개가 꼬리를 살랑거렸다. 그리고 뒤돌아서더니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바위가 많은 산 밑까지는 야트막한 관목이 자라는 벌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계단 울타리를 넘어서 검은 개의 뒤를 따라갔다.

시리우스는 바로 산 밑까지 그들을 인도했다. 그곳은 온통 둥근 바위와 자갈들이 깔려 있었다. 네 발로 걸어가는 시리우스는 아주 손쉽게 지나갈 수 있었지만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이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리우스를 따라서 좀더 높은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시리우스의 살랑거리는 꼬리를 쫓아서 그렇게 거의 30분 가량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가파르고

구불구불하고 자갈이 깔린 언덕길을 올라가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해리는 어깨에 둘러메고 있는 무거운 가방 끈이 실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시리우스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시리우스가 없어진 곳으로 다가가자, 바위 사이로 약간 벌어진 틈이 보였다. 간신히 그 틈으로 들어간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서늘하고 어둠침침한 동굴을 발견하고는 동굴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동굴 끝에는 커다란 히포그리프 한 마리가, 단단한 바위에 매 놓으 밧줄에 묶여 있었다.

몸의 절반은 말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절반은 거대한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벅벅은 그들을 보자 날카로운 오렌지색 눈을 번뜩였다. 세 사람은 일제히 허리를 숙이면서 벅벅에게 인사를 했다. 한참 동안이나 거만하게 그들을 쳐다본던 벅벅은 비늘이 덮여 있는 무릎을 굽혔다.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 깃털로 덮여 있는 벅벅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검은 개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검은 개가 해리의 대부로 모습을 바꾸었다.

시리우스는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아즈카반에서 도망쳤을 때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지난 번에 벅난로 속에서 나타났을 때보다 더욱 길게 자란 검은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뒤엉킨 채 산발이 되어 있었으며, 얼굴도 야위어서 아주 훌쭉했다.

"닭고기로구나!"

시리우스는 입에 물고 있던 오래된 『예언자 일보』를 동굴 바닥으로 내던지면서 잔뜩 쉰 목소리로 외쳤다.

해리는 서둘러 가방을 열고 닭다리와 뺑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시리우스에게 건네주었다.

"고마워." 보따리를 풀어헤친 시리우스는 닭다리 하나를 움켜쥐고 동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빨로 커다란 살점을 덥석 물어뜯었다. "그동안 주로 생쥐를

잡아먹고 살았어. 호그스미드에서는 음식을 많이 훔칠 수가 없거든.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까 말이야."

시리우스는 해리를 보고 씩 웃었다. 하지만 해리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여기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시리우스?"

해리가 물었다.

"대부로서 내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 시리우스가 굶주린 개처럼 닭뼈다귀를 뜯어먹으면서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길을 잊어버린 아주 사랑스러운 개인 척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시리우스는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 좀더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나는 너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단다. 지난번에 보낸 너의 편지는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일이 점점 더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나는 매번 누군가가 보고 버린 신문을 주워오곤 하는데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나 뿐만은 아니더구나."

시리우스가 동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누렇게 변색된 《예언자 일보》를 턱으로 가리켰다. 론은 그 신물을 집어 들어서 펼쳐 보았다. 하지만 해리는 여전히 시리우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만약 붙잡히기라도 하면요? 누군가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요?"

"이 근처에서 내가 아는 애니마구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희 세 사람과 덤불도 어뿐이야."

시리우스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계속해서 닭다리를 뜯어먹었다. 론은 해리를 쿡쿡 찌르더니 신문을 건네주었다. 신문은 두장뿐이었다. 한 장에는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 의문의 병을 앓다'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마법부'

소속 마녀 아직도 실종 중-현 마법부 장관도 개인적인 관련이 있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해리는 크라우치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았다. 몇 구절은 뛰어 넘어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11월 이후로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던.....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법 질병과 상해를 다루는 성 봉고 병원은 여기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마법부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를 거부.....

"이 기사를 보면, 마치 크라우치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크라우치는 절대로 그정도는 아니에요."

해리가 천천히 말했다.

"저희 형은 크라우치의 개인 보좌관이에요. 그런데 형은 크라우치가 과로 때문에 아픈 거래요."

론이 시리우스에게 알려 주었다.

"내가 지난번에 가까운 거리에서 봤을 때에도 크라우치는 정말 아픈 것처럼 보였어요. 내 이름이 불의 잔에서 나왔던 바로 그날 밤에도....."

해리가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말했다.

"윙키를 해고하더니 천벌을 받은 거야. 그렇지 않니? 장담하건대 그 사람은 지금쯤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거야. 윙키가 곁에서 돌봐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겠지."

헤르미온느가 적의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헤르미온느는 시리우스가 던진 닭뼈다귀를 우두둑 씹어먹고 있는 벅벅을 쓰다듬고 있었다.

"헤르미온느는 꼬마 집요정들 문제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론이 못마땅한 시선을 헤르미온느에게 던지면서 시리우스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헤르미온느의 말에 관심을 보였다.

"크라우치가 꼬마 집요정을 해고했다구?"

"그래요, 퀴디치 월드컵 때요."

해리는 어둠이 표식이 나타났던 것과 해리의 요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던 윙키를 발견한 것, 그리고 크라우치가 얼마나 분노했던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었다. 해리가 이야기를 끝내자, 시리우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동굴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먼저 이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자. 너희들은 제일 처음 일등석에서 그 고마 지묘정을 보았어. 그 꼬마 집요정은 크라우치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그렇지?"

잠시 후에 시리우스가 새로운 닭다리를 집어 들면서 말했다.

"맞아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크라우치는 시합에 나타나지 않았지?"

"그래요, 저는 크라우치가 너무 바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시리우스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동굴 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해리, 일등석에서 떠나기 전에 네 호주머니 속에 요술지팡이가 들어 있는지 살펴봤니?"

"음……." 해리는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다. "아니요. 숲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요술지팡이를 써야 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안에는 만능 망원경밖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해리는 시리우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둠의 표식을 불러낸 사람이 일등석에서 제 요술지팡이를 훔쳤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시리우스가 해리를 응시하면서 대답했다.

"그렇지만 윙키는 요술지팡이를 훔치지 않았어요!"

헤르미온느가 반박하면서 소리쳤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비단 꼬마 집요정만이 아니야. 해리 네 뒤에 또 누가 앉아 있었지?"

시리우스는 눈썹을 찡그린 채, 계속해서 서성거렸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가리아 장관들과 코넬리우스 퍼지……. 그리고 말포이 가족……."

해리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대답했다.

"말포이 가족! 루시우스 말포이가 틀림없어요!"

갑자기 론이 소리쳤다.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론의 목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벅벅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발딱 치켜들었다.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아니야. 또 있었어. 루도 베그만 씨가 있었잖아."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오, 그래……."

"나는 베그만이 웰본 와스프 팀의 몰이꾼이었다느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은 어떻지?"

시리우스가 여전히 동굴 안을 걸어다니면서 물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트리위저드 시합 중에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단 말이니?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시리우스가 잔뜩 눈살을 찌푸렸다.

"그저 제가 좋아서 그런다고 했어요."

해리가 대답했다.

"음."

시리우스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어둠의 표식이 나타나기 직전에 숲속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헤르미온느가 시리우스에게 말하고는, 해리와 론을 돌아보았다. "기억나지 않니?"

"그래, 하지만 베그만은 숲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 안 그래? 우리가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자마자 당장 캠프장으로 달려갔잖아."

론이 말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어디로 순간이동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구?"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되물었다.

"헛소리 좀 그만 해. 그렇다면 너는 루도 베그만이 어둠의 표식을 불러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윙키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욱 의심스럽지."

헤르미온느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말했죠? 헤르미온느는…… 꼬마 집요정이라면 그저……."

론이 시리우스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졌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손을 들어서 론의 입을 막았다.

"어둠의 표식이 나타나고 꼬마 집요정이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든 채 발견되었을 때, 크라우치는 어떻게 행동했지?"

"덤불 속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해리가 말했다.

"물론 그랬겠지. 그 사람은 자신의 꼬마 집요정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겠지……. 그런 다음에 꼬마 집요정을 해고해 버렸니?"

시리우스가 여전히 서성거리면서 중얼거렸다.

"네. 그 꼬마 집요정을 해고해 버렸어요. 단지 텐트에 남아 있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해서……."

헤르미온느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헤르미온느. 제발 꼬마 집요정 생각 좀 그만 할 수 없니?"

론이 짜증스런 듯이 소리를 질렀다.

"론, 헤르미온느는 너보다 크라우치를 더욱 잘 파악하고 있어." 시리우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 아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된단다."

시리우스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수염이 텁수룩하게 자란 얼굴을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그 동안 줄곧 바티 크라우치는 없었어……. 그 사람은 일부러 꼬마 집요정에게 퀴디치 월드컵의 관람석을 지키고 있으라는 명령까지 내려 놓고는 경기를 구경하려 나타나지도 않았단 말이야. 또 트리위저드 시합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더니 갑자기 이 시합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것은 전혀 크라우치답지 않은 행동이야. 만약에 단지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일을 쉰 적이 있었다면 나는 벅벅을 잡아먹겠어."

"혹시 크라우치를 잘 아시나요?"

해리가 물었다. 갑자기 시리우스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다. 시리우스는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아주 무시무시하고 사납게 모였다. 그때 해리는 시리우스가 살인자라고 믿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지. 나를 아즈카반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크라우치야. 단 한 번의 재판도 없이 말이지."

시리우스가 나지막이 말했다.

"뭐라구요?"

론과 헤르미온느가 동시에 소리쳤다.

"농담이겠죠!"

해리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정말이란다." 시리우스는 다시 닭다리를 덥석 깨물었다. "크라우치는 예

전에 마법사 법률 강제 집행부 부장이었단다. 너희들은 몰랐니?"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일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사람은 차기 마법부 장관으로 첫 번째 물망에 올랐었지." 시리우스가 말했다. "바티 크라우치. 그 사람은 위대한 마법사였어. 아주 강력한 마법의힘을 갖

고 있었고 권력에 굶주려 있었지. 오, 물론 볼드모트의 협력자는 결코 아니었던다." 해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알아차린 시리우스가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야, 바티 크라우치는 항상 어둠의 마법에 대해서 공공연히 반대하고 다녔지. 하지만 그때는 어둠의 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너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게다……. 너희들은 너무 어리니까……."

"저희 아빠도 퀴디치 월드컵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를 한번 믿어 보세요.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론은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다. 시리우스의 야원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너희들을 믿어 보지……." 시리우스는 다시 동굴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볼드모트의 힘이 아주 강력하다고 한번 상상해 보거라. 누가 볼드모트의 협력자인지, 누가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고 누가 그 사람의 편이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볼드모트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본인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과 친구까지도 모두 두려워하게 될 게다. 매주 더 많은 죽음과 더 많은 실종과 더 많은 고문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혼란에 빠진 마법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머글들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머글들도 죽어간다. 온 사방에 공포가 가득 차게 되고…… 두려움과…… 혼돈이…… 바로 옛날이 그랬단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시리우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래, 그런 시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였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었지. 처음에 크라우치의 방침은…… 제법 괜찮았던 모양 이야……. 나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람은 마법부 내에서 승승장구했어. 그리고 볼드모트의 협력자들에게 아주 가혹한 처분을 내리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지. 오러들에게는 새로운 권한이 주어졌지. 예를 들자면 생포하기보다는 죽일 수 있는 권한 같은 것 말이야. 재판도 없이 디멘트들의 손으로 곧장 넘겨진 사람은 비단 나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크라우치는 폭력과 싸우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지. 그리고 용의자에게 용서할 수 없는 저주를 내리는 것을 합법화했단다. 크라우치는 점점 어둠의 마법사만큼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 갔어. 물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가 마법부 장관이 되어야만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마법사도 많았지. 마침내 볼드모트가 사라졌을 때, 크라우치가 마법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

시리우스가 쓱쓱하게 미소를 지었다.

"크라우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 죽음을 먹는 자 무리와 함께 불잡혔던 거야. 그들은 아즈카반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지. 틀림없이 볼드모트를 찾아서 다시 힘을 되찾게 하려고 했었어."

"크라우치의 아들이 불잡혔단 말인가요?"

헤르미온느가 입을 딱 벌렸다.

"그래. 늙은 바티로서는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사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좀 있어야 했는데 말이야. 가끔씩이라도 좀 일찍 퇴근해서 자기 아들에게 환심을 가져주고 했어야 되는거 아니야?"

벽璧에게 닭뼈다귀를 훑 던진 시리우스는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빵덩어리를

집어들더니 절반을 뚝 떼어 마치 늑대처럼 덥석덥석 뜯어먹기 시작했다.

"크라우치의 아들이 죽음을 먹는 자였나요?"

해리가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아이가 아즈카반으로 끌려왔을 때, 나도 그 감옥에 있었어.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야. 내가 목숨을 걸고 장담하지만, 그 아이와 함께 불잡힌 사람들은 분명히 죽음을 먹는 자들이었어. 하지만 어쩌면 그 아이는 우연히 때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윙키라는 그 꼬마 집요정처럼 말이야."

시리우스가 빵을 입 속으로 쑤셔 넣으면서 대답했다.

"크라우치는 자기 아들을 구해 내려고 했었나요?"

헤르미온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리우스는 마치 개가 짖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크라우치가 자기 아들을 구해? 헤르미온느, 그래도 너만은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크라우치는 자신의 명망에 해를 입힐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차없이 없애 버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마법부 장관이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 너는 그 사람이 단지 어둠의 표식과 자신을 연관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신적인 꼬마 집요정을 해고나는 걸 봤잖니? 그걸 보고도 크라우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니? 크라우치가 갖고 있는 부성애라는 건 고작해야 아들에게 한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었어. 결과적으로 그 재판은 크라우치에게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증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만 제공한 셈이 되었지만 말이야……. 그 사람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장 아들을 아즈카반으로 보냈어."

"자기 아들을 디멘터에게 조냈단 말인가요?"

해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물었다.

"바로 그랬단다." 시리우스는 이제 전혀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다. "나는 디멘터

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어. 내가 감금되어 있던 감방의 창살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지. 그 아이는 겨우 열아홉 살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어. 그 아이는 내가 있던 감방 근처에 수감되었는데, 밤마다 엄마를 찾으면서 비명을 질렀지. 그리고 며칠 후에는 조용해졌어……. 그래, 결국에는 모두들 조용해지기

마련이지……. 꿈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만 제외하면……."

잠시동안 시리우스의 눈빛이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초점을 일행 T 다. 마치 눈동자의 망막이 닫혀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직까지도 아즈카반에 있나요?"

해리가 물었다.

"아니야. 아니, 이제는 거기 없어. 감옥으로 끌려온 지 1년 만에 죽었거든."

시리우스가 힘없이 말했다.

"죽었어요?"

"그 아이뿐만이 아니야." 시리우스가 신랄하게 말했다. "그곳으로 끌려갔던 대

부분의 사람들은 이내 미쳐버리거나 혹은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지를 잃어버린 거야.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알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미리 죽음을 감지한 디멘터들이 마구 흥분하면서 날뛰었거든……. 그 아이는 감옥에 도착했을 때부터 몸이 상당히 아픈 것 같았어. 크라우치는 마법부의 고위 인사였기 때문에 아들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도록 아즈카반을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 그게 내가 바티 크라우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어. 크라우치가 아내를 거의 안고 가다시피 하면서 내 감방 앞을 지나갔거든. 아들처럼 그렇게 기운을 잃어버린 거지. 크라우치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오지도 않았어. 디멘터들은 크라우치의 아들을 그냥 숲속에 묻었어. 나는 직접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

먹다 남은 빵을 옆으로 훑 던진 시리우스는 호박 주스 병을 집어들더니 단숨에 마셔 버렸다.

"그렇게 해서 늙은 크라우치는 모든 걸 잊었어 마침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말이야." 시리우스는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한 때에는 차기 마법부 장관으로 지목되었던 영웅이……. 이제는 아들을 잊고 부인도 잊고 가문의 명예마저도 더럽하게 된 거지.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나는 크라우치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일단 아들이 죽자,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된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훌륭한 가문의 촉망받는 젊으니이가 그토록 나쁜 길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지. 결국 코넬리우스 퍼지 씨가 마법부 장관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크라우치는 국제 마법 협력부라는 한직으로 밀려났어."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해리는 큐디치 월드컵 때,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한 꼬마 집요정을 숲속에서 발견하고는 당장이라도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눈을 부라리던 크라우치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둠의 표식 밑에서 발견된 윙키에 대해 크라우치가 그토록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윙키의 모습은 그의 아들과 옛날의 추문과 마법부에서 실추된 자신의 명성을 다시 떠올리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무디는 크라우치가 어둠의 마법사를 붙잡는 일에 집착한다고 말했어요."
해리가 시리우스에게 말했다.

"그래, 그 일에 크라우치가 가의 광적인 종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은 나도 들었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죽음을 먹는 자들을 더 많이 체포하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거야."

시리우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르우치는 스네이프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론은 의기양양하게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래, 하지만 그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시리우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론이 몹시 흥분하여 떠들었다. 하지만 시리우스는 신중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말을 좀 들어보렴. 만약 크라우치가 스네이프를 조사하고 싶었다면, 왜 트리위저드시합에 심판을 보러 나오지 않았겠니? 그거야말로 호그와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스네이프를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될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아저씨는 스네이프가 이 일에 무슨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해리가 묻자. 미처 시리우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불쑥 끼어들었다.

"이봐, 난 네가 하는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덤블 도어 교수님은 스네이프를 믿고 있는데……."

"헤르미온느, 제발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니? 덤블도어가 얼마나 현명하고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처리하는지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똑똑한 어둠의 마법사조차도 덤블도어를 속일 수 없다는 건 아냐."

론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해리가 1학년 때, 스네이프가 해리의 목숨을 구했겠어? 왜 그냥

해리가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느냐 말이야?"

"모르지. 어쩌면 덤블도어가……. 당장 스네이프를 내쫓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리우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시리우스의 대답을 듣기 위해 말다툼을 멈추었다.

"나는 두 사람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시리우스는 론과 헤르미온느를 번갈아 가면서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스네이프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왜 덤블도어가 그런 사람을 채용했는지 몹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스네이프는 항상 어둠의 마법에 매혹되어 있었거든.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일들 때문에 아주 유명했지. 스네이프는 머리카락에 항상 끈적끈적하고 번지르르한 기름이 끼어 있는 소녀이었어." 시리우스가 한숨을 내쉬면서 덧붙였다. 해리와 론은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씩 웃었다.

"스네이프는 신입생 때부터 7학년생들보다도 더 많은 저주를 알고 있었지. 게

다가 슬리데린의 깡패들과 한패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들 대부분이 죽음을 먹는 자들이 되었단다."

시리우스는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 하나 이름을 꼽기 시작했다.

"로시에르와 월크스…… 그들은 볼드모트가 올락하기 전 해에 오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 레스트랭 부부, 결혼한 부부였는데 지금은 아즈카반에 있어. 애

버리……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애버리는 임페리우스 저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교묘히 곤경을 벗어났다고 하더군. 그들을 제외하고도 슬리데린 출신 중에서 어둠을 먹는자가 된 사람이 아주 많아. 하지만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스네이프는 기금까지 한 번도 어둠을 먹는 자라는 죄목으로 기소를 당해 본 적이 없어.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수많은 어둠을 먹는 자들이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게다가 스네이프는 무척 교활하고 영리해서 곤경을 살살 피해 다니고도 남을 만한 인간이야."

"스네이프와 카르카로프는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았어요. 하지만 스네이프는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하더군요."

론이 말했다.

"그래요. 어제 마법의 약 시간에 카르카로프가 나타났을 때, 스네이프의 표정을 아저씨도 보셨어야 했는데! 카르카로프는 스네이프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지만, 스네이프가 항상 자기를 피해 다닌다고 말했어요. 카르카로프는 무척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지 자신의 팔뚝에 원가를 스네이프에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 그게 원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해리가 재빨리 덧붙였다.

"팔뚝에 있는 원가를 스네이프에게 보여주었던 말이냐?" 시리우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는 더러운 머리카락을 벅벅 긁더니 다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도대체 그게 원지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카르카로프가 그토록 걱정하면서 스네이프에게 대답을 들으려고 찾아왔다면……."

시리우스는 동굴 천장을 노려보면서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덤블도어가 스네이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야. 물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거나 못 미더워하는 사람들을 덤블도어가 종종 믿고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만약 스네이프가 정말로 볼드모트 편에 가담한 적이 있다면 아무리 덤블도어라고 해도 그런 자를 호그와트의 선생으로까지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다면 어째서 무디와 크라우치가 스네이프의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을까요?"

론이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글쎄……. 솔직히 매드아이라면 호그와트에 도착하자마자 능히 모든 선생들의 사무실을 살살이 뒤지고도 남을 만한 위인이다. 무디 그 사람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무디가 신뢰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사실 무디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별로 놀랄 만한 것도 아니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무디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언제나 사로잡으려고 노력했지. 무디는 좀 거칠기는 해도 절대로 죽음을 먹는 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크라우치는…… 그 사람은 좀 달라……. 과연 정말로 병이 났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병든 몸을 이끌고 굳이 스네이프의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을까? 만약 병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

이 일어난 것일까? 퀴디치 월드컵이 열렸을 때 일등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 할 만큼,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트리위저드 시합의 심판을 봐야 할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시리우스는 동굴 천장을 노려보면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벅벅은 혹시라도 더 남아 있는 닭뼈다귀가 없을까 싶어서 돌 틈을 열심히 뒤적 거리고 있었다.

"네 형이 크라우치의 개인 보좌관이라고 했지? 혹시 형에게 연락해서 최근에 크라우치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니?"

시리우스가 론에게 말했다.

"한 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크라우치가 무엇인가 부정한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 안 될 거예요. 퍼시형은 크라우치를 송배하고 있거든요." 론은 어쩐지 자신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걸 물어보면서 혹시 버사 조킨스에 대해서도 뭔가 알아낸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라."

시리우스가 조킨스의 실종 기사가 실린 《예언자 일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베그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하던데요."

해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여기에 실린 기사에도 베그만의 말이 인용되어 있구나." 시리우스가 《예언자 일보》를 훑어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버사의 기억력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들어 놓았군. 글쎄……, 어쩌면 버사가 내가 알고 지내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버사는 전혀 기억력이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그 반대였지. 약간 희미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떠도는 소문을 기억하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키는 일도 많았지. 그 여자는 언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그때를 몰랐으니까 말이야. 아마 마법부 내에서도 약간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을 거야……. 어쩌면 베그만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사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시리우스는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땅이 깨져라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지금이 몇 시지?"

해리는 시계를 내려다보며 그제서야 호수 속에 들어갔을 때, 시계가 멈춰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3 시 30 분이에요."

헤르미온느가 정확한 시각을 알려 주었다.

"너희들은 그만 학교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시리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몰래 학교에서 빠져나오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게 편지를 보내서 즉시 알려주거라. 하지만 허락없이 호그와트를 빠져나와서는 안 된다. 누군가 너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말이다."

시리우스는 특히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저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불을 내뿜는 용과 그라인딜로 우 몇 마리만 제외하면 말이죠."

해리는 농담삼아 말했지만, 시리우스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런 말은 하지 말거라……. 어쨌거나 무사히 트리위저드 시합이 끝나야만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6 월까지는 어쩔 수 없지.

그리

고 이걸 잊지 말거라. 너희들끼리 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나를
'스누플즈'라고

부르거라. 알았지?" 빈 봉지와 병을 해리에게 건네준 시리우스는 벅벅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마을 근처까지 너희들을 데려다 주지. 다른 신문도 좀 뒤져 보는게 좋을 테니까 말이야."

시리우스는 동굴을 나서기 직전에 다시 커다란 검은 개로 변신했다. 그들은 시리우스와 함께 걸어서 산을 내려갔다. 자갈이 깔린 길을 지나 울타리 계단이 있

는 곳에 도착하자, 시리우스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머리를 쓰다듬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몸을 돌려서 마을 범두리로 달려갔다.

호그스미드로 돌아간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다시 호그와트를 향해 출발했다.

"퍼시가 크라우치에 대한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놀랄까? 어쩌면 전혀 개의치 않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크라우치를 존경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 퍼시는 법을 사랑하니까……. 퍼시라면 크라우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하겠지."

성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론이 말했다.

"그래도 퍼시는 가족을 절대로 디멘터에게 던져 버리지는 않을 거야."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거야 알 수 없지. 만약 우리가 자신이 출세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아다시피 퍼시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

론이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다. 그들은 돌계단을 지나서 현관 복도로 들어갔다. 이미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연회장 쪽에서 구수하고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불쌍한 스누플즈. 나이도 많은데……. 해리, 스누플즈는 너를 정말로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이어 가는 걸 한 번 상상해 봐."

론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제 28 장 크라우치의 광기

일요일 아침에 식사를 마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퍼시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서둘러 부엉이장으로 흘러갔다. 시리우스가 시킨 대로 최근에 크라우치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임무를 해드위그에게 맡기기로 했다. 해드위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런 일거리도 맡지못했기 때문이다. 해드위그가 부엉이장 창문 너머로 멀리 사라지자, 그들은 도비에게 새로 산 양말을 선물하기 위해 주방으로 내려갔다.

꼬마 집요정들은 아주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고마 집요정들은 또다시 굽실굽실 절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차를 준비하느라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도비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동받아서 거의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리 포터는 도비에게 너무 잘해 줘요!"

도비는 툭 불거진 눈에서 똑똑 떨어지는 커다란 눈물 방울을 닦으면서 짹짹거렸다.

"도비, 너야말로 그 아기미 풀로 내 목숨을 구했어. 네가 나를 구한 거야."

해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초콜릿을 뿌린 이 슈크리를 좀더 먹으면 안 될까?"

활짝 웃으면서 연신 절을 하는 꼬마 집요정들을 빙 둘러보면서 론이 말했다.

"너 방금 아침 먹었잖아!"

헤르미온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벌써 네 명의 꼬마 집요정들이 슈크림이 잔뜩 담긴 커다란 은쟁반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스누플즈에게 보낼 음식도 좀 챙겨 가면 어떨까?"

해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쳤다. "피그에게도 원

가 할 일을 주도록 해야지. 혹시 남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줄 수 없겠니?"

론이 빙 둘러선 꼬마 집요정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꼬마 집요정들은 아주 신이나서 꾸벅꾸벅 절을 하더니 재빨리 더욱 많은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주방으로 달려갔다.

"도비, 그런데 윙키는 지금 어디에 있지?"

헤르미온느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물었다.

"윙키는 바로 저기 벽난로 근처에 있어요."

도비가 귀를 쭉 늘어뜨리면서 힘없이 대답했다.

"오, 이런!"

윙키를 발견한 헤르미온느가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냈다. 해리도 얼른 고개를 돌려서 벽난로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윙키는 지난번과 똑같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더럽혀져도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인지, 연기에 겹게 그슬린 벽돌과 잘 분간 할 수 없을 정도로 윙키의 옷은 너덜너덜하고 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윙키는 버터 맥주병을 손에 든 채, 멍하니 모닥불을 응시하며 의자 위에서 조금씩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동안, 윙키는 큰 소리로 딸꾹질을 했다.

"이제는 하루에 맥주를 여섯병이나 마시고 있어요."

도비가 조심스럽게 해리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저건 별로 독한 술이 아니야."

해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꼬마 집요정에게는 아주 독한 술이에요."

도비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대답했다. 윙키가 도다시 딸꾹질을 했다. 슈크림을 들고 온 꼬마 집요정들은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윙키를 훑겨보더니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갔다.

"윙키는 점점 더 야위어 가고 있어요, 해리 포터. 윙키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윙키는 아직까지도 크라우치 씨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도비가 아무리 말해도 윙키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새로운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도비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안녕, 윙키, 요즘은 크라우치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 안 그래? 가끔씩 트리위저드 시합의 심판으로 여기 오던 것도 그만두었으니까 말이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해리는 윙키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숙이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윙키의 눈이 깜박거렸다. 커다란 눈동자가 해리를 향하고 있었다. 윙키는 다시 약간씩 몸을 흔들면서 입을 열었다.

"주……주인님이…… 딸꾹…… 그만두셨다구요?"

"그래." 해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첫번째 시험 이후로 크라우치 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예언자 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몸이 아프다고 하던데……."

윙키는 좀더 몸을 세게 흔들면서 해리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주인님이…… 딸꾹…… 아프시다구요?"

윙키의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는 잘 몰라."

헤르미온느가 재빨리 덧붙였다.

"주인님은…… 딸꾹…… 윙키가 필요하신 거예요! 꼬마 집요정이 울먹이면서 말했다. "주인님은…… 딸꾹……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딸꾹…… 처리할 수가 없어요……."

"윙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혼자서 집안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어."

헤르미온느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윙키는…… 딸꾹…… 주인님을 위해서…… 딸꾹…… 그저 집안 일만 한 게 아니라구요! 주인님은…… 딸꾹…… 윙키에게 딸꾹……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가장…… 딸꾹…… 비밀스러운 일을……."

잔뜩 화가 난 윙키가 짹짹거리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훨씬 더 몸을 심하게 흔들면서 이미 얼룩이 잔뜩 묻은 블라우스에 또다시 맥주를 훌렸다.

"뭐라구?"

해리가 재빨리 물었지만, 윙키는 정신없이 머리를 흔들면서 버터 맥주를 질질 흘렸다.

"윙키는…… 딸꾹…… 주인님의 비밀을 지켜야만 해요." 윙키가 반항적인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몸을 아주 심하게 흔들면서 사팔뜨기가 된 눈으로 해리를 흘겨보았다. "당신은…… 딸꾹…… 남의 일을 캐고 다니는군. 그래."

"윙키는 해리 포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써! 해리 포터는 용감하고 고귀해. 해리 포터는 남의 뒤를 캐지 않아!"

도비가 마구 화를 내면서 윙키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 주인님의…… 딸꾹…… 사생활과 비밀을…… 딸꾹…… 캐묻고 있잖아! 윙키는 좋은 꼬마 집요정이야, 윙키는…… 딸꾹…… 비밀을 지켜. 사람들이…… 딸꾹 아무리 캐묻고…… 딸꾹…… 알아내려고 해도……."

윙키의 눈이 스르르 감기더니 갑자기 의자 위에서 벽난로 쪽으로 톡 굴러 떨어졌다. 그런 다음에 윙키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이 들었다. 텅 빈 버터 맥주병은 돌바닥 위를 따라서 데구루루 굴러갔다.

그러자 대여섯 명의 꼬마 집요정들이 역겨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황급히 달려 나왔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얼른 맥주병을 지어 들었으며 다른 꼬마 집요정들은 밑단에 깔끔하게 주름이 잡힌 체크 무늬의 커다란 식탁보로 윙키를 덮어 버렸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윙키의 행동을 보고 저희들 모두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서 있던 한 꼬마 집요정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말했다. 꼬마 집요정의 얼굴에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윙키는 단지 슬픈 거야! 왜 너희들은 윙키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만 하는 거니?"

헤르미온느가 벌컥 화를 냈다.

"부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가씨. 하지만 꼬마 집요정은 해야 할 일이 있고 섬겨야 할 주인이 있는 이상, 슬퍼할 권리가 없습니다."

꼬마 집요정이 다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말했다.

"이런, 세상에! 너희들 모두 내 말을 좀 들어 봐! 너희들에게도
마법사들만큼이

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너희들에게도 임금을 받고 휴일을 갖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필요는 없어! 도비를 보란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꼬마 집요정들을 둘러보면서 소리쳤다.

"아가씨, 도비는 이 일에서 빼 주세요."

도비가 잔뜩 겁먹은 듯이 중얼거렸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꼬마 집요정들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일제히 썩 사라졌다. 갑자기 그들은 헤르미온느가 지극히 위험한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여기 음식을 갖고 왔어요!" 꼬마 집요정 하나가 해리의 팔꿈치 밑에서 소리치며 해리의 팔에 커다란 햄 한 덩어리와 열 두개의 케이크 그리고 약간의 과일을 안겨 주었다. "잘 가세요!"

꼬마 집요정들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빙 둘러싸더니 수많은 작은 손바닥으로 그들의 등을 조금씩 떠밀며 주방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양말 고마워요, 해리 포터!"

도비가 벽난로 근처에서 서글픈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비의 발치에는 식탁보로 뒤덮인 윙키가 드러누워 있었다.

"헤르미온느 너는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어디가 덧나니? 이제 꼬마 집요정들은 우리가 찾아오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윙키에게 크라우지에 대한 걸 더 알아낼 수도 없게 되었잖아!"

주방 문이 광 닫히자, 론이 성질을 부렸다.

"그러셔? 너는 마치 그 일에 크게 관심이라도 있는 거처럼 말하는구나! 너는 그저 먹을 것 때문에 주방에 내려가는 거잖아!"

헤르미온느가 콧방귀를 끄면서 소리쳤다.

그날 오후는 무척 짜증스러웠다. 해리는 줄곧 학생 휴게실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내내 서로 으르렁거리는 론과 헤르미온느 때문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저녁에는 시리우스에게 보낼 음식을 가지고 혼자 부엉이장으로 올라갔다.

피그위존은 한 함정어리를 산까지 나르기에는 너무 몸집이 작았다. 그래서 해리는 학교 외양간 부엉이 두 마리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부엉이들은 어스름한 저녁 무렵에 출발했다. 커다란 보따리를 양쪽으로 들고 날아가는 부엉이들의 모습은 상당히 영거주춤해 보였다.

해리는 창틀에 몸을 기대고 어두운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금지된 숲속의 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바스락 소리와 던스트랭배의 둑이 팔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리 부엉이 한 마리가 해그리드의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연기를 뚫고 날아오고 있었다. 그 부엉이는 성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더니 부엉이장을 한 바퀴 맴돌고는 그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무든 아래를 내려다본 해리는 오두막집 앞마당을 기운차게 파고 있는 해그리드를 발견했다. 도대체 해그리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새로운 야채밭을 만드는 모양이었다.

해리가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을 때, 보바통의 마차에서 맥심 부인이 나오더니 해그리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맥심 부인은 해그리드에게 말을 걸려고 애를 쓰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삶에 몸을 기대고 선 해그리드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맥심 부인이 금방 마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또다시 론과 헤르미온느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 해리는 도저히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해리는 어둠의 장막이 완전히 드리워질 때까지 해그리드가 땅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점차 부엉이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더니 순식간에 밤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시간이 되자, 론과 헤르미온느의 불화도 다소 수그러들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일은, 헤르미온느가 꼬마 집요정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리핀도르 식탁에는 형편없는 식사가 올라올 거라는 론의 불길한 예언이 어긋났다는 사실이었다. 베이컨과 달걀 그리고 훈제 연어는 평소처럼 꽤 맛있었다.

잠시 후에 우편 배달 부엉이가 도착했다. 그러자 헤르미온느는 잔뜩 기대에 찬 눈길로 부엉이를 바라보았다. 무엇인가를 무척 고대하는 듯한 눈치였다.

"퍼시는 아직 답장을 보낼 시간이 없을 거야. 우리가 헤드위그를 보낸 게 바로 어제였잖아."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아니야.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언자 일보》를 구독 신청했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슬리데린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제 해리도 기대에 가득 찬 눈길로 부엉이를 바라보았다. "이봐, 헤르미온느, 내 생각에는 마침내 너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 같은 데……."

회색 부엉이가 곧장 헤르미온느의 접시 위에 내려앉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네 마리의 외양간 부엉이와 갈색 부엉이 그리고 새끼 부엉이 한 마리가 날개를 접으면서 내려앉았다.

"도대체 구독 신청을 얼마나 많이 한 거야?"

해리는 부엉이의 발톱에 걸려서 엎질러지기 직전인 헤르미온느의 컵을 재빨리 움켜잡았다. 그 부엉이들은 서로 제일 먼저 편지를 전달하려고 번잡스럽게 몸을 부대끼면서 헤르미온느를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헤르미온느는 회색 부엉이가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오. 이런!" 헤르미온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

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론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헤르미온느는 회색 부엉이가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오, 이런!" 헤르미온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면

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야?"

론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물었다.

"세상에! 정말…… 기가 막혀서……."

헤르미온느는 들고 있던 편지를 해리에게 던졌다. 그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언자 일보》에서 활자를 오려 내어 붙인 것이었다.

너는 사악한 여자야 해리 포터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당장 너네 머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다른 편지들도 다 똑같아!" 차례차례 편지를 열어 본 헤르미온느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다. "'해리 포터는 너 같은 여자보다 훨씬 나아…….' '너는 개구

리 알과 함께 끓는 물 속에 풍덩 들어가야 마땅해…….' 오, 세상에!"

헤르미온느가 마지막 봉투를 열자, 강한 석유 냄새가 풍기는 연한 초록색의 액체가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헤르미온느의 손등에는 노랗고 커다란 종기가 생기면서 톡톡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보투버 고름 원액이야!"

론이 재빨리 봉투를 집어 들어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았다.

"아야!"

휴지로 손등에 묻은 고름을 닦아 내던 헤르미온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고통스러운 종기로 다닥다닥 뒤덮인 헤르미온느의 손가락은 마치 짖은 매듭이 진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일정도였다.

"어서 병동으로 가는 게 좋겠다. 스프라우트 교수님께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

헤르미온느 앞에 내려앉았던 부엉이들이 모두 떠나자, 해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두 손을 싸매고 허둥지둥 연회장에서 달려나가는 헤르미온느의 뒷모습을 쳐다보면서 론이 투덜거렸다. "리타 스키터를 화나게 하지 말랬잖아. 이것 좀 봐……."

론은 헤르미온느가 두고 간 편지들 중에 하나를 집어 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나는 《마녀 주간지》에서 네가 어떻게 해리 포터를 가지고 놀았는지 읽었다. 그 소년은 네가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힘든 시련을 겪었어. 나는 가장 커다란 봉투가 눈에 뜨이는 대로, 당장 다음 우편으로 너에게 온갖 저주를 다 써서 보낼 작정이다.' 이런 세상에! 헤르미온느는 더 이상 네 걱정은 하지 말고 자기 몸

이나 잘 돌보는 게 좋겠어."

헤르미온느는 약초학 시간이 끝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온실에서 나온 후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을 듣기 위해 걸어가던 해리와 론은, 성의 돌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과 맞닥뜨렸다. 팬시 파킨슨은 그들의 등 뒤에서 슬리데린의 여학생 깡패들과 뭐라고 속닥거리며 연신 킬킬거리고 있었다. 해리를 발견한 팬시가 큰 소리로 말했다.

"포터, 네 여자 친구와 헤어졌다면서?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에는 왜 그렇게 소란을 피웠니?"

해리는 일부러 팬시 파킨슨의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마녀 주간지》에 실린 기사가 얼마나 커다란 소동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알고 좋아하는 꿀을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수업 시간에 유니콘에 관한 공부는 모두 끝났다고 말했던 해그리드는 발치에 뚜껑이 열린 나무 상자를 잔뜩 쌓아 놓고 오두막집 앞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상자를 보자, 해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또다시

스크루트를 부화시킨 건 아니겠지?

하지만 해리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 주둥이가 길고 털이 복실복실한 검은 동물 여덟 마리가 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앞발은 마치 삼처럼 아주 신기하게 넓적했다. 검은 동물들은 갑자기 모둔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자, 약간 어리둥절한 듯이 눈을 깜박하면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니플러야." 그 자리에 빙 둘러 서 있는 학생들을 쳐다 보면서 해그리드가 말했다. "대부분 광산 아래에서 발견되곤 하지. 반짝거리는 물건을 좋아하거든……. 자, 어서 한 번 살펴 보거라."

갑자기 니플러 중에서 한 마리가 펄쩍 뛰어오르더니 팬시 파킨슨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물어뜯으려고 했다. 팬시 파킨슨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얼른 뒤로 물러났다.

"보물을 찾는 데에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지." 해그리드가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일을 해볼 생각이란다, 저기 보이니?"

해그리드가 막 갈아엎은 듯한 넓은 공터를 가리켰다. 부엉이장 창문에서 해리가 내려다보았을 때, 해그리드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내가 저곳에 금화를 좀 묻어 놓았단다. 금화를 가장 잘 찾아내는 니플러를 고른 사람에게는 푸짐한 상을 주겠다. 값비싼 장신구들은 모두 풀어 놓고 각자 니플러 한 마리씩을 고르거라. 준비가 끝나면 니플러를 풀어주도록 해."

해리는 시계를 벗어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사실 그 시계는 습관적으로 차고 다니는 것일 뿐, 더 이상 작동은 되지 않았다.

해리는 상자 속에 들어 있던 니플러 중에서 한 마리를 골랐다. 그 녀석은 해리의 귀에 긴 주둥이를 갖다 대고는 열심히 코를 킁킁거렸다. 정말이지 꼭 끌어안고 싶을 만큼 귀여운 동물이었다.

"잠깐만 기다려라." 해그리드가 상자 안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여기 니플러 한 마리가 남았는걸……. 누가 빠졌지? 헤르미온느는 어디 있니?"

"병동에 갔어요."

론이 대답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팬시 파킨슨이 유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들었던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 중에서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니플러들은 마치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단단한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잠시 후에 니플러들은 자기를 풀어 준 학생이 기다리는 곳으로 재빨리 다시 돌아오더니 손바닥에 금화를 뱉어 놓았다. 특히 론의 니플러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금방 많은 금화를 모았다.

"애완용으로 이 동물을 좀 살 수 있나요, 해그리드?"

잔뜩 신이 난 론이 물었다. 론의 니플러는 옷에 흙을 튀기면서 다시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네 엄마가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게다, 론. 이 니프러들은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의 다 찾은 것 같구나."

해그리드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해그리드는 니플러들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거리는 공터를 한 바퀴 빙 돌았다.

"나는 겨우 금화 백개밖에 안 묻었거든. 오, 저기 오는군.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는 잔디밭을 지나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손에 두껍게 봉대를 감고 있는 헤르미온느는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팬시 파킨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헤르미온느를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 찾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해그리드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지금부터 자기의 동전을 세도록 해! 금화를 슬쩍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 고일!" 해그리드는 검은 딱정벌레처럼 생긴 눈을 가늘게 뜨면서 경고했다.

"이건 레프러칸 요정의 금화야. 몇 시간 후에는 저절로 사라질 게다."

해그리드의 말을 듣자, 고일은 전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호주머니 속의 금화를 꺼 놓았다. 결국 론의 니플러가 제일 훌륭한 것으로 판정났다. 해그리드는 론에게 커다란 허니듀크 초콜릿을 상으로 주었다.

점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운동장에 올려 퍼지자 다른 학생들은 모두 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뒤에 남아서 해그리드가 니플러들을 다시 상자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도와주었다. 해리는 맥심 부인이 보바통의 마차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헤르미온느, 네 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그리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그날 아침에 받은 그 증오 가득한 편지들과 부보투버 고름이 가득 들어 있던 봉투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아하! 그런 건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리타 스키터가 우리 엄마에 대한 기사를 쓴 이후에 그런 편지를 받았었단다. '너는 괴물이다. 당장 없어져라. 너'

의 엄마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네게 조금이라도 체면이 있다면 당장 호수 속에 빠져 버려라' 라는 등……."

해그리드가 헤르미온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

헤르미온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정말이야. 헤르미온느. 그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편지

를 열어 보지 말거라. 곧장 불 속에 던져넣어버려."

해그리드는 니플러가 들어 있는 상자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오두막집 담 옆에 쌓아 놓았다.

"너는 정말 재미있는 수업을 놀쳤어." 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리가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니플러들은 정말 귀엽지? 그렇지 않니, 론?"

하지만 론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해그리드가 준 초콜릿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론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왜 그래? 맛이 이상하니?"

해리가 물었다.

"아니야." 론이 짤막하게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그 황금에 대해서 말

하지 않았니?"

"무슨 황금?"

해리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퀴디치 월드컵 때 너한테 주었던 그 황금 말이야. 내가 만능 망원경 값으로 너한테 그 레프러칸 황금을 줬잖아. 일등 관람석에서……. 그게 사라졌다 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론이 불마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잠시동안 기억을 더듬어야만 했다.

"아……." 마침내 기억이 떠오르자, 해리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그

게 없어진 것도 몰랐는걸. 그 당시에 나는 요술지팡이 때문에 정신이 온통 팔려 있어서 말이야."

현관 복도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간 그들은 점심 식사가 마련되어 있는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너는 참 좋겠구나." 모두들 자리에 앉아서 막 로스트 비프와 요크셔 푸딩을 먹으려고 하는데, 론이 불쑥 입을 열었다. "호주머니에 잔뜩 들어 있던 갈레온

이 놓땅 없어졌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부자니까 말이야."

"이봐, 론! 그날 밤에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우리 모두 그랬잖아. 기억 안 나?"

해리가 간신히 화를 참으면서 말했다.

"나는 레프러칸 황금이 사라지는 것인 줄 몰랐어. 그런 줄도 모르고 너에게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했지. 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처들리 캐논 팀의 모자를 나한테 주지 말았어야 했어."

론이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그만 잊어버려, 알았어?"

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게 싫어."

론은 포크를 들고 구운 감자를 꽉 찍어 올리더니 한참 동안이나 노려보았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서로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던 것이다.

"이건 다 헛소리야. 프레드와 조지 형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니플러 한 마리만 가질 수 있다면……."

론은 여전히 감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 크리스마스 때 네가 무슨 선물을 받을지 알겠구나."

헤르미온느가 명랑하게 말했다. 하지만 론이 여전히 우울해 하자, 헤르미온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봐, 론!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일도 있어 적어도 네 손가락에는 종기가 잔뜩 나지는 않았잖아."

사실 헤르미온느의 손가락은 뻣뻣하고 팽팽하게 부어 올랐기 때문에 나이프나 포크를 쥐고 움직이기가 뜯시 힘들었다.

"나는 스키터, 그 여자가 싫어!" 헤르미온느가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반

드시 이 빛을 갚아 주겠어!"

다음 주에도 증오의 편지는 계속해서 헤르미온느 앞으로 배달되었다. 비록 헤르미온느는 해그리드의 충고에 따라 그 편지를 뜯어 보지도 않았지만, 몇 명의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호울러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핀도르 테이블에서 터진 호울러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제 《마녀 주간지》를 읽어 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해리와 크롬과 헤르미온느의 삼각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었다. 해리는 사람들에게 헤르미온느가 자신의 여자 친구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일에 그만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금방 수그러들 거야.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지난번에 리타가 나에 대해 쓴 기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곧 싫증을 냈잖아."

해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헤르미온느를 위로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사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우리 운동장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씩씩거리면서 말했다.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간에 헤르미온느는 무디 교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기 위해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교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무디가 주문 반사라는 아주 거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해리는 귀비틀기 주문이라는 아주 나쁜 경우에 걸려서 두 손으로 귀를 감싼 채, 교실에서 나가야만 했다.

"그래, 리타는 투명 망토를 사용하지 않은 게 분명해!" 5분 후에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현관 복도에 있는 해리와 론을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자신

의 말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감싸고 있는 해리의 손을 끌어내렸다. "무디는 두 번째 시험 때 심판석이나 호수 근처 그 어디에서도 리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야!"

"헤르미온느, 이제 그만 그 일은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총고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타령이니?"

론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싫어! 나는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나와 빅터의 대화를 엿들었는지 알아내고 말겠어! 그리고 해그리드의 엄마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고집을 부렸다.

"어쩌면 너에게 벌레를 불였는지도 몰라."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벌레?" 론은 어리둥절해했다. "뭐라구? 그렇다면 벼룩이나 뭐 그런걸 불였단 말이야?"

해리는 머글들이 사용하는 도청 장치나 몰래 카메라 같은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론은 넋을 잃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들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해리의 이야기를 도중에 가로막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호그와트의 역사》를 끝내 읽어 보지 않을 작정이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잖아. 우리는 그저 너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데……."

론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머글들이 마법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대용물…… 전기, 컴퓨터, 레이더, 그런 것들은 모두 호그와트 근처에 오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아. 공중에 너무나 강력한 마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야. 리타는 마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대화를 엿들은 게 분명해. 아마도 틀림없이…… 그게 어떤 마법인지 알아낼 수만 있다면…… 오, 그게 만약 불법적인 거라면, 나는 그 여자를 당장……."

"아직도 우리에게 고민 거리가 부족하단 말이니? 그래서 이제는 리타 스키터를 상대로 피의 복수까지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

론이 한숨을 내쉬면서 물었다.

"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어! 나는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날카롭게 쏘아붙인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리석 계단을 씩씩하게 올라갔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틀림없이 도서관으로 갈 거라고 확신했다.

"헤르미온느가 '나는 리타 스키터를 증오한다!'라는 글씨가 적힌 배지를 한상

자 가지고 돌아올 거야. 나랑 내기할래?"

론이 말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리타 스키터에게 복수하는 걸 도와달라고 해리와 론에게 부탁하지 않았고, 두 사람도 그 사실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활절 휴가 전까지 날마다 숙제가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해리는 솔직히 헤르미온느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도청 마법술에 대한 연구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는 그 모든 숙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파김치가 될 지경이었다. 물론 시리우스를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산속의 동굴로 음식을 보내는 일도 빠뜨리지 않고 있었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 굶주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음식을 보내면서, 평상시대로 일상적인 일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퍼시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은 편지도 함께 보냈다.

헤드위그는 부활절 휴가가 끝나갈 때쯤에서야 돌아왔다. 퍼시의 편지는 위즐리 부인이 보낸 부활절 달걀 보따리에 동봉되어 있었다. 해리와 론이 받은 달걀들은 거의 용의 알 만큼이나 컸으며 집에서 만든 태피도 잔뜩 들어 있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달걀은 보통 달걀보다도 훨씬 작았다.

"론, 혹시 너희 엄마도 《마녀 주간지》를 읽으신 건 아니겠지?"

헤르미온느가 힘없이 물었다.

"아니, 사실은 읽었어. 요리법 때문에 그 잡지를 보시거든."

입에 태필을 잔뜩 문 채, 롤이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시선을 떨구고 자신의 조그마한 달걀을 서글픈 눈길로 내려다보았다.

"퍼시의 답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지 않을래?

해리가 재빨리 헤르미온느에게 말을 걸었다. 퍼시의 편지는 짧고 신경질적이었다.

『예언자 일보』 기자에게 항상 말했던 것처럼 크라우치 씨는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부엉이를 통해 지시 사항을 보내오고 있어. 물론 직접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설마 내가 직속 상관의 글씨체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가라앉히는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아. 그러니까 제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두 번 다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즐거운 부활절이 되기를.

평소라면 여름 학기의 시작은 곧 해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퀴디치 시합에 대비하기 위한 힘든 훈련의 시작을 의미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트리위저드 시합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마침내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변신술 수업이 끝나자 맥고나걸 교수가 해

리를 불렀다.

"포터, 오늘 밤 9 시에 퀴디치 운동장으로 내려오너라. 베그만 씨가 그곳에서

챔피언들에게 세 번째 시험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그날 밤 8 시 30 분이 되자, 해리는 롤과 헤르미온느를 그리핀도르 탑에 남겨두

고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 복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해리는 후플푸프 학생 휴게실에서 나오는 케드릭과 마주쳤다.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니?"

케드릭이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서 해리에게 물었다. 두 사람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 어둠 속으로 나갔다.

"플뢰르는 계속해서 땅 밑으로 굴을 파는 공부를 하고 있어. 보물을 찾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해리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니플러 한 마리만 해그리드에게 부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어둠이 깔린 잔디밭을 지나서 퀴디치 경기장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관중석 사이로 나 있는 입구를 지나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케드릭이 우뚝 발길을 멈추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퀴디치 경기장은 더 이상 평평하고 부드러운 잔디밭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곳에 온통 사방으로 꼬불꼬불하게 미로처럼 뻗어 있는 길고 낮은 담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울타리야!"

허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땅 위를 살펴보던 해리가 말했다.

"어이, 이봐!"

갑자기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다. 루도 베그만은 크롬과 플뢰르와 함께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해리와 케드릭은 울타리를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해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플뢰르는 환한 미소를 던졌다. 해리가 호수에서 그녀의 여동생을 구한 다음부터 해리를 대하는 플뢰르의 태도는 180 도로 달라졌다.

"자, 어떤가요?" 해리와 케드릭이 마지막 울타리를 넘었을 때, 루도 베그만이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죠?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해그리드는 이것들을 6 미터 높이 정도까지 자라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루도 베그만은 해리와 케드릭의 얼굴에 떠오른 떨떠름한 표정을 보자,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일단 트리위저드 시합이 끝나면 여러분의 퀴디치 경기장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만들고 있는지 짐작이 가나요?"
한참동안이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미로요."

빅터 크룸이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았어요! 미로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로의 중앙에 트리

위저드 컵이 놓여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컵을 만지는 사람이 만점을 받게 되는 거죠."

루도 베그만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능 그저 미로를 통과하기망 하면 되나용?"

플뢰르가 물었다.

"물론 장애물이 있죠." 루도 베그만은 신이 나서 설명했다. "해그리드가 여러

생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챔피언들이 반드시 깨뜨려야 할 주문도 설치될 예정이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뭐 그런 종류의 것들 말입니다. 우선 점수가 가장 좋은 챔피언들이 제일 먼저 미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루도 베그만은 해리와 케드릭을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다음에 크룸 군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텔라쿠르 양의 차례가 되겠군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얼마나 훌륭하게 장애물들을 통과하는가에 따라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아주 재미있겠죠? 그렇죠?"

해그리드가 이런 시험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생물들을 준비 할 것인지 뻔히 알고 있는 해리는 전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예의상 다른 챔피언들과 함께 고개를 꼬덕일 수 밖에 없었다.

"아주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다면, 이제는 성으로 돌아감시다.
날

씨가 좀 쌀쌀하군요……."

루도 베그만이 어깨를 움츠리면서 말했다. 챔피언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미로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루도 베그만이 서둘러 해리 곁으로 다가왔다. 해리는 마음속으로 루도 베그만이 또다시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하려는 모양이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크룸이 해리의 어깨를 툭 쳤다.

"나와 잠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나?"

"그래 좋아."

사실 해리는 크룸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나와 함께 걷겠나?"

"좋아."

호기심이 생긴 해리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이내 고개를 꼬덕였다. 그러자 루도 베그만은 약간 당황했다.

"해리, 내가 기다려 줄까? 어때?"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베그만 씨. 성으로 돌아가는 길 정도는 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해리는 애써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해리와 크룸은 나란히 경기장을 떠났다. 하지만 크룸은 덤스트랭의 배로 향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숲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니?"

해그리드의 오두막과 불빛이 새 나오는 보바통의 마차를 지나가자, 해리가 궁금하여 물었다.

"누가 들으면 안 된다."

빅터 크룸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마침내 한적한 운동장 가장자리를 지나 보바통의 말들을 가둬 놓은 방목장으

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때, 크룸은 나무 그늘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알고 싶다." 크룸이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너와 헤르미-오운-니니 사이를……."

빅터 크룸의 비밀스러운 태도를 보고 무엇인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고 잔뜩 기대했던 해리는 깜짝 놀라서 멀뚱히 크룸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해리가 대답했지만, 크룸은 여전히 해리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해리는 새삼스럽게 크룸이 얼마나 키가 크고 날렵한 체격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그저 친구야. 헤르미온느는 한 번도 내 여자 친구였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건 모두 다 스키터, 그 여자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구."

"헤르미-오운-니니는 네 이야기를 자주한다."

빅터 크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그렇겠지. 우리는 친구니까……."

해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쿼디치 선수인 빅터 크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도통 믿어지지 않았다. 열여덟 살이나 된 크룸이 마치 자신과 동등한 진짜 연적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너는 절대로…… 너는 절대로……."

"아니야."

해리는 아주 확고하게 대답했다. 비로소 빅터 크룸은 약간 안심하는 듯 했다. 빅터 크룸은 잠시 해리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아주 잘 난다. 첫번째 시험을 치면서 다 보았다."

"고마워." 해리는 빙그레 웃었다. 갑자기 자신이 훨씬 더 키가 커진 것 같았다.

"나는 쿼디치 월드컵 때 너를 봤어. 런스키 페인트, 너는 정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크룸이 서 있는 뒤쪽 숲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한번 숲속에 숨어 본 경험이 있는 해리는 본능적으로 크룸의 팔을 붙잡고 앞으로 잡아당겼다.

"저게 뭐냐?"

해리는 어떤 물체가 움직인 듯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서 요술지팡이를 찾았다. 그때 한 남자가 우람한 떡갈나무 뒤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처음에 해리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였다.

크라우치는 마치 며칠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여행을 한 사람처럼 보였다. 옷의 무릎 부분이 다 해지고 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수염을 깎지 않은 얼굴에는 여기저기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으며 극심한 피로로 인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언제나 단정했던 머리와 콧수염도 너무 길고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겉모습도 크라우치의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손짓 발짓을 하는 크라우치의 모습은 오직 자기 눈에만 보이는 누군가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해리는 문득 언제인가 더즐리 가족과 쇼핑을 갔을 때 봤던 늙은 부랑자가 생각났다. 그 남자도 허공을 쳐다보면서 정신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페트니아 이모는 황급히 두들리의 손을 잡고 그 남자를 피해 길 건너편으로 달려갔었다. 그리고 버논 이모부는 가족들을 붙잡고 자기라면 거지나 부랑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황설을 늘어 놓은 적이 있었다.

"저 사람은 심판이 아닌가?" 빅터 크룸이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크라우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너희 마법부에 있지 않나?"

해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다가 크라우치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다. 해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크라우치는 옆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웨더비, 그 일이 끝나면 덤블도어에게 부엉이를 보내서 이 시합에 참가할 덤스트랭 학생들의 숫자를 정확히 알려 주도록 하게. 카르카로프가 방금 전에 열두 명이 참가할 거라는 소식을 보냈다네……."

"크라우치 씨?"

해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크라우치는 해리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에는 맥심 부인에게 부엉이를 보내게. 시합이 열리는 곳으로 데리고 갈 학생 수를 미리 정하고 싶어했거든. 이제 카르카로프 학생들은 모두 열두 명으로 확정되었으니까……. 어서 그 일을 하게, 웨더비. 알겠나? 알겠나?

어
서……."

크라우치가 눈을 부릅뜨면서 소리쳤다. 크라우치는 잠시 멍하니 나무를 노려보면서 입 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비틀거리면서 숲으로 걸어갔다. 그러더니 힘없이 무릎을 꽂고 말았다.

"크라우치 씨. 괜찮으세요?

해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크라우치의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었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크롬을 쳐다보았다. 해리를 따라 숲속까지 들어온 크롬은 크라우치를 내려다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나도 모르겠어. 이봐, 크롬. 어서 가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좋겠어."

해리가 크롬에게 말했다.

"덤블도어!" 갑자기 크라우치가 입을 딱 벌렸다. 크라우치는 손을 앞으로 쭉 뻗더니 해리의 옷을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 해리를 점점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하지만 크라우치의 눈길은 여전히 해리의 머리를 지나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꼭…… 만나야 해…… 덤블도어를……."

"좋아요. 크라우치 씨, 일어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저기……."

해리가 크라우치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크라우치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크라우치는 완전히 미쳐 버린 것 같았다.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크라우치의 두 눈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으며 턱에는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크라우치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것처럼 보였다. "말을…… 해야만 되는데……. 덤블도어……."

"크라우치 씨, 일어나세요." 해리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일어

나세요. 덤블도어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 드리겠어요."

크라우치의 눈이 천천히 해리를 향해 움직였다.

"너는…… 누구냐?"

크라우치가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이 학교의 학생이에요."

해리는 도와달라는 뜻으로 크롬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크롬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멀찌감치 뒤로 물러나 있었다.

"너는…… 아니지? 그…… 사람의?"

크라우치가 맥없이 입술을 늘어뜨리면서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해리는 지금 크라우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덤블도어의?"

"맞아요."

해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크라우치는 해리에게 더욱 바싹 매달렸다. 해리는 자신의 옷자락을 굳게 움켜쥐고 있는 크라우치의 손을 풀려고 애를 썼지만 손아귀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

"경고해……. 덤블도어……."

"이 손을 놓으면 덤블도어 선생님을 모셔 오겠어요. 크라우치 씨, 저를 놔 주세요. 제가 모시고 오겠다니까요……."

해리가 난처해 하며 말했다.

"고맙네, 웨더비 그 일이 끝나면 나는 차를 한 잔 마시고 싶군. 내 아내와 아

들이 곧 도착할 거야. 우리는 오늘 밤에 퍼지씨 부부와 함께 음악회에 가기로 했거든."

크라우치는 다시 나무를 쳐다보면서 태연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해리가 옆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해리는 어찌나 놀랐던지 어느 사이에 크라우치가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 최근에 우리 아들은 열두 개의 O.W.L.을 통과했다네. 대부분 만족스러운 점수였지. 그래, 정말 고마워.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아주 자랑스럽다네. 자, 이

제 나에게 앤도란 장관이 보낸 전갈을 좀 가져다 주겠나? 잠깐 답장을 써 보낼 틈이 있을 것 같군……."

"여기에서 이 사람을 지키고 있어! 내가 덤블도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게. 내가 더 빠를 거야. 나는 덤블도어의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해리가 빅터 크룸을 쳐다보면서 소리쳤다.

"이 사람은 미쳤다."

빅터 크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크라우치를 내려다보았다. 크라우치는 자신이 퍼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무를 향해 여전히 지껄이고 있었다.

"잠깐만 이 사람 곁에 있어."

해리는 몸을 막 일으키려고 했지만 해리보다 크라우치의 동작이 조금 더 빨랐다. 크라우치는 갑자기 해리의 무릎을 거세게 끌어안더니 다시 바닥에 주저앉혔다.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크라우치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크라우치의 눈이 다시 휙둥그레졌다.

"나는…… 도망쳤어. 경고를 해야만 해……. 말해야만 해……. 덤블도어를 만나

서…… 내 잘못…… 내 모든 잘못을…… 버사…… 죽었어……. 그건 모두 내 잘못…… 내 아들…… 내 탓이야……. 덤블도어에게 말해야…… 해리 포터…… 어둠의 주인이…… 더 강해졌다고…… 해리 포터……."

"크라우치 씨, 저를 놓아주시면 덤블도어 선생님을 모셔 오도록 하겠어요!" 해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스럽게 크룸을 돌아보았다. "나를 좀 도와줘! 어서!"

빅터 크룸은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크라우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기에서 이 사람을 지키고 있어. 덤블도어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올게." 해리는 크라우치의 손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서둘러, 알았지?"

빅터 크룸이 해리의 등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해리는 숨을 지나서 어두운 운동장을 쓴살같이 가로질러 달려갔다. 운동장은 벌써 텅 비어 있었다. 루도 베그만이나 캐드릭, 플리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해리는 둘계단을 정신없이 올라갔다. 그리고 오크로 만든 현관문을 밀치고 이층을 향해 대리석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갔다.

5분 가량 지난 후에 해리는 텅 빈 복도의 중간에 서 있는 아무기 석상을 향해서 마구 달려가고 있었다.

"레몬 방울!"

해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외쳤다. 그것은 덤블도어의 사무실로 향하는 비밀 계단의 암호였다. 아니, 적어도 2년 전에는 그랬었다. 하지만 암호가 바뀐 것이다

분명했다. 왜냐하면 아무기 석상이 살아 움직여 얼른 옆으로 비켜서기는커녕, 꼼짝도 하지 않고 해리를 심술궂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움직여!" 해리가 안타깝게 소리쳤다. "어서!"

하지만 호그와트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꿈쩍이라도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해리는 발버둥을 쳐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어두운 복도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 어쩌면 덤블도어가 교무실에 있지 않을까?

해리는 있는 힘을 다해 계단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포터!"

해리는 걸음을 딱 멈추고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기 석상 뒤에 감춰진 비밀 계단에서 스네이프가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스네이프의 등 뒤에 있는 돌벽이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닫히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손짓을 하면서 해리를 불렀다.

"저는 덤블도어 교수님을 만나야 해요! 크라우치 씨가…… 나타났어요……. 숲 속에 있는데…… 지금…… 원하고 있어요!"

해리는 황급히 다시 복도를 달려와서 스네이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추어 섰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스네이프의 검은 눈동자가 사납게 번뜩였다.

"크라우치 씨 말이에요! 마법부에서 일하시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병이 나셨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숲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덤블도어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어서 암호를 가르쳐 주세요."

해리는 애타게 소리를 질렀다.

"교장 선생님은 무척 바쁘시단다, 포터."

스네이프는 얇은 입술을 치켜 올리면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덤블도어 선생님을당장 만나야만 해요!"

해리가 고함을 질렀다.

"내 말을 듣지 못했니, 포터!"

해리는 스네이프가 이런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리가 그토록 애타게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뜻 견디게 즐거운 모양이었다.

"보세요." 해리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크라우치 씨는 지금 상태

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갔다고요. 그 사람은 경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스네이프의 등 뒤에서 돌벽이 스르르 갈라지더니 비밀 통로가 다시 열렸다. 그곳에는 기다란 초록색 가문을 입은 덤블도어가 서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덤블도어가 해리와 스네이프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교수님!" 해리는 스네이프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재빨리 앞으로 다가서면서 말했다. "크라우치 씨가 저기 있어요. 저기 숲속에 말이죠. 그분은 지금 교수

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해요!"

해리는 덤블도어가 이것저것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덤블도어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길을 안내해라."

덤블도어는 스네이프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즉시 해리의 뒤를 따라서 부지런히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스네이프는 자신과 똑같이 추악하게 생긴 아무기 석상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해리, 그런데 크라우치 씨가 뭐라고 말했니?"

황급히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면서 덤블도어가 물었다.

"교수님께 경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을 했다구요……. 아들이야기도 했어요……. 버사 조킨스에 대한 것도……. 그리고 볼드모

트에 대해서도……. 볼드모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말을……."

"그렇구나."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얼거렸다. 덤블도어는 더욱 걸음을 재촉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퍼시 위즐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태

도가 돌변하더니 선생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크룸에게 크라우치 씨를 잘 지켜보라고 한 후에 달려왔어요."

부지런히 덤블도어를 따라가면서 해리가 말했다.

"그랬니?" 덤블도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더니 더욱더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해리는 덤블도어를 쫓아가기 위해 종종걸음을 칠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누구 다른 사람이 크라우치 씨를 보지는 않았니?"

"아니에요. 크롬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그만 씨가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끝낸 다음이었죠. 우리는 뒤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크라우치 씨가 숲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해리가 재빨리 대답했다.

"어디 있니?"

보바통의 마차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덤블도어가 물었다.

"저 너머예요."

해리는 덤블도어 앞에서 걸어가면서 우거진 나무 사이로 난 길을 안내했다. 크라우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해리는 분명히 이 길을 기억하고 있었다. 보바통의 마차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 근처 어디쯤이었는데……."

"루모스!"

덤블도어가 주문을 외우자 요술지팡이에서 불빛이 훌러나왔다. 가느다란 빛줄기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비추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두 발이 보였따.

해리와 덤블도어는 서둘러 그곳으로 뛰어갔다. 크롬은 숲속에 벌렁 나자빠져 있었다. 전혀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크라우치의 모습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덤블동어는 크롬을 향해 몸을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한쪽 눈꺼풀을 뒤집어보았다.

"기절했구나."

덤블도어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날카롭게 둘러보는 덤블도어의 반달 안경이 요술지팡이에서 훌러나오는 불빛에 반사되어서 반짝거렸다.

"제가 가서 누구를 데려올까요? 품프리 부인이라도?"

해리가 물었다.

"아니다. 여기에서 꼼짝도 하지 말거라."

덤블도어가 재빨리 말했다. 그리고는 요술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해그리드의 오두막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자 요술지팡이 끝에서 무엇인가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것이 튀어나오더니 유령 새처럼 나무들 사이를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빠져 나갔다.

덤블도어는 다시 허리를 숙이고 요술지팡이 끝을 크롬에게 갖다대면서 주문을 외웠다.

"에너바이트!"

빅터 크룸이 눈을 반짝 떴다. 하지만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다. 덤블도어를 보자 크롬은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덤블도어는 크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드러누워 있으라고 말했다.

"나를 공격했다!" 크롬이 손으로 머리를 문지르면서 중얼거렸다. "그 늙은 미치광이가 나를 공격했다! 나는 포터가 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뒤에서 공격했다!"

"이대로 가만히 누워 있거라."

덤블도어가 온화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그때 천둥처럼 쿵쿵 울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해그리드가 팽을 데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 해리! 도대체…… 무슨?"

해그리드가 두 눈을 휙둥그렇게 뜨면서 소리쳤다.

"해그리드, 자네가 카르카로프 교수를 좀 모셔 와야겠네. 조금 전에 카르카로프 교수의 학생이 공격을 당했어. 그 다음엔 미안하지만 무디 교수님을 좀……."

덤블도어가 해그리드에게 지시했다.

"그럴 필요 없네, 덤블도어."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걸걸하게 쉰 목소리가 들렸다. "난 여기 있네." 요술지팡이로 환하게 불을 밝힌 무디가 막대기에 몸을 기댄 채, 절뚝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망할 놈의 다리!" 무디가 욕설을 퍼부었다. "이 다리만 아니었다면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을 거야…… 무슨 일인가? 스네이프가 크라우치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떠들던데……."

"크라우치요?"

해그리드가 어리둥절해하며 반문했다.

"해그리드! 어서 카르카로프를!"

덤블도어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 네……. 당장 갑다옵죠. 교수님……."

해그리드는 황급히 몸을 돌리더니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졌다. 팽은 부지런히 해그리드의 뒤를 다라갔다.

"바티 크라우치가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지금은 크라우치의 행방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세."

덤블도어가 무디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가 찾아보지."

무디는 재빨리 요술지팡이를 꺼내 들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해그리드와 팽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덤블도어와 해리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반지르르한 은색 털코트를 걸친 카르카로프는 몹시 놀란 듯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땅 위에 쓰러져 있는 크롬과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덤블도어와 해리를 보자, 카르카로프가 부르짖었다.

"나는 공격을 당했다. 크라우치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나를……."

몸을 일으킨 크롬이 머리를 문지르면서 말했다.

"크라우치가 너를 공격했단 말이냐? 크라우치가 너를 공격했어! 트리위저드 심판이?"

"이고르."

덤블도어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카르카로프는 은색 털코트를 바싹 여미면서 고개를 높이 치켜들었다.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배반이야!" 카르카로프가 덤블도어를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건 비열한 음모야! 덤블도어, 당신과 당신네 마법부가 거짓 속임수로 나를 꼬셔서 이곳까지 불러냈어!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야! 처음에는 나이도 안 되는 포터를 시합에 슬쩍 집어넣더니 이제는 당신 마법부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챔피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들다니! 나는 이 모든 일에서 이중 거래와 부패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덤블도어, 당신은 국제 마법사들 사이에서 더욱 가까운 유대를 갖자느니, 과거의 인연을 다시 맺자느니, 해록은 불화는 그만 잊어버리자느니 하면서 잘도 떠들어대더니만…… 이게 바로 당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야!"

카르카로프는 덤블도어의 발 밑에 침을 턱 뱉었다. 그러자 미처 말릴 틈도 없이 해그리드가 카르카로프의 목덜미를 꽉 움켜잡고 번쩍 들어올리더니 옆에 서 있는 나무에 광 박아버렸다.

"당장 사과드려!"

해그리드가 육박지르며 소리쳤다. 해그리드의 거대한 손아귀에 목이 짓눌린 카르카로프는 숨이 막혀서 입을 딱 벌렸다. 그의 발은 허공에서 베동거리고 있었다.

"해그리드, 안 돼!"

덤블도어가 눈을 번뜩이면서 벼락 고함을 질렀다. 해그리드는 카르카로프를 나무에 바싹 붙여 놓고 있던 손을 턱 놓아버렸다. 나무 몸통을 따라 주르르 미끄러지면서 내려온 카르카로프가 나무 뿌리에 쿵 하고 부딪히자, 잔가지와 잎사귀들이 우수수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해그리드, 미안하지만 해리를 성까지 데려다 주도록 하게."

덤블도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그리드는 숨을 헐떡이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길로 카르카로프를 노려보았다.

"전 여기 남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니……."

"해그리드, 자네는 해리를 데리고 학교로 돌아가라니까." 덤블도어가 엄격한 목소리로 다시 명령했다. "당장 그리핀도르탑으로 해리를 데기고 가게나. 그리고 해리, 나는 제가 절대로 기숙사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싶더라도 말이다. 부엉이를 보내거나 하는 일은 아침이 밝아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라. 내 말을 알아들었지?"

"네……."

해리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덤블도어 교수님은 내가 시리우스에게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당장 피그위존을 날려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교장 선생님, 그렇다면 팽을 두고 가겠습니다." 해그리드가 카르카로프를 위협적인 눈길로 노려보면서 말했다. 카르카로프는 아직도 나무 밑에 길게 뻗어 있었다. 카르카로프의 매끄러운 털코트는 나무 뿌리에 뒤엉켜서 엉망이 되었다.

"팽, 너는 여기 있어. 가자, 해리."

해리와 해그리드는 둑목히 보바통의 마차를 지나 성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두 사람이 호숫가를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을 때, 해그리드가 부르르 치를 떨면서 말했다.

"어떻게 감히 덤블도어 교수님을 비난할 수가! 마치 덤블도어 교수님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너를 일부러 이 시합에 집어넣기라도 한 것처럼! 세상에! 요즘처럼 걱정을 많이 하는 덤블도어 교수님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너도 그래!"

해그리드가 갑자기 해리에게 벼락 화를 냈다. 해리는 어리둥절하여 해그리드를 올려다봤다.

"도대체 그 사건방진 크룸과 뭐하러 쏘다니고 있었니? 그 애는 덤스트랭 출신 이야, 해리! 개가 너한테 원가 마법을 걸 수도 있었어, 그렇지? 무디 교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단 말이니? 만약 그 애가 너를 꼬셔서 거기까지 일부러 데리고 간 거라면 한번 상상해 봐라!"

"크룸은 좋은 애예요!" 현관 복도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던 해리가 불쑥 말했다. "크룸은 내게 마법을 걸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헤르미온느에 대해 물어보려고……."

"그렇다면 헤르미온느에게도 한마디 해주는 게 좋겠군. 그런 외국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을수록 너에게 더 좋은 거야. 그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해그리드는 잔뜩 화가 나서 계단을 쿵쿵거리면서 올라갔다.

"하지만 아저씨는 맥심 부인과 잘 지내시잖아요."

"내 앞에서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잠시동안 해그리드는 겁에 질린 듯한 기색을 보였다. "이제 그 여자의 속셈을 똑똑히 알았다! 그 여자는 나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랬던 거야! 세 번째 시험에 어떤 생물이 나올지 알아내려고 말이야! 알겠니? 하! 어떻게 그런 자들을 믿는단 말이냐!"

해그리드가 어찌나 통명스럽고 기분 나빠하던지 해리는 뚱뚱한 여인 앞에서 헤어질 때가 되자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질 정도였다. 초상화 구멍을 통해 휴게실로 들어간 해리는 곧장 론과 헤르미온느가 앉아 있는 구석 자리로 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제 29 장

꿈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보는 게 좋겠어. 크라우치가 빅터를 공격했거나 아니면 빅터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두 사람을 공격한 것이 틀림없을거야."

헤르미온느가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지르면서 말했다.

"크라우치가 분명해. 그러니까 덤블도어와 해리가 도착했을 때,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크라우치는 재빨리 달아나고 있었겠지." 론이 투덜거리면서 밝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크라우치는 거의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 그런 상태로는 순간이동이나 다른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해리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호그와트 내에서는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어, 아직도 몇 번이나 더 말해야 알아듣겠니?"

헤르미온느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통명스럽게 면박을 주었다.

"좋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크롬이 크라우치를 공격한 거야. 아니, 잠깐만..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봐.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기절 마법을 쓴 거지!"

론이 흥분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크라우치 씨가 증발해 버렸단 말이니? 그래?"

헤르미온느가 비꼬았다.

"아, 그건..."

새벽에 어슴푸레 밝아 오자,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서둘러 기숙사를 빠져나와서 시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부엉이장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에 세 사람은 창문 너머로 안개가 잔뜩 낀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사람 모두 눈이 푸석푸석하고 안색이 창백했다. 한밤중까지 크라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해리, 다시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크라우치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니?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이미 말한 대로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덤블도어에게 뭔가 경고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 버사 조킨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계속해서 그 일이 자기 잘못이라고 중얼거렸지... 자기 아들 얘기도 했어."

해리가 대답했다.

"그래, 그건 크라우치의 잘못이었어."

헤르미온느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크라우치는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어느 때에는 아내와 아들이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퍼시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지시를 내리기도 했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말했다고 한 것 같은데?"

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벌써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야."

해리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네가 말한 대로 크라우치는 제 정신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의 절반 정도는 그저 혀소리였을 거야..."

론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씩씩하게 말했다.

"볼드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말짱한 제 정신이었어." 론이 얼굴을 잔뜩 찡그리는 것을 무시하면서 해리는 말했다.

"두 단어 이상을 연결해서 말하는 걸 무척이나 힘들어 했어. 하지만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덤블도어를 만나고 싶다고 계속 말했으니까 말이야."

해리는 창문에서 등을 돌려 서까래를 올려다 보았다. 수 많은 횃대의 절반 정도가 텅 비어 있었다. 이따금씩 끊이지 않고 부엉이들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모두 밤사냥에서 잡은 생쥐를 입에 물고 있었다.

"만약 스네이프가 나를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제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야, '교장선생님은 무척 바쁘시단다. 포터... 도대체 무슨 혀소리냐?' 어째서 스네이프는 그냥 길을 비켜 주지 않았을까?"

해리가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다.

"어쩌면 네가 덤블도어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어쩌면... 아니, 잠깐만... 스네이프가 얼마나 빨리 숲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니? 혹시 너와 덤블도어보다 먼저 숲에 도착한 건 아닐까? 두 사람을
앞질러서 갈 수도 있잖아."

론이 재빨리 말했다.

"박쥐나 뭐 그런 걸로 변신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해리가 대답했다.

"스네이프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 같아..."
론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먼저 무디 교수님을 만나 보는게 좋겠어. 크라우치를 찾았는지 알아봐야
하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무디가 비밀 지도를 가지고 나왔다면 크라우치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았을
텐데..."

해리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크라우치가 이미 학교 밖으로 나가지만 않았다면 분명히 그랬겠지. 비밀
지도에는... 학교 내부만 나타나잖아."

론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쉿!"

갑자기 헤르미온느가 속삭였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해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건 협박 편지야. 그러니까 어쩌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도록 점잖게 썼잖아. 지금은 더럽게 굽어야 할 때야. 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그 사람도 마법부에서 자기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거야."

"내가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편지를 보낸다면 그건 명백한 협박이야!"

"그래 하지만 너도 우리가 두둑이 돈을 받게 되면 불평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마침내 부엉이장이 활짝 열렸다. 부엉이장의 문턱을 넘어오던 프레즈와 조지는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를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에서 뭘하는 거야?"

론과 프레드가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편지를 보내려고..."

해리와 조지가 어색한 목소리로 똑같이 대답했다.

"뭐라구? 이 시간에?"

이번에는 헤르미온느와 프레드가 합창을 했다.

"좋아. 너희들이 우리가 뭘 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우리도 너희들이 하는 일을
묻지 않겠어."

프레드가 씩 웃으면서 제안했다. 프레드의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해리는 슬쩍 넘겨다보려고 했지만, 고의인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프레드가
봉투에 적힌 이름을 손으로 가려 버렸다.

"좋아, 이제 그만 비켜 주시지."

프레드는 조롱하듯이 꾸벅 절을 하면서 문 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론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야?"

론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물었다. 그순간 프레드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해리는 조지가 프레드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조지는 곧 론을
향해 싱글거리면서 말했다.

"바보같은 소리 하지마. 그냥 농담한거야."

조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것 같지 않은걸?"

론은 좀처럼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프레드와 조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적 있지, 론. 그냥 생긴대로 살아가고 싶으면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란 말이야. 도대체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조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형들이 누군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다면 그건 바로 내 문제이기도 해. 조지 형 말이 맞아. 결국 형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곤경에 빠질 거야." 론이 말했다.

"내가 말했지, 그냥 농담이라고 말이야."

조지는 프레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외양간 부엉이의 발에 편지를 매기 시작했다.

"론, 너는 어째서 점점 우리의 친애하는 형님과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너야말로 반장이 되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론이 벅 뒤를 내면서 소리쳤다. 조지는 외양간 부엉이를 창가로 데려가더니 하늘로 훅 날려 보냈다.

"좋아, 그럼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지 묻고 다니지마!. 나중에 보자"

조지는 뒤로 돌아서더니 론을 쳐다보면서 씩 웃었다. 잠시 후에 조지와 프레드는 부엉이장에 나갔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설마 프레드와 조지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원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크라우치와 그 밖의 다른 일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조심스럽게 소곤거렸다.

"아니야,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면 분명히 누군가와 상의했을거야. 덤블도어에게 말을 했겠지."

해리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론은 못내 불안한 표정이었다.

"왜 그래?"

헤르미온느가 론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과연 형들이 그렇게 할까? 형들은... 요즘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 형들하고 어울릴 때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너도 알잖아..."

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서로 말 안하고 지낼 때 말이지" 해리가 론은 대신해서 말했다. "그래 하지만 협박편지라니..."

"형들은 장난감 가게를 차리려는 생각을 갖고있어. 나는 그저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형들은 그게 진심이었어, 정말로 장난감 가게를 차리고 싶어해. 형들은 장난감 가게를 시작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지만 아빠는 형들을 도와 줄 수 없거든."

"그렇구나,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는 않을거야, 그렇지 않니?

헤르미온느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과연 그럴까? 난 모르겠어, 사실 형들은 규칙을 어기는 일 따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잖아? 안그래?"

론은 아주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법이야, 이건 시시한 학교 규칙 따위가 아니라구... 협박 편지를 보낸다면 구류 이상의 아주 심한 벌을 받게 될 텐데! 론... 어쩌면 퍼시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

헤르미온느는 덜컥 겁이 난 것 같았다.

"정신나갔어?"

론이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퍼시에게 말을 하라구? 퍼시는 아마도 당장 크라우치처럼 형들을 잡아넣을 걸?"

론은 한참동안이나 프레드와 조지의 부엉이가 날아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자, 그만 아침이나 먹으러 가자."

"무디 교수님을 찾아기가에는 시간이 너무 이를까?"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면서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그럴거야, 만약 우리가 이른 새벽부터 무디교수님을 깨우면 아마도 교수님은 당장 문 밖으로 우리를 날려 보낼걸? 무디 교수님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습격하려 온 줄 알고 말이야.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자."

해라가 말했다.

마법의 역사 시간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지나갔다.

해리는 자꾸만 론의 시계를 쳐다보았다. 해리는 고장난 시계를 결국 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론의 시계가 어찌나 느릿느릿 움직이던지 해리는 그 시계마저도 고장이 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해리와 론은 둘다 무척 피곤했기 때문에 책상에 머리를 들이박고 꾸벅 졸았다. 심지어 헤르미온느조차도 늘 빼놓지 않고 하던 필기도 하지 않고 손으로 턱을 광채, 초점이 없는 흐릿한 눈으로 빈스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종이 울리자, 서둘러 교실에서 빠져나온 그들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실로 향했다. 그리고 막 복도로 걸어나오는 무디 교수를 발견했다. 무디 교수도 그들만큼이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상적인 눈의 눈꺼풀이 축 처져서 평소보다 더욱더 얼굴이 비뚤어진 것처럼 보였다.

"무디 교수님?"

해리가 와글거리는 학생들 사이를 뚫고 무디에게 다가가 이사했다.

"잘 있었니, 포터?"

무디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무디의 마법의 눈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던 두 명의 1학년생들을 줄곧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종종걸음을 치면서 도망쳤다. 마법의 눈은 무디의 뒤통수까지 돌아가서 모퉁이를 돌아서는 두 명의 1학년 학생들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무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리 오너라."

무디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에게 비어 있는 교실로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뒤따라 들어오더니 교실 문을 닫았다.

"찾았나요, 크라우치 씨를?"

해리가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물었다.

"아니다."

책상 앞으로 다가간 무디는 조용히 자리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희미한 신음 소리를 내면서 나무 다리를 쭉 뻗더니 휴대용 물병을 꺼냈다.

"비밀지도를 사용해 보셨나요?"

해리가 물었다.

"물론이지, 포터, 나도 네 흉내를 내서 사무실에 있는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를 숲까지 불러왔단다. 하지만 크라우치는 어디에도 없었어."

무디는 후대용 물병에 담긴 것을 한모금 들이켰다.

"그렇다면 순간이동을 한건가요?"

론이 잔뜩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론, 여기서는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다고 몇 번 말했니?"

헤르미온느가 짜증을 내면서 말했다. "혹시 크라우치 씨가 사라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교수님?"

헤르미온느에게 쓸린 무디의 마법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장차 오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여기 또 한명 있구나, 그레인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정확해."

무디의 칭찬을 들은 헤르미온느의 얼굴이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투명 인간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 비밀 지도에는 투명인간도 나타나거든요. 결국 크라우치 씨는 학교를 빠져나간 거군요."

해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나갔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끌고 간 것일까?"

헤르미온느가 열성적으로 말했다.

"그래,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어. 크라우치 씨를 빗자루에 태우고 날아가 버린 거야.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

론은 재빨리 기대에 가득 찬 눈길을 무디에게 던졌다. 론도 무디로부터 장차 오려가 될 만한 재목감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납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무디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호그스미드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론이 물었다.

"어딘가에 있겠지." 무디가 대답했다.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단 한가지 사실은 크라우치가 이곳에 없다는 것뿐이야."

무디는 얼굴의 상처가 짹 늘어나고 일그러진 입술사이로 이빨이 빠져 버린 자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크게 하품을 했다.

그런 후에 다시 말을 이어 나갔다.

"덤블도어에게서 너희 세 사람이 탐정놀이를 즐긴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너희들이 크라우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부터는 마법부에서 크라우치의 행방을 수색할 거야, 덤블도어가 보고를 했으니까... 포터, 너는 세 번째 시험에 정신을 집중토록 해라."

"네?" 해리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지난밤에 빅터 크룸과 함께 경기장에서 떠난온 이후로는 미로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시험은 네가 아주 딱 들어맞는 것일지도 몰라. 덤블도어의 말을 들으니까, 너는 옛날부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하더구나. 1학년 때는 마법사의 돌을 지키는 장애물들을 뚫고 지나갔다면서?"

무디는 상처 자국이 나오 우둘투둘한 턱을 긁으면서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도와주었어요. 저와 헤르미온느가 도와주었죠."

론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래, 이번에도 해리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만약 해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나는 무척 놀랄 거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돼. 포터. 언제나 깨어 있도록 하거라."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무디는 다시 휴대용 물병을 들고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무디의 마법의 눈이 창문을 향해 빙그르르 돌아갔다. 창 밖으로는 덤스트랭 배의 뒷대가 보였다.

"너희 두 사람은(무디의 정상적인 눈이 론과 헤르미온느를 향했다) 반드시 포터 옆에 꼭 붙어 있거라, 알았지? 나도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감시하는 눈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니까."

다음날 시리우스는 부엉이를 돌려보냈다. '예언자 일보'를 부리 사이에 문 황갈색 부엉이가 헤르미온느 앞에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해리의 부엉이도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들었다. 신문을 펼쳐든 헤르미온느는 처음 몇장을 훑어 보았다.

"하! 이 여자는 크라우치에 관한 건 감도 못 잡았군!"

헤르미온느는 신문을 내려놓은 후에 시리우스의 답장을 읽고 있는 론과 해리를 향해 다가갔다. 세 사람은 시리우스가 지난밤에 일어난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해리... 빅터 크룸과 함께 숲속을 거닐면서 노닥거리다니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다음 답장에는 앞으로 어느 누구와도 밤중에 산책을 나가지 않겠다는 맹세를 적어 보내렴.

호그와트에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있단다. 그 사람들이 크라우치와 덤블도어가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어쩌면 너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마터면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네 이름이 불의 잔에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다. 만약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거야. 론과 해르미온느와 항상 붙어 다니도록 하거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그리핀도르 탑을 떠나지 말고 세 번째 시험에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도록 해. 기절 마법과 무장 해제 마법을 연습하거라. 몇 가지 주문도 절대로 빼뜨려서는 안된다. 크라우치에 대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항상 자중하면서 네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라. 네가 다시는 규율을 어기고 허튼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적어 보내기를 고대하고 있겠다.

시리우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규율을 어기지 말라고 훈계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는 온갖 말씀을 다 부려놓고서!"

시리우스의 편지를 접어서 옷 속에 집어넣은 해리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투덜거렸다.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무디와 해그리드 역시 그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잘 듣도록 해!"

해르미온느가 해리를 쏘아보면서 야단쳤다.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아무도 나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나에게 무슨 짓을 한 적이 없잖아."

해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이름을 불의 잔에 집어넣은 것 이외에는 말이지, 해리,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거야, 스누플즈의 말이 맞아, 어저먼 그들은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이번 시험이 그들이 노리는 기회인지도 모르지."

해르미온느가 말했다.

"좋아, 스누플즈가 옳다고 하자. 누군가 크라우치를 납치하기 위해 쿠롬을 공격해서 기절시켰어. 그래, 그들은 바로 우리 근처의 나무 뒤에 숨어 있었겠지. 안 그래? 그런데 내가 멀리 떠나갈 때까지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기다렸어, 그렇지? 그래도 내가 그들의 목표물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

해리가 짜증을 내면서 소리쳤다.

"숲속에서 너를 살해하면, 도저히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시험을 치르다가 죽게 되면..."

해르미온느가 말했다.

"하지만 쿠롬에겐 전혀 개의치 않고 공격했어, 그렇지? 왜 그들은 동시에 나를 공격해서 깨끗하게 해치우지 않았을까? 마치 나와 크루이 결투 같은 걸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해리는 마치 따지기라도 할 듯한 기세였다

"나도 도무지 이해가 안돼. 해리. 내가 아는 것은 계속해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어쩐지 기분이 나빠... 무디의 말이 맞아. 스누플즈의 말도 맞아. 너는 세 번째 시험에 대비하는 훈련을 해야만 돼. 지금부터 당장 말이야. 그리고 스누플즈에게 답장을 써서 다시는 몰래 혼자 빠져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해르미온느가 체념한 듯이 말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 안에서 갇혀 지내야만 하는 해리에게는 호그와트의 운동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으로 보였다.

몇일동안 해리는 자유 시간을 온통 해르미온느와 론과 함께 도서관에서 주문을 찾으면서 보냈다. 혹은 빈 교실로 몰래 들어가서 연습을 하기도 했다. 해리는 특별히 기절 마법을 익히는 일에 모든 정신을 쏟았다. 기절 마법은 해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주문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주문을 연습하려면 론과 헤르미온느의 절대적인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노리스 부인을 납치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월요일 점심 시간에 마법 교실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있던 론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론은 벌써 오십번째 기절을 했다가 방금 전에 깨어난 상태였다. 해리의 연습 상대였던 론은 기절 마법을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고양이를 잠깐 기절시키도록 하자. 아니면 도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도비는 너를 돋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거야. 해리. 물론 내가 불평이나 뭐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론이 등을 문지르면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이거야, 원... 온몸이 쑤셔서..."

헤르미온느가 추방 마법을 연습할 때 사용했던 방석 더미를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신경질을 부렸다. 그 방석은 플리트윅이 캐비닛 속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뒤로 잘 쓰러지려고 노력해 봐!"

"일단 기절 마법에 걸리면 조준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야. 헤르미온느! 그런데 왜 너는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지?"

론이 화를 내면서 물었다.

"글쎄... 어쨌거나 해리는 이제 기절 마법을 어느 정도 연습한 것 같아."

헤르미온느가 황급히 말했다. "그리고 무장해제 마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마법은 벌써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던 거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이 주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어. 나는 이게 그럴듯해 보여, 장애 마법,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천히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야. 해리, 이것부터 시작해 보자."

헤르미온느가 도서관에서 뽑아온 마법 목록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때 종이 울렸다. 세 사람은 서둘러 흩어진 방석을 다시 플리트윅의 캐비닛 속에 집어 넣고 교실을 나갔다.

"저녁 식사 때 보자."

헤르미온느는 산술점 수업을 들으러 가고, 해리와 론은 점술수업을 위해 북쪽 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높은 창문을 통해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복도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마치 에나멜을 칠해 놓은 듯이 푸른빛으로 반짝거렸다.

"트릴로니 교수님이 있는 교실은 펄펄 끊고 있을 거야. 절대로 벽난로 불을 끄는 법이 없으니까 말이야."

은빛 사다리와 뚜껑문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론이 불만을 터뜨렸다.

과연 론의 말이 적중했다. 희미하게 불이 밝혀진 교실은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뜨거웠다. 향수 냄새가 풍기는 벽난로의 불은 오늘따라 더욱 짙은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 자리로 걸어가던 해리는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트릴로니 교수가 램프에 걸린 솔을 풀기 위해 다른 쪽을 바라보는 사이에, 해리는 커튼을 아주 조금 젖히고 무명 덮개가 씌워진 팔걸이 의자를 뒤로 약간 밀었다. 그러자 부드러운 바람이 해리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었다.

"여러분"

트릴로니가 교탁 앞에 놓여 있는 날개 달린 의자에 앉으면서 입을 열었다.

트릴로니는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을 반짝이면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모두 둘러보았다..

"우리는 이제 점성술 공부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화성의 영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은 대단히 흥미로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면 불빛을 희미하게 하겠습니다..."

트릴로니가 요술지팡이를 흔들자 저절로 램프가 꺼졌다. 이제 벽난로만이 교실을 비추고 있는 유일한 불빛이었다. 트릴로니는 허리를 숙이더니 의자 밑에서 커다란 유리 반구 안에 태양계를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을 꺼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형이었다. 아홉개의 행성들과 활활 타오르는 태양 주위에는 제각기 달들이 반짝이면서 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유리반구 속의 허공에 떠 있었다.

해리는 트릴로니 교수가 화성과 해왕성이 만들어 낸 환상적인 각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짙은 향기가 해리를 엄습했다. 창가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해리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커튼 뒤의 어딘가에서 벌레가 부드럽게 봉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서히 해리의 눈꺼풀이 감기기 시작했다...

수리 부엉이의 등에 올라탄 해리는 맑고 투명한 하늘을 가로질러,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낡은 저택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수리 부엉이가 낡은 저택을 향해 서서히 하강하자. 상쾌한 바람이 해리의 얼굴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마침내 그들은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어두운 집의 이층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복도를 따라 제일 끝방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문으로 들어가자 나무판자를 덧댄 창문이 있는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해리는 수리 부엉이 등에서 내렸다... 해리가 지켜보는 동안, 수리 부엉이는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방 안을 가로 질러서 의자가 놓여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그 의자는 등이 돌려져 있었다. 의자의 양쪽에 눈 두 개의 검은 형체가 있었는데 두 개 모두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나는 거대한 뱀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었다...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축축한 눈동자에 코가 뾰족한 남자... 그 남자는 벽난로 깔개 위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해리는 그 남자가 훌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너는 운이 좋았다. 웜테일. 너는 참으로 행운아다. 네가 저지른 멍청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 자는 죽었다." 부엉이가 내려앉은 의자 깊숙한 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훌러나왔다. "주인님! 주인님, 저는...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서..." 웜테일이 입을 딱 벌렸다.

"내기니." 차가운 목소리가 말을 이어 나갔다. "너는 운이 없구나, 결국 웜테일을 너에게 먹이로 주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절대로 걱정하지 말거라... 아직도 해리포터가 남아 있단다..." 그러자 뱀이 좌우로 머리를 흔들면서 쑥쑥거렸다. 해리는 날름거리는 뱀의 혀바닥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자, 웜테일, 앞으로 너의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차가운 목소리가 웜테일을 향해 말했다.

"주인님, 제발... 이렇게 빕니다."

의자 깊숙한 곳에서 요술지팡이 끝이 톡 튀어나오더니 웜테일을 향했다.

"크루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주문을 외우면서 중얼거렸다. 웜테일은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불에 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다. 그 처절한 비명 소리가 해리의 귀를 가득 채웠다. 또다시 해리는 이마의 상처가 칼로 찌르는 듯이 날카롭게 쑤셔오기 시작했다. 해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명을 질렀다. 볼드모트는 분명히 해리의 비명을 듣게 될 것이다. 해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해리! 해리!"

해리는 번쩍 눈을 뜰었다. 해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채, 트릴로니 교수의 교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마의 상처가 아직 까지도 강렬한 고통으로 인해 화끈거렸기 때문에 해리의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훌러내렸다. 그 고통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해리를 빙 둘러싸고 서 있었다. 론은 잔뜩 겁에 질려 해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괜찮니?"

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괜찮을 리가 없지! 포터, 그게 뭐였니? 전조? 환영? 도대체 뭘 보았지?"

트릴로니 교수는 완전히 흥분해서 어쩔줄을 몰랐다. 트릴로니 교수의 커다란 눈동자가 해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해리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면서 거짓말을 했다. 간신히 일어나 앉은 해리는 여전히 몸을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 뒤쪽 어두운 구석을 힐끗힐끗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볼드모트의 목소리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들렸었다.

"너는 이마에 난 네 상처를 움켜쥐고 있었어!. 너는 상처를 움켜쥔 채, 교실바닥을 퉁굴었단 말이다! 자, 어서! 포터,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아주 풍부하단다."

트릴로니 교수가 잔뜩 흥분해서 말했다.

"아무래도 병동에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두통이 아주 심하거든요."

해리는 트릴로니 교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런! 너는 틀림없이 내 방에 흐르는 비상한 통찰력의 파동에 의해 자극을 받은 거란 말이다! 지금 내 방을 나간다면 네가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다!"

트릴로니 교수가 안타까운 듯이 소리쳤다.

"저는 두통약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학생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중에 보자."

해리는 론에게 나지막이 인사를 한 후에 가방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호의를 무시당한 사람처럼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트릴로니 교수를 무시한 채 뚜껑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은빛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간 해리는 병동으로 가지 않았다.

병동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시리우스는 상처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 알려 준 적이 있었다.

해리는 시리우스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곧장 덤블도어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해리는 꿈 속에서 보았던 광경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프리벳 가에서 해리를 잠에서 깨어나도록 만들었던 꿈처럼 아주 생생하고 선명했다... 해리는 그 광경을 똑똑히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 속으로 하나 하나 다시 그려 보았다. 볼드모트가 웜테일에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수리 부엉이는 그 실수가 만회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볼트모트를 찾아갔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웜테일은 뱀의 먹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해리, 해리가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해리는 아무 생각없이 덤블도어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밀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무기 석상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문득 정신이 들어 눈을 깜박이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시 뒤돌아서 간 해리는 이무기 석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제서야 해리는 자신이 여전히 암호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몬 방울?"

해리는 시험삼아 자신이 알고 있던 암호를 불러보았다. 그러나 이무기 석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좋아."

해리는 이무기 석상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진주 방울. 지팡이 사탕. 피징 위즈비. 드루블즈의 풍선껌. 베르티 보츠의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 오, 안 돼. 덤블도어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열려라, 그런 안되겠니?" 해리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정말로 덤블도어 교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야. 아주 긴급한 일이야!" 하지만 이무기 석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이무기 석상을 발로 힘껏 걷어찼지만, 발가락만 아플 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개구리 초콜릿!" 잔뜩 약이오른 해리는 아픈 발을 움켜쥐면서 닥치는 대로 지껄였다. "사탕 펜! 바퀴벌레 과자!"

갑자기 아무기 석상이 살아 움직이더니 펄쩍 옆으로 비켜섰다. 해리는 깜짝 놀라면서 눈을 깜박거렸다.

"바퀴벌레 과자?"

해리는 어안이 병벙했다.

"난 그저 농담으로 말한 건데..."

열린 벽 사이로 서둘러 들어간 해리는 나선형의 돌계단에 올라섰다. 해리의 등 뒤에서 벽이 쿵 닫히더니 계단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놋쇠로 만든 고리가 달린 윤이 나는 박달나무 문 앞까지 해리를 데려다 주었다. 덤블도어의 사무실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저절로 움직이는 계단에서 내려온 해리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덤블도어, 나는 미안하지만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네! 전혀 연관성이 없단 말이야! 루도 베그만은 버사가 분명히 길을 잊어버렸을 거라고 말하고 있네. 나도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미 지금쯤 버사를 찾아냈어야 했다는 건 인정하는 바일세. 하지만 더러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 덤블도어,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단 말이야. 버사의 실종과 바티 크라우치의 실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법부의 장관 코넬리우스 퍼지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바티 크라우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장관?" 무디가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앨러스터,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네. 하나는 크라우치가 마침내 이성을 잃고 – 이 점에 대해서는 자네도 동의할 거라고 믿네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 미쳐서 어딘가를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는 걸세."

퍼지가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코넬리우스, 만약 그렇다면 크라우치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방황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군."

"글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크라우치가 사라진 곳을 조사하기 전까지 나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겠네." 퍼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보바통 마차 근처라고 말했던가? 덤블도어, 자네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나?"

"아주 능력 있는 교장이라고 생각하네. 춤 솜씨 또한 뛰어나지."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덤블도어, 이러지 말게! 자네는 해그리드 때문에 그 여자를 너무 좋게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들 모두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명된 건 하나도 없다네. 그래, 자네는 해그리드가 전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괴물에 대한... 해그리드의 병적인 집착을 보면..."

코넬리우스가 버럭 화를 냈다.

"나는 해그리드만큼이나 맥심 부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네. 난 어쩌면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네, 코넬리우스."

덤블도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식의 논쟁은 그만두는 게 어떤가?"

무디가 소리쳤다.

"그래, 그래, 좋아. 그렇다면 운동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지."

코넬리우스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건 안 되겠군. 덤블도어, 포터가 자네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네.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네."

무디가 마법의 눈을 번뜩이면서 말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다.

"안녕, 포터. 어서 들어오너라."

무디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해리는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덤블도어의 사무실에는 전에도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아주 아름다운 둥근 방이었으며 벽에는 호그와트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가슴을 들썩거리면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덤블도어의 책상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가느다란 줄무늬 망토를 걸치고 있었으며 손에는 연한 초록색 중절모를 들고 있었다.

"해리! 어떻게 지냈느냐?"

퍼지가 해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반갑게 맞이했다.

"잘 지냈어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방금 지난밤에 크라우치 씨가 운동장에 나타났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크라우치 씨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너라면서? 그게 정말이니?"

퍼지는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정면으로 해리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네."

해리는 그들이 주고받은 말을 밖에서 듣지 못한 척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맥심 부인의 모습은 저혀 보지 못했어요. 사실 맥심 부인 같은 사람은 몸을 숨기는 게 무척 어려울 거예요. 안 그런가요?"

퍼지의 등 뒤에 서 있던 덤블도어가 눈을 찡끗하면서 해리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건 그렇구나. 으음... 해리,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잠깐 운동장을 둘러봐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교실로 돌아가는 것이..."

퍼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저는 교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리는 덤블도어를 쳐다보면서 재빨리 말했다. 덤블도어는 마치 탐색이라도 하듯이 해리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해리." 덤블도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운동장을 조사하는 일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게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해리의 곁을 지나서 문을 닫고 나가 버렸다.

잠시 후에 아래층 복도에서 무디의 나무 다리가 또각또각 걸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해리는 천천히 덤블도어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안녕, 퍽스."

해리가 다정하게 인사했다. 덤블도어 교수의 불사조인 퍽스는 문 뒤에 있는 황금 횃대에 앉아 있었다. 백조만한 크기에 진홍색과 황금색의 화려한 깃털이 달린 이 새는 기다란 꼬리를 흔들면서 유순하게 눈을 깜박거렸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액자 속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역대 교장들의 초상화를 지켜보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제 이마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지만, 해리는 손가락으로 상처를 문질러 보았다. 일단 덤블도어의 사무실에 들어오자 해리는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에는 다시 덤블도어를 만나서 꿈에 대해 죄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책상 뒤편의 벽을 옮려다보았다. 여기저기를 기운 누덕누덕한 마법의 모자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은으로 만든 멋진 칼이 유리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손잡이 부분에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 있었다. 해리는 자신이 2학년 때 마법의 모자 속에서 꺼냈던 바로 그 칼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원래 그 칼은 해리가 속해 있는 기숙사의 설립자인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것이었다. 해리는 실낱 같은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순간에, 저 칼이 얼마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가를 떠올리면서 묵묵히 그 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때 해리는 문득 유리 상자 위에서 하얗게 반짝거리는 빛의 반점이 흔들흔들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빛이 새어 나오는 곳을 찾아보았다. 해리의 등뒤에 있는 검은 캐비닛 사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하얀 은색 물체가 보였다. 캐비닛의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힐끗 퍽스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캐비닛의 문을 열었다. 캐비닛 안에는 얇팍한 돌로 만든 대야가 놓여 있었다. 대야의 가장자리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해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문자와 상징인 것 같았다. 반짝거리는 은색 빛줄기는 바로 그 대야에 담긴 내용물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질은 해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과도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액체인지 기체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는 그 물질은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이었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표면은 마치 바람에 일렁이는 수면처럼 굽이치다가 또다시 구름처럼 부드럽게 흩어지거나 소용돌이치곤 했다. 그것은 액체로 만든 빛이나 혹은 고체로 만든 바람 같았다. 해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해리는 그 물체를 손으로 직접 만져서 어떤 느낌인지 알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물질에 손을 집어넣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는 거의 4년에 걸친 마법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리는 옷 속에서 요술지팡이를 꺼내 들고 초조한 얼굴로 사무실을 한번 쑥 둘러본 다음, 대야 속에 담긴 물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해리는 신중하게 요술지팡이를 그 속에 살짝 담갔다. 은색 물질의 표면이 아주 빠르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해리는 자신의 머리를 캐비닛 속에 집어넣고 허리를 숙였다. 은빛이 감도는 물질은 점차 투명하게 변하더니 마침내 유리처럼 되었다. 해리는 돌로 만든 대야의 바닥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 신비한 물질의 수면 아래서는 돌바닥 대신에 거대한 방이 보였다. 해리는 마치 천장에 뚫린 둥근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방은 몹시 어둠침침했다. 해리는 아마도 지하실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창문은 하나도 없고 호그와트의 벽에 꽂혀 있는 것과 같은 횃불만이 주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투명한 물질에 거의 코 끝이 달을락말락 할 정도로 바싹 얼굴을 갖다댔다. 마녀와 마법사들이 방을 빙 돌아가면서 총총이 배열되어 있는 의자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방 한복판에는 빈 의자가 한 개 놓여 있었는데, 어쩐지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다. 의자 팔걸이에는 굵은 쇠사슬이 달려 있는 것이, 아마도 의자에 앉은 사람을 끌어 놓는 모양이었다.

여기가 어디일까? 호그와트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성에서 이런 장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더구나 대야 바닥에 비친 그 이상한 방에 가득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른들이었는데, 호그와트에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비록 해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뾰족한 모자꼭대기 뿐이었지만, 모두들 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듯이 보였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대야는 둥글지만 그 안에 비친 방의 모습은 사각형이었다. 그러므로 방의 구석진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볼 수가 없었다. 해리는 좀더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 머리를 잔뜩 숙인 채,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해리의 코 끝이 그 이상한 물질에 살짝 달았다. 그러자 덤블도어의 사무실이 크게 요동을 치더니, 해리는 대야에 있는 물질 속에 머리를 처박은 채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해리의 머리는 단단한 돌바닥에 부딪히지 않았다. 해리는 무엇인가 얼음처럼 차갑고 어두운 공간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강력한 소용돌이처럼 해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갑자기 해리는 대야 안에 나타났던 그 방의 제일 뒤쪽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맨 뒷줄의 의자는 다른 의자들보다 위로 높이 솟아올라 있었다.

해리는 고개를 들어서 높은 돌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자신이 방금 전까지 들여다보고 있던 둥근 천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시커멓고 단단한 돌뿐이었다.

해리는 숨을 헐떡이면서 재빨리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 방에 있는 마법사와 마녀들(적어도 2백 명은 되는 것 같았다)은 아무도 해리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방금 열네 살 짜리 소년이 천장에서 뚝 떨어졌다 사실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얼떨결에 옆 자리에 앉아 있는 마법사를 향해 고개를 돌린 해리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조용한 방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바로 오른쪽 자리에 알버스 덤블도어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교수님!"

해리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깍깍거리면서 간신히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캐비닛 안에 있는 그 대야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제가 지금 어디 있는거죠?"

하지만 덤블도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서 해리를 쳐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덤블도어는 해리를 전혀 보지 못한 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마법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쪽 구석을 열심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구석에는 문이 달려 있었다.

해리는 어안이벙벙해서 힐끗 덤블도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면서 한 곳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빙 돌아본 후에 다시 덤블도어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전에도 한 번 해리는 아무도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에 가 본 적이 있었다. 그때 해리는 마법에 걸린 일기장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 해리가 무엇인가 완전히 착각한 게 아니라면,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해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오른손을 들어 덤블도어의 눈앞에 대고 열심히 흔들어 보았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해리를 돌아보기는커녕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모든 상황이 확실해진 것 같았다. 덤블도어가 이렇게까지 해리를 모른 척 할 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덤블도어는 현재의 덤블도어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전도 아닌 것 같았다... 해리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덤블도어도 현재의 덤블도어처럼 새하얗게 머리가 세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어디일까? 여기 모여 있는 마법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해리는 좀더 주의 깊게 방을 둘러보았다. 대야에 비친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상상했던 것처럼, 이 방은 지하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곳은 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하 감옥에 더 가까운 것 같았다. 방에는 어전지 냉랭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벽에는 그림이나 장식품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단지 방을 빙 둘러싸면서 계단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의자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 의자들은 어느 방향에서나 쇠사슬이 달린 의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해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의 구석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세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한 사람과 두 명의 디멘터가 들어오고 있었다. 디멘터들은 그 사람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다.

갑자기 해리의 뱃속이 싸늘하게 차가워졌다. 키가 크고 두건을 얼굴까지 푹 눌러쓴 디멘터들은 방 한가운데에 있는 의자를 향해 천천히 미끄러지듯 다가갔다. 그들은 다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그 사람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다. 디멘터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해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기억 속의 디멘터들이 해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그들의 무시무시한 힘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디멘터들이 그 남자를 쇠사슬이 달린 의자에 앉히고 다시 방에서 나가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몸을 약간 움찔했다.

잠시 후에 문이 닫히고 디멘터들도 사라졌다.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 사람은 바로 카르카로프였다.

덤블도어와는 달리 카르카로프는 훨씬 더 짧어 보였다. 카르카로프의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검은색이었다. 하지만 반들반들한 텔코트가 아니라 다 낡아서 너덜너덜하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다. 카르카로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해리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갑자기 의자의 쇠사슬이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스르르 카르카로프의 팔 위로 기어 오르더니 그의 온몸을 꽁꽁 둑어 버렸다.

"이고르 카르카로프."

날카로운 목소리가 해리의 왼쪽 귓전을 때렸다. 해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 크라우치가 당당한 태도로 우뚝 서서 카르카로프를 노려보고 있었다. 크라우치의 머리카락은 아직도 새카맣고 얼굴에는 주름살도 없었으며 체격은 단단하고 날렵한 인상을 주었다.

"너는 마법부에 증언을 하기 위해 아즈카반에서 이곳까지 호송되었다. 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카르카로프는 의자에 둑인 채로 최대한 허리를 쭉 펴다.

"그렇습니다."

카르카로프의 목소리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살살 비위를 맞추는 듯한 매끄러운 어조는 변함이 없었다.

"저는 마법부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법부가 어둠의 주인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이 닿는 한 기꺼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마법사와 마녀는 흥미로운 눈길로 카르카로프를 자세히 뜯어보고 있었으며, 다른 마법사와 마녀는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다. 바로 그 때 덤블도어의 옆자리에서 귀에 익은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더러운 놈."

해리는 앞으로 몸을 쑥 내밀고 덤블도어의 옆자리를 넘겼다 보았다. 그곳에는 매드아이 무디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무디의 모습은 눈에 띄일 정도로 확연하게 달랐다. 지금처럼 마법의 눈이 아니라 정상적인 두 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카르카로프를 응시하고 있는 무디의 두 눈은 온통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라우치는 저 녀석을 풀어 줄 생각이야." 무디는 목소리를 낮추고 덤블도어에게 속삭였다. "저 녀석과 거래를 한 거야. 나는 무려 6 개월이나 고생하면서 저 녀석을 추적했는데, 크라우치는 새로운 명단만 얻어 내면 저 녀석을 풀어 줄 작정을 하고 있으니... 만약 나라면 정보만 들은 후에 저 녀석을 당장 디멘터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던져 버릴 텐데 말이야."

덤블도어는 무디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는 듯 길고 구부러진 코로 나지막이 콧소리를 냈다.

"맞아! 그래, 내가 잊고 있었네... 자네는 디멘터들을 좋아하지 않지, 알버스?" 무디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래. 미안하지만 난 싫어해. 오래 전부터 마법부가 그런 생물과 결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왔어."

덤블도어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런 비열한 녀석은..."

무디가 한숨을 내쉬면서 중얼거렸다.

"카르카로프, 너는 분명히 어둠의 주인을 추종하는 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어서 그 이름을 말하라."

크라우치가 카르카로프를 노려보면서 재촉했다.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자는 항상 철저한 비밀 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우리, 그러니까 그의 추종자... 이제 저는 그런 자들과 어울렸던 것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카르카로프가 허둥지둥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찰떡궁합이었지."

무디가 빈정거리면서 사나운 눈빛으로 카르카로프를 노려보았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동지들의 이름을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그것 참 현명한 행동이군. 카르카로프, 자네 같은 자들이 다른 추종자를 모두 밀고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겠지."

무디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너는 우리에게 몇 사람의 이름을 알려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크라우치가 날카롭게 추궁했다.

"예, 그랬습니다. 그들은 추종자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았죠. 저는 진심으로 그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후회와 자책감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증거로써 이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카르카로프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다.

"그 이름은?"

크라우치가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안토닌 돌로호브가 있습니다. 저... 저는 돌로호브가 수많은 머글들과... 그리고 어둠의 주인을 추종하지 않는 자들을 고문하는 걸 보았습니다."

카르카로프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돌로호브가 고문하는 것을 도와주었겠지."

무디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면서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미 돌로호브를 붙잡았다. 돌로호브는 네가 잡힌 직후에 곧바로 체포되었다."

크라우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정말입니까?" 카르카로프의 눈이 휙동그레졌다. "그...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 기쁘군요!"

하지만 카르카로프의 표정은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해리는 아마도 그 소식이 카르카로프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카르카로프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크라우치가 차갑게 질문을 던졌다.

"예... 로시에르가 있습니다. 예반 로시에르..."

카르카로프가 서둘러 고백했다.

"로시에르는 죽었다. 로시에르도 네가 잡힌 이후에 곧 붙잡혔다. 하지만 로시에르는 순순히 체포되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는 편을 선택했지. 그래서 저항하던 끝에 죽임을 당했다."

크라우치가 카르카로프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도 좀 당했지."

무디가 덤블도어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말을 듣고 해리는 고개를 돌려서 무디를 힐끗 쳐다보았다. 무디는 살점이 뭉텅 떨어져 나간 자신의 코 끝을 덤블도어에게 보여 주고 있었다.

"로... 로시에르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카르카로프의 목소리는 거의 광적으로 들렸다. 카르카로프는 자신의 정보가 마법부에 하나도 쓸모없게 되거나 않을까 싶어서 몹시 초조해 하고

있었다. 해리는 카르카로프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르카로프의 눈은 자꾸만 구석에 있는 문으로 쏠렸다.
디멘터들은 저 문 뒤에서 조용히 카르카로프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또 다른 이름은?"
크라우치가 다시 물었다.
"있습니다!"
카르카로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트래버스가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맥키논스
가족을 살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뮤타버... 그는 임페리우스 저주의 전문가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록우드, 그는 스파이입니다. 마법부 내에 있으면서 이름을
말해서는 안되는 그 자에게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카르카로프가 제대로 적중을 한 것이 분명했다. 카르카로프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록우드?" 크라우치가 앞에 앉아 있던 한 마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
마녀는 양피지에 무엇인가를 휘갈겨 쓰기 시작했다. "미스터리 부의 어거스투스
록우드 말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록우드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법부의 안과 밖,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는 조직망을 이용했습니다."
카르카로프가 열심히 말했다.
"하지만 트래버스와 뮤타버는 이미 붙잡았다. 잘했다, 카르카로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너는 우리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다시 아즈카반으로
돌아가서..."
크라우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아닙니다!" 카르카로프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기다려 주십시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해리는 횃불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카르카로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카르카로프의 백지장 같은 피부는 새까만 머리카락이나 콧수염과 더욱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스네이프!" 카르카로프가 고함을 질렀다. "세베루스 스네이프!"
"스네이프는 재판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알버스 덤블도어가 스네이프의
무죄를 보증해 주었다."

크라우치가 냉정하게 선언했다.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죽음을 먹는 자입니다!"

카르카로프가 애타게 소리를 질렀다. 카르카로프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증언했습니다."

덤블도어가 벌떡 일어났다. 덤블도어는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침착하게 설명했다.

"세베루스 스네이프는 정말로 죽음을 먹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볼드모트 경이
몰락하기 이전에 우리편으로 합세해서 우리를 위해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극히 위태로운 것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죽음을
먹는 자가 아니듯이, 스네이프도 더 이상 죽음을 먹는 자가 아닙니다."

해리는 얼른 고개를 돌려서 매드아이 무디를 쳐다보았다. 무디는 덤블도어의 등
뒤에서 뜬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잘 알았다, 카르카로프." 크라우치가 차갑게 말했다. "너는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러므로 너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얼마 동안
아즈카반에 머물러야 하겠지만..."

크라우치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해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실이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변하고 있었다. 해리는 겨우 자신의 몸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짙은 어둠 속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때 지하실이 다시 나타났다. 해리는 아까와는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제일 높은 뒷자리였지만, 이번에는 크라우치의 왼쪽 자리였다. 지하실의

분위기는 조금 전과 상당히 달랐다. 마법사와 마녀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으며, 심지어 유쾌해 보이기까지 했다.

지하실 벽을 따라 빙 둘러앉아 있는 마법사와 마녀들은 흥미로운 운동 경기를 구경하려 나온 사람들처럼 재잘재잘 떠들고 있었다. 문득 해리의 눈에 좌석 중간 정도에 앉아 있는 한 마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짧은 금발 머리에 짙은 붉은색 옷을 입고 선명한 초록색 깃펜을 쪽쪽 빨고 있는 그 여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리타 스키터였다.

해리는 다시 한 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덤블도어는 다른 옷을 입고 해리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크라우치는 훨씬 더 피곤하고 날카롭고 수척해 보였다... 해리는 비로소 알아차렸다. 이것은 아까와는 다른 날의... 다른 재판에 대한 기억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루도 베그만이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사람은 늙고 초라한 모습의 루도 베그만이 아니었다. 퀴디치 선수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전성기 때의 루도 베그만이 분명했다. 루도 베그만의 코는 아직도 부러지지 않은 채 멀쩡했고 훈칠한 키에 늘씬하고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루도 베그만은 다소 초조한 모습으로 쇠사슬이 달린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의자는 카르카로프에게 그랬던 것처럼 루도 베그만을 쇠사슬로 묶지는 않았다. 그 사실에 크게 용기를 얻은 듯이, 루도 베그만은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그리고 심지어 몇 명에게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던지기까지 했다.

"루도 베그만, 너는 죽음을 먹는 자들의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고발에 답변하기 위해서 여기 마법사 법정에 불려 나왔다." 크라우치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들었고,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중이다. 우리가 판결을 선언하기 전에, 달리 증언할 말이 없는가?" 그 순간 해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루도 베그만이 죽음을 먹는 자라는 거야?

"저는 단지..." 루도 베그만이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 저도 제가 좀 명청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두 명의 마법사들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크라우치는 그들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반대로, 크라우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냉혹함과 혐오감이 가득 담겨 있는 표정으로 루도 베그만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네 입에서 그보다 맞는 말은 나온 적이 없을 게다. 이 녀석아. 네놈이 처음부터 항상 명청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블러저에 얻어맞은 충격 때문에 네놈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았을 게다..."

해리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덤덤한 목소리로 덤블도어에게 속삭였다. 해리가 뒤를 돌아보자, 역시 무디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루도빅 베그만, 너는 볼드모트 경의 추종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다가 체포되었다. 그러므로 아즈카반에 투옥할 것을..."

크라우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성난 고함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몇 명의 마법사와 마녀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심지어 크라우치를 향해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록우드 노인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편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롱우드는 적당한 때가 되면 마법부에 자리를 구해 주겠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퀴디치 선수 생활이 끝나면 말이죠. 아실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저도 평생 동안 블러저에 얻어맞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루도 베그만은 동그랗고 푸른 눈을 크게 뜨면서 웅성거리는 방청객들을 향해 열심히 호소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훌러나왔다.

"그렇다면 이 재판을 투표에 부치도록 하겠다."

크라우치가 루도 베그만을 노려보면서 냉정하게 말했다. 크라우치는 지하실 오른쪽을 향해 돌아섰다.

"배심원 여러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먼저 루도 베그만을 투옥하는 일에 찬성하시는 분..."

해리는 흥미롭게 재판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하실 벽을 따라 빙 둘러앉아 있던 마법사와 마녀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배심원석에 앉아 있던 마법사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하실 말씀이라도?"

크라우치가 물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벌어진 터키와의 쿠디치 시합에서 베그만 씨가 영국을 위해 보여주었던 그 눈부신 활약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 마법사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했다. 크라우치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이제 지하실은 환호성으로 떠나갈 것 같았다. 루도 베그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향해 공손히 절을 했다.

"야비한 놈."

크라우치는 투덜거리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크라우치는 지하실에서 걸어나가는 루도 베그만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덤블도어에게 한 마디 내뱉었다.

"록우드는 정말로 저 녀석에게 일자리를 얻어주었다네... 루도 베그만이 우리와 합세하는 그날이 마법부의 초상날이 되겠군..."

지하실이 점차 희미하게 사라지더니 곧이어 다시 나타났다. 해리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리와 덤블도어는 여전히 크라우치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다만 크라우치 옆에 앉아 있는 연약하고 가냘픈 한 마녀의 흐느낌만이 간간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 마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는데, 해리는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는 마녀의 손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리는 고개를 들고 크라우치를 올려다보았다. 크라우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늙어 보였다.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새파랗게 돌아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도록!"

크라우치의 목소리가 조용한 지하실의 정적을 깨면서 울려퍼졌다. 구석에 있는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이번에는 여섯 명의 디멘터들이 네 사람을 끌고 지하실로 들어왔다. 해리는 무리를 지어 들어온 사람들이 크라우치를 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 명은 서로 컷속말을 주고받았다.

디멘터들은 지하실 바닥에 놓여 있는, 쇠사슬이 달린 네 개의 의자에 네 사람을 제각기 앉혔다. 그 중에서 땅딸막한 남자가 크라우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좀더 날씬하고 신경질적으로 생긴 남자는 방청객들 사이를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굵고 매끄러운 검은 머리카락에 쌍꺼풀이 유난히 두꺼운 여자는 쇠사슬이 달린 의자가 마치 왕좌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십대 후반의 소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밀짚 같은 금발이 주근깨가 박힌 소년의 우윳빛 얼굴을 거의 뒤덮고 있었다. 크라우치의 옆에 앉아 있던 가냘픈 마녀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몸을 가늘게 떨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마침내 크라우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명의 죄인들을 쳐다보는 크라우치의 얼굴에는 오직 증오와 미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너희들은 우리의 판결을 받기 위해 여기 마법사 법정에 불려 나왔다."

크라우치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나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밀짚 같은 금발을 가진 소년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발..."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범죄는 거의 들어 본 바가 없다."

크라우치는 아들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듯이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는 이미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 사람은 오러인 프랭크 롱바텀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너희들은 프랭크 롱바텀을 통해 너희들의 주인인 추방된 그 사람의 현재 소재를 알아내려는 의도에서..."

"아버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에요. 맹세해요. 아버지, 저를 디멘터에게 보내지 마세요..."

쇠사슬에 묶인 소년이 애처롭게 부르짖었다.

"너희들은 프랭크 롱바텀의 아내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사용한 혐의로 다시 한 번 기소를 당했다." 크라우치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롱바텀이 주지 않자,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너희들은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자의 힘을 되찾아서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누렸던 그 난폭한 삶을 또다시 누릴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배심원들에게 요청하노니..."

"어머니!" 소년이 애처롭게 부르짖자, 크라우치의 옆에 앉아 있던 가냘픈 체구의 마녀가 어깨를 심하게 들썩거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말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배심원들에게 요청하노니..." 크라우치는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외쳤다. "저와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의 범죄가 아즈카반에서 종신형을 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지하실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마법사와 마녀들은 일제히 손을 들었다. 지하실 벽을 따라 빙 둘러앉아 있던 방청객들은 루도 베그만의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혹한 승리감이 떠올라 있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안 돼요! 어머니, 안 돼요! 저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저는 결코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를 그곳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아버지께, 아버지께 말해 주세요!"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디멘터들이 미끄러지듯이 방으로 들어왔다. 소년과 함께 끌려온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의 주인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크라우치! 우리를 아즈카반으로 던져넣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분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다른 어떤 추종자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커다란 보상을 내릴 것이다! 오직 우리만이 충성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직 우리만이 그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두껍게 쌍꺼풀이 진 마녀가 크라우치를 노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소년은 디멘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했다. 하지만 해리의 눈에도 벌써 디멘터의 차갑고 무시무시한 힘이 그 소년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그 마녀가 지하실 밖으로 끌려나간 후에도 소년이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자, 방청객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몇 명의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소년은 크라우치를 향해 울부짖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갑자기 크라우치가 두 눈을 부릅뜨더니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다. "내겐 아들이 없다!"

크라우치의 옆에 앉아 있던 가냘픈 몸매의 마녀가 혁하고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의자 위에서 쪽 늘어지고 말았다.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기절을 한 것이다. 하지만 크라우치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다.

"저 사람들을 데리고 어서 가! 당장 데리고 꺼져! 거기에서 평생 동안 썩으라고 해!"

크라우치가 디멘터들에게 호통을 쳤다. 크라우치의 입에서 마구 침이 튀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해리, 이제 내 사무실로 돌아올 시간이 된 것 같구나."

해리의 컷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양쪽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오른쪽에는 디멘터들에게 끌려가는 크라우치의 아들을 바라보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해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알버스 덤블도어가 서 있었다.

"가자."

왼쪽에 있는 덤블도어가 해리의 팔꿈치를 잡았다. 해리는 허공으로 몸이 뿅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주위의 풍경이 점점 사라졌다. 한 순간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변하면서 해리는 천천히 공중돌기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해리의 발이 평평한 바닥에 닿았다. 눈부신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덤블도어의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캐비닛 속의 대야는 여전히 해리의 눈앞에서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알버스 덤블도어가 해리의 곁에 서 있었다.

"교수님,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캐비닛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해리가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았다.

"충분히 이해한다."

덤블도어는 얄팍한 돌로 만든 대야를 번쩍 들어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의자를 끌어 당기더니 그 앞에 앉았다.

덤블도어는 해리를 쳐다보면서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해리는 물끄러미 대야를 응시하면서 의자에 앉았다. 대야에 담겨 있는 물질은 다시 원래대로 은빛이 감도는 하얀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 소용돌이치면서 출렁거렸다.

"이게 뭐죠?"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 말이냐? 이건 펜시브라고 하는 거란다. 너도 분명히 그런 기분을 알고 있을 게다. 머리 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기억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네..."

솔직히 해리는 그런 종류의 기분을 느껴 봤던 적이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덤블도어는 손을 들어 돌로 만든 대야를 가리켰다. "나는 펜시브를 사용한단다. 그저 머리 속에서 넘쳐나는 생각들을 빨아들인 다음에 이 대야에 쏟아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가할 때 다시 들여다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어떤 사건의 유형이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저것이 교수님의 생각들이란 말씀인가요?"

해리는 대야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하얀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그렇단다." 덤블도어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너에게 보여주마."

덤블도어는 옷 속에서 요술 지팡이를 꺼내더니 관자놀이 근처의 은빛 머리카락 속으로 요술지팡이 끝을 갖다댔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가 요술지팡이를 뻬을 때, 그 끝에는 은빛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리는 금방 그 반짝거리는 실이 펜시브에 담겨 있는 그 은빛이 감도는 하얀 물질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덤블도어는 이 새로운 생각을 대야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해리는 놀랍게도 자신의 얼굴이 대야의 수면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광경을 보았다.

덤블도어는 마치 사금을 고르는 사람이 금 조각을 찾아서 모래를 거르듯이 손으로 펜시브의 양쪽을 붙잡고 흔들었다. 해리는 자신의 얼굴이 점차 스네이프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카르카로프의 것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스네이프는 입을 빼꼼거리면서 천장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펜시브를 사용하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나 혼자 충분히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단다." 덤블도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너무 신경쓰지 말거라."

덤블도어는 반달 모양의 안경 너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아직까지도 대야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스네이프의 얼굴을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다. "퍼지 씨가 도착하기 직전에 나는 펜시브를 사용하고 있었단다. 그러다가 너무 급하게 치우느라 캐비닛의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네 관심을 끌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말 죄송해요."

해리가 우물쭈물하면서 말했다. 덤블도어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호기심은 죄가 아니란다. 하지만 호기심과 함께 조심하는 법도 배워야만 하지... 그래, 그렇고말고..."

살짝 눈살을 찌푸리면서 덤블도어는 요술 지팡이 끝으로 대야에 담긴 생각을 휘저었다. 즉시 한 사람이 대야 밖으로 솟아 올랐다. 열여섯 살 정도의 통통하고 인상이 험악한 소녀였다. 그 소녀는 발을 여전히 대야 안에 담근 채, 천천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리나 덤블도어 교수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목소리도 스네이프의 목소리처럼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돌로 만든 대야의 깊은 곳에서 훌러나오는 것 같았다.

"덤블도어 교수님, 그 애가 저에게 마법을 걸었어요. 저는 그저 놀리기만 했는데 말이죠. 저는 지난 목요일에 온실 뒤에서 그 애가 플로렌스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고만 말했는데..."

"하지만 버사..." 덤블도어는 조용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소녀를 올려다보면서 서글픈 듯이 말했다. "처음부터 왜 그 애의 뒤를 밟았던 거니?"

"버사? 이 사람이... 바로 버사 조킨스?"

해리가 소녀를 바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덤블도어는 다시 대야에 담긴 생각을 휘저었다. 버사는 대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대야 속에 담긴 물질은 다시 은빛이 감도는 하얀 색으로 변했다. "이게 바로 내가 기억하는 학창시절의 버사란다."

펜시브가 발산하는 은빛이 덤블도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해리는 갑자기 덤블도어가 엄청나게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덤블도어의 나이가 꽤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노인이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자, 해리. 내 생각 속에서 길을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렴."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네." 해리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교수님, 조금 전에 점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 제가 그만 깜박 줄았거든요."

이 대목에서 해리는 혹시라도 어떤 질책이 떨어지거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이해할 수 있단다. 계속해 보렴."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볼드모트 경에 관한 꿈을... 그 사람은 웰테일을 고문하고 있었어요... 웰테일이 누군지는 아시죠?"

해리가 덤블도어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알고 있단다. 어서 계속 하거라."

덤블도어가 즉시 대답했다.

"볼드모트는 수리 부엉이한테서 편지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웰테일이 저질렀던 커다란 실수가 잘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누군가 죽었다는 말도 했고요. 그 사람은 웜테일에게 뱀의 먹이가 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어요. 그 사람의 의자 곁에는 뱀이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대신에 저를 뱀의 먹이로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웜테일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내렸죠. 그 순간 제 이마의 상처가 쑤시기 시작했어요." 해리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상처가 너무나 아파서 그만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덤블도어는 가만히 해리를 쳐다보기만 했다.

"저... 그게 다예요."

해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그래, 알겠구나. 알겠어. 올 여름에 꿈을 꾸다가 깨 것 말고 또다시 네 상처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니?"

덤블도어가 신중한 태도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름 방학 때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해리는 깜짝 놀랐다.

"시리우스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은 너뿐만이 아니란다." 덤블도어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나 또한 작년에 시리우스가 호그와트를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지. 시리우스가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산중턱에 있는 동굴을 마련해 준 것도 바로 나란다."

자리에서 일어난 덤블도어는 책상 주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이따금씩 관자놀이에 요술지팡이 끝을 갖다대고 반짝거리는 은빛 생각을 연신 꼬집어내어 펜시브에 덜어 놓았다. 펜시브 안으로 들어간 생각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서로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해리는 어떤 것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단지 온갖 색깔들이 마구 뒤엉킨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교수님?"

몇 분이 흐른 후에, 해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덤블도어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끄러미 해리를 쳐다보았다.

"미안하구나."

조용히 사과를 한 후에 덤블도어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교수님은... 그러니까 교수님은 혹시 제 상처가 왜 아픈지 아세요?"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있단다. 물론 추론에 불과하지만... 내 생각엔 네 이마에 난 상처는 볼드모트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 혹은 그가 특별히 강력한 증오를 느낄 때 통증을 느끼는 것 같구나."

덤블도어는 한참 동안이나 해리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왜?"

"너와 볼드모트는 실패한 저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건 평범한 상처가 아니란다."

덤블도어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꿈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마 그럴 거라고 말하고 싶구나. 그런데 해리... 너는 볼드모트를 보았니?"

덤블도어가 해리를 쳐다보았다.

"아뇨. 그저 볼드모트가 앓아 있는 의자의 뒷모습만 봤어요. 하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람은 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술지팡이를 집어들 수가 있었을까요?"

해리가 천천히 물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덤블도어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덤블도어와 해리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덤블도어는 방 저편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따금씩 관자놀이에 요술지팡이를 갖다대고 또 다른 반짝거리는 은빛 생각을 꺼낸 후에 펜시브 안에서 들끓고 있는 물질 속에다가 덧붙였다.

"교수님, 그런데 볼드모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침내 해리가 입을 열었다.

"볼드모트?"

덤블도어가 펜시브 너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덤블도어만의 아주 독특하고, 사람의 마음을 깨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런 시선을 받을 때마다 항상 해리는 무디의 마법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머리 속을 덤블도어가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해리, 이번에도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구나."

덤블도어가 다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덤블도어의 모습이 훨씬 더 늙고 피곤해 보였다.

"볼드모트가 세력을 떨쳤던 시기에는 특히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났단다. 버사조킨스는 볼드모트가 분명히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 그리고 크라우치도 사라졌지. 바로 우리 운동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실종 사건이 있었단다. 유감스럽게도 마법부에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머글들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랭크 브라이스인데, 볼드모트의 아버지가 성장한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지난 8월 이후로 갑자기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마법부의 동료들과는 달리 나는 머글 신문을 읽고 있지."

덤블도어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내 판단에는 이런 실종 사건들은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어. 물론 네가 내 사무실 밖에서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마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해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덤블도어는 이따금씩 생각들을 꺼내고 있었다. 해리는 이제 그만 가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자꾸만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교수님?"

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왜 그러니, 해리?"

덤블도어는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펜시브에서 봤던... 그 법정에서의 일에 대해서..."

"그러럼. 지금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재판에 참석했었지. 하지만 어떤 재판은 아주 선명하게 머리 속에서 떠오르곤 하는구나. 요즘 같은 때에는 더구나..."

덤블도어가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교수님이... 교수님이 저를 발견하셨던 그 재판 광경이 기억나세요? 크라우치 씨의 아들이 나왔던 그 재판... 그런데... 거기에서 말했던 희생자들이..."

네빌의 부모님인가요?"

덤블도어는 해리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네빌이 왜 자신이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지 않았니?"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네빌과 거의 4년이 넘게 알고 지냈으면서도 어째서 그 일에 대해 한번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 그 사람들이 바로 네빌의 부모님이란다. 네빌의 아버지 프랭크 롱바텀은 무디 교수와 같은 오러였단다. 볼드모트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프랭크와 그의 아내를 붙잡아서 고문했지. 볼드모트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말야."

덤블도어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네빌의 부모님은 죽임을 당했나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아니란다." 덤블도어는 해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통하고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롱바텀 부부는 그만 미치고 말았단다. 두 사람 모두 마법 질병과 상해를 치료하는 성 뭉고 병원에 있지. 아마도 방학이면 네빌이 할머니와 함께 그 곳을 방문하고 있을 게다. 비록 롱바텀 부부는 네빌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말이다."

해리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전혀 몰랐다... 전혀... 4년이 지나도록 관심조차 없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롱바텀 부부를 좋아했지. 그 불행한 사건은 볼드모트가 힘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었어.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지. 마법부는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당장 잡아내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롱바텀 부부의 증언은... 그들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었어."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렇다면 크라우치 씨의 아들이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해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

덤블도어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해리는 펜시브 안에서 마구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해리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었다...

"저..." 마침내 해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베그만 씨는..."

"그 이후로는 어둠의 마법과 관련된 어떤 행위로도 기소된 적이 없단다." 덤블도어가 대답했다.

"그렇군요." 해리가 다시 펜시브를 내려다보면서 재빨리 대답했다. 이제 덤블도어가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지 않자, 그 내용들은 점차 느릿느릿 회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그때 펜시브가 해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려는 듯이, 수면위에 스네이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을 힐끗 바라본 덤블도어는 다시 해리에게 말했다.

"스네이프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란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푸른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질문이 해리의 입에서 저절로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런데 스네이프 교수님이 정말로 볼드모트를 더 이상 추종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죠?"

덤블도어는 한참 동안 해리를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해리, 그것은 나와 스네이프 교수 사이의 문제란다."

이제 정말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해리는 깨달았다. 덤블도어의 표정이 비록 화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덤블도어도 따라 일어섰다. 그리고 해리가 문 앞에 섰을 때, 덤블도어가 다시 신중하게 말했다.

"해리, 네빌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네빌은 자기가 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단다."

"네, 교수님."

해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에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덤블도어가 한마디 덧붙였다. 해리는 다시 몸을 돌려서 덤블도어를 쳐다보았다. 덤블도어는 펜시브 옆에 서 있었다. 반짝거리는 은색 불빛에 반사된 덤블도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늙고 피곤해 보였다. 덤블도어는 한참 동안 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정하게 말했다.

"세 번째 시험에서 행운을 빈다."

제 31 장

세 번째 시험

"덤블도어도 그 사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론이 한껏 목소리를 낮추면서 물었다. 해리는 펜시브에서 보았던 광경과 덤블도어가 말해 준 것들을 거의 다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들려주었다. 물론 시리우스에게 연락하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덤블도어의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당장 부엉이를 보내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날 밤에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또다시 학생 휴게실에 앉아서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는 해리의 머리 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럽게 꼬이고 말았다. 해리는 덤블도어가 머리 속이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에는 가끔씩 덜어 내는 것이 편하다고 말한 의미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론은 휴게실 벽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따뜻한 저녁이었지만, 론은 어쩐지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덤블도어가 스네이프를 믿는단 말이야? 스네이프가 죽음을 먹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를 믿는단 말이야?"

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그래."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짤막하게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거의 10분 동안이나 입을 열지 않았다.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 앉아서 묵묵히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해리는 헤르미온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생각이 많으면 펜시브 하나 정도는 거뜬히 채우고도 남겠다고 생각했다.

"리타 그키토."

헤르미온느가 뜬금없이 중얼거렸다.

"넌 어떻게 이런 순간에 그 여자 걱정을 할 수가 있니?"

론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헤르미온느를 쳐다보았다.

"그 여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생각하고 있었어... 그 여자가 스리 브룸스틱스에서 내게 했던 말 기억나? '나는 루도 베그만에 대해서 네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어...'라고 말이야. 그건 분명히 빼가 있는 말이었어. 안 그래? 그 여자는 베그만의 재판을 취재했고 그 사람이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윙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기억하고 있지? '베그만 씨는 나쁜 마법사예요! 아주 나쁜 마법사예요!' 베그만이 풀려났을 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크라우치 씨는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몰라."

헤르미온느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베그만이 고의로 정보를 넘긴 것은 아니었잖아?"

론이 물었다. 헤르미온느는 대답을 하는 대신 그저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런데 퍼지는 크라우치를 공격한 사람이 맥심 부인이라고 의심했던 말이지?"

론이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다시 물었다.

"그래. 하지만 단지 크라우치가 보바통의 마차 근처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였어."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해 봐. 그 여자는 거인족 혈통이 분명해! 물론 자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론이 천천히 말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건 너무 당연해!"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리타가 해그리드의 어머니에 대해 알아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 생각해 봐! 또 퍼지도 그저 거인 혼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자를 의심하고 있잖아! 그런 편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진실을 말했을 때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익히 알고 있다면, 내가 맥심 부인이라도 원래부터 몸집이 큰 것 뿐이라고 우겼을 거야."

문득 헤르미온느가 시계를 바라보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오늘은 연습을 하나도 안 했잖아!" 헤르미온느는 거의 기절할 듯이 놀랐다.

"장애 마법을 연습했어야 하는데! 내일은 정말로 그 주문을 끝내야만 해! 자, 해리. 넌 그만 자는 게 좋겠다."

해리와 론은 기숙사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해리는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네빌의 침대를 힐끗 쳐다보았다. 덤블도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네빌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안경을 벗고 네 기둥이 달린 침대로 올라간 해리는, 만약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한번 상상해 보았다. 해리는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사곤 했다. 하지만 네빌이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해리는 어쩐지 네빌에게 좀더 잘 대해 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어둠 속에 누워 있던 해리는 갑자기 롱바텀 부부를 고문한 사람들에게 격렬한 분노와 증오심을 느꼈다. 크라우치의 아들과 공범자들이 디멘터에 의해 법정에서 나갈 때, 야유와 고함을 지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해리는 그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애처롭게 비명을 지르던 소년의 우유처럼 새하얀 얼굴이 떠오르면서, 1년 후에 죽었다는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볼드모트! 이런 비극은 모두 다 볼드모트 때문에 비롯되었다. 해리는 어둠에 잠긴 천장을 노려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게 볼드모트 때문이야... 그 사람이 바로 모든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장본인이었다.

사실 론과 헤르미온느는 학기말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해리의 세 번째 시합이 벌어지는 날이 바로 학기말 시험이 끝나는 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론과 헤르미온느는 해리를 돋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난 이제부터 혼자 연습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빨리 시험 공부를 하도록 해."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학기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적어도 어둠의 마법 방어술 시험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겠지. 사실 수업 시간만으로는 이 모든 주문들을 절대로 다 배우지 못했을 거야."

헤르미온느는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했다.

"나중에 우리가 오러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좋은 훈련을 하는 셈이잖아."

론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리고 교실 안으로 날아 들어온 말벌 한 마리에게 장애 마법을 걸었다. 그러자 말벌은 허공에서 죽은 듯이 딱 멈춰섰다. 6월이 되자, 성의 분위기는 다시 약간 들뜨고 긴장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 시합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세 번째 시합은 학기가 끝나기 일주일 전에 벌어질 예정이었다. 해리는 틈이 날 때마다 부지런히 주문을 연습했다. 다른 어떤 시합보다도 이번 시합에 훨씬 더 자신감이 들었다. 분명히 아주 힘들고 위험한 시합이 되겠지만, 역시 무디의 말이 옳았다. 해리는 지금까지 무시무시한 괴물과 마법의 장애물들을 간신히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받고 대비할 만한 여유도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맥고나걸 교수는 해리에게 점심 시간에 변신술 교실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빈 교실을 찾아 학교 안을 헤매고 다니는 일에 완전히 지쳐버렸던 것이다. 해리는 곧 공격을 가해 오는 상대방을 저지하고 느리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장애 마법을 터득했고, 앞길을 가로막는 단단한 물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진압 마법도 익혔다. 또한 헤르미온느가 발견한 또 하나의 유용한 마법으로, 요술지팡이 끝을 항상 북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미로 안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 마법도 배웠다.

하지만 방어벽 마법을 완전히 익히는 일에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주위에 둘러쳐서 약한 저주를 막는 마법이었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엿가락 다리 마법을 명중시켜서 단번에 해리의 방어벽을 깨뜨려 버렸다. 그 덕분에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엿가락

다리 마법을 푸는 주문을 찾아낼 때까지, 약 10 분동안이나 흐느적거리면서 교실을 돌아다녀야만 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주 잘했어. 이 중에서 몇 개는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야."

헤르미온느는 배워야 할 마법이 적힌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해리를 격려했다. 그리고 이미 배운 마법에는 가위표를 했다.

"이리 와서 저것 좀 봐. 말포이가 월하고 있는 거지?"

창가에 서서 고개를 내밀고 운동장을 쳐다보던 론이 말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도 창문으로 다가가서 운동장을 쳐다보았다.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이 나무 그늘 밑에 서 있었다. 크레이브와 고일은 능글맞게 씩 웃으면서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말포이는 손에 든 원가를 입에 갖다대고 열심히 지껄이고 있었다.

"마치 무전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해리가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런 물건들은 호그와트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리 와, 해리." 헤르미온느는 통명스럽게 한 마디 내뱉더니 창문에서 획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교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다시 한 번 방어벽 마법을 연습하자."

시리우스는 날마다 부엉이를 날려보냈다. 시리우스 역시 헤르미온느처럼, 다른 일들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선 해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길 원하는 것 같았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호그와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전혀 해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며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매번 강조했다.

만약 볼드모트가 정말로 다시 강해지고 있다면,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너의 안전이다. 네가 덤블도어의 보호 하에 있는 한, 볼드모트는 절대로 너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위험한 짓은 하지 말거라. 안전하게 미로를 통과하는 일만 생각하도록 해. 그런 다음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자.

6월 24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해리의 신경도 점차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첫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을 치를 때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우선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 시합준비를 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또한 이것은 트리위저드 시합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마침내 시합은 끝날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리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되었다.

세 번째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자, 아침 식사를 하는 그리핀도르 테이블은 뜹시 시끌벅적했다. 우편 배달 부엉이가 해리에게 행운을 비는 카드를 전해 주었다. 그것은 시리우스가 보낸 카드였는데, 반으로 접힌 양피지 조각 위에 진흙을 묻힌 개의 발자국 하나가 턱 하니 찍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고마웠다. 깍깍거리는 부엉이 한 마리가 평상시처럼 헤르미온느에게 <예언자 일보>를 갖다 주었다. 신문을 펼쳐 들고 앞면을 살펴보던 헤르미온느는 갑자기 입 안에 있던 호박 주스를 푸 뿐어내고 말았다.

"무슨 일이야?"

해리와 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헤르미온느는 재빨리 신문을 지워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론이 먼저 신문을 움켜잡았다.

"이럴 수는 없어! 오늘만은 안 돼! 주책맞은 노파 같으니라구!" 얼른 머릿기사를 훑어본 론이 벅 화를 내었다.

"왜 그래? 또 리타 스키터야?"

해리가 물었다.

"아니야." 론은 헤르미온느와 똑같이 허둥지둥 신문을 치우려고 했다.

"나에 대한 기사가 실렸구나? 그렇지?"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니야."

하지만 론의 목소리는 전혀 자신이 없었다. 해리가 미처 신문을 보여 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드레이코 말포이가 연회장 저편에 있는 슬리데린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포터! 포터! 네 머리는 어떠냐? 오늘 기분은 괜찮아? 설마 우리에게 미친 듯이 덤벼드는 건 아니겠지?"

말포이의 손에는 <예언자 일보>가 들려 있었다. 슬리데린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학생들이 킬킬거리면서 해리의 반응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어디 좀 보여줘. 이리 달란 말이야."

해리가 론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론은 좀처럼 내키지 않아 망설이다가 신문을 넘겨 주었다. 신문을 펼쳐든 해리는 짙은 활자로 된 제목 밑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는 위험한 해리 포터!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자'를 몰락시켰던 소년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다

-리타 스끼터 특파원

최근에 벌어진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은 해리 포터의 이상한 행동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포터가 트리위저드 시합과 같은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그와트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예언자 일보>가 독점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포터는 정기적으로 학교에서 정신이상 징후를 보이며, 종종 이마에 난 상처(그 사람이 해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남긴 저주의 유물)의 통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예언자 일보>의 리포터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점술 수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포터는 너무나 상처가 쑤신 나머지 수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실을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마법 질병과 상해를 위한 성 뭉고 병원의 최고 권위자는, 포터의 두뇌가 그 사람이 가한 공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처가 계속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잡은 혼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아픈 척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호소하는 것이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예언자 일보>는 호그와트의 교장인 알버스 덤블도어가 그동안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던, 해리 포터에 관한 또 다른 불길한 사실을 공개하는 바이다.

"포터는 뱀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호그와트 4학년생인 드레이코 말포이는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있다. "2년 전에 많은 학생들이 공격을 당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터가 그 일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해요. 결투 클럽에서 몹시 화가 난 해리가 뱀을 조종해서 다른 친구를 공격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모두들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게다가 포터는 늑대인간이나 거인들과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포터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예요."

뱀의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뱀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이 능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어둠의 마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뱀의 말을 하는 자'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사람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둠의 마법 방어 연맹의 한 간부는, 뱀의 말을 할 줄 아는 마법사라면 "누구든지 다 조사 대상에 올려야 하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뱀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종 뱀은 어둠의 마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마법에 이용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사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늑대인간이나 거인과 같은 그런 사악한 생물들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외없이 폭력을 좋아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런 소년을 과연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도록 허락해도 되는지 심각하게 재고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포터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필사적으로 승리하려는 욕심 때문에 어둠의 마법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트리위저드 시합의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오늘 저녁에 치러질 예정이다.

"좀 과장이 심하군. 그렇지?"

해리는 신문을 접으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슬리데린 테이블에서는 말포이와 크레이브와 고일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기괴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뱀처럼 혀바닥을 날름거리면서 해리를 놀리고 있었다.

"점술 수업 시간에 네 상처가 아팠다는 사실을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엿들을 수도 없었을 텐데..." 론이 이상해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 내가 답답해서 조금 열어 두었거든."

해리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너는 북쪽 탑 꼭대기에 있었잖아! 네 목소리가 저 아래 운동장까지 들릴 수는 없어!"

헤르미온느가 한심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좋아. 그 여자가 사용하는 도청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한번 설명해 봐!"

해리가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나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헤르미온느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는... 아직..."

갑자기 헤르미온느의 얼굴에 마치 꿈을 꾸듯이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헤르미온느는 천천히 손을 들더니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헤집기 시작했다.

"너 괜찮니?"

론이 걱정스럽게 헤르미온느를 바라보았다.

"그래."

헤르미온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대답했다. 헤르미온느는 다시 머리카락을 헤집더니 손을 입에 갖다대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전기에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 해리와 론은 황당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헤르미온느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중얼거렸다. "이제야 알 것 같아... 왜 아무도 볼 수 없었는지... 심지어 무디까지도... 어떻게 해서 창문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하지만 그 여자는 허가를 받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허가를 받지 않았어... 이제 드디어 그 여자를 잡은 것 같아! 잠깐 도서관에 좀 다녀올게! 확인 좀 해야겠어!"

그 말을 남긴 채, 헤르미온느는 가방을 움켜쥐고 쌩 하니 연회장에서 나가 버렸다.

"이봐!" 론이 헤르미온느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10분 후에는 마법의 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단 말이야! 제기랄!" 론이 해리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시험에 늦을지도 모르는데 헤르미온느가 저러는 걸 보면, 리타 스키터가 정말 밉긴 미운가 봐. 그런데 해리, 넌 시험시간에 뭘 할 거니? 다시 책이나 읽을래?"

트리위저드 챔피언인 해리는 모든 학기말 시험을 면제받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서 세 번째 시험을 위한 새로운 주문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지 뭐."

해리가 론을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맥고나걸 교수가 그리핀도르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었다.

"포터, 챔피언들은 아침 식사 후에 옆방에 모이기로 했단다."

"하지만 시험은 오늘 밤이잖아요!"

혹시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슴이 덜컹한 해리는 그만 스크램블드 에그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포터, 나도 잘 알고 있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우리는 챔피언들 가족이 마지막 시합을 관람할 수 있도록 모두 초대했단다. 그래서 가족을 맞이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 말을 마친 후에 맥고나걸 교수는 곧 가 버렸다. 해리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맥고나걸 교수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교수님은 설마 더즐리 가족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해리는 갑자기 명해져서 론에게 말했다.

"몰라. 해리, 난 서둘러야겠어. 빈스 교수님 시험에 늦겠어. 나중에 보자."

텅빈 연회장에 혼자 덩그러니 남은 해리는 천천히 아침 식사를 끝마쳤다. 래번 클로 테이블에서 일어난 플뢰르 브라운과 함께 옆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빅터 크롬이 구부정한 걸음걸이로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하지만 해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 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해리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어쨌거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해리를 보기 위해 찾아올 만한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주문이나 더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해리가 막 일어서는 순간, 옆방 문이 여리며서 케드릭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해리! 어서 들어와.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해리는 무슨 영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즐리 가족이 호그와트까지 찾아왔을 리는 만무했다.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간 해리는 문을 열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케드릭과 그의 부모님은 바로 문 근처에 서 있었다. 빅터 크롬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검은 머리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불가리아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빅터 크롬의 구부러진 코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방 맞은 편에서는 플뢰르가 불어로 어머니에게 재잘재잘 떠들어대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플뢰르의 여동생 가브리엘은 해리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해리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러다가 해리는 문득 벽난로 앞에 서 있는 위즐리 부인과 빌을 발견했다. 위즐리 부인과 빌은 해리에게 활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깜짝 놀랐지!"

위즐리 부인이 잔뜩 흥분해서 말했다. 해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해리, 우리는 너를 보러 왔단다!"

위즐리 부인은 허리를 숙여 해리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너 괜찮니?" 빌은 씩 웃으면서 해리와 악수를 나누었다. "찰리도 오고 싶어했지만 시간을 낼 수가 없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가 혼테일과 멋지게 싸웠다고 말하더라."

해리는 플뢰르 브라운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빌을 훑어보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플뢰르 브라운은 기다란 머리카락이나 송곳니 귀고리에 전혀 아무런 거부감도 없는 것이 확실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잠시 동안 다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더즐리 가족이..." 해리가 위즐리 부인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음."

위즐리 부인은 입술을 오므리면서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위즐리 부인은 항상 해리 앞에서 더즐리 가족에 대해 혐담하는 것을 삼가고 있었다. 하지만 더즐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위즐리 부인의 눈은 분노로 차갑게 번뜩이곤 했다.

"여기 돌아오니까 정말 좋구나!"

빌이 천천히 방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뚱뚱한 여인의 친구인 바이올렛이 액자 안에서 빌에게 눈을 찡긋 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와 보는 거야. 그 미친 기사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니?
캐도간 경 말이야."

"오, 그럼요."

작년에 뚱뚱한 여인 대신 그리핀도르 기숙사 입구를 지키던 캐도간 경을 잊어버렸을 리 없었다.

"뚱뚱한 여인도?"

빌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그 여자는 내가 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있었단다. 어느날 밤 새벽 4시에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를 호되게 야단쳤었지."
위즐리 부인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새벽 4시까지 기숙사 밖에서 월하고 있었던 거죠?"

빌이 새삼스럽게 놀란 눈으로 위즐리 부인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와 난 밤마다 산책을 즐겼단다. 그러다가 네 아버지는 그 당시의
기숙사 관리인이었던 아폴리온 프링글에게 불잡히기도 했었지. 지금도 그 때의
상처가 남아 있단다."

위즐리 부인은 눈을 찡긋하면서 씩 웃었다.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 해리?"

빌이 해리의 어깨를 톡 치면서 제안했다.

"네, 좋아요."

해리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연회장으로 통하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문을 막 지나치는 순간, 에이머스 디고리가 고개를 돌렸다.

"너로구나." 에이머스 디고리는 해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우리
케드릭이 네 점수를 따라잡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구나. 그렇지?"
"네?"

해리가 반문했다.

"그냥 못 들은 척 해. 우리 아빠는 트리위저드 시합에 대한 리타 스키터의
기사가 나간 후에 잔뜩 화가 나 있어. 그 여자가 마치 네가 호그와트의 유일한
챔피언인 양 기사를 썼기 때문이지."

케드릭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나지막이 해리에게 속삭였다.

"저 녀석은 기사를 바로잡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에이머스
디고리가 해리의 귀에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떠들었다. 해리는 위즐리 부인과
빌과 함께 이제 막 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그래... 저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거라. 케드릭, 넌 전에도 저 녀석을 이긴 적이 있잖니?"

"에이머스, 리타 스키터는 말썽을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기사를 쓴
거라구요. 당신은 마법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즐리 부인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에이머스 디고리는 씩씩거리면서 뭔가 한
마디 쏘아 불이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에이머스 디고리의 아내가 팔을
붙잡으면서 말리자, 그는 어깨를 약간 으쓱거리더니 다시 뒤로 돌아섰다.

빌과 위즐리 부인과 함께 아침 햇살이 내리비치는 운동장을 산책하는 것은
너무나 즐거웠다. 해리는 두 사람에게 보바통의 마차와 덤스트랭의 배를
보여주었다. 위즐리 부인은 되받아치는 나무를 보고는, 자기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없었다며 커다란 호기심을 보였다. 그리고 해그리드 이전에 사냥터
지기로 근무했던 '오그'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했다.

"퍼시 형은 어떻게 지내요?"

온실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해리가 질문을 던졌다.

"별로 좋지 않아."

빌이 대답했다.

"몹시 당황하고 있단다." 위즐리 부인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한껏
목소리를 낮췄다. "마법부에서는 크라우치 씨의 실종 사건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 하지만 퍼시를 계속 소환해서 크라우치 씨가 보내는 편지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를 하고 있어. 그 편지는 진짜 크라우치 씨의 편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 일 때문에 퍼시는 심한 압박을 받고 있어. 심지어 마법부는 오늘 밤에 퍼시가 크라우치 씨를 대신해서 심판을 보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았지. 코넬리우스 퍼지 장관이 직접 심판을 볼 거야."

그들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엄마! 빌!" 그리핀도르 테이블에 앉아 있던 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쳤다. "여기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해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걸 지켜보기 위해 왔단다! 솔직히 말해서 집안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멋진 기회이기도 하고 말이다. 그래, 시험은 어땠니?" 위즐리 부인이 명랑하게 물었다.

"저... 괜찮았어요. 사실 도깨비 반란자들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 몇 개는 지어내야만 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도깨비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수영난 보드로드나 지저분한 우르그와 같은, 뭐 그런 것들이니까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론은 코니쉬 파스티(양념을 한 야채와 고기를 넣은 콘웰 지방의 파이 요리: 역주)를 입에 잔뜩 쑤셔 넣으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리는 위즐리 부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에 프레드와 조지 그리고 지니도 그들 옆으로 다가와서 앉았다. 해리는 마치 다시 버로우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이었다. 헤르미온느가 식사 도중에 불쑥 나타기 전까지는 리타 스키터에 관한 일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다.

해리는 헤르미온느가 드디어 리타 스키터에 대해 뭔가 실마리를 잡은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넌 우리에게 말해 주기로..."

헤르미온느는 위즐리 부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해리에게 경고하듯이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잘 있었니, 헤르미온느?"

위즐리 부인이 평소와 달리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미소를 지으려던 헤르미온느는 위즐리 부인의 냉랭한 표정에 그만 멈칫하고 말았다.

"위즐리 아주머니, 설마 리타 스키터가 <마녀 주간지>에 쓴 그 쓰레기 같은 기사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우린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해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 물론이지! 당연히 믿지 않았단다!"

위즐리 부인이 황급히 변명했다. 그 후로는 헤르미온느를 대하는 위즐리 부인의 태도도 눈에 띠일 정도로 다정하게 변했다.

오후에 해리와 빌, 위즐리 부인은 성을 빙 둘러보면서 오랫동안 산책을 즐겼다. 그리고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상석에는 루도 베그만과 코넬리우스 퍼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루도 베그만은 무척 유쾌한 표정이었지만, 맥심 부인 옆 자리에 앉아 있는 코넬리우스 퍼지는 딱딱한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맥심 부인은 앞에 놓인 음식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해리는 어쩐지 부인의 눈이 붉게 충혈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해그리드는 계속해서 테이블 너머로 맥심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만찬에는 평소보다 한두 가지 요리가 더 추가되었다. 하지만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한 해리는 별로 많이 먹지 못했다. 마법의 천장이 푸른색에서 짙은 보라색으로 바뀌자, 덤블도어가 교직원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연회장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신사 숙녀 여러분, 5분 후에 트리위저드 시합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 퀴디치 운동장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챔피언들은 지금 바로 베그만 씨를 따라서 운동장으로 가십시오."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핀도르의 모든 학생들이 해리를 위해 박수를 쳤다. 위즐리 가족들과 헤르미온느는 한 마음으로 해리의 행운을 빌어 주었다. 해리는 캐드릭과 플로이트, 빅터와 함께 연회장을 나섰다.

"기분은 괜찮니, 해리? 자신 있니?"

그들이 돌계단을 지나서 운동장으로 막 들어섰을 때, 루도 베그만이 물었다.

"전 괜찮아요."

해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약간 초조하고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연습했던 주문들과 마법들을 떠올리자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다. 해리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 머리 속에 되새겼다.

잠시 후에 그들은 퀴디치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6 미터 높이의 산울타리가 빙 둘러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들 앞에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입구 안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통로는 아주 어둡고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5분 후에 관중석은 수많은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찼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좌석을 찾아서 우르르 돌아다니고 있었다. 학생들의 발소리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퍼졌다.

이제 하늘은 맑고 짙은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초저녁 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그리드와 무디 교수, 맥고나걸 교수, 플리트윅 교수가 퀴디치 경기장으로 들어오더니 루도 베그만과 챔피언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모자에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랗고 붉은 별을 달고 있었는데, 오직 해그리드만이 두더지 가죽 조끼의 등판에 별을 달고 있었다.

"우리는 미로 바깥에서 경비를 서고 있을 거예요." 맥고나걸 교수가 네 명의 챔피언들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구조를 받고 싶다면, 하늘로 불꽃을 쏘아 올리도록 해요. 그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당장 달려가서 구해 줄 테니까... 알겠어요?"

챔피언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어서 가세요!"

루도 베그만이 네 명의 구조반을 향해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행운을 빈다, 해리."

해그리드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네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훑어지더니 미로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루도 베그만은 다시 요술 지팡이를 목에 갖다대고 중얼거렸다.

"소노루스!"

그러자 마법으로 증폭된 루도 베그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신사 숙녀 여러분, 트리위저드 시합의 마지막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점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1등은 호그와트의 캐드릭 디고리 군과 해리 포터 군입니다. 두 사람은 85 점으로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오자, 금지된 숲에서 새들이 어두운 밤 하늘로 퍼드득 날아올랐다. "2등은 80 점을 기록하고 있는 덤스트랭의 빅터 크롬 군입니다." 또다시 갈채가 터졌다. "3등은 보바통의 플로이트 브루노 군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해리는 관중석 중간쯤에서 플로이트 브루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위즐리 부인과 론, 헤르미온느의 모습을 발견했다. 해리가 그들을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자, 그들도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좋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해리와 캐드릭!" 루도 베그만이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셋... 둘... 하나."

루도 베그만이 짧게 호루라기를 불었다. 해리와 캐드릭은 재빨리 미로 속으로 들어갔다.

하늘 높이 치솟은 산울타리는 통로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산울타리가 너무 높고 빽빽하기 때문인지 혹은 어떤 마법의 힘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밖에서 들리던 관중들의 요란한 함성 소리는 미로 속으로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썩 사라졌다.

해리는 마치 다시 물 밑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꺼내 들고 주문을 외웠다.

"루모스!"

해리의 등 뒤에서 케드릭도 똑같은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50 미터 가량 걸어가자 갈림길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아주 바라보았다.

"잘 가."

해리는 케드릭을 향해 손을 흔든 후에 왼쪽 길로 접어들었다. 케드릭은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해리는 루도 베그만이 두 번째로 부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었다. 빅터 크롬이 미로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해리는 더욱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리가 선택한 길은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것 같았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간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가능한 한 멀리까지 내다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루도 베그만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이제 네 명의 챔피언 모두 미로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해리는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았다. 어쩐지 누군가가 해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늘은 점점 더 짙은 군청색으로 물들었으며, 미로도 더욱 어둠침침하게 변했다. 마침내 해리는 두 번째 갈림길에 도착했다.

"방향을 가르쳐다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중얼거렸다. 요술지팡이는 한 바퀴 빙 돌더니 오른쪽에 있는 단단한 산울타리를 가리켰다. 그 방향이 북쪽이라는 뜻이었다. 해리는 미로의 중앙을 찾아 가려면 북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단 왼쪽 길로 접어들었다가 가능한 빨리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선 해리는 여전히 순탄하게 쪽 뻗어 있는 길을 발견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아무런 장애물도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해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금쯤이면 분명히 뭔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미로는 마치 해리를 방심하도록 만들기 위한 속셈인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해리의 등 뒤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재빨리 요술지팡이를 빼들고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불빛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케드릭이었다. 케드릭은 이제 막 오른쪽 모퉁이를 황급히 돌아서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케드릭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케드릭이 입고 있는 옷의 소매단에서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해그리드의 폭탄 꼬리 스크루트야! 정말 엄청나게 커. 간신히 빠져나왔어!"

케드릭이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곧 다른 길로 모습을 감추었다. 스크루트와 멀리 떨어지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해리는 다시 종종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곧바로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해리는 끔찍한 것으로 보았다. 디멘터가 해리를 향해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모습을...

키가 3.5 미터나 되는 디멘터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썩어 문드러지고 딱지가 덕지덕지 내려앉은 손을 쪽 내밀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가 있는 곳을 감지하곤 곧장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디멘터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싸늘한 냉기가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멀스멀 파고들었다. 하지만 해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해리는 가장 행복한 광경을 애써 머리 속에 그렸다. 무사히 미로를 통과한 후에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모든 정신을 거기에 집중했다. 그리고 요술지팡이를 들고 소리쳤다.

"익스펙토 패트로눔!"

해리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은빛 숫사슴이 튀어나오더니 디멘터를 향해 달려갔다.

디멘터는 옷자락을 밟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해리는 지금까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디멘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기다려!" 해리는 고향을 지르면서 은빛 패트로누스의 뒤를 따라갔다. "저건 보가트야! 리디큘러스!"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디멘터의 형상을 한 보가트가 연기와 함께 평하고 터져 버렸다. 그와 동시에 은빛 숫사슴도 사라지고 말았다.

해리는 내심 숫사슴이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어쩌면 길동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리는 또다시 요술지팡이를 높이 치켜든 채, 귀를 쫑긋 세우고 가능한 빨리 앞으로 나갔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두 번이나 막다른 골목이 길을 가로막았다. 나침반 마법을 써서 방향을 확인한 해리는 동쪽으로 너무 많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리는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순간 바로 앞에 이상한 황금빛 안개 같은 것이 나타났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불빛을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안개를 향해 다가갔다. 이것도 마법의 일종인 것 같았다. 해리는 과연 이 안개를 날려 버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레드토!"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주문을 외웠다. 해리가 쏘아 올린 주문은 곧장 안개를 뚫고 지나갔다. 하지만 안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곧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압 마법은 단단한 물체에나 사용하는 주문이었던 것이다. 저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 번 시험해 볼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개를 피해서 빙 돌아갈까?

해리가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플뢰르?"

해리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해리는 재빨리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플뢰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날카로운 비명 소리는 저 앞쪽 어딘가에서 들린 것 같았다. 해리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에 마법의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졌다. 해리는 머리를 밑으로 한 채, 땅바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해리의 안경은 당장이라도 끝없는 하늘로 굴러 떨어질 것처럼 코 끝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해리는 안경을 꼭 움켜쥔 채, 겁에 질려서 한참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못했다. 마치 거꾸로 뒤집어진 잔디밭에 발바닥이 딱 붙어 버린 것 같았다. 머리 밑으로는 별들이 총총하게 박혀 있는 검은 하늘이 한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한발이라도 움직였다가는 당장 땅에서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늘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침착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하자!

해리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온몸의 피가 몽땅 머리로 쏠렸다.

생각하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해리가 연습했던 주문 중에서 갑자기 거꾸로 뒤바뀐 하늘과 땅에 대처할 수 있는 주문은 없었다. 그래, 용기를 내서 걸음을 옮기는 거야! 관자놀이의 맥박이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걸음을 옮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꽃을 쏘아 올려서 구조를 받을 것인가? 만약 구조를 받는다면, 해리는 시험에서 탈락하고 마는 것이다.

해리는 머리 밑으로 무한히 펼쳐진 공간을 보지 않기 위해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풀이 나 있는 천장에서 힘껏 오른발을 떼었다. 순식간에 세상은 다시 똑바로 되었다. 해리는 힘없이 무릎을 꺾으면서 놀라울 정도로 단단한 땅 위로 푹 쓰러졌다. 잠시 동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맥이 탁 풀린 것이다. 해리는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서둘러 앞으로 달려갔다. 해리는 어깨 너머로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황금빛 안개가 달빛을 받으면서 무심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두 갈래 길에 도달한 해리는 신중하게 땅바닥을 살펴보면서 플뢰르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조금 전에 비명을 지른 사람은 플뢰르가 분명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난 것일까? 플뢰르는 무사할까? 하지만 플뢰르가 불꽃을 쏘아 올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혼자 힘으로 곤경에서 무사히 빠져나간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빠진 것일까? 해리는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을 느끼면서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챔피언이 한 명 탈락했구나....

트리위저드 우승컵은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플뢰르는 더 이상 승산이 없는 것 같았다. 이제 우승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해리가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챔피언으로 선발된 이후 처음으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눈앞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해리는 대략 10 분 동안 걸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번번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곤 했다. 두 번이나 똑같은 길로 잘못 들어선 끝에, 해리는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요술지팡이의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산울타리 담장 위에 일렁이는 해리의 그림자가 비쳤다. 또 다른 모퉁이를 돌아선 해리는 그만 폭탄 꼬리 스크루트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케드릭의 말이 맞았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는 정말 엄청나게 컸다. 거의 3 미터 길이로 자란 폭탄 꼬리 스크루트는 마치 거대한 전갈처럼 보였다. 침이 달린 기다란 꼬리는 등 위로 바싹 말려져 있었으며 두꺼운 비늘 갑옷은 해리의 요술지팡이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받으면서 번쩍거렸다.

"스투페파이!"

해리는 재빨리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면서 기절 주문을 외웠다. 그러나 기절 주문은 스크루트의 갑옷에 맞고 다시 튀어나왔다. 해리는 재빨리 목을 움츠렸지만, 희미하게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났다. 머리 끝을 살짝 그슬린 것이다. 폭탄 꼬리 스크루트는 꼬리 끝에서 불덩이를 발사했다.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해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임페디멘타!"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면서 힘껏 소리쳤다. 장애 마법 주문 역시 스크루트의 갑옷에 맞고 튀어나왔다. 해리는 비틀거리면서 뒤로 몇 발 물러서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폭탄꼬리 스크루트는 무서운 속도로 해리를 덮쳤다.

"임페디멘타!"

스크루트는 해리와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딱 멈춰섰다. 단단한 껌질로 뒤덮여 있지 않은 아랫배가 바로 스크루트의 약점이었고, 해리는 바로 그곳에 장애 마법 주문을 명중시킨 것이다. 숨을 헐떡이면서 스크루트로부터 벗어난 해리는 얼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다. 장애 마법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주문이 아니었다. 언제 다시 스크루트가 꼬리를 휘두르면서 공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왼쪽 길로 들어선 해리는 또다시 막다른 골목과 부딪히게 되었다.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섰지만 역시 막다른 골목이었다. 해리는 잠시 동안 걸음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해리의 가슴은 마치 방망이질을 하듯이 쿵쿵거렸다. 해리는 다시 나침반 마법을 써서 방향을 바로잡은 후에,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짐작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몇 분 동안 해리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 그때 문득 산울타리 너머에서 누군가 해리와 나란히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추어섰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케드릭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크루시오!"

바로 그 순간 해리는 빅터 크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케드릭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설마! 무서운 생각이 든 해리는 케드릭이 있는 통로로 넘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해리는 다시 진압 마법을 사용했다. 그다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산울타리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렸다. 해리는 구멍 속으로 다리를 집어넣고 빽빽하게 자라난 가지와 덤불들을 마구 걷어찼다.

마침내 가지가 부러지면서 산울타리에 구멍이 뚫렸다. 해리는 옷이 찢어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몸을 버둥거리면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 재빨리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땅바닥에 쓰러진 케드릭이 몸을 비비꼬면서 씰룩씰룩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빅터 크룸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케드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멍에서 빠져나온 해리는 재빨리 빅터 크룸을 향해 요술지팡이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빅터 크룸이 고개를 들었다. 빅터 크룸은 빙글 돌아서더니 황급히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스투페파이!"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웠다. 기절 마법은 빅터 크룸의 등에 정통으로 명중했다. 빅터 크룸은 죽은 듯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더니 앞으로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잔디밭에 얼굴을 파묻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리는 허겁지겁 케드릭에게 달려갔다. 케드릭은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경련은 간신히 멈춘 것 같았다.

"괜찮니?"

해리가 케드릭의 팔을 붙잡으면서 물었다.

"그래." 케드릭은 여전히 숨을 헐떡거렸다. "그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몰래 내 뒤로 다가와서는... 빅터 크룸의 발 소리를 듣고 뒤로 돌아섰을 때... 요술지팡이를 나에게 겨누고..."

케드릭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지 부들부들 온몸을 떨고 있었다. 케드릭과 해리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빅터 크룸의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믿을 수가 없어. 꽤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해리가 빅터 크룸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조금 전에 플뢰르가 비명 지르는 소리 들었니?"

해리가 물었다.

"응. 혹시 빅터 크룸이 플뢰르도 공격한 게 아닐까?"

케드릭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빅터 크룸을 노려보았다.

"모르겠어."

해리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기 이대로 놔두고 가도 될까?"

케드릭은 다시 해리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아니야. 아무래도 불꽃을 쏘아야만 할 것 같아. 구조반이 와서 빅터 크룸을 데리고 가겠지. 그렇지 않으면 스크루트에게 잡아먹힐지도 몰라."

"그런 꼴을 당해도 싼 녀석이야."

케드릭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지만 곧바로 요술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리더니 허공으로 불꽃을 쏘아 올렸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불꽃은 빅터 크룸이 쓰러져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었다.

얼마 동안 해리와 케드릭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침내 케드릭이 머뭇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저... 이제 우리는 가는 게 좋겠어..."

"뭐라구? 아... 그래... 맞아."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해리와 케드릭은 힘을 모아서 빅터 크룸과 싸웠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경쟁자라는 사실이 다시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리는

왼쪽으로, 케드릭은 오른쪽으로 갈라졌다. 곧이어 케드릭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해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나침반 마법을 쓰면서 걸어갔다. 이제 해리와 케드릭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하지만 조금 전에 목격한 빅터 크룸의 행동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무디의 말에 따르면, 용서받지 못할 저주를 사람에게 사용하는 행위는 아즈카반에서 종신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빅터 크룸이 그런 야비한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차지하려고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해리는 다시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경계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통로가 어두워질수록 해리는 미로의 중심부를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다랗게 곧장 뻗어 있는 길을 달려가던 해리는 또다시 원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요술지팡이 불빛을 비추자, 참으로 이상한 생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오직 <괴물들에 대한 괴물책>에서 그림으로나 보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스핑크스였다. 거대한 사자의 몸뚱이를 가진 스핑크스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발과 끝에 갈색 털이 나 있는 길고 노란 꼬리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머리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스핑크스는 아몬드처럼 생긴 갸름한 눈을 돌리더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스핑크스는 당장이라도 덤벼들 듯이 몸을 웅크리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길을 가로막은 채, 옆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어슬렁거렸다. 잠시 후에 스핑크스가 해리를 쳐다보면서 깊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이제 거의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내 앞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길을 좀 비켜주시겠어요?"

해리는 조심조심하며 부탁했다. 하지만 스핑크스가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는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그건 안 된다." 스핑크스는 잠시도 쉬지 않고 서성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수수께끼를 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대답을 해서 맞추면 너를 그냥 통과시켜 주겠지만, 맞추지 못하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겠다면, 네가 그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마."

해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해리가 아니라 헤르미온느였다. 해리는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에 대해 궁리해 보았다. 만약 수수께끼가 너무 어려우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스핑크스를 피해 달아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로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다.

"좋아요. 무슨 수수께끼인지 들어볼까요?"

마침내 해리가 결심한 듯 말했다. 스핑크스는 길 중간에 턱 버티고 앉아서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가는 자를 생각하라.

그는 비밀을 다루고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고치는 것의 마지막, 중간의 중간, 끝의 끝은 무엇인지 말하라.

마지막으로 찾기 어려운 말을 찾으려고 할 때 종종내는 소리를 말하라.

이제 그 답을 다 엮어서 이 질문에 대답하라. 그대가 입을 맞추고 싶지 않은 이 동물은 과연 무엇인가?

해리는 입을 딱 벌렸다.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을까요? 좀더 천천히요."

해리는 스핑크스를 향해 정중하게 부탁했다. 스핑크스는 눈을 꿈벅거리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시를 외웠다.

"앞선 질문의 해답을 다 합치면 내가 입을 맞추고 싶지 않은 동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해리가 물어보았다. 하지만 스팽크스는 그저 수수께끼 같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해리는 그 미소를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입을 맞추고 싶지 않은 동물은 아주 많았다. 당장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동물은 폭탄 꼬리 스크루트였다. 하지만 어쩐지 그것은 정답이 아닐 것 같았다. 해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실마리를 풀어 보려고 애를 썼다...

"신분을 위장하고 살아가는 자." 해리는 초롱초롱한 눈길로 스팽크스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렇다면 사기꾼인데... 아니, 아직 답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스파이? 아무래도 다시 그 시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다음 구절을 다시 한 번 말해 주실래요?"

스핑크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구절을 읊어주었다.

"고치는 것(mend)의 마지막?" 해리는 그 시를 되풀이하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어... 모르겠는걸? 중간의 중간, 끝의 끝이라... 중간(middle)과 끝(end)... 중간의 중간은... 그러니까 dd... 끝 중의 끝도... 역시 d 가 되는구나. 그래, 알겠어. 두 번째 시의 비밀은 바로 'd'라는 글자야." 해리는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다. "제일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을까요?"

스핑크스는 마지막 구절을 다시 말해 주었다.

"찾기 어려운 말을 찾으려고 할 때 종종 내는 소리라... 어... 그건... 어... 잠깐 기다려요. '어'그래요! '어(er)'소리예요! 그리고 d 와 er 를 합치면 더(der)가 되네."

스핑크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스파이... 더... 스파이... 더... 스파이더..."

해리는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입을 맞추고 싶지 않은 동물은... 그래, 스파이더! 거미예요!"

스핑크스는 활짝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리를 한 번 쭉 펴더니 해리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 주었다.

"고마워요!"

해리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에 대해 스스로 놀라면서 쓴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제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했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요술지팡이는 해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었다. 더 이상 끔찍한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어쩌면 우승컵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해리는 목표 지점을 향해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또다시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방향을 가르쳐다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손바닥에 옮겨놓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요술지팡이는 한 바퀴 빙글 돌더니 오른쪽 길을 가리켰다. 쓴살같이 뛰어가던 해리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10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떤 그림자가 맞은편 통로에서 불쑥 나타났다.

케드릭이 먼저 우승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케드릭은 젖먹던 힘을 다해 전력을 짚고 있었다. 해리는 절대로 케드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케드릭은 해리보다 훨씬 키가 컸으며 다리도 더 길었다.

그때 해리는 왼쪽에서 거대한 어떤 물체가 산울타리 위로 기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해리가 서 있는 통로와 교차되는 다른 통로를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케드릭은 그것과 거의 충돌하기 일보직전이었다. 하지만 케드릭은 온통 우승컵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케드릭! 왼쪽을 봐!"

해리는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케드릭은 그 거대한 물체와 부딪히려는 순간, 힐끗 고개를 돌려서 그것을 쳐다보았다.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해리는 케드릭의 요술지팡이가 손에서 멀리 튕겨 나가는 것을 보았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대한 거미가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케드릭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스투페파이!"

해리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주문은 북실북실하게 털이 난 거미의 검은 몸뚱이에 명중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정도의 효과밖에 나지 않았다. 거미는 잠시 몸을 움찔하더니 허둥지둥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리를 향해 곧장 달려오기 시작했다.

"스투페파이! 임페디멘타! 스투페파이!"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거미는 너무나 몸집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문을 쏘아댈수록 더욱 화만 돌우게 될 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해리는 번뜩이는 여덟 개의 검은 눈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집게발을 힐끗 쳐다보았다.

거미는 앞발로 해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해리는 미친 듯이 버둥거리면서 거미를 발로 걷어차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거미가 집게발로 해리의 발을 꼭 쥐자, 참기 어려운 고통이 느껴졌다.

"스투페파이!"

케드릭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케드릭의 주문 또한 해리의 주문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간신히 요술지팡이를 치켜든 해리는 또다시 집게발을 짹 벌리고 달려드는 거미를 향해 힘껏 소리쳤다.

"엑스펠리아르무스!"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다. 무장 해제 마법을 당한 거미는 해리를 탁 놓아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바람에 해리는 4 미터 높이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다. 이미 부상을 당한 해리의 다리가 땅바닥에 세차게 부딪혔다. 미처 아프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해리는 스크루트에게 했던 것처럼 거미의 아랫배를 향해 요술지팡이를 겨누었다. 그리고 목청이 터질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

"스투페파이!"

그와 동시에 케드릭도 똑같이 주문을 쏘았다. 두 사람의 주문이 합쳐지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다. 거미는 옆으로 데굴데굴 구르더니 근처 산울타리에 납작하게 붙어서 털이 북실북실한 다리를 마구 휘저었다.

"해리! 괜찮니? 거미에게 물렸니?"

케드릭이 큰 소리로 해리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야."

해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대답했다. 해리는 붉은 피가 콜콸 쏟아지고 있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거미의 집게발에 베인 깊고 커다란 상처가 보였다. 해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 간신히 산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선 채, 해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케드릭은 트리위저드 우승컵으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우뚝 서 있었다.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케드릭의 등 뒤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케드릭은 꼼짝도 하지 않고 다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에 케드릭은 힐끗 고개를 돌리더니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쳐다보았다. 해리는 케드릭의 얼굴에 황금빛으로 번뜩이는 우승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케드릭은 다시 산울타리를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는 해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땅이 꺠질 정도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저 우승컵은 네가 가지도록 해. 네가 우승자가 되어야만 해. 너는 두 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 주었잖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시합의 우승자가 될 수는 없어."

해리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자꾸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리는 참을 수 없이 아팠으며, 거미를 물리치기 위해 정신없이 싸우는 통에 온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 게다가 무진 고생 끝에 결국 케드릭에게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빼앗기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무도회에서 초 쟁을 빼앗겼던 것처럼..."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먼저 잡는 사람이 점수를 얻는 거야. 그리고 그건 바로 너잖아.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이 다리로 너와 경주를 해서 이길 수가 없어."

케드릭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거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야."

케드릭이 말했다.

"제발 고상한 척 좀 하지마. 그냥 우승컵을 잡으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 모두 이 미로에서 나갈 수 있잖아."

해리가 신경질을 내면서 소리쳤다. 케드릭은 산울타리를 꼭 붙잡고 있는 해리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네가 용에 대해서 미리 말해 주었잖아. 네가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첫번째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거야."

케드릭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건 사실 나도 도움을 받아서 알아내었던 거야. 게다가 너도 황금알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 주었잖아. 우리는 서로 비긴 거야."

해리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다리에 흐르는 피를 옷으로 닦아내었다.

"황금알에 대해 도움을 받았던 건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케드릭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래도 우린 비겼어."

해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보았다. 다리에 약간 힘을 주자,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후들거렸다. 거미가 해리를 놓아 주었을 때,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목을 뻔 것 같았다.

"두 번째 시험에서 너는 좀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인질들이 모두 구출될 때까지 너 혼자 뒤에 남아 있었잖아. 그게 올바른 일이었어.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케드릭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조금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그 노래를 진짜로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큼 명청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당장 우승컵을 차지해!"

해리가 신랄한 목소리로 외쳤다.

"싫어!"

케드릭이 거칠게 머리를 흔들면서 대답했다. 그는 뒤엉킨 거미의 다리를 넘어서 해리에게 걸어갔다. 해리는 케드릭을 빤히 노려보았다. 케드릭은 대단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후풀푸프 기숙사가 한 번도 누려 보지 못한 엄청난 영광을 외면하고 돌아선 것이다.

"어서 가!"

케드릭이 해리를 쳐다보면서 결연하게 말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온갖 고심을 다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팔짱을 낀 채, 턱 버티고 서 있는 케드릭의 얼굴은 아주 의연했다. 케드릭은 우승컵을 해리에게 양보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 분명했다.

해리는 케드릭과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해리의 머리 속에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들고 미로를 빠져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해리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번쩍 손에 들고 우뚝 서 있었다... 관중들이 일제히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감탄하고 있는 초 쟁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잠시 후에 영상들이 흐릿하게 사라지더니 결의에 가득 차 있는 케드릭의 그늘진 얼굴이 나타났다.

"우리 함께 하자."

해리는 케드릭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뭐라구?"

"우리가 동시에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잡는 거야. 그래도 호그와트가 우승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동점이 되는 거야."

케드릭은 해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팔짱을 풀었다.

"너... 진심이니?"

"그래, 정말이야. 결국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우린 함께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우승도 함께 하는 거야."

해리가 케드릭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잠시 동안 케드릭은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활짝 미소를 지었다.

"네 말이 맞아. 이리로 와."

케드릭은 해리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부축했다. 그리고 해리와 함께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놓여 있는 단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마침내 두 사람은 트리위저드 우승컵 바로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번쩍이는 우승컵의 손잡이를 잡기 위해 둘 다 손을 내밀었다.

"셋을 세면 잡는 거야, 알았지?" 해리가 케드릭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케드릭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해리와 케드릭은 동시에 트리위저드 우승컵의 손잡이를 잡았다.

갑자기 해리는 몸의 중심이 앞으로 확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발이 땅바닥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트리위저드 우승컵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해리를 하늘 높이 들어올렸다. 케드릭 역시 해리와 함께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제 32 장

살과 피와 뼈

마침내 해리는 발이 땅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상처입은 다리가 힘없이 꺾이면서 해리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손에서 떨어졌다. 해리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여기가 어디지?"

해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케드릭은 고개를 저으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해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팔을 부축해 주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호그와트 운동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몇 킬로미터, 어쩌면 거의 수백 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온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호그와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풀이 무성하게 뒤덮인 어두운 공동묘지였다. 오른쪽에는 커다란 주목나무 너머로 교회의 검은 그림자가 뚜렷하게 보였다. 왼쪽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솟아올라 있었다. 그 언덕 위에는 웅장하고 오래된 저택이 한 채 자리잡고 있었다.

케드릭은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시 해리에게 고개를 돌렸다.

"혹시 이 우승컵이 포트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니?"

"전혀... 그런데 이것도 시험의 일부일까?"

해리는 공동묘지를 빙 둘러보았다. 온 세상은 마치 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리고 약간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도 모르겠어. 요술지팡이를 빼지 않을래?"

케드릭은 불안한 눈으로 해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해리는 케드릭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은근히 기뻐하면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요술지팡이를 빼들었다. 해리는 계속 주위를 경계하면서

두리번거렸다. 또다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오고 있어."

갑자기 케드릭이 초조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짙은 어둠 속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공동묘지의 무덤들 사이를 지나서 그들을 향해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비록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걸음걸이와 두 팔의 모양으로 미루어 볼 때, 뭔가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가 작달막한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두건이 달린 망토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 사이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다. 해리는 그 사람이 갓난 아기 같은 것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혹시... 아기가 아니라 그냥 옷꾸러미일까?

해리는 천천히 요술지팡이를 내리면서 케드릭을 힐끗 돌아보았다. 케드릭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해리를 마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 사람은 커다란 대리석 묘비가 우뚝 솟아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과 겨우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잠시동안 해리와 케드릭과 키가 작달막한 그 사람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바로 그 순간, 해리의 이마에 나 있는 흉터가 느닷없이 아프기 시작했다.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이었다. 해리는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요술 지팡이를 툭 떨어뜨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땅바닥으로 쓰러진 해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머리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다른 한놈은 죽여라!"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아바다 케다브라!"

해리는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초록빛 섬광이 번쩍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뭔가 육중한 것이 쿵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마의 통증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차츰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무슨 광경을 보게 될까? 해리는 몹시 두려워하면서 쿡쿡 쑤시는 눈을 조심스럽게 떠 보았다.

케드릭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케드릭은 이미 죽은 것 같았다. 짧은 몇 초의 순간이, 마치 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해리는 케드릭의 얼굴을 명하니 바라보았다. 부릅뜨고 있는 회색 눈은 버려진 흉가의 창문처럼 공허하고 생기가 없었다. 절반 가량 벌어진 입은 당장이라도 처절한 비명을 지를 것만 같았다.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머리 속으로 받아들여 지기도 전에, 무감각한 마비 상태에서 미처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도 전에, 누군가 해리의 몸을 잡아 일으켰다.

망토를 걸친 작달막한 체구의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요술 지팡이에 불을 밝혔다. 그리고 해리를 끌고 대리석 묘비까지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깜박이는 요술지팡이의 불빛을 통해,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톰 리들

그 사람이 강제로 해리를 돌아서게 하는 바람에 해리는 그만 묘비에 등을 쾅 부딪히고 말았다. 망토를 입은 사람은 튼튼한 밧줄을 꺼내더니 목부터 발목까지 해리를 묘비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해리는 어두운 두건 깊숙한 곳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리가 마구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그 사람은 손바닥으로 해리를 세게 내리쳤다.

그 순간, 해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이 네 개 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비로소 해리는 두건을 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그 사람은 바로 웰테일이었다.

"당신은!"

해리가 입을 딱 벌렸다. 하지만 이미 해리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버린 웰테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밧줄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다시 한번 분주하게 확인할 뿐이었다. 매듭을 더듬고 있는 웰테일의 손가락은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해리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묘비에 단단히 묶여 있는 걸 확인하자, 웜테일은 망토 안에서 검은 천을 꺼내더니 해리의 입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한 마디 말도 없이 훅 돌아서서 허둥지둥 사라지고 말았다.

해리는 희미한 신음 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웜테일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볼 수도 없었다. 묘비에 꽁꽁 묶여 있어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리는 오직 정면만 바라볼 수 있었다.

케드릭의 시신은 6 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 그 너머에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별빛을 받으면서 반짝이고 있었다. 해리의 요술지팡이는 바로 케드릭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해리가 갓난 아기라고 생각했던 그 옷꾸러미는 무덤 근처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꾸러미가 움찔움찔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해리는 가만히 옷꾸러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또다시 이마의 흉터에 무서운 통증이 엄습했다. 갑자기 해리는 옷꾸러미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옷꾸러미는 절대로 풀어지면 안 된다... 문득 해리의 발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뱀이 수풀을 헤치면서 기어오고 있었다. 뱀은 해리가 묶여 있는 묘비 주위를 빙빙 돌았다. 또다시 웜테일이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웜테일은 원가 아주 육중한 물건을 힘들게 끌고 오는 모양이었다. 마침내 웜테일이 해리의 시야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웜테일은 돌로 만든 커다란 가마솥을 무덤 근처까지 끌고 오고 있었다. 커다란 가마솥 안에는 물처럼 보이는 것이 가득 들어 있어서 가마솥이 흔들릴 때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로 만든 그 커다란 가마솥은 지금까지 해리가 사용해 본 어떤 솥보다도 컸다. 어른이 들어가서 앉을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자 옷꾸러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더욱 심하게 움찔거렸다. 마치 옷꾸러미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웜테일은 가마솥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요술지팡이로 정신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별안간 가마솥 밑에서 거센 불길이 타올랐다. 거대한 뱀은 어둠 속으로 스르르 모습을 감추었다.

가마솥에 담긴 액체는 금방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부글부글 거품을 낼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탁탁 맹렬하게 불꽃을 튀겼다. 자욱한 김이 무력무력 피어 오르면서, 불길을 살펴보고 있는 웜테일의 모습을 흐릿하게 가렸다. 옷꾸러미는 잔뜩 안달이 난 듯이 더욱 초조하게 버둥거렸다. 해리는 또다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서둘러라!"

이제 가마솥 안의 액체는 작은 불꽃을 튀기면서 환하게 빛났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주인님."

"자... 어서!"

차가운 목소리가 웜테일을 재촉했다. 웜테일이 땅바닥에 놓여 있던 옷꾸러미를 풀자, 그 속에 싸여 있던 것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해리는 마구 비명을 질렀지만, 입을 틀어막고 있는 천몽치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웜테일이 지옥의 문을 열고 어떤 아주 추악하고 미끌미끌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원가를 꺼내 보여준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욱 끔찍했다. 수백 배는 더...

웜테일이 꺼낸 그것은 몸을 잔뜩 웅크린 갓난 아기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그렇게 전혀 아기같이 생기지 않은 아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검붉은 살덩어리에 불과했다. 머리카락은 한 올도 없었으며 온몸에는 오톨도톨한 비늘이 잔뜩 덮여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의 팔과 다리는 가늘고 흐늘흐늘했으며, 마치 납작한 뱀의 머리처럼 생긴 그것의 얼굴에는(이 세상의 그 어떤 아이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번뜩이는 빨간 눈동자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혼자 힘으로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이 가느다란 팔을 내밀어 웜테일의 목에 걸자, 웜테일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올렸다. 그 바람에 두건이 뒤로 벗겨지고 말았다. 해리는 역겨워하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난 웜테일의 창백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웜테일은 그것을 안고 가마솥의 가장자리까지 걸어갔다.

잠시동안 해리는 가마솥 안에서 끓어오르는 불꽃에 환하게 비추어진 그 사악하고 납작한 얼굴을 보았다. 웜테일은 품에 안고 있던 그것을 가마솥 안으로 천천히 집어넣었다. 쇳 소리와 함께 그것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해리는 그 조그마한 몸뚱이가 통하고 가마솥 바닥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 가마솥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해리는 마음 속으로 간절하게 생각했다. 이제 이마의 흉터는 불로 지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확확 쑤셨다.

제발... 그냥 빠져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둬!

마침내 웜테일이 입을 열었다. 웜테일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웜테일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웜테일은 두 눈을 꼭 감고 천천히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리더니 어둠을 향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바쳐진 아버지의 뼈여, 당신의 아들을 새롭게 하라!"

갑자기 해리의 발 밑에 있던 무덤이 쪽 칼라졌다. 공포에 질린 해리는 웜테일이 말을 마치자마자 고운 뺏가루가 허공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뺏가루는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가마솥 안으로 사르르 떨어졌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수면이 갈라지면서 쇳쇳 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타닥타닥 사방으로 불꽃을 내뿜으면서 독약처럼 보이는 파란색으로 변했다.

이제 웜테일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웜테일은 망토 안에서 길고 가느다란 단검을 꺼냈다. 은으로 만든 단검이 번쩍이는 빛을 뿐였다. 무슨 일인지

웜테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구 호느끼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웜테일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종의... 살을... 기... 기꺼이... 바치나니... 그대의 주인을... 다시... 살아나게 하라!"

웜테일은 오른손을 앞으로 쪽 내밀었다. 손가락 한 개가 없는 바로 그 손이었다. 웜테일은 왼손으로 단검을 단단히 움켜쥐고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었다.

해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웜테일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깨닫고 두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어둠을 가르는 비명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해리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웜테일은 비틀거리며 땅바닥으로 쿵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 고통으로 가득 찬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원가 가마솥 안으로 풍덩 떨어지는 역겨운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가마솥에 담긴 액체는 이제 빨갛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꼭 감고 있던 해리의 눈 속으로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웜테일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참기 위해 신음소리를 내었다. 문득 웜테일의 가쁜 숨결이 해리의 얼굴에 와 달았다. 어느 틈에 웜테일이 해리의 눈앞에 서 있었다.

"강... 강제로 빠았은... 원수의 피... 그대는 그대의 적을... 부활하게 하리라!"

해리는 마구 발버둥쳤지만, 웜테일의 행동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해리는 밧줄을 풀기 위해 애를 쓰면서 절망적으로 고개를 늘어뜨렸다. 문득 웜테일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칼날이 오른팔의 안쪽 부분을 깊숙히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찢어진 소맷자락 밑으로 붉은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여전히 고통으로 숨을 헐떡거리고 있던 웜테일은 호주머니를 뒤적거려서 유리병을 꺼내더니 해리의 상처에 대고 흘러내리는 피를 받았다.

웜테일은 해리의 피가 담긴 유리병을 들고 휘청거리면서 가마솥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마솥에 붉은 피를 부었다. 가마솥에 담긴 액체가 즉시 하얀색으로 변하더니 눈부시게 빛났다.

마침내 일을 모두 끝낸 웜테일은 가마솥 옆에 텔썩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잘린 팔뚝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거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가마솥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불꽃을 온 사방으로 튀기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눈부실 정도로 밝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두 검은색 융단같이 보일 정도였다.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 빠져 죽어라.

해리는 마음속으로 애타게 소리를 질렀다.

일이 잘못되는 거야...

갑자기 사방으로 튀어오르던 불꽃이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 대신에 가마솥에서 하얀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 올랐다. 해리의 시야는 수증기로 인해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다. 웜테일도... 케드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허공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증기뿐이었다.

일이 잘못된 거야...

해리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었다.

가마솥에 빠져 죽었을 거야. 제발... 제발 죽어라...

그 순간 해리는 자욱한 수증기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 버릴 정도로 엄청난 공포가 밀려들었다.

키가 훌쭉하고 해골처럼 앙상한 체구의 한 남자가 가마솥에서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다.

"나에게 옷을 입혀라."

자욱한 수증기 너머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웜테일은 여전히 잘려 나간 팔뚝을 움켜잡은 채, 애처롭게 흐느끼고 있었다. 웜테일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검은 옷을 집어 들어 가마솥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 개뿐인 손을 움직여 주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바싹 마른 체격의 남자가 가마솥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무서운 눈길로 해리를 노려보면서... 해리는 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해리의 악몽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크고 번뜩이는 새빨간 눈, 뱀처럼 구멍만 뻥 뚫린 납작한 코, 해골보다 더욱 창백한 얼굴...

마침내 볼드모트 경이 부활한 것이다.

제 33 장

죽음을 먹는 자들

볼드모트는 천천히 눈길을 돌리더니 자신의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볼드모트의 손은 마치 하얗고 커다란 거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볼드모트는 길고 창백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과 팔과 얼굴을 어루만졌다.

고양이 눈처럼 동공이 세로로 쭉 찢어진 새빨간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볼드모트는 두 손을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구부려 보았다.

이윽고 볼드모트의 얼굴에 황홀하고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이 떠올랐다.

볼드모트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출출 흘리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웜테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시 스르르 나타나 쉿쉿 소리를 내면서 해리 주위를 빙빙 맴돌고 있는 거대한 뱀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볼드모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기다란 손가락을 호주머니 속에 찔러 넣더니, 요술지팡이를 꺼내들어 잠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졌다.

갑자기 볼드모트가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려 웜테일을 겨냥했다. 웜테일의 몸이 허공으로 봉 뜨더니 해리가 묶여 있는 비석에 광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땅바닥에 쓰러진 웜테일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볼드모트는 다시 새빨간 두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날카롭고 차갑고 전혀 유쾌하지 않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제 웜테일의 웃은 온통 붉은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

"주인님..."

잘린 팔뚝의 끝을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던 웜테일이 숨막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팔을 내밀어라."

볼드모트가 태연하게 말했다.

"오,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웜테일은 피가 철철 흐르는 팔뚝을 앞으로 내밀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다시 소름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웜테일, 다른 팔을 내밀어라."

"주인님, 제발... 제발..."

볼드모트는 허리를 숙이더니 웜테일의 왼쪽 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웜테일의 소맷자락을 팔꿈치까지 말아올렸다. 해리는 웜테일의 팔뚝에 해골 모양의 선홍색 문신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해골의 입에서는 뱀 한 마리가 마치 혓바닥처럼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퀴디치 월드컵이 끝났을 때, 어두운 밤하늘에 나타났던 바로 그 어둠의 표식이었다. 볼드모트는 이제 목놓아 통곡하는 웜테일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 문신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다시 돌아왔다." 볼드모트가 나지막이 말했다. "모두들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곧 알게 될 테니까..."

볼드모트는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웜테일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세게 눌렀다. 해리의 이마에 난 흉터가 다시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웜테일도 몹시 고통스러워 하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에 볼드모트가 웜테일의 문신에서 손가락을 떼었다. 해리는 그 문신이 새까맣게 변해 버린 것을 보았다. 볼드모트의 얼굴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볼드모트는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운 후, 고개를 돌려 어두운 공동 묘지를 빙 둘러보았다.

"이것을 느끼고 다시 돌아올 만큼 용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볼드모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차갑게 번뜩이는 볼드모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것을 모르는 척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볼드모트는 줄곧 공동묘지를 둘러보면서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볼드모트는 다시 해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뱀처럼 차가운 볼드모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해리 포터, 지금 너는 죽은 내 아버지의 유골 위에 서 있다." 볼드모트가 목소리를 낮게 깔면서 속삭였다. "멍청한 머글이었지... 꼭 네 엄마처럼 말이야. 하지만 두 사람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었다. 안 그런가? 네 엄마는 어린 너를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죽은 그자의 뼈가 얼마나 유용한지 알았다..."

볼드모트는 다시 냉혹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계속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커다란 뱀은 수풀 속을 빙빙 돌아다니고 있었다.

"포터,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이 보이느냐? 리들 하우스... 내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다. 이 마을에서 살았던 내 어머니 마녀는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밝히자, 아버지는 그만 어머니를 버리고 말았어... 그는 마법을 좋아하지 않았지. 내 아버지는 말이야..."

볼드모트는 쪽 갈라진 무덤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머글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 나는 머글들의 고아원에서 자라나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아버지를 찾겠다고 맹세했지... 그리고 그 자에게 복수를 했어... 나에게 톰 리들이라는 이름을 물려준 그 멍청이에게..."

볼드모트는 여전히 서성거리면서 새빨간 눈으로 공동묘지를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잘 들어라, 나의 가족사를..." 볼드모트가 음산하게 말했다. "이런! 내가 좀 감상적이 되었군... 하지만 보아라, 해리! 나의 진정한 가족들이 돌아오고 있다..."

갑자기 망토 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주위를 가득 채웠다. 무덤들 사이사이, 주목나무 너머 그늘진 곳곳마다 마법사들이 뽕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두건을 눌러쓴 채,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들은 볼드모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볼드모트는 아무 말없이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바로 그때 죽음을 먹는 자들 중에 한 명이 털썩 무릎을 꿇더니 볼드모트를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주인님... 주인님..."

그는 볼드모트의 검은 옷자락에 입을 맞추면서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그의 뒤를 이어서 다른 죽음을 먹는 자들도 똑같이 행동했다. 그들은 차례대로 무릎을 꿇고 다가오더니 볼드모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고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톰리들의 무덤과 해리, 볼드모트, 웜테일을 빙 둘러싼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웜테일은 아직까지도 꿈틀꿈틀 경련을 일으키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더욱 많은 동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지, 드문드문 빈 자리를 남겨 두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볼드모트가 두건을 쓴 얼굴들을 한 번 빙 둘러보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원을 따라 파르르 동요가 일었다. 마치 원을 그리고 서 있던 사람들이 부르르 몸을 떨기라도 한 것처럼...

"잘 왔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여!" 볼드모트가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3년... 무려 13년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하지만 그대들은 마치 어제의 일인 양 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해 주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둠의 표식 아래 굳게 결속되어 있구나! 과연 그런가?"

볼드모트는 그 끔찍한 얼굴을 획 돌리더니 쪽 찢어진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쿵쿵 냄새를 맡았다.

"죄악의 냄새가 난다." 볼드모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죄악의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또다시 커다란 원을 그리고 있던 어둠을 먹는 자들 사이에서 파르르 동요가 일어났다. 마치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모두 흠칫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감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신속하게 나타난 걸 보니까, 그대들 모두 건강하고 멀쩡하다는 걸 알겠노라! 마법의 힘도... 예전 그대로인 것 같구나...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째서 이 멀쩡한 마법사 무리들이 한 번도 자기들의 주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영원한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주인을?"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웜테일 이외에는 감히 몸을 움직이려는 사람조차 없었다. 웜테일은 여전히 땅바닥에 쓰러진 채,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팔을 움켜잡고 울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 보았다." 볼드모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은 거라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슬그머니 나의 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순진했으며 잠시 나쁜 마법에 걸렸던 거라고 핑계를 대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또다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내가 다시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오래 전부터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지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내가 그 어떤 마법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던 그 시절에, 나의 무한한 힘의 증거를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자들이?"

볼드모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죽음을 먹는 자들을 빙 둘러 보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볼드모트의 시선을 느끼자 흠칫 놀라는 것 같았다.

"나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아마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볼드모트 경까지도 없애 버릴 수 있는 힘이... 이제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평민들의 우상이자 더러운 혈통과 머글들의 수호자인 알버스 덤블도어에게?"

덤블도어의 이름이 나오자, 원을 그리고 서 있던 사람들이 움찔 몸을 움츠렸다. 그 중에 몇 명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지막이 중얼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다... 솔직히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갑자기 원을 그리고 서 있던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불쑥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볼드모트의 발 밑에 털썩 쓰러졌다.

"주인님!" 그는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볼드모트에게 매달렸다. "주인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볼드모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크루시오!"

갑자기 땅바닥에 끊어앉아서 애원하던 죽음을 먹는 자가 온몸을 마구 비틀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그 비명소리가 분명히 근처 마을까지 다 들릴 거라고 생각했다.

경찰이라도 와라...

해리는 간절히 소망했다...

아무라도... 제발...

잠시 후에 볼드모트는 다시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렸다. 고문을 받은 죽음을 먹는 자는 땅바닥에 벌렁 쓰러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일어나거라, 애버리." 볼드모트가 그 마법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일어나거라. 나에게 용서를 구했느냐?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잊지도 못한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는 너를 용서하기 전에 그 13년이라는 세월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한다. 여기 있는 웜테일은 이미 그 대가를 치렀다. 그렇지 않느냐, 웜테일?"

볼드모트는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웜테일을 내려다보았다.

"너는 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너의 옛 친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혹독한 고통을 치렀다. 웜테일,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예, 주인님. 제발, 주인님... 제발..."

웜테일은 울먹이면서 간절하게 애원했다.

"하지만 너는 내가 다시 몸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볼드모트는 땅바닥에 쓰러져서 흐느끼고 있는 웜테일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별로 쓸모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녀석이지만,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볼드모트 경은 경을 도와주는 자에게 상을 내린다..."

볼드모트는 다시 요술 지팡이를 들어 올려 허공에 대고 한바퀴 휘둘렀다.

그러자 요술 지팡이 끝에서 은을 녹인 반짝이는 액체처럼 보이는 것이 한 가닥 흘러나왔다. 아무런 형체도 없었던 그것은 곧 구불구불 휘어지더니 사람의 손 모양이 되었다. 반짝거리는 그 손은 마치 달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가서는 피가 흐르는 웜테일의 손목에 저절로 찰싹 달라붙었다.

갑자기 웜테일의 흐느끼는 소리가 뚝 그쳤다. 웜테일은 거칠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은빛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쪽같이 웜테일의 팔뚝에 붙어서, 마치 휘황찬란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웜테일은 은빛으로 빛나는 손가락들을 살짝 구부려 보았다. 그리고 부르르 몸을 떨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 들었다. 웜테일의 손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러졌다.

"주인님." 웜테일은 몹시 감격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주인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웜테일은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볼드모트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웜테일, 이제부터 두 번 다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볼드모트가 차갑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절대로! 나의 주인님..."

웜테일은 벌떡 일어나서 원을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틈에 가서 섰다. 웜테일의 얼굴은 아직까지도 눈물에 젖어서 번들번들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새로 생긴 강력한 손을 신기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볼드모트는 웜테일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루시우스, 나의 교활한 친구." 볼드모트는 그의 앞에 우뚝 멈춰 서더니 작게 속삭였다. "그대가 옛날 습성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다.

비록 세상에는 아주 존경할 만한 얼굴을 내비치고 있지만 말이다. 그대는 아직도 머글들을 고문하는 일에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겠지? 하지만 루시우스, 너는 한 번도 나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큐디치 월드컵에서 보여주었던 너의 활약은 꽤 재미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너의 힘을 차라리 네 주인을 찾아서 돋는 일에 써야 하지 않았을까?"

"주인님, 저는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으로부터 어떤 징표라도 있었다면, 주인님이 어디에 있다는 소문이라도 들었다면, 저는 당장 주인님 곁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 무엇도 저를 막지 못했을 겁니다."

두건 밑에서 루시우스 말포이의 목소리가 훌러나왔다.

"하지만 지난 여름에 나의 충실한 죽음을 먹는 자가 어둠의 표식을 하늘에 쏘아 올렸을 때, 너 또한 도망치지 않았느냐?"

볼드모트가 느릿느릿 중얼거렸다. 루시우스는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루시우스...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큰 충성을 바치기를 기대하겠다."

"물론입니다, 주인님. 물론입니다...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고맙습니다."

볼드모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텅 빈 자리를 보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루시우스와 다음 사람 사이에 두 명은 충분히 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는 레스트랭 부부가 서 있어야 한다." 볼드모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즈카반에 갇혀 있다. 그들은 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아즈카반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 아즈카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 레스트랭 부부는 상상을 초월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디멘터들도 우리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우리와 같은 부류인 것이다... 우리는 멀리 추방된 거인족들도 다시 부를 것이다... 나는 나의 충성스러운 모든 종족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법 생물 군단을..."

볼드모트는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명의 죽음을 먹는 자들 앞을 아무런 말도 없이 훑 지나갔다.

잠시 후에 볼드모트는 어떤 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맥네어... 지금은 마법부에서 위험한 생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웜테일이 말하던데? 머지않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맥네어. 볼드모트 경이 그 제물을 마련해 주겠다..."

"고맙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맥네어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여기는..." 볼드모트는 덩치가 커다란 두 명의 마법사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들도 역시 두건을 눌러 쓰고 있었다. "크레이브로군... 이번에는 더 잘 할 수 있겠지? 안 그런가, 크레이브? 자네, 고일도?"

두 사람은 우물쭈물 대답하면서 엉거주춤하게 절을 했다.

"예, 주인님..."

"물론입니다, 주인님..."

"너도 마찬가지다, 놗."

볼드모트가 고일의 그림자에 가려 구부정하게 서 있는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나지막이 말했다.

"주인님,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저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그만! 그만 해라!"

볼드모트는 제일 넓게 비어 있는 자리로 걸음을 옮겼다. 볼드모트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새빨간 눈으로 그 빈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볼드모트의 눈에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 자리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여섯 명이나 비었군. 세 명은 나를 섬기다가 죽었지. 한 명은 너무나 겁이 나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는 흑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녀석은 내 곁을 영원히 떠났지... 그는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의 가장 충실한 종으로 남았던 한 사람... 그는 벌써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있다."

갑자기 죽음을 먹는 자들이 동요를 일으켰다. 해리는 그들이 가면 너머로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충실한 종은 지금 호그와트에 있다.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린 친구가 오늘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원을 그리면서 서 있던 어둠을 먹는 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리에게 쏠리자, 볼드모트는 입술이 거의 없는 입을 말아 올리면서 씩 미소를 지었다.

"친절하게도 해리 포터는 나의 부활 파티에 참석해 주었다. 그러므로 포터를 나의 영예로운 손님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한참 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 웰테일의 오른쪽에 서 있던 죽음을 먹는 자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리고 가면 밑에서 루시우스 말포이의 목소리가 훌러나왔다.

"주인님, 저희들은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이런 기적을... 어떻게 해서 저희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는지..."

"아, 거기에는 참으로 기나긴 사연이 있다, 루시우스." 볼드모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는 나의 어린 친구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이 어린 친구에게서... 끝난다."

볼드모트는 천천히 해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원을 그리고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커다란 뱀은 계속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물론 그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소년이 나를 몰락시켰다고 그들이 말한다는 사실을..."

볼드모트는 나지막이 말했다. 볼드모트의 새빨간 눈이 해리를 향하자, 이마의 흉터가 맹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질렀다.

"그대들은 모두 내가 나의 힘과 육체를 잃어버린 그날 밤에 이 소년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소년의 어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솔직히 나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보호막을 이 소년에게 씌워주었던 것이다.... 나는 이 녀석에게 손가락 하나 댈 수가 없었다."

볼드모트는 길고 하얀 손가락 하나를 해리의 뺨 가까이 들어 올렸다.

"이 소년의 어미는 자신을 희생하고, 그 흔적을 이 소년에게 남겼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마법이다. 나는 그 마법을 기억하고 있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나는 어리석게도 나는 그 마법을 간과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제는 이 소년을 만질 수 있으니까..."

길고 하얀 손가락 끝이 뺨에 달자 진저리나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당장이라도 머리가 평 폭발할 것만 같았다. 볼드모트는 해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웃더니 손가락을 치우고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연설을 계속했다.

"나의 동지들이여! 그것은 나의 계산 착오였다. 솔직히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바이다. 한 여자의 어리석은 희생 때문에 나의 저주는 반사되고 말았다. 오히려

그 저주는 다시 나에게 되돌아왔던 것이다. 아아... 나의 동지들이여! 그것은 고통을 넘어서는 고통이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내 육체로부터 이탈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영혼보다도, 가장 비천한 유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살아 있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멸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던 내가... 너희들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의 목표를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나는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 애를 썼던 그 동안의 노력을 시험해 본 셈이다. 그리고 나의 시도 중에서 한두 가지는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땅히 죽었어야 할 저주를 받고도 죽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미미한 존재처럼 아무런 힘도 없게 되었다. 심지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땅한 수단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육신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될만한 마법은 모두 반드시 요술지팡이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순간 순간 오직 나 자신을 존재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나는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숲속에 은둔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다렸다... 반드시 충실히 죽음을 먹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를 찾으려고 할 거라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찾아내어 내가 할 수 없는 마법을 대신 이루어 줄 거라고... 그리하여 내 몸을 다시 되찾아 줄 거라고... 하지만 나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다..."

그 말을 듣자, 원을 그리고 서 있던 죽음을 먹는 자들은 또다시 부르르 몸을 떨었다. 볼드모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동안 무시무시한 침묵이 감돌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나에게 남아 있는 힘은 딱 한 가지 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육신에 기생하는 마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강히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오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때때로 동물의 몸에 기생하기도 했다. 물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뱀이었지. 하지만 나의 처지는 순수한 영혼 상태일 때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동물의 몸으로는 마법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기생하는 동물들은 생명이 단축되었다. 어느 놈도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지..."

볼드모트는 싸늘한 눈빛으로 해리를 노려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4년 전에...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짚고 명청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 한 마법사가 내가 은둔하고 있는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나와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다. 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바로 그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덤블도어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였기 때문이다... 그는 쉽사리 나의 의지에 따라 주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다시 이 나라로 돌아왔다. 한참 동안이나 나는 그의 몸에 붙어 살면서 그가 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면밀히 감독했다. 하지만... 하지만 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마법사의 둘을 훔치지 못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손에 넣지 못했다. 나는 방해를 받았다. 해리 포터에게 다시 한번 훼방을 당한 것이다! 해리 포터에게..."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주목나무에 매달린 이파리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가면 너머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볼드모트와 해리를 응시했다.

"내가 그의 몸을 떠나자, 그 종은 이내 죽어 버렸다. 나는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약한 존재가 되었다."

볼드모트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나는 멀리 떨어진 나의 은신처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대들에게 솔직히 말하겠다. 그 당시에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나의 힘을 되찾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두려웠다... 그렇다! 아마도 그 시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것이다... 나는 또 다른 마법사의 몸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조차 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죽음을 먹는 자들 중에서 나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희망조차도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다..."

원을 그린 채 서 있던 가면을 쓴 마법사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마음이 찔리는지 몸을 약간 움직였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바로 그때, 불과 몇 달 전에, 내가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무렵,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다... 한 종이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웜테일은 법의 심판을 피해 죽은 척 위장하고 살아가다가, 한때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에게 신분이 들통나자, 자기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이다. 웜테일은 오래 전부터 내가 숨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던 나라로 나를 찾아왔다. 물론 웜테일은 마주치는 쥐들의 도움을 받았지... 웜테일은 아주 흥미롭게도 쥐들과 친화력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다. 안 그런가, 웜테일? 그 조그맣고 더러운 웜테일의 친구들은 알바니아 숲 속 깊숙한 곳에 모두들 무서워서 피하는 장소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그곳에서는 쥐들처럼 조그마한 짐승은 갑자기 엄습하는 검은 그림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말이다..."

볼드모트는 헐끗 고개를 돌려 웜테일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가 나를 찾아오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렇지 않나, 웜테일? 어느 날 깊주림을 견디지 못한 웜테일은 나의 은신처가 있다고 짐작되는 바로 그 숲 근처까지 와서는 그만 어리석게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느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법부의 마녀인 버사 조킨스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다."

볼드모트와 눈길이 마주치자, 웜테일은 자랑스러운 듯이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 다음부터 운명은 볼드모트 경의 편이 되었다. 어쩌면 그 일로 인해 웜테일은 끝장이 날 수도 있었다. 웜테일과 더불어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도... 하지만 웜테일은, 참으로 그에게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여, 버사 조킨스에게 함께 밤산책을 나가자고 설득한 다음, 그녀에게 마법을 걸어 버린 것이었다. 웜테일은 버사 조킨스를 끌고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다. 우리의 모든 일을 망쳐 버릴 수도 있었던 버사 조킨스는 오히려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안겨 주었다. 왜냐하면 약간의 설득 끝에 버사 조킨스는 나의 충실한 정보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버사 조킨스는 올해 호그와트에서 트리위저드 시합이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나와 연락이 닿기만 하면, 나를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충실한 죽음을 먹는 자를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밖에도 버사 조킨스는 많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당시 버사 조킨스는 기억력 마법에 걸려 있었지. 나는 버사 조킨스에게 걸려 있는 기억력 마법을 깨뜨리기 위해 아주 강력한 마법을 써야만 했다. 그러므로 버사 조킨스로부터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빼내고 나자, 그녀의 몸과 정신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고 말았다. 더 이상 써먹을 데도 없었고 그 몸을 차지할 수도 없었으므로, 나는 그 여자를 제거해 버렸지."

볼드모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새빨간 눈을 번뜩이면서 무시무시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 웜테일의 몸 또한 내가 차지하기에는 부적당했다. 모두들 웜테일이 죽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의 눈에 발각되면 지나친 관심을 끌게 될 염려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웜테일은 내가 필요로 하는 육신을 가진 종이었다. 비록 웜테일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마법사라고 해도, 내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는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다시 일시적으로 육체를 갖게 되었다. 물론 보잘것없는 육체였지만... 진정한 부활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들이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육체를... 내가 직접 고안한 한두 개의 주문과... 나의 사랑스러운 내기니의 도움으로..."

볼드모트의 새빨간 눈길이 커다란 뱀에게 가 달았다. 그 뱀은 여전히 묘비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고 있었다.

"유니콘의 피를 섞어 만든 약과 내기니가 제공하는 뱀의 독으로, 곧 나는 거의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여행을 할 수 있을만한 힘도 갖게 되었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마법사의 돌을 훔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덤블도어가 틀림없이 그 돌을 없애 버렸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유한한 생명이나마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전에 말이다. 나는 눈높이를 낮추었다... 우선 나의 옛 육신과 옛 힘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강력한 성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 오늘 밤 나를 되살린 마법의 약은 오래된 어둠의 마법 중의 일부였다 -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내 수중에 들와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웰테일? 바로 종이 바친 살 말이다..."

볼드모트는 잠시 웰테일을 쳐다본 후에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의 뼈를 구하기 위해 당연히 우리는 그가 묻혀 있는 이곳으로 와야만 했다. 하지만 적의 피는... 웰테일은 나에게 아무 마법사나 이용하자고 졸랐다. 나를 증오했던 마법사 중에 아무나 말이다.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반드시 누구의 피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내가 몰락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나는 바로 해리 포터의 피를 원했다. 13년 전에 나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간 포터의 피를 원했다. 왜냐하면 포터의 어미가 그에게 준 보호의 힘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내 핏속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볼드모트는 고개를 돌리더니 새빨간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묘비에 꽁꽁 묶여 있는 해리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해리 포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해리 포터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다. 오래 전에 덤블도어는 해리 포터의 장래를 계획하면서 아주 안전한 방법을 고안해 내었던 것이다. 덤블도어는 고대의 마법을 사용해서 해리 포터가 친척들의 보호 하에 있는 한, 그 누구도 포터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나조차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친척들과 함께 있는 한, 해리 포터는 절대적으로 안전했다. 그리고... 퀴디치 월드컵이 열렸다. 나는 덤블도어나 친척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는 해리 포터를 둘러싼 보호막이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법부의 마법사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해리 포터를 납치하기에는 난 힘이 아직 부족했다. 얼마 후에 이 소년은 다시 호그와트로 돌아갔다. 그리고 머글을 사랑하는 그 멍청이의 매부리코 앞을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해리 포터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을까?"

볼드모트의 얼굴에 냉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쟁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물론 나는 버사 조킨스의 정보를 이용했다. 나의 충실한 죽음을 먹는 자를 호그와트에 침투시킨 것이다. 나의 충실한 종은 이 소년의 이름을 불의 잔 속에 넣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확실히 우승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잡도록 조처를 취해 놓았다. 그 우승컵은 이미 죽음을 먹는 자가 포트키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덤블도어의 어떤 보호나 조처에도 불구하고 해리 포터를 곧장 내 품으로 오게 할 수 있었다. 나는 해리 포터가 오기를 애탏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하여 바로 이 자리에 해리 포터가 있게 된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몰락시켰다고 믿었던 바로 그 소년이..."

볼드모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와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리더니 주문을 외웠다.

"크루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이 해리를 엄습했다. 해리는 마치 뺃속까지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었다. 이마의 흉터를 따라 머리가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다. 해리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빙빙 돌았다. 그만 끝내고 싶었다... 모든 걸 잊은 채... 죽고 싶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해리는 볼드모트 아버지의 묘비에 꽁꽁 묶인 채 축 늘어졌다. 희뿌연 안개 같은 것 너머로 번뜩이는 새빨간 눈동자가 보였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킬킬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제 이 소년이 나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추측이었는지 똑똑히 깨달았을 것이다."

볼드모트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해리 포터가 나의 저주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박아 두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해리 포터를 죽임으로써 나의 힘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지금은 그를 도와줄 덤블도어도 없고 그를 위해 대신 죽어 줄 어미도 없다. 하지만 나는 해리 포터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우리 두 사람 중에서 어느 누가 더 강한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기 위해, 나는 해리 포터에게 나와 대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내기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볼드모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커다란 뱀은 풀숲을 헤치면서 죽음을 먹는 자들이 지켜보고 서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이제 해리 포터를 풀어 주거라, 웜테일. 그리고 그의 요술지팡이를 돌려주도록 해라."

제 34 장

대결

웜테일은 천천히 해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해리는 몸을 묶고 있는 밧줄이 풀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 모았다. 웜테일은 새로 생긴 은손을 들어 올려 해리의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던 천동치를 깨냈다. 그리고 해리를 묘비에 묶어 놓았던 밧줄을 단번에 끊어 버렸다.

도망 치는 게 어떨까? 어쩌면 아주 잠깐 동안 이런 생각이 해리의 머리 속을 스치면서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해리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무덤 위에 간신히 서 있었다. 상처를 입은 다리가 마구 후들거렸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지금 이곳에 없는 다른 동료들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해리와 볼드모트를 중심으로 더욱 빽빽하게 원을 좁히기 시작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만든 원 밖으로 걸어나간 웜테일은 케드릭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해리의 요술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서둘러 해리를 향해 다가와 해리의 손에 거칠게 요술지팡이를 쥐어 주었다. 해리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잠시 후에 웜테일은 다시 죽음을 먹는 자들 사이로 되돌아 갔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해리와 볼드모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결투를 하는 건지 배웠겠지, 해리 포터?"

볼드모트가 음산한 목소리로 물었다. 볼드모트의 새빨간 두눈이 어둠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문득 해리 포터는 2년 전에 호그와트에서 아주 잠깐 참가했던 결투 클럽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 당시에 해리가 배운 것은 오직 무장 해제 마법뿐이었다. '엑스펠리아르무스!' 하지만 설사 그 마법의 주문을 외워서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를 빼앗을 수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최소한 서른 명이 넘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해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마법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다. 다만 무디가 항상 경고했던 바로 그것을 이제 곧 자신이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아바다 케다브라 저주. 볼드모트의 말이 옳았다. 이번에는 해리를 위해 대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어머니도 없다... 지금 이 순간 해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

"해리, 먼저 서로 인사를 하자." 볼드모트가 살짝 허리를 숙이면서 말했다. 하지만 볼드모트는 뱀 같이 생긴 얼굴을 여전히 꼿꼿하게 치켜세운 채, 해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자, 품위있는 행동을 보여라... 덤블도어는 네가 예의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할 게다... 해리, 죽음에게 인사를 해라."

죽음을 먹는 자들이 다시 킬킬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입술이 없는 볼드모트의 입가에도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해리는 허리를 숙이지 않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볼드모트의 손에 놀아나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절대로 볼드모트에게 그런 만족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인사를 하라고 말했다."

볼드모트가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리면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해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를 거칠게 앞으로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허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을 느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신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좋아." 볼드모트가 만족스러운 듯 말했다. 볼드모트가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해리를 짓누르는 힘도 사라졌다.

"이제 남자답게 나와 맞서라. 똑바로 당당하게 서서... 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볼드모트의 새빨간 눈이 해리를 향하고 있었다.

"자, 이제 결투를 시작하자."

볼드모트가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리면서 소리쳤다. 미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해리는 다시 크루시아투스 저주에 적중당하고 말았다. 온몸을 뚱뚱 불태우는 것 같은 강렬한 고통이 해리를 휘감았다. 해리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얗게 달아오른 뜨거운 칼날이 살갗을 갈가리 찢어발기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터져 나갈 지경이었다. 해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고통이 사라졌다. 해리는 땅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다가 간신히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웜테일이 자신의 손목이 잘려나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해리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해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죽음을 먹는 자들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은 해리를 다시 볼드모트 쪽으로 떠밀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다." 볼드모트는 쭉 찢어진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말했다.

"잠시 쉬도록 하지... 해리, 고통스럽지 않느냐?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겠지?"

하지만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도 곧 캐드릭처럼 죽게 될 것이다... 무자비한 새빨간 눈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해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결코 볼드모트의 장단에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볼드모트에게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로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으냐고 네게 물었다." 볼드모트는 해리를 노려보면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대답하라! 임페리오!"

해리는 머리 속에서 생각이란 생각은 썩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 그것은 너무나 달콤한 축복이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 마치 구름 위를 둉둥 떠다니면서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저 싫다고 말해라...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그저 한 마디만 대답하라...

대답하지 않겠어! 보다 강한 목소리가 해리의 머리 속 어딘가에서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저 싫다고 말해라...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저 싫다고 말해라...

"대답하지 않겠어!"

해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해리의 목소리가 어두운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다. 느닷없이 차가운 물을 흡뻑 뒤집어쓴 것처럼, 꿈결 같은 기분이 순식간에 썩 사라졌다. 그 대신에 크루시아투스 저주로 인한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와 동시에 해리는 자신이 어디 있으며,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렷하게 떠올랐다.

"대답하지 않겠다고?" 볼드모트가 음산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갑자기 죽음을 먹는 자들이 웃음을 뚝 그쳤다.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해리, 네가 죽기 전에 아무래도 복종의 미덕을 가르쳐야겠구나... 고통을 좀더 당해야겠느냐?" 볼드모트는 다시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퀴디치 훈련을 통해 얻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해리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볼드모트 아버지의 대리석 묘비 뒤로 물러갔다. 주문이 빗나가면서 짹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 우리는 지금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차갑고 냉정한 볼드모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다시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나를 피해 숨을 수는 없다. 벌써 우리의 결투에 싫증이 난 것이냐? 이제 그만 내가 끝내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해리? 나와라, 해리... 나와서 승부를 벌이자... 곧 끝날 것이다...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다... 물론 나는 한 번도 죽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해리는 대리석 묘비 뒤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볼드모트가 더욱 더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해리는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이성조차도 뛰어넘는 것이었다. 숨바꼭질을 하는 철부지 어린 아이처럼 이대로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볼드모트의 발 밑에 무릎을 꽂은 채 죽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비록 어떤 방어도 불가능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나를 지키다가 죽을 것이다...

볼드모트의 뱀 같은 얼굴이 묘비 위로 나타나기 전에, 해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앞으로 치켜들었다. 그리고 묘비 뒤에서 걸어나와 볼드모트와 정면으로 맞섰다. 볼드모트도 공격할 자세를 취했다.

"엑스펠리아르무스!"

해리가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소리치는 순간, 볼드모트도 동시에 외쳤다.

"아바다 케다브라!"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초록색 불빛이 발사되는 것과 동시에 해리의 요술지팡이에서도 붉은색 불빛이 발사되었다. 두 불빛은 중간에서 마주쳤다. 갑자기 해리의 요술지팡이가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르르 진동하기 시작했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짹 움켜잡았다. 아니, 요술지팡이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었다. 가느다란 광선이 두 요술지팡이를 서로 연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붉은색도, 초록색도 아닌 밝고 진한 황금색 광선이었다. 넋이 나간 눈길로 광선을 바라보던 해리는 문득 볼드모트의 길고 하얀 손가락도 마구 떨리면서 진동하는 요술지팡이를 짹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 너무나 뜻밖에도 - 해리는 두 발이 땅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해리와 볼드모트 둘 다 허공으로 둉뚱 떠올랐다. 두 사람의 요술지팡이는 아직도 번쩍거리는 황금광선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었다. 볼드모트 아버지의 무덤에서 번쩍 위로 들어 올려진 두 사람은 무덤이 없는 넓은 공터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마구 아우성을 치면서 볼드모트에게 빨리 명령을 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쫓아온 그들은 다시 원을 그리며 빙 둘러섰다. 커다란 뱀도 죽음을 먹는 자들의 뒤를 바싹 따르고 있었다. 몇 명의 마법사들은 이미 요술지팡이를 빼어 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해리와 볼드모트를 연결하고 있던 황금빛이 갈라지면서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수천 개의 둥근 광선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요술지팡이는 여전히 굳게 연결되어 있었다. 수천 개의 황금빛 광선은 서로 얼기설기

엮이더니 두 사람을 둘근 둠 모양의 그물망 혹은 광선 우리 같은 것 속에 가두어 버렸다. 황금빛 광선 밖에서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자칼처럼 빙빙 맴돌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볼드모트가 죽음을 먹는 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볼드모트는 새빨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볼드모트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경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볼드모트는 해리의 요술지팡이와 굳게 연결되어 있는 황금빛 광선을 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 해리는 두 손으로 요술지팡이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황금빛 광선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명령을내리기 전에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볼드모트는 다급하게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소리쳤다. 그 순간 이 세상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소리가 허공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해리와 볼드모트를 둘러싸고 있는 광선들이 일제히 진동하면서 내는 소리였다. 해리는 전에 이런 소리를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불사조의 노래였다.

그것은 해리에게는 희망의 소리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반가운 소리... 그 노랫소리는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해리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해리와 덤블도어를 서로 연결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마치 친구가 해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 같았다...

연결을 끊지 말아라.

"알고 있어요." 해리는 그 노랫소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연결을 끊으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리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해리의 요술지팡이가 더욱 심하게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리와 볼드모트 사이의 광선도 점차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마치 두 요술지팡이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실을 타고 커다란 빛의 구슬들이 미끄러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빛의 구슬이 천천히 해리를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해리는 굳게 잡고 있는 요술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황금빛 광선은 볼드모트로부터 해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의 요술지팡이가 분노로 인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제일 앞에 오던 빛의 구슬이 해리의 요술지팡이 끝까지 다가왔다. 요술지팡이가 어찌나 뜨겁게 달아올랐던지 해리는 이대로 불타 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빛의 구슬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해리의 요술지팡이도 더욱 심하게 떨렸다. 어쩌면 빛의 구슬과 맞닿는 순간, 요술지팡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해리의 손에서 요술지팡이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해리는 온통 정신을 집중해서 볼드모트 쪽으로 빛의 구슬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불사조의 노래가 해리의 귓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리를 향해 다가오던 빛의 구슬들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파르르 진동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진동하는 것은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였다... 볼드모트는 경악하다 못해 거의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빛의 구슬 중에 하나가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몇 센티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파르르 진동하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해리는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쪽으로 빛의 구슬을 밀어내는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해리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지금처럼 온 힘을 기울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의 구슬이 황금 실을 따라 움직였다... 잠시 동안 파르르 진동을 하더니... 마침내 빛의 구슬은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 가 달았다.

갑자기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가 고통에 가득 찬 비명 소리를 내뿜기 시작했다. 그리고 (볼드모트는 새빨간 두 눈을 휙동그렇게 뜨고 있었다. 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요술지팡이 끝에서 짙은 연기로 만들어진 손이 불쑥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 볼드모트가 웜테일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손의 유령이었다... 더욱 처절한 비명 소리와 더불어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훨씬 더 커다란 무언가가 뭉개뭉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하고 짙은 회색빛 연기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 모양이 되더니... 가슴과 팔이 생기고... 잠시 후에는 캐드릭 디고리의 흉상이 되었다.

해리가 일생에 딱 한 번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받아 요술지팡이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순간일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본능적으로 요술지팡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황금빛 실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

해리는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똑똑히 쳐다보았다. 캐드릭 디고리의 짙은 회색 유령(과연 유령일까? 그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단단하게 보였다)이 마치 아주 비좁은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애를 쓰듯이 몸 전체를 서서히 빼내고 있었다...

마침내 캐드릭의 형상이 땅바닥을 딛고 우뚝 섰다. 캐드릭의 유령은 황금빛 실을 위 아래로 훑어보았다.

"꼭 잡아, 해리."

캐드릭의 유령이 해리를 격려하면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어쩐지 아주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해리는 다시 눈길을 돌려서 볼드모트를 쳐다보았다. 부릅뜨고 있던 볼드모트의 새빨간 눈은 여전히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볼드모트도 역시 해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아주 희미하게... 해리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황금빛 둘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에서 또다시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톡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사람의 머리모양을 한 짙은 그림자가 떠오르더니 재빨리 팔과 가슴이 만들어졌다... 오래 전에 해리가 꿈속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노인이 캐드릭과 똑같이 요술지팡이 끝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유령인지 그림자인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것은 캐드릭 옆으로 걸어가더니 우뚝 섰다. 그리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약간 놀란 표정으로 해리와 볼드모트와 황금빛 둘과 서로 연결된 요술지팡이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저 자가 정말로 마법사였단 말인가?" 노인이 깜짝 놀란 눈빛으로 볼드모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 자가 나를 죽였어... 이봐, 저 자와 싸워..."

하지만 별씨 또 다른 머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기로 만든 회색 동상과 비슷한 그것은 어떤 여자의 머리였다... 두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요술지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해리는, 다른 유령들처럼 땅바닥 위로 내려오더니 똑바로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버사 조킨스의 형상은 두 눈을 휙동그렇게 뜨고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요술지팡이를 놓으면 안 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캐드릭의 목소리처럼 버사 조킨스의 목소리 또한 먼 곳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해리, 저 자에게 당하지 마! 요술지팡이를 놓지 마!"

버사 조킨스와 다른 두 명의 형상은 황금 그물망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편 죽음을 먹는 자들은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볼드모트의 희생자들은 결투하고 있는 두 사람 주위를 빙빙 돌면서, 해리에게는 격려의 말을 중얼거렸으며 볼드모트에게는 해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마구 쏘아대었다.

이제 또 다른 머리가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서서히 피어 오를 시작했다. 해리는 그 머리를 보자마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깨달았다... 마치 캐드릭이 요술지팡이 끝에서 나타나는 순간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해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낸 그 여자는 해리가 오늘밤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젊은 여자의 형상은 버사가 그랬던 것처럼 땅 위로 내려오더니 똑바로 서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미친 듯이 두 팔을 덜덜 떨면서 어머니 유령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아버지가 오실 거다..." 그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너를 보고 싶어하신단다... 괜찮을 거야... 계속 버티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났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머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이 나타났다... 호리호리하게 키가 크고 해리처럼 머리가 형틀어진 남자였다.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피어난 제임스 포터의 형상은 땅바닥으로 내려가더니 아내처럼 똑바로 섰다.

잠시 후에 제임스 포터의 형상이 해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해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목소리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먼 곳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주 나지막하게 속삭였기 때문에 볼드모트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볼드모트는 지금 자신의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희생자들 때문에 얼굴이 납빛으로 질려 있었다... 그는 이 유령들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두 개의 요술지팡이를 연결하고 있는 빛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주 잠깐 동안만 머무를 수 있단다... 하지만 너에게 시간을 벌어 주도록 해보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트키를 붙잡아야만 한다. 포트키는 다시 너를 호그와트로 돌려보내 줄 거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해리?"

"알겠어요."

해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신히 대답했다. 이제 손가락 사이로 자꾸만 미끄러지고 빠져나가는 요술지팡이를 잡기 위해 해리는 필사적으로 애를 쓰고 있었다.

"해리... 내 시신을 갖고 가 주겠니? 내 시신을 우리 부모님께 전해 줘." 케드릭의 형상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해리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면서 간신히 요술지팡이를 붙잡고 있었다.

"지금이다. 뭘 준비를 해... 바로 지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소곤거렸다.

"지금이에요!"

해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어쨌거나 더 이상 한 순간도 요술지팡이를 붙잡고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해리가 온 힘을 다해 손목을 비틀면서 요술지팡이를 위로 잡아당기자, 황금실이 뚝 끊어졌다. 동시에 광선 그물망과 불사조의 노래도 사라졌다. 하지만 볼드모트의 희생자들의 형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볼드모트 주위로 몰려들었다. 볼드모트가 해리를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쓴살같이 달렸다. 얼이 빠진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던 죽음을 먹는 자 두 명을 쓰러뜨리면서 달려나간 해리는 묘비들 사이를 요리조리 도망쳤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해리를 추격하면서 주문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빗나간 주문이 묘비에 평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주문과 무덤들을 살짝 살짝 피하면서 케드릭의 시체를 향해 돌진했다. 더 이상 다리의 통증조차도 느낄 수가 없었다. 모든 신경은 오직 해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할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저 놈을 기절시켜 버려!"

볼드모트가 사나운 기세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케드릭의 시신으로부터 3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을 때, 해리는 붉은 불꽃을 피하기 위해 대리석 천사 뒤로 흑 몸을 날렸다. 주문에 맞은 천사의 날개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요술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잡은 해리는 천사 뒤에서 쓴살같이 뛰어 나갔다.

"임페디멘타!"

해리는 미친 듯이 달려오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향해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소리쳤다. 해리는 아마도 그들 중에 한 명 정도는 명중시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 해리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출찍 뛰어넘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더욱 많은 요술지팡이들이 해리를 향해 불꽃을 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다. 수많은 불꽃이 해리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해리는 힘껏 손을 뻗어서 케드릭의 팔을 붙잡았다.

"비켜서라! 저 놈은 내가 죽이겠다! 저 놈은 내 거야!"

볼드모트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면서 부르짖었다. 해리는 케드릭의 팔목을 더욱 세게 잡았다. 이제 묘비 하나만이 해리와 볼드모트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끝고 가기에는 케드릭의 몸이 너무나 무거웠고, 트리위저드 우승컵은 해리의 손이 채 달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었다.

볼드모트의 새빨간 눈이 어둠 속에서 활활 타올랐다. 볼드모트의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고 있었다. 해리는 볼드모트가 요술지팡이를 들어올리는 것을 보았다.

"아씨오!"

해리는 요술지팡이로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겨냥하면서 소리쳤다.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허공으로 봉 떠오르더니 해리를 향해 곧장 날아오기 시작했다. 해리는 재빨리 손을 뻗어서 트리위저드 우승컵의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해리는 배꼽 근처가 확 잡아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포트키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와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찬 볼드모트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세찬 바람이 불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포트키는 해리를 데리고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케드릭도 함께... 그들은 호그와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제 35 장

베리타세룸

해리는 얼굴을 잔디밭에 묻으면서 쾅 하고 납작하게 떨어졌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해리의 코를 가득 메웠다. 포트키로 이동하던 중에도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던 해리는 여전히 눈을 뜰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온몸의 기운이 죄다 빠져버린 것 같아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찌나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던지 해리가 엎드리고 있는 땅바닥이 배의 갑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해리는 양쪽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꼭 쥐어보았다. 매끄럽고 차가운 트리위저드 우승컵과 케드릭의 시체가 느껴졌다. 마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놓쳐 버린다면 다시 머리 한 구석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아서 지칠 대로 지쳐 버린 해리는 풀냄새를 맡으면서 땅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주기만을...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그 동안에도 해리는 줄곧 이마의 흉터에서 통증을 느꼈다...

갑자기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귀가 먹먹하고 혀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사방에서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와 서성거리는 발소리,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해리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마치 그것이 지나가는 악몽이라도 되는 듯이... 그 순간 누군가의 손길이 해리를 와락 움켜잡았다. 그 사람은 해리를 똑바로 뒤집으면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해리! 해리!"

해리는 부스스 눈을 뜨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덤블도어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불안한 눈길로 해리를 살펴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해리와 덤블도어를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밀치면서 웅성거렸다. 해리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해리가 쓰러져 있는 곳은 구불구불한 미로가 설치되어 있던 운동장이었다. 해리는 높이 솟아 있는 관중석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관중석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해리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하지만 케드릭의 손목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덤블도어의 손목을 붙잡았다. 덤블도어의 얼굴이 두 개로 보이면서 마구 출렁거렸다.

"그 자가 돌아왔어요. 그 자가... 볼드모트가..."

해리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창백하게 질린 코넬리우스 퍼지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오, 세상에... 디고리!" 코넬리우스 퍼지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덤블도어, 이 애가 죽었소."

그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순식간에 번져 나갔다. 그들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말을 따라 외쳤다.

"죽었대!"

"죽었대!"

"케드릭 디고리가 죽었대!"

그것은 다시 비명 소리가 되어서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해리, 케드릭을 그만 놀아 주거라."

해리는 문득 코넬리우스 퍼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죽 늘어진 케드릭의 시신에서 억지로 해리의 손을 떼어 내려고 하는 손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해리는 케드릭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여전히 몽롱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덤블도어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해리, 이제 너는 케드릭을 구해 줄 수 없어. 모든 게 끝났다. 그만 놀아 주거라."

"케드릭은 간절하게 원했어요... 제가 다시 자기를 데리고 돌아가 주기를..."

해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다. "케드릭은 자기를 부모님께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이제 됫다, 해리... 케드릭을 놀아 주렴..."

덤블도어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해리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그렇게 나이가 많고 호리호리한 덤블도어의 몸 어디에서 그런 기운이 나오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해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머리가 쾅쾅 울렸다. 부상당한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들을 빙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해리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앞 사람을 마구 파고들었다.

"무슨 일이지?"

"해리는 어떻게 된 거야?"

"디고리가 죽었대!"

그들은 서로를 밀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해리는 병동으로 가야만 합니다! 해리는 부상을 당했어요. 덤블도어, 디고리의 부모님이... 지금 그분들이 이곳에 있네. 관중석에..."

코넬리우스 퍼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해리를 데리고 가겠네, 덤블도어. 내게 맡기게!"

"아니, 내가 직접 데리고 가는 게..."

"덤블도어, 에이머스 디고리가 달려오고 있네... 이리로 오고 있단 말이야... 자네가 직접 저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저들이 보기 전에..."

"해리, 거기 가만히 있거라."

여학생들은 발작적으로 흐느끼면서 자자러지게 비명을 질렀다... 해리의 눈앞이 이상하게 흐릿했다...

"이제 됐다. 녀석,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자, 어서 가자... 병동으로..."

"덤블도어 교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해리가 잔뜩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이마의 통증 때문에, 해리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눈앞이 점점 더 뿌옇게 흐려졌다.

"너는 누워야만 한다... 자, 가자..."

해리보다 훨씬 크고 힘센 어떤 사람이 그를 반쯤은 잡아끌고 반쯤은 들고 가다시피 하면서 겁에 질린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갔다. 해리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을 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해리를 부축한 그 사람은 군중을 밀치면서 성으로 돌아갔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호수와 던스트랭의 배를 지나가는 동안, 해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냐, 해리?"

마침내 그 사람이 해리를 돌계단 위로 끌어올리면서 물었다.

철컥. 철컥. 철컥.

그 사람은 바로 매드아이 무디였다.

"트리위저드 우승컵이 포트키였어요." 해리는 현관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저와 케드릭을 공동묘지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볼드모트가 그곳에 있었어요... 볼드모트 경이..."

철컥. 철컥. 철컥.

그들은 천천히 대리석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거기에 어둠의 주인이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케드릭을 죽였어요... 그들이 케드릭을 죽였어요."

"그런 다음에는?"

철컥. 철컥. 철컥.

그들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약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이요..."

"어둠의 주인이 몸을 되찾았느냐? 다시 돌아왔느냐?"

"그리고 죽음을 먹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투를 벌였어요..."

"네가 어둠의 주인과 결투를 벌였다구?"

"도망쳤어요... 그런데 저의 요술지팡이가... 뭔가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엄마와 아빠도 보았죠... 그 사람의 요술지팡이에서 나왔어요..."

"해리, 여기다. 여기, 앉아라... 이제 괜찮을 거다... 이걸 마셔라..."

해리는 열쇠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 찰칵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 그리고 해리의 손에 컵이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걸 마셔라... 훨씬 기분이 나아질 거야... 자, 어서... 해리,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다..."

무디는 해리가 컵에 담긴 것을 다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해리는 캙캑 기침을 했다. 강한 후추향 때문에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것만 같았다. 차츰차츰 무디의 사무실이 또렷하게 보였다. 무디의 모습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무디의 얼굴은 코넬리우스 퍼지만큼이나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무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 볼드모트가 돌아왔단 말이냐? 확실히 돌아왔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 사람의 아버지의 무덤과 윈테일과 저의 몸에서 각각 필요한 재료를 얻었어요." 해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제는 이마의 흉터도 그다지 쑤시지 않았다. 비록 사무실의 내부가 어두컴컴하긴 했지만, 무디의 얼굴만큼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해리는 저 멀리 퀴디치 운동장에서 나는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를 아련히 들을 수 있었다.

"어둠의 주인이 너의 몸에서 무엇을 가져갔느냐?"

무디가 다급하게 물었다.

"피요."

해리가 팔을 들어올리면서 대답했다. 윈테일의 칼에 찔린 소맷자락이 쭉 찢어져 있었다.

무디는 길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돌아왔느냐?"

"네. 꽤 많은 자들이..."

"볼드모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더니?" 무디가 조용히 물었다. "그들을 용서하더니?"

갑자기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어째서 덤블도어 교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덤블도어 교수를 만났을 때, 곧바로 그 얘기를 했어야만 했는데...

"호그와트에 죽음을 먹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 죽음을 먹는 자가 있다구요! 그 자가 제 이름을 불의 잔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어요."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무디는 다시 해리를 의자에 주저앉혔다.

"나는 그 죽음을 먹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무디가 어쩐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르카로프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잡았나요? 벌써 가두어 놓았나요?"

해리는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

"카르카로프?" 무디는 이상하게 킬킬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벌써 오늘 밤에 카르카로프는 멀리 도망쳤단다. 팔뚝에 새겨진 어둠의 표식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걸 느끼고 말이야. 그는 어둠의 주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너무나 많이 밀고했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하지만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군. 어둠의 주인은 적들을 추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단다..."

"카르카로프가 달아났다구요? 도망쳤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의 잔에 제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요?"

"아니야. 카르카로프가 그런 게 아니야. 바로 내가 그랬다."

무디가 싸늘한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 순간 해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교수님이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틀림없이 내가 그랬다."

무디는 해리를 노려보면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빙빙 돌아가던 무디의 마법의 눈이 문에 고정되었다. 해리는 무디가 혹시라도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갑자기 무디가 요술지팡이를 꺼내더니 해리에게 겨누었다.

"볼드모트가 그들을 용서했단 말이냐? 자유롭게 풀려난 죽음을 먹는 자들을? 어둠의 주인을 배신하고 아즈카반을 피해 도망친 자들을?"

"뭐라구요?"

해리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해리는 무디가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요술지팡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니야. 이건 장난이야. 무디는 지금 약간 심한 장난을 치고 있어. 그래, 장난이어야만 해.

"지금 너에게 묻고 있다." 무디가 냉혹하게 호통쳤다. "단 한번도 자기들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인간 쓰레기들을 볼드모트가 용서했는지 아닌지를 말이다. 어둠의 주인을 위해 용감하게 아즈카반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비겁한 배신자들을... 퀴디치 월드컵에서 가면을 쓰고 날뛰다가 내가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리자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던 그 허약하고 무가치한 쓰레기들을..."

"교수님이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렸다구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해리, 내가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너에게 말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죽음을 먹는 자라고... 나의 주인이 가장 절실하게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나의

주인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어둠의 주인이 그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어둠의 주인이 그들을 고문할 거라고... 해리, 제발 볼드모트가 그들을 혼내 주었다고 말해라..." 갑자기 무디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미소를 지었다. "어둠의 주인께서 오직 나, 나 한 사람만이 변함없이 충성을 바쳤노라고 그들에게 말했다고 말이다... 어둠의 주인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것을 갖다 드리기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바로 너를 말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교수님이 그럴 수가..."

"또 다른 학교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네 이름을 불의 잔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바로 나다. 너를 해치려고 하거나 혹은 이 시합에서 네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 같은 자들에게 겁을 주어서 멀리 쫓아 버린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바로 나다. 너에게 미리 용을 보여주도록 해그리드를 부추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나다. 네가 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은? 바로 나란 말이다."

이제 무디의 마법의 눈은 더 이상 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마법의 눈은 해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빠져나온 무디의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넓게 벌어져 있었다.

"해리,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무런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서 네가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일 말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꿈을 다 쥐어짜야만 했지. 네가 성공하는 데 내가 도와주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 네가 모든 시험을 너무나 쉽게 통과한다면, 덤블도어가 의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 오히려 처음에는 다른 챔피언들과 엇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편이 훨씬 더 나았지. 일단 네가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다른 챔피언들을 제거하고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치워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명청한 네 머리와도 싸워야 했지.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었다. 포터, 나는 줄곧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황금알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너에게 또 다른 힌트를 주어야만 했다."

"당신이 알려 준 게 아니에요." 해리가 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건 케드릭이 알려 준 거라구요!"

"물 속에서 황금알을 열어 보라고 케드릭에게 말해 준 사람이 누굴 것 같으냐? 내가 그랬다. 나는 틀림없이 그 아이가 너에게 그 정보를 알려 줄 거라고 믿었지. 포터, 원래 품성이 바른 사람은 조종하기가 더 쉬운 법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케드릭은 분명히 용에 대해서 알려 준 너에게 빛을 갖고 싶어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내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 너는 여전히 실패할 것만 같았어. 나는 줄곧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도서관에서 보내는 그 많은 시간들을... 나는 너에게 필요한 그 책이 바로 네 기숙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느냐? 나는 일찍부터 그 책을 네 기숙사에 슬쩍 넣어 두었다. 롱바텀, 그 녀석에게 주었던 바로 그 책 말이다. 기억나지 않느냐? <지중해의 신비한 수조들과 그 특성>. 그 책 속에는 네가 아가미풀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었다. 나는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닐 거라고 기대했었다. 그렇다면 롱바텀은 즉시 대답해 주었을 게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는 그러지 않았어... 너는 잘난 자존심과 독립심으로 내가 어렵게 추진한 모든 일들을 몽땅 망쳐 놀을 뻔했지."

무디는 차가운 눈으로 해리를 노려보았다. 해리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했겠니? 또 다른 순진한 상대를 이용해서 너에게 정보를 주도록 했지. 너는 크리스마스 무도회에서 도비라고 하는 꼬마 집요정이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는 말을 했었어. 나는 세탁물을 가져 가라고 그 꼬마 집요정을 교무실로 불렀지.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맥고나걸 교수와 떠들었다. 누가 인질이 될 것인지, 과연 포터가 아가미풀을 사용할 생각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말이야. 과연 너의 꼬마 집요정은 곧장 스네이프의 사무실로 달려갔지. 그리고 너를 찾기 위해 황급히 나서더군..."

무디의 요술지팡이는 여전히 해리의 심장을 곧장 겨냥하고 있었다. 그런데 벽에 걸려 있던 적을 비추는 거울 속에서 희뿌연 영상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디는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볼 수가 없었다.

"포터, 너는 호수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렀어. 나는 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지. 하지만 너의 어리석은 행동을 고귀한 행동으로 착각한 덤블도어는 너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어. 그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물론 너는 오늘 밤 미로 속에서 응당 겪었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시험을 치렀다."

무디는 잠시도 해리에게 눈길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미로 주위를 순찰하고 다니는 동안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들을 모두 볼 수가 있었지. 그리고 마법을 써서 네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을 없애 버릴 수 있었다. 나는 미로 안을 지나가던 플뢰르 멜라쿠르에게 기절 마법을 쏘았다. 그리고 빅터 크롬에게 임페리우스 마법을 걸어서 디고리를 끝장내도록 했지. 반드시 네가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해리는 가만히 무디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무디는 바로... 덤블도어의 오랜 친구가 아닌가? 게다가 유명한 오러인 그가... 죽음을 먹는 자들을 수없이 체포했던 사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적을 비추는 거울에 나타났던 희뿌연 영상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변하더니 이제는 거의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해리는 무디의 어깨 너머로 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무디는 거울에 비친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무디의 마법의 눈은 오직 해리에게 똑바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포터, 어둠의 주인이 어쩌다가 너를 죽이지 못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둠의 주인은 분명히 너를 죽이고 싶어하셨다." 무디가 소름이 오싹 끼치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어둠의 주인 대신 너를 해치운다면... 그리고 어둠의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보상을 내려 주실까? 너도 한번 상상해 보거라. 나는 이미 어둠의 주인에게 너를 주었다. 어둠의 주인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것을... 그리고 이제 나는 어둠의 주인을 대신해서 너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다른 어떤 죽음을 먹는 자들보다도 훨씬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어둠의 주인이 가장 총애하는 종이 될 것이다. 가장 가까운 추종자... 아들보다도 더욱 가까운..."

무디의 정상적인 눈은 앞으로 툭 튀어나올 지경으로 불거졌으며, 마법의 눈은 한 순간도 해리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다.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깨내더라도 결코 무디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디의 공격을 막아 낼 틈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어둠의 주인과 나는 아주 공통점이 많지."

무디가 말을 계속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해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무디의 표정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예를 들자면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주 실망스러운 아버지를 두었지... 참으로 실망스러운 아버지를... 게다가 우리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어. 하지만 우리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기쁨을 누렸지... 아주 커다란 기쁨을... 어둠의 질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는 기쁨을!"

"미쳤군요. 당신은 미쳤어요!"

해리가 불쑥 소리를 질렀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미쳤다구?" 무디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제 곧 알게 될 게다. 과연 누가 미쳤는지! 마침내 어둠의 주인께서 돌아오셨으니까! 그리고 어둠의 주인 곁에는 내가 있다! 해리 포터, 어둠의 주인이 돌아오셨다. 너는 결코 어둠의 주인을 끝장낼 수 없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끝장낼 것이다!"

무디는 고함이라도 지르려는 듯 입을 딱 벌리면서 요술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해리는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요술지팡이를 찾았다. "스투페파이!"

갑자기 붉은 성광이 번쩍거렸다. 해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쩍 하고 뭔가 갈라지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디의 사무실 문이 산산조각으로 폭파되었다.

무디는 그만 사무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해리는 여전히 무디가 서 있던 곳을 명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마법의 거울 속에서, 몹시 긴장하고 있는 알버스 덤블도어 교수와 스네이프 교수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를 발견했다.

해리는 재빨리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세 사람이 문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덤블도어가 요술지팡이를 앞으로 내민 채, 제일 먼저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해리는 왜 다른 사람들이 '볼드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마법사가 바로 덤블도어'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의식을 잊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매드아이 무디를 노려보고 있는 덤블도어의 표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너그러운 미소는 종적을 감추었으며, 안경 너머에서 반짝이는 두 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덤블도어의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마다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다. 그리고 덤블도어의 몸 전체에서 강렬한 기운이 발산되고 있었다. 마치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것처럼...

뚜벅뚜벅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온 덤블도어는 의식을 잊고 쓰러진 무디의 몸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서 톡 걷어찼다. 무디의 몸이 뒤집어지면서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덤블도어의 뒤를 따라 들어온 스네이프는 아직도 자신의 얼굴이 비추이고 있는 마법의 거울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무실 내부를 둘러보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곧장 해리에게 달려왔다.

"포터, 나와 함께 가자. 어서 가자... 병동으로..."

맥고나걸 교수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맥고나걸 교수의 얇은 입술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실룩거리고 있었다.

"아니오."

덤블도어가 날카롭게 말했다.

"덤블도어, 포터는 당장 가야만 해요. 이 물골을 좀 보세요. 오늘 밤에 포터는 고통을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어요."

"미네르바, 해리가 이곳에 남아 있도록 하시오. 해리도 알아야만 하니까 말이오. 지금 벌어진 일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오. 그래야만 상처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요. 해리는 오늘 밤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소. 그 혹독한 시련 속으로 해리를 밀어 넣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오.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도 말이오."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맥고나걸 교수의 말을 잘랐다.

"무디 교수님이, 어떻게 무디 교수님이 그럴 수가 있죠?"

해리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앤더슨 무디가 아니란다."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앤더슨 무디를 몰라. 진짜 무디라면 오늘 밤 그 일이 벌어진 직후에 너를 내 눈앞에서 데려 가지는 않았을 게다. 이 사람이 너를 데리고 사라진 순간, 나는 깨달았지. 그래서 곧 뒤쫓아 온 거야."

덤블도어는 허리를 숙여 축 늘어져 있는 가짜 무디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무디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물병과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덤블도어는 몸을 일으키더니 맥고나걸 교수와 스네이프를 향해 빙 돌아섰다.

"세베루스, 자네가 가지고 있는 진실의 마법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갖고 오게. 그리고 주방으로 내려가서 윙키라는 꼬마 집요정을 불러오게나. 미네르바, 미안하지만 해그리드의 오두막으로 가면, 호박밭에 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요. 검은 개를 데리고 내 사무실로 가시오.

그리고 그 개에게 내가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한 후에, 당신은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오."

스네이프와 맥고나걸은 덤블도어의 지시가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즉시 뒤로 돌아서더니 밖으로 나갔다.

덤블도어는 일곱 개의 자물쇠가 달린 트렁크가 놓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첫번째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마법서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덤블도어는 트렁크를 닫고 다시 두 번째 자물쇠에 두 번째 열쇠를 꽂았다. 그리고 다시 트렁크를 열자, 잔뜩 들어 있던 마법서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부서진 스니코스코프와 양피지, 깃펜 그리고 은빛 투명 망토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해리는 놀라움에 가득 찬 눈길로 덤블도어가 차례차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자물쇠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럴 때마다 트렁크 속에는 다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마침내 덤블도어가 일곱 번째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었다. 그 순간 해리는 자지러지게 비명을 질렀다.

해리는 트렁크 속에 구덩이나 지하실 같은 장소가 있는 것을 보았다. 깊이가 3미터 가량 되는 구덩이 속에는 진짜 매드아이 무디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무디는 뼈만 앙상할 정도로 바싹 말라 있었다. 아마도 오랫동안 굶주린 것 같았다. 무디의 나무 다리는 어디론가 없어졌으며, 마법의 눈이 달려 있어야 할 눈구멍은 뻥 뚫려 있었다.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틈성틈성 잘려 나가 있었다. 해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이 빠져서, 트렁크 구덩이 속에서 잠들어 있는 무디와 사무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무디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다.

덤블도어는 트렁크 속으로 들어가더니, 구덩이 바닥으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그리고 잠이 든 무디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기절했군. 임페리우스 저주에 의해 조종을 당했어. 아주 숨이 약한데..."

덤블도어가 무디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말했다. "물론 무디를 계속 살려 둘 필요가 있었겠지. 해리, 그 가짜 무디의 망토를 이리 던져라. 무디의 몸이 아주 싸늘하구나. 아무래도 퐁프리 부인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다지 위급한 상태가 아닌 것 같구나."

해리가 재빨리 망토를 던져 주자, 덤블도어는 무디의 몸을 망토로 잘 덮어 주었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더니 다시 트렁크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휴대용 물병을 집어 들어 마개를 열고 거꾸로 뒤집었다. 마룻바닥 위에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쏟아졌다.

"폴리주스 마법의 약이구나, 해리." 덤블도어가 말했다. "너도 이게 얼마나 영리하고 단순한 방법이었는지 알겠지. 무디는 자신의 휴대용 물병에 담긴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 무디의 그런 버릇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 물론 이 가짜 무디는 마법의 약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진짜 무디를 줄곧 옆에 데리고 있어야만 했단다."

덤블도어가 트렁크 속에 들어 있는 무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가짜 무디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무디의 머리카락을 잘랐던 거야. 저기 머리카락이 들쭉날쭉한 것이 보이지? 하지만 오늘 밤에는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우리의 가짜 무디께서 매시간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깜박 잊어버리고 하지 않은 것 같구나. 어디... 곧 알게 되겠지."

덤블도어는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의자를 끌어당겨 텔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는 가짜 무디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해리도 가만히 가짜 무디를 쳐다보았다. 몇 분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상처 자국이 점차 사라지고 피부가 매끈하게 변했다. 살점이 웅덩 떨어져 나간 코도 적당한 크기로 줄어들면서 완전한 제모습을 되찾았다. 희끗희끗하고 기다란 머리카락도 바싹 짧아지면서 밀짚 같은 색깔로 변했다. 갑자기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로 만든 의족이 떨어져 나가고 정상적인 다리가 자라났다.

잠시 후에는 마법의 눈이 얼굴에서 톡 튀어나오면서 진짜 눈이 자리를 잡았다.
사무실 마룻바닥을 따라 데구르르 굴러간 눈알은 계속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았다.

해리는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살짝 주근깨가
박힌 창백한 얼굴에 금빛 더벽머리를 한 청년이었다. 해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덤블도어의 펜시브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 크라우치에게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디멘터들에게 억지로
끌려 나가던 모습... 하지만 지금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으며,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복도에서 황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스네이프가 윙키를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고, 맥고나걸 교수도 바로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크라우치!" 스네이프가 문가에 우뚝 멈추어 서서 소리쳤다. "바티 크라우치!"
"하느님 맙소사!"

맥고나걸 교수도 마치 얼어붙은 듯이 걸음을 멈추고 마룻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망하니 바라보았다.

더럽고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윙키가 스네이프의 다리 사이로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그 순간 윙키는 입을 딱 벌리면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바티 주인님! 바티 주인님! 여기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윙키는 젊은 남자의
품으로 쓴살같이 뛰어들었다. "당신이 그를 죽였군요!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당신이 주인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단지 기절한 것뿐이란다, 윙키." 덤블도어가 윙키를 달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잠깐만 옆으로 비키렴. 세베루스, 약을 갖고 왔는가?"

스네이프는 덤블도어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스네이프가 마법의 약 수업 시간에 해리에게 먹이겠다고 위협했던 바로
그 베리타세룸이었다. 덤블도어는 마룻바닥에 쓰러진 사람 위로 허리를
숙이더니, 마법의 거울이 걸려 있는 벽에 몸을 기대고 앓도록 일으켜 세웠다.
마법의 거울 속에 비친 덤블도어와 스네이프 그리고 맥고나걸의 영상이
아직까지도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윙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마룻바닥에
꿇어앉았다. 덤블도어는 기절한 사람의 입을 강제로 벌리더니 진실의 약을 세
방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요술지팡이를 그 사람의 가슴에 겨누면서 주문을
외웠다.

"에너바이트!"

크라우치의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촉 들어져 있었으며,
시선은 아주 둥롱했다. 덤블도어는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말이 들리나?"

덤블도어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네."

그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네." 덤블도어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무슨 수로 아즈카반에서 도망을 쳤나?"

크라우치는 깊고 떨리는 한숨을 내쉬더니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서 부디 나를 구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은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분은 나를 만나기 위해 아즈카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내게 주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내 머리카락이 들어간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마셨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윙키는 부들부들 떨면서 세차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바티 주인님.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거예요!"

하지만 크라우치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디멘터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건강한 한 사람과 죽어가는 한 사람이 아즈카반으로 들어왔다가, 똑같이 건강한 한 사람과 죽어가는 한 사람이 아즈카반을 떠났다는 사실만 감지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혹시라도 다른 죄수들이 문 틈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경우에 대비해 나를 어머니의 모습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아즈카반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글까지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마시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죠. 결국 어머니는 내 모습을 한 채, 내 이름이 적힌 묘비 밑에 묻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바로 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크라우치의 눈꺼풀이 다시 파르르 떨렸다.

"그래서 자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군. 자네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덤블도어가 조용히 물었다.

"일부러 어머니가 죽은 척 꾸몄습니다. 조출하고 조용한 장례식을 치렀죠. 하지만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꼬마 집요정은 충실히 나를 간호해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언제나 엄격하게 통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 수많은 주문을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나의 힘이 모두 회복되었을 때, 나는 오직 어둠의 주인을 찾으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나의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외에는..."

"자네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자네를 통제했지?"

덤블도어가 물었다.

"임페리우스 저주를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밤이나 낮이나 투명 망토를 입고 있어야만 했죠. 내 옆에는 항상 꼬마 집요정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꼬마 집요정은 나의 감시자이자 시종이었습니다. 꼬마 집요정은 내 처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가끔씩 나에게 선심을 쓰도록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죠."

가짜 무디가 몽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바티 주인님, 바티 주인님.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제 우리는 큰일났어요..."

윙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꼈다.

"네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냐? 네 아버지와 꼬마 집요정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느냐?"

덤블도어의 눈길이 크라우치를 향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버사 조킨스라는 마녀가 아버지의 사인을 받기 위해 서류를 들고 우리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윙키는 그 마녀를 거실로 안내한 후에 내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버사 조킨스는 우연히 윙키와 내가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버사 조킨스는 어떤 사람이 투명 망토를 쓰고 숨어 있다는 추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마녀는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추궁했습니다. 아버지는 버사 조킨스에게 아주 강력한 기억력 마법을 걸어서 그녀가 알아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찌나 강력한 마법이었던지, 아버지는 그 사건 때문에 버사 조킨스의 기억력이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말했죠."

크라우치가 다시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대답했다.

"도대체 그 여자는 왜 우리 주인님의 사생활을 캐고 돌아다녔던 거죠?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었던 거죠?"

윙키는 서러운 듯이 흐느끼면서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퀴디치 월드컵에 대해서 말해 보게."

덤블도어가 말했다.

"윙키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퀴디치 시합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윙키는 내가 퀴디치 월드컵을 구경할 수 있도록 보내 달라고 줄랐죠. 투명 망토를 쓰고 시합을 관람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딱 한 번만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 달라고, 돌아가신 어머니도 그걸 원했을 거라고 애원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지, 평생 동안 집 안에 갇힌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결국 아버지는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크라우치는 여전히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짰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와 윙키를 데리고 일등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윙키는 아버지 대신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는 물론 투명 망토를 입은 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등석을 떠난 후에 우리도 경기장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윙키는 혼자인 것처럼 보일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윙키는 나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임페리우스 저주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거의 나 자신을 되찾기도 했죠.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아버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등석에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잠에서 확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퀴디치 월드컵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도중에 문득 나는 군중들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의 호주머니에서 비어져 나온 요술지팡이를 보았습니다. 아즈카반에 들어간 이후로 나는 요술지팡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요술지팡이를 몰래 훔쳤죠. 하지만 윙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윙키는 높은 곳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바티 주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윙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윙키의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요술지팡이로 무슨 짓을 했지?"

"퀴디치 월드컵이 끝난 후에 우리는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의 소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즈카반에 들어간 적이 없는 자들, 나의 주인을 위해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나의 주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나처럼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어둠의 주인을 찾아나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글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나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나의 머리 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맑아졌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났죠. 나의 품 속에는 요술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의 주인을 배신한 그들을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는 머글들을 구하기 위해 텐트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윙키는 내가 그토록 분노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죠. 윙키는 나와 자신을 서로 연결하는 마법의 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나를 끌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숲으로 들어갔죠. 죽음을 먹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윙키를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다시 캠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을 만나서... 어둠의 주인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그들의 불충에 대해 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훔친 요술지팡이를 사용해서 하늘에 어둠의 표식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득 해리는 숲속에서 윙키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당시에 윙키는 몹시 힘들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비로소 해리는 어째서 꼬마 집요정이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마법부의 마법사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사방으로 기절 마법을 쏘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윙키와 내가 서 있는 나무 사이로 날아와, 윙키와 나를 연결하고 있던 마법의 끈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윙키와 나는 기절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윙키가 발견되었을 때,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근처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윙키가 쓰러져 있던 덤불 속을 살살이 수색한 끝에, 내가 그곳에 쓰러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법부의 직원들이 숲속에서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에게 다시 임페리우스 저주를 걸어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둑시 화를 내면서 윙키를 해고하고 말았습니다. 윙키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윙키는 내가 요술지팡이를 가질 수 있도록 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도망칠 기회까지 줄 뻔했으니까요."

크라우치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윙키는 그 말을 듣자, 다시 절망적으로 통곡했다.

"이제 집에는 아버지와 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갑자기 냉이 나간 듯한 크라우치의 얼굴에 이상야릇한 미소가 피어 올랐다. "어둠의 주인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나의 주인이... 웜테일의 품에 안겨서 우리집으로 오셨습니다. 웜테일은 주인을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주인은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겁니다. 어둠의 주인은 알바니아에서 버사 조킨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버사 조킨스를 고문했던 겁니다. 그 마녀는 많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트리위저드 시합이 다시 열릴 예정이라는 것과, 늙은 오러인 무디가 호그와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죠. 어둠의 주인은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걸어 놓았던 기억력 마법이 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문했습니다. 마침내 버사 조킨스는 내가 아즈카반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의 주인을 찾아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가 나를 집에 가두어 놓고 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직까지도 충실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쩌면 모든 종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의 주인은 버사 조킨스가 알려 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둠의 주인은 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가까울 무렵, 직접 우리집을 방문한 겁니다.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 주었죠."

마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크라우치의 얼굴 가득히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화석처럼 굳어진 윙키의 갈색 눈동자가 손가락 사이로 보였다. 윙키는 너무나 겁에 질려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주인에 의해서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렸습니다. 이제 조종당하고 감금당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저주에서 해방된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 자신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볼드모트 경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했나?"

덤블도어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어둠의 주인은 나에게 어떤 위협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어둠의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둠의 주인을 섬기고 어둠의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나의 꿈이자 나의 가장 커다란 야망이었으니까... 나의 주인은 충성스러운 종 한 사람이 호그와트로 몰래 잠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리 포터가 트리위저드 시합에 참가하도록 유인하고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해리 포터가 반드시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차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마법을 걸어서 그 우승컵이 포트키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을 사람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승컵을 붙잡는 사람은 곧장 나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앨러스터 무디가 필요했겠지."

덤블도어가 크라우치의 말을 가로챘다. 덤블도어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푸른 눈동자는 분노로 무시무시하게 번뜩였다.

"웜테일과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디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격렬하게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간신히 무디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트렁크 가운데 한 칸에 무디를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나는 무디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폴리주스 마법의 약 속에 넣었고요.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마시자, 나는 무디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디에게서 마법의 눈과 나무 다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목격한 머글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서 위즐리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서 위즐리를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모두 끝낸 다음이었습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마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서 위즐리에게 어떤 침입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이 쓰레기통을 폭파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나는 무디의 옷과 어둠의 탐지기들을 챙겨서 트렁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무디도 그 트렁크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호그와트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나는 무디에게 임페리우스 저주를 걸어 놓고 계속 살려 주었습니다. 무디에게 물어서 그의 과거나 습관을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덤블도어의 눈까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무디의 머리카락도 필요했구요. 다른 재료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하 사무실에서 오소리 가죽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마법의 약 교수가 자기 사무실로 들어온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 방을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핑계를 댔죠."

"네가 무디를 공격한 후에 웜테일은 어떻게 되었지?"

덤블도어의 두 눈이 크라우치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웜테일은 어둠의 주인을 돌보고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기 위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도망쳤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얼마 후부터 아버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임페리우스 저주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아버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도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제정신을 차렸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병이 났다는 편지를 써서 마법부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웜테일이 그만 아버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을 친 겁니다. 어둠의 주인은 아버지가 호그와트로 가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덤블도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작정이었습니다. 아즈카반에서 나를 몰래 빼돌린 사실까지도 인정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어둠의 주인은 나에게 아버지가 도망쳤다는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아버지를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해리 포터에게 얻은 지도를 사용했죠. 하마터면 그 지도 때문에 모든 일을 망쳐 버릴 뻔한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도라니? 무슨 지도 말이냐?"

덤블도어가 재빨리 물었다.

"포터가 가지고 있던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 말입니다. 포터는 그 비밀 지도에 내 이름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날 밤에 스네이프의 사무실에서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훔치고 있던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터는 그것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이름이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밤에 나는 포터에게서 그 비밀 지도를 얻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둠의 마법사들을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터는 아버지가 스네이프의 뒤를 쫓고 있다고 믿었죠. 일주일 동안 나는 끈질기게 아버지가 호그와트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호그와트 교정으로 들어왔다는 표시가 비밀 지도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투명 망토를 걸치고 아버지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숲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포터와 크롬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모습을 감추고 적당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의 주인이 포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터가 덤블도어에게 달려가는 것으로 보고 나는 재빨리 크롬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 안 돼요! 바티 주인님, 바티 주인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윙키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었다.

"너는 네 아버지를 죽였다. 그 시체는 어떻게 했는가?"

덤블도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추궁했다.

"숲으로 끌고 가서 투명 망토로 덮어 놓았습니다. 비밀 지도는 계속 갖고 있었죠. 그래서 포터가 성으로 들어가서 스네이프를 만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덤블도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포터가 덤블도어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느 재빨리 숲 밖으로 나가서 한 바퀴 빙 돌고 와서는 일부러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스네이프로부터 무슨 소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달려왔던 거라고 덤블도어에게 말했습니다. 덤블도어는 나에게 아버지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비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숲에서 떠났을 때, 나는 아버지의 시체를 변신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빠다귀로 변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도록 다시 투명 망토를 입고 그 빠다귀를 땅 속 깊이 묻었습니다..."

해그리드의 오두막 앞에 새로 파헤쳐 놓은 땅 속에 말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윙키의 애절한 울음 소리만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잠시 후에 덤블도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저녁 식사 전에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미로 속에 갖다 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티 크라우치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법을 걸어서 우승컵이 포트키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의 주인이 세운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둠의 주인은 다시 힘을 되찾았습니다. 난 이제 다른 마법사들이 꿈도 꾸지 못할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또다시 크라우치의 얼굴에 넋이 나간 미소가 활짝 피어 올랐다. 갑자기 크라우치의 머리가 어깨 위로 풀 쓰러졌다. 윙키는 크라우치를 바라보면서 애처롭게 울부짖었다.

제 36 장

덤블도어의 사람들

덤블도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한참 동안이나 혐오스러운 눈길로 바티 크라우치를 쳐다보았다. 덤블도어가 또다시 요술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요술지팡이 끝에서 기다란 밧줄이 훌러나오더니 저절로 바티 크라우치를 꽁꽁 묶었다.

"미네르바, 내가 해리를 데리고 위층에 가 있는 동안 여기를 좀 지켜주시겠소?"

덤블도어가 맥고나걸 교수에게 돌아서면서 물었다.

"물론이죠."

맥고나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바티 크라우치를 바라보고 있는 맥고나걸 교수의 얼굴에는 역겨운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다. 맥고나걸 교수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처럼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하지만 바티 크라우치를 향해 요술지팡이를 똑바로 겨누고 있는 맥고나걸 교수의 손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세베루스, 폼프리 부인에게 당장 이곳으로 내려오라고 전하게. 앤더스터 무디를 병동으로 데리고 가야만 해. 그런 다음에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코넬리우스 퍼지를 찾아보게. 코넬리우스 퍼지를 만나면 즉시 이 사무실로 모셔 오게나. 분명히 그는 직접 크라우치를 심문하고 싶어 할 거야. 어쩌면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할지도 모르겠군. 난 30분 후에 병동에 있을 예정이라고 전해 주게."

스네이프는 아무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달려 나갔다.

"해리?"

덤블도어가 다정하게 해리를 불렀다. 자리에서 일어난 해리는 다시 중심을 잊고 비틀거렸다. 크라우치의 고백을 듣고 있는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리의 통증이 다시 몰려 왔다.

해리의 몸이 심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해리의 팔을 부축하더니 어두운 복도로 나갔다.

"해리, 먼저 내 사무실로 올라가자꾸나."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시리우스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무감각하고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졌다. 하지만 해리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상태인 것이 기뻤다. 지금 해리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처음 만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종 단 한가지라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해리는 머리 속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사진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기억을 자세히 되새기고 싶지 않았다. 마법의 트렁크 속에 들어 있던 매드아이 무디... 잘려 나간 팔뚝을 움켜쥔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웰테일... 무럭무럭 김이 피어나는 가마솥 안에서 다시 부활한 볼드모트... 케드릭... 죽음을 당한...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던 케드릭...

"저... 교수님. 그런데 케드릭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해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분들은 지금 스프라우트 교수님과 함께 계신다."

덤블도어가 착잡하게 대답했다. 바티 크라우치를 심문하는 내내 냉정하기만 했던 덤블도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약간 떨렸다.

"스프라우트 교수님은 케드릭이 있던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일 잘 아시지."

마침내 두 사람은 아무기 석상 앞에 도착했다. 덤블도어가 암호를 말하자, 아무기 석상이 옆으로 펴져 움직였다. 덤블도어와 해리는 저절로 움직이는 계단을 타고 박달나무로 만든 문 앞까지 올라갔다.

덤블도어는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해리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리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시리우스의 얼굴은 처음 아즈카반에서도 망쳤을 때처럼 몹시 창백하고 바싹 야위었다. 시리우스는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서 해리에게 달려왔다.

"해리, 너 괜찮니? 나는 짐작하고 있었단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시리우스는 해리가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의자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부축을 해주었다. 해리는 시리우스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시리우스가 더욱 다급하게 물었다.

덤블도어는 시리우스에게 바티 크라우치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하지만 해리의 귀에는 한 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미 녹초가 되어 버린 몸의 뼈마디 하나 하나마다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몇 시간동안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이 잠에 끓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불사조가 부드럽게 날개를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횃대에서 내려온 불사조 퍽스는 사무실을 가로질러 날아와 해리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너로구나, 퍽스."

해리가 불사조를 쳐다보면서 힘없이 말했다. 해리는 불사조의 아름다운 진홍색과 황금색 깃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퍽스는 평화로워 보이는 눈을 깜박이면서 물끄러미 해리를 올려다보았다. 해리는 퍽스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점차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덤블도어는 이야기를 끝마친 후 해리의 맞은편에 놓여 있는 책상 앞에 앉았다. 해리는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덤블도어의 시선을 자꾸만 피했다. 이제부터 덤블도어는 질문을 할 것이다... 모든 일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들 것이다...

"해리, 나는 네가 미로 속에서 포트키를 잡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만 한다."

마침내 덤블도어가 입을 열었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덤블도어? 해리는 잠을 자야만 합니다. 해리가 편안하게 쉬도록 해야 한다구요."

시리우스가 해리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해리는 시리우스에게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시리우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해리를 향해 몸을 바싹 기울였다. 마지못해 해리는 고개를 들고 덤블도어의 푸른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내가 너에게 마법을 걸어서 오늘 밤은 그냥 편안히 잠들게 하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도록 하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게다."

덤블도어가 작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단다. 고통을 피하기만 한다면, 네가 마침내 그 고통을 느껴야 할 때에는 오히려 더욱 힘들기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너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용기를 보여주었다. 나는 다시 한 번 네가 그 용기를 발휘하기를 원한단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그 순간 불사조가 달콤하고 떨리는 울음 소리를 내었다. 불사조의 울음 소리가 해리의 고막에 와 달았다. 갑자기 해리는 뜨거운 액체 한 방울이 목줄기를 타고 뱃속까지 흘러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몸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저절로 기운이 솟았다.

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마치 사진처럼 설명하게 해리의 눈앞에 떠올랐다... 해리는 볼드모트를 부활시킨 마법의 악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불꽃을 온 사방으로 튀기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광경을 보았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 무덤 사이 사이에서 나타났던 장면도 보았다... 케드릭의 시체가 트리위저드 우승컵 근처에 쓰러져 있던 모습도 보았다...

해리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던 시리우스는 한두 번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조용히 손을 들어서 시리우스의 말을 막았다. 해리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말문을 열고 나니까 점점 더 말하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음이 훌가분하게 느껴졌다. 무엇인가 해로운 것이 해리의 몸 속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일단 이야기를 끝내고 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그래서 웰테일은 단검을 휘둘러서 저의 오른팔을 찔렀..."

"뭐야?"

갑자기 시리우스가 해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벼락 고함을 질렀다.

덤블도어는 해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서서 황급히 다가오더니 해리에게 팔을 내밀어 보라고 말했다. 해리는 옷이 찢어지고 상처가 난 팔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볼드모트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 피를 사용하면 자기가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해리가 덤블도어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볼드모트는... 저... 저의 어머니가 제게 남긴 보호의 힘을 자기도 갖게 될 거라고 했죠. 볼드모트의 말이 맞았어요. 볼드모트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저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볼드모트는 직접 저의 얼굴을 만지기도 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해리는 덤블도어의 눈이 승리감으로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잘못 본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덤블도어가 다시 책상 앞으로 걸어가서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 해리가 보았던 대로 놓시 피곤하고 늙어 보였기 때문이다.

"잘 알겠다." 덤블도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볼드모트는 특별한 장애물 하나를 뛰어넘었구나. 해리, 어서 계속하거라."

해리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갔다. 볼드모트가 가마솥에서 걸어나왔던 장면을 설명한 후에,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뭐라고 연설했는지 기억이 나는 대로 모두 들려주었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해리의 밧줄을 풀고 요술지팡이를 돌려주면서 결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금빛 광선이 해리의 요술지팡이와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를 연결한 대목에 이르자, 그는 목구멍이 깽 막혀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입을 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 끝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흥수처럼 해리의 머리 속으로 파고들었다. 해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케드릭... 낯선 노인과 버사 조킨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갑자기 시리우스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을 때, 해리는 놓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두 개의 요술지팡이가 연결되었다는 거야?" 해리를 응시하고 있던 시리우스의 시선이 다시 덤블도어에게로 향했다. "왜 그런 거죠?"

해리도 궁금하다는 듯이 덤블도어를 쳐다보았다. 덤블도어는 잠시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꼼작없이 불잡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프리오리 인칸타템이야."

덤블도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덤블도어의 시선이 해리의 시선과 서로 교차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상호 이해의 불꽃이 오고가는 것 같았다.

"역주문 효과 말인가요?"

시리우스가 날카롭게 말했다.

"바로 그렇다네. 해리의 요술지팡이와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는 똑같은 심을 가지고 있다네. 두 개의 요술지팡이 모두 똑같은 불사조의 꼬리 깃털이 들어가 있지.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이 불사조라네."

덤블도어는 손을 들어 해리의 무릎 위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진홍색과 황금색의 불사조를 가리켰다.

"제 요술지팡이의 깃털이 퍽스의 것이라 말인가요?"

해리는 깜짝 놀라면서 덤블도어에게 물었다.

"그렇단다, 해리. 4년 전에 너는 올리밴더 씨의 가게에서 그 요술지팡이를 구입했지. 네가 문을 나서자마자, 올리밴더 씨는 네가 그 두 번째 요술지팡이를 샀다고 곧장 내게 편지를 보냈단다."

"이 요술지팡이가 형제 요술지팡이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시리우스가 물었다.

"서로 잘 싸울 수가 없게 된다네." 덤블도어가 말했다. "만약 요술지팡이의 주인들이 강제로 두 요술지팡이에게 싸움을 불인다면... 아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다네. 요술지팡이 중에 하나가 다른 요술지팡이에게, 자신이 행했던 마법들을 토해 내는 것이다. 거꾸로... 우선 가장 최근에 행했던 마법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차례 차례 모든 마법을 되풀이한다네."

덤블도어는 해리를 쳐다보면서 과연 그랬는지 물어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케드릭의 형상도 다시 나타났어야 하는데..."

덤블도어가 해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해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디고리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요?"

시리우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떤 마법도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다네. 기껏해야 일종의 반향 같은 것이지. 살아 있는 케드릭의 형상이 요술지팡이에서 훌러나왔을 거야. 내 말이 맞니, 해리?"

덤블도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케드릭이 나타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케드릭의 유령이... 아니, 그게 뭐든지 간에 저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해리의 몸이 다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메아리란다. 케드릭의 모습과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 내 생각엔, 다른 형체들도 나타났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볼드모트의 요술지팡이로 희생을 당했던 자들이..."

덤블도어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버사 조킨스도 있었고, 그리고..."

해리는 여전히 목구멍이 죄어드는 것 같았다.

"네 부모님도?"

덤블도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해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시리우스는 해리의 어깨를 아플 정도로 꽉 움켜잡았다.

덤블도어는 말을 계속했다.

"그 요술지팡이가 저지른 가장 최근의 살인부터 거꾸로 나오는 거야. 물론 네가 요술지팡이의 연결을 더욱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면, 좀더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을 거란다. 잘 했다, 해리. 그런데 희생자의 메아리들... 혹은 그림자들이라고 할까... 어쨌거나 그들은 무슨 행동을 했니?"

해리는 요술지팡이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황금 그물망 언저리를 둘았는지, 볼드모트가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제임스 포터가 해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 주었는지, 케드릭이 어떤 마지막 요청을 했는지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 대목에 이르자, 해리는 도저히 더 이상 말을 이어 나갈 수가 없었다. 힐끗 고개를 돌리자, 시리우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해리는 불사조 퍽스가 무릎에서 내려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사조는 날개를 퍼덕거리더니 마룻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머리를 해리의 상처입은 다리 위에 올려 놓았다. 불사조의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이 똑똑 흘러내리며 거미가 남긴 상처에 떨어졌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상처가 아물면서 다리의 부상은 씻은 듯이 나았다.

불사조는 날갯짓을 하면서 푸드득 날아오르더니 다시 문 옆의 횃대에 내려앉았다.

"다시 한 번 말해 주고 싶구나."

덤블도어는 불사조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해리, 오늘 밤에 너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커다란 용기를 보여주었단다. 너는 전력을 다해 볼드모트와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용기를 보여주었어. 어른 마법사들이나 감당할 만한 무거운 짐을 너도 충분히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거지. 이제 나와 함께 병동으로 가자. 오늘 밤에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잠자는 마법의 약을 먹고 푹 쉬어야 하니까... 시리우스, 해리와 함께 있어 주겠나?"

시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벌떡 일어서더니 커다란 검은 개로 변신했다. 해리와 덤블도어와 검은 개로 변신한 시리우스는 함께 사무실을 나가서 병동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갔다.

덤블도어가 병동의 문을 열었다. 해리는 위즐리 부인과 빌, 론, 헤르미온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품프리 부인을 둘러싸고, 해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질문 공세를 펴고 있던 모양이었다.

해리와 덤블도어 그리고 검은 개가 병동으로 들어서자, 모두들 일제히 고개를 휙 돌렸다. 위즐리 부인은 비명이라도 지를 듯이 입을 딱 벌렸지만,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는 허둥지둥 해리에게 달려왔다.

"해리! 오, 해리!"

하지만 덤블도어가 재빨리 위즐리 부인 앞을 가로막았다.

"몰리." 덤블도어가 한 손을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잠깐만 내 말을 들어 주시오. 해리는 오늘 밤에 아주 끔직한 시련을 겪었소. 그리고 방금 전에 내게 이야기하느라고 또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소. 지금 이 애에게 필요한 건 조용히 안정을 취하며 잠을 푹 자는 것이오. 만약 해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한다면, 그건 좋소." 덤블도어는 잠시 동안 론과 헤르미온느와 빌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해리가 대답할 마음의 준비가 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해리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소. 더구나 오늘 밤에는 절대 안 될 일이오." 위즐리 부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위즐리 부인의 얼굴을 몹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론과 헤르미온느와 빌이 시끄럽게 떠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면서 야단을 쳤다.

"너희들도 들었지? 조용히 해야 한단다!"

"교장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건..."

폼프리 부인은 아주 난처한 눈빛으로 시리우스가 변신한 검은 개를 쳐다보았다.

"이 개는 해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덤블도어는 단호한 태도로 딱 잘라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은 개는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답니다. 해리, 어서 침대에 누우렴."

해리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 공세를 막아 준 덤블도어에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이 옆에 있는 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비참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퍼지를 만나는 대로 다시 돌아오겠다, 해리." 덤블도어는 다정한 눈빛으로 해리를 쳐다보았다. "내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까지, 너는 내일도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덤블도어는 서둘러 병동을 떠났다. 폼프리 부인은 해리를 가까운 침대로 데려갔다. 병실 제일 끝에 진짜 무디가 죽은 듯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무디의 나무다리와 마법의 눈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무디 교수님은 괜찮아요?"

해리가 조심스럽게 무디의 안부를 물었다.

"그래, 곧 좋아질 거란다."

폼프리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폼프리 부인은 해리에게 잠옷을 내주고는 침대 주위에 칸막이를 쳤다. 재빨리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해리는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론과 헤르미온느, 빌, 위즐리 부인, 검은 개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각기 침대 옆에 걸터앉았다. 잔뜩 겁에 질려 있던 론과 헤르미온느는 어쩐지 두려운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괜찮아. 그저 피곤할 뿐이야."

해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괜히 침대 커버만 만지작거리고 있던 위즐리 부인의 두 눈엔 눈물이 그렇그렇 고여 있었다.

부산하게 사무실로 달려 간 폼프리 부인은 자주색 약이 담긴 작은 병과 잔을 갖고 돌아왔다.

"해리, 이걸 다 마셔야 한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자게 해주는 약이란다."

폼프리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해리는 잠자는 마법의 약을 잔에 부어서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마셨다. 즉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뚱뚱하게 보였다. 병동을 밝히고 있는 등불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칸막이 너머에서 다정하게 깜박거리는 것 같았다. 따뜻한 깃털 이불 속으로 해리의 몸이 한없이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약을 다 마시기도 전에, 지칠 대로 지친 해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문득 잠에서 깨어난 해리는 온몸이 너무나 나른했기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대로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병동은 여전히 희미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아직도 한밤중인 것이 분명했다. 그러자 별로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않으면, 해리가 잠을 깨 거야!"

"도대체 왜 고함을 지르는 거죠?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해리는 살며시 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해리의 안경을 벗겨서 치워 놓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위즐리 부인과 빌의 모습만 어렴풋이 구별할 수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건 코넬리우스 퍼지의 목소리야." 위즐리 부인이 속삭였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네르바 맥고나걸의 목소린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는 걸까?"

이제 해리의 귀에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병동으로 다가오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요, 미네르바."

코넬리우스 퍼지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절대로 그것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맥고나걸 교수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덤블도어가 아는 날이면..."

해리는 병동의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해리는 몸을 일으키고 앉은 후에 안경을 찾아서 썼다. 하지만 침대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빌이 칸막이를 젖히자, 모두들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코넬리우스 퍼지가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다. 스네이프와 맥고나걸 교수가 그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었다.

"덤블도어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코넬리우스 퍼지가 위즐리 부인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여긴 안 계세요. 장관님, 여기는 병동이에요. 좀 조용히 하셔야..."

위즐리 부인이 잔뜩 화가 나서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더니 덤블도어가 재빨리 병실로 들어섰다.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미네르바, 솔직히 당신에게 놀랐소. 분명히 바티 크라우치를 지키고 있으라고 말했는데..."

덤블도어가 코넬리우스 퍼지와 맥고나걸 교수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날카롭게 물었다.

"이제는 더 이상 크라우치를 지키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덤블도어 교수님! 퍼지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알아서 처리하셨으니까요!"

맥고나걸 교수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지금처럼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맥고나걸 교수의 뺨은 빨갛게 달아올랐으며, 두 손은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분노로 부들부들 온몸을 떨었다.

스네이프가 조근조근 설명했다.

"퍼지 장관님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밤 사건을 주동한 죽음을 먹는 자를 우리가 붙잡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자 퍼지 장관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멘터 한 명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바티 크라우치가 잡혀 있는 사무실로 디멘터를 데리고 들어오더니..."

"덤블도어 교수님, 저는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퍼지 장관님에게 교장 선생님은 디멘터가 이 성에 발을 들여 놓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가 씩씩거리면서 소리쳤다.

"그게 잘못이란 거요?" 코넬리우스 퍼지가 호통을 쳤다. 해리는 지금처럼 심하게 화를 내는 코넬리우스 퍼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법부장관으로서, 지극히 위험한 자를 만날 때, 경호원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할 소관이란 말이오..."

하지만 코넬리우스 퍼지의 목소리는 이내 맥고나걸 교수의 목소리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 맥고나걸 교수는 온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크라우치에게 허리를 숙이더니... 그리고... 그리고..."

그 순간 해리는 뱃속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을 받았다. 맥고나걸 교수는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하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굳이 말을 다 끝낼 필요가 없었다. 디멘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멘터는 바티 크라우치에게 죽음의 입맞춤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입을 통해서 크라우치의 영혼을 빨아들인 것이다. 이제 크라우치는 차라리 죽은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크라우치가 받은 처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소! 크라우치는 벌써 몇 사람이나 죽인 게 분명하지 않소!" 코넬리우스 퍼지가 발끈 화를 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증언도 할 수가 없게 되었군, 코넬리우스. 어째서 그 사람들을 죽였는지 증언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네."

덤블도어는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코넬리우스 퍼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왜 크라우치가 그들을 죽였느냐?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나? 안 그런가? 크라우치는 미쳤어. 마구 날뛰는 정신병자였단 말야! 미네르바와 세베루스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에 따르면, 크라우치는 마치 이 모든 일들을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더군!"

코넬리우스 퍼지가 거칠게 소리쳤다.

"코넬리우스, 분명히 볼드모트 경이 그에게 지시를 내렸다네." 덤블도어가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그들의 죽음은 볼드모트가 다시 완전한 힘을 되찾기 위해 세웠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네. 그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지. 볼드모트는 원래의 몸을 되찾았으니까."

코넬리우스 퍼지는 마치 누군가에게 한 방 얻어맞은 듯이 얼빠진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안이벙벙한 얼굴로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덤블도어를 노려보면서 갑자기 기가 막히다는 듯이 푸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 사람이... 돌아왔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소리! 이보게, 덤블도어..."

"미네르바와 세베루스가 자네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바티 크라우치의 진술을 들었네. 베리타세룸을 마신 후에 바티 크라우치는 무슨 수로 아즈카반에서 도망쳤는지 솔직하게 털어 놓았어. 그리고 버사 조킨스를 통해 크라우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볼드모트가 어떻게 해서 그를 아버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는지 고백했다네. 물론 볼드모트가 해리 포터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어떤 술책을 부렸는가에 대한 것도...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다네. 크라우치는 볼드모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거지."

덤블도어가 말했다.

"이것 보게, 덤블도어." 코넬리우스 퍼지가 입을 열었다. 해리는 코넬리우스 퍼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설마... 설마 그 이야기를 정말로 믿는 것은 아니겠지?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말을? 이봐요, 이봐... 분명히 크라우치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다고 믿었을 거야. 하지만 덤블도어, 그런 정신 이상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다니..."

"오늘 밤에 해리는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불잡자마자, 곧장 볼드모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네." 덤블도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볼드모트

경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 내 사무실로 잠깐 올라오면, 모두 다 설명해 주겠네."

해리 쪽으로 슬쩍 고개를 돌린 덤블도어는 해리가 잠에서 깨어난 것을 보았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에 해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군."

코넬리우스 퍼지는 입가에 여전히 기묘한 웃음을 떠올리면서 해리를 힐끗 돌아보았다.

"자네는... 음... 그러니까 해리의 말까지 귀담아 들을 생각인가, 덤블도어?"

코넬리우스 퍼지의 시선이 다시 덤블도어에게 향했다. 잠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은 이내 시리우스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다.

시리우스는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렸다. 검은 털을 빳빳하게 곤두세운 채, 코넬리우스 퍼지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었다.

"물론, 나느 해리의 말을 믿네. 나는 크라우치의 고백도 들었고, 해리에게서 트리위저드 우승컵에 손을 갖다 댄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들었네.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정확하게 들어맞았어. 그리고 지난 여름에 버사 조킨스가 실종된 이후로 계속 일어났던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도 모두 의문이 풀렸네."

이제 덤블도어의 눈은 분노로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코넬리우스 퍼지의 입가에 떠오른 기묘한 미소는 좀처럼 사라질 줄을 몰랐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또다시 이상야릇한 눈길로 해리를 힐끗 돌아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는 미친 살인자와 한 꼬마의 말만 듣고 볼드모트 경이 다시 돌아왔다고 믿는 모양이군... 하지만 저 꼬마도 정신이... 글쎄..."

그 순간 해리는 코넬리우스 퍼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깨달았다.

"퍼지 장관님도 리타 스키터의 기사를 읽으셨군요."

해리가 침착하게 말했다 론과 헤르미온느, 위즐리 부인 그리고 빌은 깜짝 놀라서 펄쩍 뛰었다. 그들은 해리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코넬리우스 퍼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내 고집스럽고 완강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랬다면 어쩔 건가? 자네가 저 소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비밀로 감추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심지어 저 소년은 뱀의 말까지 할 줄 안다면서? 그 밖에도 아주 재미있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던데..."

코넬리우스 퍼지는 덤블도어를 노려보면서 완강하게 말했다.

"가끔씩 해리가 이마의 흉터에서 통증을 느끼는 걸 말하는 모양이군."

덤블도어가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자네도 해리가 머리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가? 그건 도대체 뭐지? 두통인가? 악몽? 그게 아니라면 환각?"

코넬리우스 퍼지가 단호하게 따졌다.

"코넬리우스! 내 말을 똑똑히 듣게나." 덤블도어는 코넬리우스 퍼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덤블도어의 몸에서, 그가 젊은 크라우치를 기절시켰을 때 해리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다. "해리는 당신이나 나처럼 말짱하네. 해리의 이마에 나 있는 흉터는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다만 볼드모트 경이 가까운 곳에 있거나 혹은 특별히 살기를 느낄 때, 상처가 쿡쿡 쑤시는 것 뿐일세."

코넬리우스 퍼지는 덤블도어 앞에서 반 걸음 가량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조금도 기가 꺾인 것 같지 않았다.

"미안하네, 덤블도어. 하지만 나는 비상벨처럼 미리 위험을 감지해서 알려 주는 흉터 마법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저는 볼드모트가 부활하는 걸 직접 봤어요!" 해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다. 해리는 다시 침대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위즐리 부인이 강제로 해리를 붙잡았다. "저는 두 눈으로 죽음을 먹는 자들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 이름도 말할 수 있어요! 루시우스 말포이!"

갑자기 스네이프가 움찔하면서 몸을 움직였다. 해리는 스네이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스네이프는 슬그머니 코넬리우스 퍼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루시우스 말포이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 말포이가는 아주 전통있는 가문이야. 게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기부금을 내는데..."

코넬리우스 퍼지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었다.

"맥네어!"

해리는 계속 죽음을 먹는 자들의 이름을 외쳤다.

"그 사람도 결백해! 지금은 마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 말이야!"

"애버리! 놈! 크레이브! 고일!"

"너는 그저 13년 전에 이미 죽음을 먹는 자가 아니라는 무죄 판정을 받아서 석방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읊어대고 있을 뿐이야! 과거의 재판 기록에서 그 이름들을 보았겠지! 덤블도어, 작년 말부터 이 아이의 머리 속에는 온갖 해괴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네.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날이 갈수록 가관이야. 그런데 자네는 그걸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덤블도어, 이 아이는 뱀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일세. 그런데 자네는 이 아이의 말을 믿는다는 건가?"

코넬리우스 퍼지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정말 멍청하군요! 캐드릭 디고리! 크라우치 씨! 이 사람들의 죽음은 절대로 정신병자가 제멋대로 저지른 소행이 아니에요!"

맥고나걸 교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소!" 코넬리우스 퍼지는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고 더욱 목청을 높였다. 코넬리우스 퍼지의 얼굴은 거의 보랏빛으로 변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 모두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에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소!"

그 순간 해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해리는 언제나 코넬리우스 퍼지가 약간 호통을 잘 치고 허세를 부리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마음씨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지금 해리의 눈앞에 서 있는 땅딸막하고 분노에 가득 찬 이 마법사는, 안락하고 질서정연한 세계에 무서운 혼란이 일어날까 봐서 명백한 진실을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볼드모트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볼드모트는 부활했네!" 덤블도어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퍼지, 만약 자네가 그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걸세. 우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은 아즈카반을 지배하고 있는 디멘터들을 내보내는 일이네."

"터무니없는 소리! 디멘터들을 아즈카반에서 내보내라구? 그런 주장을 한다면, 나는 당장 마법부에서 쫓겨날 거야! 그나마 디멘터들이 아즈카반을 지키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절반은 밤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있단 말이야!"

코넬리우스 퍼지는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단번에 덤블도어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네. 코넬리우스, 당신이 볼드모트 경의 가장 위험스러운 추종자들에게 마법 생물 관리를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그들은 언제든지 볼드모트가 부르기만 하면, 즉시 달려가서 합세할 자들이야!" 덤블도어가 경고했다. "퍼지, 자네는 그들이 자네에게 언제까지나 충실히 거라고 믿는가? 자네보다는 볼드모트가 그들에게 더욱 많은 힘과 더욱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디멘터가 볼드모트의 뒤를 따르고 옛 추종자들이 다시 어둠의 주인에게 돌아간 뒤에, 볼드모트가 13년전과 똑같은 힘을 되찾는 걸 막으려 한다면, 그땐 너무 힘이 들 걸세!" 코넬리우스 퍼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저 잠시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다물어 버렸다.

"두 번째로 자네가 즉각 해야 할 일은 거인족에게 외교 특사를 보내는 일일세." 덤블도어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코넬리우스 퍼지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거인족에게 특사를 보내란 말인가? 이건 또 무슨 정신나간 소린가?"

다시 할 말을 찾았다는 듯이 코넬리우스 퍼지가 날카롭게 외쳤다.

"너무 늦기 전에 거인족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라는 말일세.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볼드모트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자신만이 거인족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마법사라고 거인들을 설득할 게 분명해!"

"서...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코넬리우스 퍼지는 기가 막힌 듯이 입을 딱 벌렸다. "만약 마법 사회에 내가 거인족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덤블도어...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끝장이야. 사람들은 거인족을 증오한단 말일세."

코넬리우스 퍼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주춤주춤 물러났다.

"코넬리우스, 자넨 눈이 멀었어!" 덤블도어는 이제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덤블도어의 몸에서 발산되는 기운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거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자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직책에 대한 애착 때문에! 자넨 항상 소위 그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일세! 하지만 이제 방금 그 어떤 가문보다도 유서깊고 순수한 혈통을 지닌 명문가의 단 하나 남은 후손을 당신의 그 잘난 디멘터가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말았네! 그 젊은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자네도 한 번 보게나! 나는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어서 내가 제안한 그 조처들을 취하도록 하게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넨 마법부 내에서나 밖에서나, 역대 마법부 장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용기 있는 장관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이대로 포기한다면, 역사는 자넬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서 볼드모트에게 우리가 애써 재건하고 있는 이 세계를 파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 인물로 기억할 걸세!"

덤블도어의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미쳤군. 정신이 나갔어..."

코넬리우스 퍼지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서 중얼거렸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풀프리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해리의 침대맡에서 얼어붙은 듯이 가만히 서 있었다. 해리는 벌떡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조용히 서 있던 위즐리 부인이 재빨리 해리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다. 빌과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매서운 눈초리로 코넬리우스 퍼지를 노려 보고 있었다.

"코넬리우스, 만약 자네가 끝까지 계속 모르는 척하겠다면... 우리는 이제 갈림길에 온 것 같네." 덤블도어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자넨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나.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겠네."

덤블도어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코넬리우스 퍼지를 협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단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담담하게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코넬리우스 퍼지는 덤블도어가 요술지팡이를 치켜들고 덤벼들기라도 한 것처럼 벌컥 화를 내었다.

"이보게, 덤블도어. 나는 항상 자넬 존중하면서 자율적인 지도권을 보장해 주었네. 나는 자네에게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 때때로 자네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네. 자네가 늑대인간을 고용하거나 해그리드를 데리고 있거나 혹은 마법부와 한 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제멋대로 정하는 일 따위를 너그럽게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 하지만 자네가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면..."

코넬리우스 퍼지는 위협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쳤다.

"내가 방해하려고 하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볼드모트 경이야. 만약 자네도 볼드모트를 반대한다면... 코넬리우스, 우리는 여전히 같은 편일세."

덤블도어가 조용하게 말했다. 그 말에 코넬리우스 퍼지는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종산모를 빙빙 돌리면서 병실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마침내 코넬리우스 퍼지가 애원하듯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부활하다니... 덤블도어,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갑자기 스네이프가 덤블도어 앞을 지나가 성큼성큼 코넬리우스 퍼지를 향해 다가갔다.

스네이프는 왼쪽 소맷자락을 위로 걷어 올리더니 코넬리우스 퍼지의 코앞에 바싹 들이대었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몹시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여기서 보십시오." 스네이프가 팔뚝을 내밀면서 거칠게 말했다. "바로 여기를 말입니다. 이건 바로 어둠의 표식입니다. 지금은 비록 조금 흐려졌지만, 한 시간 전에는 까맣게 타올랐을 정도로 아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표식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둠의 주인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어둠의 표식을... 이건 서로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자, 볼드모트가 우리를 부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죠. 만약 볼드모트가 어떤 죽음을 먹는 자의 팔에 찍힌 이 표식을 만지면, 우리는 즉시 순간이동을 해서 그 사람의 곁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둠의 표식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카르카로프의 팔뚝에 찍혀 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밤에 카르카로프가 왜 도망을 쳤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두 사람은 어둠의 표식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르카로프는 볼드모트의 복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카르카로프는... 죽음을 먹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밀고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결코 환영받을 수 없을테니까요."

코넬리우스 퍼지는 주춤주춤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스네이프의 말을 단 한 마디도 믿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스네이프의 팔에 찍힌 추악한 문신을 보고는 부르르 몸서리를 쳤다.

"덤블도어, 당신과 당신의 교수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이제 충분히 들었어. 더 이상 들을 말도 없네. 내일 다시 연락하리다. 그리고 이 학교의 운영 방침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을 하겠네. 나는 지금 당장 마법부로 돌아가야만 해."

코넬리우스 퍼지는 덤블도어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중얼거렸다. 거의 병실 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 코넬리우스 퍼지가 문득 제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다시 빙글 뒤로 돌아서더니 병실을 가로지르면서 저벅저벅 걸어갔다.

마침내 코넬리우스 퍼지는 해리의 침대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네 상금이다." 코넬리우스 퍼지는 호주머니 속에서 커다란 금화 주머니를 꺼내더니 해리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트리위저드 시합의 우승자에게 주는 1000 갈레온이다. 당연히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야만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구나..."

코넬리우스 퍼지는 다시 중산모를 머리에 쓰고 병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잠시 후에 병실 문이 광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닫혔다. 코넬리우스 퍼지가 사라지자마자, 덤블도어는 진지한 눈길로 해리의 침대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할 일이 있소." 덤블도어가 신중하게 말했다. "몰리... 내가 당신과 아서를 믿어도 되겠소?"

"물론이에요." 위즐리 부인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코넬리우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아서가 계속 마법부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도... 남편이 머글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퍼지는 아서가 마법사로서 응당 가져야 할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위즐리 부인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표정은 아주 단호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서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하겠소. 진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하오. 아서는 마법부 내에서 코넬리우스처럼 편협한 사고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과도 접촉하기 쉬운 위치에 있잖소."

덤블도어가 위즐리 부인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제가 아빠에게 가겠어요. 지금 당장 가죠."

빌이 벌떡 일어섰다.

"훌륭하구나.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거라. 조만간 내가 직접 아버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겠다는 말씀도 전하거라.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할 거야. 만약 내가 마법부의 일에 간섭하고 있다고 퍼지가 생각하게 된다면..."

덤블도어가 빌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제게 맡기세요."

빌은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빌은 해리의 어깨를 톡 치더니 어머니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에 망토를 집어 들고 재빨리 병실을 나갔다.

"미네르바." 덤블도어가 맥고나걸 교수를 향해 돌아섰다. "가능한 빨리 해그리드를 내 사무실로 불러 주시오. 즉시 해그리드를 만나야겠소. 그리고 맥심 부인도 불러주시오. 부인이 동의하신다면 말이오."

맥고나걸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병실을 떠났다. "폼프리 부인... 미안하지만 무디 교수의 사무실에 좀 갔다 오겠소? 그곳에 가면 둘째 슬퍼하고 있는 윙키라는 꼬마 집요정을 만날 수 있을 거요. 그 요정을 달래서 다시 주방으로 데리고 가 주시오. 아마도 도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요정을 잘 보살펴 줄 거요."

"잘... 잘 알겠어요."

폼프리 부인은 둘째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리를 떠났다. 덤블도어는 병실의 문이 닫힌 후에도 폼프리 부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덤블도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자, 드디어 우리 중의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순간이 되었군. 시리우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나."

커다란 검은 개는 덤블도어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순식간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위즐리 부인은 비명을 지르면서 침대에 텔썩 주저앉고 말았다.

"시리우스 블랙!"

위즐리 부인이 손가락으로 시리우스를 가리키면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괜찮단 말이에요!"

룬이 퉁명스럽게 면박을 주었다.

스네이프는 비록 소리를 지르거나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시리우스를 노려보았다.

"이 자는!" 스네이프가 차가운 눈길로 시리우스를 쳐다보면서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는 거죠?"

시리우스도 스네이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다. 시리우스도 온통 혐오감이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시리우스는 내 초대를 받아서 이곳으로 온 거라네." 덤블도어는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았다. "세베루스, 자네처럼 말이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신뢰하고 있다네. 이제 두 사람 모두 해묵은 미움은 그만 잊어버리도록 하게. 마침내 서로 신뢰해야 할 때가 온 거야."

해리는 덤블도어가 거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리우스와 스네이프는 여전히 미움과 증오가 가득 담긴 눈길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동안이라도 노골적인 적대감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대로 만족할 걸세." 덤블도어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서로 악수를 하게. 시리우스... 스네이프... 이제 두 사람은 같은 편이야. 시간이 별로 없다네. 진실을 알고 있는 우리 몇 사람조차도 협력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도 없네." 아주 천천히 (하지만 여전히 상대방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듯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시리우스와 스네이프는 앞으로 걸어나오더니 마지못해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주 재빨리 돌아섰다.

덤블도어가 다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말했다.

"계속 그렇게만 지낸다면 됐네. 지금부터 두 사람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을 맡기겠네. 퍼지가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어쨌거나 퍼지의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걸세. 시리우스, 자네는 즉시 길을

떠나도록 하게. 옛 동료 리무스 루핀과 아라벨라 피그, 먼던구스 플레쳐에게 어서 경고를 해야 해. 한동안 루핀 곁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도록 하게.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거야.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을 하겠네."

"하지만..."

해리가 불쑥 말을 꺼냈다. 해리는 시리우스가 조금만 더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이렇게 빨리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금방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해리. 약속하겠어. 하지만 지금은 아주 바쁜 일이 있단다. 나는 서둘러 그 일을 처리해야만 해. 이해할 수 있겠지?"

시리우스는 따뜻한 애정이 담긴 눈길로 가만히 해리를 바라 보았다.

"그래요." 해리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알겠어요... 물론이죠."

시리우스는 해리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그리고 덤블도어를 쳐다보면서 까딱 머리를 숙이더니 순식간에 검은 개로 변신했다.

검은 개는 병실의 문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손잡이를 돌렸다. 해리는 검은 개가 사라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세베루스... 내가 자네에게 어떤 부탁을 하려는지 자네는 알고 있을 거라고 믿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각오가 되었다면 말이네..."

덤블도어는 천천히 스네이프를 향해 돌아섰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네이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스네이프의 얼굴은 어쩐지 평소보다도 더욱 창백하게 보였으면, 차갑고 검은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번뜩이고 있었다.

"행운을 비네."

덤블도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시리우스의 뒤를 따라나가는 스네이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덤블도어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구나. 디고리 부부를 만나야 하니까... 해리, 남은 약을 마저 마시도록 해라. 나중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마."

덤블도어마저 나가자, 해리는 털썩 베개 위로 쓰러졌다.

헤르미온느와 론 그리고 위즐리 부인은 한결같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해리, 남은 약을 마저 마시도록 해라." 마침내 위즐리 부인이 약병과 잔을 집어 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랫동안 폭 자려무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 상금으로 뭘 살지 생각하는 게 좋겠구나!"

위즐리 부인은 해리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황금 꾸러미를 가리켰다.

"하지만 저는 그 금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가지세요. 아무나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그걸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건 케드릭 거예요."

해리가 무감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로를 빠져나온 이후로 줄곧 해리가 애써 피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걸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다. 눈시울이 점차 뜨거워지더니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해리는 눈을 깜박이면서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았다.

"해리,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다."

위즐리 부인이 해리를 위로했다.

"제가 케드릭에게 함께 트리위저드 우승컵을 잡자고 말했어요."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목구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해리는 론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않기 바랬다.

위즐리 부인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약을 내려놓더니 해리에게 다가와 두 팔로 해리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해리는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다정히 안겨 본 기억이 없었다.

위즐리 부인의 품에 안기자, 해리는 지난 밤에 보았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머리 위로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케드릭의 시신...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 속에서 어지럽게 빙빙 맴돌았다. 마침내

해리는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면서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비탄에 찬 울부짖음과 싸워야만 했다.

갑자기 원가를 탁 내리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위즐리 부인과 해리는 얼른 몸을 빼었다. 원가를 손에 꼭 잡고 있는 헤르미온느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죄송해요."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 약을 먹어라."

위즐리 부인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재빨리 말했다. 해리는 단숨에 약을 들이켰다.

순식간에 효력이 나타났다. 저항할 수 없는 무거운 잠의 파도가 해리를 덮쳤다. 베개 위로 털썩 쓰러진 해리는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제 37 장

딱정벌레의 비밀

한달이 흐른 후에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해리의 머리 속에는 거의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너무나 많은 일을 겪은 나머지 머리가 더 이상 기억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지나간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일은... 바로 다음날 아침에 디고리 부부를 만난 것이었다.

디고리 부부는 지나간 일로 해리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리가 케드릭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온 것에 대해 무척 고맙게 여겼다. 해리를 만나는 동안 에이머스 디고리는 계속 흐느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디고리 부인은 이제 눈물을 흘릴 만한 기력조차 없는 것 같았다.

해리는 케드릭이 어떻게 죽었는지 디고리 부부에게 들려주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이 별로 고통스럽지는 않았겠구나. 어쨌거나 에이머스... 케드릭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승리한 후에 죽었잖아요. 분명히 행복했을 거예요."

디고리 부인이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부디 몸조심 하거라."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디고리 부인이 해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해리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금화 주머니를 집어 들었다.

"이걸 받으세요. 우승 상금은 원래 케드릭이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케드릭이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세요."

해리가 금화 주머니를 내밀면서 말했다. 하지만 디고리 부인은 한사코 금화 주머니를 떠밀었다.

"아니다. 그건 네 것이야. 나는... 받을 수 없단다... 네가 간직하렴."

다음날 저녁에 해리는 다시 그리핀도르 탑으로 돌아갔다. 헤르미온느와 론의 말로는, 덤블도어가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전교생에게 주의를 준 모양이었다. 덤블도어는, 해리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도 미로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물거나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랬기 때문인지, 해리는 복도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슬슬 피하면서 외면하는 것을 느꼈다. 어떤 학생들은 해리가 지나갈 때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수군거렸다.

해리는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난번에 리타 스키터가 썼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 기사에는 해리가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다. 어쩌면 학생들은 케드릭의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 각본을 짜고 있을지도 몰랐다.

해리는 론과 헤르미온느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좋았다. 혹은 체스를 두면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 마치 그들 세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경지까지 도달한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호그와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조나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룬가를 확실히 알기 전에 공연히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입에 올린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위즐리 부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덤블도어를 만났다고, 론이 해리에게 말했던 것이다.

"엄마는 교장 선생님께 이번 여름 방학에는 네가 곧바로 우리집으로 오면 안 되는지 물었어.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네가 더즐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 최소한 처음 며칠만이라도 말이야."

룬이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왜?"

해리가 물었다.

"엄마는 덤블도어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론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덤블도어 교수님을 믿어야만 하겠지? 그렇지?"

론과 헤르미온느를 제외하고 해리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해그리드였다. 더 이상 어둠의 마법 방어술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없었으므로 그 수업 시간은 자유였다.

그들은 목요일 오후의 빈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을 방문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었다. 오두막집 가까이 다가가자, 팽이 펄쩍 뛰어나오면서 그들을 맞이했다. 팽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면서 왕왕 짖어대었다.

"누구세요?" 해그리드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문을 나왔다. "해리!"

해그리드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한 팔로 해리를 끌어안으면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 놓았다.

"만나서 반갑구나, 친구! 정말 반가워!"

해그리드의 오두막집으로 들어간 해리와 친구들은 벽난로 앞에 있던 나무 탁자 위에 거의 양동이만큼이나 커다란 컵 두 개와 받침 접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올림프와 커피를 한 잔 했단다. 올림프는 조금 전에 돌아갔어."

해그리드가 서랍장 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룬이 물었다.

"물론 맥심 부인이지!"

해그리드가 겸연쩍어하며 대답했다.

"두 분은 화해하셨군요! 그렇죠?"

룬이 눈빛을 반짝이면서 물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구나."

해그리드는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니 서랍장에서 몇 개의 컵을 더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재빨리 차와 살짝 구운 부드러운 쿠키 한 접시를 차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해그리드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딱정벌레 같은 검은 눈으로 해리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너 괜찮니?"

해그리드가 불쑥 물었다.

"괜찮아요."

해리가 대답했다.

"아니야. 넌 괜찮지 않아.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곧 좋아질 거란다."

하지만 해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해그리드가 불쑥 말을 던졌다.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해그리드를 쳐다보았다. "그래...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해리, 그는 조용히 은신처에 숨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언젠가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거야. 우리는 그가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 그게 덤블도어 교수님의 계획이란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참 위대한 분이야. 그런 분이 우리 곁에 있는 한,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

해그리드는 세 사람의 얼굴에 회의적인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자, 송충이 같은 눈썹을 치켜올렸다.

"걱정이나 하면서 앉아 있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 일이 닥치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면 되는 거야. 덤블도어 교수님은... 해리, 네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셨어."

해그리드는 다정한 눈길로 해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쭉 편다.

"너는 네 아버지처럼 행동한 거야... 너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다고 생각해."

비로소 해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요즘 들어서 해리가 웃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이 월 부탁하셨어요, 해그리드? 맥고나걸 교수님을 보내서 아저씨와 맥심 부인을 불렀잖아요... 그날 밤에 말이에요."

해리가 물었다.

"여름 방학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셨단다. 하지만 그건 비밀이야. 나는 그 이야기를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너희한테도 안 돼. 올림프... 그러니까 맥심 부인이 나와 함께 가게 될 것 같거든..."

해그리드가 대답했다.

"볼드모트와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해리가 그 이름을 말하자, 해그리드는 몸을 움찔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해그리드는 모호하게 대답하면서 말꼬리를 돌렸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마지막 남은 스크루트를 보러 가지 않을래? 아니다, 농담이다. 농담이었다니까!"

해그리드는 세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보자, 황급히 손을 내저으면서 변명했다.

프리벳 가로 돌아가기 전날에 기숙사에서 트렁크를 싸는 해리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해리는 어쩐지 종강 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두렵기만 했다. 물론 평소라면 호그와트 기숙사들 사이의 대항전에서 승자를 발표하는 아주 즐거운 자리였을 것이다.

해리는 병동에서 퇴원한 이후부터 줄곧 연회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의 호기심이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 연회장이 텅 비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곤 했다.

연회장으로 들어간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즉시 종강 연회 때마다 연회장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던 실내 장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년 같으면 우승을 차지한 기숙사를 상징하는 색깔로 연회장이 온통 치장되어 있었겠지만, 오늘 밤에는 교직원들의 상석 뒤에 검은 휙장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해리는 그것이 케드릭에 대한 조의의 표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직원 테이블에는 진짜 매드아이 무디가 앉아 있었다. 무디의 나무 다리와 마법의 눈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무디는 누군가가 그에게 말을 걸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펄쩍 뛰곤 했다.

해리는 그런 무디를 비난할 수가 없었다. 적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무디의 두려움은, 트렁크 속에서 열 달 동안이나 감금되는 지독한 경험을 겪은 이후로 당연히 더욱 커졌을 것이다. 카르카로프 교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다른 그리핀도르 학생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해리는 어쩐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카르카로프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볼드모트에게 붙잡히지는 않았을까?

맥심 부인은 종강 연회에 참석했다. 맥심 부인은 해그리드의 옆자리에 앉아서 뭔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 저편에는 맥고나걸 교수 옆자리에 스네이프가 앉아 있었다.

해리가 고개를 들고 스네이프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스네이프의 시선도 한참 동안 해리에게 머물렀다. 해리는 스네이프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스네이프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심술맞고 불쾌하게 보일 뿐이었다. 스네이프가 슬그머니 시선을 돌린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해리는 스네이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볼드모트가 돌아온 그날 밤에 덤블도어의 명령에 따라 스네이프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왜... 왜... 덤블도어는 스네이프가 정말로 우리편이라고 그토록 굳게 믿는 것일까?

스네이프는 첨자였다. 해리가 우연히 보았던 펜시브 속에서, 덤블도어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다. 엄청난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볼드모트의 밑으로 들어가서 첨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스네이프는 다시 그 일을 맡게 된 것일까? 혹시 죽음을 먹는 자들과 다시 접촉을 한 것은 아닐까? 마치 진짜로 덤블도어의 편에 섰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척하면서? 마치 볼드모트처럼, 스네이프도 적당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척하면서?

마침내 교직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덤블도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해리의 생각은 뚝 중단되었다. 지금까지도 다른 종강 연회가 열렸을 때에 비해 훨씬 조용했던 연회장은 그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또다시 한 학년이 끝났습니다."

덤블도어가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 나가지 못한 채, 후풀푸프 기숙사 테이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덤블도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후풀푸프 기숙사 테이블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후풀푸프 학생들은 연회장에 참석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슬프고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척 많습니다." 덤블도어가 다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아주 출렁한 친구를 잊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저기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덤블도어는 손을 들어 후풀푸프 테이블을 가리켰다. "우리와 함께 이 연회를 즐기면서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케드릭 디고리를 위해 잔을 높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덤블도어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엄숙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커다랗게 소리쳤다.

"케드릭 디고리를 위하여!"

해리는 연회자에 모여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초 쟁의 모습을 발견했다. 초 쟁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해리는 그만 테이블 위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잠시 후에 학생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케드릭은 언제나 모범적으로 행동했으며, 후풀푸프 기숙사를 빛낸 자랑스러운 학생이었습니다." 덤블도어는 연회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케드릭은 착하고 신의 있는 친구였으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케드릭은 정정당당한 시합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케드릭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나, 모르고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그의 죽음은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케드릭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고 덤블도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덤블도어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케드릭 디고리는 볼드모트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순간 연회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온통 공포와 의혹에 가득 찬 눈길로 덤블도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채, 사람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연회장이 다시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법부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볼드모트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여러분처럼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경우라도 거짓보다는 진실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또한 케드릭 디고리 군이 우연한 사고나 혹은 어떤 실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라고 믿습니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덤블도어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온몸이 마비라도 된 것 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해리는 슬리데린 기숙사 테이블에 앉아 있는 드레이코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리는 역겨움과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다시 덤블도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케드릭의 죽음과 더불어 반드시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덤블도어가 계속했다. "그 사람은 물론 해리 포터입니다."

연회장이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서 해리를 힐끗 돌아보고는 다시 덤블도어를 바라보았다.

"해리 포터는 볼드모트로부터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더구나 그는 케드릭의 시신을 다시 호그와트로 가지고 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해리 포터가 보여준 용기는 그간 볼드모트와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극소수의 마법사들이 보여준 용기를 방불케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를 빌려, 해리 포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덤블도어는 엄숙한 태도로 해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연회장에 모여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덤블도어를 따라서 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케드릭의 이름을 외친 것처럼 해리의 이름을 외쳤다.

그들은 다시 해리를 위해 건배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사람들 사이로 해리는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 그리고 슬리데린의 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잔에는 손도 대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마법의 눈을 갖고 있지 않았던 덤블도어는 해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볼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덤블도어는 연설을 계속했다.

"트리위저드 시합의 목적은 마법사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볼드모트의 부활로 인하여 이러한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덤블도어는 맥심 부인과 해그리드를 슬쩍 바라보더니 플뢰르 멜라쿠르와 보바통의 다른 학생들 그리고 슬리데린 테이블에 앉아 있는 빅터 크룸과 덤스트랭의 다른 학생들까지 한 번 쭉 둘러보았다.

해리는 거의 겁에 질린 듯이 팽팽하게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는 빅터 크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치 덤블도어가 당장이라도 뭔가 심한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연회장에 앉아 있는 모든 손님들께서..."

덤블도어의 시선이 잠시 덤스트랭 학생들에게 머물렀다.

"호그와트에 다시 찾아오고 싶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기꺼이 환영할 것입니다. 볼드모트가 돌아온 이 마당에 우리는 오직 하나로 단결할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흩어지면 흩어질 수록 더욱 약해질 것입니다."

볼드모트는 사람들 사이에 불신과 적의를 퍼뜨리는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보다 강한 우정과 신뢰를 보일 때에만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똑같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언어와 관습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디 이런 나의 생각이 한낱 망령된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 몇 사람은 이미 볼드모트의 손에 의해 직접 고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한 학생이 우리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덤블도어는 엄숙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케드릭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길과 쉬운 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닥친다면, 선량하고 친절하고 용감한 한 소년이 단지 볼드모트의 앞길에 우연히 잘못 들어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케드릭 디고리를 기억하십시오."

해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 헤드위그가 들어간 새장은 트렁크 위에 양전히 놓여 있었다. 해리와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는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현관에서 다른 4학년생들과 함께 어서 마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호그스미드 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여전히 아름답고 청명한 여름날이었다. 오늘 저녁쯤엔 프리벳 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지금 프리벳 가는 무척 덥고 녹음도 울창하겠지. 화단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도 해리의 기분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애리!"

갑자기 해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힐끗 고개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 플뢰르 델라쿠르가 성으로 들어오는 돌계단을 따라 성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플뢰르 델라쿠르의 등 뒤로 운동장 저편에서 해그리드가 맥심 부인을 도와 두 마리의 거대한 말에 마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능 아마 공 다시 만나겡 될 거양. 나능 영어 실력을 늘이기 위행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거양."

플뢰르 델라쿠르는 해리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불쑥 손을 내밀었다.

"벌써 아주 훌륭한데 월 그래."

론이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플뢰르 델라쿠르가 론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짓자, 헤르미온느가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안녕, 애리. 너희드를 만나서 증말 즐거웠엉!"

플뢰르 델라쿠르가 천천히 돌아서면서 말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었다. 플뢰르 델라쿠르가 눈부신 은빛 머리카락을 나풀거리면서 맥심 부인을 향해 잔디밭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자, 울적했던 해리의 기분도 약간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덤스트랭 학생들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카르카로프도 없이 배를 조정할 수 있을까?"

론이 물었다.

"카르카로프는 조청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들의 등 뒤에서 굵고 탁한 목소리가 들렸다. "카르카로프는 선실에 있었다. 배를 조정하는 일은 우리가 다 했다." 빅터 크룸이 헤르미온느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빅터 크룸이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음... 그래... 좋아."

헤르미온느는 약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빅터 크룸을 따라 학생들 틈을 헤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서둘러야 할 거야! 몇 분 후에 마차가 도착할 테니까 말이야."

론이 헤르미온느의 등 뒤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마차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모두 해리에게 맡기고, 몇 분 동안 론은 목을 있는 대로 길게 빼면서 웅성거리는 학생들 사이로 빅터 크룸과 헤르미온느가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금방 현관으로 들어왔다. 론은 재빨리 헤르미온느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의 표정은 무덤덤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디고리를 좋아했타." 빅터 크룸이 불쑥 해리에게 말했다. "디고리는 항상 나에게 친절했타. 언제나. 내가 카르카로프와 함께 온 덤�斯特랭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빅터 크룸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아직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지 않았니?"

해리가 빅터 크룸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빅터 크룸은 잠시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플뢰르 델라쿠르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빅터 크룸은 해리와 악수를 나눈 후에 다시 론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론도 빅터 크룸과 악수를 나누었다.

론은 마음속에서 원가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았다. 빅터 크룸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자, 론은 몹시 다급했던지 그의 입에서 엉겁결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사인 좀 해줄래?"

헤르미온느는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저만치에서 말이 끌지 않고 저절로 움직이는 마차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빅터 크룸은 약간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론이 내민 양피지 조각에 기꺼이 사인을 해 주었다.

킹스 크로스역으로 돌아가는 길의 날씨는 지난 9월에 호그와트에 도착했을 때의 날씨와 영 딴판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간신히 객실 한 칸을 잡을 수 있었다.

피그위존은 계속 시끄럽게 울어대었기 때문에 론은 다시 예복으로 덮어씌워 버렸다. 헤드위그는 날개 밑에 머리를 파묻고 꼬덕꼬덕 출고 있었다.

크룩생크는 털이 북실북실한 커다란 붉은색 방석처럼 몸을 둥그렇게 만 채 좌석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호그와트 급행 열차가 남쪽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훌가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리는 종강 연회에서 덤블도어가 했던 연설 덕분에 꽉 막혀 있던 가슴이 어느 정도 뚫린 기분이었다.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괴롭지는 않았다. 덤블도어가 볼드모트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한창 떠들던 세 사람은 음식을 파는 마녀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자 잠시 동안 이야기를 중단했다.

헤르미온느는 벌떡 일어나더니 수레를 끌고 있는 마녀를 향해 다가가서 <예언자 일보>를 구입했다. 헤르미온느는 가방 안에 거스름 돈을 다시 집어넣고 <예언자 일보>를 펼쳐 들었다.

해리는 <예언자 일보>에 실린 기사를 읽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신문을 바라보았다. 해리의 표정을 재빨리 읽은 헤르미온느가 태연히 말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실리지 않았어.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 해리. 하지만 정말로 아무런 기사도 실리지 않았는걸. 나는 날마다 신문을 자세히 읽어 보았어. 세 번째 시험이 열렸던 다음날 아주 짧은 기사 몇 줄이 실렸을 뿐이야. 네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이겼다는 내용이었어. 케드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 다른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아마도 퍼지가 언론에게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명령했나 봐."

"하지만 리타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어. 더구나 이런 기사 거리를 말이야." 해리가 말했다.

"오, 리타 스키터는 세 번째 시합 이후로 그 어떤 기사도 쓰지 않았어." 헤르미온느가 이상하게도 무척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참 동안 리타 스키터는 아무런 기사도 쓰지 못할 거야. 내가 자기 비밀을 누설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이제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론이 물었다.

"나는 교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리타 스키터가 도대체 무슨 수로 사람들의 개인적인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지 알아냈어."

헤르미온느는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털어놓았다. 사실 해리는 지난 며칠 동안 헤르미온느가 원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헤르미온느는 상황이 상황인지를 간신히 참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냈니?"

해리와 론이 거의 동시에 헤르미온느를 쳐다보며 물었다.

"글쎄... 사실 내게 실마리를 주었던 사람은 바로 너였어, 해리."

헤르미온느가 활짝 웃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해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도청 장치 말이야."

헤르미온느는 아주 신이 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런 장치들은... 호그와트에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네 입으로..."

"물론 전자 도청 장치는 아니었지."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아니야. 그러니까 리타 스키터는..." 헤르미온느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마법부에 등록되지 않은 애니마구스였어. 그러니까 리타 스키터는... 변신을 할 수 있었던 거야."

헤르미온느는 가방을 열더니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유리병은 마개로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바로 딱정벌레로 말이지."

"웃기지 마. 그럴 수가... 그럴 리가 없어..."

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정말이야."

헤르미온느는 두 사람의 코앞에 유리병을 들이대더니 야단스럽게 흔들었다.

해리와 론은 물끄러미 유리병을 바라보았다. 유리병 속에는 작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커다랗고 통통한 딱정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지금 농담하는 거지?"

론은 얼른 헤르미온느의 손에서 유리병을 받아 들었다. 론이 투명한 유리병을 눈 높이까지 들어올리면서 중얼거렸다.

"절대로 아니야." 헤르미온느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병동에서 이 여자를 잡았어. 이 딱정벌레는 병동의 창틀 위를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었지. 자세히 살펴봐. 딱정벌레 더듬이 주위에 그 여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똑같은 모양의 무늬를 볼 수 있을 거야."

과연 그 딱정벌레의 더듬이 주위에는 안경 무늬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 문득 해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해그리드가 맥심 부인에게 자신의 엄마에 대해 고백하던 그날 밤에도

딱정벌레가 석상 위를 기어가고 있었어!"

크리스마스 무도회가 열리던 날 밤에 순록 석상 등을 기어가던 딱정벌레! 바로 그 딱정벌레가 리타 스키터였단 말인가?

"바로 그거야. 빅터 크룸과 내가 호숫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도 그 딱정벌레가 있었어. 빅터 크룸이 내 머리에 붙어 있던 딱정벌레를 떼어 주었지. 네 흉터에 통증을 느끼던 그 점술 수업 시간에도 리타는 분명히 창틀 위에 앉아 있었을 거야. 결국 리타 스키터는 지난 1년 내내 기사거리를 찾아서 봉봉거리고 날아다닌 셈이지."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말포이가 나무 그늘 밑에서 혼자 열심히 지껄였을 때에도..."

비로소 론이 이해가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변신한 리타 스키터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 말포이는 이 딱정벌레가 리타 스키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이런 방법으로 리타 스키터는 슬리데린 학생들과 멋진 인터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애들은 우리와 해그리드에 대해서 끔찍한 기사 거리만 제공할 수 있으면, 그 여자가 어떤 불법적인 짓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

헤르미온느는 론의 손에서 다시 유리병을 받아 들더니 딱정벌레를 향해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딱정벌레는 화가 난 듯이 봉봉거리면서 유리병에 달라붙었다.

"리타 스키터에게 말했어. 런던으로 돌아가면 놀아 주겠다고 말이야. 나는 이 유리병에 깨뜨릴 수 없는 마법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리타 스키터는 다시는 변신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리타 스키터에게 앞으로 1년 동안 그 속기 깃펜은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라고 말했어. 과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독한 거짓말을 쓰는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겠다고 말이야."

헤르미온느는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딱정벌레가 들어 있는 유리병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갑자기 객실 문이 벌컥 열렸다.

"아주 똑똑하군, 그레인저."

드레이이코 말포이가 떡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크레이브와 고일도 그 뒤에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거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말포이는 천천히 객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입가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을 둘러보았다.

"결국 너는 가련한 한 기자를 붙잡았고, 포터는 다시 덤블도어가 가장 총애하는 소년이 되었군... 정말 잘했어. 아주 훌륭한 거래야."

말포이는 더욱 능글맞게 웃었다. 크레이브와 고일도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겠지? 일어나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게 좋겠지?"

말포이가 세 사람을 둘러보면서 느물느물하게 말했다.

"꺼져!"

해리가 말포이를 노려보면서 외쳤다. 해리는 덤블도어가 캐드릭에 대해 연설을 하는 동안 말포이가 크레이브와 고일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본 이후로 말포이와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해리는 컷속이 웅웅거리면서 마구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요술지팡이를 움켜잡았다.

"포터, 너는 잘못된 편에 선 거야! 나는 경고했어! 나는 분명히 너에게 친구를 좀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말했어! 기억하고 있니? 우리가 처음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났을 때? 그때 나는 이 따위 인간 쓰레기들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했어." 말포이가 론과 헤르미온느를 향해 고갯짓을 하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포터! 어둠의 주인이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들이 제일 먼저 갈 거야! 머글 혼혈들과 머글 애호가들이 첫번째 희생물이지! 아니, 두번째라고 해야겠군. 디고리가 첫번째였으..."

그 순간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객실 안에서 폭죽을 한 상자 터뜨린 것처럼 사방에서 눈부신 마법의 불꽃이 번쩍였다.

해리는 눈부신 불꽃 때문에 눈이 멀 지경이었다. 연달아 들리는 굉음 때문에 귀가 아주 먹먹했다. 해리는 눈을 깜박이면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말포이, 크레이브, 고일, 세 사람은 모두 의식을 잃어버린 채 바닥에 텔썩 쓰러져 있었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세 사람의 발치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 모두 제각기 다른 주문을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주문을 쓴 사람은 비단 그들 세 사람만이 아니었다.

"세 녀석이 무슨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지 한 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지."

프레드가 고일을 타 넘고 객실 안으로 들어오면서 태평스럽게 말했다. 프레드는 손에 요술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조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지는 일부러 말포이를 발로 짓밟으면서 프레드의 뒤를 따라 객실 안으로 들어섰다.

"아주 재밌군. 그런데 누가 퍼넌쿨러스 마법을 썼지?"

조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크레이브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나야."

해리가 말했다.

"참 이상하군. 나는 옆가락 다리 마법을 썼는데... 마치 이 두 가지 마법은 서로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군. 이 녀석은 얼굴에 온통 작은 촉수가 돋아났잖아. 음... 이대로 세 녀석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지. 이 녀석들이 있으면, 미관상 보기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조지가 명랑하게 말했다. 론과 해리, 조지는, 의식을 잊고 열차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세 사람 모두 온갖 종류가 뒤섞인 주문을 동시에 맞는 바람에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된 것 같았다)을 발로 굴리면서 객실 밖으로 밀어 버렸다.

조지는 재빨리 객실의 문을 쾅 닫았다.

"폭발카드 놀이 할 사람?"

프레드가 카드 한 벌을 꺼내면서 말했다. 그들은 빙 둘러앉아서 카드 게임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섯 번째 게임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해리는 힐끗 고개를 돌려서 조지와 프레드를 쳐다보았다. 해리는 두 사람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 아무래도 지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어때, 형?"

해리가 조지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뭘?"

조지가 카드를 뒤적거리면서 반문했다.

"형들은 누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야?"

"아, 그거 말이야?"

어쩐지 조지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 거 아니야. 게다가 전혀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 어쨌거나 지금은 아니야." 프레드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이제는 그만 포기했어."

조지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대답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하지만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무슨 일인지 끈질기게 물어보았다.

"좋아, 좋아. 만약 너희들이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건 바로 루도 베그만이었어."

마침내 프레드가 입을 열었다.

"베그만? 그렇다면... 베그만이 이 일에 관련이..."

해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야. 그런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멍청해. 그럴 만한 머리도 없어."

조지가 심드렁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론이 재빨리 물었다.

"우리가 퀴디치 월드컵에서 그 사람과 내기를 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아일랜드가 승리를 거두지만, 크롬이 스니치를 잡을 거라고 했던 것 말이야."

프레드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응, 알고 있어."

해리와 론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우리에게 아일랜드팀의 마스코트인 레프러칸 요정이 뿐었던 금화를 우리에게 주었어."

"정말?"

"정말이라니까! 당연히 그 돈은 곧 사라지고 말았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구!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프레드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그렇지 않아?"

헤르미온느가 말하자, 조지가 씹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베그만에게 편지를 써서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알려 주기만 하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베그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 우리가 보낸 편지를 그냥 묵살해 버린 거야. 우리는

호그와트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 베그만과 의논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베그만은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피했지."

"결국에는 아주 험악하게 나오더군. 도박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야."

프레드가 투덜거렸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걸었던 돈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부탁했어." 조지가 잔뜩 인상을 쓰면서 말했다.

"설마 그것조차도 거절했던 말이야?"

헤르미온느는 깜짝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래! 거절했어!"

프레드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 형들이 애써 모았던 돈 전부잖아!"

론이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내가 다 설명할게. 물론 우리는 결국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냈어. 리조던의 아버지도 베그만에게 돈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지. 사실 베그만은 도깨비 때문에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었던 거야. 도깨비들에게 금화를 엄청 빌렸거든. 퀴디치 월드컵이 끝난 후에 도깨비 갱단이 베그만을 붙잡았어. 도깨비들은 베그만을 숲속으로 끌고 가서 가지고 있던 금화를 몽땅 빼앗았어. 하지만 그걸로도 베그만이 진 빚을 죄다 갚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베그만을 감시하기 위해 호그와트까지 쫓아왔던 거야. 베그만은 도박으로 전재산을 다 날린 채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지. 단돈 2 갈레온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멍청이가 어떻게 해서 빚을 갚았는지 알아?"

조지가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어떻게 갚았는데?"

해리가 물었다.

"베그만은 너에게 내기를 걸었어. 네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이긴다는 쪽에 엄청난 돈을 걸었지. 물론 도깨비들을 상대로 말이야."

프레드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거구나! 어쨌거나 내가 이겼잖아? 그렇다면 베그만은 형들에게 금화를 돌려줄 수 있었겠네?"

"전혀." 조지는 완강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도깨비들은 베그만만큼이나 치사했어. 도깨비들은 네가 디고리와 비겼다고 말했어. 베그만은 네가 단독으로 우승할 거라는 쪽에 내기를 걸었던 거야. 결국 베그만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지. 세 번째 시합이 끝나자마자, 베그만은 당장 도망을 치고 말았어." 조지는 땅이 풀 깨질 정도로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카드를 돌리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아주 즐겁게 흘러갔다. 해리는 이대로 여름 방학이 다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킹스 크로스 역에 영원히 도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해리가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배운 것처럼,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마침내 9와 4분의 3 번 승강장에 도착한 호그와트 급행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열차 통로는 요란한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은 학생들이 짐을 내릴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일이었다. 론과 헤르미온느는 아직도 통로에 쓰러져 있는 말포이와 고일, 크레이브를 피하면서 짐을 운반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프레드 형, 조지 형... 잠깐만 기다려."

쌍둥이들은 즉시 뒤를 돌아보았다. 해리는 트렁크를 열더니 트리위저드 상금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꺼냈다.

"이걸 받아."

해리는 조지의 손에 돈 주머니를 쥐어 주었다.

"뭐라구?"

프레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물었다.

"이걸 받으라구. 나는 이 돈을 갖고 싶지 않아."

해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조지는 한사코 해리에게 돈 주머니를 되돌려 주었다.

"아니, 난 멀쩡해. 그러니까 이걸 받아. 이 돈을 발명하는 데 써. 이건 장난감 가게를 위한 돈이야."

해리는 다시 돈 주머니를 내밀었다.

"쟤가 미쳤나 봐."

프레드가 거의 경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들어. 형들이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걸 시궁창에 던져 버릴 거야. 나는 이 돈을 받고 싶지 않아. 필요도 없어. 하지만 나는 한바탕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활짝 웃을 수만 있으면... 나는 머지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웃음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

해리가 딱 잘라 말했다.

"해리, 여기에는 1000 갈레온이 들었단 말이야."

조지는 손으로 돈 주머니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래. 그 돈이라면 얼마나 많은 카나리아 크림을 만들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봐, 형."

해리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쌍둥이들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해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다만 아주머니에게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주머니도 더 이상 형들이 마법부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해리..."

프레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해리는 요술지팡이를 불쑥 앞으로 내밀었다.

"부탁이야, 형! 이걸 받아. 그렇지 않으면 주문을 쏘겠어. 이제 나는 제법 쓸 만한 주문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이 돈으로 론에게 다른 예복 정장을 한 벌 사 주고... 형들이 선물했다고 말해줘."

해리는 아주 단호했다. 그는 쌍둥이 형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말포이와 크레이브, 고일을 성큼 타 넘더니 객실에서 나가 버렸다. 아직도 열차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저주를 맞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킹스 크로스 역 개찰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버논 이모부의 모습이 보였다. 위즐리 부인은 버논 이모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를 품에 꼭 끌어안으면서 재빨리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름 방학이 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 너를 우리집으로 보내 줄 것 같구나. 해리, 계속 연락하자꾸나."

"해리, 잘 가."

론이 해리의 등을 턱 치면서 인사했다.

"안녕, 해리!"

헤르미온느는 작별 인사를 하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헤르미온느가 해리의 뺨에 입을 맞추었던 것이다.

"해리, 고마워"

조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프레드는 해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열심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을 향해 눈을 한 번 징긋한 후에 버논 이모부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버논 이모부의 뒤를 따라 조용히 킹스 크로스 역에서 빠져나갔다. 더 이상 걱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더즐리네 자동차 뒷좌석에 올라타면서 해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해그리드의 말대로 어차피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야...

그리고 그 일이 닥치면,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거야.

<해리포터와 불의 잔> 끝

제 5 권에서 계속됩니다.

옮긴이의 말
현대의 성배
최인자(문학평론가)

불의 잔! 마침내 불의 잔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불의 잔을 가만히 응시한다. 불의 잔은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 시작한다. 나는 신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드디어 마법의 세계가 막을 올리는 것이다. 조앤 롤링은 '불의 잔'을 통해 온갖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신비와 감동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해리 포터와 불의 잔>은 그야말로 '현대의 성배'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에는 빛과 어둠이 골고루 스며들어 있다. 가뭄이 심할수록 한 모금의 물이 더욱 소중한 것처럼, 해리 포터는 복잡하게 얹힌 운명의 미로를 헤쳐 나가면서 용기와 지혜의 물줄기로 애타는 듯한 갈증을 시원하게 적신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조차도 무심코 지나갈 수 없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후반부로 갈 수록 그 의미가 증폭되면서 거미줄처럼 촘촘한 의미망을 형성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른바 '동화'라는 장르의 특성으로 인해 문학성에 대한 시비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과연 해리 포터를 진정한 문학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가?

조앤 롤링은 <해리 포터와 불의 잔>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 조앤 롤링은 영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출판문학상 중에 하나인 위트브레드상을 놓고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셔머스 히니와 경합을 벌인 끝에 안타깝게도 간발의 차로 수상을 놓쳤지만, 아마도 제 4 권이 미리 출간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은 해리 포터 시리즈가 <톰 소여의 모험>이나 <오즈의 마법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영원한 명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반증이다.

조앤 롤링은 마크 트웨인이나 키플링처럼 전형의 창조와 묘사, 치밀하고 황홀한 구성을 바탕으로 작품의 환상적인 구조를 지탱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조앤 롤링의 손끝에서 현대 문학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리 포터는 그야말로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리 포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리 포터와 불의 잔>은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출간되었던 작품들이 스토리 중심의 일개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 4 권은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성격을 불어넣으면서 그 형식과 내용을 더욱 확장시킨다.

"전편들에 비해 분량이 거의 두 배나 되고 가장 쓰기 힘들었던 작품"이라는 조앤 롤링의 고백대로, 이 책은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고민한 저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만만찮은 분량으로 인해 모두 네 권으로 출간된 <해리포터와 불의 잔>은 (처음에 우리는 이 책을 집어 드는 순간, 일반 소설을 압도하는 그 엄청난 분량으로 인해 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 동안 독자들은 순식간에 호그와트의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상반된 갈등으로 인해 몹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먼저 이 책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어서 빨리 속독을 하고 싶은 욕망과 마지막 책장을 넘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 천천히 정독하고 싶은 욕망이 서로 엇갈릴 것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고민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조앤 롤링은 이미 절묘하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사건들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해리 포터 제 5 권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인가?)

처음에는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외적인 흥미에 치중하던 조앤 롤링의 작품 세계가 내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너무나 섬세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해리 포터 매니아라면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의 개성과 거미줄처럼 깔린 복선을 느긋한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그 재미와 깊이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후반부로 이어지면서 얹힌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려 나가는 가슴 떨리는 재미와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모두 7권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시리즈의 반환점을 이루고 있는 '불의 잔'은 전체 작품의 방향과 형태를 잡아 주는 매우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불의 잔'은 빛과 어둠의 세계를 동시에 담아 내고 있다. 확고한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밝은' 호그와트와, 위험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어두운' 리들 하우스가 한꺼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해리 포터는 빛과 어둠의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해리 포터를 읽으면서 빛과 어둠의 양면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개학이 되어서 다시 호그와트로 돌아간 해리는 덤블도어로부터 올해에는 쿠디치 게임이 열리지 않는 대신에 트리위저드 시합을 개최하게 되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는다.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트리위저드 시합은 챔피언들의 용기와 미덕 그리고 지혜를 시험하는 무대이다. 해리는 헝가리의 혼테일과 싸우면서 용기를 익히고 인어들에게 사로잡힌 인질을 구출하면서 미덕을 쌓는다.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지키는 스핑크스와 지혜의 대결을 벌인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해리 포터와 불의 잔>은 마지막 4권으로 오면서,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모든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역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책읽기를 당부하고 싶다. 이 소설의 전반부가 늘어진다거나 전편에 비해 흥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것은 흙 속에 파묻힌 보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출간 즉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유명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었던 해리 포터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해리 포터가 우리의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설가들은 작품을 쓰면서 소설 속의 주인공을 위대한 영웅으로 포장한다. 그것은 소설 속의 주인공과 작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박한 영웅들(혹은 작가자신)은 모든 난관을 혼자의 힘으로 헤쳐 나가면서 정상에 다다른다. 결국 그런 영웅들은 우리가 도저히 접근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해리 포터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 해리 포터는 위대한 마법사의 재능을 타고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해리 포터는 친구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온갖 역경을 헤쳐 나간다. 결국 그 '불완전함'이 해리 포터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사랑을 둔뿍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해리 포터는 동양의 고유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지, 덕, 체를 한몸에 아우르는 진정한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하지만 그 영웅은 결코 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해리 포터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가질 수 있는 서사적 가치는 이러한 경로를 거치면서 초개인적이고 초시간적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해리 포터는 신의 신탁을 받아서 최정상에 우뚝 선 '강요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웅의 길로 접어든다. 물론 그 길에는 가슴 벅찬 감동과 용기, 그리고 희망이 깔려 있다.

해리 포터의 책장을 여는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마법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사이에 우리 모두는 또 다른 해리 포터가 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문명을 지배하는 디지털이나 영상 매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문자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 자체가 놀라운 마법의 힘이 아닐까!

자, 우리 모두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는 해리 포터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도록 하자.

